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허균(許筠) 산문의 한정(閒情)과 선취(仙趣)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김 영 연

허균(許筠) 산문의 한정(閒情)과 선취(仙趣)

지도교수 이 종 묵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김 영 연

김영연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허균(許筠, 1569~1618) 산문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허균의 작가적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7세기 초는 공적(公的) 산문의 발달에 못지 않게 사적(私的) 산문의 가능성이 모색된 시기로, 허균 역시 사적 산문의 표현 역량을 일신한 바 있기에 본고에서는 그의 산문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허균 산문에 나타나는 일상적 소재의 작품군과 초현실적 소재의 작품군이 어떤 논리로 한 문집 안에 공존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허균 산문의 창작 배경에 대한 고찰, 한정(閒情)의 미학과 문인 의식의 발현, 선취(仙趣)의 지향과 문사 정체성의 자각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

허균 산문의 창작 배경에 대한 고찰은 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허균의 자편(自編) 원고인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수록된 작품인지 여부를 살피고, 허균 소작으로 지목되는 기타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을 『성소부부고』 수록 산문으로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성소부부고』 수록 산문의 대부분이 창작된 1600~1611년 사이의 허균의 행적을 알아보았다. 이 기간에 허균 산문의 작풍은 대략 광해군의 즉위 시점과 맞물려 양분되며, 이 점은 허균이 관직 경력 초기에 가졌을 환로(宦路)에 대한 전망이 광해군 즉위 이후 급격히 좌절되어간 정황과 유관하다고 보았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 허균은 문명(文名)을 획득함으로써 정계에서 좌절된 소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저작 동기를 지니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허균 저술의 개성을 특징짓는 데 있어 주지번(朱之蕃)과의 만남이나 왕세정(王世貞)의 저작에 대한 애호, 명 중기 강남(江南) 사대부 문화 전반에 대한 애호가 중요 요소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예비적 논의를 바탕으로 허균의 산문을 생애사적 추이에 유념하여 분석하였다. 허균 산문의 작풍은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한정(閒情)'의 미학을 추구하는 지향이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 1608년 이후를 기점으로 '선취(仙趣)'가 부상하면서 신선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본고에서는 '한정'이란 은둔하는 사대부가 재야의 삶을 평화롭고 고상하게 꾸리는 가운데 추구하게 되는 미적 지향을 가리키는 말로, '선취'는 신선과 유관한 초월적 세계를 형상화하려는 작자의 취향을 지목하기 위한 용어로 활용하였다.

우선 한정의 미학은 척독 장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허균의 척독에는 『세설신어』의 청언(淸言)이 보여준 것처럼 관직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유로운 생활을 구가하는 모습, 평온한 심리 상태, 고상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지향이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허균은 '한정'을 본성에 충실한 삶이라는 의미로 재정의하여 내적 조건의 측면을 중시하였다. 또한 『세설신어』의 청담(淸淡)이 상호 토론과 경쟁의 일환으로 행해졌던 점과 관련하여, 허균의 척독에서도 짧은 문장에 촌철살인의 표현을 담아 말주변을 자랑하는 국면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허균은 인물의 외면을 통해 그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창작에 중요하게 활용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서화 감상 능력을 중시하였다. 특히 서화 감상 활동은 명대 강남 사대부 사회에서 엘리트 정체성의 핵심을 구성한 요소 중 하나로, 그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허균의 필요에 부응하였다. 그와 더불어 허균은 산문의 소재로 미식이나 미색과 같은 영역에도 주목하여 일상을 탐미적 활동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다음으로 초현실적 소재를 다룬 작품군을 기몽(記夢) 산문과 신선담 소재 산문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여기서는 기몽 산문에 나타나는 '픽셔널리티(fictionality, 허구성)'가 갖는 시공간적 특수성에 유념해야 한다는 점, 그 픽셔널리티는 '반(半) 사실성'의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17세기 조선의 특수한 산물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비체험을 그린 산문들이 수행적 발화(perfomative utterance)의 차원을 갖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발화 수행을 통해 유희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또한 신선담 소재의 작품들에서도 자신의 문장력에 대한 자부를 드러내거나, 이 세상과 저세상의 간 위계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작자의 취향과 재능을 부각하려는 의도에 봉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허균 산문에서 한정의 미학은 저변을 이루고, 선취의 지향은 그 변주를 형성하고 있다. 그의 산문은 정계에서 좌절된 상승 욕구를 문학 창작을 통해 해소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 남부의 문학 전통을 응축한 『세설신어』의 미학, 도가서 등에서 발췌한 다양한 은어, 허구적 상상력을 활용함으로써 창작 활동의 참조점을 확대하고 자신이 탁월하다고 믿는 취향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 주제와 표현 형식의 양면에서 이 시기 사적 산문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주요어 : 허균(許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한정(閒情), 『세설신어(世說新語)』, 선취(仙趣), 픽셔널리티(fictionality)

학 번 : 2014-30003

목 차

Ⅰ. 서론 ····· 1

Ⅱ. 허균 산문의 창작 배경 ····· 16
1. 산문 작품의 현황과 창작 시기 ····· 16
1) 산문 작품의 현황 ····· 16
2) 작품 활동의 시기 구분 ····· 21
2. 정계(政界)와의 불화와 문명(文名)의 추구 ····· 42
1) 정계와의 불화 ····· 42
2) 출세욕과 문명의 추구 ····· 54
3. 명대 문화에 대한 관심 ····· 66
1) 명대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주지번(朱之蕃) ····· 66
2) 왕세정(王世貞) 저작에 대한 선망 ····· 70
3) 강남(江南) 문화에 대한 관심 ····· 78

Ⅲ. 한정의 미학과 문인 의식 ····· 93
1. 한정의 미학과 청언(淸言) 양식 ····· 93
1) 세설체(世說體) 전통과 한정의 재정의 ····· 93
2) 단형(短形)의 글쓰기와 청언의 활용 ····· 113
2. 문인 의식의 발현 양상 ····· 136
1) 인물 전범의 설정과 서화 감상학 ····· 136
2) 미식과 미색의 향유 ····· 154

Ⅳ. 선취의 지향과 문사(文士) 정체성 ····· 175
1. 기몽(記夢) 산문과 신선 담론 ····· 175
1) 기몽 산문과 픽션(fiction) ····· 175
2) 신선 담론과 인물 이미지의 활용 ····· 202
2. 유희적 작법과 문사 정체성의 정립 ····· 227
1) 신비체험의 서술과 유희적 작법의 모색 ····· 227

2) 유희적 작법의 심화와 문사 정체성 ····· 238

Ⅴ. 결론 ····· 259

부록 ····· 267
참고문헌 ····· 276
Abstract ····· 298

표 목차

[표 1] 입사(入仕) 초 허균의 관력 및 주요 사실 ····· 42
[표 2] 1608~1611년까지 허균의 관력 및 주요 사실 ····· 49
[표 3] 허균 척독의 수신인 상황 일람 ····· 132
[표 4] 「열선찬」과 『유상 열선전전』의 비교 ····· 219

그림 목차

[그림 1] 「척독 상」(권20)의 수신인 ····· 135
[그림 1] 「척독 하」(권21)의 수신인 ····· 135

Ⅰ. 서론

본고에서는 허균(許筠, 1569~1618) 산문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허균의 작가적 정체성을 규명하려 한다. 허균은 선조 말년에서 광해군 초년에 걸쳐 활동한 작가로 조선 문단은 이 시기에 이른바 목릉성세(穆陵盛世)라 불리는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그렇게 된 데에는 임란 시기 명군(明軍)과의 교유나, 그로 인한 명대 강남 문화에 대한 이해의 제고,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존재 조건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마련된 점이 지목되어 왔다.[1] 또한 사상사적으로도 이 시기는 17세기 중반 명청 교체 이후 지식인층의 사상적 교조화가 비교적 덜 이루어진 때로,[2] 그 이후에 비하여 문학적 표현의 주제 면에서 다양한 사상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던 역동적인 시기이다. 그중에서도 허균은 동시대 작가들에 비해 더 자유분방한 사유를 전개한 문인으로 이해되어 왔다.[3] 본고에서는 허균의 산문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평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허균이 활동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산문 창작의 경향이 일변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사부(辭賦)와 변문(駢文), 관각문(館閣文) 등이 관료 문인들의 산문 창작의 주종을 이루던 조선 전기와 달리[4] 16세기 후반에는 전(傳)이나 척독(尺牘)을 비롯해 기몽류(記夢類) 산문이나 잡저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생활 세계의 담론이나 개인의 내면 표현을 시도하는 경향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5] 특히 이 시기에는 윤근수나 최립과 같은 문장가들에 의해 전후칠자(前後七子)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선에서도 다양한 문장 선집을 출간함에 따라, 전범의 설정

---

1) 이종묵, 「버클리대학본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39, 태학사, 2007, 201~202쪽;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120~124, 131~137쪽.

2) Youngmin Kim and Youngyeon Kim, “Confucianism in Korea: Chosŏn Dynasty,” *The Oxford Handbook of Confucia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pp. 303-304; 박병련, 「조선중기 엘리트 관료의 정치사상적 특성: 서경 유근(西坰 柳根)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0(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1, 33~43쪽.

3)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187쪽; 장덕순, 「허균문학의 문학사적 위치」, 김동욱 편, 『허균 연구』, 새문사, 1981, 47~66쪽; 송재소, 「허균의 사상사적 위치」, 앞의 책, 67~79쪽; 임형택, 「許筠의 文藝思想」, 『韓國文學史의 視覺』, 創作과批評社, 1984, 100~109쪽 등.

4) 김우정, 「조선전기 한문산문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65, 한국한문학회, 2017, 92쪽.

5) 심경호, 「한국 한문산문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64, 한국한문학회, 2016, 86~92쪽.

이나 문장학습의 방법, 바람직한 문체와 수사법, 역대 작가들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광범위한 논쟁이 촉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산문사에 있어 새로운 국면이 열린 시기로 평가된다.[6]

허균은 이러한 산문 창작의 전기(轉機) 속에 놓여 있던 작가로서, 이 시기 산문사에서 부상한 사안들, 가령 척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문집 속에 명시화 한 점이라든지, 일상생활의 소재를 산문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격상한 흔적이 있고, 전후칠자를 비롯한 명대 문단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관련한 저술을 남겼다. 또한 허균의 미간행 문집 『성소부부고』에는 동시대 관료 문인들의 문집에 비하여 공용문(公用文)의 비중이 현저히 적고 사적인 소재를 전면에 부각한 작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 시기 문단에서 사적 산문이 부상하고 있던 경향의 단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허균의 산문에 대한 탐구는 이 시기 산문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허균은 자신이 처형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속했다고 하는 북인 그룹도 광해군의 실각과 함께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인멸되다시피 하여, 정파와 학파·문파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조선 후기의 지성계에서 허균의 작품은 공공연히 읽히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내내 허균의 글은 필사본으로만 전해질 수 있었다. 더러 허균의 문집을 간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고,[7] 이덕무(李德懋)나 이유원(李裕元) 같은 인물의 문집에 허균의 글을 읽은 흔적이 발견되지만, 허균의 글은 여느 작가의 글처럼 저자 사후에 나온 산문 선집에 수록될 수는 없었다. 이 점은 17세기의 유명 관료 문인 중에 허균의 글만 유독 조선시대 내내 편향된 평가를 받게 된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력은 근대 대학 제도 내에서 허균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강한 반작용의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더러 허균에 대한 조선시대의 부정적 평가를 답습한 사례도 있지만 20세기 중반 동안 학계의 주류를 이룬 견해는 허균을 개혁가로 보는 관점이었다.

초기 연구사에서 허균은 이른바 초기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작가라 하여 민족 고유의 문자로 창작 활동을 개시한 작가로 주목되었다.[8] 허균이 과연 「홍길동전」

---

6) 김우정, 「선조·광해 연간 文風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39, 한국한문학회, 2007a 참조.

7) 이민구, 『동주집』 문집 권1, 「答吳三宰論選西坰集簡約兼示覆瓿稿書」, "所示覆瓿稿者, 范蔚宗、謝康樂, 皆有遺文傳後, 何不可也."

8) 한국에 근대 대학 제도가 들어선 이후로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설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김태준이라는 것이 통설이나, 이윤석에 의하면 다카하시 도루가 그보다 먼저 「홍길동전」을 허균이 지었다는 이식(李植)의 기록과 세간의 「홍길동전」을 연결시켰다고도 한다. 이윤석, 「홍길동전 작자 논의의 계보」,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의 작가인가에 대해서는 그 설이 제기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를 회의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9]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라는 설은 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허균 상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10]

허균이 한글 소설을 창작했다는 설은 한글이 피지배층에 의해 주로 향유된 문자라는 점과 관련하여 허균의 사상적 입장을 파악하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허균의 「홍길동전」'은 종종 「호민론(豪民論)」·「유재론(遺才論)」과 결부되어 논의됨으로써,[11] 허균이 서얼 차별에 반대했으며 민(民)의 정치적 역량을 긍정했다는 식의 인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거론되었다.[12] 역모 혐의로 죽음에 이른 그의 생애사적 사실로부터, 허균이 민의 역량을 규합하여 개혁이나 혁명을 기도했다는 식의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13] 허균을 급진적 사상가로 판단했던 연구자들은 허균이 조선에서 최초로 천주교를 도입했다든지,[14] 공안파(公安派) 사조에 공명했다든지,[15] 만년에 도교나 양명학에 호의적이었다든지 하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했다.[16] 허균의 작

405~411쪽.

9) 이능우, 「許筠論」, 『論文集』 5, 숙명여자대학교, 1965; 김진세, 「洪吉童傳의 作者考」, 『논문집』 1집,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969 참조.

10) 허균의 「홍길동전」 작자설을 지지하는 의견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임형택, 『동아시아 서사와 한국소설사론』, 소명출판, 2022, 217쪽. 허균의 「홍길동전」 작자설을 긍정한 가운데 허균을 혁명가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지지한 근래의 논의로 한영우, 『허균 평전 : 천재 혁명사상가, 실학자』, 민속원, 2022 참조.

11)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9, 205~206쪽; 서대석, 「허균 문학의 연구사적 비판」, 앞의 책, 1981, Ⅱ-38쪽.

12) 송재소, 앞의 논문, Ⅱ-79쪽; 임형택, 앞의 논문, 108쪽. 이이화, 『허균의 생각』, 교유서가, 2014.104~121쪽.

13) 소재영, 「허균의 생애와 문학」, 김동욱 편, 『허균 연구』, 새문사, 1981, Ⅱ-16~Ⅱ-19쪽. 차용주, 『허균연구』, 경인문화사, 1998.

14) 허균의 천주교 도입설에 대한 연구사 정리로 곽정례, 「許氏五文章家의 文學的 背景과 活動에 대한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11~225쪽.

15) 허균이 공안파 사조에 공명했다는 설과 그에 대해 시비한 논의로 강명관, 「허균과 명대 문학: 허균문학 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13(1), 민족문학사학회, 1998 참조.

16) 박영호, 『허균문학과 도교사상』, 태학사, 1999; 전상모, 「교산 허균 서화취향의 도교적 경향성」, 『미술문화연구』 6, 동서미술문화학회, 2015; 劉明鍾, 『韓國의 陽明學』, 同和出版社, 1983; 이종호, 「허균 문예사상의 좌파양명학 성향」(Ⅰ), 『韓國思想과 文化』 1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신향림, 「許筠의 陽明左派 수용에 대한 再論 -『乙丙朝天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8, 한국한문학회, 2017. 이상과 같이 허균을 피치자의 대변인이자 사회 개혁의 기수로 묘사하는 연구사적 내력은 20세기 후반 군사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에의 지향이 지성계 전반에 드리워 있던 학계 외적 상황과도 유관하다. 조선시대에 주류 이념과는 결을 달리하는 사상 지향을 바탕으로 문필 활동을 하다가 처형된 인물이라는 허균 상은 부조리에 맞서는 지식인 상을 투영하기에 편리한 대상이기도 했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김우정, 「허균 산문의 연구 – 산문 텍스트의 확장과 문예미를 중심

품 중 신선 세계를 비롯한 초현실적 소재를 마치 사실이라는 식의 어조로 서술해 놓은 작품들은 작가가 도교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었다.[17]

허균이 이단적 사상에 관심을 표한 점은 그가 문학사적으로도 전격적 혁신을 추구한 인물이라는 견해로 이어져, 허균이 창작한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등의 작품들도 이른바 '소설'이라고 하는 신 형식을 개척한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도 등장했다.[18] 「장산인전(張山人傳)」, 「남궁선생전」, 「장생전(蔣生傳)」과 같은 이른바 신선전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들 작품에 허구적 상상력의 개입이 현저하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들 작품에는 소설적 지향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19] 「남궁선생전」을 기성의 전(傳) 형식과는 다른 '소설'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더라도,[20] 이 작품을 두고 장르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는 점은 소재 선택이나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작가적 기량에 있어서 전에 없던 참신성이 인정된다는 방증일 것이다.

다만 허균의 신선전을 비롯해 「몽기(夢記)」 등과 같이 초현실적 소재가 문면에 드러나는 작품들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시각에서는 이들 산문 작품이 작자의 허구적 상상력을 개입시킨 국면을 중시해 왔다. 가령 「남궁선생전」을 두고 조선시대의 신선전 전체로 보아도 분방한 상상력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라고 평한다든지,[21] 허

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b, 274쪽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17) 박영호, 앞의 책, 117~137쪽.

18) 특히 조동일은 김시습과 허균을 묶어 기성 체제에 대한 비판자로 파악한 위에 이들이 「금오신화」나 「남궁선생전」 같은 작품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상호 우위에 입각한 대결을 묘사함으로써 '소설'이라고 하는 신 장르를 창출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조동일, 앞의 책, 198, 268쪽.

19) 대표적 사례로 박희병, 「한국문학에 있어 '傳'과 '소설'의 관계양상」,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회, 1989, 39쪽. (이 논문은 박희병,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171~188쪽에 재수록되었다. 관련 내용은 해당 책 181쪽 참조) 「남궁선생전」을 소설로 보는 견해는 현재까지도 계승되어 학계의 주류적 견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다음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정길수, 『17세기 한국 소설사』, 알렙, 2016, 46~59쪽.

20) 가령 허균의 신선전을 비롯한 박지원의 「김신선전」 등 일군의 신선전을 소설이 아니라 사마천 이래 傳 양식의 일부로 보는 견해로는 김명호, 「신선전에 대하여」, 『(韓國)판소리·古典文學硏究』, 새터 강한영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亞細亞文化社, 1983. 여기서는 「남궁선생전」의 입전 인물 남궁두의 불행한 일생이 그 자신의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개개의 삽화가 점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해당 논문 665~666쪽.)

21)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 『韓國古典人物傳硏究』, 한길사, 1992, 207쪽. 해당 글에서는 「남궁선생전」을 허균이 남궁두에게 들은 이야기, 세간에 전해지던 설화, 허균 자신의 허구적 상상에 의한 보충이 종합되어 이루어진 작품으로 본다.

균의 기몽류 산문을 두고 종래의 '기사지문(紀事之文)'의 성격에서 벗어나 허구적 세계를 가상하여 이룩한 서사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2] 분명 허균의 산문에 묘사되는 초현실적 사건들은 실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을 리 없다는 점에서는 허구적 상상력이 개입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허구'나 '상상'에 기초했다는 이유로 높이 평가한 허균의 작법을 두고, 허균 생전의 논자들은 '날조'나 '허위'로 평가 절하하였다.[23] 이러한 사실은 허균이 초현실적 소재를 가지고 이른바 '허구적 상상력'을 발휘한 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좋을지에 대해 일방적 찬사나 폄하를 넘어서 일정한 이론적 논의에 입각한 평가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허균의 한문 작품들에 대한 이상과 같은 연구들에서는 각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초현실적 소재를 다룬 작품들에 주로 주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작자가 삶에서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서, 또는 성리학 일변도의 주류 사회에 대한 응전의 일환으로 도교에 경도했다고 보았다. 이를 편의상 1세대 연구라 지칭하겠다.

2000년대 무렵 소품문 연구의 흥기와 더불어 허균 산문을 보는 시각도 일변하였다. 이를 1세대 연구와 구별하여 2세대 연구라 칭하겠다. 이 시기에는 현재의 독자들에게도 일정한 호소력을 가진다고 여겨진 서정적 소품 계열의 한문 산문들을 소개하고 이들 작품의 문예미를 고찰하는 접근 방식이 연구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면서, 그러한 소품적 정취를 발견할 수 있는 허균의 산문 작품들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이루어졌다.[24] 그렇게 하여 허균의 척독이나 정통 한문 중 문예미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주목되었다.[25] 이 과정에서 보기에 따라 '소품체' 산문의 집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한정록』의 인용서목이 실증적으로 고구되어,[26] 허균이 관심을 가졌던

---

22) 이문규, 『허균문학의 실상과 전망』, 새문사, 2005, 36~37쪽.

23) 『광해군일기』 6년(1614년) 10월 10일 기축 5번째 기사, "筠文才甚高, 下筆數千言. 然好作贋書, 自山水讖說, 仙佛異迹, 皆自僞撰, 其文勝於常時述作, 人莫能辨."

24) 김풍기, 「조선 중기 古文의 小品文的 성향과 許筠의 尺牘」, 『民族文化硏究』 35, 民族文化硏究, 2001; 김성진, 「朝鮮後期 小品文과 養生」,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25) 배미정, 「朝鮮 後期 尺牘文學의 流行과 그 背景 -申靖夏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성진, 「허균의 척독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이규운, 「許筠의 文章論과 그 구현 양상」,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26) 김은슬, 「「閒情錄」 現傳本에 나타난 문헌의 인용방식과 그 체계」, 『서지학보』 33, 한국서지학회, 2009; 김은슬, 「「閒情錄」의 인용문헌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은정, 「『小窓淸記』 異本과 17세기 초반 朝鮮에서의 수용 양상」, 『韓國漢文學硏究』 47, 한국한문학회, 2011; 송신가, 「허균 『閒情錄』의 연구-명대 『小窓淸記』 청언소품과의

군소 작가들의 성명과 허균이 인용한 서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가 하는 점이 규명되었다. 또한 『한정록』이 청언(淸言) 선집인 점에 착안하여 『한정록』을 신흠(申欽, 1566~1628)의 청언 선집 『야언(野言)』과 비교함으로써 명대 청언 산문을 수집한 허균의 작업이 갖는 특성이 조명될 수 있었다.[27] 이러한 연구를 통해 특정 소재를 다룬 허균의 일부 작품에만 편중되었던 종전의 편향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허균을 정통 한문학 작가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 속에서 명대 문단, 특히 전후칠자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논쟁이 격발되기도 했다. 강명관은 허균이 공안파로부터 영향받은 작가라는 통념을 부인하면서 전후칠자, 이른바 '의고문파' 내지 '진한고문파(秦漢古文派)'의 영수 왕세정(王世貞, 1526~1590)과 허균 작품의 관련성을 강조했다.[28] 이에 대해 허균은 그다지 전후칠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거나, 전후칠자의 문학적 입장을 단순화한 데서 비롯한 오해라거나, '진한고문파'와 '당송고문파'라는 개념 자체의 부적절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29] 하지만 강명관의 설은 그전까지 간과된 측면, 즉 허균이 『성소부부고』 수록작을 창작하는 동안에는 원굉도를 비롯한 공안파 저작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던 점과 왕세정의 문학을 혹애했다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종전에 당연시되었던 허균 문학에 대한 상을 교정하는 데 기여했다.[30] 또한 허균의 시론(詩論)이 명대 전후칠자의 이론을 상당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었다고 하는 지적은[31] 허균의 문학

대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그 밖에 『한정록』의 초기 연구의 한 사례로 김석하, 「許筠의 「閒情錄」 硏究」, 『韓國文學의 樂園思想 硏究』, 日新社, 1973, 152~170쪽; 박영호, 「《閒情錄》 硏究」, 『韓國道敎와 道家思想』 5, 한국도교사상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91, 237~255쪽; 한영규, 「'한적(閑寂)'의 선망과 『한정록(閒情錄)』」, 『문헌과해석』 19, 문헌과해석사, 2002. 『한정록』을 문화사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로 김성욱, 「17세기 조선의 한거문화와 허균의 한정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1 참조.

27) 김은정, 「申欽의 淸言 선록집 『野言』 연구」,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

28) 강명관, 앞의 논문.

29) 허균 산문에는 전후칠자들이 애호했던 의고적 작법보다는 당송문의 구법이 두드러진다는 견해를 제기한 사례로 김우정, 「허균 산문의 연구 – 산문 텍스트의 확장과 문예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b. 강명관의 연구에서 명대 유파에 대한 서술이 과도하게 단순화되었다는 지적으로 박경남, 「金昌協의 비판을 통해 본 王世貞 散文의 진면목」,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165~166쪽. 장유승은 '진한파'의 전범은 진한파에 국한되지 않으며 '당송파'의 전범은 송대에 치우쳐 있다는 점, '진한파 대 당송파'의 대립구도가 조선시대 문학사 이해를 단순화 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개념의 사용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장유승, 「전후칠자 수용과 진한고문파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문학논집』 36, 근역한문학회, 2013, 117~123쪽.

30) 정길수, 「허균 문학론의 모순과 일관 – 왕세정 혹은 의고문파 문학론과의 연관-」, 『한국한문학연구』 51, 한국한문학회, 2013.

에서 전후칠자의 흔적이 중시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해 준다.

또한 허균이 남긴 기(記)·서(序)·발(跋) 같은 장르나 한시 등 정통 한문학 양식의 시문(詩文) 작품들의 내용과 그 문예미를 한문 전통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연구들이 있다. 『을병조천록(乙丙朝天錄)』에 실린 허균의 후기 한시 작품들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들은 생애 말기의 허균이 양명 우파 서적을 읽었을 뿐 양명 좌파에 경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32] 이런 작업을 통해 말년의 허균이 사상적 급진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던 1세대 연구의 편향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었다. 『성소부부고』 수록 산문의 경우, 전후칠자의 문학에 허균이 주목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산문 창작에 있어서는 당송고문 식의 평이한 작법을 주로 사용했음이 지적되기도 했다.[33]

이와 더불어 허균이 당대의 명 문인과 접촉한 이력이 구체적으로 규명됨으로써 허균 문학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구성되어 갔던가를 해명할 단서가 마련되었다. 허균이 공안파 문인 구탄(丘坦, 1564~?)과 실제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성소부부고』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공안파 서적을 열람할 수 있었을 정황들이 보고됨에 따라, 공안파로부터 허균이 영향을 받은 적 없다는 설이 재검토될 여지가 마련되었다.[34] 하지만 허균이 공안파 문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허균이 공안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과 등치될 수는 없는 만큼, 허균이 공안파 문인 1인과 접촉했다는 사실로부터 허균 문학과 공안파의 무관성을 주장한 설이 반박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또한 허균이 남긴 작품에 대한 추가 발굴도 2세대에 와서 이루어졌다. 2003년에 『을병조천록』이 발견되면서 『성소부부고』 이후의 허균의 작품 활동 이력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35] 심경호는 『을병조천록』에 대한 연구에서 허균 만년의 사상이 양명 좌파 쪽으로의 전도를 보인 것이 아니며, 화평돈후(和平敦厚)의 미학을 추구한 점을 강조했다.[36] 최근에는 『해동야언별집(海東野言別集)』이 허균의 저작임이 밝혀

---

31) 노경희, 「17세기 전반 조선과 18세기 에도 문단의 明代 前後七子 詩論 수용」, 『고전문학연구』 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32) 정길수, 「허균의 사상전환 - 을병조천록에 담긴 허균 만년의 생각」, 『한국문화』 6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허균, 심경호 역, 『허균전집2: 을병조천록』, 보고사, 2022, 43~44쪽.

33) 김우정, 앞의 논문 참조.

34) 안나미, 「17세기 전후 韓中 문학교류 연구 - 晩明 文學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5) 허균, 최강현 역, 『국역 을병조천록』,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편집, 국립중앙도서관, 2005; 심경호, 「허균의 기행시집 『을병조천록』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학회, 2019.

지기도 했다.[37]

2세대 연구들은 초창기 연구에서 이단아나 혁명가로 그려졌던 허균 상을 상당히 시정하고 당대 문단의 주류적 흐름을 충실히 학습했던 작가로서의 측면을 조명하였다.[38] 다만 2세대 연구들은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허균의 다양한 면모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둔 결과, 초창기 연구에서 주목했던 작품군, 즉 비일상적 소재를 주로 다룬 작품들에 대한 이해를 갱신하는 작업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결과 초창기 연구에서 주목된 초현실 묘사가 약여한 작품군과 2세대 연구에서 주목한 일반적인 한문 산문의 규범에 부합하는 작품군이 상호 어떤 관련을 맺으면서 한 작가의 양면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졌다.

가령 1세대 연구에서 주로 주목한 작품들이 초현실적 소재를 다룬 전(傳)이나 기(記)였던 반면, 2세대 연구에서는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유보한 채 현실적 소재를 다룬 서(序)나 제발(題跋) 작품들에 주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세대 연구에서는 1세대 연구와 달리 주목하는 작품군 자체를 달리함으로써 허균이 당대의 문학적 규범을 충실히 학습하고 동시대 작가들과 활발히 소통한 국면을 드러내었다. 이런 작업을 통해 허균이라는 문인이 주류 사회에 저항하거나 체제 전복을 꾀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부수적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전 세대 연구에서 그려 놓은 이단아로서의 허균 상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양 세대에 걸친 선행연구들에서는 각기 다른 작품군을 대상으로 허균의 작품에 접근함으로써 허균이 지닌 부면(部面)들은 어느 정도 규명했지만, 각 부분들이 전체로 종합될 때 허균 상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였다.

한편 초기 연구들에서는 허균의 「홍길동전」 작자설을 준신한 위에서 허균의 한문 작품들에 나타나는 경향이 「홍길동전」 창작을 향한 전(前) 단계였다는 식으로 설명하거나,[39]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통적 양식인 '전(傳)'에서 신 양식인 '소설' 창

---

36) 심경호, 「허균의 기행시집 『을병조천록』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학회, 2019.

37) 임미정, 「許筠 編著의 現況과 課題」, 『語文硏究』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389~392쪽.

38) 신승훈,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기 문학이론의 다변화 양상 : 유몽인·이수광·신흠·허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신영주, 「17세기 문인들의 趣의 구현과 서화금석에 대한 관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안세현, 「조선중기 누정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안득용, 「16세기 후반~17세기 후반 산문의 구도와 전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풍기, 『독서광 허균』, 그물, 2013.

39) 이문규, 『허균문학의 실상과 전망』, 새문사, 2005.

작으로 작가적 역량을 일신해 갔다고 보기도 했다.[40] 이러한 설명법은 다분히 목적론적인 것으로, 문학사의 전개라는 견지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가론의 차원에서는, 한 인간의 삶이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결실을 이룬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전개되어 갔다고 하는 식의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설령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라 할지라도 말년에 이룬 작품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이전 시기의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그보다는 젊은 시절의 허균이 시도한 다양한 모색 속에서 낙착된 가능성으로서 허균의 후기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허균이 신선이나 혼령을 소재로 하여 초현실적 줄거리를 전면에 드러낸 작품들은 초기 연구사에서는 허균 문학이 지닌 혁신성을 드러내는 의도에서 적극 부각하였는데, 보통의 한문 산문을 특필한 후세대 연구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연구 대상으로 선호되기 어려웠다. 이들 연구는 일반적인 산문사의 견지에서 허균의 좌표를 가늠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에 초현실적 소재가 부각된 허균의 작품들은 기왕의 견해들이 얼마나 설명력을 지니는지 하는 점도 재론되지 않은 채, 연구의 사각지대에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 흔히 소설로 운위되는 「남궁선생전」이 아니라도 「수헐원신영선찬기(愁歇院神詠仙贊記)」처럼 혼령과의 만남과 같은 일화를 담은 작품들은, 그 작품들이 『기재기이(企齋記異)』나 『어우야담(於于野談)』처럼 별도의 책자로 묶여 전해진 것이 아니라 버젓이 문집의 일부로 수록되어 있음에도,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선택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초현실적 소재를 위주로 한 작품을 평범한 내용의 작품과 나란히 넣어 놓은 허균의 선택은 그것이 문제로 자각되지도 못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첫째, 허균 산문에 나타나는 초현실적 소재의 작품들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해명, 둘째, 현실적 소재와 초현실적 소재를 다룬 양대 작품들의 문집 속 공존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이 연구사적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1세대와 2세대 연구를 종합하고 보완하는 가운데 허균 산문에서 초현실적 소재를 부각한 작품들과, 일상적 소재를 통해 한문 장르의 전통적 규범을 준수한 작품을 쓴 주류 엘리트 문인이라는 측면이 한 작가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 맺음의 양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지를 탐구해 보려 한다.

선행 연구에서 형성되어온 두 가지 허균 상을 일관되게 통합하려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우선 연구 초창기에 주목된 작품들, 즉 신선과 같은 초현실적 소재를 부각하는 동시에 서사적 지향이 강하게 나타난 작품들과 후

4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Ⅲ, (4판), 지식산업사, 2005, 94~96쪽.

기 연구에서 주목된 평범한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한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한 작가의 문집 안에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해명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허균 산문의 두 계통을 이루고 있는 작품들의 창작 시기를 살펴봄으로써 시기에 따른 작풍 변화가 나타나는지, 전 생애에 걸쳐서 두 종류의 작풍을 혼용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작가 자신이 관계(官界)에서의 은퇴를 희구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이나, 이른바 '도가적'이거나 '탈속적' 문학 세계를 보여주었다고도 평가되는 일련의 산문들을 염두에 둘 때, 작가가 말년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사실은 문집에서 나타나는 발언들과 상충된다. 『성소부부고』에 은둔 지향적 발언이 다수 등장함에도 이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허균은 기꺼이 정치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은둔 지향적 발언과 정치 참여적 지향의 공존은 어떻게 모순 없이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본고는 답하고자 한다.

이상의 주된 연구 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허균이라는 작가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반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수적인 질문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허균의 자기 이해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허균 자신이 설정한 생의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허균에 대한 일반적 이해, 가령 허균은 명문가 자제로 태어났으나 서자를 비롯한 비주류 인사들과 친밀했으며, 불교나 도교, 양명학 등 소위 이단 사상에 관심을 가졌다는 시각, 부안 은거 시절이나 말년에는 여론 선동의 기수로 활약했다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어디까지 온당하며, 만약 부분적으로 온당한 대목이 있다면 그런 대목은 허균의 문학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짚어보려 한다. 이러한 사안들은 허균의 작가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사대부라고 하는 사회 내 신분상의 정체성, 즉 관료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허균의 문학이란 것은 관료 예비군으로서 관료 생활에 소용되는 시문 창작 능력을 연마하는 데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자료를 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허균의 자기 이해 및 그와 관련된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상성이나 가치지향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어야 한다. 사상이나 가치지향을 드러내는 데에는 즉자적인 감회를 표현하는 데 치중하거나 운자 사용의 제약을 받는 시에 비해서 논리 전개를 중시하는 산문의 서술 방식이 유리하다. 물론 『성소부부고』의 한시는 저작연대별로 묶여 있어 허균의 연대별 행적과 그에 따른 내면의 변화를 살피는데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산문을 살피는 데에도 유용하다. 하지만 허균이 활동한 시기는 조선시대 산문사에서 사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장르로서 산문의 역할이 증대된 시기였을 뿐 아니라[41] 허균 역시 신흥 장르의 가능성과 기존 장르의 혁신 방법을 모색한 흔적이 뚜렷하다. 허균은 산문 창작을 통하여 관료로서의 자신뿐 아니라 독서인, 시문 편찬자, 문학작품의 창작자, 서화 감상자, 직업여성을 관찰하는 상층 남성, 신비체험의 경험자 등으로 자기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묘사해 놓았다. 따라서 허균이 저술 방향과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던가 하는 문제의 자각적 차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산문에 어떤 식의 지향을 드러내 놓았던가 하는 문제를 주로 살피는 가운데 저작 연대별로 정리된 시 작품들을 필요에 따라 아울러 살피는 방식이 온당할 것으로 본다.

셋째로 허균 자신은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현전 『성소부부고』가 저자의 자편 원고라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17세기에 들어 이전과는 달리 유력 문인들이 자신의 원고를 출판 직전의 형태로 정리해 놓는 관행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42] 그뿐 아니라 조선의 관료 문인들이 명나라 문인들에게 자기 문집의 서문을 받는 경향도 이 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43] 허균 역시 자신의 원고를 자편했고 명나라 한림원의 이정기(李廷機, 1542~1616)에게 서문을 받아 문집 서두에 배치했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어느 정도는 작가 의식, 달리 말해 자기 작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라는 생각이나, 수록작의 순서와 체계에 대한 가장 적합한 판단은 작자 자신에게 있다는 자의식이 집단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44] 또한 동시대 중국에서는 문장을 지으면 작자 생전에 곧바로 간행한다는 출판문화에 대한 자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45] 하지만 허균을 포함한 이 시기 조선 문인들은 명대 문인과는 달리 원고를 자편하는 작업까지만을 시도했을 뿐 생전 출간까지 이룬 경우는 거의 없다.[46]

---

41) 조선 후기의 한문 산문이 공용성을 벗어나 개인화된 문학으로 전변한 점을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보는 견해로, 김영진, 「조선후기 '臥遊錄'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 48, 고전문학회, 2015, 223쪽.

42) 김수진, 「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語文硏究』 15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359~361쪽.

43) 장유승, 「전후칠자 수용과 진한고문파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문학논집』 36, 근역한문학회, 2013, 106쪽.

44) 김수진, 위의 논문, 365쪽.

45) 김수진, 위의 논문, 367쪽.

46) 자신의 문집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인 『조천록』만을 중국에서 간행한 이정귀 정도가 예외이다. 그마저도 사헌부의 강한 우려와 비난이 대상이 되었다. 『대동야승』 「광해조일기」

문제는 이렇듯 자기 저작을 생전에 편집하여 명나라 유력 인사의 서문을 받아 놓는 작업이 저자가 염두에 둔 독자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를 주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시대 문집 간행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지식을 유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분적 위상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47] 조선인의 문집은 그다지 많은 수를 찍어내지 않는 간본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렇다고 필사본을 통해서 시문이 널리 유통되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문집에 나오는 내용은 불특정 타인을 향한 발화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허균은 동시대 여느 작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작품에 대한 선발 및 편차 방식에 대해 강한 자의식을 지닌 한편, 명나라 관료 문인에게 서문을 받은 점, 그렇게 완성된 자편 원고를 자신이 알만한 소수의 특정인에게 읽힐 것으로 예상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허균의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1차 독자는 서문을 써준 명나라의 유력 문인과, 그 서문 작성을 주선해준 명인(明人) 주지번(朱之蕃, 1558~1624)이다. 서문을 받아 형태가 완비된 원고 역시 조선 내의 폐쇄적 공동체, 즉 명인에게서 받은 서문의 가치와 그 안에 수록된 자기 글의 가치를 알아줄 소수의 동료 집단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불특정 독자라고 한다면 허균 사후 소수의 식자층이 읽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허균의 입장에서 완비된 원고 『성소부부고』에 대하여 신원이 확실한 독자는 자기 문집에 서문을 써준 이정기와 주지번으로 압축된다.

허균이 명대 문인에게 서문을 받은 것을 두고 이를 선진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반대로 주지번을 통해 이정기의 서문을 받은 사실을 외면하기도 하는데, 이점은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허균이 인지한 것이 분명한 기명 독자가 명인(明人) 2인이라는 것은, 임란 직후의 조선 문인들에게 체감된 "명(明) 중심의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동문의식(同文意識)[48]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시기 고위 관료들은 임란을 계기로 명의 흥성과 위세를 직접 목도하였고, '중국 중심의 질서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바탕하여 명과의 문화

4, 9월 24일조, "府啓大概, 李廷龜等今此赴京, 將其私製, 求學士汪煇之序, (중략) 汪煇俱開刊於館中, 廣布于中原, 廷龜不以拙詩之見褒爲恥, 而反自鋟梓而銜醜."; 『연려실기술』 권21, 「深河之役」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저자 사후에야 문집을 간행하는 것이 조선적 특수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수진, 앞의 논문, 368쪽.

47) 장유승, 「조선후기 문집 간행 및 유통 양상 재고」, 『국문학연구』 43, 국문학회, 2021, 322, 334~338쪽.

48) 장유승, 앞의 논문, 104쪽.

적 동질성을 추구하려는 지향'을 공유하고 있었다.[49] 더구나 허균은 동시대 타 문인들과 달리 명의 몰락을 보지 못한 채 죽은 인물이어서, 명나라 주도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의심해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완비된 『성소부부고』를 명대 유력 문인에게 우선 선보였다는 사실은 허균의 문화적 지향이 당시의 보편적 세계 질서에 편입하여 자신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점은 허균의 작품을 검토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이상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하겠다.

첫째, 정치인으로서 활약한 시기인 생애 말년보다 산문 창작기의 이력에 주목한다. 종전의 연구는 허균을 혁명가로 바라보는 시각에 견인되었거나 정계의 일원이라는 차원에서 허균에 주목하는 역사학 연구의 관심에 경도된 결과, 서자와의 친분이라든가 허균이 죽기 직전 인목대비 폐모론에 동참한 일 등에 주목해 왔다. 그리하여 정작 허균이 산문을 왕성하게 창작한 1605~1611년 무렵의 행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했다. 달리 말해 허균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어떤 사정에 처해 있는 동안에 산문을 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전 『성소부부고』에 수록된 산문들은 선조 말에서 광해군 초년에 지어진 것이므로, 이 시기의 허균 행적에 주목해야만 허균의 산문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탄생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허균의 교유 관계나 관직 경험 같은 측면들을 살핌에 있어서 광해군 집권기 중반 이후보다는 선조 말에서 광해군 초년 사이의 주요 정치사와의 관련을 좀 더 깊이 있게 따질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이 선결되어야 허균 산문의 주제와 변주가 타당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글쓰기 방식보다 주제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글쓰기에서 특정 장르나 수사법을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한문 산문이 장르나 수사법의 제약을 강하게 받는 것은 사실이나, 허균과 같이 독특한 사상성을 보이는 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 의식을 해명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더구나 기왕에도 허균의 글은 선명한 주제 의식이 그 특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50] 이에 본고에서는 허균 산문의 주제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작품이 창작된 맥락의 재구성, 전고의 활용 양상 파악,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다른 작품이나 유사 소재를 다룬 다른 작가의 작품과 상호 비교하

49) 장유승, 앞의 논문, 106~107쪽.
50) 김우정, 앞의 논문 279쪽.

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각 작품을 독해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허균의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로 '한정(閑情)'과 '선취(仙趣)'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허균의 문학 이력 전반에 걸친 저류로 '한정'을, 38세(1606년) 이후 『성소부부고』의 완성 시점까지를 특징짓는 문학적 경향의 특징으로 '선취(仙趣)'라는 개념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핵심어의 도출 근거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상론하고, 여기서는 양대 개념을 본고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약술하겠다. '한정'이란 전통적인 '출처(出處)' 관념 하에서 '처(處)'를 택했을 때 은둔의 삶을 어떤 식으로 꾸릴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을 가리킨다. 그 구체적 요소로는 은둔자가 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 세간사에 구애되지 않는 느긋하거나 평온한 심리 상태, 세련된 물질문화를 향유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선취'란 신선 또는 신선과 유관한 초월적 세계를 형상하려는 작자의 취향을 지목하기 위해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현실과 공존하는 이계(異界) 가령 이승과 대비되는 저승의 묘사, 또는 선계(仙界)에 대한 표현이 그 사례이다. 한정과 선취는 허균의 문필 활동의 지향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 장에서는 이러한 지향이 허균의 산문에서 어떠한 문학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가를 따져보겠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허균 산문의 창작 배경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잘못 알려졌던 몇 가지 사항들을 바로잡고, 생애의 시기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허균이 명대 문단의 동향에 주목하면서 왕세정을 비롯한 그 밖의 여러 작가와 문화적 활동 전반에 주목하였던 점을 살펴보려 한다. Ⅲ장에서는 허균의 선집 『한정록』과 『성소부부고』 소재 작품들을 중심으로 허균의 한정 지향이 청언적 글쓰기를 통해서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한정 지향이 선취 지향으로 일신되어간 양상을 살펴보겠다. 특히 Ⅳ장에서는 종래에 허구적 문학 창작이라고 총칭되어온 작품군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터인데, 그 과정에서 '허구성'의 개념에 대해서도 재론해 보려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허균의 저작이 한정과 초월이라는 지향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문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작업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을 구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 텍스트는 주 텍스트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성소부부고』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관물헌본 『성소부부고』로, 이 두 종 이본을 교감하여 활용했다.[51]

---

51) 『성소부부고』의 이본과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신승운, 「『惺所覆瓿藁』의 書誌的 硏究」, 『圖書館學』 2, 강남대학교 도서관학과, 1984; 임미정, 「『성소부부고』 이본 연구」, 『語文論集』 82, 중앙어문학회, 2020 참조.

『성소부부고』 이본으로 완본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국립중앙도서관본, 관물헌본, 홍문관본, 연세대본의 4종이 존재하는데 이중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관물헌본이 영인되어 있어 이용에 편리하고, 이본 상의 주요 차이라는 것도 시에 한정되어 있어 산문 작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본 간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다.[52] 국립중앙도서관본은 후행본으로, 선행본이면서 왕실 소장본인 관물헌본에 비해 허균의 원본에서 시간적 거리가 가장 멀다는 단점은 있으나 관물헌본에 있는 오자가 바로잡아진 경우가 상당히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본 역시 필사 과정에서 생겨난 오자들이 있어서 관물헌본과 상호 참조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본 연구는 『성소부부고』의 서지를 탐구하는 연구가 아니라, 허균의 소작임이 분명한 작품 중 그의 작가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분석하는 연구인 만큼,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두 이본을 중심으로 교감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쪽을 따른다. 이에 대한 교감 사항은 각 작품을 논할 때 각주에 제시하겠다. 직접 인용 시에는 기존 번역을 활용하여 수정하되, 최신의 번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조하였다.[53]

52) 최근 연세대본『성소부부고』의 원문 전체가 공개되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어 본 연구에는 연세대본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였다. 임미정의 연구에 따르면 연세대본은 여러 이본을 교감한 후대본이자『성소부부고』이본 중 유일한 완질본이어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임미정, 위의 논문, 227~230쪽). 연세대본에 대한 검토는 후고의 과제로 남긴다.

53) 허균, 민족문화추진회 역,『국역 성소부부고』1~5, 민족문화추진회, 1989의 번역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다음의 자료를 대조하여 활용하였다. 허균, 김풍기 편역,『누추한 내방: 허균 산문선』, 태학사, 2003; 허균, 박희병·정길수 역,「남궁선생전」,『낯선 세계로의 여행』, 돌베개, 2007; 허균, 신해진 역주,「南宮先生傳」,『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허균, 정길수 편역,『나는 나의 법을 따르겠다』, 돌베개, 2012; 허균, 최재원 역,『허균전집1: 학산초담, 태각지, 해동야언별집, 상소문』, 보고사, 202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의 번역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길수,「허균(許筠) 문집(文集)번역과 한문 고전 번역의 몇 가지 문제」,『고시가연구』30, 2012 참조.

Ⅱ. 허균 산문의 창작 배경

1. 산문 작품의 현황과 창작 시기

1) 산문 작품의 현황

현전하는 허균 산문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은 자편 문집『성소부부고』이다. 하지만 문집에 수록된 작품 외에도 소수의 허균 산문이 남아 있으므로, 본격적 논의에 앞서 허균 산문의 현황을『성소부부고』에 수록된 작품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다.

1611년 4월에 성립된『성소부부고』에 수록된 산문 작품은 독(讀) 16편과 척독 177편 및 일반 산문 작품 178편을 합쳐 총 371편이다. 여기에『성소부부고』에 수록되지 않은 산문 22편을 합치면 총 393편이 된다. 향후 추가로 자료가 발굴되면 여기에 몇 편이 추가될 수 있겠으나, 1611년까지 일단락된 허균 산문의 작품세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이상의 자료가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리라 본다.[1)]

한 편의 문집으로서『성소부부고』가 갖는 일차적인 특징은 시부(詩部)·사부(辭賦)·문부(文賦)·설부(說部)의 4부(部) 구성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짚어볼 점은 이 중에서 어디까지를 산문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시부(詩部)를 제외한 3개 부 전체를 산문으로 취급한다. 여기서 문부(文賦)·설부(說部)를 산문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겠으나 사부(辭賦)를 산문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성소부부고』14권의 잠명송찬(箴銘頌讚)에 수록된 글들은 운자가 부여된 글임에도 작자는 이들 작품을 문부에 편입시킨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2)]

---

1)『성소부부고』수록 산문 중 설부(說部)의「성옹지소록」같은 작품은 몇십 자에서 백 수십 자에 이르는 짧은 칙(則)들이 수 만자 분량을 이루고 있는 연작이기 때문에, 문부(文部)의 주종을 이루는 4~500자 분량의 산문들과 마찬가지의 한 편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하지만「성옹지소록」의 각 칙을 별개의 작품으로 취급하기 어렵고, 짧은 칙 여럿을 한데 모아 한 편의 제목을 붙인 저자의 의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성옹지소록」은 한 편으로 계수하였다. 이렇게 보면『성소부부고』에 수록된 산문은 총 371편으로 정리된다.

2) 김성수,「許筠의 江原道 辭賦文學으로 본 辭賦의 要件 -東征賦·思舊賦·竹樓賦의 형식적 특성을 중심으로-」,『漢文古典硏究』22,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김성수는「해명문」,「대힐자」,「견가림신」같은 작품들도 사부류의 일부로 본다.

한편 본고에서는『성소부부고』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들은 연구의 보조자료로만 활용한다.『성소부부고』미수록작은『성소부부고』의 집성 이전에 지은 작품과 이후에 지은 작품으로 대별된다. 그중 전자는『성소부부고』가 자편 문집임을 생각할 때 1611년 이전 시점에 자기 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집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작자의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의 경우 1611년 이후에 나온 글은 문집 완성 이후의 작품이므로『성소부부고』를 통해서 자신의 문학 세계를 일단락한 이후 허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또는 유지되었는지를 가늠할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자편 문집을 통해 재현하고자 하는 일관된 자아상과는 별개의 것이다. 하나의 전체로서『성소부부고』를 집성한 작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작자가 구성하고자 하는 문학적 페르소나의 모습에 충실히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허균 산문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균 소작인가 하는 논란이 있는 작품들에 대한 본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성소부부고』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허균이 지었다고 하는 서명도 남겨져 있지 않으면서 허균 소작으로 지목되는 작품들이 다섯 편이 있다. 그 작품들은 크게 두 종류로 대별된다.「동국명산동천주해기서(東國名山洞天註解記序)」와 「제명산동천지후(題名山洞天誌解後)」, 및 이들 두 편의 글에 이어져 있는 글로, 최근 새롭게 그 존재가 보고된「명산동천지후서(名山洞天誌後序)」가 하나이고,『난설헌집(蘭雪軒集)』에 수록된「몽유광상산시서(夢遊廣桑山詩序)」와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이 다른 하나이다.

우선 전자 중에,「동국명산동천주해기서」와「제명산동천지해후」는 장서각 소장『와유록』과『명산기영(名山記詠)』에 수록되어 있어서 2000년대 직후부터 허균의 작품으로 지목되었다.[3] 이에 더하여 이들 두 산문 작품에서 지목하는 본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이 발견되고, 해당 서적의 마지막 부분에 붙은「명산동천지후서」가 알려졌다.[4] 이에 따라 해당 서적과 그에 딸린 세 편의 산문을 허균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위에 허균 산문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그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

3) 정민,「비기(祕記)의 문화사, 허균의 동국명산동천주해기」,『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267~316쪽;「동국명산동천주해기」와「제명산동천지해후」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명산기영』에 수록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영진,「조선후기 '臥遊錄' 이본 연구」,『고전문학연구』48, 고전문학회, 2015, 239쪽.

4) 정솔미,「신자료 백영본『기사주(記事珠)』에 대하여 -소설어록해와『동국명산동천주해기』수록 양상을 중심으로」,『국문학연구』47, 국문학회, 2023, 116~120쪽.

허균이 지었다고 지목된 「동국명산동천주해기서」와 「제명산동천지해후」 두 편을 허균 소작으로 보는 주장의 근거는 남극관(南克寬, 1689~1714)이 이 글을 허균 소작으로 지목한 점,[5] 글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고유명사, 조현(趙玄)이나 지광(智光) 같은 인명이 『성소부부고』에 실린 「상원군왕총기(祥原郡王冢記)」에 나오는 조벽(趙壁), 「유원주법천사기(遊原州法泉寺記)」에 나오는 지관(智觀)이라는 인명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동천 복지에 대한 서술이 「남궁선생전」에 등장하는 조회 장면에서 열거되는 지리 체계와 비슷하다는 점이 거론되었다.[6]

그러나 이 근거들은 정황에 불과한 것으로, 위의 텍스트가 허균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할 근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첫째, 허균이 즐겨 사용한 문투나 고유명사가 다른 문건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당 문건을 허균의 소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허균 식의 작법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허균 자신이 아니더라도 허균을 가탁하고자 하는 제3의 작자가 허균이 자주 쓰는 인명이나 소재를 차용해서 지을 수 있다. 허균의 작법을 모방하여 해당 글이 허균 소작으로 읽히기를 기도했을 다른 저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허균을 따랐다는 젊은 문생 중 누군가가 허균의 스타일을 흉내 내어 습작한 것이 전해지는 것일 수 있다. 허균의 작법을 모방한 저자의 존재나, 우연히 허균의 작법과 유사한 결과물을 낸 타 작자의 존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라야, 허균 자신의 기명이 없는 그 세 편의 글을 비로소 허균의 글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산초담』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이미 허균의 생전에도 박엽이 허균의 필치를 모방하여 글을 남기고 다녔다고 한 것과 같이, 허균의 문체를 구별 불가능할 정도로 흡사하게 흉내 낸 사람이 존재하였다.[7] 허균이 지은 것이 확실한 작품들에 나타나는 문체나 상용구, 또는 비슷한 인명이 위의 두 편 글에 나온다는 것은, 상호 유사성을 말해줄 뿐 저자를 확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8]

둘째, 남극관의 증언 문제이다. 남극관은 허균 사후 70여 년째에 출생한 사람으로, 허균 생전의 저술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견문을 가질 수 없었다. 정민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남극관은 이런 것 외에 이 책의 두찬자를 허

---

5) 남극관, 『夢囈集』 乾卷, 「題東國名山洞天志」. "許筠取道藏諸書, 蹈襲粧撰, 以成此書. 如高位杰、乙支黫, 暗影東明文德, 而黫杰又梁四公之名也. 餘皆類此, 序跋並僞, 智光趙玄之輩烏有也."

6) 정민, 위의 글, 282~288쪽.

7) 「鶴山樵談」, "時有朴燁叔夜者, 能詩文, 薄倖秦樓. 嘗效僕之字跡與詩法, 到處書壁, 後人來看, 則必曰某之書也."

8) 「東國名山洞天註解記序」와 「題名山洞天誌解後」에 대한 주해와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김영연, 「동천복지(洞天福地)에 대한 상상과 그 표현」, 『진단학보』 135, 진단학회, 2020, 447~454쪽 참조.

균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더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9] 남극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다. 하지만 그 자신도 자인하였듯 남극관이 해당 글의 찬자를 허균으로 지목할 근거를 가졌으리라는 것 자체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남극관이 실제로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그런 근거의 소유자는 남극관이지 현대의 연구자가 아니다. 남극관이 가졌을 것이라고 일각에서 믿고 있는 그 근거를 오늘날 연구자가 가질 수 없을 때, 우리는 남극관의 주장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셋째, 17세기 이후 사료들은 허균에 대한 비방 일색으로 점철되어 있는 점, 유언비어를 지어내는 인물로 허균의 상이 정립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비기류 저작을 허균의 이름에 가탁할 만한 공감대가 넓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건을 허균의 작이라고 지목한 기명 문인이 있다고 해서, 또한 비결서의 작자로 허균을 지목하는 것은 허균 사후에 조선 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허균 상, 즉 내키는 대로 위서를 조작했다고 하는 허균 상[10]을 준신하여 허균의 생시에 소급 적용한 시각이지,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주장이 아니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할 때 「동국명산동천주해기서」와 「제명산동천지해후」, 「명산동천지후서」 세 편의 글이 허균의 손에서 나왔는가 하는 문제는, 확실한 근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이 허균 소작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허균 소작으로 보는 근거도 박약하다고 판단하여 이 작품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몽유광상산시서」와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의 문제다. 이들 작품은 각각 허초희(1563~1689)가 1585년, 1570년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특히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은 허초희가 8세에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하여 그녀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운위되기도 했다. 동시에 17세기에도 해당 작품이 8세 아동의 손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다양한 전고와 기술을 구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위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11] 최근의 한 연구는 두 작품 모두 허초희가 아닌 허균의 손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12] 근거

---

9) 정민, 앞의 글, 288쪽.

10) 가령 『광해군일기』 9년 12월 24일 을묘 6번째 기사에 나오는 기준격의 상소에서 허균이 김제남과 공모하여 참서(讖書)를 날조했고, 그 날조한 참서를 근거로 교하로의 천도를 기도했다는 주장이 그런 류의 것이다. 허균은 이듬해 5월 3일의 공초에서 참서(讖書) 소장 자체를 부인했다. 기준격과 허균 양쪽 모두 엇갈리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지 어느 한쪽의 말을 참이라고 확정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11) 이수광, 『芝峯類說』 권14, "洪參議慶臣 , 許正郎嫡, 乃其一家人, 常言, 蘭雪軒詩二三篇外, 皆是僞作, 而其白玉樓上樑文, 亦許筠與李再榮所撰云."

인즉 「몽유광상산시서」 서두에 나오는 연대 정보는 허초희의 생애와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작품 속 화자가 모친상을 당한 '을유년(1585) 봄'에 지었다고 시작하지만, 이 해에는 허초희와 허균의 친모인 강릉 김씨가 생존해 있을 시절이고, 강릉 김씨는 9년 후인 1594년에 죽었으며 이 무렵 허균은 모친상을 치르느라 강릉에 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모친상을 지목하기 위해 사용한 "丁憂"라는 용어도 부모상을 당한 관리가 27개월간 벼슬을 사직하는 것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로 주로 쓰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본래 을미년(1595년) 봄이라고 썼던 것을 10년 전인 을유년 봄으로 고치고 허초희의 작품으로 칭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은 작품 속의 많은 소재가 허균 소작 「훼벽사(毁璧辭)」와 중복되는데, 허균은 이 작품을 누이의 것을 모방했다고 하지 않고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작품을 본받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훼벽'이라는 모티브 정도가 황정견의 작품과 겹칠 뿐 백옥루나 옥경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황정견의 작품에는 나오지 않는 허균의 창작이다. 만약 허균이 1570년에 허초희가 지었다고 하는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의 존재를 알았다면 누이의 작품을 같이 본받았다고 언급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장은 그간 허초희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던 두 편의 산문이 기실 허균이 지어서 허난설헌의 명의로 꾸민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작품 내용이 허초희의 생애사와 불일치한다는 점이나, 8세 아동의 손에서 고도의 문학적 기량을 요하는 작품이 나왔다는 설을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럼에도 이들 작품이 허균의 작품이라고 확실하게 결론짓기는 어려울 듯하다. 작품 내용이나 소재의 유사성은 특정 작자의 작품임을 확정할 근거가 되기 어려우며, 이수광의 지적처럼 허균과 이재영의 공동 창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소부부고』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허균 소작으로 지목된 작품들은 어느 쪽이든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아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소부부고』의 수록작을 중심으로 허균의 산문에 접근한다고 할 때, 일군의 작품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각 작품이 창작된 시기에 따라서 초기(1606년 이전), 중기(1606~1611), 후기

12) 이철희, 「『난설헌시집』 수록 산문 2편의 저자 및 저작 시기에 대한 검토」, 『동양한문학연구』 58, 동양한문학회, 2021 참조. 이하 본문에 서술한 내용은 이 논문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다.

(1612~1618)로 삼분하였다. 우선 중기와 후기는『성소부부고』편집이 완료되는 1611년을 기점으로 나눈 것이다. 후기에 지은 산문 작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성소부부고』편찬 이후에도 허균은『을병조천록』이나『한정록』증보 같은 문학에 관련된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후기'의 설정은 불가피하다. 반면『성소부부고』성서 완료 이전 허균의 생애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전환점이 되는 시점은 3절에서 상술할 바와 같이 1606년 주지번(朱之蕃, 1558~1624)을 만난 때로 짐작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허균은 명대 문학에 대한 이전의 부정적 평가를 재고하고 후칠자(後七子) 문인들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제기했다. 또한 선계에 대한 묘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1606년 이후로, 그 이전에는 선계 묘사를 동원한 산문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성소부부고』에 수록된 산문들은 1606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기 산문과 후기 산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성소부부고』에 정확한 창작 시점이 밝혀지지 않은 글 중에서 '성옹(惺翁)' 또는 '성수(惺叟)'라는 자호가 사용된 글은 후기 작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성수시화」가 1607년의 작임을 감안하면 '惺'자를 자호에 활용한 시점은 1607년에서 1611년 사이일 것이다. 이러한 추정에 따라 부록의 작품 일람표에서는 '성(惺)'자 자호를 쓴 산문들을 후기 산문으로 취급하였다.

2) 작품 활동의 시기 구분

허균의 생애에 대해서는 연보 형태로 몇 차례 행적이 정리된 바 있다.[13] 이들 연구는 연대기 방식으로 허균의 행적을 정리했지만, 문학작품 창작이라는 차원에서 허균의 생애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려는 시도를 정식화하지 않았다. 연대기적 접근은 연도별로 일어난 사건을 나열할 뿐이어서 그런 접근만으로는 작가의 생애에서 경험한 사건의 경중이나 유의미한 작풍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허균의 산문 작품 창작 활동이 어떤 준비와 전환을 맞으면서 전변해 갔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초기, 중기, 후기로 삼분해 보았다. 이렇게 구분함에 있어서 본고에서는 허균이 접반사의 일원으로 주지번과 만난 1606년과, 자편 문집『성소부부고』가 완성되는 1611년이 허균의 문학 활동에

13) 허균 연보에 대한 연구사를 갈음한 연구로 이창헌,「허균 연보의 재검토」,『仁濟論叢』14권 2호, 인제대학교, 1998; 가장 최근의 허균 연보로는 허경진,『허균연보』, 보고사, 2013; 허경진의『허균연보』가 사료 비판을 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는 박희병,『능호관 이인상 연보』, 돌베개, 2022, 28~29쪽.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시 창작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는 1606년 이전과는 달리 1606년 이후 허균의 산문 창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대폭 변화하며, 1606년 이후 이전에 견지하고 있던 문학관도 다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성소부부고』가 엮인 1611년 이후에도 산발적인 산문 창작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허균의 산문 세계에 일어났을 유의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들은 현전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시기별로 작가의 생애사적 경험과 교유 관계, 문학관이나 가치관의 변화 및 지속 추이를 중심으로 허균 산문의 양적 변화와 주요 주제 등을 짚어봄으로써, 허균이 지은 산문 작품들이 지어져 간 내력을 살펴보겠다.

(1) 초기 (1569~1606): 학습기

『성소부부고』에서 산문에 해당하는 「문부(文部)」와 「설부(說部)」의 대부분은 1606년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그 이전에 지어진 작품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 시기에 나온 작품으로 확정될 수 있는『성소부부고』수록작은 부록의 표3과 같다. 즉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은『성소부부고』의 수록작 전체 편수인 371편 중 41편으로, 1606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한 작품은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 시기는 허균에게서 산문 창작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였던 것이다.『성소부부고』수록작 중 이 시기 작품은 서간문 일부와 척독 일부, 묘도 문자 일부, 「조관기행(漕官紀行)」(1601년), 「서행기(西行紀)」(1602년) 정도가 있을 뿐이다. 또한 준 산문이라 할 수 있을 「부부(賦部)」에서도 이 시기에 지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은 「동정부(東征賦)」 뿐이다. 한편 1593년 작인 「학산초담(鶴山樵談)」은『성소부부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성소부부고』에서 표방하고 있는 문학관과의 연속성 및 차이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주목할 만한 이 시기의 허균 저작 중『성소부부고』미수록작은 「태각지서(台閣志序)」(1601년) 정도가 있다.

1606년 이전까지 허균의 생애에서 경험된 사건 중 산문 창작의 추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중요 사건들은 허균의 관직 경력과 관련되어 있다. 허균은 1594년에 문과에 을과(乙科)로 합격했고, 이후 관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1597년 문과 중시에서 장원했다.[14] 이 일은 1606년에 주지번을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

14)『국조문과방목』(규장각 소장 8책본. 청구기호: 奎106) 권8(4책) 94쪽. 시험은 1597년 4월 2일에 행해졌고 응시자 총 71인이었고 이에 더해 각 지역에서 보내온 32편의 시권

했을 뿐 아니라,[15] 1610년 귀양지에서 적은 「성옹지소록」에서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거론되고 있다.[16] 당하관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급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중시의 시행 취지에도 불구하고[17] 허균은 중시에 장원한 이후에도 빠르게 승진하지 못하고 예조좌랑, 병조좌랑, 황해도사 등을 정5품 또는 종5품의 낭관직을 전전하였으며, 이후 1609년 형조참의(정3품)에 기용될 때까지 당상관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허균도 예조나 병조에 낭관으로 있었던 만큼, 오늘날 청요직으로 이해되는 관서를 거치기는 했다. 하지만 정작 조선 초 이래 청요직의 핵심 기관이었던 홍문관[18]에는 탈락하거나 검열(檢閱)로 잠깐 머물다가 몇 개월 못 가 파직되었다.[19] 문과 합격 후 삼년상 기간을 포함하여 15년 만에 당상관이 된 것은 당시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뒤처지는 것은 아니지만,[20] 1609년에 형조참의로 있었던 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고, 1610년 이후에는 유배에 처해지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20대의 허균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동복 형 허봉이 홍문관을 거친 점은 허균 자신에게 있어서 비교의 기준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리라 본다.

반면 1606년 명사 접반을 통해 서로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신흠은 허균보다 불과 3살 연상으로, 21세 때인 158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임란 시기에 이미 낭관직을 거치고 의정부 사인, 홍문관 전한 등을 거쳐 허균이 갓 관직에 입성하고 있던 1600년대에는 이미 홍문관 부제학이나 도승지 등 허균과 동렬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고위직을 역임하고 있었다.[21]

허균 자신도 자신의 관직 경력이 변변찮았다고 느낀 방증으로, “벽제할 만한

(試卷)이 채점 대상이었다. 시제(試題)는 “漢諸葛亮, 請勿菲薄, 以塞忠諫之路”였다.

15) 『성소부부고』 권18, 「병오기행」, “因問余科第高下, 聞其魁重試曰, 此唐宋制科規也.”

16) 『성소부부고』 권22, 「성옹지소록」 上에서 자신이 중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던 경위를 적은 뒤, 조선 초부터 성종 조까지 누가 중시에 장원하였는가를 여러 칙을 할애해 적었다. (丁酉春, 始入館, … 以公事罷職, 入試擢魁; 國朝初, 設重試, 卞春亭爲狀元, 其次則金赭, 而其文出梁汝恭. … 自此而降中者, 俱皆名家, 以筠之不才忝此, 亦過矣; 祖宗朝士大夫最重重試. … 自先朝以來, 名官例不製呈, 以是爲好事, 殊不可曉; 嘉靖丙辰, 金弘度入重試 …; 成化丙午重試, 姜政丞龜孫赴試 등.)

17)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중시 급제자 연구」, 『역사와 실학』 39, 역사실학회, 2009, 90쪽.

18) 송웅섭, 「조선 전기 청요직(淸要職)의 위상과 인사이동 양상」,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017, 17쪽, 38쪽.

19) 허경진, 『허균연보』, 보고사, 2013, 55쪽, 63쪽.

20) 송웅섭, 앞의 논문, 25쪽.

21) 신흠 연보 (한국문집총간 해제)

고관이 어찌 도사 정도 지냈던 사람의 집에 임하겠는가?"[22]라고 한 구절이나, 「병오기행」에서 주지번이 했다는 말 중에, "이 사람이 중국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승정원이나 홍문관에 오래 있을 것인데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째서 낭서(郎署)나 외군(外郡) 자리를 오갔던 것인가?"[23] 같은 말을 옮겨 놓은 점을 들 수 있다.

외견상으로만 보면 허균은 문과 급제 이후 승문원에 배속되었고 이후 육조의 낭관 직을 거쳐 1609년에는 당상관직에 올랐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주류 사회에서 그렇게 철저히 소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허균의 활동 시기보다 몇십 년 후인 현종 대 문관들의 승진 코스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똑같이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쁘지 않은 석차로 합격한 사람, 동시에 비교적 어린 나이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명문가 자제일수록 홍문관이나 승문원 같은 곳에 배치되어 향후 고속 승진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24] 이 연구에 따르면 홍문관과 승문원 중에서도 홍문관에 배정되어 도당록(都堂錄) 또는 홍문록에 이름이 오른 경우가 향후 승진 전망이 더 밝았다.[25] 선조-광해군 연간에도 이러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1594년에 26세의 나이, 을과(乙科)로 합격한 점, 허엽 · 허성 · 허봉 삼부자가 이미 이때에는 조정에 이름이 알려져 있던 점, 문과 합격 당시 허균의 품계가 이미 통선랑(通善郎)이었던 점[26] 등을 감안할 때 허균의 상황이 그렇게 불리했다고 볼 요소는 없다. 이렇듯 관료 세계에서 전망이 밝은 편이었을 허균의 입장에서는 빠른 승진을 통해 정계에서 유력한 위치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허균의 본심이 어떠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 막 출사하여 낭관직에 있던 허균이 그 상관에게 어떻게 보였는가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 난리 후로는 조정 사대부들이 갓과 도포와 속대(束帶)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상하 모두 융복(戎服)에 슬갑을 하고 칼을 차고 다녔다. 그러다가 경자년(1600)에

22) 『성소부부고』 권21, 「與林子昇(庚子五月)」, "呵喝者, 肯臨前都事舍耶?"
23) 『성소부부고』 권18, 「丙午紀行」, "上使曰, … 此子生中國, 亦當久在承明之廬, 金馬之門, 非獲罪則何以翱翔郎署外郡也?"
24)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사』 94, 조선시대사학회, 2020, 220~235쪽.
25) 나영훈, 위의 논문, 209~214쪽. 허균이 활동한 시기의 『승정원일기』는 현전하지 않으며, 현전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홍문록에는 허균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26) 규장각 소장 『국조문과방목』 (앞의 책) 권8(4책), 85쪽 우. 허균이 문과 급제할 당시의 품계가 통선이었던 점은 부친 허엽에게서 대가(代加)된 결과인 것으로 짐작된다. 대가제에 대해서는 최승희, 「朝鮮時代 兩班의 代加制」,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비로소 조복을 갖추게 되어 평시에 당상관 이상은 담홍색 견포로 지은 표단(表單-겉에 입는 홑옷)을 입었고, 당하관은 담홍색 면포로 지은 표단을 입었다. 그런데 식자들이 임금의 복색도 붉은데 임금과 신하가 같은 복색을 입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흑의(黑衣)를 입기 시작했다. 그때 당하관이 깁옷[東絹] 입는 것을 임금이 엄격히 금하였다. 사람들이 싫어하여 붉은색 옷으로 복구되기를 바랐다.

신축년(1601) 의인왕후의 상복을 벗게 되자 복색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데, 서경(西坰, 柳根)이 예조 판서로 있으면서 붉은색 깁옷[緋衣]을 주장했고, 나도 당시 예조에 있으면서 또한 이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대신에게 수의(收議)하니 모두 옳다고 했으나, 유독 오성(鰲城, 李恒福)이 그르게 여겼다. 오성은 나를 불러서 힐책하였다.

"낭관 한 사람이 붉은색 깁옷을 입고 싶어서 감히 묘당(廟堂)의 논의를 흔드는가?"

그 후 경술년(1610) 담사(禫祀)일에 복색을 검은색으로 정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잇꽃을 많이 심어서 붉은색은 물들이기 쉬우므로 사람들이 편하게 여긴다. 조종조에서 홍색·회색·백색을 금제하는 조목에 올리기도 했지만 금지하지 못했다고 한다.[27]

위 일화는 1610~1611년에 탈고된 「성옹지소록」의 일부인데, 1601년 무렵의 일을 술회한 내용이다. 조복을 어떤 색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허균은 당하관의 복색을 붉은색으로 하는 것이 여론에 부합하고 조선의 실정에도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서술의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 허균이 어떻게 비쳤는가 하는 점에 관해 흥미로운 단서를 주는 점은 이항복의 어조이다.

이항복이 보기에 허균이 '붉은색 조복에 찬성'한 것은 애초에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부분적으로 정당한 근거에 따랐다 하더라도 허균의 주된 저의는 허균 자신이 붉은 옷을 입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항복의 그런 반응은 '허균은 붉은 옷을 입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할 단서가 사전에 주어졌음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 시기 조정에서 붉은 옷이란 임금의 복색과 같은 색이어서 부당한 것이자, 임금으로서도 당하관에게는 붉은 옷을 금지했고 선대에서도 금하고자 했던, 금

27) 『성소부부고』 권24, 「성옹지소록」 下, "自亂後, 朝士不能具冠袍束帶, 上下皆戎袴褶佩劍以行. 庚子歲, 始復具朝服. 在平時, 堂上以上則服淡紅絹表單, 堂下則用淡紅綿布表單. 識者以上服亦紅, 君臣同服色爲不當, 至是始服黑衣. 時上禁堂下被東絹甚嚴, 人爭苦之, 思復紅衣. 辛丑, 懿仁后服除, 當議服色, 西坰爲大宗伯, 主緋衣, 而余方在儀制司亦贊之. 收大臣議, 皆是曹, 而獨鼇城非之, 招余詰曰, "一郎欲服緋, 乃敢搖廟議耶?" 其後庚戌禫日, 欲以黑色定服, 而迄未果焉. 蓋本國多種紅花, 易以爲染, 故人情樂之. 祖宗以紅灰白載禁制條, 而亦不能止之云.""

기가 걸려 있는 색깔임을 의미한다. 이항복의 시선에서 비친 허균은 자기 분수나 금기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고자 공적 논의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허균의 시각에서 윤색되었을 그 자신의 술회에서조차, 허균은 자기에게 응당 주어진 것 이상의 표식이나 영향력을 바라는 인물로 남에게 비쳤다는 사실만큼은 지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 허균은 관력(官歷)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외직에 머무는 동안에도 명사 접반이 있을 때만은 소환되었다.[28] 이는 당대 관료 사회 내에서 허균이 고위 관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반면, 명사 접반이라고 하는 특수한 한시 창작의 수요가 있을 때에만 소환할 사람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29] 실상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시기 조선에서는 관료를 선발할 때 한시 창작 능력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과를 통과했다고 해서 명나라 사신과 수창할 수 있는 한시 창작 능력을 가졌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다. 허균이 주류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실은 허균과 같은 나이이지만, 임란 이전에 급제하여 빠르게 승진하고 인맥을 쌓아가고 있던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의 경우와 비교할 때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박동량은 임란 발발 전인 1590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1604년에는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었고 허균이 낭관직이나 외직을 전전하던 1600년대 초반에 이미 참판과 관찰사를 거쳐 1608년에는 의금부 판사가 되었다. 더구나 그는 문과 급제시에 허균처럼 품계가 통선(通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생원에 지나지 않았다.[30] 그는 허균과 같은 해 문과에 급제하여 허균과 교분이 있던 박동열(朴東說, 1564~1622)의 동생으로, 이후 신흠·조위한·이정귀 등과 사돈을 맺어 혼맥 면에서도 착실히 세를 불려 나가고 있었다. 허균은 예조정랑으로 있던 1601년에 이조참판이던 박동량에게 청탁을 넣어 조관(漕官) 직을 요청했고,[31] 요청한 대로 해당 직위로 이동하게 되었다.[32] 허균은 박동량에게

---

28) 『선조실록』 34년(1601년) 11월 17일 신해 1번째 기사, “廷龜曰: "年少人中, 海運判官許筠, 非徒能詩, 性且聰敏, 多識典故及中朝事. … 欲令隨後入來矣.""; 『선조실록』 39년(1606년) 1월 4일 계유 6번째 기사 “遠接使柳根啓曰, "從事官自辟, 例也. … 許筠雖在閑散之中, 時留都下, 請付軍職帶去.”

29) 신태영, 『明나라 사신은 朝鮮을 어떻게 보았는가: 『皇華集』 硏究』, 다운샘, 2005, 38~39쪽.

30) 『국조문과방목』 (앞의 책), 4책 75쪽 右.

31) 『성소부부고』 권1 「南宮藁」, 「寄朴亞判年兄乞漕官」

32) 나영훈, 「조선 현종 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사』 94, 조선시대사학회, 2020, 208~209쪽.

외직을 요청한 사실을 읊은 시에 바로 이어서 「자탄(自歎)」이라는 시를 배치하고는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였다.

京師貴人皆識面	서울 안의 높은 사람 얼굴은 다 알지만
朱門峩峩不可見	붉은 문 높디높아 만나보기 어렵구나
就而乞郡如上天	고을 하나 부탁하기는 하늘에 오르는 일 같으니
弱水三千未淸淺	3천 리 먼 약수도 얕은 적이 없었다네.[33]

인용문 마지막 구절에서 허균은 아득히 먼 곳에 있다고 하는 약수조차 얕은 적이 없었다고 하여 먼 변경의 외직조차 맡을 수 없다는 점을 자조하고 있다. 조관직으로 나가는 일이 만족스러웠거나, 관직을 청탁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면, 굳이 청탁의 수고로움을 토로한 이와 같은 내용의 시를 「남궁고」의 맨 마지막에 배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후에 병조정랑과 사복시 정으로 있던 시기에 각각 지은 「기성고(騎省藁)」(1602)와 「태복고(太僕藁)」(1602) 시에서도 자신이 맡게 된 업무를 불만스러워하는 기색을 시에 넌지시 드러내는 한편, 1603년에 글 쓰는 직으로 돌아가게 되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가령 병조정랑으로 있던 시기에 비슷한 연배인 임연(任兗, 1567~1619)을 방문한 일로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男兒官止執金吾	남아의 벼슬이 집금오에 그쳤건만
已覺聲名動漢都	명성은 이미 온 서울에 진동하였네
郎署比來無輦過	낭서는 요즘 수레도 없이 다니는 몸
馮郎頭白只窮途	백발의 풍랑에겐 길이 막혀 있을 뿐.[34]

여기서 집금오는 의금부 관원을 가리키는 말로, 당시 의금부 도사로 있던 임연[35]을 지칭한 것이다. 상대방은 이미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낭관직에 있는 자신은 수레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풍당(馮唐)처럼 벼슬길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는 점을 토로했다.[36] 위의 시에 이어지는 시에도 옥리

33) 『성소부부고』 권1, 「南宮藁·自歎」.
34) 『성소부부고』 권1, 「騎省稿·訪子正於金吾」.
35) 당시 임연이 의금부도사였다는 점은 『선조실록』 35년(1602년) 9월 30일초 4번째 기사 참조.
36) 漢 文帝 때의 현인 풍당은 늙도록 하급관원으로 있다가 漢 武帝 때 賢良으로 추천되었으

의 우두머리가 된 자신의 처지를 자조하는 구절이 등장한다.[37] 그와 유사하게 「태복고」에서도 허균은 윤계선의 시에 차운하면서 "관직은 미미한 녹봉인데, 시명(詩名)은 누가 장원인가"[38]라 하였다.

허균이 수안 군수로 부임하던 1604년 즈음에 황정욱(黃廷彧, 1532~1607)이 써준 송시에도 허균의 경력이 재능에 못 미친다는 감회가 드러나 있다.

詩才突兀行間出	시재(詩才)는 우뚝하니 동료들 가운데 뛰어나나
官況蹉跎分外奇	벼슬 복은 어그러져 분수 밖에 기구하네
摠是人生各有命	이 모두 인생에는 각기 명이 있으니
悠悠餘外且安之	아득한 남은 일은 미뤄두고 편안히 지내야지.[39]

허균은 1611년 유배지에서 쓴 「성수시화(惺叟詩話)」에 이 시를 수록하면서 "자못 감개가 깊다[殊甚感慨]"고 덧붙이고 있다.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 시기의 허균은 자신의 환로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에서 오는 불만감을 가졌다고 볼만하다. 입사 당시의 처지에 따라 각기 기대하는 관직의 상한선은 달랐겠기에, 허균이 이 시기에 거친 관직의 고하를 전체적인 관료 편제상에서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당사자인 허균이 보기에 미미하거나 궁하다는 말로 서술될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허균의 자기 이해에 가까운 것이다.

(2) 중기 (1606~1611): 본격적 산문 창작 시기

『성소부부고』에 수록작 중 90%에 육박하는 산문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확한 창작 연대가 표시되지 않은 작품들도 자신을 '옹(翁)', '성옹(惺翁) 또는 '성성옹(惺惺翁)'이라 지칭한 데에서 보듯 초기 작품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40]

이 시기 문인 허균의 생애사적 경험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1606년 명사 주지번을 직접 만난 일이다. 이때 허균은 주지번으로부터 「서일전(棲逸傳)」,[41] 『와유록(臥遊錄)』,[42] 『옥호빙(玉壺氷)』[43] 등, 후에 『한정록』 집성의 근간이 되는 서적

나 이미 늙어 벼슬하기 어려웠다는 고사가 있다. 『漢書』 권50, 「馮唐傳」

37) 『성소부부고』 권1, 「騎省藁·省中」, "可笑身爲獄吏尊"

38) 성소부부고』 권1, 「太僕稿·次而述見贈韻」, "官迹且微祿, 詩名誰壯元"

39) 『성소부부고』 권26, 「」

40) 자신을 '옹'이라 칭한 사례로는 『성소부부고』 권12 「夢解」 "惺惺翁少時少夢", 권14 「睡箴」 "吁惺惺翁", 권14 「覺軒銘」 "惺惺翁服膺是言", 권14 「惺翁頌」 등이 있다.

41) 『세설신어』에 수록된 편명(篇名)인데 따로 독립되어 읽히기도 한 것 같다.

들을 받았다. 허균은 주지번이라는 타자로부터 동국의 시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접함으로써 자기 가문에서 나온 작품 및 '동국'의 작품이 어떤 윤곽을 갖고 있는가를 보다 선명하게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44] 허균은 이때 허봉과 허난설헌의 시문을 주지번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서문을 받았다.[45] 또한 이때 주지번이 소개한 여러 서적과 서첩, 도록 등을 접함으로써 향후 허균 산문의 테마가 대폭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3절에서 상론하겠지만, 주지번과의 만남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서예나 회화, 일상 기물, 미식(美食)에 대한 관심은 주지번과의 만남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 명대 강남 사대부 문화에 대한 자극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허균은 주지번과 만난 이후에 산문 창작에 현격한 양적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주지번을 만난 일 이후로 허균의 산문 창작이 일변한다는 기존의 관점은[46] 신빙성이 있다.

이 시기에 창작한 산문이 현전 허균 산문의 대부분이므로, 이 시기의 허균 산문에 빈출하는 소재나 주제들을 동시대에 허균과 유사한 환경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산문에 나타나는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허균 산문의 주요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허균 산문 전체를 통틀어 가장 특기할 점은 초현실적 소재를 산문 작품의 주요 제재로 활용한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표적 제재가 신선이다. 허균이 신선에 대해서 가진 태도는 "극단적인 긍정과 동경의 태도"를 가졌던 문인으로 평가되기도 할 정도로 당대 동렬의 관료 문인들의 경우에 비추어 매우

---

42) 『사고전서』 제요에 따르면 여조겸의 이름에 가탁한 것으로 본다.

43) 『옥호빙』의 조선 전래 및 허균이 받은 『옥호빙』 판본에 대해서는 이창숙, 「규장각 소장 중국본 詞曲類 선본 해제」, 2010. (규장각 웹페이지 참조)
http://kyudb.snu.ac.kr/brd/viewBrd.do?mid=HEJ&siteCd=DBSP&menuId=10246&postSeq=20221&listChk=tree&book_cate=HEJ32&focus=d3sd33

44) 주지번과 만나기 이전에도 1598년, 명나라의 종군 문인 오명제(吳明濟)가 허균의 집에 머무를 때 『조선시선』을 엮어서 『난설헌집』 초고와 함께 오명제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오명제, 「朝鮮詩選序」; 박현규, 『중국 명말청초인 朝鮮詩選集 연구』, 태학사, 1998, 49~53쪽; 허경진, 「『조선시선(朝鮮詩選』이 편집되고 조선에 소개된 과정」, 『아세아문화연구』 6,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44~47쪽; 이종묵, 「버클리대학본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39, 태학사, 2007 참조; 이종묵, 「17-18세기 中國에 전해진 朝鮮의 漢詩」, 『한국문화』 4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16~20쪽; 박소영, 「오명제의 조선시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4~18쪽.

45) 『성소부부고』 권18, 「丙午紀行」, "夕招余三人相見, 因製陽川世稿序, 及亡姊詩引以給."

46) 김성진, 「허균의 척독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16~23쪽.

호의적이라고 평가되었다.[47] 이러한 평가는 동시대 조선 관료 문인들과 비교할 때에는 타당하다. 허균과 같이 중앙 정계에 몸담았던 문인들의 문집에서 신선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죽음을 미화할 때, 선경은 절경을 표현할 때 투식적으로 동원되는 표현이지, 신선이 진짜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가령 몇몇 문인들이 동일 소재로 글을 썼던 「강선루기(降仙樓記)」의 경우가 그렇다. 평안도 성천에 있었던 강선루에 대해서 허봉을 비롯해 정구, 유몽인 등 허균과 동시대의 문인들이 기문을 썼다. 건물명에서 보듯 신선이라는 소재를 산문에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신선의 실존을 믿는 것처럼 글을 쓴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허봉이나 유몽인은 건물 주변의 승경을 주된 화제로 삼았고,[48] 정구는 "신선이 있는지는 허황하여 믿을 수 없다. (…) 신선이라 여겨지는 그런 신선을 찾지 말고 자기 본심의 신선을 찾는다면 좋을 것"[49]이라 하여, 명시적으로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다. 이 시기 주요한 관료 문인들은 적어도 산문에서만큼은 신선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러 조선 중기에 온양 정씨가를 비롯하여 단학파(丹學派)로 불리는 일군의 사대부들이 도교에 관심을 가졌다고 지적되기도 하지만,[50] 이것은 16세기에 일련의 사화(史禍)를 통해서 중앙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가문 사대부들에 의해 추구된 것이지, 중앙 정계의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도가적 소재에 대한 관심을 허균과 같이 명시적으로 문집에 드러내 놓은 경우는 드물다. 그런 점에서 신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를 산문의 소재로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허균의 태도는 조선의 관료 문인 집단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 이채로운 것이다.

하지만 허균이 자기 문학 활동의 참조 대상으로 주시하고 있던 명대 문인들,

---

47) 김명호, 「신선전에 대하여」, 『(韓國)판소리·古典文學硏究』, 새터 강한영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亞細亞文化社, 1983, 669쪽.

48) 『荷谷集』, 「荷谷先生雜著補遺·降仙樓記」; 『於于集』 後集 권4, 「降仙樓記」. 허봉은 건물 주위의 승경에 대해서, 유몽인은 사촌 형 홍준의 외직 발령 문제를 소재로 삼아 글을 전개했다.

49) 『寒岡集』 권10, 「降仙樓記」, "神仙有無, 眇茫而不可信. (중략) 其不以仙之仙而求焉, 而求諸吾本心之仙, 則其庶幾乎." 정구의 이러한 태도는 신선이라고 하는 '도교적' 소재를 성리학자의 관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김동협, 「정구(鄭逑) 문학론의 한 국면(局面) -「천손하고칠석회변(天孫河鼓七夕會辨)」과 「강선루기(降仙樓記)」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155쪽.

50) 이능화, 이종은 역주, 『朝鮮道敎史』, 보성문화사, 2000, 201~252쪽;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203~208, 270쪽.

특히 왕세정의 경우로 시선을 넓혀보면 허균이 산문 창작에 있어서 신선이나 도가적인 소재를 활용한 양상은 크게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왕세정이 이반룡 사후 정계에서 물러나 고향인 강소성 태창 지역에 물러나 살던 1570~1580년대에, 동향 친구인 왕석작의 딸 담양자(曇陽子) 왕도정(王燾貞, 1558~1580)이 이끄는 도가 수련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보다 한참 어린 왕도정의 제자를 자처한 점, 왕도정 사후에 그녀의 전(傳)을 지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51]

1만 2천 자 분량에 달하는 왕세정의 「담양대사전(曇陽大師傳)」은 담양자가 행한 다양한 이적, 담양자가 죽은 지 6일 만에 다시 나타나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는 식의 신비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워 놓았다.[52] 왕세정이 태창에서 지은 「담양대사전」은 작성된 후 8개월도 되지 않아 북경에서도 인쇄되어 널리 읽혔고, 왕세정과 왕석작이 이단에 빠졌다고 탄핵되는 결과로 이어졌다.[53] 왕세정이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서술한 장면, 가령 담양자 사후에 담양자가 생생한 형상과 음성을 지닌 채 자신에게 가르침을 전했다고 묘사한 장면에 비할 때, 허균의 글에는 자신이 직접 신선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글은 등장하지 않는 점, 신선에 대한 묘사는 어디까지나 전언 또는 그림 속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선이라는 소재에 대한 허균의 태도는 극단적 긍정이라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럼에도 비교 대상을 동시대 조선의 관료 문인으로 한정할 때, 허균 산문의 주요 소재로 신선이나 혼령의 등장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군, 가령 「수헐원신영선찬기」나 「남궁선생전」 같은 작품들이 여러 편 발견되는 사실은 동시대 조선의 관료 문인에게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점이다. 허균의 한문 산문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이렇듯 초현실적 제재를 앞세운 작품들을 특필했던 사실도 이러한 특징을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허균과 동시대 관료 문인들의

---

51) Carrington L. Goodrich and Fang Chao-ying, eds.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1368-1644*. 2 vol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pp.1399-1404; Ann Waltner, "Life and Letters: Reflections on Tanyangzi." in *Beyond Exemplar Tales: Women's Biography in Chinese History*. Edited by Joan Judge and Hu Ying.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pp.212-229.

52) 『弇州山人續稿』 권78, 「曇陽大師傳」; Ann Waltner, "T'an-yang-tzu and Wang Shih-chen: Visionary and Bureaucrat in Late Ming China." *Late Imperial China* 8.1 (1987): 105-133.

53) Daria Berg, "Writing goddess: Virgin, venerators, literary vogues," in *Women and the Literary World in Early Modern China, 1580-1700*, New York: Routledge, 2013, pp.38-39.

산문 작품의 비교는 허균 산문의 주요 축의 하나로 '선취(仙趣)'의 경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선취로 포괄되지 않는 나머지 작품들, 즉 여느 한문 산문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소재를 다룬 작품들로부터 허균의 작가적 특징의 윤곽을 드러내어 줄 제재는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는 것이 다음 과제일 것이다. 여기서 우선 주목하고 싶은 것은 허균과 동시대 관료 문인들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썼는가' 하는 점이다. 기왕의 문학 연구에서 자주 주목되곤 하는 것은 산문사에서 각 작가들이 '어떻게 각기 다르게 썼는가' 하는 측면이다. 하지만 허균과 같은 관료 문인들은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못지않게 자신을 관료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점을 고려하면 이들 문인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남과 달리 쓰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관료로서 어떻게 성공적인 경력을 일구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행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허균의 산문을 최립(崔岦, 1539~1612),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이정귀(李廷龜, 1564~1635), 신흠(申欽, 1566~1628)과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고 허균과 교류가 있었던 관료 문인의 목록과 비교해 보면, 허균의 산문에 가장 뚜렷하게 결여된 것은 공적 목적의 산문들이다. 최립의 문집 역시 자편 원고인데, 『간이집(簡易集)』에는 표전(表箋) 23편을 비롯한 주(奏), 봉사(封事), 진언(陳言) 등 공식 문서들이 서두에 실려 있고, 사대문서와 공용문서를 별개의 권으로 배치하여 공적인 목적의 산문에 상당한 비중이 할애되어 있다.[54] 문집을 편차하면서 시보다 산문을 앞세운 최립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관직자로서의 임무에 관련된 산문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문집에 수록된 경우는 다른 문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역시 자편 원고에 의거해 간행된 『지봉집(芝峯集)』은 총 31권 중 21~31권이 산문이다. 서두에 위치한 21~22권에는 교서(敎書), 비답(批答)이나 차자(箚子), 계사(啓辭), 상소(上疏) 등 임금을 대신해 짓거나 임금에게 올린 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55] 모두 허균의 문집에는 보이지 않는 종류의 글이다. 시보다 문으로 명망이 있었다고 평해지는 이정귀 역시 『월사집』에 주(奏)나 자(咨), 계사(啓辭), 의(議), 소(疏), 차(箚) 등이 각기 한 권 이상의 분량으로 배정해 놓았다.[56] 신흠의 『상촌고』는 앞서 거론한 문인들에

54) 심경호, 「《간이집(簡易集)》 해제(解題)」, 한국고전번역원, 1999.
55) 이남면, 「《지봉집(芝峯集)》 해제(解題)」, 한국고전번역원, 2018.
56) 현재의 월사집은 원집(原集) 68권(부록 5권 포함), 별집(別集) 7권으로 총 75권인데 그중 공용문에 해당하는 산문은 수록한 권은 22권부터 32권에 달한다.

비해 공용문이 수록 비중이 적지만 그럼에도 허균은 전혀 수록하지 않은 소차(疏箚)와 계(啓)에 각각 권을 할애했고, 「응제록(應製錄)」을 따로 할애하여 임란 시 명군(明軍)의 요인(要人)에게 공무로 보낸 서간을 비롯해 표전(表箋), 옥책문(玉冊文), 악장(樂章) 등 글 쓰는 일을 담당하는 관료로서 짓게 되었던 글을 수록해 놓았다.

『성소부부고』는 왕세정의 '사부고(四部稿)' 체제를 수용했음에도 『엄주산인사부고(弇州山人四部稿)』에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 있는 주소(奏疏)나 책문(策問) 등 관료 정체성을 환기하는 산문 장르는 들어 있지 않다.[57] 『성소부부고』에 수록된 중기 산문 300여 편 중 공적 목적과 관계된 산문은 권16에 실린 비문(碑文) 중 「칙건현령관왕묘비(勅建顯靈關王廟碑)」와 「중수도솔원미타전비(重修兜率院彌陀殿碑)」 정도에 불과하다.[58] 그 나머지는 관료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식자층의 한 사람으로서 일상의 여러 가지 일을 제재로 삼아 쓴 산문이 대부분이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하는 경우에도 '논(論)'체를 취하여 일 개인의 견지에서 공적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을 뿐, 의작(擬作)의 형태로라도 군주나 공적 공간을 향해 직접 발화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허균이 지었다고 하는 「이덕형의 사직에 대한 하유의 글」이 실록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59] 문집을 자편하는 시점에 허균이 지은 공용문이 완전히 소실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문집을 엮는 과정에서 관료로서의 정체성보다 관료의 세계를 떠난 개인으로서 영위하고자 했던 모종의 방향을 모색했던 저자의 지향이 현재의 『성소부부고』와 같은 모습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허균의 산문 중에서 선취에 대한 지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적인 개인으로서 발언하는 대다수 산문을 관류하는 주요한 주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이다.

먼저 서화 분야에 대한 글이다. 회화에 대한 본격적 관심을 표한 글은 1606년 이전에 등장하지 않던 것으로, 중기에 이르러 산문 창작의 양을 확대하게 된

57) 현전 『엄주산인사부고』는 총 174권 체제로, 그중 106~109권이 주소(奏疏), 114~116권이 책문(策文)이다. (이선옥, 규장각 『엄주사부고』 해제 및 와세다 대학 소장본 『엄주사부고』 등 참조)

58) 이상의 작품을 창작하게 된 전후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서술로 심경호,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318~319, 393~394쪽.

59) 『선조실록』 36년(1603) 5월 14일 기사 3번째 기사. 이 때 허균이 지은 불윤비답의 전후 사정에 대한 간략한 서술로 심규식, 「광해군 시대 관각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195~196쪽.

데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소부부고』의 권13에는 다양한 문예물에 대한 17편의 제(題)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중 네 편이 서화에 대한 것이다.[60] 이들 제문(題文)은 명대 중기 문인화 전통에 이어지는 회화 권14에 수록된 6편의 찬(贊) 중에서도 중기에 쓰인 것이 거의 확실한 「삼선생찬(三先生贊)」, 「탄은 이정의 화죽찬으로 낙가선사의 상인 극융의 권축에 제하다(灘隱畫竹贊, 題洛迦禪寺上人克融卷)」, 「이나옹이 그린 부처와 조사의 찬(李畫佛祖讚)」, 「열선찬(列仙贊)」 네 편은 전부 회화에 부친 찬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고 형조참판 성공 화상기(故刑曹參判成公畫像記)」등에서 볼 수 있는 화상(畫像)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는 초기 산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회화에 대한 허균의 관심은 단지 회화 작품이나 주요 화가에 대한 지식을 섭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장을 구사함에 있어서도 시각적 묘사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겠다.[61]

서예 관련 테마도 중기에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문징명의 서첩도 이 시기에 주지번을 거쳐 비로소 허균의 시야 안에 들어오고 있다.[62] 허균이 주지번을 만났을 때 이미 한호(韓濩, 1543~1605)의 서첩을 갖고 있었다는 데에서 볼 수 있듯, 중기 이전에도 서첩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전 산문을 기준으로 볼 때 중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은 서첩을 열람하고 소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폭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당시 서예로 이름이 있던 김현성(金玄成, 1542~1621)에게 명편 산문들을 써 줄 것을 부탁한 일은 주지번 접반 직후에 있었고,[63] 『한정록』에서 서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현상(玄賞)」편도 중기 이후의 저작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식이나 기녀 등 일상과 관계된 다채로운 소재에 대한 관심도 이 시기에 이르러 허균의 산문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미식에 대한 향유 욕구는 1606년 이후 지은 척독들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64] 이러한 관심사가 1611년에 이르면 「도문대작(屠門大嚼)」으로 집성되면서, 미식에의 관심을 적극 정당화하기에 이른다.[65] 또한 청담이나 음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던 초

60) 「書李懶翁畫帖後」, 「題豊干像帖後」, 「題千古最盛後」, 「題李澄畫帖後」.
61) 허균 산문에서 회화적 필치가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글 중 하나로 「與李懶翁(丁未正月)」을 들 수 있다.
62) 『성소부부고』 권13, 「題石刻諸經後」, "衡山文先生【微明】, 書法爲國朝第一, … 余得之於朱宮諭, 愛玩不忍釋手也." 이 시기 명대 문인화의 조선 유입에 있어 허균의 선구적 위치를 거론한 논의로 홍선표, 『朝鮮時代繪畫史論』, 문예출판사, 1999, 234~235쪽.
63) 『성소부부고』 권20, 「與金南窓 (丙午七月)」
64) 『성소부부고』 권21, 「與龍山倅(辛亥三月)」, 「謝咸山倅(辛亥正月)」, 「謝咸山倅(三月)」 등.

기 태도에서 벗어나 이 시기에는 관직을 맡지만 않았다면 학이나 술을 가까이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것이 해롭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변하게 된다.[66]

기녀에 대한 관심도 이미 초기 산문인 「조관기행」에서 서술상의 여러 초점 중 하나로 다뤄진 적이 있지만[67] 중기에 이르면 그러한 기행 산문뿐 아니라 척독에서도 자신이 가까이한 기녀나 지우의 애첩에 관해 서술하기도 하고, 기녀를 대상으로 한 편지를 척독 편에 삽입시키는 정도의 적극성을 보여준다.[68] 특히 계랑에게 준 편지에서는 기녀를 성욕의 해소 대상이나 오락적 차원의 향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장기에 걸친 교분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보여준다.[69]

이상에서 거론한 소재의 상당수는 이 시기 새롭게 부상하던 장르인 척독을 통해서 표현되었다.[70] 장르적인 면에서도 허균은 척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지번에게 받은 『고척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명대 여러 문인들의 척독을 두루 참조하여 자신도 척독을 여러 편 써서 그 자신의 문집에다 척독을 서간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권으로 편차해 놓기도 했다.[71]

허균 산문의 소재 중 일상의 감회나 서화, 미식, 기녀와 같은 향락의 대상물은 허균이 사대부 관료라는 상류 사회의 일원이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문화적 자원

---

65) 『성소부부고』 권26, 「屠門大嚼 引」 "食色性也, 而食尤軀命之關. 先賢以飮食爲賤者, 指其饕而徇利也, 何嘗廢食而不談乎? 不然則八珍之品, 何以記諸禮經; 而孟軻有魚熊之分耶?"

66) 청담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글로 다음을 참조. 『성소부부고』 권21, 「與趙怡叔」【己酉九月】, "世說, 久假未回, 想已卒業否? 吾於千載之後, 不及聆晉人淸談, 思欲展之以究緖言, 幸付進奚, 如何?" 음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글로 『성소부부고』 권7, 「醉鶴亭記」 "此皆有國而司治牧者也. 不保邦卹民, 而惟酒鶴是耽, 宜其敗也. 阮籍劉伶雖喜酒, 適足以爲放達; 而林逋雖愛鶴, 亦足見其高曠, 奚足爲身害也? 秖益其逸焉耳. 吾無民社之寄, 職事之縻. 吾不愛酒好鶴, 而誰愛好之耶?"

67) 「조관기행」에는 허균이 특별히 주시하고 있는 기녀 광산월의 행로가 전편에 걸쳐 부각되어 있다.

68) 醉鶴亭記 권21 「與桂娘」 (2편).

69) 『성소부부고』 권21, 「與桂娘 (己酉九月)」, "當時若差一念, 則吾與娘交, 安得十年膠漆乎? 到今知秦淮海非夫, 而禪觀之持, 有益身心矣."

70) 명대 중기 척독의 부흥과 명대 척독이 전대에 나온 척독에 비해 특징에 대해서는 赵树功, 『中国尺牍文学史』, 河北人民出版社, 1998, 310~343쪽. 17세기 명대 서적 시장에서의 척독 붐과 척독 장르의 재인식에 대해서는 David Pattinson, "The Market for Letter Collection in Seventeenth-Century China,"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28 (Dec.2006), pp.132-140, 144-151. 허균의 척독에서 서화나 미식, 기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론하겠다.

71) 허균의 척독이 갖는 문예적 특징에 대해서는 김성진, 「허균의 척독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허균의 척독편 설정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배미정, 「조선후기 척독 문학의 유행과 그 배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3.

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재를 산문의 제재로 삼은 데에는, 이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었을 허균의 공적 지위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화적 향유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 각각의 대상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선호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결국 이들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사적 영역에서 제대로 구체화 될 수 있는 자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의 흥취나 서화, 미식, 기녀 등의 소재가 사적인 영역에서 누리게 되는 문화적 향유물일 수는 있어도 그것들을 관류하는 공통 인자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 대상이 허균 산문에서 선취를 표현한 산문들의 여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소재 각각을 포괄하는 상위의 범주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가 남는 문제가 된다.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 산발적으로 보는 이 범주들을 두고 명대에 '한가함[閒]'이라는 관념을 두고 그 전 시기와는 다르게 규정하는 경향이 등장한 것이 여기에 참조가 된다.

명대 이전의 문예물에서 '한가함'이란 현실에 대한 관심이나 욕망에서 벗어난 상태로, 때로 일말의 슬픔을 함축한 정서였다고 운위된다.[72] 하지만 고렴(高濂, 1573년경 활약)의 『준생팔전(遵生八牋)』에서는 '한가함'이라는 관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다 폭넓은 의미상의 외연이 부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마음에는 조급하여 서두르는 노역이 없고, 몸에는 피로가 쌓인 일이 없으며, 세속과 명성을 피하고 편안하게 거하는 것을 세간에서는 '한가함[閒]'이라고 한다. (중략) 한가하여 본성을 양성할 수 있고,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즐기며 목숨을 안주할 수 있어야 이런 것이 한가함을 얻는 것임을 누가 알겠는가?
>
> 나는 한아함을 즐기고 옛것을 좋아한다. 옛 학문을 고찰하는 것은 요순의 가르침이며, 옛것을 좋아하고 민첩하게 찾아보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다. 좋아하고 고찰하고 민첩하게 구하니, 이를테면 곡부 공자집 기둥 아래 돌, 진나라 기양의 석고(石鼓), 발굴된 보검과 솥, 고대의 뛰어난 장인이 만든 창과 화살, 고대의 법률과 제도 등이 모두 선왕들의 '정화와 사상[精義]'을 담은 것이다. 어찌 다만 기이한 것을 찾아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겠는가?
>
> 그러므로 나는 한가한 날이면 스스로 청동기 기물, 서화와 법첩, 도자기와 옥기 등과 같은 옛 완상물, 문방의 도구 등을 두루 고증하고 세심하게 마음을 궁구한다. 더욱이 고금의 감정에 관한 문장을 교정하여 그 옳고 그름을 바로잡으면서 모두 정

72) 劉若愚, 李章佑 譯, 『中國詩學』, 同和出版公社, 1984, 80-83쪽.

리하였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와 견해는 매 일마다 참조하여 빠진 부분을 보충하니 혜안을 얻어 법도를 관찰하는 듯하였다. 그 밖에 향을 피우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꽃을 재배하고 대나무를 심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마밭을 완성하고 조항에 따라 주석을 붙여 '맑은 기쁨[淸歡]'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중략)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고결한 서재에서 오로지 인간 세계의 더러운 기운을 씻어낸다. 마음을 맑게 하고 뜻을 즐기는 데에 무엇이 이보다 낫겠는가?[73]

한가함을 수고로운 일이나 세간사와 반대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둘째 단락에서는 옛것을 두루 살피는 일까지도 한가함을 구가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해당 문단에서 고렴은 자신의 그러한 기호가 '기이한 것을 찾아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라는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러한 가상의 이의를 '선왕들의 정화와 사상'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하고, 각종 완상품을 두루 살피는 일을 한가한 때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만력(萬曆) 연간에 이처럼 한가함의 의미를 오늘날의 '여가'와는 달리 옛 것을 즐기고 찾는 가운데 골동품이나 서화, 법첩, 문방구 등을 두루 살피는 특정한 문화적 활동과 결부시키는 양상을 드러낸 글 중에서는 위에 든『준생팔전』이 대표적이다.[74] 하지만 이렇듯 '한가함'이라는 개념어를 내세우고 그 아래에 다양한 사물에 대한 향유에 관한 짧은 글을 한데 모아 놓은 출판물은『준생팔전』외에도 화숙(華淑, 1589~1643)의『한정소품(閑情小品)』[75]과 같은 사례가 보인다. 이 책은 '한정'을 표방한 제목 아래 짧은 잠언 모음, 또는 술, 꽃, 차, 향, 서재 배치 방식에 대해 언급한 짧은 글을 모아 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서두와 말미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가함(閒)'이란 청복(淸福)이니, 상제가 아끼는 바요 세속에서는 피하는 것이다.

---

73) 高濂,『遵生八牋』,「燕閒淸賞牋上」"心無馳獵之勞, 身無牽臂之役, 避俗逃名, 順時安處, 世稱曰閒. (중략) 孰知閒可以養性, 可以悅心, 可以怡生安壽, 斯得其閒矣? 余嗜閒雅好古, 稽古之學, 唐虞之訓, 好古敏求, 宣尼之教也. 好之, 稽之, 敏以求之, 若曲阜之舄, 岐陽之鼓, 藏劍淪鼎, 兌戈和弓, 制度法象, 先王之精義存焉者也. 豈直剔異搜奇, 爲耳目玩好寄哉? 故余自閒日, 遍考鐘鼎卣彝, 書畫法帖, 窑玉古玩, 文房器具, 纖悉究心. 更校古今鑒藻, 是非辨正, 悉為取裁. 若耳目所及, 真知確見, 每事參訂補遺, 似得慧眼觀法. 他如焚香鼓琴, 栽花種竹, 靡不受正方家, 考成老圃, 備註條列, 用助淸歡. 時乎坐陳鐘鼎, 几列琴書, 搨字松牕之下, 展圖蘭室之中, 簾櫳香靄, 欄檻花妍, 雖咽水餐雲, 亦足以忘飢永日, 氷玉吾齋, 一洗人間氛垢矣. 淸心樂志, 孰過於此."

74)『준생팔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론한다.

75) 華淑 輯,『閒情小品』, 하버드 옌칭 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T9100/7996)

한쪽에서는 아끼고 한쪽에서는 피하니, 이 때문에 능히 한가로운 자가 극히 적은 것이다. 벼슬아치가 능히 한가로우면 장안의 마두 앞에 있는 많은 홍진을 떨어낼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 한가로우면 앵두 바구니 속에서 몇 번이고 좋은 꿈을 꿀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얼굴 앞의 한훤이요 흉중의 빙탄이어서,[76] 바쁠 때는 있어도 한가할 때는 없고, 바쁜 사람은 있어도 한가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 옛날 소식이 만년에 이인(異人)을 만나 들은 말에 "학사께서는 지난날에는 부귀하셨으나 그것은 일장춘몽일 뿐입니다."라 했다. 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면 이미 일생이 바쁘게 끝나 버렸으니, 명예롭고 부유했던 자들의 무덤을 슬프게 여길 만하다. (중략)

긴 여름 초가집에서 흥이 나는 대로 뽑아서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시를 얻었고 이것을 다시 뜻에 따라 뽑아 기록하여 마음 가는 곳에서 멈추었다. 그리하여 애오라지 나의 한가로운 시간의 반려로 삼고자 하여 《한정》이라 명명했다. 이 책은 경전도, 역사도, 철학도, 문집도 아니고, 별도로 한 종의 '한가로움에 관한 책[閒書]'일 뿐이다. 그러나 거기의 장엄한 어록은 세상을 경계할 만하며, 광활한 어록은 세상을 텅 비게 할 만하며, 빗대는 말은 세상을 조롱할 만하며, 담담한 말은 세상을 깨어나게 할 만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각성한 자가 없으므로 필시 이 '한가한 책은 읽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이 한가함을 피하는 것이 이러하다! 그러나 이룩한 것은 경서도 역사서도 철학서도 문집도 아닌 한가함에 관한 책일 뿐이다.[77]

"한가함은 청복이어서 상제가 아끼는 바"라고 하는 어구는 허균의 『한정록』에도 등장하는데,[78] 여기서는 한가함을 보통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이상적인 심리상태로 규정한 점이 위의 『준생팔전』과 다르다. 글 후반부에서는 『한정소품』에 모아 놓은 어록들이 세상을 각성하게 할 만하다고 하여 수록 내용이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책의 목록을 보면 위의 제문(題文)에서 예상

---

76) '흉중의 빙탄'이라는 말은 심리적 원인으로 생긴 질병을 가리키는 성어이다. 『장자』「人間世」편의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음양의 조화가 어긋나는 재앙이 생긴다(事若成則必有陰陽之患)"는 구절에 관한 곽상의 주에 사람의 근심은 비록 없어지더라도 기쁨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싸워서 이미 냉기와 열기가 오장에 맺힌다[人患雖去, 然喜懼戰於胸中, 固已結冰炭於五臟矣]"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77) 위의 책, 「題閒情小品序」, "夫閒, 清福也, 上帝之所吝惜, 而世俗之所避也. 一吝焉而一避焉, 所以能閒者絕少. 仕宦能閒, 可撲長安馬頭前數斛紅塵; 平等人閒, 亦可了卻櫻桃籃內幾番好夢. 蓋面上寒暄, 胸中冰炭. 忙時有之, 閒則無也; 忙人有之, 閒則無也. 昔蘇子瞻晚年遇異人呼之曰, '學士昔日富貴, 一場春夢耳.' 夫待得夢醒時, 已忙卻一生矣, 名埽利韁, 可悲也夫! (중략) 長夏草廬, 隨興抽檢, 得古人佳言韻事, 復隨意摘錄, 適意而止, 聊以伴我閒日, 命曰『閒情』. 非經, 非史, 非子, 非集, 自成一種閒書而已. 然而莊語足以警世, 曠語足以空世, 寓言足以玩世, 淡言足以醒世, 而世無有醒者, 必曰'此閒書不宜讀'而已. 人之避閒也, 如是哉! 然而吾自成其非經非史非子非集之閒書而已."

78) 『閒情錄』 권3, 「閒適」 제38칙, "有士人苦貧, 夜則露香祈天"조.

되는 것처럼 잠언 모음만 있지 않고, 화간쇄사(花間碎事), 악부여편(樂府餘編), 주고(酒考), 품다팔요(品茶八要), 향운(香韻), 저서소지(貯書小識), 서재청사(書齋淸事)와 같이 다양한 소재에 대한 서술, 또는 경우에 따라 관련된 기물 이름만을 나열한 형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허균 생전의 명대 출판물에서 발견되는 이상과 같은 사례로부터 사물에 대한 탐미적 자세와 평온한 심리상태를 추구하는 '한가함' 개념의 재규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허균 역시 1610년에 각종 서적에서 발췌한 구절을 모아 『한정록』이라 명명한 사실은 이 시기 명대 문화계에서 '한정'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던 현상[79]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허균은 「한정록서」에서 주지번에게 받은 몇 권의 책과 기타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에 한일(閒逸)에 대해 읊은 것을 모아서 『한정록』을 구성했다고 하여 한가함과 관련된 범주들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자술하였다. 또한 앞서 일별한 것처럼 허균 산문 전반에 드러나는 일상의 감회나 서화, 미식 등에 대한 관심은 명대에 나타나는 사대부의 생활 미학과 관계되는 저술에서 포괄하고 있는 범주와 겹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인으로서가 아니라 사적 개인으로서의 부면을 구성하고 있는 산문의 테마들을 일괄하여 작자 자신이 사용한 바 있는 "한정"이라는 조어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1606년부터 1611년 사이에 지은 『성소부부고』 수록작 대부분의 산문의 주요 테마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한가롭고 우아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계통의 글과 선계(仙界)에 대한 상상을 펼친 글이 그것이다. 즉 전자는 '한정(閒情)'이라는 범주에, 후자는 '선취(仙趣)'라는 범주에 연계되는 것이다.

(3) 후기 (1612~1618)

이 시기는 문인이기보다는 정치인 허균으로 살아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관력 면에서는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때이면서 산문 창작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자료가 남겨져 있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일단 자편 문집이 완성된 이후이고, 이 시기에 지은 산문 작품이 있었다 하더라도그것을 한데 모을 기회를 갖기 못했기

79) 위에 든 사례 외에도 원굉도 역시 1604년에 쓴 글에서 "세상에서 제일 적절한 일은 진실로 한적(閑適)을 넘어설 것이 없다"고 하여 '한적'을 자기 삶의 중요한 이상으로 강조하였다. 원굉도의 한적 추구에 대한 연구로 이주현, 「원굉도의 자아 찾기, '한적(閑適)'의 추구와 실천」, 『중국어문학지』 59, 중국어문학회, 2017 참조.

때문에 현전 작품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이 시기 허균의 산문 창작의 실상을 알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이다. 1614년에 이르면 허균은 더 이상 하급 관료가 아닌 정사(正使) 자격으로 북경에 사신으로 가는가 하면[80] 1617년에는 좌참찬(정2품)에 오르는 등 처형되기 직전까지 관료로서는 승진을 계속하였다.

이 시기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던 허균은 광해군의 후원 아래 정사로 명나라 사행을 가서 서적을 구입하거나 종계변무에 관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때의 기록을 모은 것이 『을병조천록』이다. 이 조천록은 한시집이어서 산문을 주로 살피고자 하는 본고의 주된 관심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사행의 여정과 이때 어떤 서적을 접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담고 있어 이 시기 허균의 활동을 탐구하는 데에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81]

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정계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고 있었던 이 시기의 허균에 대해 실록의 사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허균은 행실이 좋지 않아 폐기를 당했다. 그가 비록 이이첨에게 빌붙어 청현(淸顯)의 길을 트기는 했으나, 그 당류들이 많이 저지하여 크게 등용되지 못하자 항상 울울하여 뜻을 얻지 못하였다.[82]

동시대인의 시각에서 이 시기의 허균은 그 전 시기에 비해서 약간 처지가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크게 등용되지는 못했다고 보는 평가이다. 이와 같은 진술은 실록 사관의 편견을 감안하더라도 허균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력을 비관했을 것으로 볼만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한편 허균의 공직 경력과 관련해서는 40대의 허균이 광해군의 생모 추숭 사업과 관련해 폐모론의 여론 확산에 앞장섰다고 보는 것이 학계에 퍼져 있는 시각이다.[83] 조선 후기에 나온 허균에 관한 기록들은 허균 자신에 대한 비난 외에도

---

80) 이때 허균의 사행 활동에 대한 개괄로는 박현규, 「千秋 사행 시기 허균의 문헌 관련 활동」, 『동방학지』 13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참조.

81) 『을병조천록』에 수록된 허균의 독서 경험 및 허균의 후기 시 창작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심경호, 「허균의 기행시집 『을병조천록』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학회, 2019.

82) 『광해군일기』 6년(1614년) 10월 10일, 기축 5번째 기사, "許筠以無行見廢. 雖附爾瞻, 得通淸望, 其黨多沮之, 不得大用, 恒鬱鬱不得志. "

83) 여론전의 기수로 활동했다고 보는 시각으로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200~204쪽; 인목대비 폐위 여론을 선동하는데 광해군에게 가세했다고 보는 시각으로 계승범, 『모후의 반역』, 역사비평사, 2021, 215~219쪽. 1613년 이후 이이첨이 주도하는 관각에서 허균이 폐모론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심규식, 「광해군 시

그가 이이첨의 정파에 가담한 점에 대해 비난하였다.[84] 이이첨과 그의 당파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됨에 따라 이후 조선 시대에 나온 후대의 기록은 이이첨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이첨이 당시 대제학을 담당할 정도의 문장력이 공인되어 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이첨이 남긴 글은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이첨의 문장력이 어떠했는가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후대에 평가되는 것인 만큼 이이첨을 부도덕한 인물의 상징으로 매도하는 데에는 재고가 필요하리라 본다. 문장에 대한 애호와 자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이첨과 교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85]

이상에서는 허균의 생애를 삼분하여 살피고, 각 시기별로 허균이 경험한 주요 사건과 허균 산문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허균의 산문이 주로 창작된 시기는 중기임을 확인하였다. 이하에서는 절을 바꾸어 중기 산문의 주요 의제인 '한정'과 '선취'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대두하게 된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대 관각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38쪽.

84) 『광해군일기』(중초본) 5년 12월 1일 갑신 7번째 기사, "許筠, 妖邪無行, 旣爲淸議所棄, 怏怏失志, 及徐獄起, 徒弟沈友英等皆伏逆, 筠遂稱避禍, 委身於李爾瞻, 爾瞻待之極厚. 鬻科、借疏之文, 多出其手. 筠與族人書曰: "避世阮籍, 不得不依司馬之門." 聞者知其有不軌意."

85) 문형으로서 이이첨의 활동 및 허균의 작풍과 이이첨의 문학적 지향 간 친연성에 대해서는 심규식, 「이이첨과 광해군대 한문학의 한 국면」, 『漢文學論集』 59, 근역한문학회, 2021.

2. 정계(政界)와의 불화와 문명(文名)의 추구

1) 정계와의 불화

여기서는 현전 산문이 창작된 시기 전반(全般)에 걸쳐 작자가 관료로서 겪은 주요 사건을 짚어봄으로써 허균 산문에서 주요 주제 중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은퇴에의 희구라는 테마가 등장한 배경을 알아보겠다. 이 시기는 1600년부터 1611년에 해당하는데, 선조 집권 말년과 광해군 즉위 초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선조 집권기의 말년과 겹치는 허균의 입사(入仕) 초기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균은 1594년 26세의 나이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분관(分館)됐으나, 몇 달 지나지 않아 모친상을 치르고 1597년에 승문원에 복귀했다. 허균이 유성룡이나 이항복 등 당대의 실권자들과 접점이 있었고,[86] 문과 합격 성적이 나쁘지 않았으며, 부친 허엽이나 맏형 허성이 이미 관계(官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에도, 입사 초고속 승진 코스를 밟지는 못하였다.[87] 허균은 홍문관에 있던 기간이 매우 짧고, 너무 많은 사람을 올렸다고 하여 문제가 된 1600년의 홍문록에도 오르지 못한 것 같다.[88] 선조 말년 허균의 관직 경력을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 허균은 삼사(三司) 같은 언관직을 역임하지 못했고 이른바 '청요직'으로 분류되는 기구에 재직한 적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89]

[표 1] 입사(入仕) 초 허균의 관력 및 주요 사실

서기	나이	官歷 및 주요 사실

86) 허균이 지은 「四溟集序」에 유성룡의 집에 갔다가 사명당을 만났다는 기록이 나온다. "不佞仕槐院, 以公事詣首揆西厓相". (유정, 이상현 역, 『사명당대사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45~49쪽.) 이항복은 허균을 위하여 「惺所雜稿序」를 지어준 바 있다. (『白沙集』 권 2) 허균이 이항복과 나눈 다수의 대화가 『성소부부고』 22~24권의 「성옹지소록」에 등장한다.

87) 문과 급제자의 분관에 대해서는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 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94, 조선시대사학회, 220~232쪽.

88) 『선조실록』 33년 8월 10일. 선조 대 홍문록에 드는 인원은 대략 10~20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에는 31인이 뽑혀서 논란이 되었다. 반면 허봉은 1573년 6월, 14인으로 구성된 홍문록 명단에 포함되었다. (『선조실록』 6년 6월 3일 신해 1번째 기사) 홍문록에 선발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송웅섭,앞의 논문, 21쪽.

89) 송웅섭은 홍문관 · 사헌부 · 사간원 · 의정부 · 이예병조 · 승정원 · 세자시강원의 당하관직을 지목하였다. 송웅섭, 위의 논문, 17쪽.

1594	26	2월 29일 문과 급제 (허균은 정시, 이이첨은 별시) 승문원 사관에 임명됨. 명 경략 송응창을 돕는 윤두수의 명으로 자문을 갖고 요동에 다녀옴 5월 3일, 원접사 윤선각 등이 허균 등 3인을 종사관으로 추천하여 의주에 40일 체류 6월 16일 모친상을 당함. 홍문관에 천거되었으나 복을 입어 응강하지 못함
1597	29	통선랑 예문관검열 겸 춘추기사관 세자시강원 설서. (2월 말 파직) 3월 1일 문과 중시에 장원함. 예조좌랑(정6품)으로 승진
1598	30	10월 13일 병조좌랑 (선조실록 기사에 근거)
1599	31	3월 1일 병조좌랑 (윤4월 8일 지평 남탁이 허균을 탄핵) 5월 25일 황해도사(종5품) (12월 19일 사헌부 탄핵으로 파직됨)
1600	32	7월 예조정랑(정5품), 장생전 낭청과 지제교를 겸함
1601	33	6월 해운판관(종5품) 11월 20일 이정귀가 허균을 종사관으로 추천함 → 형조정랑(정5품)에 임명
1602	34	윤 2월 13일 병조정랑 (5월 17일 지평 윤경의 탄핵) 8월 27일 성균관 사예 (정4품) 10월 4일 사복시 정(정3품)
1603	35	여름까지 춘추관 편수직을 겸직 (선조실록 36년 5월 14일) 8월 관직에서 물러나 금강산 구경 (이 해에 허성의 딸과 의창군의 혼인이 있었음)
1604	37	7월 27일 성균관 전적 (정6품) 9월 6일 수안군수 (종4품)
1605	38	9~10월 무렵 수안군수직에서 물러남.
1606	39	1월 1일 접반사 유근의 종사관 중 하나로 임명 (1606년 황화집에는 허균의 관직이 예빈시 부정으로 나옴. 주지번이 중국에 돌아가 출간한 「봉사조선고」에 허균의 관직은 성균관 직강)
1607	40	2월 6일 상의원 정 3월 23일 삼척부사(종3품) 임명 5월 4일 삼척 도착. 사헌부의 탄핵. 5월 6일에 파직 7월 19일 내자시 정(정3품) 12월 9일 공주목사 (정3품)

		(이듬해 8월 21일 충청도 암행어사 서계로 파직됨) *이해 여름, 가을, 겨울 세 분기 월과(月課)에 연달아 장원(「성옹지 소록」)

하지만 입사 초기의 불운에도 불구하고 초년의 허균은 중앙 관료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승진에의 기약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살펴볼 두 종의 서간은 허균의 그러한 자기 인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우선 허균이 지방관으로 재직하는 중에 겪은 사건을 기술한 편지를 통해, 허균이 기성 세력과 어떤 갈등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허균은 1604~1605년에 황해도 수안 군수로 재직하던 중 이방헌이라는 이름의 토호를 심문하다가 매질을 심하게 한 나머지 이방헌이 죽게 된 일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허성이 허균에게 질책하는 편지를 보내자 허균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장을 써 보냈다.

호민(豪民) 이방헌(李邦憲)이란 자가 고을을 무단하고 약한 자를 병탄했는데[武斷其鄕, 納逃幷弱], 자신은 황해도사 시절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방헌은 군수 두 명을 비방하기까지 했기에 기회를 보아 이방헌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려 하고 있었다[迸諸邊上]. 그러던 차에 이방헌과 병사(兵使) 이봉수(李鳳壽)[90] 간에 다툼이 벌어져 이방헌 · 이봉수 양측에서 관에 소송장을 냈고, 관찰사[91]에게 처분을 묻자 심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두 집안 모두 조정 사대부들과 교분이 있었기에 청탁 편지가 쇄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관아 담 안에 흰 명주 60단과 함께 이방헌 가에서 죄를 풀어달라는 편지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에 분노한 허균은 편지 바친 자에게 장 30대를 치게 했다. 이방헌의 집에서는 이에 관찰사에게 청탁하는 동시에 전양부원군 유영경에게 뇌물을 바쳐 중앙에서도 이 사건으로 협박을 넣었다. 그러자 관찰사가 수안군에 직접 방문하여 '이방헌은 그저 율에 따라 변방에 이동시키면 된다[依律徙邊可矣]'고 한 뒤, 검률(檢律)더러 '추방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이 70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물어 '속전에 그친다'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

90) 『海西邑志』(규장각소장, 奎12171) 5책에 따르면 이봉수는 이인우(李仁宇, ?~1359)의 7대손으로 임진년에 왜적을 토벌했고 관직은 충청병사(忠淸兵使)에 이른 것으로 나온다.

91) 이 편지에서 지목된 관찰사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 시기 실록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정사호 (鄭賜湖, 1553~1616) 또는 권희(權憘, 1547~1624)일 것으로 추측된다. 정사호는 1604년 5월 26일자, 1605년 1월 4일자에서 황해도 관찰사로 있음이 확인되고, 권희는 1605년 6월 23일 기사에서 해당 직에 있음이 확인된다.

허균이 알기로 이방헌은 나이가 60세이지만 장부에 72세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허균은 며칠 후 사건을 재개하여 엄한 신문을 가했고 이방헌은 이틀 후 자기 집에서 죽었다. 이에 이방헌의 아들이 관찰사에게 장(狀)을 올리자 관찰사는 형방과 매질한 자를 가두라고 했다. 격분한 허균은 관찰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하였다.[92]

일단 편지의 얼개에서 허균이 자신의 대척점에 관할 고을의 "호민(豪民)" 이방헌과 그 집안사람 및 이방헌의 편을 드는 관찰사, 중앙 정부의 실권자인 유영경을 놓고 있음이 드러난다. 특히 이방헌을 '호(豪)'라고 부른 것은 허균의 다른 편지에서도 세 차례 반복되는데,[93] 이는 허균이 호민이라는 단어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어감을 부여하지 않았던 점을 보여준다.[94]

이 편지에서 우선 주목할 점은 이방헌을 보는 허균의 태도이다. 허균의 서술에 따르면 이방헌은 군 내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뿐 아니라 유민을 병탄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며, 또 다른 군수들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방헌에 대한 이런 서술은 조선 초 이래 중앙 정부가 지방 세력가들을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맥락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의 반복이지[95] 허균 자신의 고유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허균이 서술한 이방헌의 행동은 지방민의 지배를 놓고 수령권과 대립하는 토호 측의 노력을 지방 수령의 시선에서 부정적으로 그린 것이다. 사실 지방 수령과 해당 지역 세력가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수령에게 일정한 봉록이 없어서 지방 재정을 고을 내에서 자체 운영해야 했던 사정이나, 발령지로 부임하기 전 지방관은 중앙 정부의 상급자에게 상당한 예물을 바쳐야 했던 관례에 비추어,[96] 지역 내 재정이나 인력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놓고 지방 수령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토호의 세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수 있다.

한편 이방헌에 대한 허균의 대응 역시 당시의 지방관으로서 생각해 볼만한 것

---

92) 『성소부부고』 권9, 「奉答家兄書」

93) 『성소부부고』 권9, 「答許新昌書」, "僕治無善狀, 朝夕侍劾, 卽以殺土豪事, 謗言薰天, 得一事可以罷去"; 권10, 「答長姪書」 "**豪民**惡我者, 蜚語於繡衣, 頗信之, 吾欲因此解綬, 亦所不妨, 所望善辭以黜之"; 권10, 「與鄭大諫書」, "遼山郡豪之死, 其諸子孫謀所以中僕者, 千計萬方."

94) 허균의 유명 작품 중 하나인 「호민론」에 대해서 종래에는 허균이 호민의 혁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글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허균의 호민론은 호민을 경계하는 지배층의 불안이 투사된 글로 보는 제기되기도 했다. (김대중, 「조선후기 민인의 하부정치」, 『한국한문학연구』 81, 한국한문학회, 2021, 175~178쪽)

95) 김정신, 「16세기 朝鮮의 官 주도 鄕政과 豪强律」, 『조선시대사학보』 87, 조선시대사학회, 2018, 90쪽.

96) 오갑균, 『조선시대 사법제도 연구』, 삼영사, 1995, 243쪽, 274쪽.

이었다. 허균은 기회를 보아 그를 변방으로 내쫓으려 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관찰사의 말에도 나오듯 '변방으로 이동시키는[徙邊]' 조처에 다름 아니었다. 즉, 허균은 이방헌에 대하여 중종 대 이래 화두가 되었던 전가사변(全家徙邊) 처분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종 대 편찬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서 "호강(豪强)한 품관(品官)이 지역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을 침학하는데도 아전이 막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호강 품관을 적발하고 신문하여 전가사변에 처한다"[97]는 조항이 추가된 이후, 지방 세력가를 통제하려는 중앙 정부의 노력은 호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런 호강률은 대민 통제를 놓고 중앙 정부가 재지 사족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던 것임이 알려져 있다.[98] 그러나 법전에서 '호강 품관'이라 지칭되었던 지방 세력 중 일부는 '사족(士族)'으로 변신하여 국가의 통제를 벗어났고, 명종 대에 이르면 사실상 전가사변형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99] 토호에 대한 허균의 이와 같은 강경한 대응은 그가 지방 사족과 연계하여 자신의 앞길을 도모하기보다는, 국가 기구의 말단 지방관으로서 사족을 억제하는 편에 동참하려 한 선택을 보여준다.

허균이 활동하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는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이 흔히 쓰이지는 않았더라도 지방 수령이 토호에 대하여 여전히 행사 가능한 지배권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100] 신익전(申翊全, 1605~1660)이 쓴 조창원(趙昌遠, 1583~1646) 행장에도 조창원이 여산 군수로 있던 시절 평민에게 고통을 주는 토호들을 사변율로 다스렸으며, 이 토호들에 대한 처분을 감해 달라는 조정 고위 관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까닭에 원망을 샀다는 서술이 나온다.[101] 신익전이 긍정적으로 묘사해 놓은 조창원의 행적은 허균의 편지에 나타난 상황 묘사와 흡사하다. 17세기 초에 전가사변율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다면, 토호를 사변율에 처하려는 시도가 유난한 것이어서 행장에 기록될만한 에피

---

97) 『大典後續錄』, 刑典 雜令. "豪强品官, 武斷鄕曲, 凌虐百姓, 吏不能禁者, 摘發推考, 全家徙邊."
98) 김정신, 앞의 논문, 94~96쪽.
99)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265~277쪽. 허균의 산문에서 사족(士族)과 호민을 엄격히 구분하고 전자에 긍정적 의미를, 후자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100) 선조실록에도 사헌부에서 '소를 도살하는 무리들을 사변(徙邊)했으나 혹은 뇌물을 바쳐 감형되기도 하니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한 언급이 나온다. 『선조실록』 29년 3월 20일 정해 2번째 기사 참조.
101) 신익전, 『東江遺集』 권11, 「領敦寧府事漢原府院君趙公行狀」, "礪有土豪, 武斷鄕閭, 爲編戶所病. 公詗其爲民害, 次第聲罪, 皆置徙邊律. 搢紳多居間, 折簡以動之, 公終不撓, 其任怨蓋此類."

소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허균 서간에 나타난 이방헌 측의 대응이나 '사변에 처한다'는 관찰사의 발언으로 볼 때, 이 시기까지 수령이 토호를 사변시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처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익전의 글에 나타나는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이방헌을 사변시키려던 허균의 시도 역시 범상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수안 군수 시절 허균은 영내의 화학루(化鶴樓)를 수리하기도 했는데, 이때의 일이 문제가 되어 이후 관직 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화학루는 최황(崔滉, 1529~1603)이 수안 군수로 있을 때 지은 것인데 허균이 부임하여 1605년 7월에 약 20일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건물의 낡은 부분을 보수했다. 그런데 1609년 무렵에 쓴 것으로 보이는 허균의 편지에서는 최황의 장남 최유원(崔有源, 1561~1614)으로부터 화학루를 중수할 때 허균이 최황의 시판을 떼어냈다는 오해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타난다.[102] 같은 편지에서 허균은 최황의 시판을 제거한 주체는 이방헌의 집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관력을 최유원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수안 군수 시절 허균은 그 지역의 토호와 갈등함으로써 중앙정계의 요인들과 불화하는 한편, 화학루 중수를 둘러싸고 요직에 있는 관료와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광해군 즉위 이후에도 허균이 계속해서 순조롭지 못한 관직 생활에 부딪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선조 말년 국정을 주도했던 유영경(柳永慶, 1550~1608)과 그 일파에 대한 거리두기는 허균의 서간문에서 빈출한다. 이른바 유당(柳黨)이라 불린 소북 관료들이 보내온 편지에 허균은 여러 차례 답장을 보내어 중앙 관직에의 추천을 사양하고 지방관 자리를 요구하였다. 일례로 허균이 이유홍(李惟弘, 1567~1619)에게 보낸 세 편의 거절 편지 중 마지막 것을 들 수 있다. 허균이 이유홍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이유홍은 허균을 승정원이나 홍문관 등의 직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허균의 적극적인 호응을 권하였던 듯하다.[103] 이에 대해 허균은 지방 고을 수령 자리나 주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104]

---

102) 『성소부부고』 권10, 「與鄭大諫書」. 수신인은 1608년과 1610년에 대사간을 지낸 바 있는 정협(鄭協, 1561~1611)으로 추정된다.

103) 『성소부부고』 권9, 「與李大中第一書」, "今足下, 又將挽致於承明金馬著作之庭, 欲令獻納論思, 以補聖治之萬一, 意甚懇至."

104) 上同, "兄若愛惜, 須力言於持枋者, 借一麾以出, 則恩熟大焉." 이 무렵 허균은 이조판서로 1607년 4월에 이조판서가 된 최천건에게도 비슷한 제의를 받았고 이를 거듭 거절하는 한

하지만 이유홍이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허균은 세 번째 편지에서 이유홍의 권유를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영경 일파의 정권이 위태롭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 놓았다. 허균은 이유홍에게 '한갓 임금과 정승이 알아줌만 믿고서 불붙은 나무 위에 편안하게 누웠으면서도 사태를 모르고 있다'면서 이유홍에게도 조정에서 물러날 것을 권했다. 그러지 못하겠거든 "수규(首揆-영의정)에게 속히 권하여 세자 책봉의 일을 조정에 아뢰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라 하였다.[105] 광해군이 세자로 결정된 것은 1592년이므로,[106] 여기서 말하는 책봉이란 명 황제의 책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청사를 보내는 일을 힘쓰라는 권유일 것이다.[107]

허균은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암암리에 지지한 유영경 일파는[108] 실각할 것으로 본 것 같다. 물론 해당 편지를 비롯해 『성소부부고』의 편찬 의도에는 광해군이 이미 즉위한 시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109]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허균이 문집 원고를 정리하는 시점에 와서 일종의 선견지명을 소급 적용하여 이미 수신인이 있는 편지 여러 통을 새로 쓰거나 전면 분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위의 편지에는 광해군 즉위 이전 허균의 관점이 어느 정도는 투영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

편 지방 수령직을 요청했다.(권20, 「與崔汾陰」(丁未八月), "吾欲綰斗印, 六年治帶方州, 爲方丈上仙, 雖以公天官冢宰與之, 吾不欲換也." 「與崔汾陰」(丁未九月 두 번째 편지), 「與崔汾陰」(丁未十月); 권10, 「答崔汾陰書」, "兄與大中、德甫, 初欲通顯路者, 毋乃不料事機耶? 黃綬不容, 而乃許玉堂天上乎?") 또한 허균은 성준구에게도 이유홍의 권유를 고사하는 입장을 밝혔다.(권10, 「與成德甫書」, "大中之力相吹噓, 情則厚矣, 不能諒僕之平生. 三書以叩, 其聽逾邈, 是不過借手於兄也. (중략) 卽聞眞珠大使捐館云, 此府近於外鄉枌楡, 江山明麗, 訟簡民醇, 池閣可以逍遙, 欲佩銅章, 爲六載吏隱.")

105) 『성소부부고』 권9, 「與李大中第三書」, "方今國事, 可謂大可憂也. 而兄輩徒恃君相之知, 不復他念, 晏然於積薪厝火之上, 其危有甚於僕, 尙不自知. 僕已灼見其形, 乃欲引之同入於深淵, 雖極愚魯, 豈肯握手聯袂, 駢就禍窟耶? 願兄自愛. 勿以鄙爲念, 幸有閑邑之缺, 力與擬差. 兄亦翩然鴻矯, 勿戀梁稻, 則長無繒弋之虞矣. 如其不能決, 亟勸首揆, 卽以封儲奏于朝, 廣締士類, 遍諸臺閣, 開誠心布公道, 爲一世開大平之基, 則喬松之壽, 盤石之安, 而簡冊亦有光矣."

106) 『선조실록』 25년 4월 2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107) 명나라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 달라고 주청한 경과와 그 시도의 연속된 좌절에 대해서는 계승범, 앞의 책, 63~65쪽; 명에서 광해군 책봉을 꺼린 사정에 대해서는 한명기, 「光海君의 즉위 환경과 明의 존재」, 『明淸史硏究』 56, 명청사학회, 2021, 244~247쪽.

108) 1606년 유영경의 영창대군 진하 건에 대해서는 계승범, 『모후의 반역』, 역사비평사, 2021, 77~79쪽.

109) 가령 광해군 집권 후 실각한 이유홍에 대해 허균이 내심 갖고 있던 복잡한 심경은 『성소부부고』 곳곳에서 산견된다. 가령 「성옹지소록」에서 심액과 이유홍은 모두 자신보다 후배인데 자기가 복상 후 승문원에 돌아왔더니 이들이 자신보다 상석에 앉아서 괴롭혔다는 회고나, 자신이 그들과 맺은 친분은 지향이 같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한 언급이 그렇다.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선뜻 이유홍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은 데에는 허균 내면의 거리감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가 없을 것이다.[110] 무엇보다 이 시기 허균이 최천건을 비롯한 소북 인사와의 친분이 있었음에도 그 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은 편지 내용이 일부 근거가 있음을 방증한다.

광해군의 즉위를 암암리에 불편하게 여겼던 유영경 일파를 멀리하고, 친 광해군 행보를 보였던 정인홍 등의 입장에 동조했던 허균이 광해군 즉위 직후 출세 가도를 달렸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광해군 즉위 직후부터 『성소부부고』가 집성되는 시점까지 1608년부터 1611년까지의 4년간은 허균의 관력에서 가장 불우한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짧게나마 당상관에 오른 적이 있지만,[111] 『성소부부고』의 성서는 그 직전에 벌어진 유배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된바, 광해군 집권 초는 허균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신장(訊杖)과 유배를 경험한 고달픈 시기였다. 부안에 은거할 궁리를 한 것도 이 무렵이었고[112] 중앙 관계에서 직을 맡게 된 이후에도 광해군으로부터 그다지 큰 호감을 사지는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광해군 초 허균의 관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608~1611년까지 허균의 관력 및 주요 사실

서기	나이	관력(官歷) 및 주요 사실
1608	40	8월 21일 충청도 암행어사 서계로 공주목사(전년 12월 9일 임명, 정3품) 직에서 파직 부안현 우반에 은거(부안 현령 심광세와 교제) 12월 승문원 판교(정3품) 임명 (「기유서행기」 서두에 언급)
1609	41	2월 1일 李尙毅의 천거로 종사관 됨 (「기유서행기」) 5월 14일 月課에서 세 차례 장원한 일로 加資됨 6월 14일 明使 劉用의 청에 의해 첨지중추부사(정3품)에 제수됨

110) 광해군 즉위 이전부터 광해군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 시선은 임연(任兗)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타난다. 허균은 정인홍이 유영경을 공박한 상소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람이 해냈으니 그 강개함이 옛 열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상찬했다. (권10, 「與任子正書」, "伴人朴金來, 得本月十七日邸報, 有來巖公請罪首揆疏, 展看之際, 方食不覺噴飯起立, 擊節嗟唏. 天下有此士, 善類足以吐氣. (중략) 今者此公能爲吾輩所不敢爲, 其忠節慷慨, 豈下於古士耶?)

111) 『성소부부고』 권15, 「亡妻淑夫人金氏行狀」, "己酉, 余陞堂上拜刑曹參議, 以例追封淑夫人."

112) 『성소부부고』 권10, 「與趙持世書」, "僕屢躓於世, 官情灰冷, 已卜於邊山之陽, 爲百歲菟裘."; 권10, 「奉上家兄書」, 편지 내용으로 보아 공주목사에서 파직되자 부안으로 이거한 때에 허성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弟迄以善罷, 深協所願. (중략) 邊山南麓, 有愚磵谷, 其中洑衍, 有泉石佳致, 携二李往卜宅基, 松篁叢鬱, 澗壑窈窕, 實隱者之所盤旋也. (중략) 沈君募工伐木, 已構數間於溪上, 婆娑此間, 可了殘年."

		9월 6일 형조참의(정3품)
1610	42	2월 19일 천추사 4월 26일 병으로 방물 싸는 곳에 불참했다가 교체됨. 4월 27일 사헌부의 탄핵 9월 이조판서 이정귀에게 공조에 천거 부탁. 10월. 신흠에게 나주목사직 요청 10월 19일 別試文科殿試의 對讀官이 됨 -讀券官은 이항복, 이정귀, 박승종, 대독관은 조탁, 이이첨, 홍서봉, 허균. 10월 24일 사간원의 탄핵. 11월 21일. 사헌부의 連啟 12월 8일. 의금부, 허균의 供辭 입계. 형장 가해 신문하는 것이 허락됨 12월 29일 의금부 수감 42일만에 함열현(현재의 전라도 익산)에 유배됨
1611	43	1월 15일 함열 도착 4월 하순.『성소부부고』집성 11월 12일 사면되어 서울에 와서 허성을 만남. 서울 체류 11월 24일 부안 庄舍에 머물다가 익년 2월 초에 서울에 돌아옴

광해군 대 정국에서 이른바 대북계 인사들이 등용되지만, 허균은 바뀐 정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였다. 허균이 정인홍의 언동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실제로 내실 있는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113] 이이첨과 친분은 있었지만 이이첨이 허균에게 해줄 수 있었던 일은 허균의 나쁜 평판을 조금이나마 무마해 주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114] 그뿐 아니라 이 당시 유일하게 살아있던 허균의 직계 가족인 허성은 이른바 유교칠신(遺教七臣)의 하나로 광해군 초 정국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했다.

허균에 대한 광해군의 부정적 시선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1610년 겨울에 있었던 문과 별시 소동이다. 허균은 이 시험에 대독관으로 참여했다가 부정

113)『성소부부고』권10,「答鄭生書」,“僕之於來巖, 無一面之交, 而素不滿其人. 只以頃年討柳之疏, 差強人意, 故與子正書及之, 非欲附會其論也.”

114) 조카에게 보낸 편지 “서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사헌부(司憲府)에서 발의하기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임자정(任子正: 임연)·이득여(李得輿: 이이첨)가 온 힘으로 함께 주선해 준 것에 힘입어 겨우 무사” (참고: 答李觀松 戊申八月) 이로 볼 때 이이첨은 허균이 공주목사에서 파직될 적에 나돈 나쁜 평판으로부터 허균을 두둔해 준 것 같다.

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함열현에 유배되었는데, 이 사건은 유배지인 함열현에서 『성소부부고』를 집성하게 된 일의 직접적 전사가 되는 만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해 10월 17일에 허균은 대독관으로 임명되었고[115] 11월 3일에는 문과 별시가 시행되어 당일로 20인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116] 그런데 11월 13일, 지평 이현영을 시작으로 장령 민유경 등을 비롯한 여러 언관들로부터 이 시험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항간의 여론과 더불어 허균이 부정한 발탁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이에 허균은 11월 17일에 나국(拿鞫)되어 의금부에 42일을 갇혀 있다가 12월 19일에 함열로 유배되기에 이른다.

이 시험의 시관은 독권관에 좌의정 이항복, 이조판서 이정귀, 형조판서 박승종, 호군 조탁·허균·홍서봉·이이첨이었는데 합격자 중 문제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은 박자흥(朴自興: 박승종의 아들), 조길(曺佶: 조탁의 동생), 허보(許宲, 허균의 조카),[117] 박홍도(朴弘道: 허균의 조카 사위), 이창후(李昌後: 이이첨의 사돈), 정준(鄭遵: 이이첨의 이웃 친구)이었다. 이후 합격자 전원을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시험을 주관한 관리 전부를 벌줄 것인지 허균만 처벌할 것인지를 놓고 왕과 신료 간 의견 대립이 있었고, 광해군은 계속해서 허균과 그 관계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118] 『광해군일기』의 사관은 허균에게 죄를 몰아간 주체가 실상 광해군이고 사정(私情)을 행한 사람들이 척가(戚家)와 연루되어 있었는데 왕이 척가 인물들을 처벌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 보았다.[119] 결국 이 논란은 유숙(柳潚, 1564~1636)이 낸 의견대로 종결되어, 허균만 처벌하고 합격자 중에는 허보와 변헌(卞獻)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18인은 그대로 합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끝났다.[120] 그러던 중 허균은 12월 8일에 형장을 가하여

---

115) 『광해군일기』 2년 10월 19일 경인 3번째기사, "設別試文科殿試, 文科讀卷官, 左議政李恒福·李廷龜·朴承宗, 對讀官, 曺晫·李爾瞻·洪瑞鳳·許筠."

116) 20인의 명단은 규장각 소장 8책본(청구기호 奎106) 『문과방목』 제4책 경술년 별시 항목 참조. 이식(李植)이 이 과거에서 합격했다.

117) 허보는 문헌에 따라 허요(許窈)로 표기된 경우도 많은데 『양천허씨세보』 (연세대 소장본, 청구기호 고서(III) 2695 0)에 따르면 '보'가 옳을 듯하다.

118) 광해군은 이 사건에 대해 허가(許家)의 권세가 막강해서 임금으로 하여금 진위를 분별치 못하게 한다고 빈정거리면서, 시험관 전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19) 『광해군일기』 2년 11월 21일 임술 2번째 기사, "時, 行私一二人, 或與戚家連婚, 或與之盤結, 故戚家爲之訟其冤, 而歸罪於許筠. 是以批答如是云云, 蓋權在外戚故也."

120) 허보의 경우 사정이 억울하다 하여 인조 연간에 삭과를 취소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상세한 사정을 누구도 모른다는 이유로 유야무야되었다. (『인조실록』 9년(1631) 5월 25일, 28일 기사; 『동주집』 권10, 「處士東岡許公墓碣銘」 참조). 한편 유숙은 1년 전까지도 허균이 자신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자술한 바 있는 인물이다. 「주흘옹몽기」에서 허균은

신문을 받고 계속 의금부에 갇혀 있다가 29일에 이르러 함열현에 유배되었다. 대체로 허균에게 비호의적인 실록의 사관조차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허균만 자기 친족을 합격시킨 것이 아닌데 허균이 명망이 없고 천시된 까닭에 허보만 삭과되고 허균만 처벌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했다.[121]

실록 사관의 관점대로 이 시험에서 광해군이 누군가에게 죄를 몰아야 한다고 했을 때 허균이 눈에 띈 것은 그해 초의 두 가지 사건이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 허균은 2월경 천추사로 임명되었으나[122] 신병을 핑계로 방물을 점검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하여 4월 26일에 교체되었다. 광해군은 '허균은 애초에 가지 않으려고 누차 상소하였으니 신하로서 의리가 없다, 이제 또 병이 났다면서 방물을 봉하는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조정을 깔보는 일'이라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는데[123] 그 표현에서 허균에 대한 강한 불만이 드러난다. 또한 3월에는 허성이 광해군의 생모 공빈(恭嬪) 김씨 추숭에 반대하는 취지로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허성이 공빈을 『시경』에 나오는 "낮은 이 돌[有扁斯石]"에 빗대어 추숭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광해군은 극히 불쾌했는지 한 달 뒤인 윤3월 홍문관에 답하는 자리에서도 해당 표현을 문제 삼았다. 허성의 사후에도 해당 표현은 거듭 문제가 되어 김상헌이 공성왕후(恭聖王后)의 책봉 고명(誥命)에 대한 사은전문(謝恩箋文)에 허성이 썼던 표현을 조술했다는 혐의로 삭탈관직되기도 했다. 허균이 죽기 직전 기준격의 공초에서도 '유편사석(有扁斯石)의 설은 그의 집안의 의논이었으니 본래 패려궂은 집안'이라고 허균을 공격하자 허균은 허성이 쇠약한 시절에 심희수의 사주를 받아 올린 상소라면서 끝까지 부인하였다.[124] 이로 보면 광해군은 3월부터 허성에 대한 깊은 불쾌감을 품고 있었고 같은 시기 천추사 임명을 사양하는 허균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관인으로서 허균은 선조 말년부터 광해군 즉위 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중앙의 핵심 관료들과 불화하였다. 그는 벽지의 지방관을 역임하는 동안에

유숙과 매우 가까워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라고 하였다. (권6, 「酒吃翁夢記」, "酒吃翁【柳淵叔】者, 二十年前, 余始交於場屋, 甚相押, 中歲俱登第, 吃翁仕或顯, 而僕則浮沈索長安米, 故蹤跡不相値. 或遇諸友家, 驩然無間, 頃歲同僚於西塞, 以僕不持時論, 多吐盡心蘊.")

121) 『광해군일기』 2년 12월 29일 경자 7번째 기사.

122) 허균은 자신을 사신으로 추천한 것은 남이공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與趙持世【庚戌二月】」

123) 『광해군일기』 2년 4월 26일

124) 『광해군일기』 10년 8월 21일 정축 10번째 기사.

도 해당 지역의 토호와 제휴했다고 일컬어지는 여느 중앙 관료들과 달리 토호와의 제휴를 거부하고 국가 관료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려 하였다. 선조 말년 유영경의 소북 세력이 정계를 주도하던 시기에 이들 세력에 가담할 기회가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런 점을 보면 광해군 즉위 이후에는 허균의 관운도 트이기를 기대해 봄직 했으나, 격변하는 정국에서 즉시 기회를 잡지는 못하였다. 즉 1610년대 이후의 허균과 달리 1610년 무렵까지의 허균은 자신이 가담할 기득권 세력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불운한 관료이면서 다만 문재를 지녀 그것으로 비기득권 인사들 일부에게나 호소력 있는 글을 쓰고 명 사신 접반 때에나 소환되는 유명인이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허균이 여러 차례 언관의 비판을 받고 파직된 사실이나 허균 자신이 직접 거듭 지방관 자리를 요청한 사실로부터, 허균 자신이 정계 핵심 관료들과의 불화를 피하고자 중앙의 고위직을 원하지 않았던가 하는 해석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생에 걸쳐 허균이 명대 문화를 크게 동경했다는 점과, 이 시기 조선 사대부가 명에 직접 가는 방법은 사행 이외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일례로 허균은 조위한(趙緯韓, 1567~1649) 이 사행으로 북경에 가는 것을 전송한 송서에 삽입해 놓은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 다른 날 나의 이야기가 상국에 가는 일의 고생스러움에 미치자 조위한은 이렇게 말했다.
>
> "우리들이 중국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이미 불행이라 하겠는데, 하물며 행로의 수고로움으로 위대하고 장려한 구경을 폐할 것인가? 이는 우물 안 개구리의 소견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 그리고 이어서
>
> "내가 발탁되어 급제하고 그대가 붉은 옷을 입으면 만 리의 장한 구경을 어찌 같이하지 않으리오." 하기에 나는
>
> "꼭 그와 같이 되기만 한다면 어찌 두 번이라도 꺼릴 것인가? 모르겠네만, 하늘이 과연 사람의 욕심을 따를 것이며 조화소아(造化小兒)[125]가 훼방하지 않을까?"
>
> 하고, 드디어 서로 보고 크게 웃었다.[126]

---

125) '조화소아'는 인간의 운명을 맡은 신(神)을 해학적으로 칭한 말이다. 당나라 때 두심언(杜審言)에게 송지문(宋之問)과 무일평(武一平) 등이 문병을 가서 안부를 묻자, 두심언이 "조화소아에게 몹시 시달리니, 무슨 말을 하랴." 한 데서 유래하였다. 『新唐書』 권201 「杜審言列傳」

126) 『성소부부고』 권5, 「送趙持世赴京序」, "異日不佞談及上國行役之苦, 持世曰, "吾輩不得生於中國已云不幸, 況可以跋涉之勞? 廢夫偉麗之觀耶. 此與井蛙之覯奚殊哉." 因曰, "我擢第, 君得衣

허균이 1610년 초에 천추사 직에서 면직된 후에 쓴 이 글에서는, 조위한의 사행을 격려하는 내용 외에도 면직 소동을 둘러싼 유감스러운 감회를 “조화 소화의 방해”라는 말을 네 차례 이상 반복하여 곱씹어 놓았다. 허균이 『성소부부고』 집성 이후 여건이 되자 기꺼이 중앙 관직에 나간 사실이나, 그가 행한 대량의 서적 구매가 당시 세간의 주목을 끈 사실 등을 감안하면, 명나라에 방문하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정계의 고위직을 원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시각일 것으로 생각된다. 허균의 반복적인 외직 요청은 일시적인 상황에 따른 선호일 뿐 항시적인 선호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성소부부고』 집성 직전까지 허균이 겪은 부침에 관한 이상의 사실들은 『성소부부고』 수록 산문에 접근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즉 『성소부부고』 집성 이후 허균이 정계에 복귀하여 고위직에 오른다든지, 광해군이 주도한 폐모론에 적극 호응하여 유생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성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당대 정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의 허균 상이라는 것은 『성소부부고』 속 산문을 창작하던 시기의 허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소부부고』 수록 산문을 창작할 시기의 저자는 그 이후의 정치인 허균과는 달리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출세욕과 문명의 추구

다음으로는 현전 산문이 쓰인 시기 동안 허균이 지니고 있던 생의 욕망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다. 1600년대 초 30대의 허균은 중앙 정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승진에의 포부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정황은 이 시기 허균이 쓴 서간문과 그가 집성한 『태각지』라는 저작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127]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이헌국(李憲國, 1525~1602)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이다. 그중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이산해와 홍여순이 이끄는 북인 정국에서 서인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1600년 5월 19일에 조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목하고

緋, 則萬里壯遊, 盍同之乎?” 不佞應之曰, “審如是則奚憚乎再役, 但未知天果從人欲而造化小兒不妬毁之否乎.” 遂相視大噱. ”

127) 허균, 최재원 역, 『허균전집1: 학산초담, 태각지, 해동야언별집, 상소문』, 보고사, 2022, 119~190쪽.

있다.[128] 이때는 허균이 예조정랑, 이헌국이 우의정으로(당시 78세) 재직하던 시점이다.[129] 실록에 따르면 이날 해원부원군 윤두수(尹斗壽), 우의정 이헌국, 경림군(慶林君) 김명원(金命元), 지평(持平) 윤계선(尹繼善) 등이 등대(登對)한 자리에서, 윤계선이 이헌국을 공박한 일이 있었다.[130] 허균의 이 편지는 그 일로 윤계선이 허균을 찾아와 하소연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고 이헌국에게 전달하자, 이헌국이 허균더러 윤계선과 어울리는 것을 꾸짖은 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허균이 자신은 윤계선과 친분이 대단치 않다고 일축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131] 이어지는 편지 후반부에서 허균은 돌연 총재(冢宰) 의망(擬望)에 대한 화제를 꺼내고 있다.

> 총재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의망은 다들 이르기를, 해원(海原 윤두수)의 말이 편파적으로 들은 결과이고 합하께서도 후회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인 측 논의를 펴는 자가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천거 받은 삼경(三卿)들도 다 인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이 천거의 취지는 진실로 여론에 부합되는 것이니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서인(西人)들이 송강(松江 정철)을 지지한 것은 또한 각자 자기 소견을 지키는 것이기에 본래 전부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고,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문인에 대해서는 인재의 진출을 막는 것이 심히 많습니다. 관작은 국가의 공기(公器)이며 천지 사철에도 순환이 있는데, 어찌 한편 사람들에게만 오로지 관작을 주어 유능한 인재가 헛되이 하급 관료로 늙게 한단 말입니까. 계속 이런 식이어서는 하늘이 인재를 낳는 인(仁)함을 그르쳐서 나라도 나라 꼴이 안 될까 두렵습니다. 상공께서 서인(西人)을 등용하심은 공심(公心)이라, 저로서는 지당한 거조라고 여깁니다.[132]

---

128) 이 시기 정국 주도 세력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덕회,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論』 2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8.

129) 이헌국은 허균의 이복형인 허성의 장인이다. 역대인물종합정보 허성 조; 권15, 「祭完城府院君李公【憲國】文」, "선세(先世)의 의가 있어 형이 그 사위 되었네. 인가(姻家)라서 늘 돌보아 벼슬자리 붙여 주었네.(先友之誼, 兄爲其甥. 通家是眷, 恒仄簪纓.)"

130) 『선조실록』 125권 선조 33년 5월 1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구덕회에 따르면 이날의 일은 북인이 실각하고 이헌국을 비롯한 서인 주도의 정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구덕회, 앞의 논문, 254쪽.

131) 『성소부부고』 권9, 「上完城第二書」, "尹斯文者, 筠以文字相交, 彼數遺詩索和, 又持所製來問其善否, 因而情頗熟. 渠又無畦畛, 吐寫其心懷, 筠每聽之而已. (중략) 今承台示, 未知中間傳者爲誰, 乃敢做出許多說話, 以眩台耳耶? 深可怪也." 윤계선과 친분이 깊지 않다는 말은 수신인을 고려한 표현일뿐, 윤계선에 관한 『성소부부고』 내의 전체적인 언급을 종합해 보면 허균은 윤계선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132) 上同, "冢宰之擬, 人皆謂偏聽海原, 然而閣下亦不免追悔云, 此大不然. 爲西論者未必非, 而所薦三卿, 亦皆人望, 此氣信合輿情, 毋爲過慮. 西人之扶松江, 亦各守渠所見, 本不可盡非. 至於成 , 李門人, 滯才甚多. 官爵是國家公器, 而天地四時, 亦有循環, 詎可專授一邊人, 使賢才虛老於下僚耶? 若此不止, 則恐乖上天生才之仁, 而國非其國也. 相公之用西人, 是公心, 而筠則以爲擧措

인용문에 나타난바, 조정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허균의 관점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적어도 1600년대까지 허균은 상이한 정파들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균은 서인들의 침체가 유감스럽다면서 '각자 자기 견해를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 놓았다. 혹자는 허균을 대북파의 일원이라고 규정한 위에서 그가 '붕당 부정론'을 개진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133] 이 논자는 허균의 「소인론(小人論)」같은 저작을 근거로 들면서, 당시 존재하던 당파와 '붕당'이라는 개념을 상호 치환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인용한 편지와 거의 동시기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이헌국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도 「소인론」과 마찬가지로 "붕당을 흩어버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34] 허균의 글에서 '붕당'으로 번역되는 대목의 원문은 일관되게 '음붕(淫朋/婬朋)'이라고 쓰여 있는 점을 보면, 허균에게 붕당이란 애초에 가치중립적 개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허균에게 '붕당'이란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혁파의 대상이며, 서인이니 동인이니 하는 당파는 그 자체로 인정할 만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운위되는 정파와 허균이 말하는 '붕당'은 같은 개념은 아니다.

다음으로 총재 의망(擬望)에 대해 여론[輿情]이란 것이 존재하고 여론에 합치하느냐의 여부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선 중기 재상권의 위상에 주목한 정홍준은 중종 대부터 영정조 이전까지를 조선의 권력구조에서 대신의 직권이 강화되었던 시기로 보면서, 16세기의 2품관 이상 확대 회의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되던 것이 17세기에 이르면 대신만의 수의를 통해 결정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여 이것을 '17세기적 특징'이라고까지 명명하고 있다.[135] 그는 16세기 이래 사림들이 경험한 파국의 결과 왕과 관료 간 입장 차이를 사전에 중재해 줄 수

至當."

133) 정호훈, 『鮮後期 政治思想 硏究: 17세기 北人系 南人을 중심으로』, 혜안, 2004, 83~85쪽.

134) 『성소부부고』 권9, 「上完城李相國書」(첫 번째 편지), "散盡婬朋, 曠然與一國更始, 以答殊常之遇, 是區區所望也." 정호훈이 지목하고 있는 허균의 「小人論」에서도 붕당으로 번역된 표현은 전부 '淫朋'이라 쓰였다. 정홍준도 이 편지를 근거로 허균이 '파붕당(破朋黨)'의 과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았다(정홍준, 『조선 중기 정치권력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01~102쪽. 정홍준은 이 편지가 광해군 즉위 직후 영의정을 맡은 이원익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았으나, 제목에 명기된 "완성(完城)"은 완성부원군에 봉해진 이헌국을 수신인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맞다).

135) 정홍준 위의 책, 5~6쪽, 정홍준은 대신을 의정(議政)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있는 존재로서 대신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중재자로서의 대신이라는 관념이 17세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본다.[136]

그에 따라 대신 임명에 대한 왕과 관료 간 의견 대립이 가시화된 사례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일례로 1600년 6월에 있었던 의정(議政)직 의망 건이 거론된다.[137] 『실록』 기사에 따르면 이때 선조가 각각 좌의정·우의정으로 있던 이항복과 이헌국에게 복상(卜相)을 명했고, 복상 명단에 불만족한 선조가 다시 복상하라 했다.[138] 우여곡절 끝에 이항복과 이헌국은 각각 승진하고 우의정은 김명원이 맡게 되었다. 이 일에 관한 실록 기사에도 '여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언급이 나타난다.[139]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시기 재상직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위에서 결정한다는 식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허균은 조정의 영수가 누가 되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사람 중의 하나였고 그런 관심은 일회적인 데 그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선 지 몇 년 되지 않은 허균은 이제껏 누가 재상직을 맡았는지, 출신이 종실인지, 문과 출신인지, 음관인지, 무관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주목했다. 1601년 1월에 서문이 쓰인 『태각지』는 조선 초 이래 당대까지 역대 의정부 수장이 누구였던가를 기록한 대신연표(大臣年表)로, 허균이 이항복과 나눈 대화가 계기가 되어 윤두수에게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성한 것이다.[140] 다음은 그 서문의 일부이다.

> 국초에는 판평의(判評議)가 국정을 도맡았고 동판(同判) 이하는 정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사만을 기록하였고, 또 문하성과 의정부에도 역시 정승과 영사(領事)만을 기록하였으며, 그 좌이관(左貳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종실 가운데 재상이 된 사람은 준(浚) 한 사람뿐이고, 음관으로 재상이 된 사람은 신수근(愼守勤) 한 사람뿐이며,[141] 무신으로 재상이 된 사람은 박원종(朴元

136) 정홍준, 위의 책, 98쪽.
137) 정홍준, 위의 책, 83~84, 174쪽
138) 『선조실록』 126권, 33년 6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39) 위의 기사, "上敎至此, 實是輿情所在, 而暗與臣等, 私相論議者相符, 故啓之矣."
140) 『태각지』 (서울 종로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고911.05-ㅎ443ㅌ-1) 서문, "頃侍首揆李鰲城相公, 話及于此, 今錄所記大臣姓氏以進, 卽取各年登科記, 抄其執政者, 而武蔭大臣間, 可指憶者, 亦遽次書之. 又從舊相尹海原許得所謂國朝大臣考者, 因爲廣考掌故, 証以見聞, 編成年敍, 以補舊案之失云."
141) 한충희의 집계에 의하면 음관 출신으로서 영의정이 된 사람은 신수근 외에도 여러 명이 있다. (한충희, 『조선전기의 의정부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379-387쪽.)

宗) 한 사람뿐이다. 그 후로는 모두 문관으로 재상을 삼았다. 통틀어 재상 156인으로 국초 이래의 대신 연표를 만들었다.[142]

여기서 허균은 수록 기준을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40세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인 「정론(政論)」에서 허균은 대신이 실질적으로 정치의 방향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는데,[143] 젊은 시절의 허균은 재상직에 오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신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누가 어떤 경로로 대신직에 올랐는가 하는 관심사의 변화는 있지만, 정권의 요직에 대한 시선은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허균은 이후에도 중국의 재상에 대한 평가나 조선에서 이른 나이에 재상 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1609년의 기록인 「기유서행기」에서는 허균이 명사(明使) 일행인 감생(監生) 서명(徐明) 등에게 "만력 연간 재상 중 누가 옳고 그른가, 부원대신(部院大臣)은 어떤가?"[144] 하는 문답을 옮겨 놓았다. 1610년에서 1611년 초에 정리된 「성옹지소록」에도 서두에 조선의 역대 재상에 대한 허봉의 견문을 옮겨 놓았고, 『춘명퇴조록((春明退朝錄)』[145]이나 왕세정의 『황명 성사술(皇明盛事述)』의 형식을 모방해 일찍 과거에 합격한 사람과 함께 40세 이전에 공경(公卿)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을 정리해 놓았다.[146]

세 번째로, 이헌국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알 수 있는 허균의 근본 전제는, 인재는 국가에 관직 봉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유의미하게 쓰인다는 생각이다. 앞의 편지에 근거할 때 허균의 관점에서 '유능한 인재가 하급 관료로 늙는 것'은

142) 『태각지』 서문, "國初判評議掌政, 而同判以下, 不豫事權, 故只書判事, 而門下政府, 亦政丞領事, 其佐貳官不及焉. 宗室爲相, 只浚一人, 而蔭官止於愼守勤, 武臣止於朴元宗, 其後俱用文官, 通共一百五十六人, 作國初以來, 大臣年表."

143) 『성소부부고』 권11 「政論」, "自古帝王之爲政也, 非獨自爲政也. 必以輔相之臣以助之. 輔相者得其人, 則天下國家之事, 可得而理也. (중략) 先王之政, 可謂明矣. 當時輔佐之臣, 不爲不多, 其眷而相信者, 李珥也; 其任專而責以事者, 柳成龍也."

144) 『성소부부고』 권19, 「기유서행기」, "余因問中朝宰相, 萬曆中孰爲邪正. (중략) 余又問部院大臣."

145) 송대 宋敏求의 저작이다. 국조의 재상과 고위 관직자 이름 및 관련 고사 등을 나열했다.

146) 『성소부부고』 권24, 「성옹지소록」 147칙. "嘗觀虞初春明退朝錄及王弇州盛事述, 則備載早達者, 自十一至五十, 悉搜無遺. 我國無文籍可考, 始以見聞記之, 我國地陋, 人才甚尠, 故僥占科第, 倖登宰列者亦多. 今自二十以前科第, 三十以前高官, 四十以前公卿, 載之左方." 왕세정의 저작에 큰 관심을 가졌던 허균으로서는 왕세정이 『가정이래내각수보전(嘉靖以來內閣首輔傳)』을 지어 정계의 영수들의 행적을 시대별로 살펴봄으로써 정치의 향배를 가늠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수 있다.

'헛된'일이다. 허균이 생각하는 하급직과 고위직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태각지 서」나 「성옹지소록」의 톤으로 미루어 볼 때 허균에게 고위직이란 국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상급의 자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1600년 이후 허균은 40대 중반에 좌참찬에 오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실권을 잡지 못한 채 생을 마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허균의 여러 발언들로 미루어볼 때, 지방관으로서 외직을 전전한 경험은 허균에게는 그저 하위직을 전전한 체험이라 여겨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누가 재상직을 거쳤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신이 재상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17세기 초에 누군가가 재상직에 오르고자 하는 포부가 있더라도 그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직 고위직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허균에게 있어서 어떤 점쟁이가 허균은 고관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한 기록을 소재로 삼아 지은 기문을 창작하고 자기 문집에 수록해 놓은 적이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탐원와기(探元窩記)」에서는 사족 출신이었다고 하는 맹인 점술가 이광의(李光義)가 남의 운명을 추측하여 잘 맞추었다고 소개하면서 그가 허균이 경이(卿貳)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한 말을 옮겨 놓았다.[147] 그러자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은 "임금과 재상은 운명을 말하지 않는 법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광의가 허균은 재상이 될 것이라 예언했다고 재정리해 주는 것으로 묘사된다.[148] 해당 글의 말미에 등장하는 허균은 그런 예언이나 주변 사람의 기대를 한사코 사양하는 발언을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지만, 이 글은 작자가 자신의 관운이 흥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에 깊이 유념하였음을 드러내었다.

요컨대 허균은 입사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30대 초부터 유배지에 도착한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재상직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재상직을 맡

147) 『성소부부고』 권7 「探元窩記」, "探元窩者, 盲而談星命者李光義之室也. …義, 士族人, … 其術甚異於人, 發皆奇中. … 義又言某年吉, 某年凶, 某某年爲大藩爲帥臣爲近密卿貳, 歷歷甚悉."

148) 같은 곳, "旁有亢者趙君曰: "古有君相不言命之訓, 義言君當相, 則冥其不言命也."" 임금과 재상은 운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의 출전은 『新唐書』 권139, 「李泌列傳」이다. 이필(722~789)은 당 현종~덕종 연간의 명재상이다. 덕종이 건중(建中)의 난(亂)은 천명이지 결코 자신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자, 이필이 "임금과 재상은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므로 어떤 일이 운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主相造命, 不當言命.]"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은 자의 현부(賢否)는 어떠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물론 허균 자신이 대신의 지위에 오르겠다는 야망을 지녔던가 하는 것은 가늠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조정의 고위직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 관심은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일에 대해서 그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런데 허균이 갖고 있던 정치 영역에서 자신의 포부를 실현해 보겠다는 욕망은 광해군 즉위와 함께 꺾이게 된다. 그리하여 『성소부부고』의 집성은 유배를 통해 그러한 정치적 열망의 좌절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쓴 글을 살펴보면, 현달하는 일과 문명(文名)을 남기는 일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설정하고, 후자를 긍정하는 식의 어법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 살펴보겠다.

먼저 1609년 9월 28일에 지은 「유원주법천사기(遊原州法泉寺記)」에서는 세종조에 좌의정에 올랐던 이원(李原, 1368~1429)과 비슷한 시기 승지를 지낸 유윤겸(柳允謙, 1420~?), 그리고 이원의 사위 유방선(柳方善, 1388~1443)의 삶을 대비시켰다. 이원이나 유윤겸은 관직에서 현달했지만 현재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반면, 유방선은 그 자신은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알 뿐 아니라 법천사처럼 쇠락한 절조차 유방선이 그곳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함께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인생에 궁달과 성쇠가 있는 것은 실로 운명이지만 불후의 명성이란 궁달이나 성쇠에 달려 있지 않다. (중략) 지금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읊으며 그 인품을 상상해 마지않을뿐더러 심지어 보잘것없는 산에 있는 촌스러운 절이라서 기이하고 화려한 구경거리도 없는 이곳이 세상에 소문이 나고 『여지승람』에 실려 전한다. 저 두 분의 화려하고 드날리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두 분은 자기 육신만 묻힌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말해도 사람들은 이들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조차 모른다. 그렇다면 일시에 이익을 누리는 것이 만대에 이름을 전하는 것과 어찌 같겠는가? 후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 선택하게 한다면 전자이겠는가, 후자이겠는가?[149]

149) 『성소부부고』 권6, 「遊原州法泉寺記」, "人之有窮達盛衰, 固其命也. 而名之不朽, 不在於是. (중략) 而至今數百年後, 人誦其文, 想見其爲人不替, 至令殘山野刹非奇偉瑰秀之觀, 亦聞於世, 而載在輿地, 彼二公之芬華顯揚者, 今何在哉? 不徒其身之埋沒, 而道其名, 人莫曉爲何代人. 然則與其享利於一時, 曷若流名於萬代乎? 使後人取舍, 其在是乎? 在彼乎?"

생전에 영화를 누리는 일과 사후에 문명을 남기는 일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로 주어져야 할 이유는 없음에도, 관력 방면에서 거듭 좌절을 경험한 이 시기의 허균에게는 이 문제가 선택의 차원에서 생각되고 있다. 위 작품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 지관은 크게 웃으며,
> "공의 말씀도 옳습니다. 다만 천추 만세(千秋萬世)의 이름은 적막한 신후(身後)의 일이라는 두보의 시가 있으니,[150] 옛사람이 또한 명성이 누가 된다고 하여 남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자도 있으니 도대체 홀로 무슨 마음에서였을까요?"
> 하였다. 나는 크게 깔깔 웃으며,
> "이것은 그대 불가의 교리가 아닌가."
> 하고서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돌아섰다.[151]

허균은 작품 말미에 승려의 발언을 삽입시켜 명성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환기한다. 생시의 영화와 불후의 명성을 가늠해 보는 글 전체의 시각을 일거에 부정하는 승려의 말을 위치상 중요한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점에서, 이 결미를 허균이 승려의 말에 공감했거나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승려와 허균 모두 자신의 말을 크게 웃으면서 전달했다고 하는 서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년 후에 쓴 「한정록서」에서 허균은 "벼슬살이에 급급해서 한 해 내내 편안할 날 없이 작은 이해관계에도 마음이 위축되었고, 칭찬하거나 헐뜯는 시끄러운 소리에 마음이 동요되었다"고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세간의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해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점을 생각하면, 위의 글에서 승려의 말은 생시의 영화와 불후의 명성을 저울질하는 태도를 가볍게나마 책망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대해 깔깔 웃었다고 하는 허균의 반응은 자신이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데 대한 자각에서 오는 겸연쩍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승려의 견해가 일리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자신이 승려가 제시한 삶의 태도를 따를 능력은 없다는 점을 유희적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불가의 교리'라고 상대화해 놓은 것이라 여겨진

150) 이 구절은 두보의 「夢李白 二首, 其二」에 나온다.
151) 上同, "上人瞿然曰, "公之言則是矣. 但千秋萬歲名, 寂寞身後事. 而古人亦有以名爲累, 不願知於人者, 抑獨何心耶?" 余大噱曰, "是汝家法也." 亟聯轡而回."

다.

위 작품을 쓴 지 1년 후 유배지에서 쓴 작품으로 보이는 「해명문(解命文)」[152]에서도 관리로서 현달하는 삶과 불후의 문장을 지어 후세에 문명을 남기는 삶이 선택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초사(楚辭)의 문투를 차용한 「운명을 풀이한 글」의 본문은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고 있는 허균에게 꿈에 나타난 신선[羽人]이 그를 타이르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 꿈에 만난 한 신선, 헌걸차고 풍채 좋아라. 내 방에 들어와서 명아주 평상 걸터앉아 하는 말이, "(중략) 일러주노니 하늘을 원망 말게. 하늘이 그대에게 문장을 주었잖나. (중략) 이것이면 족히 일세에 우뚝하거늘, 고관대작이 이를 어찌 당하랴. (중략) 비록 저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지만 토우(土偶)를 싣고 종[奴]으로 우익한 것이라오. 부귀를 누렸으나 마멸되어 흔적 없게 되리니, 이 또한 그대가 원치 않는 것이리라. 내 이제 진재에게 아뢰어 볼까, 그대의 태어난 해 바꿔 달라고. 그대의 재주를 빼앗고, 그대의 총명 어둡게 하고는 그대에게 높은 작위 내리고 총애와 권세를 후히 준다면 어떨까. 초목과 함께 성했다가 썩어버리는 것을, 그대는 분명 원하지 않으리라. (후략)"[153]

꿈속에 등장한 신선은 허균이 운명을 탓할 것이 없는 이유로 하늘이 허균에게 문장력을 주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신선은 허균의 문장력을 고관의 지위에 오르는 것에 상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이어서 높은 작위를 받는 것과 문장을 짓는 재주를 지니는 일을 선택의 문제로 제시한다. 신선의 말투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번에 걸쳐 '흔적 없이 없어지는 것은 그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이다. 허균이 그토록 소멸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은 본문에서 '이름[名]'이라고 불리고 있는바, 허균이라는 개인의 정체성, 또는 명성에 다름아니다.

---

152) 「解命文」의 창작 시기는 서두에서 벼슬길에 나온 지 17~8년이라 한 것으로 보아("余每嘗疑之, 及出仕途十七八年來, 其顚沛寵辱之狀, 闇與之合, 可異焉.") 1610~1611년 사이에 지은 것이다. 작품 중간에 한유와 소식의 유배를 거론하면서 자신도 그에 상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암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潮陽之貶兮, 武昌之遷, 適妨之辰兮, 非命之邅. 今君之名兮, 肩於二子.") 1610년 말 유배된 이후 1611년 배소에서 지은 작품으로 짐작된다.

153) 『성소부부고』 권12, 「解命文」, "夢一羽人兮, 晳而頎長. 來入我室兮, 踞我藜床. (중략) 謂居勿怨天兮, 天賦君以文章. (중략) 特此足以高一世, 豈軒冕之敢當. (중략) 縱衣彼以斧藻兮, 輿土梗而翼以徒隸. 富貴而磨滅無紀兮, 亦君之所不愒. 今吾將告眞宰兮, 易君之生歲, 奪君之才兮, 闇君之慧, 高其爵位兮, 厚其寵權. 蔚然與草木而同腐兮, 君必不願爲焉."

> 저 창려(昌黎)의 늙은이 한유(韓愈)와 미산(眉山)의 신선 소식(蘇軾)은 다 같이 고상한 문장을 퍼뜨렸네. 두 사람은 늘 고단한 운명을 원망했지만, 후세에 이름 전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었다네. 조양(潮陽)으로 쫓겨나고 무창(武昌)으로 좌천된 것은 출생한 시가 좋지 않아서일 뿐, 운명이 어그러진 것 아니라오. 이제 그대의 이름은 이 두 분과 동등하다네.[154]

요컨대 40세에 접어들 무렵의 허균은 불후의 문장을 지어서 후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겠다고 하는 명예에의 욕구를 대단히 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허균의 글에서 문장 창작을 통한 사후의 명예를 희구하는 내용이 제시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애초부터 문명(文名) 그 자체를 탐했던 때문이 아니라, 현달한 관직자가 되어 불후의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된 결과 선택된 우회로로서 명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 같다.

물론, 저자에게 불후의 명성을 선사하는 매개로서의 문(文)이라는 관념은, 일찍이 『좌전(左傳)』에서 '삼불후(三不朽)'의 하나로 거론된 이래, 한유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서 거듭 천명되어 한문으로 글을 쓴 문인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었다. 허균 역시 전래의 관념 위에서 발언하고 있지만, 허균이 활용하는 '문' 관념은 전대의 것과도, 동시대 문인의 것과도 다르다.

가령 이정귀 역시 신흠 사후에 나온 『상촌고』 서문에서 허균의 어법과 비슷하게 공업과 문장 창작을 대비시켰다. 문장을 잘하는 사람은 공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국가 경륜을 담당한 자는 문장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신흠은 문장과 사업이 똑같이 위대하다는 식으로 신흠의 글을 상찬했다.[155] 장유도 「시능궁인변(詩能窮人辯)」 같은 과작(課作)에서 후대의 알아줌을 통해 문(文)의 불후한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는 관념을 지지하였다.[156] 하지만 이들은 모두 타인의 글을 상찬하거나 작문 일반에 대해서 논하는 맥락에서만 저자의 명성을 불후하게 하는 문장의 가치를 현창했을 뿐, 허균과 같이 자신의 문장 창작을 두고 후대에 명성을 남기기를 기약한다는 과감한 발언을 한 경우는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

154) 같은 곳, "唯昌黎之儒老兮, 與眉山之蘇仙, 時並丁乎磨蝎兮, 總高文之播傳. 潮陽之貶兮, 武昌之遷. 適妨之辰兮, 非命之邅. 今君之名兮, 肩於二子."

155) 『월사집』 권40, 「象村集序」, "嘗謂文章者, 天地之精而不朽之大業也. 其顯晦在人, 興喪係世道, 故君子得其時, 則精發而爲事業, 不得其時, 則精斂而爲文辭. 然而工文辭者, 或疏於世務, 任經濟者, 未遑於詞翰. (중략) 豈天將隆以大任, 畀以全才, 閱試於窮達顯晦之際, 使文章事業兼偉而竝卓耶."

156) 『계곡집』 권37, 「詩能窮人辯」, "然則天之以是畀人者, 蓋欲成萬世之名耳, 區區一時之窮達, 有不足論者矣." 이 작품이 문(文)의 불후한 가치에 대해서 논했음을 비교한 연구로 장진엽, 「계곡 장유의 논설류 산문 연구」, 『한문학보』 45, 우리한문학회, 2021, 280~282쪽.

자신의 창작 작업을 두고 불후의 명성을 기약하는 허균의 발언 방식은 동시대 여느 문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태도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 시기의 허균이 문명을 운위할 때는 항상 관직 경력과 견주어보는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문장 창작 그 자체를 자족적 활동으로 여기는 태도가 아니다. 관직에서 현달할 가능성이 멀어진 대신, 그 좌절감을 보상할 대안으로서 문장을 통해 명예를 얻는 길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정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례로 다음의 척독을 들 수 있다.

> 저를 사성(司成)에 의망하신 것은 불교를 좋아한다는 비난을 씻게 하려는 뜻이었습니까? 불교를 좋아한다는 비난은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니 무슨 수고를 꺼리겠습니까? 천금을 주고 망가진 빗자루를 사는 것으로써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귀인들과 가까이 지내기면서 좋은 얼굴 지어내는 일은 싫군요.[157]

이 글은 1607년 6월, 이조판서로 있던 최천건이 허균을 사성(司成)에 의망한 일을 거론하고 있다. 허균은 한 달 전인 5월 삼척 부사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 영불(佞佛)한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된 상태였다. 편지에서 말한 '영불한다는 비난'은 바로 그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천금을 주고 망가진 빗자루를 산다[千金買弊帚]"는 것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문장이라는 뜻의 겸사로 『동관한기(東觀漢記)』「광무제기(光武帝紀)」에서 유래했지만, 조비(曹丕, 187~226)의 「논문(論文)」을 통해 '자신의 문장'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된 표현이다.[158] 자기 집의 빗자루를 천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이 표현은 작자들이 자신의 글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실상보다 고평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위 서간에서 허균은 '천금폐추'라는 성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문장을 낮추어 표현했지만, 자신은 문장을 짓는 생활에 만족하며 관직 생활에 수반되는 서울 귀인들과의 사교 활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상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허균 산문에서 과제로 부각된 것은, 일국의 재상이 치국의 공업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남기는 데 비견할 만한 특출한 문장의

---

157) 『성소부부고』 권20 「與崔汾陰」(丁未六月) "司成之擬, 其欲洗佞佛之譏乎? 此自甘心, 何勞諱之? 千金買弊帚, 足以自娛. 厭向京師貴人, 作好面孔."

158) 허균은 문집이 완성된 시점에도 '천금폐추'의 성어를 활용하여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문장을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소부부고』 권2, 「文集完, 用閑吟韻」, "四十三年攻翰墨, 千金弊帚枉勞心."

창출이다. 이후 논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허균 산문에 나타난 다양한 소재들, 가령 경세론이나 생활 철학의 표현, 명문 선발의 기준, 물질문화에 대한 감수성의 표현은 그 소재들이 개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주제에 못지않게, 궁극적으로는 동료 사대부들과 작자 자신이 차별화되는 지점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특출한 식견을 최대한 부각하는 데 수렴되고 있다. 허균의 산문은 문장을 통해 자신의 사람됨을 드러냄으로써, 동시대 관료 세계에서 수용되지 못한 자신의 가치를 후대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지 표출은 시간순으로 크게 두 가지 국면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우선 출세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꺾이기 전인 선조 치하에서의 허균은 대체로 동시대 문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소재를 다룬 산문 창작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성소부부고』 소재 산문 중 1606년 이전에 지어진 10% 분량의 작품들에는 장르 선택에 있어서나 작품 속 각 문장들이 지니는 특징에 있어서나 그다지 유별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출세의 전망이 꺾이기 시작하여 유배에 이른 시점에서는 잡문이나 신선전, 몽기(夢記) 등 범상치 않은 장르를 선택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신선 세계의 묘사 같은 초현실적인 소재가 전면화되고 은퇴 이후의 삶을 구상하는 한정에의 추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등 오늘날 우리가 허균 산문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 점들이 부상하게 된다. 허균에게 있어 출세욕의 좌절은 '한가한 삶'이라고 하는 관직 바깥에서의 삶에 대한 모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문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계의 묘사'라고 하는 독특한 소재가 주목된 것으로 여겨진다.

3. 명대 문화에 대한 관심

여기서는 허균 산문의 양대 갈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한정과 선취에 대한 관심이 어떤 배경 속에서 배태되었는가 하는 점을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1606년에 조선에 방문한 명사(明使) 주지번[159]과의 만남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 둘째, 허균이 혹애했다고 하는 왕세정(王世貞)은 허균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점, 셋째, 주지번이나 왕세정의 흔적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잉여의 원천으로서 명대 강남 사대부 문화에 대한 허균의 관심이 그것이다.

1) 명대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주지번(朱之蕃)

먼저 주지번이란 인물이 허균의 문학 세계의 형성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허균의 산문 세계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중을 지닌 인물인가 하는 문제를 보겠다.[160] 1606년 황태손 탄생을 알리기 위해 조선에 온 주지번은 장원 급제한 문관 사신으로, 역대 명 사신 중 가장 많은 분량의 『황화집』을 남길 만큼 조선의 여러 문인과 수창하였다.[161] 이때 원접사 유근의 종사관으로 사신 접반에 참여했던 허균은 당시의 일을 「병오기행」에 일기 형태로 자세히 수록했다.

주지번의 사행에 관련된 기록으로는 허균을 비롯한 조선 문인들이 남긴 것 외에, 주지번 자신이 쓴 『봉사조선고(奉使朝鮮稿)』와 거기에 합철된 『동방화음(東方和音)』, 그리고 조선에서 영조 대에 역대 『황화집(皇華集)』을 합쳐서 재발간한 『황화집(皇華集)』(1773년 간본)이 있다.[162] 주지번 자신의 기록과 조선 정부에서

159) 주지번의 생몰년을 고증한 글로 김정숙 역주, 「주지번 묘지명」, 『문헌과해석』 77, 문헌과해석사, 2016, 189쪽.

160) 선행 연구에서는 전후칠자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허균의 입장이 주지번과의 만남을 계기로 호의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갔음을 지적했다. 김우정, 「허균 산문의 연구 – 산문 텍스트의 확장과 문예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277~278쪽. 그런데 왕세정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던 1606년 이전 허균의 태도는 허균만의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조선 조정에서 왕세정을 비롯한 명대 산문가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주자학적 지향이 강한 薛瑄의 글 정도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으로 다음을 참조.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52~56쪽.

161) 김은정, 「庚午本 『皇華集』 편찬경위와 詩文酬唱의 의미」, 『韓國漢詩硏究』 7, 한국한시학회, 1999, 311쪽.

발간한 기록을 대조해 보면, 주지번이 가장 많은 창화시를 남긴 상대는 당시 원접사였던 유근이다. 하지만 허균과 같은 종사관 급의 관원이었던 이지완(李志完)이나 조희일(趙希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허균에게 한 것처럼 주지번이 일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시문(詩文)을 선사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지번이 이 사행에서 허균에게 준 글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허균 일족과 관련된 문집의 서문이라 할 「제양천세고(題陽川世稿)」, 「난설재시집소인(蘭雪齋詩集小引)」[163]을 비롯해 「부증허도감추보 계양전배 증기형하곡운(賦贈許都監追步 葵陽前輩 贈其兄荷谷韻)」 2수, 「호정십경위허도감부(湖亭十景, 爲許都監賦)」 10수로,[164] 동급의 타 관원에 비하여 허균에게 지어준 글의 양이 뚜렷하게 많다. 이 점은 허균이 「병오기행」에서 주지번과 자신의 관계를 특필하고 있는 것이 과장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해 준다. 주지번이 허균을 위해 지어준 시문의 분량이 많다는 점이나, 후에 허균이 이정기로부터 문집 서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 사실을 통해 볼 때, 주지번과 허균 사이에 남다른 친교가 형성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교분이 특별했다는 것과 주지번이 허균의 문학 창작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에서는 허균의 기록에 나타난 주지번의 흔적을 재검토해 보려 한다.

우선 「병오기행」에서 주지번은 허균에게 각별한 관심과 호감을 보였던 인물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가령 허균의 시가 출판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든가, 과거 시험 성적을 물었다든가, 중국에 태어났다면 크게 출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든가 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165] 즉 「병오기행」에 묘사된 주지번은 '자신의 재능을 알아준 사람'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

162) 朱之蕃, 『奉使朝鮮稿』, 四庫全書存目叢書(176), 齊魯書社, 1997; 1773년 간본 『皇華集』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장한 총 25책본으로 청구기호는 K4-380이다.

163) 「題陽川世稿」, 「蘭雪齋詩集小引」은 『奉使朝鮮稿』와 『皇華集』(제22책)

164) 위의 시 2편은 『황화집』(21책)에만 나온다. 특히 「湖亭十景, 爲許都監賦」는 주지번이 허균에게 선사한 글이며, 다른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이종묵, 「황화수창의 공간」, 『장서각』 47,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89쪽에서 처음 밝혔다. (이종묵, 「황화수창의 공간」, 『황화집과 황화수창』,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 재수록, 214쪽)

165) 『성소부부고』 권18, 「병오기행」, 3월 27일자 "[上使-주지번]問公之作, 亦入梓否. 余對以未敢. 上使因問我國山川地理甚詳, 余悉以書對, 卽出掌扇書所作齊山亭詩給之令和. 余卽口占以對, 上使亟加嘆賞."; 3월 28일자 "因問余科第高下. 聞其魁重試曰, 此唐宋制科規也. 問何官, 曰, 爲禮賓副正, 卽中朝光祿少卿也. 以職掌饔膳, 故王國差遣, 令飭廚傳矣. 又問履歷, 曰, 初授史官, 陞職方主客二員外, 移給事中, 陞武選郎中爲運判, 陞司業太僕, 出守西郡, 爲今職矣. 上使曰, 否否, 此子生中國, 亦當久在承明之廬, 金馬之門, 非獲罪則何以翺翔郎署外郡也."

다음으로 주지번은 명대 문화의 전달자로 묘사되어 있다. 허균이 주지번에게 받은 것은 앞서 거론한 시문과 비단·향료·붓[166] 등의 선물 외에 책과 그림, 글씨로 삼분 된다. 책으로는 『세설신어보』를 비롯한 『시준(詩雋)』, 『고척독(古尺牘)』 등을,[167] 그림으로는 제목 미상의 어떤 작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168] 글씨로는 명사 황홍헌이 허봉의 시에 차운한 시에 다시 차운하여 율시 두 편을 쓴 것을 족자로 만들어서 허균에게 주었다는 것이 그것이다.[169] 주지번은 이 사행에서 허균뿐 아니라 선조와 유근에게 「천고최성첩」을 선물하였고, 기자헌에게도 묘지명 글씨를 써주는 등 전체적으로 조선측에 자신의 서화를 후하게 증정하고 돌아갔다.[170] 허균은 이후의 저술에서 주지번이 이정(李楨)의 그림을 고평한 사실을 회상하거나, 주지번이 남긴 글씨와 그림에 대해 호평하고 있는데,[171] 이런 사실은 주지번의 행적이 그림이나 글씨와 같은 문학 이외의 문인 예술이라 할 방면에 허균의 관심을 열어준 흔적일 것이다.

또한 「병오기행」에 묘사된 주지번은 명대 문화의 동향에 대한 허균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인물이다. 허균은 주지번에게 왕세정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하는 점을 묻고, 왕세정이 주지번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는 학문과 문장을 익히는 과정에 대한 진술을 비교적 자세히 실은 다음, 현재 한림원에서 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다.[172] 이러한 질문은 주지번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

---

166) 위의 글, 4월 4일자, "上使給綠花段一疋, 息香千枝. 副使給藍花紗一端, 太平廣記一部"; 『성소부부고』 권24, 「성옹지소록」 하, "朱太史以五枚贈余, 兎則桀而易渴, 羔則膩而易拉, 俱不若我國黃毛筆也.";

167) 『성소부부고』 권18 「병오기행」, 3월 28일자, "[上使] 因出世說刪補、詩雋、古尺牘等書以給." 그 외에도 『한정록』 범례에서 주지번에게 받은 책으로 『棲逸傳』, 『玉壺氷』, 『臥遊錄』을 거론하였다.

168) 『성소부부고』 권20, 「上黃芝川(丙午八月)」, "朱太史之畫, 得閣下詩而益重. 不佞居然得二寶, 此行侈矣."

169) 위의 글, 4월 30일자, "上使用黃葵陽贈亡兄韻詩, 作二長律, 書爲大簇以給."

170) 주지번이 병오사행에서 소개한 서화의 범위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김홍대, 「朱之蕃의 丙午使行(1606)과 그의 서화 연구」, 『온지논총』 11, 온지학회, 2004, 272~282쪽; 주지번의 『千古最盛』 전달 경위와 『천고최성』의 수록 내용 및 후일담에 대해서는 유미나, 「朝鮮 中期 吳派畫風의 전래 -《千古最盛》帖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005.3, 한굴미술사학회, 2005, 83~91쪽; 그 밖에 丁生花, 「朱之蕃의 문학 활동과 한중 문화 교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참조.

171) 『성소부부고』 권15, 「李楨哀辭」, "朱蘭嵎太史見其畫, 千古最盛稱之曰, 海內罕儔也."; 「題千古最盛後」, "書雖不及朱公, 而畫則優焉."

172) 이 문답 과정에서 주지번은 자신이 계사년(1593)에 왕세정을 만났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왕세정은 1590년에 타계하였기에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주지번이 왕세정을 만났다는 일화는 주지번과 함께 한림원에 근무했던 고기원(顧起元, 1565~1628)이 쓴 「주지번 묘지명」에도 주지번의 성장 과정을 서술하는

아니라 주지번 너머에 있는 명대 문단의 현황과 당대의 거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명나라 사람 중 누가 시문을 잘 짓는지, 이들이 어떤 식으로 문장 실력을 연마하는지 등의 문제는 허균의 20대 시절 저작인 『학산초담』에서 이미 나타나는 소재로, 주지번을 만나기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관심사의 연장선에서 나온 궁금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73]

또한 허균이 주지번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선어(仙語)를 다용하는 취향을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대목도 있다. 주지번이 허균에게 지어준 시는 허균의 정자들이 있던 곳을 소재로 하여 지은 칠언절구 10편의 연작이다. 주지번은 연작시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언급을 남겼다.

> 승경지와 많은 지역을 모두 다 읊을 수 없기에 일단 그대가 정자를 지은 곳 근처를 따라 절구 열 편을 지었다. 물과 산의 중함에 걸맞지 못하니 질정을 바란다.[174]

여기에 이어지는 10수의 제목은 건물명 또는 지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중 태허정(太虛亭), 능소봉(凌霄峰), 경화도(瓊花島) 같은 제목이 등장한다.[175] 그중 마지막 작품 「경화도(瓊花島)」를 일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海上三山望去迷	바다 위 삼신산은 바라보매 아득한데
瓊花何自到湖西	경화는 어디로부터 호서에 이르렀나
應緣絶壑非人境	올라갈 높은 절벽은 사람 사는 곳 아니요
也有神仙過此棲	그저 신선이 지나가다가 깃들만한 곳이겠네

대목에 나온다. 다만 "공은 또한 일찍이 대대로 교분이 있는 집안의 자제로서 대사구 엄주 왕세정 공을 배알하였다."라는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을 뿐이다. (김정숙 역주, 앞의 글, 194~195쪽, "公又嘗以通家子, 謁大司寇弇州王公.") 이 점은 주지번과 왕세정 간에는 공공연히 특필할 만한 내용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방증이 된다.

173) 『鶴山樵談』, "中國近來名士能文者, 申瑤泉時行、許穎陽國 (중략) 李太史廷機, 尤表表著名, 而操觚握翰, 期臻立言者, 不可勝數. (중략) 蓋明人積學攻苦, 登文階者, 燃膏達曉, 守螢牕者, 瑛雪窮年, 故發爲詩文, 皆渾厚有氣力. 我國則組織絺章, 以占科第, 及登科第, 則棄書冊若仇讎. 東方古稱文獻, 今何泯泯如此邪?"

174) 『皇華集』 권41, "勝地多境, 冗不及遍詠, 聊從君家結亭之下 摘爲十絶, 不足爲湖山重也. 幸斧正焉."

175) 10수 전체의 제목은 太虛亭, 千秋觀, 縹緲樓, 凌霄峰, 臨滄峰, 賓日峰, 邀月亭, 鸚鵡洲, 點滄石, 瓊花島이다. 이러한 작명들에 도가적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실제 허균이 지은 건물에 대한 시가 아니라 허균이 자랑한 꿈에 나오는 상상 속의 지명일 가능성도 있다.

주지번의 이 시는 그 전에 이미 있었을 허균의 저자명이 표방하는 상징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지어졌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후의 허균 작품에 등장하는 선취의 양상은 주지번과의 만남 이전에 배태되어 있다가 이후 증폭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주지번은 허균의 문재를 고평해준 인물이자, 당대의 중요 서적과 서화에 대한 관심을 열어준 사람이다. 다만 허균의 시선은 왕세정을 비롯한 명대 문단의 거장들을 향해 있지 주지번의 문학 세계를 향하고 있지는 않다. 허균 자신이 주지번과 같이 서예나 회화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려고 시도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주지번을 만난 이후에도 허균은 그림과 글씨는 전문 업자에게 맡겼다. 하지만 문학뿐 아니라 서화와 문방구, 및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서적에 대해 허균이 개안하게 된 것은 주지번의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허균에게 주지번은 개인적 호의를 베푼 인물이자, 문화적 취향의 윤곽을 그리는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했고, 이후 허균 산문에 드러나는 주요 관심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2) 왕세정(王世貞) 저작에 대한 선망

그렇다면 허균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주된 모범이 된 동시대의 작가는 누구인가? 이미 선행 연구에서 허균은 “왕세정을 숭배”[176]했다거나, 왕세정은 허균에게 “압도적 영향을 미친 존재”[177]라고 지적되어 왔다. 기왕의 연구들에서는 왕세정을 의고파의 영수로 취급한 위에서 허균이 왕세정에게 집약된 의고파적 산문 작법을 긍정했다고 본 경우도 있고,[178] 문학 창작의 원칙을 논함에 있어서 왕세정의 작법론을 수용했다고 본 경우도 있다.[179] 여기서는 허균의 산문에 투영된 왕세정의 존재가 과연 의고파의 영수로 이해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문학론 외에 허균 산문 전반에 있어서 왕세정이나 그의 저작이 어떤 맥락에서 운위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허균에게 왕세정의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허균

176)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79쪽.
177) 정길수, 「허균 문학론의 모순과 일관 –왕세정 혹은 의고문파 문학론과의 연관-」, 『한국한문학연구』 51, 한국한문학회, 2013, 274쪽.
178) 강명관, 「허균과 명대 문학: 허균문학 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13(1), 민족문학사학회, 1998, 210쪽.
179) 정길수, 앞의 글, 296쪽.

에게 미친 왕세정의 ‘영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를 분석적으로 파악해보려 한다.

우선 근자의 연구들은『예원치언(藝苑巵言)』같은 저작에 나타나는 복합적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왕세정의 문학론이 단순한 의고주의나 모방론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180] 또는 왕세정이 이른바 당송파로 지칭되는 문인인 모곤과 문학관 차원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181] 등을 거론하면서 문인 왕세정의 복잡다단한 면모를 환기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 문인들이 보는 왕세정도, 선진양한(先秦兩漢)의 문체를 닮기 위해 난해한 구법이나 자법을 사용한 문장가라는 인상 외에, 정주학을 비판하고 이단을 숭상한 인물로 보거나,[182] 문장가로서의 면모보다는 박학과 고증에 주목한 경우[183] 등 다양하다. 왕세정의 실체와 별개로 각 문인들이 제각기 왕세정의 어느 한 면모를 중시하였던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허균에게 비친 왕세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허균 산문에 있어서 왕세정의 영향을 규명하는 데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주지하듯 허균은 20대 시절까지는 왕세정의 존재나 위상에 대해서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184] 그런데 주지번을 만난 1606년 이후의 글에는 왕세정의 견해나 그의 저작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하는 글이 다수 발견된다. 특히 문학 창작의 원칙을 표명한 ‘문설’의 문학론이 예원치언에 나오는 문학론과 유사함을 논한 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허균의 산문에 왕세정이라는 인물이 소환되는 양상을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것들을 정리하여 허균의 산문 창작에서 왕세정의 흔적이 어떠한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첫째, 왕세정이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을 전용한 경우가 있다. 「속정희부(續靜姬賦)」와 같이 명시적으로 왕세정의 작품을 본딴 것이라고 밝힌 경우 외에, 왕세정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왕세정이 사용한 표현을 활용한 경우가 있다. 가령

---

180) 정길수, 앞의 글, 283쪽.

181) 박경남, 「茅坤과 王世貞)의 교유와 그 공통적 지향점 -申最의『皇明二大家文抄』를 통해 본 茅坤과 王世貞-」,『漢文學論集』31, 근역한문학회, 2010, 36~41쪽.

182) 하지영, 「王世貞과 조선 중·후기 산문」,『한국한문학연구』57, 한국한문학회, 2015, 205쪽. 서종태는 왕세정이 송유를 비판한 것에 대해 비난했고, 권상일은 왕세정이 선가(禪家)를 좋아하고 신기한 것을 숭상하여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183) 진재교, 「조선조 후기 文藝 공간에서의 王世貞」,『한국한문학연구』54, 한국한문학회, 2014, 160~161에서는 李瀷의 사례를 들었다.

184) 「鶴山樵談」, “王李(왕세정·이반룡-필자 주)則鉤章棘句, 欲軼先秦, 南溟華健, 董茅則平熟, 王愼中則富贍, 明人皆厭之, 以爲腐俗. 余所見略同. (중략) 王元美輩, 以明人文章比西漢, 以獻吉比太史公, 于鱗則比子雲, 自托於相如, 其自誇太甚.”

이나옹이 금강산으로 떠날 즈음에 지어준 송서(送序)에서는 불경의 문체미를 상찬한 대목에다 『예원치언』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대조의 편의를 위해 원문을 함께 본문에 제시한다.

> 허균: 그 달견은 과연 골짜기가 터지고 하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으며, 그 뜻을 배치하고 표현을 부리는 것은 나는 용이 구름을 탄 듯하여 아득해서 형상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문장에 있어서 귀신과 같았다.
>
> 其達見果若峽決而河潰, 其措意命辭, 若飛龍乘雲, 杳冥莫可形象, 眞鬼神於文者哉.[185]

> 왕세정: 장자, 열자, 능엄경, 유마경은 문장의 귀신이다. 그 달견은 골짜기가 터지고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으며, 아득한 변화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
>
> 莊生列子楞嚴維摩詰, 鬼神於文者乎. 其達見峽決而河潰也. 窈冥變幻而莫知其端倪也.[186]

위의 경우는 표현을 거의 고치지 않고 하나의 단락 내에 있는 표현을 순서만 바꿔 놓은 경우이다. 그 외에 『예원치언』의 상이한 두 개 단락에 나오는 표현을 한 편의 글에 조합해 놓은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 허균: 무릇 문장과 서화는 공벽(拱璧)이나 장주(掌珠)처럼 정해진 제값이 있지만, 세간에서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가치를 알겠는가? 오늘날 어리석은 자들은 다들 시문(詩文)도 세대마다 수준이 다르다고 하여 눈으로 본 것은 배척하고 귀로 들은 것만 귀히 여겨 모두 다 옛 사람을 절대 따를 수 없다고 한다. 아아, 거대한 물결이 이는 바다에서 산호가 잠긴 곳이 어디인지 모르면서 부질없이 스스로 나불나불하면서 어디라고 지목하여 찾는 격이다.
>
> 凡文章書畫, 如拱璧掌珠, 自有定價. 世非波斯胡, 庸詎知其高下乎? 今之昧者, 俱以詩文, 從世升降, 斥目覩而貴耳聞, 咸謂古人不可及. 嗚呼! 大浸漫空, 不識沈珊瑚者何處, 而枉自呶呶指求乎.[187]

> 왕세정: 우린 이반룡은 상(商)나라 종묘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술그릇[彝]이나 주대(周代)의 구정(九鼎)이 천하의 귀한 보물이지만, 삼대 시절의 사람이나 페르시아 상

185) 『성소부부고』 권4, 「送李懶翁還枳柤山序」.
186) 『弇州四部稿』 권146, 「藝苑巵言」 3. 위 인용의 번역문을 포함하여 이하에 인용하는 『예원치언』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여 약간 수정하였다. 왕세정 저, 박종훈·이관성 역, 『예원치언』 上·下, 보고사, 2016.
187) 『성소부부고』 권4, 「詞翰傳芳序」.

인이 아니면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것과 같다.

李于鱗, 如商彝周鼎, 海外瓌寶, 身非三代人與波斯胡, 可重不可議.[188]

왕세정: 『시경』 삼백 편은 성인인 공자가 직접 산삭한 것으로, 삼백 편의 의미는 각기 깊고 얕은 다름이 있고 시어에도 지극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마치 푸른 바다를 보면서 매우 깊다고만 생각할 뿐, 산호가 어디 잠겨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三百篇刪自聖手, 然旨別淺深, 詞有至未. 今人正如目滄海, 便謂無底, 不知湛珊瑚者何處.[189]

문장의 가치를 제대로 감별할 줄 아는 사람을 빗대어 페르시아 사람을 운운한 다든지, 고전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바다 속에서 산호가 잠긴 위치를 아는 경우에 비긴 것은 「예원치언」에 흩어져 있는 표현을 한 데 차용한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허균이 이춘영의 뇌문에 활용한 "무한한 그대의 지혜 맺혀 영원하리. 천고에 빛나며 해와 달같이 항상 밝으리라(無涯之智, 結爲大年. 炳烺千古, 日月常鮮)" 같은 대목은 왕세정의 「이우린선생전(李于鱗先生傳)」의 논찬부과 거의 겹치는 점이나,[190] 「명사가시선서(明四家詩選序)」에서 이반룡의 시를 민아산에 쌓인 눈에 비긴 대목이 왕세정의 「유동림천지기(遊東林天池記)」에 나오는 표현과 같다는 점은[191] 기왕의 논의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둘째, 문학 작품의 선발 및 서첩 감상에 있어서 왕세정이 드러낸 감식안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해 놓은 경우가 있다. 다음은 『세설신어보』를 만든 작업을 거론하면서 왕세정의 식견을 고평한 경우이다.

원미(元美)는 문장에 있어 박식하고 통달한 점이 천고에 드문 사람인데, 이 책을

188) 『弇州四部稿』 권148, 「藝苑巵言」 5.
189) 『弇州四部稿』 권144, 「藝苑巵言」 1.
190) 진재교, 앞의 논문, 156~157쪽. 왕세정 작품의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無涯之智, 結為大年. 日月經天, 光彩當鮮, 嗚呼何恨哉."
191) 김우정, 「허균 산문의 연구 – 산문 텍스트의 확장과 문예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281쪽 각주 20번 참조. 해당 논문에서는 허균의 "于鱗峭拔清壯, 論者以岷峨積雪方之, 殆足當矣."라는 문장 중 '岷峨積雪'이라는 표현이 「遊東林天池記」의 "巨石危出, 可以西眺, 岷峨積雪, 俯視千里, 而為雲霧所翳間" 구절과 자구가 일치한 점에 주목한 듯하다. 하지만 허균의 발언은 이반룡의 시가 지닌 미감을 논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므로 『예원치언』에서 이반룡의 시풍을 논한 "李于鱗, 如峨眉積雪, 閬風蒸霞" 대목과 더 유관한 것 같다.

찬탄하여 읊조리면서 입에서 떠난 적이 없었고, 손수 산보(刪補)하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본 바 없이 그렇게 했겠는가. (중략) 유의경의 설과 하량준의 책은 우리나라에서 읽힌 지 오래이나, 유독 이른바 '산보(刪補)'는 보지 못했다. 일찍이 엄주의 문부(文部)에서 그 서문을 보고 전체 책을 구입하고 싶었으나 소원을 이룰 수 없었다. 병오년 봄에 태사(太史) 주지번이 조서를 받들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내가 접반관의 한 사람이 되어 그에게 깊이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이별에 즈음하여 그가 몇 종의 책을 꺼내 내게 주었는데, 이 책도 그중 하나이다. 태사의 특별한 은혜에 감동하였고 평생 보고 싶던 책을 얻었기로 마치 큰 구슬이라도 받듯이 절하고서 끝까지 다 보고 두 사람(유의경과 하량준을 가리킴-인용자 주)은 치우쳤거나 잡된 반면 왕씨가 독조(獨造)가 됨을 알게 되었다.[192]

위의 글은 유의경의 『세설신어』와 하량준의 『하씨어림』 내용을 편집하여 왕세정이 만든 『세설신어보』에 허균이 주해를 덧붙여 만들었다고 하는 『세설산보주해』(失傳)의 서문 일부이다. 허균은 주지번과의 만남 이후에야 겨우 입수하게 된 왕세정의 『세설신어보』를 읽고 나서, 왕세정의 안목이 유의경이나 하량준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왕세정의 감식안에 대한 허균의 공감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허균이 왕세정의 시각에 완전히 동의한 것만은 아니다. 이반룡의 당시(唐詩) 선발에 관해서는 그 의의를 일부 인정하여 이반룡의 당시 선발에 대해 유감을 표한 왕세정과 입장을 달리했다.

허균: 우린(于鱗) 이반룡 씨가 선택한 것은 그저 경한(勁悍)하고 기걸(奇杰)한 것들로, 자기 법도에 합하면 싣고 맞지 않으면 1척의 벽옥과 경촌(經寸)의 구슬을 던져 버리고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으니, 영웅이 사람을 속인 것이라 전부 믿을 바는 못 된다. 산실된 작품이나 시 중에 여러 작품 사이에 묻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상찬되지 못한 것을 우린씨가 능히 뽑아내어 상급의 반열에 올렸으니, 이는 확실히 언외의 독자적인 이해로서 세간의 견해로는 헤아릴 만한 것이 아닌 면이 있다.[193]

---

192) 『성소부부고』 권4, 「世說刪補注解序」, "元美文章博達, 千古所希, 而讚詠是書, 吃吃不離口, 至爲之手自刪補者, 豈無所見而然也. (중략) 劉說, 何【良俊】書, 行於東已久, 而獨所謂刪補者, 未之覩焉. 曾於弇州文部中見其序, 嘗欲購得全書, 願未之果. 丙午春, 朱太史【之蕃】奉詔東臨, 不佞與爲儐僚, 深被奬詡. 將別, 出數種書以贈, 則是書居其一也. 不佞感太史殊世之眷, 獲平生欲見之書, 如受拱璧, 拜而卒業, 益知二氏之爲偏駁而王氏之爲獨造也."

193) 『성소부부고』 권4, 「唐詩選序」, "至於于鱗氏所揀, 只擇勁悍奇傑者, 合於己度則登之, 否則尺璧經寸之珠, 棄擲之不惜, 英雄欺人, 不可盡信也. 其遺篇逸韻, 埋於衆作之間, 歷千古不見賞者, 于鱗氏能拔置上列, 是固言外獨解, 有非俗見所可測度也." 이반룡 이름으로 출간된 『당시선(唐詩選)』은 이반룡의 작품이 아니라 당시 서점에서 자의로 만들고 이반룡의 이름을 가탁한

왕세정: 우린 이반룡이 명나라 시를 선집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와 같다면 어떻게 당음(唐音)을 고취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 또 이반룡이 당나라 시를 선집한 것을 보고, '어떻게 소명태자의 『문선(文選)』을 포괄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고, 옛 『문선』을 선집한 것을 보고, '어떻게 『시경(詩經)』의 풍아(風雅)를 이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진사왕(陳思王) 조식(曹植)의 「증백마(贈白馬)」라는 작품과, 두보와 이백의 가행(歌行) 중에 내 버린 것이 많다. 이 어찌 이른바 '영웅이 사람을 속인 것이니,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경우가 아니겠는가.194)

위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왕세정의 시각과 의견을 달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체(書體)의 감상과 관련해 왕세정의 의견은 별다른 근거 없이 권위의 원천으로 활용된다.

형산 문징명 선생은 서법이 국조의 제일로, 왕희지, 왕헌지, 조맹부와 견줄 만하니, 왕원미가 이들을 고금사대가(古今四大家)라고 칭한 것이 실로 거짓이 아니다.195)

이 역시 주지번에게 얻었다고 하는 문징명의 서첩에 쓴 발문으로 그 서두에 나오는 첫문장이다. 여기서도 왕세정의 견해는 의문의 여지 없이 긍정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비단 허균만의 것은 아니고, 문징명의 서법에 대한 왕세정의 평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단지 허균만의 태도는 아니고, 이정귀의 경우에도 왕희지와 왕헌지의 필적을 묵각한 이왕첩(二王帖)의 가치를 논하면서 왕세정이 상찬하였다는 점을 특필한 사례가 있다.196) 또한 한호의 글씨가 뛰어났음을 거론한 한석봉 제문에서도 왕세정이 한호의 글씨를 인정했다는 일화를 거론하였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古今詩刪」提要, "流俗所行, 別有攀龍唐詩選. 攀龍實無是書, 乃明末坊賈, 割出詩刪中唐詩, 加以評註, 別立斯名, 以其流傳既久, 今亦別存其目, 而不録其書焉."

194) 『弇州四部稿』 권150, 「藝苑巵言」 7, "始見于鱗選明詩, 余謂如此何以鼓吹唐音; 及見唐詩, 謂何以衿裾古選; 及見古選, 謂何以箕裘風雅; 乃至陳思贈白馬, 杜陵李白歌行, 亦多弃擲. 豈所謂英雄欺人, 不可盡信耶."

195) 『성소부부고』 권13, 「題石刻諸經後」, "衡山文先生【微明】, 書法爲國朝第一, 與右軍、大令、趙吳興相埒, 王元美稱古今四大家者, 良不誣也."

196) 이정귀, 『月沙集』 권41, 「二王帖墨刻跋」, "蓋二王帖, 天下罕眞本. 此卽淸江時博士裒聚諸名蹟, 手自臨刻者, 曾見王弇州集中, 只得右軍一卷, 有志喜題詩後; 得中下二卷, 至於踸躍不寐, 敬識而藏之之語, 多見其貴也."

小楷猊抉	작은 해서는 사자가 돌을 후빈 듯,
大字龍纏	큰 글자는 용이 서린 듯 하여
右軍吳興	왕희지·조맹부와
千載拍肩	천년 만에 비견했네.
太倉【王元美】擊節	왕원미도 무릎을 치며
賞以奔驥	달리는 준마 같다 감탄했네.[197]

이처럼 허균의 글에서 왕세정은 비단 문장뿐 아니라, 글씨와 같은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취향의 결정자'와 같은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국가의 전장(典章) 제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왕세정이 어떻게 기록하였는가에도 허균은 주목하고 있다. 1610년경에 쓴 「성옹지소록(惺翁識小錄)」에서는 왕세정의 「성사술(盛事述)」에 나오는 일찍 현달한 자의 목록에 주목하여 그에 비견할 조선의 사례를 나열하기도 하였다.[198] 허균의 태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왕세정의 기록을 지목한 다음의 사례이다.

> 허균: 우리나라 여자로서 중국에 뽑혀 가서 황제를 모신 자는 다들 총애를 받았다. 그리하여 권영균(權永均)·여귀진(呂貴眞)·최득비(崔得霏)는 열경(列卿)이 되었고, 조선에 있으면서 중국의 봉록을 받았으니, 왕엄주가 「이전술(異典述)」에서 '외국인이 중국 관직을 갖고서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199]

> 왕세정: 권귀비의 아비는 광록경 권영균이요, 임순비의 아비는 홍려경 임첨년이요, 이소의의 아비는 광록소경 이문이요, 여첩여의 아비는 광록소경 여귀진이요, 최미인의 아비는 홍려소경 최득비니, 모두 조선인이다. 비록 귀함이 열경에 이르렀으나, 이들은 조선에 거하였다. 선덕 연간에 권영균이 권귀비의 부고를 듣게 되어 백금과 미포를 하사받았다. 유구국 정승 정복(程復)은 요주(饒州) 사람인데, 그가 말하길 그 왕을 40년간 보좌하여 나이 80에 치사하고 요주에 돌아오겠다 하니 허락하

197) 『성소부부고』 권15, 「祭韓石峯文」. 왕세정이 한호의 글에 대해 감탄했다는 일화를 기록한 다른 글로는 『성소부부고』 권24, 「惺翁識小錄」 下, "滕季達從來, 得其手迹, 示王元美, 則稱可與松雪比肩. 屠長卿以爲怒猊抉石, 其名得振於中國, 亦近代人所無也."; 이정귀, 『月沙集』 권47, 「韓石峯墓碣銘」, "弇州王世貞筆談, 稱石峯書, 如怒鮫決石, 渴驥奔泉."

198) 『성소부부고』 권24, 「惺翁識小錄」 下, "嘗觀虞初春明退朝錄, 及王弇州盛事述, 則備載早達者, 自十一至五十, 悉搜無遺. 我國無文籍可考, 始以見聞記之." 허균은 왕세정의 「盛事述」에서 11세부터 50세 동안에 현달한 자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현전하는 「盛事述」에는 4세부터 51세에 현달한 자의 목록을 나열하였다. (王世貞, 『弇山堂別集』 권5 참조)

199) 『성소부부고』 권22, 「성옹지소록」 상, "我國女子選入天朝, 侍皇上無者不被寵, 故權永均、呂貴眞、崔得霏, 得爲列卿, 居此受俸祿. 王弇州「異典述」所稱'外國官以中國職而居外國者'是已."

고, 국상(國相) 겸 좌장사(左長史)로 삼아 4품을 주었다. 오랑캐로서 중국의 관직을 가지고서 오랑캐 땅에 살고, 중국인으로서 오랑캐 관직을 가지고 중국에 사는 것은 역시 이상한 일이다.[200]

허균이 지목하고 있는 왕세정의 글과 허균의 글을 위와 같이 나란히 놓고 보면 몇 가지 사항이 드러난다. 우선 왕세정 글의 출처로 허균은 「이전술(異典述)」을 지목했지만, 실제로 해당 사항이 나오는 곳은 「기사술(奇事述)」이다.[201] 「이전술」이나 「기사술」 모두 명나라 전고를 다룬 『엄산당별집(弇山堂別集)』에 수록된 것으로, 『엄산당별집』의 완성 시기는 왕세정이 64세 되던 1589년으로[202] 왕세정 사망 1년 전의 저작에 해당한다. 『엄산당별집』의 조선 유입 시기는 『해동역사(海東繹史)』의 기록에 근거해 1615년 민형남(閔馨男)의 사행 때로 알려져 있으나[203] 1611년에 완성된 『성소부부고』에 위와 같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최소한 『엄산당별집』의 일부 내용은 그보다 일찍 조선에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4]

또한 원전의 표현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생략한 다음 「성옹지소록」의 맥락에 맞춰 재배치하여 해당 내용이 갖는 어감을 바꾸어 놓았다. 원전에서 조선인들을 오랑캐[夷]라고 지칭한 것을 허균의 글에서는 '외국'으로 바꾸었다. 이어서 원전에서는 조선과 유구의 사례를 나란히 취급했던 것 중에서 조선 사례만을 따오면

200) 『弇山堂別集』 권5, 「奇事述」 3, "權貴妃父, 光祿卿永均; 任順妃父, 鴻臚卿添年; 李昭儀父, 光祿少卿文; 吕婕妤父, 光祿少卿貴真; 崔美人父, 鴻臚少卿得霏, 皆朝鮮人也. 雖貴至列卿, 而尚居朝鮮. 至宣德中, 永均以訃聞賜白金米布, 又琉球國相程復饒州人也. 自言相其王四十年 年八十乞致仕, 歸饒州, 許之, 命以國相兼左長史, 賜四品誥. 夷人以中國官居夷而中國人, 以夷官居中國, 亦異事也."

201) 왕세정은 「皇明奇事述序」에서, 자신이 일전에 쓴 「異典述」은 人主에 관한 사안을, 「盛事術」은 하늘에 관한 사안을 다뤘는데, 인주나 하늘에 관련되지 않으면서 기이하여 빠뜨릴 수 없는 사안으로서 稗史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들을 「奇事述」에 수록했다고 했다. 『弇州四部稿續稿』 권49, "余既有異典盛事二述矣. 異典者, 遘之自人主者也; 盛事者, 遘之自天者也. 盛事之遘, 無非嫩已; 異典之遘嫩, 居十九疵, 亦居一已. 乃復有遘之自天而不可言盛, 遘之自人而不可言典, 或人與事之巧相符者, 或絶相悖者, 為其稍奇, 而不忍遺之, 别錄成卷, 以備虞初春明之一采, 故不敢稱稗史也."

202) 郑利华, 『王世贞研究』, 学林出版社, 2002, 241쪽.

203) 진재교, 앞의 논문, 147쪽. 『海東繹史』 권42 「藝文志」 '經籍'의 總論에 관련 기록이 나온다. 명 황제에게 바치는 주본(奏本) 내용을 전재한 『광해군일기』조 7년 윤8월 8일 임자 2번째 기사에서, 종계변무와 관련하여 『엄산당별집』의 「史乘攻誤」에서 이성계를 이인임의 당이라고 서술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1년 전인 1614년 중국에 천추사로 갔던 허균이 가져온 서책 11종의 하나로 『엄산당별집』을 거론하였다.

204) 이종묵, 「중국 皇室로 간 여인을 노래한 宮詞」, 『古典文學硏究』 40, 고전문학회, 2011, 217쪽.

서 조선 여자가 중국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다는 문장을 서두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공녀의 사안을 사뭇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초에 선발되어 중국에 들어간 이 공녀들이 홍희(洪熙, 1395~1404) 연간에 순사(殉死)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205] 그뿐 아니라 「성옹지소록」에서는 위의 공녀 기사에 이어 내시로서 중국 조정에 들어가 헌종의 총애를 받았다는 김영(金英)의 사례를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206] 조선인으로서 중국의 주류 사회에 진입한 긍정적 사례를 나열하려는 작자의 서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왕세정의 글은 단지 잘 지어진 문학 작품의 원천으로서만 아니라, 명대 제도나 명대 사회에서 일어난 사실 전반에 관한 역사적 정보의 원천으로서 허균의 글에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균의 글에 인용되고 있는 왕세정의 글의 여러 면모를 종합해 보면, 허균에게 왕세정은 독창적인 문장 표현을 산출해낸 문장가로서는 물론 예술 작품의 평가자로서, 명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의 기록자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강남(江南) 문화에 대한 관심

그런데 허균의 글이 왕세정 한 사람에게 받은 영향으로 환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허균 산문에는 왕세정 이외에도 상찬되고 있는 명대 작가가 등장할 뿐 아니라, 주제 상의 뚜렷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그런 작가들이 누구이며, 그 작가들을 탄생시킨 문화적 저변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허균이 하량준(何良俊, 1506~1573, 자는 元郎)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 내가 젊을 때 『하씨어림(何氏語林)』을 읽고 중국에 하원량 씨가 있음을 알았고, 그의 전집(全集)을 보고 싶었으나 얻을 수 없었다. 일찍이 고씨(顧氏)의 『시여(詩餘)』

205) 영락 연간에 선발되어 중국에 들어간 공녀들이 영락제 사후 처형된 사실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1424) 10월 17일 무오 2번째기사 참조. 명나라에서 영락제의 총애를 받는 데 성공한 공녀의 일족들이 이 사실을 조선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격상하는 원천으로 삼았다고 보는 시각으로 다음을 참조. 임상훈, 「明初 朝鮮 貢女 親族의 政治的 成長과 對明外交活動」, 『明淸史硏究』 39, 명청사학회, 2013. 3~11쪽.

206) 『성소부부고』 권22, 「성옹지소록」 상, "中官之入朝者, 代各有之. (중략) 金英太監, 安東人, 入朝爲司禮監太監, 有寵於憲宗, 不肯奉使於本國曰, '吾安敢抗禮於吾國王乎?' 其賢乎哉. 是以, 天朝史牒稱英爲謙遜識事體, 且有扶護正人之功云, 其果徵也."

에서 하원랑의 서문(序文)을 보니, 상세하고도 고아한 문체[詳縟古雅]가 참으로 명가였다. 또 여러 척독 중에서 대략 그의 한두 편의 짧은 글을 보고 속으로 선망해 마지않았다.207)

이 글은 하량준의 『사우재총설(四友齋叢說)』에 붙인 허균의 발문인데, 위에 든 부분은 그 서두로, 하량준의 글에 주목하게 된 계기를 자술한 대목이다. 하량준에 대한 호평은 앞서 본 「세설산보주해서」에 나온 것과 같이 여기서도 『하씨어림』이 그 첫 계기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추가로 몇 가지 글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고씨'의 『시여』에 대한 하량준의 서문을 지목하였다.

현전하는 하량준 문집의 서문 중에서 허균이 지목한 조건에 부합하는 서문은 고종경(顧從敬)의 『초당시여(草堂詩餘)』에 대한 「초당시여서(草堂詩餘序)」 한 편이 있다.208) 『초당시여』는 송대에 나온 사보(詞譜)로, 명대에 크게 성행하였다.209) 주지하듯 허균은 20대 시절에 사(詞) 창작에 관심을 가져 『시여도보(詩餘圖譜)』와 같은 책을 열람하기도 했고, 「교산억기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 편의 사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다.210) 『초당시여』 역시 그러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열람하게 된 듯하다.

하량준의 「초당시여서」에서는 '시여', 즉 사(詞)라는 것은 고악부의 한 갈래로 가곡의 발단이 된다고 하면서, 시(詩)가 악(樂)의 분리, 악부의 탄생과 사(詞)의 출현, 사(詞)의 퇴조와 가곡(歌曲)의 출현을 중국 역대 왕조의 변천에 준하여 개괄한 다음, 자신이 서문을 쓰고 있는 『초당시여』가 가진 자료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 있다. 그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고여소(顧汝所)가 『초당시여』를 판각한 것이 완성되자, 동해 하량준에게 서문을

207) 『성소부부고』 권13, 「四友叢說跋」, "余少日讀何氏語林, 卽知中國有何元郎氏, 欲覩其全集而不可得. 嘗於顧氏詩餘, 見元郎之序文, 詳縟古雅, 信是名家. 又於諸尺牘中, 略覩其一二小文, 心竊艷之不置."

208) 하량준의 「초당시여서」 서문에 나오는 고여소(顧汝所)의 이름이 고종경임을 고증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 杨万里, 「关于《草堂诗余》的编者」, 『文献』, 1999(3), 274~275쪽.

209) 류기수, 「국내 稀貴 筆寫本 『草堂詩餘』에 관한 小考」, 『中國硏究』 85,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20, 52쪽.

210) 『鶴山草談』, "姊氏嘗自稱作詞則合律, 喜爲小令. 余疑其誑人, 及見詩餘圖譜, 則句句之傍盡圈點, 以某字則全淸全濁, 某字則半淸半濁, 逐字註音. 試取小作符之, 則或有五字之誤, 或有三字之誤, 其大相舛謬者, 則無一焉." 박현규는 명대에 나온 張綖과 萬惟檀이 각각 지은 『시여도보』 중 국내 유전되는 책자를 근거로 허균이 장연의 것을 보았으리라 추정하였다. 박현규, 「許筠 詞 분석」,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257쪽. 「교산억기시」에 수록된 사 작품에 관한 분석으로는 같은 논문 259~269쪽.

써달라고 요청했다. 하량준은 이렇게 말한다. “시여(詩餘)란 고악부의 갈래에서 나온 것으로 후대 가곡의 발단이 된다. 아득한 상고시대에는 예교(禮敎)가 아직 흥하지 않았으나 악(樂)과 음(音)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악(樂)이란 인심이 말미암아 생겨나는 곳이니, 그 순화(淳和)함이 흩어지지 않고 내려와서 원성(元聲)이 되면 여러 이항 가요의 사(辭)가 되는데, 이러한 사(辭)는 수정하지 않아도 절로 악곡에 맞아서 주나라 열국의 풍(風)으로부터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니, 관현이 이것이다. (중략)

총괄해 보면, 시가 망한 이후 악부가 있게 되었고, 악부가 없어진 이후 시여가 있게 되었으며, 시여가 폐해진 이후에 가곡이 있게 된 것이다. [시여가] 탄생한 시기는 흥성하는 시대였고 폐해진 시기는 말세이니, 원성(元聲)이 있으면 법이 간단해지고 사람들의 기풍을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원성이 무너지면 법을 쓰는 것이 엄격해지고 화합시키는 일이 어려워지니, 흥하거나 혁파되는 일의 대략이 이렇다. 악부는 또렷하고 굳세어 양양한 것을 공교로움으로 치고, 시여는 완곡하고 화려하며 유창한 것을 아름답다고 치는데, 『초당시여』에 실린 작품으로서 주언방(周邦彦)·장선(張先)·진관(秦觀)·안숙원(晏叔原)[211] 같은 사람들의 작품은 부드러운 정서와 느릿한 소리를 남김없이 모사한 것이 바로 사가(辭家)의 이른바 마땅히 행해져야 한다는 이른바 본색이다.”[212]

허균은 위와 같은 하량준의 글에서 사(詞)의 발생 배경과 변화의 내력을 제시하는 대목에 상세한 설명을 가한 점과, 사나 악부와 같은 장르의 미감에 대해 거론한 대목을 두고 상세하고 고아한 문체를 구현하였다고 본 듯하다.

앞서 본 허균의 자술에 따르면 허균은 하량준의 척독에도 주목하였다고 하는데, 현전하는 하량준의 문집에는 허균의 척독에 빈출하는 것과 같은 100자 이하 분량의 서간문은 발견되지 않아서 허균이 지목한 하량준의 척독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허균 젊은 시절부터 하량준의 글을 여러 편 접하면서 그 문장에 매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1607년 무렵에는 확실히 일독한 것으로 여겨지는 하량준의 『사우재총설』에 대해서는[213] 앞서 본 것처럼 별도로 발(跋)을 지어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

211) 원문에는 晁叔原으로 되어 있으나 陶子珍, 『明代詞選研究』, 秀威資訊科技, 2003, 86쪽의 고증에 의거하여 晏叔原으로 보았다.

212) 何良俊, 『何翰林集』 권8, 「草堂詩餘序」, “顧子汝所刻草堂詩餘成, 問序於東海何良俊. 何良俊曰: 夫詩餘者, 古樂府之流別, 而後世歌曲之濫觴也. 爰自上古鴻荒之世, 禮教未興, 而樂音已具. 蓋樂者, 由人心生者也. 方其淳和未散, 下有元聲, 則凡里巷歌謠之辭, 不假繩削, 而自應宮徵, 卽成周列國之風, 皆可被之, 管絃是也. (중략) 大抵創自盛朝, 廢於叔世, 元聲在則為法省, 而易諧人氣, 乖則用法嚴而難叶, 玆蓋其興革之大較也. 然樂府以皦勁揚厲爲工, 詩餘以婉麗流暢為美, 即草堂詩餘所載, 如周清眞、張子野、秦少游、晁叔原諸人之作, 柔情曼聲, 摹寫殆盡, 正辭家所謂當行所謂本色者也.總而覈之, 則詩亡而後有樂府, 樂府闕而後有詩餘, 詩餘廢而後有歌曲.”

얼마 전 중국에 들어가는 역관에게 부탁하여 『동해집(東海集)』이라는 책을 구해달라 했더니, 그 책은 사지 못하고 그 『사우총설(四友叢說)』이라는 책 8권을 사 왔다. 내가 이 책을 가만히 살펴보니, 옛 육경(六經)과 자(子)·사(史)에서부터 국조(國朝)의 고사(故事) 및 패관(稗官)·소승(小乘)에 기록된 것과, 곁으로 불교와 도교, 사곡가(詞曲家)에까지 통달하여 광범위하게 종합해서 수록해 놓았다. 그의 견해와 논평한 내용은 모두 보통 사람의 견해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 책을 보니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니, 참으로 기이한 서적이다. 내 비록 그의 전집은 못 보았으나 이 책으로도 하원랑 씨의 조예를 다 알 수 있으니, 통쾌하기가 마치 구름을 걷고 하늘을 보는 것 같다. 옛적에 채옹(蔡邕)이 오(吳)에 들어가서 왕충의 『논형(論衡)』을 읽어보고 난 다음 그의 논의가 갑자기 명쾌해지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특이한 인물을 보지 못한다면 마땅히 특이한 서적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나도 이 서적을 읽고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214]

허균이 보았다는 8권 분량의 『사우재총설』이 현전하는 38권본의 『사우재총설』과 같은 본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량준의 『사우재총설』은 1569년에 30권 분량으로 초각본이 나왔고, 이어서 8권 분량의 속서가 나온 것을 초각본에 합쳐서 1579년에 총 38권 분량으로 중각되어[215] 허균이 말한 것과 권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인용문에 나온 것과 같은 경사자집 및 국조의 고사와 불교, 도교, 사곡가에 대한 내용은 현전하는 38권본 『사우재총설』의 목차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서 내용상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허균이 상찬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우재총설』이 포괄한 소재상의 다양성이 하나이고 그런 소재에 대한 하량준의 견해의 탁월성이 다른 하나이다. 그렇게 『사우재총설』 내용을 예찬한 다음 구름을 걷고 하늘을 보듯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었다고 하는 소감을 토로하였다. 그와 같은 시각을 염두에 두고 『사우재총설』의 내용과 허균 저작의 내용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

213) 『성소부부고』 권20, 「上尹月汀(丁未八月)」, "王瓊尙書逸事四條, 乃見於何良俊四友叢說. 今錄上, 幸賜覽如何."라고 하여 『사우재총설』 수록 내용에 대해 거론하였다.

214) 『성소부부고』 권13, 「四友叢說跋」, "頃因朝譯, 求所謂東海集則不能購, 購其四友叢說者八卷而來. 余竊觀之, 則古六經子史暨國朝掌故, 及裨官小乘所箚, 旁通於釋道詞曲家, 靡不博綜而該錄之. 其所見所論騭, 具出人意表, 可喜可驚可奇, 眞異書也. 雖未覩全集, 而卽此可盡元郎氏所造詣, 快如抉雲而覩天也. 昔蔡中郎入吳見王充論衡, 而談議頓爽, 人曰: '不見異人, 當見異書.' 吾讀是書也, 亦自云焉."

215) 重華書局編輯部, 『四友齋叢說』, 「出版說明」, 重華書局, 1951, 1쪽.

우선『사우재총설』내용을 그대로 전재한『한정록』기록에서는 주로「존생(存生)」편에 나오는 양생술 관련 내용을 채록하고 있어서, 조선의 사대부 사회 내의 금기와 정면으로 저촉되었을 것이라고 볼 대목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사우재총설』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소재 중 당대의 조선 독자로서는 민감하게 볼 수 있을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다.

> 황정견은 이렇게 말한다. "유자(儒者)들은 항상 '불교 사원(佛寺)에서 쓰는 비용은 보통 수준의 일만 가호의 생산량에 해당하여 실로 백성의 곡식과 옷감을 낭비한다'고 한다." 나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사무를 돌아본 이래 천하의 재력이 고갈되는 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국가에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여 부세를 걷는 정사가 없더라도 해충이나 가뭄, 수해가 나기도 하고 전염병이 수십 개 주에 퍼지기도 한다. 이것은 민중들이 공통으로 겪는 일로 차고 기우는 데에 운수가 있는 것이지, 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리라. 그러나 천하에 선한 사람은 적고 선하지 않은 자는 항상 많으니, 왕자(王者)는 형벌과 상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불자(佛者)는 화복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세교에 있어 어찌 적은 보탬이라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유자들은 이것을 싸잡아 배척하려 드니 참으로 무슨 논리인가?[216]

사회 내 불교 사원의 일정한 역할과 그들의 재화 사용의 정당성을 논했다고도 볼 수 있을 위의 글은 황정견의「강릉부승천선원탑기(江陵府承天禪院塔記)」의 일부 내용을 전재한 것으로,[217]『사우재총설』「석도(釋道) 1」편의 맨 마지막 대목에 수록되어 있다. 위의 글에서는 '천하에 선한 사람은 적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많다'고 보는 관점을 천명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명제가 아니라 '선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많다'는 현상에 대한 언명이므로,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한 맹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는 선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많다는 것을 주어진 세계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맹자식의 성선설을 신봉하는 일각의 견해와는 충돌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의 상태에 대한 이처럼 다소 냉소적인 전제 위에서 저자는 왕

---

216) 何良俊,『四友齋叢說』권21「釋道」, 重華書局, 1951, 193쪽, "黃山谷言: 儒者常論佛寺之費, 蓋中民萬家之產, 實生民穀帛之蠹. 雖余亦謂之然. 然自余省事以來, 觀天下財力屈竭之端, 國家無大軍旅勤民丁賦之政, 則蝗旱水溢, 或疾疫連數十州. 此蓋生人之共業, 盈虛有數, 非人力所能勝者邪. 然天下之善人少, 不善人常多, 王者之刑賞以治其外, 佛者以禍福以治其內, 則於世教豈小補哉? 而儒者嘗欲合而軋之, 是真何理哉?"

217) 黃庭堅,『山谷集』別集 권4,「江陵府承天禪院塔記」.

자(王者)와 불자의 사회 내 기능을 양립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를 제시해 놓았다. 대목은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유가적 정치 규범과 함께 불교의 역할을 긍정한 허균의 다음 발언과 공명하는 면이 있다.

> 나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에서 이단을 물리치고 불교를 숭상하지 않는 것은 옳다. 그러나 사람이 신불에게 복을 비는 것도 한 가지 도이다. 정학을 숭상하여 위에서는 사습을 맑게 하고, 불교의 인과화복설을 가지고 아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경계한다면 그 정치는 고르게 될 것이다.[218]

물론 위에 제시한 허균의 주장은 사회 구성원의 계층을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 보는 시각 위에서 하층민을 단속하는데 유용하다는 차원에서 불교의 효용을 긍정하는 것으로, 『사우재총설』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 내 질서 유지를 위한 불교 교리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하량준이 『사우재총설』에서 도가의 경전이 번다하고 수행방식이 잡다하다는 점을 들어 사뭇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허균의 글에서는 도가적 수련 방식에 대한 정면 비판이 나오지 않는 점은 양자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하량준은 불교 경전은 삼장(三藏)에 든 것은 그중 천근한 것이라도 다 읽을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도, 도가류 서적으로는 노자의 『덕경(道德)』·『장자』·『열자』 외에 『청정경(清淨經)』·『정관경(定觀經)』을 비롯한 몇 편을 제외하고는 쓸데없는 내용이 많아서 볼 가치가 없다고 했다.[219] 또한 도가의 수련 방법이 매우 번다함을 지적하면서 '대도(大道)'는 한 가지 뿐이고 그 나머지를 다 '선(仙)'이라 부르는 것이라 하면서 선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환각에 불과한 것으로 불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여 놓았다.[220]

『사우재총설』에는 불교나 도교 따위에 관한 내용 외에도 당시 강남에서 성행

---

218) 『성소부부고』 권16, 「重修兜率院彌陀殿碑」, "余曰: "國家闢異端, 不崇釋教是矣. 而人之祈福於神佛, 亦一道也. 使崇正學, 以淑士習於上, 而以佛之緣果禍福, 警人心於下, 則其爲治均矣.""

219) 何良俊, 『四友齋叢說』 권21 「釋道」, "佛家以經、論、律、為三藏. 今錄在藏中者, 雖最淺近如律儀之類, 亦皆可觀. 若道家則自老子《道德》、《莊子》、《列子》之外, 其他可觀者, 惟「清淨經」、「定觀經」、「赤文洞古經」、「黃庭內景經」、「玉樞經」、短簡者四五種而已. 又有「大洞玉經」, 載在真誥中, 大率亦黃庭內景之類, 總四十九章, 極為深祕, 文亦簡古, 其他皆蕪穢冗雜不足觀矣."

220) 위의 글, "佛氏證果, 止於三乘. 而道家所從入者, 其門甚多, 世傳有三千六百家, 蓋劍術符水服金丹御女服日精月華導引辟穀搬運飛精補腦墨子服氣之類皆是, 不可以一途限也. 總之, 大道惟一而已, 其餘則謂之仙, 縱或得成, 亦只是幻, 佛氏之所甚不取者. (중략) 今人以幻為覺, 則是認賊為子, 其去大道不知幾萬由旬矣."

하던 다양한 문화 현상과 생활 양식에 대한 서술과 그에 대한 저자의 논평이 담겨 있다. 명말에 이르러 사치스러워졌다고 하는 식생활에 관한 내용, 정원 조경 풍조에 대한 내용, 가마 타는 계층이 확대된 사실, 글과 그림을 합쳐 놓은 산수화의 등장과 그에 대한 상찬 등[221]이 그것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바, 허균의 산문에 등장하는 서화와 문장의 결합, 식문화에 대한 관심사는 『사우재총설』의 서술 초점과 공명하는 면이 있다.

다만 하량준은 현재의 상하이 지역에 해당하는 송강부(松江府) 화정(華亭)에 근거지를 둔 인물로서, 인접 지역인 소주(蘇州)에 비하여 송강 지역에는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후배가 선배의 업적을 기리는 풍토가 전혀 없어서 이전 시대의 훌륭한 지역사를 문헌 근거에 입각해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222] 이런 언사를 두고 혹자는 하량준이 소주에 대해 강렬한 대항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223] 하지만 화론(畫論)에 있어서 하량준은 인접 지역인 소주 문예계의 취향을 대변하는 화론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경쟁 지역이었던 남경 중심의 절파(浙派) 회화를 평가절하하는 견해를 형성해 갔다고 알려져 있다.[224] 이 과정에서 하량준은 왕세정의 화론과도 상이한 논의를 제시했지만,[225] 그런 면까지 허균에게 포착되지는 않았다. 허균에게는 소주와 송강 지역 간의 경쟁의식보다는 범 강남 지역에서 공유되고 있던 문화적 지향을 수용하는 국면이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

허균이 동시대의 강남 문화를 선망한 내력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226] 1596년에 정구(鄭逑)에게 보낸 척독에서 강릉 읍지의 범례를 전여성(田汝

---

221) 우런수, 김의정 외 역, 『사치의 제국』, 글항아리, 2019 참조. 우런수는 명말 강남의 물질 문화에 대해 다루면서 하량준의 『사우재총설』을 주자료 중의 하나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 문화에 대해 서술한 대목을 제시하였다. 식문화에 대해서는 45쪽, 정원에 대해서는 47쪽, 가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48, 127~133쪽. 산수화에 대해서는 285~286쪽에 나온다.

222) 何良俊, 『四友齋叢說』 권16, 「史 十二」, "吾松江與蘇州連壤, 其人才亦不大相遠. 但蘇州士風, 大率前輩喜汲引後進, 而後輩亦皆推重先達. 有一善, 則褒崇贊述, 無不備至, 故其文獻足徵. 吾松則絕無此風, 前賢美事, 皆湮沒不傳, 余蓋傷之焉. 今據某聞見所及, 聊記數事, 恨不能詳備也."

223) 나카스나 야스노리, 강길중 외 역, 『우아함의 탄생』, 민음사, 2009, 57쪽.

224) 오승희, 「明代 狂態邪學派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7쪽, 79쪽.

225) 위의 논문, 23~26쪽.

226) 정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281~287쪽; 김동준, 「韓國漢文學史에 표상된 中國 西湖의 전개와 그 지평」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106쪽. 여기서는 신흠이 서호라는 특정 장소에 집중한 것과 달리 허균은 소주와 항주를 비롯한 강남 지역 전반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成, 1503~1557)의 『서호유람지(西湖遊覽志)』에 의거하고 싶다고 한 사례나, 우여곡절 끝에 중국 남부를 두루 돌아보고 온 노인(魯認)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신세가 "항아리 속에 갇힌 듯"하다고 한탄한 「조관기행」 속의 서술이 허균의 '강남열'을 입증하는 근거로 자주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허균의 이른바 '강남열'이라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현전하는 자료로는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허균 산문에 빈출하는 측면, 가령 서화 감상이나 일상생활의 사건에 대한 주목, 양생술이나 신선술에 대한 관심 등은 강남 문인들이 두루 공유하고 있던 문화적 지향점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이에 허균 산문에 등장하는 소재와 16세기 중반 이후 강남 사대부들의 문화적 지향 간의 친연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본 절의 논의를 마무리하려 한다.

첫째, 원굉도(袁宏道, 1568~1610) 및 서위(徐渭, 1521~1593) 작품과의 유사성 문제다. 이른 시기부터 선행 연구에서는 원굉도 작품과 허균 작품 간의 유사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227] 이에 대해 강명관은 허균이 『성소부부고』 수록작을 창작하던 시기에 원굉도의 문집을 읽을 수 없었다는 점, 『한정록』 편찬 시기에 비로소 원굉도의 저작을 접할 수 있었지만 직접 읽은 것이 아니라 『소창청기』와 같은 문헌에 실린 것을 간접적으로 접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228]

하지만 영향 관계가 부인된다고 해서 그 유사성마저 부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장 창작에 있어 개성을 강조하고 모의와 답습을 배척하는 태도는 허균의 산문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229] 강명관의 지적이 나온 후에도 원굉도의 문학 이론과 허균의 주장 간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실은[230] 양자 간 영향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친연성마저 부인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강명관은 허균이 "왕세정을 숭배"했다고 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231] 허균의 주장 중 원굉도의 주장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조차 의고주의에 대한 옹호적 논변의 일환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기존에 허균 문학론의 반의고

---

227) 劉明鍾, 『韓國의 陽明學』, 同和出版社, 1983, 54쪽; 이종호, 「허균 문예사상의 좌파양명학 성향」(Ⅰ), 『韓國思想과 文化』 1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46쪽. 두 글 모두 허균의 문예사상이 원굉도의 그것과 유사함을 지적하였을 뿐,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228)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70~72쪽.

229) 『성소부부고』 권12, 「文說」, "左氏自爲左氏, 莊子自爲莊子, 遷、固自爲遷、固、愈、宗元、脩、軾亦自爲愈、宗元、脩、軾, 不相蹈襲, 各成一家. 僕之所願, 願學此焉."

230) 정길수, 2013. 274~275쪽.

231) 강명관 앞의 글, 80쪽.

적 성격과 독창성의 근거로 드는 구절들, 가령 「명사가시선서」에서 표절을 배척한 대목이나, 「구소문략발」에서 구양수와 소식의 산문의 가치를 긍정한 것에 대해, 「명사가시선서」는 애초에 '의고파 작가'들의 시를 선발한 시선집에 부친 서문이어서 의고적 창작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구소문략발」에 나오는 명제 역시 '의고적 창작론이 협애하게 이해되는 데 대한 반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232] 이런 해석의 전제가 되는 것은 첫째, 허균의 왕세정 혹애를 두고 '왕세정=의고파'라고 도식화하는 점, 둘째 허균 역시 후대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이몽양·하경명·이반룡·왕세정을 '의고파'로 이해했을 것이라는 추정 이 두 가지이다. 하지만 이런 도식은 연구자가 설정한 것이지 허균의 저작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원굉도와 허균의 문학적 주장이 유사하게 보이는 내력을 설명하는 해법으로 제시된 이후의 논의에서는 허균이 혹애했던 왕세정 저작에 이미 원굉도의 주장과 유사하게 '작품 창작에 있어 모의와 답습을 배척'하는 지향이 나타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233] 이러한 주장은 허균의 입론에 원굉도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나타남을 실상대로 주목한 점, 그 연원이 어디인가에 대해 문헌적 근거를 제시한 점, 왕세정의 문학론을 단순히 의고파와 등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해당 논의에서 근거로 제시한 『예원치언』 내의 논의들은 표절과 모방을 배격한 것이지, 허균이 강조한 것처럼 '창작할 때에는 자기 내면의 고유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입장과 등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논의에서 예로 든 『예원치언』의 언명들은 표절을 비판했거나 모의의 결과로 자연스럽지 못한 작품이 된 점을 비판한 대목이거나 과거의 특정 시대만을 숭상하는 주장을 비판하고 당송문의 가치를 옹호하는 견해이지,[234] 자기만의 독창성을 투영하여 창작할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 시대 창작물의 가치를 선양한 언명이 아니다. 왕세정이 동렬에 운위되는 '의고파' 문인에 비해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은 그것대로 너른 공감을 얻고 있는 평가이고[235] 왕세정의 후기

---

232) 강명관, 앞의 글, 78~80쪽.

233) 정길수, 앞의 글, 280~281쪽.

234) 정길수, 앞의 글, 왕세정의 표절 비판에 대해서는 281~284쪽, 과거의 전범에 대해 특정 시대를 숭상하는 주장을 비판하고 당송문의 가치를 옹호한 점에 대해서는 285쪽.

235) 张少康·刘三富, 『中国文学理论批评发展史』, 北京大学出版社, 1995, 177~180; 廖可斌, 『明代文学复古运动研究』, 商务印书馆出版社, 2008, 355쪽. 특히 张少康·刘三富는 왕세정의 문학 이론이 공안파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서 왕세정이 모의를 비판한 점과 시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나 性情의 眞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었지만, 예로 든 단락의 주지는 표절 비판이지 자신만의 고유한 입론이나 개성의 부각을 옹호한 원굉도의 적극적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작품에서 기생의 신발로 술을 마셨다고 하는 하량준의 경우에 육박할 정도로 낭만적 풍조가 드리워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236] 하지만 원굉도나 허균에게서 공히 보이는 바 전통적 전범을 제대로 배웠다면 전통적 문체가 그대로 드러날 리 없다는 언술이나, 작자 자신의 고유한 것을 드러내는 국면이 가치 있다는 적극적 주장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가령 원굉도의 작풍을 대변하는 것처럼 자주 인용되는 「서소수시(敍小修詩)」에서는 저자의 동생 원중도의 시문을 가리켜 "대부분 오직 성령을 펼쳐 내어 격식이나 투식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흉억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붓으로 쓰려 하지 않았다"고 상찬하고는 "하자 있는 곳도 역시 본색이요 독조의 말이다. 나로 말하면 그 하자 있는 곳을 극히 좋아하고 남들이 말하는 훌륭한 곳이 오히려 분식하고 도습한 것이라고 한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237] 이렇게 서술했다.

> 문장은 진·한을 준거로 삼는다면서 진·한 사람들이 어찌 일찍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육경』에서 배웠음을 알지 못하는가? 시는 성당을 준거로 삼는다면서, 성당 사람들이 어찌 일찍이 한 글자 한 글자 한·위에서 배웠음을 알지 못하는가? 진·한의 문장이면서 『육경』을 배웠다면, 어찌 다시 진·한의 문장이 있겠는가? 성당의 시면서 한·위의 시를 배웠다면, 어찌 다시 성당의 시가 있겠는가?[238]

이상의 언술은 전통적인 글쓰기 관습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 결과로 학습의 대상이 된 전범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고유한 표현이 도출될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단지 표절이나 모방을 배격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대로 옛 것을 배웠다면 그 결과로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는 적극적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태도는 허균의 「문설」에 천명된 다음과 같은 태도와 공명한다.

> 저 몇 분의 문장 역시 일상어와 무슨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까? (중략) 저분들의 문장은 모두 자기 시대의 일상어를 변화시켜 전아한 언어로 만든 것이니, 참으로 점

---

236) 廖可斌, 앞의 책, 358쪽.

237) 원굉도, 심경호 외 역, 『역주 원중랑집』 2, 「敍小修詩」, "大都獨抒性靈, 不拘格套, 非從自己胸臆流出, 不肯下筆. (중략) 疵處亦多本色獨造語. 然余則極喜其疵處, 而所謂佳者, 尙不能不以扮飾蹈襲爲恨, 以爲未能脫盡近代文人氣習故也."

238) 앞의 글, "文則必欲準于秦漢, 詩則必欲準于盛唐, 剿襲模擬,影響步趨,見人有一語不相肖者,則共指以爲野狐外道.曾不知文準秦漢矣, 秦漢人曷嘗字字學六經歟? 詩準盛唐矣, 盛唐人曷嘗字字學漢魏歟? 秦漢而學六經, 豈復有秦漢之文? 盛唐而學漢魏, 豈復有盛唐之詩?"

> 철성금이라 할 만합니다. (중략) 옛날을 모범으로 삼지 않는 것은 홀로 서고자 하는 것이니 대체 무엇이 지나친가요? 당신은 저 몇 분의 문장을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까? 좌씨는 그대로 좌씨, 장자는 그대로 장자, 사마천과 반고는 그대로 사마천과 반고,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은 그대로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입니다. 이분들은 남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각자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제 소원은 이런 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아래 집 짓고 표절한다는 꾸지람 듣는 일을 저는 부끄러워합니다.[239]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표절과 모방을 배격하는 내용이 나오고, 일상어를 적절히 고상한 언어로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한 상찬이 나오지만[240] 그것은 이상적인 글쓰기를 구현하는 수단에 관한 서술이다. 허균이 보기에 궁극적으로 희망할만한 경지는 '홀로 선다'는 것으로, 각자 자신의 일가를 이룬 글쓰기라는 실천 양태가 배움의 대상이지, 과거의 대가가 이루어 결과물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허균의 「문설」은 자신의 글이 고문(古文)의 격식에 어긋난다고 하는 비판을 가설하고 그에 응하여 자신의 글이야말로 고문의 이상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에 글 전체가 바쳐지고 있다. 허균의 주장은 '남들이 상찬하는 대목이 오히려 문제'라고 하는 원굉도 식의 급진적 주장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모방과 표절을 배척하는 데 머물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문장가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데에서는 왕세정의 입론보다는 원굉도의 견해에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르에의 자각이라는 점에서도 허균과 원굉도는 공명하는 대목이 있다. 원굉도는 총 273편의 척독을 남겼는데 그중 40% 이상을 소주 현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썼다. 이 시기의 척독은 관리 생활의 애로나 병고를 호소하는 것에서 유머와 해학의 내용, 또는 향락주의라고도 간주되는 인생의 즐거움 추구에 관한 내용까지 다양한 소재를 망라하고 있다.[241] '성령설'에 근거한 입론도 이 시기의 척독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242] 이렇듯 일상의 다양한 소재를

---

239) 『성소부부고』 권13, 「文說」, "之數公之文, 亦何異於常耶? (중략) 率當世之常語, 而變爲雅眞, 可謂點鐵成金也. 後之視今文, 安知不如今之視數公文耶? (중략) 不銓古者, 亦欲其獨立, 奚飫爲? 子詳見之數公乎? 左氏自爲左氏, 莊子自爲莊子, 遷、固自爲遷、固, 愈、宗元、脩、軾亦自爲愈、宗元、脩、軾, 不相蹈襲, 各成一家. 僕之所願, 願學此焉. 恥向人屋下架屋, 蹈竊鉤之誚也."

240) 정길수, 앞의 논문, 289~290쪽. 해당 논의에서는 일상어를 문학 작품에 쓰는 사안을 두고 왕세정은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고 이 점이 왕세정과 허균의 차이라고 지적하였다.

241) 內山知也, 『明代文人論』, 木耳社, 2006, 292~293쪽.

242) 위의 책, 322쪽.

척독의 글감으로 끌어들인 점은 허균의 글과 상당한 친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척독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왕에 허균의 척독이 서위의 척독과 '인상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243] 서위의 척독은 병고와 고독감을 호소하는 내용, 서화를 품평한 내용 등 일상의 여러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244] 허균의 것과 소재상의 유사성이 있다. 특히 상대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유머러스한 필치로 표현한 다음의 척독을 허균의 것과 나란히 놓고 보면, 상통하는 발상을 찾아볼 수 있다.

> 서위: 제가 가난하여 절간의 주방처럼 적막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고기를 내려주신 덕분에 비쩍 마르는 꼴을 면했습니다. 죽간에 쓸 만한 고상한 감사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고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공은 고매하신 분이라 진실로 야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붓을 놓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감사드립니다.[245]

> 허균: 아침에 일어나니 집게손가락이 움직이더니 갑자기 좋은 어물(魚物)을 선사받았습니다. 하필 바다의 용왕만 아름다운 맛을 낸다고 하던가요. 양강(襄江)의 축항(縮項)이란 고기나 서주(徐州)의 독미(禿尾)라는 고기가 모르긴 하지만 그 맛이 여기에 대적이 될까요. 실처럼 잘게 썰어 회를 쳤더니, 군침이 흘렀습니다.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으니 국수나 먹던 창자가 깜짝 놀라 천둥소리를 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감히 아홉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습니까.[246]

선물로 받은 음식과 같이 그 이전 시기의 산문 창작에서는 소재에 흔히 오르지 않았던 것을 글감으로 선택한 점, 감사의 표현에 있어 우스개에 가까운 표현

---

243) 김성진, 「허균의 척독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40쪽. 심경호 역시 원굉도의 척독에서 시사·개인·일상생활 등에 대한 심경을 단형의 문장으로 토로하는 특징이 조선 후기에 널리 퍼졌으며 그 조기의 사례가 허균이라고 지목하였다. 심경호, 앞의 책, 71~73쪽.

244) 서위 척독의 주요 소재와 그 정조에 대해서는 赵树功, 『中国尺牍文学史』, 河北人民出版社, 1998, 396~399쪽. 다만 赵树功은 서위의 척독에 일부 유머러스한 글이 등장함을 인정하면서도 인생사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서위 척독의 본령이라고 본다.

245) 徐渭, 『徐渭集』, 「答許口北」, 中華書局, 1983, 482쪽, 「答王口北」, "野客清寒, 僧廚齋寂, 承此食肉之盛惠, 得免瘦癯; 因思無竹之雅言, 形諸圖畵. 惟公超雅, 諒不揶揄, 停筆以思, 捫心知感."

246) 『성소부부고』 권21, 「與龍山倅(辛亥三月○李劼)」, "朝起, 食指動, 忽承嘉魚之貺, 何必海王輸俊味乎. 襄江縮頂, 徐州禿尾, 未知風味敵此否. 斫膾如絲, 不覺饞涎先流, 筯入口則湯餠腸驚作雷鳴, 敢不九頓耶?"

을 과감히 삽입한 점에서 양자는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영향 관계로부터 발생했다고 볼 자료상의 근거는 없다. 하지만 허균이 「사우총설발」 자술한 것처럼 “제가의 척독”을 읽는 중에 명말 척독에서 두루 공유하고 있는 일상적이고 유머러스한 서술 방식을 간접적으로 흡수한 결과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허균의 글에는 문인 생활의 아취를 고양할 수 있는 기물, 서화, 음식 등 일상생활의 요소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명 중기 이후 강남 문인들에게서 보이는 생활 문화의 지향과 상당히 흡사한 면모이다. 가령 서위의 척독에도 어떤 종이는 글자를 쓰는 데 적합하고 그림을 그리는 데는 부적당하다거나, 비단은 작은 해서를 쓰기에는 부적당하다는 식으로 문방구에 대한 평가를 문집에 올리는 작품의 소재로 활용한 것이 있다.[247] 허균의 글에도 붓과 종이에 대한 중국 문인의 평을 전재한 대목이 나온다.[248] 또한 허균은 한호에게도 개인적으로 글씨를 선물 받았고, 때로 이정의 그림과 합쳐서 서화첩을 만든 사실이 드러난다.[249] 주지하듯 그는 「도문대작」과 같이 음식이라는 단일 소재에 관한 저술을 남기기도 했고 다음 장에서 상론할 바와 같이 기생이나 첩과 같이 성적 향응이나 유흥을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서술을 다수 남겼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문방사우에 대한 고조된 관심과 더불어 사대부로서의 아치를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술에 대한 탐색에 주목했던 명대 강남 사대부 사회에서 공유되었던 지향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250]

셋째, 허균의 글에 나타나는 양생술이나 도가서에 대해 주목하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서적이 『준생팔전(遵生八牋)』의 내용 구성 방식이다. 『준생팔전』은 청수묘론전(淸修妙論牋-명언 모음), 사시조섭전(四時調攝牋-계절별 건강법), 기거안락전(起居安樂牋-거주 공간), 연년각병전(延年却病-氣功·導引法 등), 연한청상전(燕閑淸賞牋-서화, 골동 등), 음찬복식

247) 徐渭, 앞의 책, 482쪽, 「答張翰撰」, “絹不宜小楷, 燥則不入, 稍濕則盡斗而煙. 高麗紙如錢厚者始佳, 然亦止宜書, 不宜畵. 今寄者薄黯善沁, 又卷束盡成皺裂, 即書亦不宜也. 四長幅則佳品, 惜兩月不弄, 手生, 壞卻此等物耳.”

248) 『성소부부고』 권24, 「성옹지소록」 下, “弇州嘗言, ‘宣城諸葛氏所造筆, 極其精緻, 終日用之不敗.’ 朱太史以五枚贈余, 兎則桀而易渴, 羔則膩而易拉, 俱不若我國黃毛筆也. 朱太史用我筆, 五日握而不敗, 是天下第一品也. 多束數千枝而去, 又喜紙多, 擇極薄者而曰, 此可搨摹也.”

249) 『성소부부고』 권20, 「與韓石峯(甲辰三月)」, “承惠天風海濤四大字. (중략) 僕掛之壁, 三日坐臥其下, 尙不知倦. 和璧之貺, 敢不感頓.” 이정의 그림과 한호의 글씨를 합쳐서 서화첩을 만든 사실을 보여주는 글로는 『성소부부고』 권14, 「三先生贊」, 「李畫佛祖讚」이 있다.

250) 大木康, 『明淸江南社會文化史硏究』, 東京大学東洋文化硏究所, 2020, 491~498, 657~658쪽.

전 (飮饌服食牋-식물, 약품 등), 영비단약전 (靈祕丹藥牋-증상별 약물 처방법), 진외하거전(塵外遐擧牋-은자들의 전)의 8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에 연구자에 따라 『준생팔전』은 연구자마다 식보(食譜)로 취급되거나, 양생서로 보거나, 도륭의 『고반여사』와 문징형의 『장물지』로 이어지는 예술품 감상에 대한 지침서로 보기도 한다.[251] 즉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분석할 뿐, 『준생팔전』을 이루는 각각의 내용들이 『준생팔전』이라는 제하에 하나의 담론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묶여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주목되지 않은 것이다. 예외적으로 오오키 야스시는 『준생팔전』의 서문을 인용하여 "귀중한 인생을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 아래 문방사우나 예술품, 건강법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한데 모일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252] 16세기 말에 이러한 서적이 탄생하여 도륭과 문징형 같은 강남의 유력 지식인의 저작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당시 사대부들의 관념 속에서는, 양생술이나 은사의 삶에 대한 관심이 문인 생활의 아취를 고양할 방법에 대한 탐색과 별개의 논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보다 추상적인 의제 아래 하나로 묶일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허균은 『준생팔전』 중 은자의 일생에 관한 내용을 채록하여 『한정록』에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준생팔전』 자체를 탐독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253] 하지만 『준생팔전』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강남 사대부들의 문화적 활동 전반에 허균이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생법과 은자의 일생이라는 소재 역시 문인으로서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탐색의 일환으로서 허균의 시야 안에 포착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51) 식보로 취급한 연구로는 정세진, 「明代 食譜 『遵生八箋·飮饌服食箋·脯鮓類』에 대한 기초적 탐색」, 『인문학연구』 6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홍진임, 「『遵生八牋 · 飮饌服食牋』의 食治에 관한 硏究」, 대전대학교 박사논문, 2015. 양생서로 보는 연구로 송경애, 「명대 후기 문인들의 養生文化 연구 -高濂의 『遵生八牋』와 李漁의 『閑情偶寄』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7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2.; 예술품 감상 안내서로 본 사례로 장진성, 「조선 후기 미술과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조선 후기 고동서화(古董書畵) 수집 및 감상 현상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009, 116쪽; 김지선, 「『長物志』에 나타난 明末 사대부의 내면세계」, 『中國學論叢』 42,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137~138쪽. 조송식,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서유구(徐有榘) 예술론의 체계성과 특징」, 『美學』 82(3), 한국미학회, 2016, 41~43쪽.

252) 大木康, 위의 책, 189쪽.

253) 허균이 『준생팔전』을 직접 읽지 않고 간접 인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조송식, 앞의 논문, 42~43쪽.

다만 허균은 강남 문인들이 도가적 분파라는 이름 아래 행했다고 하는 강신술이나 방중술의 탐색에까지 나아간 것 같지는 않다.[254] 왕세정은 자신의 지인인 왕석작의 딸 담양자가 여러 가지 신이한 행적을 행하다가 백일 승천했다는 내용의 「담양대사전」을 써서 출판하기까지 했지만, 허균의 저술 중에는 그에 필적할 신비주의적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허균 생전의 동급 관료들의 눈에 비친 허균은 "허위적인 책을 만들기 좋아하여 산수 참설(山水讖說)과 선불이적(仙佛異迹)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비난받은 바 있다. 추가 증거가 없는 한 그런 비난의 진위를 따지기 어렵지만, 그런 언사가 허균에게 가해졌다는 사실은 허균이 허황한 글을 곧잘 지어내곤 하는 혐의를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것을 좀 더 가치중립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허균에게는 도가적 언어를 활용하여 상상한 바를 기술하는 방식의 창작 상의 지향이 있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한 창작 상의 지향이 생겨나게 된 원천은 현전 자료들로 추정해 볼 때, 강남 문화에 대한 허균의 포괄적 관심 속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54) 大木康, 앞의 책, 186~187쪽.

Ⅲ. 한정의 미학과 문인 의식

1. 한정의 미학과 청언(淸言) 양식

1) 세설체(世說體) 전통과 한정의 재정의

허균에게 대부분 적대적이었던 전근대 시기 사대부 독자들조차 공히 인정한 것은 허균의 척독만은 특출하다는 것이었다. 허균보다 한 세대 아래인 이민구(李敏求, 1589~1670)는 『성소부부고』를 읽은 소감을 적은 편지에서 허균의 시와 산문에 대해 대체로 박하게 평가하는 중에서도 척독에 대해서만은 더러 나는 새를 쏘아 맞힐 만큼 빼어난 사수와 같은 솜씨에서 나와 사람들이 웃으며 담소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고 고평하였다.[1] 이민구는 그런 척독들이 오로지 『세설(世說)』과 『어림(語林)』 및 명나라 사람의 글을 따온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감미롭고 의미심장한 표현을 동원하여 생동감 있는 모습을 만들어낸 점을 인정했다. 몇 세대 지난 후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호의적인 시선에서 허균의 글을 평가하면서 『성소부부고』 중에서도 간독이 아름답고 기이하다고 하여 역시 척독을 고평하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 단보 허균의 『부부집』에 실린 간독들은 아름답고 기이하여 즐겁게 읽을 만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드문 것이다. 그는 명나라 문장을 배운 자인데도, 그가 취해 활용한 것은 『세설』 한 권이다. 그러므로 그 맑고도 총민한 면을 따르기 어려운 것이다. 그가 나옹 이정에게 준 편지에 화원의 포치를 서술한 내용은 역력히 신묘한 경지에 들어간 것으로 매우 기이한 필치이다.[2]

이덕무 역시 허균의 여러 작품 중 척독을 가장 훌륭한 성취라고 평가하고 그 원천으로 『세설』을 지목하였다.[3] 앞서 이민구의 글에 나온 『세설』이나 위의 인

---

1) 이민구, 『東州集』 「文集」 권1, 「答吳三宰論選《西坰集》簡約兼示《覆瓿稿》書)」, "尺牘, 時時出射鵰手, 令人軒衡解權, 而專取《世說》、《語林》及明人詞翰, 雋永以爲生活." 여기 쓰인 '軒衡解權'이라는 말은 허균의 「四友齋記」에서 쓰였던 표현인데 사람의 얼굴 모양을 형용한 것으로, 눈썹을 들어 올리고 볼을 느슨히 하면서 웃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다는 뜻이다. 衡은 눈썹, 權은 顴과 통하여 양 볼을 가리킨다.

2)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51, 「耳目口心書」 4, "許端甫覆瓿集, 簡牘娟奇可喜, 東國罕有也. 學明文者, 而其取用者, 一部世說也. 故其淸警難及. 其與李懶翁楨帖叙畵苑鋪置, 歷歷入妙, 甚奇筆也."

3) 정확히 말하면 이덕무는 '簡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허균의 짧은 서간문을 지칭했고,

용구 모두 『세설』이란 유의경(劉義慶, 403~444)의 『세설신어』를 지칭하는 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4] 이처럼 전근대의 독자들에게 허균 산문 중에서 가장 잘된 것으로 평가된 장르가 척독이고, 허균 척독의 원천이 세설로 지목되었다고 한다면, 『세설』이 그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설신어』류 저작들이 가진 특징이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세설체'로 부른다면 허균에게 세설체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5]

그런데 허균의 척독에 주목한 현대 연구자들은 최근까지 허균의 척독과 『세설』의 관계에 그다지 천착하지 않았다. 일찍이 허균의 척독에 주목한 김성진은 이 시기 명말 문단을 의고문 대 소품문의 구도로 바라보면서 허균의 척독을 소품문의 흐름 속에 귀속시킨 위에서, 허균의 척독은 조선 후기에 부상하는 서정적이고 단문화된 척독의 선구적 사례라고 평가하였다.[6] 김성진의 관점은 배미정의 논의에서도 이어져 허균의 척독은 명말 소품문의 유행과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특히 배미정은 허균의 척독을 '척독소품'이라고 부름으로써 척독을 소품과 결부시키는 입장을 보였다.[7] 문제는 허균의 척독을 소품이라는 장르에 귀속시켜서는 허균의 척독이 『세설』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점이 규명되기 어렵다는 점이다.[8]

그런 가운데 최근에야 허균의 척독과 『세설신어』의 관련이 주목되기 시작하였

허균은 동일 대상에 대하여 '尺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들은 혼용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시대 문인들이 '尺牘' 및 '簡牘' 또는 '書牘'이라는 용어를 혼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김윤조, 「書牘類의 특징과 조선 후기의 양상」, 『동방한문학』 31, 동방한문학회, 2006, 191~195쪽.

4) 『세설』의 정확한 書名은 『세설신어』이지만 흔히 『세설』로 약칭된다. 이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정조의 다음 표현이다. "小說家甚繁氄猥濫, 名目雖殊, 其指則一也. 唯劉義慶世說最可觀, 江左子弟, 眉目頰牙鬢鬚, 宮室輿服醆斝, 歷歷如親覩焉." (『홍재전서』 권162 「일득록」)

5) '세설체'라는 용어를 정식화한 국내 연구로는 김정숙, 「명대중엽 세설체 형성」, 『중국어문학지』 53, 중국어문학회, 2015.

6) 김성진, 「허균의 척독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39쪽. 김성진의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은 몇 해 앞서 제출된 강명관의 글에서 16~17세기 명대 문단을 의고파 대 공안파의 대립으로 보는 가운데 허균이 '공안파가 아니라 의고파에 경도' 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된 데 대한 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7) 배미정, 「朝鮮 後期 尺牘文學의 流行과 그 背景 -申靖夏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3, 9쪽. 배미정도 허균의 척독과 관련하여 앞서 본문에서 인용한 이민구·이덕무의 글을 언급했으나(21~22쪽), 『세설』과 허균 척독의 관계에 대해 더 따지지는 않았다.

8) 국문학계에서 2000년대 이래 이루어진 소품 논의는 암묵적으로 郭预衡의 『中国散文史』 下에서 설정한 구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郭预衡, 『中国散文史』 下, 上海古籍出版社, 2002, 174~184, 203~204, 242~262쪽). 그리하여 명말의 문학사를 '의고문 대 소품'의 구도로 보는데 곽예형의 관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 김정숙은 허균이 가까운 친구에게 보낸 척독들에서 『세설신어』의 위진(魏晉) 명사(名士) 관련 전고를 자주 활용한 사실을 지적하였다.[9] 이 지적은 허균의 척독과 『세설신어』의 관련성을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는 『세설신어』라는 텍스트보다는 해당 텍스트가 담고 있는 '위진 풍류'라는 시대정신을 허균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였다.[10] 그런데 위진 명사라고 하는 인물이든 위진 풍류라고 하는 시대정신이든 결국 『세설신어』라는 텍스트를 통해 매개되어 후대에 전해진 것이지, 위진 명사나 위진 풍류라는 것에 직접 접할 수 없다는 점은 허균이든 오늘날의 연구자이든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허균의 척독 또는 허균 산문이 가진 문예적 특질이나 지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설신어』와 허균 산문이라고 하는 텍스트들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허균의 글에서 세설체 저작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사례는 1610년에 쓴 「한정록 서문(閑情錄序)(이하 '한정록서')」이다.[11] 여기서는 유의경의 『세설신어』와 하량준(何良俊, 1506~1573)의 『어림(語林)』 두 책 각각의 「서일전(棲逸傳)」,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의 『와유록(臥遊錄)』, 도목(都穆, 1458~1525)의 『옥호빙(玉壺氷)』을 기본 자료로 하여 이들 책에서 일부를 발췌하고 거기에 다른 시나 산문을 발췌한 것을 더하여 『한정록』을 엮었다고 밝혔다.[12] 허균이 지목한 네 사람의 저술은 제목을 달리하고 있어서 상이한 4종의 텍스트로 보이지만, 사실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세설신어』와 흡사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13] 하량준의 『어림』은 유의경의 『세설신어』가 양한(兩漢)에서 동진(東晉, 317~420)까지의 고사를 실은 것과 달리 양한에서 송원대까지 1500년간을 배경으로 인물 고사를 수록하였다. 하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경의 『세설신어』의 체제를 답습한 가운데 「언지(言志)」와 「박학(博學)」 2편을 추가하였을 뿐이다.[14]

---

9) 김정숙, 「조선 문인의 위진 명사 소환 – 임수정에게 보낸 허균의 척독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71, 중국어문학회, 2020, 62쪽. 허균이 임수정에게 보낸 편지에서 활용한 『세설신어』 고사 사례 적출과 분석은 해당 논문 84~91쪽.

10) 김정숙, 위의 논문, 64쪽.

11) 창작시기는 작중에서 허균이 자신의 나이를 42세라고 밝힌 구절에 근거하였다. ("今年已四十二", 관물헌본 『성소부부고』 권5, 「閒情錄序」)

12) "近以疾移告杜門, 偶閱劉何棲逸傳、呂伯恭臥遊錄, 都玄敬玉壺氷, 其寓情蕭散, 犁然有當於心.遂合四家所箚, 間附以所覩記, 彙爲一書, 又取古人詩賦雜文詠及於閑逸者爲後集, 爲編凡十, 題曰閑情錄, 自以澄省焉." (위의 책, 「閒情錄序」)

13) 김정숙도 『와유록』이나 『옥호빙』이 『세설신어』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변용된 세설체 저작물이라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 김정숙, 앞의 논문, 66쪽.

14) 김장환, 「세설신어 속서 연구-세설신어보」, 『중국어문학논집』 16, 중국어문학연구회,

여조겸의 『와유록』이라는 것 역시 여조겸의 저작이라기보다 『세설신어』류 저작의 아류로 보는 것이 옳다. 현전하는 『설부(說郛)』본 『와유록』은 여기저기서 발췌한 총 45칙의 짧은 글을 싣고 있는데 '그중 21칙은 유의경의 『세설신어』에서 뽑은 것이고, 그 다음 18칙은 소식과 도잠의 글에서 온 것이며, 나머지 두 칙은 출전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이 책을 여조겸의 저작이 아니라 명대 사람의 의작(擬作)일 것으로 보았다.[15] 요컨대 이 책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설신어』이다.

다음으로 『옥호빙』 역시 총 72칙의 짧은 글을 다른 책에서 발췌하여 실은 단소한 선집인데, 한나라부터 명나라 초까지의 여러 전적 중에서 고상한 운치를 지녔다고 하는 문장이나 고사를 발췌한 것이다.[16] 이 역시 채록한 원전으로는 『세설신어』가 16개 칙으로 가장 많다. 『옥호빙』이 『세설신어』와 차이가 있다면 『와유록』과 마찬가지로 인물 고사뿐 아니라 몇십 자 분량의 짧은 산문도 아울러 채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허균이 『한정록』의 출전으로 지목한 네 권의 책은 『세설신어』 그 자체에서 뽑은 것이거나, 『세설신어』의 형식을 모방하여 지은 책이라는 점에서 세설체는 『한정록』의 원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설체란 무엇이었는가? 중국 문학사에서 세설체란 『세설신어』에서 발원하여 이후 거듭 편찬된 속서(續書)들 가령 『속세설(續世說)』, 『하씨어림(何氏語林)』, 『명세설신어(明世說新語)』, 『아세설(兒世說)』 등과 같이 『세설신어』의 구성 방식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지어진 책들에서 공유하고 있는 체제를 가리킨다.[17] 그러한 체제, 일명 '세설체 문학'이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 김장환은

2001a, 83~84쪽.

15) "是書前有嘉定九年王深源序, 後有嘉靖壬午(1522년-인용자)顧元慶跋. 凡四十五則, 前二十一則全錄劉義慶《世說新語》, 次十八則全錄蘇軾雜著及《陶潛集》, 惟後二則不知為誰語. 其言參差不倫, 了無取義, 祖謙必不如是之陋. 此本出陳繼儒《普祕笈》中, 殆明人依託也." 「四庫全書總目提要」 권131. 한편 1870년(同治 9년)에 나온 호봉단(胡鳳丹, 1828~1889)의 《금화총서(金華叢書)》본 『와유록』 서문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호평하면서 명인의 의작이 아니라 여조겸의 저작일 것이라는 논조의 견해를 피력해 놓았다. ("不以類別, 不以世次, 而尋繹一過, 胸次灑然. … 優而遊之, 使自得之, 會心人當不遠耳. 然則此一卷其成公(呂祖謙)之雜錄歟? 抑明人之依託歟? 是固可以不辨." 『臥遊錄』, 中華書局, 1985, 10쪽) 하지만 이는 출판인의 이해가 개입된 글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 도목, 김장환 역, 「해설」, 『옥호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 15~16쪽.

17) 이러한 『세설신어』 속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Nanxiu Qian, *Spirit and Self in Medieval China: The Shih-Shuo Hsin Yu and its Legacy*,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pp.193-367; 중국 역대 왕조 및 일본에서 만들어진 『세설신어』 속서에 관한 정리로는 다음을 참조. Joan Judge and Ying Hu, Beyond Exemplar Tales: Women's Biography in Chinese History.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pp.296-299.

내용, 형식, 묘사 방식이라는 세 방면에 걸쳐 규정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인사(人事)에 대한 기록이지 귀신이나 영혼 같은 지괴(志怪)에 가까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인물에 대한 품평을 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고, 형식 면에서는 각 장마다 주제를 나타내는 두 글자로 된 편목을 설정하고, 각 고사는 10자에서 100여 자, 길어도 3~400자에 이르는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묘사 면에서는 인물을 핍진하게 묘사하면서도 함축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었다.[18]

이러한 규정은 『세설신어』가 가진 문예물로서의 표층적 특징을 어느 정도 적실하게 짚어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서는 『세설신어』의 기저에 깔린 청담이라는 사상적 저류 내지 실천적 차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면도 있다. 가령 『세설신어』가 내용 면에서 인물 품평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그저 인품의 고하를 가리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후한말에서 위진시대에 새롭게 부상한 지배층들의 문화적 관심사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할 가치가 있다.

가령 마크 루이스와 같은 논자는 『세설신어』를 관통하는 주제 자체가 인물 평가에 있다는 견해를 수용할 정도로 『세설신어』에서 인평이라는 테마를 중시하였다.[19] 그러한 견해는 삼국 시대 위 왕조 시기에 이르러 심미적 기준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규정하는 전통이 귀족 사회 내부에서 발달하게 되면서,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라는 관리선발의 방식과 맞물려 인물 평가가 지배층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로 된 현상을 주목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루이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시기 청담은 한 인물의 도덕적·창조적 역량을 평가하는 관습이었으며, 『세설신어』에 기록된 청담의 흔적들은 영광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서 청담이 실행된 측면을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청담은 동진 시기에 이르러 남도(南渡)한 이주민 귀족 가문이 군사 귀족적 성격이 강한 신흥 가문의 도전을 받게

18) 김장환, 앞의 논문, 80~81쪽.

19) 조선시대 『세설신어』가 현종 대에 고위 관료 사이에서 널리 읽힌 사실에 대해서는, 노경희, 「현종실록자본 『世說新語補』의 간행과 流傳의 문화사적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참조. 에도 시대 일본에서 『세설신어』에 대한 열독 상황과, 그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의 등장에 대해서는 張伯偉, 『日本世說新語註釋集成』1, 鳳凰出版社, 2019, 17~50쪽. 이상의 연구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조선과 에도 시대 일본 모두 『세설신어』의 훈고와 명대에 나온 비점서 『세설신어』 이본에 대해 주목한 결과, 『세설신어』가 일종의 문예물로서 어떠한 미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던 듯하다. 이에 『세설신어』가 한 편의 문학 작품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했고, 『세설신어』의 향유층이 지향한 미학과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한 사례로 마크 루이스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이주민 가문은 기존의 남중국 가문 및 신흥 군부 세력과 경쟁하게 되면서, 진정한 고귀함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청담, 시, 음악을 내세웠고, 철학적 사색, 명목상의 은일, 문학적 소양이라는 세련된 품격으로 자신들을 포장함으로써 단순히 돈이나 무력만을 지닌 비속한 존재로부터 자신을 구별지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청담이란 품격에 기반을 둔 엘리트주의의 한 지류로서, 문학적 품위나 언어적 기술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을 중시하였으며『세설신어』의 일화를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라는 것이다.[20]

하지만『세설신어』는 단편의 일화 모음으로 되어 있고, 각 단편들에서 청담이라고 불린 토론의 세세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청담에 참여한 인물들의 외양이나 태도 등을 간략히 스케치하고 있을 뿐이다.『세설신어』는 청담을 나누기 위해 모인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외양을 보였는지, 청담을 통해 우열을 가렸다면 그 결판이 어떻게 났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이지, 청담에 참여한 사람들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즉『세설신어』는 청담에 참여한 인사들 간의 관계나 각 인물들의 외면, 각 인물들의 미학화된 존재방식을 주로 담고 있는 텍스트이다.[21] 요컨대『세설신어』는 교양 있는 지배층의 '외면'이 어떻게 발현되고 상호 경합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언행을 짧은 일화 안에 기록해 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후『세설신어』는 당송시대를 거치는 동안 간헐적으로 속서가 나오다가 명말에 강남의 영향력 있는 문인들에게 특히 각광을 받게 되는데 데 그런 붐을 이끌었던 두 인물이 하량준과 왕세정이다. 하량준은『세설신어』에 실릴 수 없었던 남북조 이후부터 원대까지의 인물을 추가로 수록하여 총 30권 분량의『어림』을 1550년에 만들었는데, 이것은 명대에 들어서는 처음 나온 세설체 저작이었다고 알려져 있다.[22]『하씨어림』에 서문을 쓴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은 이 책이

---

20) 마크 루이스, 조성우 역,『하버드 중국사 남북조: 분열기의 중국』, 너머북스, 2016, 98~106. 113쪽.『세설신어』가 지니는 인평에 주목한 논의로 Chen, Jack W. "Knowing Men Being Known: Gossip and Social Networks in the *Shishuo Xinyu*" in *Idle Talk: Gossip and Anecdote in Tradition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pp.55~70.

21) Li, Wai-yee. "*Shishuo xinyu* and the Emergence of Aesthetic Self." in *Chinese Aesthetics: The Ordering of Literature, the Arts, and the Universe in Six Dynasties*. edited by Zongqi Ca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237~276.

22) 鄭幸雅,「召喚經典: 何良俊《語林》對《世說新語》體裁的因創」,『文學新鑰』10期, 2009.

가진 표현력의 수준이나, 독자로 하여금 수사법을 연찬하도록 고무하는 측면을 높이 사면서 동시에 송대 성리학자들이 침묵의 수양을 옹호한 점을 책망했지만,[23] 한 세대 뒤의 왕세정은 정작 『하씨어림』에 수록된 표현이 전아하지 못하다 하여 『세설신어』의 아류라고 폄하하였다. 그러면서도 왕세정은 원전(原典)이 되는 『세설신어』의 일부와 함께 『하씨어림』의 고사를 일부 수용하여 『세설신어보』를 엮었다. 왕세정이 『세설신어』와 『하씨어림』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맨 나중에 『하씨어림』을 얻었는데, 대체로 『세설』을 모방하였고 범위는 원나라 말까지 좀 더 늘여 놓았지만, 그 사건과 표현이 뒤섞여 있고 전아하지 못하니, 『세설』의 그림자나 메아리일 뿐이다. 『세설』의 뛰어난 점은 한마디 말[單辭]을 통해 은미한 경지에 나아가기도 하고[造微], 한 줄의 문장[隻行]을 통해 공교로움을 드러내기도[徵巧] 하며, 칭찬을 통해 풍자하기도 하고 풍자를 통해 칭찬을 하도 하여,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만 읽고도 놀라 뛰게 하거나 끝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하씨는 아마도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24]

허균은 이상과 같은 왕세정의 견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세설신어』의 장점을 "대개 한마디 말[單詞]로서 은미한 경지에 나아간 것[造微]과 한 줄의 문장[隻行]을 통해 공교로움을 드러내는[徵巧] 즈음에 그 풍격과 지취가 청량하고 절로 언외의 무한한 뜻이 있어 지극한 경지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요약하였다.[25] 왕세정의 표현을 거의 축어적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유의경과 하량준의 저작보다 왕세정의 『세설신어보』가 탁월하다고 평가하기까지 하였다.[26]

---

23) 문징명, 『甫田集』 권17, 「語林原序」, "品目臚分, 雖三十有八, 而原情執要, 寔惟語言為宗. 單詞隻句, 往往令人意消, 思致淵永, 足深唱嘆. (중략) 或者以為摭裂委瑣, 無所取裁, 骫骳偏駮, 獨能發藻飾, 詞於道德性命, 無所發明. (중략) 故博學詳說, 聖訓攸先修辭立誠, 蓄德之源也. 宋之末季, 學者牽拏性命之說, 深中厚黙, 端居無為, 謂足以涵養性真變化氣質, 而考厥所存, 多可議者. 是雖師授淵源, 惑於所見, 亦惟簡便, 日趨偷薄自畫, 假美言以護所不足, 甘拏面墻, 而不自知, 其墮拏庸劣焉爾."

24) 王世貞, 『弇州山人四部稿』 권71, 「世說新語補小序」, "最後得何氏語林, 大抵規摹世說, 而稍衍之至元末, 然其事詞錯出, 不雅馴, 要以影響而已. 至於世說之所長, 或造微於單辭, 或徵巧於隻行, 或因美以見風, 或因刺以通賛, 往往使人短詠而躍然, 長思而未罄, 何氏盖未之知也." (1556년작)

25) 『성소부부고』 권4, 「世說刪補注解序」, "蓋其於單詞造微, 隻行徵巧之際, 風旨蕭散, 自有言外無限意, 可以造極淵深."

26) 위의 글, "益知二氏之爲偏駁, 而王氏之爲獨造也."

그런데 여기서 하량준과 왕세정을 묶어주는 공통점은 모두 소주(蘇州)를 중심으로 활동한 문인이라는 점이다.[27] 몇몇 논자들은 허균이 바라본 왕세정을 조명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왕세정을 이른바 '복고파' 또는 '의고문파'의 일원으로 파악하기도 했다.[28] 하지만 왕세정을 복고파와 등치하는 관점의 문제는 앞장에서 다룬 것처럼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왕세정을 복고파의 일원으로 다루는 시각은 곽예형 이래의 중국 산문사를 보는 시각이 가진 강한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곽예형 이래의 중국 산문사에서는 명초 관각 문학이 문단을 주도한 이후 전후칠자로 대표되는 복고파가 등장하고 그에 대한 반발로 공안파나 당송파 등이 등장하여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문학 사조를 열어간 것처럼 묘사한다.[29]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이른바 복고파 문인들 중에서 왕세정이 여느 복고파 문인들과는 다른 견해로 나아갔다는 점에 주목하거나 이반룡 산문의 다기한 측면을 강조한 경우가 있지만, 곽예형 식의 통사적 이해가 전면 부정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30] 하지만 허균의 산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런 기존의 시각보다는, 16세기 명대 문학사에서 북부와 남부라고 하는 지리적 구분을 중시하는 시각이 좀 더 유용한 것 같다. 옹창웨이는 복고파의 등장과 그 반동으로 공안파가 등장한다는 식의 서술보다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 차이라는 점에서 명대 문학사를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남부와 북부 간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있기도 했거니와, 또 담론의 차원에서 명대 엘리트들은 남부와 북부 사대부의 기질 차이란 것을 레토릭의 차원에서 자주 운위하고 있었다.[31] 중국 남부는

---

27) 이 지역을 '오중(吳中)'이라 지칭하여 해당 지역 사대부 문화와 『세설신어』 열독 현상을 연결지어 논의한 사례로 다음을 참조. 김정숙, 「『세설신어』 독자 형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명대 홍치년간(弘治年間) 강남 오중문인(吳中文人)의 인물지」, 『東方學志』 17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해당 논문은 『세설신어』에 등장하는 위진 시대 명사와 '오중문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목하였다.

28) 강명관의 다음 글에서 그러한 경향이 시작된 것 같다. 강명관, 「허균과 명대 문학: 허균 문학 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13(1), 민족문학사학회, 1998. 이 글에서는 왕세정을 '의고문파의 거두'라고 지칭하면서 공안파의 비판의 타겟이었던 인물이라고 언급한다(210쪽). 하지만 왕세정을 의고문파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지의 문제나 공안파와 이른바 '의고문파' 간의 공통점은 없는지 하는 사안들은 추가 논의를 필요로 한다.

29) 대만에서 1980년대에 나온 陳柱의 『中國散文史』 역시 '전후칠자'를 복고파로 묶고 그에 대응하는 '反七子派'의 산문을 이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대 산문사를 보는 시각은 곽예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30) 蒋鹏举, 『复古与求真: 李攀龙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8, 338~352쪽; 廖可斌, 廖可斌, 『明代文学复古运动研究』, 商务印书馆, 2008, 355~359쪽, 熊礼汇, 『明清散文流派论』, 武汉大学出版社, 2004, 205~240, 377~415쪽.

31) Chang Woei Ong, *Li Mengyang, the North-South Divide, and Literati*

남송 멸망 이후 몽고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의 문화적 중심지로 남았으며, 특히 명 중기 이후에 이른바 강남 지역이 중국의 문화 중심지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옹창웨이에 따르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 소주 인사들의 영향력은 이른바 전칠자파에 비해 크지 않았다.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이나 당인(唐寅, 1470~1524) 같은 소주(蘇州)의 유명 인사들은 중앙 정부의 관료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32] 소주에서는 관직 경력이 중국의 북부 지역에 비하여 그다지 상찬되지 않았으며, 개중에는 일부러 공적 봉사를 피하고 문학과 예술을 탐닉하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였다. 물론 소주의 유명 문인들 중에는 서정경(徐禎卿, 1479~1511)과 같이 이른바 북부의 '전칠자' 그룹과 겹치는 인사도 있고, 왕세정 같은 인물은 형부 상서에 이를 정도로 중앙의 요직에서 경력을 쌓기도 하였다. 하지만 북부의 사대부들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명성을 얻기 위해 관직 경력에 의존해야 했던 것과 달리, 상업과 화폐 경제가 상당히 발달한 남부의 소주 인사들에게 관직 봉사는 윤택한 삶을 누리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개인적인 자유를 그 어떤 것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두고 어떤 문학사가는 명대 문학사를 기술하는 지면에서 "소주 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33]

허균 산문에서 회화나 문학에 대한 탐닉이 나타난 대목들은 때로 문징명이나 하량준과 같은 소주 인사를 직접 지목하고 있을 뿐 아니라,[34] 이상에 지목된 소주 인사들의 지향과 공명하는 점이 많다. 허균이 호의적으로 자주 언급하는 왕세정, 하량준, 문징명 같은 문인들은 '의고파'로 묶이기보다는 중국 남부, 그 중에서도 소주 지방에 근거를 두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허균이 혹애하는 『세설신어』에 대한 열독이 16세기 후반 소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16세기 소주 문인들에게 공유되고 있던바, 관직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문예에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였던 태도는 허균 산문에서 거듭 표명된 이상과 유사한 대목이 많다. 하지만 소주 문인들에게는 관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세련

Learning in Ming China, Boston :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6.

32) 위의 글, pp.58-59.

33) Kang I Sun Chang, "Literature of the early Ming to mid-Ming (1375-1572)",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volume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38.

34) 『성소부부고』 권13, 「題石刻諸經後」, 「四友叢說跋」 등.

된 문화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풍요가 허락되었고, 시장에 자신의 예술품을 내다 팖으로써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던 반면 허균에게는 관직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재력이 없었고 자신의 저작을 판매할 시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소주의 문인들이 누렸던 호사를 허균이 누릴 수는 없었음에도 허균은 소주에서 50여 년 전부터 주목되고 있던 『세설신어』가 지닌 텍스트의 미학에 공명하였다.

그렇다면 허균은 어떤 이유에서 세설체 전통에 공명하였는가? 『세설신어』 속 청담의 방식과 역사적 전개에 따른 청담의 주제 변화에 대해 연구한 탕이밍에 따르면 청담의 전개는 크게 3개 시기로 나뉠 수 있다. 후한에서 위나라 초기까지를 1기(160~249), 위나라 후기부터 서진 시대까지를 2기(250~316), 동진부터 남북조에 이르는 시기를 3기(317~589)로 보는 것이다. 탕이밍의 설에 따르면 1기에는 토론을 통해 이치를 따지는 동시에 사교(社交)를 추구하는 청담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었고, 2기에는 죽림칠현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서 고담준론을 운위하는 새 국면이 열렸으며, 3기에는 불교와 같은 신사조의 도전 속에서 유교나 노장 사상의 의미가 재발견되었다고 설명된다.[35]

청담의 전개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 되었던 그러한 핵심 사안들은 허균이 골몰하였던 테마들과 부합한다. 첫째, 인품의 고하를 따지는 '인평', 둘째, 정계에서의 처신이나 일상생활의 지침 모두를 아우르는 '생활 방식', 셋째, 외래 사조에 대한 탐색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사안들은 『한정록』의 초기 기획과 그 이후의 증보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낸 『한정록』의 체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허균이 1610년에 처음 『한정록』이라는 제목으로 선집 편찬을 기획했을 때 '한정' 개념은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은일(隱逸), 한적(閒適), 퇴휴(退休), 청사(淸事)가 그것이다.[36] 1618년에 이르면 선록 대상이 되는 서적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한정록』의 세부 항목도 16개로 재분화되기는 하지만,[37] 애초의 골자는 위의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현전하는 『한정록』 이본들은 대부분 16권

35) Tang, Yiming. "The Voices of Wei-Jin Scholars: A Study of Qingtan." Columbia University, Ph.D. diss. 1991, pp.116~261.

36) 『閒情錄』「凡例」, "余在庚戌(1610년-인용자)夏, 抱痾謝事杜門撝客, 無以消長日. 巾衍中適披得數帙, 乃朱蘭嶼太史所贈栖逸傳, 玉壺氷, 臥遊錄三種, 反覆披覽, 仍取三書, 爲四門類彙, 名曰閒情錄. 一曰隱逸, 二曰閒寂, 三曰退休, 四曰淸事."

37) 위의 글, "今年春羅謗席藁, 戰悸之中, 無以破窮愁, 遂取諸書, 考浮帖寫出, 更分爲十六門, 而爲卷亦十六."

체제로 되어 있어 4권 체제로 되어 있던 1610년의 『한정록』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38] 하지만 1618년에 수정된 16권 체제의 『한정록』은 책의 기획 자체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획에 내용을 더 보충하는 방식으로 증보된 것이므로, 현전하는 『한정록』의 구성을 통해서도 허균이 생각하는 '한정' 개념의 요건을 짐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한정록』의 기획 초기에서부터 골자로서 존재하였던 4개 편목들은 16개 편으로 증보된 다음에도 서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전 『한정록』의 1~2권은 각각 '은둔(隱遁)'과 '고일(高逸)'인데, 이는 애초 '은일' 편이 둘로 나뉜 것으로 짐작하는 선행 연구의 견해가 신빙성이 있는 듯하다.[39] 두 편은 모두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은자 모델을 탐색하고, 다만 제2권은 은둔자 중 특이한 사례 및 관직 보유자 중에서 특별한 행적을 가진 사례를 수록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은자 중에서도 범상치 않다고 평가한 인물들을 수록하기 위하여 별개의 편을 마련한 것은 인품의 고하를 따지는 작업과 조응한다.

다음으로 16권 체제 『한정록』의 제3권, 제4권을 이루고 있는 '한적'과 '퇴휴' 역시 4권 체제였을 때 마련된 제목이 이어지고 있는 편으로, 은퇴한 자가 어떤 식으로 자기의 거처를 꾸몄으며 어떤 일과를 보내었는가에 대한 내용, 은자의 바람직한 마음가짐 등에 대한 유명인의 어록을 모아 놓았다. 여기에 이어지는 제5권 '유흥(遊興)'부터 제14권 '청공(淸供)'까지는 유람의 방식이나 아취의 문제, 은거자가 생활하는 동안에 갖추어야 할 문화적 소양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4권 체제에서 '청사(淸事)'로 범칭되었던 것들을 보다 세분화해 놓은 것으로 여겨진다.[40] 이러한 내용들은 청담의 주요 주제 중 하나였던 생활 방식이라는 테마와 조응한다.

마지막으로 제15권에 해당하는 '섭생(攝生)'은 주로 도가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양생술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6권의 '치농(治農)'은 『도주공치부기서(陶朱公致富奇書)』에서 발췌한 동시대의 강남 농법의 일단을 담고 있다.[41]

---

38) 현전 『한정록』 이본 상황에 대한 개괄로는 다음을 참조. 김영연, 「버클리대 소장 『한정록』의 특징과 가치」, 『동서인문학』 63,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21~124쪽. 가장 최근에 추가적으로 알려진 『한정록』 이본(개인소장)에 대한 소개로 허균, 허경진 역, 『허균전집3: 한정록』, 보고사, 2022, 17~27쪽.

39) 허경진, 『허균평전』, 돌베개, 2002, 261쪽.

40) 허경진은 4권 체제에서 '청사'에 해당한 이야기를 5권부터 15권 '섭생' 편까지 나눠 놓은 것으로 보았다. 위의 책, 같은 쪽.

41) 김용섭, 「閑情錄의 農業論」, 『東方學志』 52,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86, 25쪽. 『陶

이 중 『도주공치부기서』는 당시로서는 최신의 농사 기법, 그중에서도 강남 수전(水田) 지대의 수도작(水稻作) 농법을 소개한 것이었다.[42] 이렇듯 15~16권에 수록된 양생술이나 농법에 대한 발췌는, 외래 사조에 대한 허균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진 시기 청담의 참여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외래 사조에의 탐색과 조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정록』의 각 편 구성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한정의 개념이 청담의 의제와 어느 정도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이 드러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한정록』의 구성 방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허균이 자각적으로 규정한 한정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허균이 생각하는 '한정' 또는 '한가로움[閒]'의 개념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비슷한 시기 조선의 문인들에게 '한가로움'이란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었던가를 비교의 차원에서 먼저 개괄해 보고자 한다.

'한가로움[閒]'이라는 관념은 동시대 조선의 관료 문인들에게도 주목되고 있었다. 박지겸(朴知謙, 1549~1623)이 충청도 시안군(현 괴산군 검승리)에 지은 정자 애한정(愛閒亭)에 부친 3인의 글은 모두 1614년 무렵에 지어진 것인데, 이들은 각각 이호민·이정귀·권득기로 '한가로움'이라는 관념에 접근하는 방식 면에서 허균의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들 세 사람은 '한가로움'이라는 관념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로, 한가로움이라는 것을 사환(仕宦)과 대비시키는 관념을 환기하고 있다. 이호민이나 권득기는 한가로움이란 사환 중에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논하는 반면,[43] 이정귀는 사환과 한가로움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다.[44] 일견 사환 와중에도 한가로움을 구가할 수 있다고 하는 말

朱公致富奇書』의 2종 이본 중 허균이 활용한 것은 明刊의 毛氏精梓本이라는 점, 해당 이본이 일본국립공문서관에 내각문고본으로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 김용섭에 의해 처음 밝혀졌다. 이 이본은 현재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 공개되어 있다.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listPhoto?LANG=eng&BID=F1000000000000101828&ID=&TYPE=

42) 김용섭, 위의 논문, 28~29쪽.

43) 이호민, 『五峯集』 권8, 「閑閑亭記」, "閑之旣眞, 則雖居金門之邃, 處衒衖之擾, 心固自閑也. 何必就淸涼之境山水之間而爲頑閑也."; 권득기, 『晩悔集』 권2, 「愛閑亭後記」, "丈人之占閑福蓋久矣. 處而隱居, 則碧山不相負而白鷗來狎, 詩酒琴棋, 皆供我之閑; 出而爲吏, 則雖倥傯於簿書, 趨走於塵埃, 而中心之閑者, 固自若也, 丈人之得此, 其必有道矣."

44) 이정귀, 『月沙集』 권37, 「愛閑亭記」, "益卿(박지겸-인용자)世家京洛, 初非無意於**仕宦**者. 今乃謝紛華而樂寬閑, 一室蕭然, 不知老之將至. 朝於旭而閑, 夕於月而閑, 花於春而閑, 雪於冬而閑, 琴焉而愛其趣, 釣焉而愛其適, 行吟詩臥看書, 登高望遠, 臨水觀魚, 隨所遇而皆閑, 則名之以愛, 不亦宜乎?"

은, 사환과 한가함을 대립시키는 관점과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사환과 한가함의 양립 불가능성을 불식하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가함과 사환을 대비하는 관념을 중심에 두고 공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한가함이라는 것을 사환과 대비되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한가함'이란 그저 시간이나 심리 면에서 여유가 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공적 봉사에 헌신하느냐 여부를 묻는 차원을 포함한, 보다 넓은 함의를 가진 뜻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박지겸이 한가로운 상태를 획득했거나 근접해 있다는 전제 위에서, 한가로움이란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호민은 '한가로움을 사랑한다[愛閒]'는 정자명의 조어법이 부적절하다면서 그 이유로 '한가로움을 사랑하는 것은 한가로움을 대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취지에서 그는 '한한정'이라는 이름으로 원래의 이름을 대신할 것을 제안하고, '마음이 한가로운 것을 한가롭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가로움'이라고 주장한다.[45] 반면 이호민의 해당 기문을 본 이정귀는 한가로움이란 공적인 물건이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박지겸은 언제나 한가로움을 구가하고 있으니 한가로움을 사랑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요지의 기문을 적어주었다.[46] 반면 이호민과 이정귀의 글을 모두 열람한 권득기는 한가로움이란 상계의 청복이라 조물주가 아끼는 것이니 한가로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계의 어조로 기문을 써주었다.[47] 세 사람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박지겸이 한가로운 상태를 이미 얻었거나 그러한 상태에 가까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허균의 「한정록서」는 한가로움의 결여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

45) 이호민, 앞의 글, "一日, 君踵吾門而誇詡之曰, "子不自閑, 何能知人之閑耶? 旣不自閑, 可記人之閑耶?" 吾始愧而咍曰, "君名亭愛閑, 是閑爲他物, 而君知愛之也. 愛固善矣, 豈如吾自閑之爲眞閑耶? (중략) 夫閑者, 無所用心, 若有事而無事之謂也. 吾苟閑也, 則吾不自知吾閑, 人見吾之閑而愛之也. (중략) 若曰閑閑, 下一閑, 謂心閑也, 上一閑, 謂閑之也. 苟閑閑也, 此其眞閑也."

46) 이정귀, 앞의 글, "雖然, 閑, 公物也, 惟愛者能有之, 苟不愛焉, 則雖處煙霞水石之間, 其心猶役役也. (중략) 愛之不已, 終至於不自知其閑, 則閑閑之意, 亦在其中矣. 斯固一而二, 二而一者也."

47) 권득기, 앞의 글, "閑者, 上界之淸福. 世之人, 口閑而心忙, 一涉其境者蓋寡. 況得而愛之乎? (중략) 丈人久占淸福, 恐爲造物之所忌. 若有物敗其閑, 則亭將自閑, 而反笑丈人爲不閑也. 丈人其愼之哉" 한가로움이 상계의 청복이어서 조물주가 부귀보다 아낀다는 식의 이야기는 『한정록』은 물론 『임원경제지』「이운지」, 『이향견문록』 등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 『한정록』 사례는 제3권 「한적」편 제38칙, "有士人苦貧, 夜則露香祈天"조, 『임원경제지』 및 『이향견문록』의 사례는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돌베개, 2018, 385~386쪽.

역사 속의 은자 중 모범적 사례로 6인을 택하고 거기에 상중하 삼중의 위계를 부여한 뒤, 그러한 은자들과 달리 자신은 벼슬살이에 급급했고 이해관계나 평판에 휘둘리는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얽매였음을 고백하였다. 일견 허균의 '한정'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심리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그 자신의 보잘것없는 내면을 고백하는 글처럼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글의 구성이나 표현상의 어법을 은거 관념의 맥락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은거의 동기나 작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앞서 본 3인의 글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론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한정록서」은 허균이 자신의 문장력이 진보한 사례로 자부할 때 필두에 내놓은 글인 만큼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48]

「한정록서」는 내용상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서두에서는 사대부란 존재는 관직 봉사를 경멸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제시한 뒤, 그럼에도 요순의 치세에 소부나 허유 같은 은자가 있어 세속을 더럽게 보아 떠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은일자의 동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제기한다.

> ① 아아!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어찌 벼슬을 천하게 여겨 내어 버리고 오랫동안 재야에 있고자 하겠는가. 그저 자신의 도가 세상과 맞지 않고 자신의 운명이 시대와 어긋나기에 고상함을 가탁하여 그리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다면 그 의도는 오히려 슬픈 것이다.
>
> 요순시대에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군주로 삼아 임금과 신하가 한마음으로 정사를 의논하였기에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그런데도 소부와 허유 같은 이들은 귀를 씻거나 표주박마저 내던지면서 마치 제 몸이 더럽혀진 것처럼 세상을 버리고 떠났으니, 이들은 또 무슨 생각이었을까.[49]

여기서 작자가 제시하는 은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른바 '도'라고 하는 자신의 원칙이 당대와 맞지 않아 관직 봉사를 거부하는 유형으로, 사실상 난세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작자가 이런 유형의 은자는 난세에 등장한다고 가정한 점은, 이어지는 대목에서 '치세였다는 요순시대에조차 은자가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점을 통해 뒷받침된다. 이를 편의상

---

48) 『성소부부고』 권21, 「與李蓀谷(庚戌(1610년-인용자) 十月)」, "僕之文近進, 而翁猶不知之, 故謹寫閑情錄序、朴氏山莊、王塚二紀、十二論…"

49) 『성소부부고』 권5, 「閑情錄序」, "嗚呼! 士之生斯世也, 豈欲蔑棄軒冕, 長往山林者哉. 唯其道與俗乖, 命與時舛, 則或有托於高尙而逃焉之者, 其志亦可悲也. 唐虞之世, 以堯舜爲君, 都兪贊襄, 治化雍熙, 而有巢父、許由之倫, 洗耳投瓢, 棄去之若浼焉, 此又何見歟."

‘원칙을 지키는 난세의 은자’라고 부르겠다. 두 번째 은자 유형은 치세에 등장하는 은자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글 말미로 유보되고 있다.

그런 다음 중간 부분에서는 돌연 자기 삶의 궤적에 대한 진술로 넘어가서, 순탄치 않았던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42세가 되도록 공업을 이루지 못했음을 개탄한다. 자탄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역사 속의 은자들을 삼중의 등급으로 나눈 뒤 그러한 은자에 비하면 자신은 공적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평온한 내면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토로하면서 은자들의 모범적인 발자취와 자신의 우둔함을 대비시키는 내용이 이어진다.

> ㉡ 성성옹은 어려서부터 제멋대로였던데다 아비와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며, 자라서는 행동에 법도가 없었다. 세상에 보탬이 되기에 부족한 작은 재주를 가지고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벼슬길에 올랐다가, 거침없는 행동으로 당대 귀인들에게 미움을 샀다. 마침내 노자와 부처의 세계로 달아나 육신의 굴레를 도외시하고 인생의 득실을 똑같이 여기는 태도를 숭상하면서 굴곡진 인생사에서 광인[狂惑]들과 교제하며 지내왔다. 올해 내 나이 벌써 마흔둘이 되어 머리숱은 줄었건만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공업은 아직도 이루지 못했구나.
>
>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 자신이 가엾다. 나는 최상의 경지라는 사마승정(司馬承禎)이나 방덕공(龐德公)처럼 초야의 은거지[一丘一壑]에서 마음껏 뜻을 펼치고 살지 못했다. 그다음 경지라는 상장(尙長)이나 도홍경(陶弘景)처럼 자녀를 다 혼인시킨 뒤 멀리 떠나거나, 벼슬을 그만두고 속세를 떠나지도 못했다. 그 아래 경지라는 사영운(謝靈運)이나 백거이(白居易)처럼 벼슬길에 머물면서 고결한 마음을 자연에 깃들이지도 못했다. 형세의 거리에 급급한 나머지 한 해 내내 한가롭지 못하였고[不閒], 작은 이해관계에도 마음이 위축되고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시끄러운 소리에는 마음이 요동쳤다. 그리하여 발걸음을 머뭇거리고 숨죽이고 살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만 바랐다. 기러기가 날 듯, 봉황새가 날 듯, 매미가 허물을 벗듯 혼탁한 세상을 떠난 옛 현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저들의 지혜로움과 내 어리석음이 어찌 하늘과 땅의 차이뿐이겠는가![50]

---

50) 위의 글, “惺惺翁少跅弛, 乏父師訓, 長爲無町畦之行, 小技不足裨世, 而束髮登朝, 以疏雋忤於時貴, 遂自逃於老佛者流, 以外形骸, 齊得喪爲可尙, 浮沈俯仰, 以通狂惑. 今年已四十二, 頭髮種種, 無能爲矣. 逝景駸駸, 功業未成. 竊自悼. 上之不能一丘一壑, 游心縱志, 如司馬子微、龐德公; 次之不能畢娶遠引, 掛冠遐擧, 如向子平、陶弘景; 下之不能混跡簪紳, 寄傲林泉如謝康樂、白香山; 而逐逐於形勢之途, 終歲不閑, 利害錙銖, 則志爲之怵; 贊毁蚊睫, 則心爲之動. 蹐足屛氣, 冀免機穽, 其視昔賢鴻騫鳳矯蟬蛻於濁世者, 智愚相去, 奚啻天壤哉.”

글의 중간 부분인 위 대목에서는 자신이 얽매인 데 없는 성품을 지녔다는 내용이 돌출해 있다. 이 대목은 일견 자신의 부족한 성품을 고백하는 겸사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단락에서 나오는 내용을 비롯한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 자신의 성품을 옹호하는 취지라고 생각된다. 우선 위 인용문에서 "거침없는 행동으로 귀인들의 미움을 샀다"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허균의 자탄은 자신의 인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성품을 거리낌없이 드러냈을 때 미움을 사는 속세를 탓하고 있는 것이다. 허균의 자탄은 자신이 공업을 이루지 못했다는 데 있을 뿐, 자신의 성품에 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관점은 은거자 유형을 3개 등급으로 나눠놓은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허균이 보기에 최상의 경지는 애초에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재야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다. 특히 최상의 삶을 수식하는 대목에서 쓰인 '초야의 은거지'라는 표현의 원문은 '一丘一壑'으로, 이 말은 『세설신어』에 두 번 나오는데 사마소(司馬紹, 211~265)가 사곤(謝鯤)에게 '당신은 스스로 유량(庾亮)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는가?'하고 물은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51] 본래 이 표현은 자연에서 은거하는 즐거움을 뜻하는 표현으로 『한서』에 나온 것이 최초이지만, 인물 품평의 차원에서, '출사한 유량과 은거하는 사곤'의 우열을 논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세설신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위 인용문에 나오는 '一丘一壑'이란 출사하는 삶보다 은거하는 삶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인물의 발언에서 따온 표현으로, 삶의 여러 방식에 대한 일정한 가치 판단과 자기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깃든 표현인 것이다. 허균은 같은 표현을 임수정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는 맥락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52] 그러한 자기 선택이나 자기 성품의 대한 옹호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어진다.

> ③ (1) 요사이 병 때문에 휴가를 얻어 두문불출하던 중 유의경과 하량준의 『서일전』, 여조겸의 『와유록』, 도목의 『옥호빙』을 읽었는데, 이 책들에 깃든 한적하고 상쾌한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에 네 분의 글을 합하고 내가 읽은 다른 글을

51) 『世說新語』 권9, 「品藻」, "明帝問謝鯤: '君自謂何如庾亮?' 答曰: '端委廟堂, 使百僚準則, 臣不如亮. 一丘一壑, 自謂過之.'" 이 일화를 한 번 더 변주한 일화가 『세설신어』 권21 「巧藝」에 나오고, 『한정록』에는 「교예」 편의 일화를 13권 「玄賞」에 인용해 놓았다.

52) 『성소부부고』 권21, 「與任約初」, "端委廟堂, 我不及卿; 一丘一壑, 自謂勝之." 이 편지가 『세설신어』의 고사를 활용하여 작자의 자부심을 표현했다는 분석으로 다음을 참조. 김정숙, 「조선 문인의 위진 명사 소환 – 임수정에게 보낸 허균의 척독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71, 중국어문학회, 2020, 75~77쪽.

간간이 덧붙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뒤, 옛사람의 시와 부(賦)와 잡문에서 한가로운 삶에 대해 언급한 것을 가져와 후집(後集)을 만들었다. 도합 10편으로 만들고 『한정록』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니, 이 책을 만든 것은 나 자신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2) 성성옹은 작은 재주로 아직 도(道)를 듣지 못했건만 태평성대에 태어나 당상관 벼슬에 오르고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소부와 허유의 뒤를 따라 요순같은 임금을 차마 저버리고 스스로 고상하다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시대와 운명이 어긋나 옛사람이 탄식하던 것과 비슷한 점이 있으니, 만약 건강한 시절에 벼슬에서 물러나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다행한 일이 없을 것이다. 훗날 내가 숲속에 살게 되었을 때 세상을 버리고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린 선비를 만나 이 책을 꺼내 놓고 함께 토론한다면 내 타고난 본성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 되겠다.[53]

결미의 (1)에서는 『한정록』의 편찬 경위와 동기를 밝혔는데, 그 동기는 도덕적 자기완성이나 문예적 창작 역량의 연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일전』 따위의 책이 지닌 지향과 자신의 지향이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도 허균은 자신의 취향을, 그것으로 인해 선집을 엮을 추동력이 될 만한 어떤 것으로 고양해 놓았다.

또한 결미의 (2)에서는 서두에 제기했던 은자 유형의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작자 자신은 자신의 '도'를 지키려고 물러나는 '원칙을 지키는 난세의 은자'도 아니고("翁以謏才未聞道"), 고상함을 자처하는 소부나 허유 타입의 치세의 은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詎敢希蹤巢許, 忍訣堯舜之君, 自以爲高也"). 하지만 작자는 자신이 은거를 바란다는 점, 최상의 경지는 애초에 벼슬에 나가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을 ②에서 늘어놓은 만큼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필요에 내몰려 있다. 그리하여 제기되는 것이 '시대와 운명이 어긋났다'고 하는 구실인데, 통상 은거를 원한다고 하는 글에서 관용구처럼 쓰이는 이 표현 뒤에는 '옛사람의 탄식과 비슷하다'는 말이 붙어 있다. 옛사람의 탄식이 무엇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원문의 표현을 감안할 때, 소식의 시 「경사에서 임준성을 애도하며(京師哭任遵聖)」의 시구 중 "슬프게도 어르신의 운명이 불우하여 번번이 재주로 인해 비방을 받았지요(哀哉命不偶, 每以才得謗)"라는 대목과 유관한 듯하다.[54] 이 시는 소식이 자

53) 위의 글, "(1) 近以疾移告杜門, 偶閱劉何棲逸傳、呂伯恭臥遊錄, 都玄敬玉壺氷, 其寓情蕭散, 犁然有當於心.遂合四家所箚, 間附以所覩記, 彙爲一書, 又取古人詩賦雜文詠及於閑逸者爲後集, 爲編凡十, 題曰閑情錄, 自以澄省焉. (2) 翁以謏才未聞道, 生當聖世, 官爲上大夫, 職則視草, 詎敢希蹤巢許, 忍訣堯舜之君, 自以爲高也? 顧時命不偶, 有類於昔人所歎. 倘得於康健之日, 乞身退休, 以終天年, 則幸孰大焉? 異日林下, 若値遺世絶俗之士, 出此編以相揚搉, 則庶不負初賦云."

기 아버지 소순의 후배이자 동향인 임자(任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한 시인데, 불만족스러운 사환 생활 내내 은퇴를 기약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55] 운명이 불우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닐 수 있겠으나, 위의 인용문의 경우 '매번 재주로 인해 비방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허균의 전기적 사실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②에서 자신에게 재주가 있었다고 해 놓은 글의 흐름과도 부합할 것이다.

작자가 결미에서 자신의 은거 지향을 정당화하는 제3의 구실로 내놓은 '시대와의 불화'라는 말은, 서두로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고려할 때 자신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 시대와의 불화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2)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은퇴 후 『한정록』을 두고 탁월한 선비와 토론하고 싶다는 희망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활동이 자신의 본성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개 책에 붙인 서문에서는 저술의 취지를 선양하거나, 후대의 식자를 기다리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이 책을 두고 적당한 상대와 토론하는 것이 자기 본성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서술로 귀결되었다. 이는 ②에서 자신의 성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점과도 일치하는 어조이다. 즉 작자가 내놓은 은거의 정당화 구실은 '본성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차원인 것이다.

「한정록서」에 드러난 은거의 동기에 대한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은 허균의 고유한 분류법이 아니라, 송대 이래 심화된 도연명의 은거 동기를 해석하는 전통으로 그 연원이 소급된다. 도연명의 은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육조에서 당대를 거쳐 다양하게 발전되어 갔지만,[56] 송대에 이르러 전근대 시기의 주요한 해석은 거의 확립되었다고 평가된다. 스와츠에 따르면 송대 비평가들이 도연명이 은둔한 동기를 해석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허균이 은거의 동기를 정당화하는 방식과 유사하여 참조가 된다.

그 세 가지인즉, 첫째, 도연명이 은퇴한 것은 이전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표하고 난세에 자기 원칙을 표명하는 것으로서의 은거라는 설, 둘째,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를 완전히 초월했기에 정치의 세계에서 떠났다는 설, 셋째, 자유 추구의 본성에 충실하기 위했다고 보는 설이 그것이다.[57] 세 번째 설은 소식이 제

54) 소식 저, 류종목 역, 『정본완역 소동파시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554~555쪽.
55) 위의 글, "室遊久不樂, 江海永相望"
56) 도연명의 은둔 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오비 고오이치, 윤수영 역, 『중국의 은둔사상』,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151~154쪽.

기한 것으로 도연명의 출사나 은둔은 모두 본성 또는 진(眞)에 충실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58] 이러한 유형은 위의 「한정록서」에서 차례로 거론되는 도를 지켜 난세에 세간을 떠난 유형이나, 치세라 할지라도 세속을 초월하려 한 소부나 허유같은 유형, 자기 본성에 충실하고자 해서 정치의 세계를 떠나고자 한다는 작자의 페르소나 같은 유형과 흡사하다.

이렇게 볼 때 허균이 추구하는 은자의 유형은 본성에 충실한 삶을 구가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동기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은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섰을 때, 기꺼이 정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듯 본성에 부합하는 삶을 구가하고 싶다는 이유로 관직을 거절하는 레토릭은 혜강의 「산거원에게 보내는 절교의 편지(與山巨源絕交書)」에서 일찍이 전범이 확립되어 있었다. 논자에 따라 이 편지가 사마소(司馬昭, 211~265) 정권에의 동참을 거부하는 혜강의 지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59] 편지글의 표현 자체는 자신의 본성과 사환 생활에서 요구되는 바가 어긋나기에 출사를 거부한다는 표현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혜강 역시 자신의 출사 거부를 본성의 문제를 끌어와서 정당화하였다. 혜강은 서두에서 " 군자는 다양한 행위를 하더라도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고, 자기의 천성에 따라 행동하여 각자 편안한 바에 부합하도록 한다네. 그래서 '조정에 처하면 떠나지 않고, 산림에 들어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이지."[60]라고 시작한 뒤, 자신이 매번 모범으로 여겼던 은자들의 이름을 거론한 다음, 자신의 성품에 대한 서술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언급되는 성품은 추한 모습에 가까운 것들이다.

> 나는 상자평과 대효위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크게 감동하여 그들을 사모하였고

---

57) Wendy Swartz, *Reading Tao Yuanming: Shifting Paradigms of Historical Reception (427-1900)*.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pp.73-94.

58) 위의 책, p.87.

59) 김영문, 「여산거원절교서」『문선역주』 7, 소명출판, 2010, 275~276쪽. 반면 이 편지가 절교하려는 의도와 무관하며 '절교'라는 제목은 유송(劉宋) 시기에 추가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徐公持, 「嵇康《與山巨源絶交書》非絶交之書論」, 『中华文史论丛』, 2008年 第3期,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David R. Knechtges, "Chapter 5. Letters in the Wen Xuan," *A History of Chinese Letters and Epistolary Culture,* Brill, 2015, 211쪽에서 재인용.)

60) 『文選』 권43, 嵇康, 「與山巨源絶交書」, "故君子百行, 殊塗而同致, 循性而動, 各附所安. 故有處朝廷而不出, 入山林而不反之論." (번역은 한흥섭의 것을 위주로 김영문 번역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 한흥섭 역, 「산거원에게 보내는 절교의 편지」, 『혜강집』, 소명출판, 2006, 131~152쪽. 김영문 번역은 위의 글 참조.)

그 사람됨을 생각해 왔네. 또한 나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어머님과 형님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으며, 유가의 경학은 공부하지 못했네. 천성은 경솔하고 나태하며 근육은 둔하고 살은 느른하며, 얼굴은 늘 한 달이나 반 달 동안 씻지 않으면서도, 아주 찝찝하고 근질거리지 않으면 씻으려 하지 않는다네. 그리고 매번 소변이 마려워도 참으며 일어서지 않다가, 방광에 심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들고서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곤 한다네. 또한 나는 멋대로 군 지 오래되었고, 타고난 성정은 거만하고 산만하며, 데면데면한 성격은 예법과 어긋나는 데다, 나의 게으름과 오만함이 서로 기대며 더욱 커져 갔지만, 친구들은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면서 허물을 비난하지 않았다네. (중략) 게다가 만석군 석분과 같은 신중함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은 거리낌 없이 다 하고야 마는 단점도 있다네. 그래서 오래도록 사람 일에 접해 왔지만 날마다 비난과 허물이 일어나니, 근심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61)

혜강의 편지 서두에 나오는 표현들, 즉 작자가 모범으로 여기는 은자라든가, 자신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성품이 제멋대로라든가, 그러한 성품 때문에 원만한 관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들은, 「한정록서」에서도 배치된 순서나 세부 내용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성품의 야성적인 면모를 묘사하는 정도를 보자면 혜강의 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그런 자신의 성품 자체를 훈치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성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벼슬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논법은 「한정록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허균의 「한정록서」에서는 '한가로움'의 의미를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 본성이 보기에 따라 추하거나 방정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자 스스로는 그것을 관직을 버려서라도 지킬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자기 옹호적 태도는 동시대 문인들이 '한가로움'이라는 동일 주제를 가지고 쓴 글에서 공히 드러나는 '한가로움'이라는 평정심의 상태에 도달할 것을 촉구하거나, 그런 이상 상태에 오른 점을 예찬하거나, 이미 획득한 한가한 상태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계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과는 사뭇 다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허균의 「한정록서」에서 새롭게 규정된 '한정'이란 16세기 소주 문인들에게서 예찬되었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태도와 『세설신어』 계통 저작에 대한 애호가 어우러진 가운데, 그

61) 위의 글, "吾每讀尚子平、臺孝威傳, 慨然慕之, 想其為人. 少加孤露, 母兄見驕, 不涉經學. 性復疏嬾, 筋駑肉緩. 頭面常一月十五日不洗, 不大悶癢, 不能沐也. 每常小便, 而忍不起, 令胞中略轉乃起耳. 又縱逸來久, 情意傲散, 簡與禮相背, 嬾與慢相成, 而為儕類見寬, 不攻其過. (중략) 無萬石之慎, 而有好盡之累. 久與事接, 疵釁日興, 雖欲無患, 其可得乎?"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는 태도를 '한정'이라고 보아 상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단형(短形)의 글쓰기와 청언의 활용

그렇다면 세설체에 가깝다고 하는 허균의 척독이 가진 미학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허균이 단형의 글쓰기를 선택한 양상과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세설체가 가진 특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 중 하나는 분량이 극히 짧다는 것이다. 『세설신어』는 보통 100여 자 정도가 하나의 고사를 이루고 있는데, 가장 짧은 경우는 10여 자밖에 되지 않고, 가장 긴 고사도 300~400자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2] 현전하는 『성소부부고』에 수록된 산문은 수천 자가 넘는 장편 산문은 4천여 자 분량에 달하는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정도가 있을 뿐 400~500자 분량인 작품이 대부분이고 길어도 1천 자 내외의 작품이 간혹 있을 뿐이다.[63] 한편 '척독'으로 묶인 글들은 짧게는 십수 자, 보통 수십 자 분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척독은 이민구나 이덕무에 의해 주목되기도 했지만, 허균의 산문 중 일부가 실려 있는 버클리대 소장 『교산집(蛟山集)』의 편찬자도 '척독' 대목을 가장 앞부분에 실어 놓은 점에서, 허균 산문에서 척독이 갖는 의미가 고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4]

하지만 허균의 척독이 단지 글자 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세설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허균의 척독과 세설체의 관련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설신어』라는 책과 허균의 직접적인 접점이 있는지, 『세설신어』에 대해서 허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러한 이해가 허균의 척독에서 세설체의

---

62) 김장환, 「『世說新語』 續書 硏究: 『世說新語補』」, 『中國語文學論集』 16, 중국어문학연구회, 2001, 81쪽.

63) 가령 「故全羅道兵馬節度使贈兵曹判書李公誄」 같은 작품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마저도 해당 글은 장경세(1547~1615)의 『沙村集』 권4에 실린 「贈判書李公誄辭」와 자구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추가적인 작자 고증이 필요하다.

64) 버클리대 소장 『교산집』 (청구기호: 5563.7.0482)은 책표지에 "許筠手澤本"이라 쓰여 있다. 관련 해제에서 안득용은 현전 『성소부부고』보다 이른 시기의 책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임미정은 후대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미정,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이본(異本) 연구(硏究)」, 『語文論集』 82, 중앙어문학회, 2020, 239~241쪽. 안득용의 해제는 다음을 참조.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C.0000.0000-20090720.RICH_0609

흔적을 보아낸 동시대 독자들의 인식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허균이 주지번을 통해 「서일전」 등을 비롯한 일련의 세설체 저작을 접한 것은 1606년이지만, 편명이 『세설』로 되어 있는 작품을 직접 거론한 기록은 조희일(趙希逸, 1575~1638)에게 보낸 1609년 편지에 나온다.

> 『세설(世說)』은 빌려간 지 오래인데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아직 다 읽지 못했나요? 나는 천년 뒤에 태어난 탓에 진나라 사람들의 청담을 듣지 못했기에 『세설』을 펼쳐서 그 서언(緖言)을 탐구해 보고 싶군요. 찾아간 종에게 부쳐주었으면 하는데 어떤가요?[65]

여기서 '서언'이란 발화는 되었으나 끝나지 않은 말, 즉 남김없이 이해되지 않은 말이라는 뜻으로 생각된다.[66] '서언'은 어떤 저작의 서두에 나오는 서론 격의 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허균이 다른 곳에서 『세설신어』의 문체를 두고 함축성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도 서언은 실마리만 내놓았을 뿐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말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허균이 『세설신어』의 문체에서 함축성을 중시한 점은 다음 글에 잘 드러난다.

> 진나라 사람들은 청담을 좋아하였으니, 청담은 표현이 간단하면서 지취는 원대하여 말마다 심오한 뜻이 있다. 풍류를 숭상한 것은 동진 시대에 극치에 달했는데, 그러한 청담 중에서 훌륭한 것을 책에 올린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유의경 씨이니, 세상에 전하는 『세설신어』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중략) 짧은 표현으로 은미한 경지에 나아간 것과 문장 하나의 공교로운 표현에 분위기와 지취가 상쾌하여 절로 언외에 무한한 뜻이 담겼기에, 궁극의 심오한 경지에 나아갈 수 있었으므로 원미 씨가 매우 좋아하여 그칠 줄 몰랐던 것이다. 그저 표현을 따다가 시어에 사용한 당송 대 시인들은 이미 제2류에 떨어졌다.[67]

---

65) 『성소부부고』 권21, 「與趙怡叔(己酉九月)」, "(중략) 世說, 久假未回, 想已卒業否? 吾於千載之後, 不及聆晉人淸談, 思欲展之以究緖言, 幸付進奚, 如何?" 제목에 '趙怡叔'의 '怡'가 국중도본에는 '悟'로, 관물헌본·홍문관본에는 '恬'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이다. 버클리본 『교산집』에는 옳게 표기되어 있다.

66) '緖言'은 『장자』 「漁父」편에서 유래했는데 해당 맥락에서도 실마리만 남긴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孔子曰, 曩者, 先生有緖言而去, 丘, 不肖. 未知所謂, 竊待於下風, 幸聞咳唾之音, 以卒相丘也."

67) 『성소부부고』 권5, 「世說刪補注解序」, "晉人喜淸談, 辭簡指遠, 語語有玄解, 風流宗尙, 至於江左極矣. 撮其旨者, 登之于簡, 初曰劉義慶氏. 世所傳世說新語者是已. (중략) 蓋其於單詞造微, 隻行徵巧之際, 風旨蕭散, 自有言外無限意, 可以造極淵深. 故元美氏酷喜而不知竟也. 唐宋詩人只摘爲韻語之用者, 已落第二義矣."

허균이 볼 때 『세설신어』는 동진 시대에 극에 달한 청담 중 훌륭한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문체적인 면에서는 짧은 표현으로 은미한 경지에 나아가고, 공교로운 단문을 가지고도 상쾌한 분위기와 깊은 의도를 표현한다고 하는 점에 장점이 있다. 요약하면 허균이 볼 때 『세설신어』가 담고 있는 문장들은 표현이 지니는 함축성과, 함축된 내용이 지니는 심오한 메시지에 정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 앞에서 살펴본 이민구나 이덕무, 정조는 모두 『세설신어』가 가진 표현의 핍진성에 주목하였다. 이민구는 일찍이 허균이 「사우재기(四友齋記)」에서 활용한 바 있는 "軒衡解權"이라는 표현, 즉 눈썹을 들어 올리고 볼을 늘어뜨리며 웃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흔치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허균의 척독이 가진 특징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수법은 『세설신어』나 『하씨어림』 같은 명나라 사람들의 글에서 취해 온 것이라고 했고,[68] 이덕무 역시 허균이 이정에게 보내어 그림 속 화원의 배치를 지시한 척독을 수작으로 지목하고 특히 묘사의 핍진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조 역시 『세설신어』는 강남 젊은이들의 용모나 건축, 기물의 모습을 생생히 직접 보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찾았다.[69]

요컨대 허균은 짧은 문장에 함축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는 점을 중시한 반면, 허균 척독의 후대 독자들은 몇몇 허균 척독이 지니는바, 실물의 형상에 육박하는 언어적 묘사 기술에 찬탄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우선 허균의 의도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함축적 언어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허균의 척독 중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가지고 허균 산문에서 단형의 글쓰기가 발현되는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려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허균 척독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현전 척독은 총 68인을 대상으로 쓴 177편이 남아 있다.[70] 그중 수량적으로만 보면 이재영에게 보낸 편지가 13통으로 제일 많지

---

68) 각주 1번 참조.

69) 각주 4번 참조.

70) 연구자나 번역서에 따라서 계수 결과에 차이가 있다. 김성진은 177편(앞의 논문, 35쪽), 허경진은 176편(『허균평전』, 285쪽)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내놓은 번역본은 176통으로 표기하였다. 계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권20에 수록된 최천건에게 보낸 세 번째와 네 번째 편지를 분리하여 총 10통으로 볼지, 합쳐서 총 9통으로 볼지의 문제인 듯하다. 관물헌본이나 국중도본 모두 "午景當空, 忽得翰教"로 시작하는 네 번째 편지를 행갈이 하여 필사했고, 내용상으로도 해당 부분은 별 건의 편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최천건에게 보낸 편지를 총 10통으로 보았다.
각 편지의 수신인과 수신인별 척독 작품의 숫자, 수신인의 생몰년과 지위 등에 대한 현황은 본 절 말미에 표로 정리하였다.

만, 질적인 차원을 고려해 보면 사태가 좀 더 복잡하다. 『성소부부고』는 자편 문집인만큼, 각 척독의 배치 순서나 내용을 통해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수록 순서에 있어 수신인의 신분, 편지를 쓴 시기, 작자와의 관계 등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허균의 척독은 20~21권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그중 20권에 수록된 수신인은 서열상 작자보다 윗사람이거나 공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로, 대부분 제목에서 수신인이 호(號)로 지칭되고 있다. 20권에 수록되었으면서 자(字)로 지칭된 사람은 본 절 말미의 도표에 수록한 바와 같이, 작자보다 나이가 같거나 어린 경우(심열, 윤훤 홍서봉 등), 나이가 많더라도 문과 급제 시기가 자신보다 나중이거나(김상준, 이경전, 이춘영) 문과 급제자가 아닌 경우(한호)이다. 문과 급제 시기도 작자보다 이르고, 나이도 많은데 자로 부른 경우는 20권에 실린 수신인 33인 중에서 황신과 정협 2인이 예외이다. 이 경우도 10년 이내의 나이 차이므로 특별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20권에 실린 작품의 순서도 수신인의 사회적 지위의 서열과 거의 일치한다. 1590년대에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에게 보낸 편지가 서두에 있고 이덕형, 이항복, 심희수 순으로 이어진다. 그런 순서는 『성소부부고』가 마무리되던 1611년 당시 이덕형과 이항복의 관직 상 서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항복이 1600년대 초에 영의정을 역임한 적이 있지만, 1611년에는 이덕형이 영의정, 이항복이 우의정, 심희수가 좌의정으로 있었던 사실을 『성소부부고』에서 수록 순서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71] 그다음 황정욱부터 심열에 이르는 수신인의 순서는 대체로 관직 상 서열을 우선 반영하는 가운데 다음으로 나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한호나 이춘영에게 보낸 편지가 맨 뒷부분에 실린 것은 나이보다 관직 또는 문지(門地)를 우선시한 배열 규칙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권20의 서두에 실린 수신인 중 유성룡부터 유근에 이르는 8인에 대해서는 제목에 '上○○○'과 같이 '올린다'는 표현을 쓴 반면 이정귀 이하 24인에 대해서는 '與○○○' '答○○○'과 같이 평교 간에 쓸 법한 표현을 썼다. 이사홍(李士洪, ?~1613)에게 보낸 편지 정도가 '奉李滄海'라고 하여 경칭을 썼지만, 이것은 이사홍이 왕가의 후손인 점에 대한 예우인 것으로 보인다. 2인칭 대명사로 쓴 표현들도 "老師", "公", "閤下"가 대부분이고 작자 자신을 부르는 말도 "筠",

71) 실록 기사에 따르면 이덕형은 1609년 9월 6일부터 1611년 8월까지 영의정으로 있다가 해당 직은 이원익으로 교체되었다.

“某”, “僕” 등 겸양의 표현으로 이름자를 쓰거나 공식적인 편지에서 쓸 법한 일인칭 대명사를 주로 썼다.[72]

한편 권21의 수록 순서를 보아도, 여느 조선 후기 시선집들의 시인 배치 순서와 마찬가지로 승려나 화가, 여성은 맨 마지막에 붙여둔 점으로 볼 때, 척독 편 전체에 걸친 편지들의 수록 순서는 수신인의 사회적 지위의 위계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서얼에게 보낸 편지들도 21권의 말미에 배치되어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달, 이재영, 양경우 등 서얼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순서상 작자의 조카인 허채 다음이면서 승려에게 보낸 편지 앞에 배치해 놓았다. 작자가 생각하는 서얼의 지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자칭이나 수신인에 대한 호칭 역시 권20에 비해 권21에서는 훨씬 허물없는 표현을 쓰고 있다. 권21에 수록된 수신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목에 자를 썼다. “與龍山倅”나 “謝咸山倅”처럼 직함을 쓴 경우에도 그 내용은 수신인이 작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준 선물에 사의를 표하는 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권21에 수록된 편지들은 2인칭을 “兄”, “君”, “卿”으로 부른 것이 많고, 1인칭 역시 “弟”, “我”, “吾”가 대부분이고 때로 “端甫”와 같이 자신의 자를 쓰기도 했다. 조위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상대를 公이라 칭한 경우가 있지만, 그것 한 차례에 불과하다. 권21에서 “不佞” 같은 1인칭을 쓴 경우는 권말에 수록된 휴정 같은 고승에 한한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볼 때, 수신인에 따라 권20과 권21 중 어디에 편지를 귀속시켰는가를 나누는 기준은 대략 공적 친분인가 사적 친분인가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권20에 수록한 편지 내용은 국가 주도의 시선집 편찬 작업에서 자신의 직계 가족의 작품들이 실리는 문제를 따졌거나, 자신의 관직을 청탁하거나, 서적 내용을 문의한다거나 문장 품평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등, 대체로 공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면 권21에 실린 서간들은 개인적 감회나 문예 취향, 상대방의 첩이나 주변 기녀에 대한 품평 등 권20에 수록된 서간 내용에 비하여 사적인 차원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사실상 척독의 상권(上卷)에 해당하는 권20에 10통이 수록된 최천건(崔天健, 1568~1617, 字는 汝以, 號는 汾陰)에게 보낸

72) 편지 수신인에 대한 호칭이나 자신을 칭하는 대명사에 주목하여 수신인 그룹을 양분한 접근으로, 왕희지 서간을 분석한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Antje Richter, “Beyond Calligraphy: Reading Wang Xizhi's Letters,” *T'oung Pao* 96(2011): 382-383.

편지들은 독특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집에 수록된 척독의 숫자만 보면 조위한에게 보낸 편지들과 더불어 10통으로 동일하나, 조위한에게 보낸 편지가 1607년부터 1610년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최천건에게 보낸 편지는 총 10통 중 7통이 1607년에 집중되어 있다. 서간문을 수록한 권10에도 최천건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허균이 삼척 부사에서 파직된 사건을 최근의 일로 거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역시 1607년에 보낸 편지이다. 조위한 역시 허균과 상당히 교분이 깊은 인물이기는 하지만 최천건과는 유년 시기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73] 최천건에게 보낸 편지가 대부분 1607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최천건에게 보낸 편지들을 20권에 수록해 놓은 데에는 모종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1607년이라는 시점에서 최천건이라는 인물은 허균에게 공적 경력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최천건은 이해 4월 13일부터 이조판서로 있었고,[74] 당시 실세였던 유영경과 행보를 같이했던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광해군 즉위 후 유영경 세력이 숙청될 때 실제로 함께 삭출되었다.[75] 최천건에게 보낸 허균의 편지에는 중앙 관직에 나가라는 최천건의 권유를 사양하고 지방관 직을 청탁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타난다.[76]

허균은 허적이나 조위한처럼 문학을 매개로 최천건과 교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최천건의 이력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최천건은 유영경 일파가 숙청되던 시점에 '재주가 있어 선왕이 아꼈으므로 파직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평판을 지니고 있었다.[77] 최천건은 허균보다 6년 일찍, 임란 전인 1588년에 문과 급제하여 30세에 도승지로 승진했는데, 이때 나이에 맞지

---

73) 허균은 임수정 사후 묘지명을 쓰면서, 최천건, 임현, 임수정을 어린 시절 거주지인 상곡(庠谷)에서부터 글공부를 함께 한 친구들이라고 회상했다. 『성소부부고』 권16, 「弘文館校理任公墓碣銘」, "君與余, 及今家宰崔公汝以, 林儀曹子昇, 同長於庠谷, 情若骨肉."

74) 『선조실록』 40년(1607년) 4월 13일, 을사 5번째 기사.

75) 『丁戊綠』, 戊申年, "玉堂箚子, '快從柳永慶事, 洪湜、成泳、崔天健、申光立、具憲、南復圭、李慶祺等, 諂附柳永慶. (중략) 崔天健阿附助勢, 久執衡銓之柄, 大小除拜, 一任權魁之口. (중략) 所謂小北, 柳永慶爲相七年, 其所引進者, 許頊、崔天健 (중략) 崔天健後削黜."

76) 『성소부부고』 권10, 「答崔汾陰書」, "兄與大中、德甫, 初欲通顯路者, 毋乃不料事機耶? 黃綬不容, 而乃許玉堂天上乎?"; 권20, 「與崔汾陰(丁未六月)」, "司成之擬, 其欲洗佞佛之譏乎? 此自甘心, 何勞諱之? 千金買弊帚, 足以自娛, 厭向京師貴人, 作好面孔."; 「與崔汾陰(丁未八月)」, "吾欲綰斗印, 六年治帶方州, 爲方丈上仙. 雖以公天官冢宰與之, 吾不欲換也."; 「與崔汾陰(丁未九月)」, "得一州以糊口, 則敵萬戶侯封矣. 公乃靳之耶"; 「與崔汾陰(丁未十月)」, "加林在海上地, 僻有魚蟹之饒, 切欲得之. "

77) 『광해군일기』, 즉위년(1608년) 2월 21일, 무인 5번째 기사, "此人有才智, 先王亦嘗稱之, 今日固當收用, 不可罷職." (『정무록』에도 같은 기록이 나온다.)

않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하여 당시 지평 유공량(柳公亮, 1560~1624)으로부터 체직하라는 요청이 있었다.[78] 『선조실록』의 사관 역시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천건을 비난하기도 했다.[79] 『선조실록』의 사관은 최천건이 젊어서 등제한 이래 문지(門地)가 낮았던 탓으로 오랫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후 권세가에 아첨을 잘한 점이나, 선조의 심기를 잘 맞추고 중국어에 능숙했던 점이 빠른 승진의 원인이라고 보았다.[80] 하지만 선조가 유영경, 기자헌, 심희수와 나눈 대화에서 말한 것처럼 최천건에게 관리로서의 재능이 있다는 점은[81] 『선조실록』의 사관도 공히 인정하고 있다.[82] 그런 점을 두루 감안하면 대체로 최천건 자신은 유능하나 유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과 급제 이후 승진이 지체되었고, 출세한 이후에도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국의 향배를 기민하게 파악해 집권 세력과 제휴할 필요를 느낀 인물이 아닐까 한다. 그런 정황을 볼 때, 허균은 자신보다 한참 일찍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후 이제는 요직을 점하고 있는 최천건에게 유년 시절의 교분을 활용하여 우호를 표하면서도, 자신이 지방관으로 부임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스스럼없이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최천건에게 보낸 편지에는 권20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도 유난히 서정성이 짙은 내용이 많다. 가령 개성의 야경을 서술한 첫 번째 편지나, 여름날의 정취를 표현한 세 번째 편지, 차 맛에 대한 감회를 담은 아홉 번째 편지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최천건과 나눈 대화 중 분량상으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허균이 삼척 부사 직에서 탄핵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607년 하반

78) 『선조실록』 31년(1598년) 1월 20일, 병오 2번째 기사, “持平柳公亮來啓曰: "政院, 居喉舌之地, 其責爲重, 而都承旨, 乃一院之長, 在平時固難其任. 況今艱危多事之日乎? 都承旨崔天健, 年少驟陞, 不合其任. 請命遞差." 答曰: "崔天健可合故除授. 只觀其材, 驟陞與否, 不須論也.""

79) 『선조실록』 32년 7월 2일 기유 2번째 기사, “崔天健, 水原人也. 年少登第, 以門地之卑, 久潛國子承. 亂後乏人之際, 諂事名流, 有同奴隸, 去冷就炎, 常不失美官. 且有才慧, 善逢迎, 上頗幸之. 年纔三十, 擢置宰列, 物議譁然, 莫不唾罵, 而不能辭解, 若固有之, 豈非小黠大癡之甚者也?”

80) 『선조실록』 32년(1599년) 6월 8일, 을유 1번째 기사 “都承旨崔天健, 年二十一登第, 三十拜承旨, 善逢迎、能華語, 上頗幸之, 特命加資陞二品.”

81) 『선조실록』 38년(1605년) 임인 2번째 기사, “喜壽曰: "崔天健有才幹矣." 自獻曰: "天健爲戶曹參判時, 善爲國事云." 上曰: "天健爲都承旨時見之, 則多才氣. 其才氣之倍於他人, 予分明知之." 喜壽曰: "亦多吏幹, 治民盡職. 故, 海州牧使時, 亦善治云." 永慶曰: "海州甚難地, 而天健能善治云." 上曰: "予以可用之才, 薄言斟酌矣.""

82) 『선조실록』 34년(1601년) 1월 6일 을사 4번째 기사, “崔天健【爲人有才, 以驫見賤於人.】爲海州牧使”; 『선조실록』 38년(1605년) 2월 19일 계해 3번째 기사, “崔天健【有吏幹】爲開城留守”

기의 수령직 청탁 사안이다. 이해 9월부터 12월에 걸쳐 보낸 세 번의 편지는 결국 공주 목사에 낙착된 과정을 둘러싼 사정을 보여준다. 다음에 보인 것은, 그중 일곱 번째 편지이다.

> 저는 벼슬하려는 마음이 가을 구름처럼 얇아져서, 가을바람만 한 번 불면 계응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을 하나를 얻어 호구지책으로 삼는다면 만호후에 봉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께서는 그런데도 고을 수령 자리를 아끼시는군요. 공께서 인재를 아끼시는 일념은 하늘에 질정할 만하겠습니다만, 시기를 알지 못하신 것이요, 아끼는 마음이 지혜를 어둡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
> 공명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고 장한 포부도 이미 쇠했으니 수레 끌채에 매인 망아지가 남은 사료 옆을 서성이는 것과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련하지 않습니까? 궁달은 원래 분수가 있고 하늘의 뜻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장부란 죽은 다음에야 자기 일이 끝나는 것이니, 공께서는 제 혀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쇠줄로 커다란 바다에 붙잡아두려 하지 마십시오. 용의 성질은 원래 길들이기 어려운 법입니다.[83]

전후 인사말 없이 용건만 간단히 쓴 100여 자 남짓 되는 이 편지에서는[84] 자신을 외직에 임명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두에서는 사대부들이 은퇴를 원한다고 말할 때 흔히 쓰이는 장한(張翰, ?~359)의 고사를 언급했지만, 후반부 내용을 보면 작자가 현실 정치에서의 경력 추구나 야심을 완전히 접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혀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은 『사기(史記)』의 「장의열전(張儀列傳)」 서두에 나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옮긴 것으로, 장의가 벽옥을 훔쳤다는 혐의로 잔뜩 매질을 당하고 귀가하자 탄식하는 장의의 아내에게 장의가 ‘내 혀가 그대로 있으면 후일의 설욕을 도모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대답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85] 즉 지금은 자신이 중앙 요직에 있는 인물들에게

---

83) 『성소부부고』 권20, 「與崔汾陰(丁未九月)」, “僕宦情如秋雲薄, 西風一起, 不禁季鷹之思, 得一州以糊口, 則敵萬戶侯封矣. 公乃靳之耶. 公憐才一念, 可質上蒼, 而未免不知時, 愛令智昏否? 功名未入手, 壯志已衰, 局促轅下駒, 徘徊於棧豆間, 豈不悲哉? 窮達自有分, 而天亦不可料. 丈夫闔棺事畢, 公視吾舌尙在否. 毋欲以韁鎖施於大壑. 龍性固難馴矣.”

84) 척독의 일반적인 격식에 대해서는 심경호, 『간찰: 선비의 마음을 읽다』, 한얼미디어, 2006, 337~340쪽.

85) 『史記』 권70, 「張儀列傳」, 張儀已學遊說諸侯. 嘗從楚相飮, 已而楚相亡璧, 門下意張儀, 曰: “儀貧無行, 必此盜相君之璧.”共執張儀, 掠笞數百, 不服, 醳之. 其妻曰: “嘻! 子毋読書遊說, 安得此辱乎?” 張儀謂其妻曰: “視吾舌尚在不?” 其妻笑曰: “舌在也.” 儀曰:“足矣.”

탄핵을 받아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처지로 있을 것은 아니라는 희망섞인 전망과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용의 본성은 길들이기 어렵다"는 표현 역시 안연지의 「오군영(五君詠)」에서 혜강의 인품을 묘사할 때 쓴 말에서 온 것으로,[86] 은거를 선택한 혜강의 삶을 예찬하는 대목에서 나온 것이다. 사마씨 정권에 반대하여 출사하지 않은 혜강의 사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아끼는 마음이 지혜를 어둡게 만들었다"[87]거나 "수레 끌채에 매인 망아지가 남은 사료 옆을 서성인다"[88]는 것은 모두 『사기』에서 유래한 성어를 활용한 것이다. 즉 최천건의 권유에 반하여 지방 수령직을 원하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되, 짧은 분량 안에 많은 함의를 담기 위한 수단으로 성어나 고사가 활용되고 있다.

이후 최천건과의 대화에서 허균은 공주 부임만은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공주 목사로 나가게 되었고, 부임지에서의 근황을 보낸 편지를 끝으로 최천건과 주고받은 편지는 더 이상 수록되지 않았다.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음 부임할 적에 어떤 간관이 제가 이 자리에 합당치 못하다고 심한 말을 하면서 탄핵하려 했으나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고을에 부임해서는 새벽부터 수많은 집안의 송사를 처리하고 밤이면 청려장에 불을 밝혀 『좌전』을 읽습니다. 이는 한나라 관리의 법전을 스스로 거행하면서도 또 천고의 성대한 일을 폐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방꾼들은 우리가 세상에 보탬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역시 사리를 모르는 말입니다. 공께서는 분명 크게 웃으실 겁니다.[89]

여기서 허균은 자신이 지방관으로서 주간에는 송사를 처리하는 업무를 보고 야간에는 『좌전』을 읽는 일과를 행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여기서도 허균은 청려장을 밝힌다든지,[90] 천고의 성대한 일을 행하고 있다든지 하는 식의 성어를

---

86) 『文選』 권21, 「五君詠五首·嵇中散」 "鸞翮有時鍛, 龍性誰能馴?"

87) 『史記』 권76, 「平原君虞卿列傳」, "太史公曰: 平原君, 翩翩濁世之佳公子也. 然未睹大體. 鄙語曰, '利令智昏.' (후략)"

88) "上怒內史曰:"公平生數言魏其、武安長短, 今日廷論, 局趣效轅下駒, 吾並斬若屬矣."""

89) 『성소부부고』 권20, 「與崔汾陰(戊申正月)」, "初來時, 諫官有以僕不合劇爲言, 欲投劾而未果. 及到州, 晨理十萬家訟, 夜燃青藜杖, 讀一部左氏. 此自擧漢吏故典, 而又不廢千古盛事. 訾者謂**吾輩**無益於世者, 亦云罔矣. 公必軒渠."

90) 청려장을 밝힌다는 고사는 한(漢)나라 때 유향(劉向)이 천록각에서 교서(校書)를 하고 있을 적에 밤중에 태을지정(太乙之精)을 자처하는 황의노인(黃衣老人)이 나타나 청려장 끝에 불을 붙여 방 안을 환히 밝힌 다음 『홍범오행(洪範五行)』 등을 전수해주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권22 帝系部 青藜校書, 『三輔黃圖』, 『拾遺記』 등 여러 문헌

활용하여 자신이 문장력을 연마하는 일의 의미를 부연하였다. 여기서 '천고의 성대한 일'이라 한 것은 앞에서도 거론했듯, 조비가 「논문(論文)」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문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활동이자, 항구적이고도 성대한 사안이라 한 것을 가리킨다. 즉 치국의 실무에 해당하는 송사 처리 일과, 문장 창작을 통한 성취를 병렬로 놓음으로써 행정 업무와 문장력의 연마 모두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작자는 어째서 문장력의 연마가 치국 활동의 하나인가 하는 점을 논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력의 연마란 당연히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사리를 모르는' 자라고 치부하였다. 이러한 어법은 사실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이른바 '비방꾼'을 설득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우리[吾輩]'라고 일컬어진, 자신과 이미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존에 확인했던 공감대를 재확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허균이 가까운 인물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고사를 활용하여 편지의 문장들이 내포하는 바를 극대화하면서도 글자 수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식의 어법은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동지를 대상으로 이미 확보된 연대감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91]

하지만 짧은 글 안에 많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서 고사를 활용하는 것은 한문 산문 어디서나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작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허균의 척독에 독특한 점이 있다면, 짧은 글 안에 심원한 의도를 담는다는 원론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제 『세설신어』에서 유래한 고사를 축자적으로 편지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수법은 특히 유년 시절의 친구인 임현이나 임수정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주 발견된다. 임현과 임수정은 최천건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허균이 가까이 살면서 글공부를 함께 한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이고, 각각 1601년, 1606년에 요절하여 『성소부부고』가 편찬된 1611년에는 둘 다 고인이 된 인물이다. 임수정에게 보낸 편지에 『세설신어』의 고사가 다용된 점에 관해서는 기왕의 논의에서 다뤄졌으므로,[92] 여기서는 임현에게 보낸 편지를 위주로 『세설신어』 고사와의 관련을 살펴보겠다.

에 전한다.

91) 가령 신흠의 경우 『상촌집』 35~36권에 실린 서독류 중에도 허균의 척독에 비견할 만큼 100자 이내의 짧은 분량으로 된 편지들이 있지만, 고사를 활용한 경우는 편지 내에서 한두 건에 그치고 대부분 평담한 어조로 일상의 사실과 감회를 서술한 경우가 많다.

92) 김정숙, 「조선 문인의 위진 명사 소환 – 임수정에게 보낸 허균의 척독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71, 중국어문학회, 2020.

임현에게 보낸 편지는 총 8통으로, 보낸 시기는 1600년부터 1601년 2년에 걸쳐 있다. 그 아버지가 이조판서 등 요직을 거쳤던 임수정과 달리, 임현은 전라도에 근거지가 있었으며 가문 내에 문과 급제자 숫자를 보아도 조선 건국 이래 17세기까지 총 6인에 불과한 집안 출신이다.[93] 임현은 1597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등을 지내다가 1601년 6월에 3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직계 선대 중 문과 급제자는 없었지만 가산이 풍요로웠던 덕분에 서울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한편 승지를 지낸 민준(閔濬, 1532~1614)의 사위로 들어갈 수 있었던 듯하다.[94] 임현이 요절한 점을 고려하면 허균이 그에게 보낸 편지 8편을 선발한 점은 비중 상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보이는 글은 1600년 3월에 보낸, 임현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이다.

> 고서 만 권을 쌓아두고 옆에는 탁문군을 끼고 거기서 다리 뻗고 지낼 수 있다면 일생을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겠네. 장식 안 한 거문고와 섬세한 노래는 형이나 즐기시고 삼가 자랑하지 마시게. 내가 스스로 세상에 버려진 물건을 주운 것이 자네 일과 무슨 관계인가? 자네는 내가 비루하고 잡된 것을 가리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말게. 여기서도 위대한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다네. 비유하자면 만 리 되는 장강에 어찌 천 리에 하나씩 굽은 곳이 없을 수 있겠는가. 광기를 용서해 준다면 무척 고맙겠네.[95]

위의 편지에 이어지는 동년 3월에 보낸 세 번째 편지에서도 허균은 “내가 잡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경계하는 편지를 두 번이나 보내” 왔다고[96] 한 것으로 보아, 위의 편지는 임현 쪽에서 허균더러 부적절한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견책한 데 대한 답신이었던 것 같다. 첫 문장은 작자 스스로가 이른바 비루하고 잡된 자신의 취향을 옹호한 대목인데, 이는 내키는 대로 일탈 행위를 했다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의 일화를 모아 놓은 『세설신어』의 「임탄」에서 온 것이다. 술을 좋아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서진(西晉) 때의 인물인 필탁(畢卓, 322~?)이 말했다는

93) 이 점은 임현의 증조부가 을사사화에 연루된 임백령의 동생 임구령이었던 점과 유관해 보인다. 임현의 선대에 대해서는 『국조문과방목』 8책본 제4책 참조.

94) 권17, 「禮曹佐郎林君墓誌銘」, “庚寅夏, 始來京, 娶于承旨閔濬家. (중략) 家故饒, 不以財產屑意, 有窮者輒賑之.”

95) 『성소부부고』 권21, 「與林子昇(庚子三月)」, “積古書萬卷, 左文君而槃博其中, 便足了一生. 素琴纖歌, 兄自好之. 愼毋詑爲. 我自拾人間遺棄物, 何干卿事耶? 兄勿罪不擇鄙雜. 此足見其大, 豈猶萬里長江, 何能不千里一曲? 恕其狂, 幸甚.”

96) 『성소부부고』 권21, 「與林子昇(庚子三月)」, “君規我交雜人, 凡再至, 甚盛心也.”

“한 손에 게 집게발을 들고 한 손에 술잔을 든 채 연못 속에서 헤엄친다면 일생을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겠다”[97]는 표현에서 통사 구조를 취했고, 마지막 구절 “便足了一生”은 문자 그대로 전재하였다. 말미에 ‘만 리 되는 장강에는 천 리에 하나씩 굽은 대목이 있다’고 한 표현도 역시 「임탄」에서 온 것으로 누군가가 주의(周顗, 262~322)더러 ‘친구들과 말장난이나 하고 난잡하게 굴면서 절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자 그에 응수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98]

허균이 쓴 이 편지가 가까운 친구 간의 허물없는 농담인지, 임현의 질책에 대한 진지한 반박인지는 문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편지에서 동원된 바, ‘자네나 즐기고 자랑하지 말라’거나 ‘자네 일과 무슨 관계인가’ 따위의 상당히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고 활용한 점은 동시대 문인들의 서간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측면이다. 이러한 표현은 단독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세설신어』에 수록된 역사적 선례들에 의지한 표현들 속에 배치됨으로써 그 과격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작자는 『세설신어』의 전거를 활용함으로써 구속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전시하고 자기 표현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자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의 교제 방침이 떳떳하고 유익하다는 확신을 견지하고 있다는 자기 이미지를 조형하고 있다. 아래에 보인 임현에게 보낸 일곱 번째 편지 역시 자기표현의 차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 나는 우연히 비국랑이 되어 종일 재상 앞에 엎드려 붓을 잡고 글을 쓰고 있으면 땀이 비처럼 쏟아져 거의 미칠 지경이네. 어째서 나는 「수초부」나 들여다보지 않고 억지로 남의 국사를 맡고 있는 걸까? 벼슬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몇 말의 녹봉에 연연하여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네.[99]

퇴직을 원하지만 녹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직 중이라는 내용의 이 편지에서 활용한 ‘「수초부」나 들여다보지 않고 억지로 남의 국사를 맡고 있다’는 표현은 『세설신어』「경저(輕詆)」 편에 나온다. 환온(桓溫, 312~373)이 낙양으로 천

97) 『世說新語』「任誕」(23.21) “畢茂世云, ‘一手持蟹螯, 一手持酒栝, 拍浮酒池中, 便足了一生.’”
98) 『世說新語』「任誕」(23.25), “有人譏周僕射, 與親友言戲, 穢雜無檢節. 周曰, ‘吾若萬里長江, 何能不千里一曲?’”
99) 『성소부부고』 권21, 「與林子昇(庚子七月)」, “僕偶玷備局郎, 終日伏相君前, 操翰以書, 揮汗成雨, 殆欲發狂, 何不尋遂初賦, 而強欲知人國家事耶? 甚欲投紱, 以**貪戀斗祿**未果耳.”

도하려 했는데 손작(孫綽, 314~371)이 천도에 반대하는 표문을 올리자 분해진 환온이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100] 위의 편지는 앞서 「한정록 서문」에서 보았던 태도, '무릇 사대부란 태어났으면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기 마련'이라는 식의 태도와 달리 한결 꾸밈없는 내심을 고백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로 동시대 명나라의 『세설신어』 애호자들이 부유한 소주의 대지주로서 독립적 경제 기반을 가진 덕분에 굳이 국가에 봉사해야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과 달리,[101] 허균은 기대 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경제적 자립 수단을 마련할 수 없었다. 위의 편지에서 인용된 『세설신어』 속에 등장하는 손작을 비롯한 동진 시기 유력 가문의 인사들은 중국 남부에서 새로 획득한 장원에 대해 조정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은일이라는 것 역시 기존이 남중국 가문이나 신흥 군부세력과 경쟁하는 와중에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고귀함을 보유하고 있음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당나라에 와서도 유사하게 이어져, 은일을 표방한 왕유(王維, 699~759)의 경우에도 그의 농장인 망천장(輞川莊)이 농업경영체 기능을 가진 대규모의 경제적 기반이 되어 주고 있었다.[102] 반면 전란 직후인 1600년의 시점에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문화 취향을 향유할 정도의 경제력을 구비한다는 것은 허균은 물론 동시대 조선의 집권 세력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103]

이상에서 거론한 최천건, 임현, 임수정 등이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서 성장한 점에서 형제애에 가까운 우정을 나눈 사이라고 한다면 조위한은 그와 달리 작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시 창작을 매개로 사귀게 된 인물이다. 문헌 근거를 통해 뒷받침되는 조위한과 허균의 교제 시기는 1607년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려워 보인다. 허균은 30대 무렵부터 조위한과 알게 된 이래 『국조시산』의 편찬에 관한 일을 의논하거나[104] 자신이 쓴 시평(詩評)을 보이고 의견을 묻는 등[105] 주로 문

100) 『世說新語』 「輕詆」 (26.16), "桓公欲遷都, 以張拓定之業. 孫長樂上表, 諫此議甚有理. 桓見表心服, 而忿其為異, 令人致意孫云, '君何不尋遂初賦, 而彊知人家國事?'"
101) 권석환, 「강남지역 문화후원(Patronage)의 개념과 특징」, 『중국어문학논집』 53,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434쪽.
102) 정순모, 「王維의 隱居生活과 輞川莊」, 『中國學報』 91, 한국중국학회, 2020, 165~170쪽.
103) 가령 구덕회의 경우 이산해가 1600년 무렵에 실세한 이후 다시 정권의 핵심으로 복귀하지 못한 원인을 전란 피해가 극심했던 한산 지방에 재지 기반을 두었던 데에서 찾고 있다. 구덕회,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論』 2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8, 230쪽.
104) 『성소부부고』 권21, 「與趙持世(丁未十月)」
105) 『성소부부고』 권21, 「與趙持世(丁未十二月)」

학 활동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듯하다. 조위한은 허균보다 2년 연상이지만 문과에 급제한 시기는 퍽 늦어, 160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문과에 합격하였다.[106] 이때 조위한은 갑과 2등으로 뽑혔는데 이 일에 대해 언급한 허균의 편지가 있다.

> 시험관의 한 사람으로서 형의 책문을 2등으로 뽑은 것은 이른바 눈이 어두워 일오색부(日五色賦)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형의 사업은 한기(韓琦)와 같기를, 문장은 소식(蘇軾)과 같기를 바라오니, 그러면 충분합니다. 왕요신(王堯臣)이나 장형(章衡)은 장원급제만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후의 대업은 장원급제에 있지 않습니다.[107]

조위한은 43세가 되던 1609년 10월 14일에 시행된 증광시에서 2등으로 뽑혔다.[108] "눈이 어두워 일오색부(日五色賦)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소식의 시구 "눈에 지나간 글 중 끝내 일오색부를 알아보지 못하였네(過眼終迷日五色)"라는 구절에서 온 것으로, 당 덕종(唐德宗) 때 이정(李程)이 과거에 응시하여 일오색부를 지었으나 시관(試官)이 알아보지 못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정이 장원급제하게 되었다는 고사를 차용한 것이다. 여기서도 조위한에게 장원급제보다 "불후의 대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업과 문장을 병치하면서 과거시험 성적을 뛰어넘는 업적을 이룰 것을 축원하였다.

이 편지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에게 소식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허균은 이때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조위한이 과거에 합격하자 직접 찾아가서 축하의 말을 전하고 함께 중국 사행을 떠나게 될 수 있기를 기약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109] 조위한의 급제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는 반드시 편지가 아니라도 구

---

106) 허균은 조위한이 마흔이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일이나, 자신이 과거 급제한 지 16년이 넘도록 당상관이 되지 못한 처지를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성소부부고』 권5, 「送趙持世赴京序」, "吾友趙持世四十年不第, 猶困於博士弟子業, 而不佞亦釋褐十六年, 沈於下僚, 尙未衣緋, 唯其臭味之相同, 而畸於世亦同."

107) 『성소부부고』 권21, 「與趙持世(己酉十月)」, 忝爲考官, 屈兄策於第二, 所謂眼迷日五色也. 然望兄事業如韓稚圭, 文章如蘇子瞻, 亦足矣. 王文安、章待制, 只會作壯元及第. 試聞今人曾有道王堯臣、章衡來否? 不朽大業, 不在是也.

108) 이 시험의 시행일은 『광해군일기』에는 10월 14일로 나오는 반면, 『국조문과방목』(규장각소장 8책본 제4책)에는 10월 19일로 나온다. 이 시험의 1등은 홍천경(洪千璟, 1553~1632)으로, 기축옥사 때 최영경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정거되었다가 이 때 정거가 풀려 합격되었다. 홍천경의 합격을 두고 사간원의 반발이 있었다. (『광해군일기』 1년(1609년) 10월 18일, 병인 1번째 기사)

두로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 편지가 갖는 소통의 기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조위한의 급제를 축하하는 편지를 자기 문집 속에 남김으로써 편지쓰기가 일종의 의례적 차원의 일이 되는 한편, 공무와 문장 창작 양 방면에서 불후의 대업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평소 자기 의견을 일관되게 드러내는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110]

이상에서 살펴본바 허균이 가까운 친구들을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짧은 편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관직 청탁, 관직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견해, 자신의 사교 방침에 대한 입장 표명, 상대방의 경사에 대한 축하를 구실로 한 관직과 문장 창작의 위상 정립 등 관료 내지 관료 후보군으로서 사대부의 처신에 대한 문제 일반을 다루고 있다. 관직을 청탁한 일 자체는 편지 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수행적 차원을 이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종전까지의 연구에서 척독이 가진 형식적 특성인 단문의 구사나 단편으로 된 구성 방식은 주로 감성적 흥취 표현의 용이성이라는 차원에서 조명되었지만,[11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허균은 의견 표출이나 자신의 일상에 관한 사실 기술을 하는 데에도 짧은 글을 이용하였다. 물론 허균의 글에 감성적 흥취를 표현한 척독 작품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무적인 사안이나 평소 의견을 드러내기 위한 편지들도 양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 근거를 여러 각도에서 제시하기보다는 짧은 문장 안에 고사나 성어를 활용하여 의견 그 자체를 간명하게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은, 짧은 문장들을 쓰고 있던 작자의 주안점이 논리적 의론 전개나 지적 체계의 이론화 모색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선언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식의 어법은『세설신어』전편에서 두루 보이는 것으로,『세설신어』의 등장인물들은 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촌철살인의 표현을 통해 청자의 감탄과 승복을 이끌어냄으로써 자기 관점을 관철한다. 허균이

---

109)『성소부부고』권5,「送趙持世赴京序」,“己酉夏, 不佞以三魁館課陞級, 參秋官議, 冬初叨殿試對讀官, 則持世射策中甲科, 聲譽藉甚, 往賀之則君曰, ‘疇昔朝天之約, 果踐於來歲否?’”

110) 청대 사대부들의 척독 작성이 갖는 의례적 차원의 의미와 자기표현의 기능에 대한 분석으로 Dániel Z. Kádár, “Relational Ritual Politeness and Self-display in Historical Chinese Letters,”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 72(2), 2019, 207-227.

111) 김풍기,「조선 중기 古文의 小品文的 성향과 許筠의 尺牘」,『民族文化硏究』35, 民族文化硏究, 2001.

척독 내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실제로『세설신어』속 등장인물들이 누렸던 발언 효과에 근접하는 결과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발신인인 허균의 입장에서는『세설신어』속 인물들이 상대를 승복시키는 데 짧은 표현을 이용했던 전례가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허균이 척독에서 시도한 글쓰기는 자신의 주장을 반론에 맞서 다각도로 검토하거나 여러 근거를 제시하여 시비를 가리고 상대를 설복시키는 식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작자와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자기 생각을 재치 있게 표현하여 말주변을 자랑하거나 언어 표현상의 즐거움을 향유하려는 쪽에 가깝다.

짧은 표현에다 의견을 담는다는 점은 위진남북조 시기 청담이 표방한 이상 중 하나이기도 했다. 우아한 표현과 독창적인 내용을 담되 그것을 길지 않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청담인가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 중의 하나였다.[112] 허균의 척독은『세설신어』에 수록된 십수 자 분량의 일화들에 비하면 다소 길지만, 대체로 100자를 넘기지 않는 분량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간결하게 표현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측면과 더불어, 위에서 살펴본 편지들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쓴 편지임에도 오로지 사적이라고만은 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점, 즉 관직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허균의 척독이 가진 양식상의 차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종전까지 허균의 척독은 주로 '소품'이라고 불리거나 '청언 소품'이라고 불려왔다.[113] 필자가 보기에 허균의 척독 작품들을 그 양식상 '청언'에 귀속시키는 것은 합당하나 '소품'으로 칭하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일단 국문학사에서 '소품'이라는 용어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온 면은 있는 것이 그것대로 하나의 문제이다. 하지만 본고는 소품이라는 용어 규정상의 시비를 따지는 것이 주 과제가 아니므로, 일단 종래의 연구사에서 '소품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었는가 하는 것은 최근의 연구에서 정리된바, "주제 면에서 고문에 비해 일

112) Tang, 앞의 논문, pp.42-43. 그 근거를『세설신어』「상예」(8.25)에 나오는 악광의 고사로 들고 있다. "王夷甫自歎: '我與樂令談, 未嘗不覺我言為煩.'"

113) 김성진은 허균의 척독을 소품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고문과 소품문 양쪽이 섞인 것이라고 하여, 허균 척독을 연구한 여타의 논자들과는 약간 견해 차이가 있다. 김성진, 앞의 논문, 30~31, 42쪽. 허균의 글을 "청언소품"으로 보는 사례로 안대회,「조선 중후기 청언소품의 향유와 창작」,『한국한문학연구』59, 한국한문학회, 2015; 안대회,「동아시아 청언소품의 전파와 향유」,『민족문학사연구』7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상성·심미성·내면성을 추구하고, 소재 면에서는 기생·음식·담배 등 신변잡기적 제재가 포착되며 서화·고동·차·정원 같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야기하며 순간의 감정과 흥취, 쾌락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한다는 점, '형식과 표현 면에서는 편폭이 축소되고 언어의 조탁과 화려한 수사법을 추구하고 낯선 어휘나 비유 열거 등의 수사법을 적극 활용해 공교로운 미감을 선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114]고 하는 견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수용한다. 그렇게 볼 때, 허균의 척독 중 소품이라 부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은 작품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허균의 척독을 소품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우선 내용상 앞서 본 편지들이 담고 있는 내용상의 지향을 볼 때, 허균의 척독은 공적 세계나 현실 정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견지하고 있다. 소품이란 장르가 그 내용상 정치와 별개의 독립적 영역을 주시하고 그 영역의 독자성을 옹호한 문학이라고 할 때,[115] 소품의 존재는 명대 이전까지도 소급될 수 있다. 실제로 소식의 단편을 소품의 시작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특정한 시기, 즉 명대에 부흥한 소품으로서의 척독은 개인적 생활에서 발견되는 소재와, 그 척독 작품이 출판물로서 시장에서 거래된 사실에 그 특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허균의 척독은 명대의 소품과는 달리 관료 예비군으로서의 사대부가 기대할 만한 정치적 업적을 남기는 문제, 또는 그러한 관료 세계 속으로 진입하는 문제, 관료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문제에 수반되는 사안들을 탐색하고 있다. 또한 명말 소품이 갖는 사회적 배경 면에서 명말 소품이 만력 연간의 상업 발달과 함께 주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다량 생산되었던 것과 달리,[116] 허균의 척독은 그 유통에 있어서도 시장의 존재를 기대할 수 없었다. 허균의 글은 인쇄가 아닌 필사를 통해서 전해졌기에 지인 또는 지인을 통해서 연결되었을 소수 독자들 사이에서 읽혔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허균의 척독은 내용으로 보나 존재 조건으로 보나 명말의 소품이 지니는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

114) 김수진, 「조선후기 소품문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韓國漢文學硏究』 37, 한국한문학회, 2019, 219쪽.

115) Philip A. Kafalas, "Weighty Matters, Weightless form - Politics and the Late Ming Xiaopin writer," *Ming Studies* 39 (1998):52-53.

116) Timothy Clifford, "Visualizing Alternative Literary Canons in Ming Dynasty China (1368-1644): A Preliminary Case Study,"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and Culture* (2018) 5(2): 378-379, 392-393, 402.

다음으로 허균의 척독이 지닌 양식상의 특징을 분별하기 위해 '소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표준적인 중국 문학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지역적 경계, 즉 중국 남부와 북부의 차이를 간과하게 됨으로써, 허균의 척독이나 기타 산문들에서 수용하고 있는 스타일이 강남 문화와 강한 친연성을 갖는다는 점을 사상하게 된다. 기존의 중국 문학사에서 소품이란 전후칠자로 대표되는 복고파의 경향을 일신하기 위한 공안파를 비롯한 몇몇 문학 유파 측의 대응이라는 식으로 서술된다. 하지만 복고파 대 공안파라는 도식을 수용하는 한, 허균이 이른바 복고파의 영수 왕세정의 문학론이나 관심사에 열렬히 호응하면서도 일견 공안파의 전유물처럼 보이는 가볍고 일상적인 소재를 차용한 작품도 동시에 다수 남기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 명 말의 남부 지역, 특히 소주 일대를 위시한 강남 문화와 북방 문화 간의 대비 속에서 허균이 주목한 것이 강남 문화라는 점을 포착하게 되면, 허균의 문화적 관심사를 일관적인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청언'이라는 표현은 해당 표현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 적절히 그 의미를 규정해서 쓴다면 허균의 척독을 비롯한 산문 일반에서 드러나는 내용상의 지향이나 표현 형식상의 특징을 지목하는 말로서 적절하다. 본고에서는 '청언'이라는 표현을 명말에 들어서 유행한 장르를 가리키는 명칭보다는 한말의 청의로부터 발전하여 위진 시대의 청담에 이어지는 정치적·사상적 성격이 강한 담론 내지 문화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한다면[117] 허균의 척독에 나타나는 서술 지향의 연원을 가리키는 말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 위진 시기의 청언은 내용 면에서 정치 참여의 문제, 일상 차원에서의 삶의 방식, 교양 있는 사대부의 지적 유희, 개인의 처신이나 품위 유지의 문제 등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문화적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118] 최천건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허균의 청탁 편지는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편지 작성과 송신 자체가 일종의 수행적 기능을

117) 오늘날 우리가 위진시대 청담으로 부르는 것들을 당대 사대부들은 주로 '청언'이라 불렀던 점에 대해서는 Tang, 앞의 논문, p.19. 청담이 공허한 담론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수사적인 기교를 구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교묘히 회피하면서도 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 政論이 교차하는 장이라고 보는 견해로, 이성원, 「魏晉士大夫의 淸談 문화와 '有志'論 —嵇康의 『家誡』를 中心으로 —」, 『국제중국학연구』 67, 한국중국학회, 2013, 116쪽.

118) 한말에 출현한 淸議로부터 비롯된 청언의 등장과 이후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Tang, 앞의 논문, 이강범, 「郭林宗과 淸談의 시작, 그리고 그의 思想」, 『중국어문학논집』 41, 중국어문학연구회, 41, 2006.

하고 있기도 했다. 또한 조위한에게 보낸 척독에서 보이는 공적 영역에 대한 깊은 관심들을 고려할 때, 공사 영역을 아우르는 처신의 문제와 문화적 취향의 문제들을 허균의 척독이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균의 척독은 청언에 육박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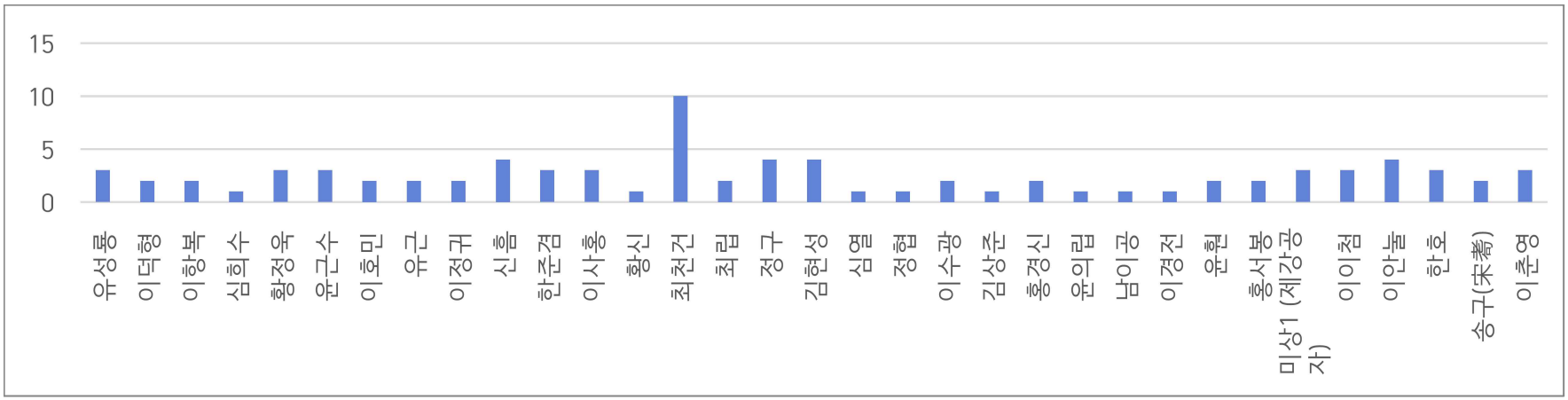
[표 3]: 허균 척독의 수신인 상황 일람

	수신인	수량	생몰년	특기사항
1	유성룡	3	1542-1607	1566년 별시 문과 병과. 1592년 영의정
2	이덕형	2	1561-1613	1580년 별시 문과 을과. 사가독서, 1608년 영의정
3	이항복	2	1556-1618	1580년 알성 문과 병과. 1600년 영의정, 1608년 우의정
4	심희수	1	1548-1622	1572년 별시 문과 병과. 사가독서, 1608년 좌의정
5	황정욱	3	1532-1607	1558년 식년 문과 병과. 예조·병조 판서
6	윤근수	3	1537-1616	1558년 별시 문과 병과. 윤두수의 동생. 좌찬성
7	이호민	2	1553-1634	1584년 별시 문과 을과. 대제학, 좌찬성
8	유근	2	1549-1627	1572년 별시 문과 장원, 1574년 사가독서. 1587년 문신 정시에 장원. 대제학, 좌찬성.
9	이정귀	2	1564-1635	1590년 증광 문과 장원. 1601년 대제학
10	신흠	4	1566-1628	1586년 별시문과 병과. 1608년 예조판서 1610년 대제학
11	한준겸	3	1557-1627	1586년 별시문과 병과. 1605년 호조판서
12	이사횡	3	?-1613	1606 생원시 장원. 광평대군 6대손.
13	황신	1	1560-1617	1588년 알성 문과 장원. 1609년 호조참판
14	최천건	10	1568-1617	1588년 알성 문과 병과. 1607년 이조판서
15	최립	2	1539-1612	免賤人 또는 庶類. 1561년 식년 문과 장원. 1584년 이문정시(吏文庭試) 장원. 1607년 형조참판
16	정구	4	1543-1620	1573년 유일(遺逸)로 천거됨. 1608년 대사헌.
17	김현성	4	1542-1621	1564년 식년문과 병과.
18	심열	1	1569-1646	1593년 별시문과 병과. 인조 대 영의정
19	정협	1	1561-1611	1588년 식년 문과 을과. 우의정 정언신의 아들 1608년 이조참판
20	이수광	2	1563-1628	1585년 별시 문과 병과. 1610년 대사헌, 대사간.
21	김상준	1	1561-1635	1590년 증광 문과 을과. 1608년 도승지.
22	홍경신	2	1557-1623	1594년 별시 문과 병과. 1603년 부제학
23	윤의립	1	1568-1643	1594년 별시 문과 병과. 문신 화가, 윤국형의 아들
24	남이공	1	1565-1640	1590년 증광 문과 장원. 1609년 홍문관 부제학
25	이경전	1	1567-1644	1590년 증광 문과 병과. 1591년 사가독서. 1618년 좌참찬. 이산해의 아들
26	윤훤	2	1573-1627	1597년 정시문과 을과. 윤두수의 아들
27	홍서봉	2	1572-1645	1608년 중시 갑과, 사가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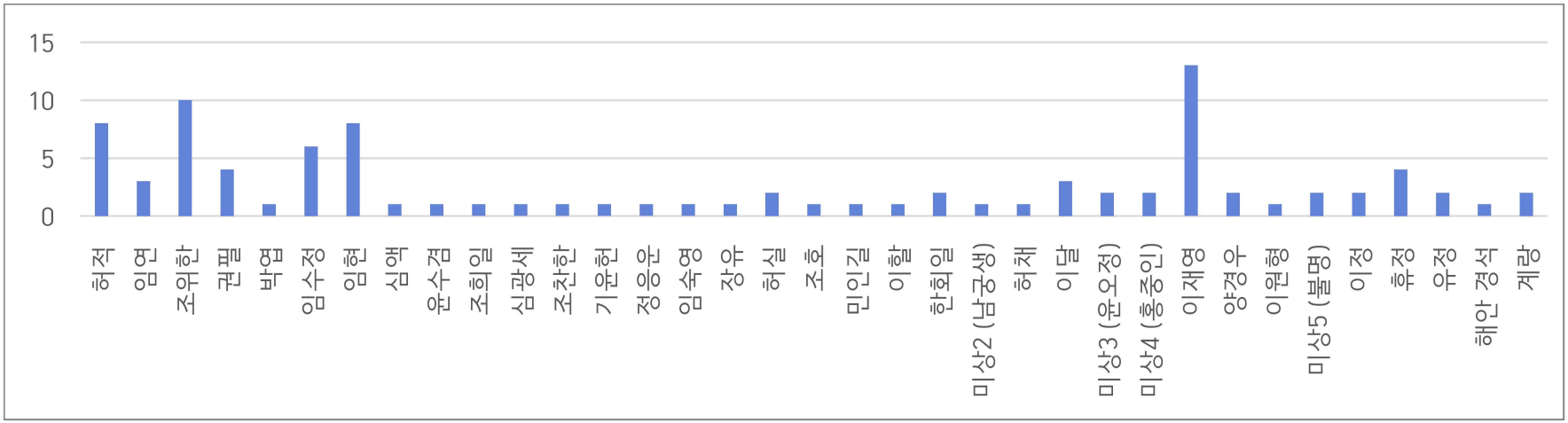
28	미상1 (제강공자)	3		
29	이이첨	3	1560-1623	1594년 별시 문과 을과, 사가독서. 1608년 문과 중시 장원, 대제학.
30	이안눌	4	1571-1637	1599년 정시 문과 을과. 1601년 서장관
31	한호	3	1543-1605	1567년 진사
32	송구(宋耉)	2		석주집 권1 四懷詩 참조.
33	이춘영	3	1563-1606	1590년 증광 문과 병과. 예천군수, 성혼 문인
34	허적	8	1563-1640	허균의 재종형
35	임연	3	1567-1619	1603년 정시 문과 병과. 1608년 헌납
36	조위한	10	1567-1649	1609년 증광문과 갑과.
37	권필	4	1569-1612	서울 서부 교외 현석촌 출생
38	박엽	1	1570-1623	1597년 별시 문과 병과.
39	임수정	6	1570-1606	1597년 별시 문과 을과.
40	임현	8	1569-1601	1597년 알성 문과 병과. 임구령의 증손.
41	심액	1	1571-1654	1596년 정시 문과 병과. 심달원의 증손, 이조 판서, 허봉의 문인.
42	윤수겸	1	1573-1624	1601년 식년 문과 을과
43	조희일	1	1575-1638	1602년 별시문과 병과. 1608년 문과 중시 을과. 예조참판.
44	심광세	1	1577-1624	1601년 식년 문과 병과. 심연원의 현손
45	조찬한	1	1572-1631	1606년 증광문과 병과
46	기윤헌	1	1575-1624	1605년 증광문과 병과. 기자헌의 동생
47	정응운	1		후오자의 1인
48	임숙영	1	1576-1623	1611년 별시 문과 병과.
49	장유	1	1587-1638	1609년 증광문과 을과
50	허실	2	1583-1625	허성의 장남. 1615년 알성 문과 병과.
51	조호	1		
52	민인길	1		
53	이할	1		
54	한회일	2	1580-1642	한준겸의 아들. 종백부 한백겸에게 수학. 문과 급제 이력 없음. 함열 등지 수령 역임.
55	미상2 (남궁생)	1	1539-1612	
56	허채	1		허봉의 장남
57	이달	3	1538~1612	서얼

58	미상3 (윤오정)	2		
59	미상4 (홍중인)	2		
60	이재영	13	1553-1623	서얼. 임란 중 허통. 1599년 정시 문과 장원.
61	양경우	2	1568-?	서얼. 양대박의 아들, 장현광의 문인. 1597년 별시 문과 병과. 1606년 유근의 종사관. 161년 문과 중시.
62	이원형	1		
63	미상5 (불명)	2		
64	이정(李楨)	2	1578-1607	안견파, 절파, 남종화풍 등 다양한 화풍 구사.
65	휴정 (청허당)	4	1520-1604	1594년 승과 급제.
66	유정	2	1544-1610	1561년 승과 합격.
67	해안 경석	1	1567~?	동주집 권7, 逍遙堂太能法師碑銘
68	계랑	2		일명 梅窓. (지봉유설 권14)
총		177		

[그림 1]: 「척독 상」(권20)의 수신인



[그림 2]: 「척독 하」(권21)의 수신인 ※미상5에 속하는 2편은 이원형에게 보낸 것으로 처리한 본도 있음.



2. 문인 의식의 발현 양상

1) 인물 전범의 설정과 서화 감상학

1614년 이후 허균은 중앙 정계의 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지만, 『성소부부고』의 집성 이전, 특히 현전하는 산문 작품이 창작된 광해군 집권 직후의 4년간은 탄핵당하거나 유배되는 등 비주류 관료로서 낙척한 삶을 보내고 있었다. 1608년에는 공주 목사직에서도 파직되어 부안에 은거한 채 4개월을 보냈고, 1610년 봄에는 천추사로 임명되었다가 병으로 사직하자 탄핵되어 겨울에 문과 대독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무직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 허균의 산문에는 관료로서보다는 문장을 아는 식자의 한 사람, 즉 문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다듬어 간 내력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문인으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노력은 젊어서부터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은퇴하려는 희구를 드러낸 내용, 가령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119] 지방관 자리를 원한다는 식의 언급[120], 자신에게 문장력이 있다는 언급[121]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지은 글에서부터 나타나지만, 관직에 연연하는 마음을 버리고 동시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장을 자기 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이 정식화되는 것은 1609년 이후, 즉 40대 초반 무렵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장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말은 정치 영역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의 출세 희망을 완전히 단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한다는 쪽에 모아져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허균이 자신의 이미지를 문장 창작에 헌신하는 자로 묘사한 노력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고, 그 이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겠다.

광해군 즉위 초반인 1610년 겨울, 허균은 유배된 때조차, 자신이 선조 대에 문한 관료로서 선조에게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 길이 열려 있다고 상상하

---

119) 『성소부부고』 권1, 「丁酉朝天錄·百祥樓」, "人生無百歲, 物役爲煩憂. 名利亦徒爾, 奈何不早休. 行將畢王事, 投紱歸巖幽."

120) 『성소부부고』 권1, 「南宮藁·戱題春帖」, "半生郎署歎窮途, 願乞王喬葉縣凫. 從此有人來送我, 今年方免鬼揶揄." 結句에서 말한 귀신의 야유는 『세설신어』 「任誕」에 나오는 羅友의 고사이다.; 『성소부부고』 권1, 「南宮藁·寓懷」, "春至草堂歸未得, 山靈應已勒移文." 結句의 移文은 南北朝 때 周顒이 북산에 은거하다가 관직에 나가자, 그 친구 孔稚圭가 북산 신령의 말을 가탁하여 관청의 通文 형식으로 移文을 보내, 주옹이 다시 북산에 들어오면 산들이 거절할 것이라 했던 고사를 가리킨다(『文選』 권43 「北山移文」).

121) 『성소부부고』 권1, 「南征日錄·早向天安」, "自有文章娛寂寞, 肯於名位恨差池. 人中懷璧元堪罪, 暗裏投珠却見疑."

고 싶어 했다. 1611년 봄에 유배지에서 쓴 「몽뢰사물명(夢賚四物銘)」에서는 선조의 목소리를 가탁하여 “너에게 불후의 명예를 남길 대업을 맡기노라”[122] 같은 구절을 지어 놓았다. 자신이 문장을 통해 불후의 업적을 남길만한 자라는 믿음이 있었다 한들 그러한 자기 능력을 공적 지위를 통해 펼쳐볼 희망이 옅어짐에 따라, 허균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을 이전과는 다른 식으로 조정해야 했다. 그것은 세간의 가치를 부인하고 자신의 가치를 주장함과 더불어, 그 가치를 자신이 인정하는 친우 집단 내에서 인정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글이 「대힐자」이다. 「대힐자」는 작자가 자신을 힐난하는 사람을 가설하여 그에 응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처세의 방식을 서술하고 그 삶의 방식을 정당화한 글로, 허균에게 있어서 친구 간 교제의 의미와 그 과정에서 매개물로 작동하는 문장의 역할에 대한 작자의 생각이 정식화된 글이다.

서두에 등장한 힐난하는 사람은 당상관인 작자가 왜 그에 걸맞은 신분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기이한 사람[畸人]과 함께하느냐고 따진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한데, 왜 현달한 관직에 있는 사람[要途]과 가까이하지 않는가를 묻는다. 그러자 작자는 자기 천성이 졸렬하여 남이 듣기 좋은 말을 못하므로 중신들의 눈에 들 수 없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자신이 퇴직할 처지는 못되므로, 벼슬에 있으면서 자기 재주를 알아주는 친구들과 사귄다는 내용이 작품의 초반부를 이루고 있다.[123] 사실 힐난하는 사람이 ‘기인’과 가까이 지내느냐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단어의 전고를 상기하면 이미 어느 정도는 ‘대힐자’의 정해진 결론(foregone conclusion)을 암시하고 서술 방향을 예고한다고도 할 수 있다. 『장자』 「대종사(大宗師)」에서 기인이란 ‘세속 사람들과 다르지만 하늘과 비슷한 자들’로, 인간 세계에서는 소인으로 오해받지만 하늘의 세계에서는 군자라고 규정되는 존재이다.[124] 「대힐자」에서 서술되는바 허균이 가까이한다고 하는 친구들 역시 세속에서는 꺼림을 받지만 작자인 허균에게는 그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기인’이란 표현은 원전의 맥락을 제거하고 단장취의된 것이라기보다 원전의 취지를 지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힐난자에 의해 ‘기인’

---

122) 『성소부부고』 권14, 「夢賚四物銘·筆橐銘」, “畀汝大業, 不朽之名.” 국중도본에 畀가 異로 된 것은 문맥상 오자. 관물헌본을 따랐다.

123) 『성소부부고』 권12, 「對詰者」, “頎而弁者, 有詰於吾. ‘君有文章, 官上大夫. (…) 宜其所交, 卿相爲徒, (…) 無顯者來, 畸人與俱. (…) 宜其子身, 阨于泥塗. 盍捨此輩, 往締要途?’ 余曰否否, 子言之迂. 吾性鄙拙, 疏而且麤. (…) 見者輒憎, 欲斲其顱, 不得已焉, 思適江湖. 爲貧爲祿, 欲退次且.”

124) 『莊子』 「大宗師」, “子貢曰, ‘敢問畸人.’ 曰, ‘畸人者, 畸於人而侔於天 故曰, 天之小人, 人之君子, 人之君子, 天之小人也.’”

이라 지칭된 자들의 속성을 묘사한 대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 오직 저 두세 사람, 세속에 구애되지 않고 내 재주 좋아하고 거침없는 내 성격 사랑하네. 찾아와 함께 술에 취하고 한쪽이 시 지으면 한쪽이 화답하니 한 편 한 편이 진주 구슬. 화제 아니면 목난이요 매괴 아니면 산호거늘 내 보물 내가 보배로 여겨 팔리길 기다리지 않는다네. 시경을 친구로 삼고 이소를 종으로 삼아 대단한 일[大業]을 한다 으쓱거리며 온 세상을 좁게 여기네. 벼슬할 땐 속임수 부리지 않고 자신의 규칙을 따랐고 하늘이 준 천성대로 살아 늘그막에 이르렀네. 세력으로 이익으로 사귄 친구는 때가 되면 반드시 변하지만, 우리 사귐은 변치 않으니, 바위인가 무쇠인가. 이들과 함께라면 흡족하기 그지없어, 희희낙락 득의만만. 자기 존재마저 잊고 침식조차 잊는다네. 이러니 높은 벼슬아치가 안중에 있겠는가. 저 부귀한 자들은 자색 청색 인끈 차고 긴 옷자락에 패옥 찼으니, 그런 것은 집안 여자들이나 좋아할 뿐, 묻혀 사는 이 사람들은[此沈冥者][125] 즐길 게 따로 있어 눈과 귀로 즐길 쾌락 탐하지 않고 매서운 형벌도 두려워 않네. 도연명과 사령운, 이백과 소동파, 이분들과 나란하길 바랄 뿐, 인생의 부침일랑 관심도 없네.[126]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작자의 친구들인 재야인사와 고관 무리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 '묻혀 사는 사람들[沈冥]'이라고 할 때 선택한 단어는 『세설신어』에서 완유(阮裕)에 대해 왕희지가 평가한 말에서 나온 것으로, '총애와 굴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에 근접했으니, 옛날에 세상을 피해 은거했던 자[沈冥]라 한들 어찌 이보다 뛰어나겠는가.'[127] 한 데서 유래했다. 즉 자신의 친구들은 은거자로서 고관들의 꾸밈새나 취향과 대조적인 지취를 갖고 있다고 서술하는 가운데, 고관들의 기호를 폄하하고 재야인사들의 취향을 옹호한 것이다. 또 여기 묘사되는 친구들의 정체성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문학 활동과 본성 그대로의 삶을 산다는 점이다. 특히 문학 활동에서 나온 산물을 화제주나

---

125) 「對詰者」의 서두에서 허균은 힐난자에 의해 '上大夫'라고 지칭되었으므로, '此沈冥者'는 허균을 제외한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126) 『성소부부고』 권12, 「對詰者」 "唯二三人, 不爲俗拘. 喜我伎倆, 或愛無鄂. 來醉我酒, 相招相呼. 有倡斯和, 篇篇明珠, 火齊木難, 玫瑰珊瑚. 自寶我寶, 非待其沽. 風頌爲伍, 命騷僕奴. 詫爲大業, 隘視寰區. 謂仕毋詭, 範我以驅. 從天所賦, 以至桑榆. 勢交利交, 有時必渝. 此交不涅, 石耶金乎! 當其得意, 欣欣愉愉. 不知有我, 忘寢及餔. 而況軒貂, 視若有無. 彼富貴者, 紫拖青紆, 長裾佩玉, 只悅婦姑. 此沈冥者, 唯樂是圖, 不耽聲色, 不怵嚴誅. 曰陶曰謝, 曰李曰蘇, 唯冀其齊, 莫卹榮枯." 번역은 정길수, 『나는 나의 법을 따르겠다』, 돌베개, 2012, 191~193쪽을 따르되, '나'라는 일인칭으로 새긴 부분을 작자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자신' 또는 '우리'로 보아 수정했다.

127) 『世說新語』 「栖逸」(19.6), "阮光祿在東山, 蕭然無事, 常內足於懷. 有人以問王右軍, 右軍曰, '此君近不驚寵辱, 雖古之沈冥, 何以過此!'"

매괴주 같은 보석류에 비유하는 어법은 다른 글에서도 반복해 등장하는데, '페르시아의 시장에 나열된 진귀한 보석과 같다'는 표현은 문장을 일종의 상품, 즉 거래의 대상에 비유하고 있는 점도 후술할 이 시기 문화적 조류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이다.

둘째, 자기 친구들과 고관을 대비한 대목은 집단과 집단의 대비라는 점이 주목된다. 인용문에 나온 피아의 구분은 작자 자신과 타자라는 개별자 간의 대비가 아니라, 작자를 둘러싼 집단과 이질적 집단 간의 대비이다. 허균에게 있어 '진정한' 문장 창작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고 문학이라는 가치를 숭상하는 일군의 집단이다. 이런 식의 '저들과 우리'라는 이분법은 「전오자시(前五子詩)」 서문에서도 보이듯 문장을 매개로 교제하는 '우리'라는 관념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 나는 세상과 틀어져서 공경을 비롯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맺지 못했다. 오직 얕은 기예를 가지고 문단의 두세 형제에게 알아줌을 입었다. 그리하여 이들과 밤낮으로 상종하여 어떤 때는 창수로 어떤 때는 담론을 통해 절차탁마하면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려 했다. 그들은 권필, 이안눌, 조위한, 그리고 내 재종형 허적과, 젊을 때 친했던 이재영 5인이다. 이들은 문장이 세상에서 드물고 세상에서 궁하게 된 것도 같으니, 이 어찌 문인의 결습은 으레 사나운 운명이라는 경우가 아니랴? 마침내 오자시를 지어 풍아를 드날리고 교분의 정을 기술하여 때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풀어 보려 한다. 수록 순서는 나이순으로 기록했고 맨 마지막은 지위를 따른 것이다.[128]

「전오자시」가 수록된 「病閑雜述」은 1610년 초에 쓴 것이고 「對詰者」는 허균이 '상대부'라 지칭된 것으로 보아 1609년 후반의 작품으로 짐작된다. 즉 두 작품은 창작 시기가 가까운 편이라 할 수 있다. '오자시'라는 양식이 이반룡과 왕세정에게서 시작하여 정치적 입장이나 문학적 지향을 공유하는 동지집단의 결속을 꾀하고 배타적인 우의를 다지는 데 활용되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대로이다.[129] 허균 역시 자신이 지목한 5인의 친구들이 뛰어난 문장력을 지녔지만 세간에서 현

---

128) 『성소부부고』 권2, 「病閑雜述·前五子詩」, "余畸於世, 不能締交於公卿當路者, 惟以薄藝見知於文盟二三兄弟. 惟日夕過從, 或倡酬或談謔, 以相切磋, 以優游卒歲, 其人卽權韠汝章, 李安訥子敏, 趙緯韓持世, 而余再從兄許襩子賀, 曁少時昵友李再榮汝仁. 五人者, 文章俱稀世, 而窮於時亦同, 豈文人結習, 例厄於命也歟? 遂作五子詩, 以揚風雅, 以述交情, 而時觀之, 自釋焉. 其按次則年以記之, 終以地云."

129) 김은정, 「「五子詩」 창작 배경 및 和答詩 연구」, 『震壇學報』 96, 진단학회, 2003, 128~133쪽.

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해소해 보고자 한다는 취지의 서술을 덧붙여 놓았다.[130]

이렇듯 허균은 피아 구분을 통해 자기가 속한 집단이 문장 창작을 매개로 결속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숭앙하는 대상, 즉 자신의 전범으로 설정한 인물들 역시 그룹 단위로 제시하여 놓았다. 허균이 자기 모습을 소집단 속의 한 사람으로 묘사한 것처럼, 그가 숭모한 인물도 특정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이 한 묶음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대힐자」에서는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그 대상으로 도연명과 사영운, 이백과 소동파를 지목했는데 이중 도연명, 이백, 소동파는 허균의 글에서 경모의 대상으로 반복 소환되는 3인으로, 1605년에 지은 「삼선생찬(三先生贊)」이 그 시작이다.

> 나는 일찍이 팽택령 도잠이 80일 만에 관직을 떠나 끝내 출사하지 않은 것과, 적선 이백이 총애받는 귀인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에게 발을 뻗어 자기 신발을 벗기게 한 것, 장공 소식이 허심탄회하게 남들을 아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만족스럽게 여긴 일을 사모하였다. 이런 일은 천년 후에도 여전히 생기(生氣)가 있다. 아! 그만두자. 나는 오두미 같은 이 적은 녹봉에 연연하여 욕을 당해도 관직을 떠나지 못하고 총애받는 높은 사람에게 억눌림을 당해 내 뜻을 펼치지 못할뿐더러, 편협한 마음과 모난 모습 때문에 번번이 취향이 다른 사람들[異趣者]에게 미움을 받는다. 나로서는 세 분 선생이 했던 것 같은 행동을 하려 해도 아득하여 따라잡을 수 없으니 아아 슬프다. 그래서 나옹 이정에게 명하여 세 분 선생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나는 찬을 지어서 그 뒤에 이어 붙였다. 마침 한석봉이 내가 있는 군(郡)의 재(齋)에 방문했기로 그에게 작은 해서로 나의 찬을 쓰게 하고 금글자로 이분들의 명호와 관작과 출신 고향을 찬 위에 쓰게 했다. 이따금 이것을 완상하면서[時玩之] 그들을 사모할 따름이다.[131]

---

130) 「前五子詩」 서문의 말미에서도 앞서 본 척독의 수록 순서와 마찬가지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썼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견 평교간의 교분처럼 볼 수 있을 관계에서도 허균의 입장에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차이가 무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131) 『성소부부고』 권14, 「三先生贊」, "余嘗慕彭澤令八十日去官, 遂不仕; 而謫仙不嚴寵貴, 以足伸之, 令脫其靴; 長公坦懷愛物, 無貴賤皆得其驩, 千載之下, 尙有生氣, 吁其异夫. 余戀此五斗, 逢辱不能去; 而爲寵貴者所扼, 不克展吾志; 褊心崖貌, 輒爲異趣者所嫉, 欲爲三先生所爲, 邈不可攀追, 嗚呼悲夫! 因命懶翁繪三先生, 贊以而係之, 適石峯適訪於郡齋, 乞以小楷書之, 金書名號爵里於上, 時玩之以慕焉耳." 관물헌본은 不嚴寵貴에서 不이 빠져 있고, 爲寵貴者所扼 다음에 '者'자가 있음(衍字). 邈不可攀의 攀이 擧로, 金書名號爵里의 金이 全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오자. (홍문관본은 국중본과 모두 같다)
이 작품의 창작 시기는 수안군수로 있던 1604~1605년 사이일 것으로 짐작된다. 「삼선생찬」과 유사한 형식의 「이정이 부처와 조사를 그린 데 붙인 찬(李畫佛祖讚)」은 자신이 수안 군수로 있을 적에 한호와 이정에게 글씨와 그림을 부탁하여 만들었다는 언급이 있어 정확한

「삼선생찬」에서 주목할 점은 3인의 인물에 관한 생전 일화를 거론한 후 그런 일화들에 작자가 감탄하는 대목이 '생기가 있다'는 데 집약되고 있는 점이다. 여기서 말한 생기는 그 일화가 작자에게 파급한 생생함의 감각을 가리킨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에 보이는 1611년의 작품 「사우재기(四友齋記)」에서는 이 생기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참조가 된다.

>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는 진나라의 처사 도원량(陶元亮)이다. 그는 한가하고 고요하며 평탄하고 소광(疏曠)하여 세상일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고 가난을 편히 여기며 천명을 즐기다가 승화귀진(乘化歸盡)했으니, 맑은 풍모와 빼어난 절개는 아득하여 잡을 길이 없다. 나는 몹시 그를 사모하나 그의 경지에는 미칠 수가 없다. 그다음은 당나라 한림 이태백이다. 그는 비범하고 호탕하여 팔극을 좁다 하고 귀인들을 개미 보듯 하며 스스로 산수 사이에 방랑하였으니, 내가 부러워하여 따라가려고 애쓰는 대상이다. 또 그다음은 송나라 학사 소자첨(蘇子瞻)이다. 그는 허심탄회하여 남과 경계를 두지 않았기에 현명한 이나 어리석은 이, 귀한 이나 천한 이 할 것 없이 모두 그와 더불어 즐겼으니, 그러한 유하혜(柳下惠)의 화광동진(和光同塵)을 본받고자 하나 못하고 있다. 이 세 분 군자는 문장이 천고에 떨쳐 빛나지만, 내 보기에는 모두 그들에게는 여사(餘事)였다. 그러므로 내가 취하는 바는 전자에 있지 후자에 있지 않다. 만약 이 세 분 군자를 벗 삼는다면, 어찌 속인들과 함께 어깨를 포개고 옷소매를 맞대며 사분사분 귓속말하며 스스로 우도(友道)라고 여길 것인가.
>
> 나는 이정에게 명하여 세 군자의 상을 꼭 같이 그리게 하고[惟肖], 이 초상에 찬을 짓고 한석봉에게 해서(楷書)로 쓰게 하였다. 매번 머무는 곳마다 반드시 좌석 한쪽에 걸어 놓으니 세 군자가 완연히 마주하여 눈썹을 들어 올리고 볼을 느슨히 하여 미소 지으며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쓸쓸히 지내는 생활이 괴로운 줄을 더욱 알지 못하였다. 이러고 보니 나는 비로소 오륜을 갖추게 되었으며, 더욱 남과 더불어 사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다.[132]

연대 추정이 가능하다. 「삼선생찬」도 그와 유사한 시기의 작품일 듯하다.

132) 『성소부부고』 권6, 「四友齋記」, "吾所最愛者, 晉處士陶元亮氏, 閑靜夷曠, 不以世務嬰心, 安貧樂天, 乘化歸盡, 而淸風峻節, 邈不可攀. 吾甚慕而不能逮焉. 其次則唐翰林李太白氏, 超邁豪逸, 俯阨八極, 蟻視寵貴者, 而自放於川岳之間, 吾所羨而欲企及者. 又其次, 宋學士蘇子瞻氏, 虛心曠懷, 不與人畦畛, 無賢愚貴賤, 皆與之驩然, 有柳惠和光之風, 吾欲效而未之能也. 三君子文章, 振耀千古, 以余觀之, 則皆其餘事. 故吾所取者在此, 而不在彼也. 若友此三君子者, 則奚必與俗子聯袂疊肩, 詡詡然耳語, 自以爲友道也哉! 余命李楨繪三君像, 惟肖, 作贊倩石峯楷書, 每所止, 必懸諸座隅, 三君子儼然相對軒衡解權, 若與之笑語, 怳若聆其謦欬, 殊不知索居之爲苦, 然後余之倫始備五, 而尤不樂與人交也."

동일한 3인에 대해 쓴 1611년의 이 글에서 「삼선생찬」의 서술과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들 3인에 대해 위계를 설정한 점이다. 세간과 애초에 엮이지 않은 도연명의 사례를 최상으로 치고, 그다음 이백, 소식 순으로 서술하였다. 귀인들과 엮였으나 개의치 않고 탈정치의 세계로 퇴각한 이백이 차선의 삶이고, 정치의 세계에 머물면서도 타인과 원만히 잘 지낸 소식이 그다음의 모범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3인의 초상을 때로 완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머무는 곳에 반드시 좌석 근처에 걸어 놓는다고 하여 감상의 빈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렇게 걸어 놓았더니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가 실제로 대하는 것처럼 생생하다는 감각을 소상히 묘사해 놓았다. 즉 부재자가 현현해 있는 감각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3인의 초상을 흡사하게 그리도록 했다는 대목이다. 해당 대목의 원문에 쓰인 "惟肖"라는 표현은 그 출전인 『서경(書經)』의 일화에서부터 은(殷)나라 고종이 꿈속에서 본 인물의 형상과 꼭 닮은 초상화를 그려서 결국 부열(傅說)을 찾아냈다는 전설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3인의 실제 외양이 실전된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에 맞게 그려야 꼭 닮게 그리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작자가 "閑靜夷曠"이라든가 "超邁豪逸"과 같이 4언구로 집약해 놓은 이들의 성품, 즉 작자가 포착한 이들의 퍼스널리티에 부합하는 용모로 그려야 한다는 취지일 듯하다. 그렇지만 애초에 그렇게 4언구로 이들 인물의 성품을 집약한 것 자체가 사실은 작자의 주관을 해당 인물들에 부과함으로써 하나의 퍼스널리티를 일관되게 창조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133] 작자가 언어화해 놓은 이들 인물의 성품은 문헌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인물의 여러 부면을 드러낸 저마다 다른 여러 문헌 근거 가운데서 작자의 구미에 맞는 것들이 선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33) 이와 관련하여 명 말의 초상화 제작 과정이 대상을 수동적으로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아상을 구성하는 작업이었음을 논한 사례로 다음을 참조. Richard Vinograd. *Boundaries of the Self: Chinese Portraits, 1600-1900*. Cambridge [Engl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28-67. Vinograd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에서 17~19세기에 나온 초상화들은 크게 두 계열로 나뉘는데 하나는 공식적 조상(彫像, effigy),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 초상이다. 전자는 전문 화가들이 죽은 조상의 얼굴을 그리는 것으로 대상과 초상화 속 그림이 닮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초상화 속 인물을 죽은 조상이라고 라벨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비공식적 초상은 살아있는 인물의 초상을 그리는 것으로 해당 인물의 성격이 부각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실제 생김새와 초상 속 그림이 닮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허균이 이정에게 주문한 3인의 화상은 사실상 전자의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와 같게' 그린다는 말은 결국 실제 존재할법한 인간의 생김새와 흡사하게 그린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가령 도연명의 경우, 세상일 따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한 서술은 도연명에 대한 후대의 여러 상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이다. 가령 안연지는 도연명을 효성스런 아들이자 친척에게 관대한 인물로 표상한 바 있고, 두보는 도연명이 가난을 불평하고 못난 아들을 언짢게 생각한, 초월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묘사했다.[134] 반면 도연명을 주희가 그랬던 것처럼 새 왕조를 섬기는 것을 거부한 지조의 상징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시각은 허균의 관점과는 달리 도연명이 정권의 향배를 주시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결정한 이해하는 입장이다.[135] 요컨대 도연명에 대한 후대의 여러 이미지 가운데 허균은 자기 선호에 부합하는 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136] 이백에 대해서도 도연명과 마찬가지이다.[137] 특히 조선 중기에 그려진 이백 그림 중에는 이백의 일생에 관련된 일화 몇 가지를 병풍에 담은 것이 있는데,[138] 「삼선생찬」에서 '귀인으로 하여금 자기 신발을 벗기게 했다'는 이른바 탈화 고사도 그 병풍의 그림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139] 이것은 이백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어져 온 여러 일화들 중에서 작자가 자신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특정 국면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허균의 글에서 재구성된 이들 3인의 인품은 그것이 허균의 관점에서 주조된 것으로, 허균이 강조하고 있는 은둔자의 성품에 맞게 재조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3인의 모습에

---

134) Wendy Swartz, *Reading Tao Yuanming : Shifting Paradigms of Historical Reception (427-1900)*.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pp.109, 117-118.

135) Swartz, 위의 책, p.123. 본고에서 거론한 것 외에 도연명의 인물 됨됨이에 대한 육조 이래 송대에 이르는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Swart, 위의 책, pp. 95-144.

136) 도연명의 은둔에 대한 명대 회화에 나타나는 해석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위안싱페이, 김수연 역, 『도연명을 그리다』, 태학사, 2012, 87~113쪽.

137) 이백에 대한 후대의 다양한 해석사에 대해서는 Varsano, Paula M. *Tracking the Banished Immortal: The Poetry of Li Bo and Its Critical Recep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3, pp. 33-138.

138) 김민구, 「이백(李白) 전기도첩(傳記圖帖): 이태백의 삶을 그린 백묘화(白描畵)」,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 학고재, 2009, 12~39쪽.

139) 이백의 탈화 고사를 그린 그림의 원류가 되는 일화는 『구당서』와 『신당서』(1060) 모두에 나온다. 특히 《신당서》 권202에 수록된 일화에는 이 탈화의 일로 앙심을 품은 환관 고력사(高力士)가 앙심을 품고 이백을 양귀비에게 참소하자 이백에게 관직을 주려던 황제를 양귀비가 누차 저지하자 이백은 자신이 용납되지 않을 줄 알고 행동을 더욱 거리낌 없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帝愛其才, 數宴見. 白嘗侍帝醉, 使高力士脫靴. 力士素貴, 恥之, 摘其詩以激楊貴妃, 帝欲官白, 妃輒沮止. 白自知不爲親近所容, 益驁放不自脩.") 유순영(2012:115)에 따르면 『구당서』는 당나라 필기소설 『유양잡조』 (단성식, ?~863)에 근거한 것이고 『신당서』는 『태평광기』(977)를 인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유순영, 「李白의 이미지 유형과 이백 문학의 회화」, 『美術史學研究』 274, 한국미술사학회, 2012, 115쪽.
이백이 고력사에게 자기 신발을 벗기게 하는 그림으로 국내에 현전하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백전기도첩』중 제9엽에 나온다. 김민구, 위의 글, 12쪽.

대한 언어적 재현인 「삼선생찬」과 「사우재기」는 고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을 지닌 인물이라고 하는 의미상의 일관성을 3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인의 초상을 주문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균은 그들의 행적과 자신의 처지를 은근히 견주었다. 자신은 문장력조차 그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겸사를 덧붙이긴 했지만 자신이 문장을 짓는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나, 관료로서의 출처 문제를 가지고 3인에게 자신을 견준 구절이 다음과 같다.

> 아, 나는 확실히 문장을 못 하는 자라 세 분 군자의 여사에도 능하지 못하지만, 성격마저 거칠고 누추하여 감히 그러한 사람됨을 바랄 수조차 없다. 단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모하여 벗으로 삼고자 하는 진만은 신명(神明)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벼슬하는 출처나 거취는 암암리에 그분들과 합치되었다. (중략) 아마도 조물주가 희롱하여 그 곤액은 똑같이 맛보게 하였으나, 부여된 재주와 성품만은 갑자기 옮겨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랴.[140]

3인의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빗댄 서술은 자신의 소회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겠으나, 그러한 자기표현으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3인에게 견준 글을 자편 문집에 수록한 사실은 자기표현이라는 측면에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글감으로 삼아 자신의 형상을 공적인 현시물의 형태로 드러낸 행위이기도 하다. 「사우재기」의 위 구절은 3인의 초상을 그림으로 그린 행위와 동궤에 있는 자기 재현의 노력, 즉 자기 모습을 특정한 방향으로 연출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유념할 점은 여기서 도잠을 최상의 모델로 꼽긴 했지만 이백이나 소식처럼 계속해서 관직에 나아간 인물들 역시 전범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생전에 출세하지 못했더라도 문장 창작을 통해서 후대의 인정을 받은 인물들을 전범 그룹에 포함시킨 점은 허균이 정치 참여와 문장 창작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정치 영역에서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가치를, 문장 창작을 통해 대신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허균은 정치의 세계를 비천한 것으로 여기는입장에 선 것이 아니고, 이백과 소식의 삶을 긍정함으로써 그 자신 역시 언제든지 정치 영역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산문 작품뿐 아니라 그림을 곁들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공적 정체

---

140) 『성소부부고』 권6, 「四友齋記」, "噫! 余固不文, 不能三君子之餘事, 而性又坦率妄庸, 不敢望其爲人. 唯其敬慕欲友之誠, 可感神明, 故其出處去就, 默與之相合. (중략) 殆造物者戲同其困阨, 而賦與之才性, 猝不可移歟?

성을 연출하고자 한 허균의 이러한 노력은 명말 강남 사대부 사회에서 흥기한 초상화 제작 열풍과 견주어 볼 만하다. 강남 사대부들 사이에서 위진시대 이래 유명한 은둔자의 초상을 그림으로 제작하는 작업이 흥성한 것과 관련하여 직업화가였던 증경(曾鯨, ca.1564~1647)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141] 최석원의 연구에 의하면 강남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 시기 은둔 전통에 대한 자각이 고조됨에 따라 은둔 전통을 회화와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던 직업화가가 증경이다.

허균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류에서 주목되는 점 중 첫 번째는 이전에는 문인들 자신이 은둔자의 모습을 그리던 것에 비해 이 시기 강남 문인들은 전문 화가의 손을 빌어 초상화를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초상화를 주문 제작한 새로운 경향은 초상화에 그려진 모습이 실제 사람의 형상과 상당히 흡사할 것을 바랐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42] 주문자인 사대부가 전문 화가로 하여금 자신의 초상화를 은둔자의 모습으로 그리게 하되 전문 화가의 기술을 빌어 '생생하게' 그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사대부들이 자신의 공적 페르소나를 은둔자로 조형해 간 노력이 강남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자신의 초상을 양식화된 포즈, 자세, 의복에 덧씌워 그리게 했다는 것이다.[143] 그런 초상화 제작을 통해 자아의 모습이 회화적으로 창출되었다는 것은 허균이 시도하고 있는 작업이 동시대 강남의 문화와 갖고 있는 친연성을 암시한다.

허균 역시 생생한 실감을 그림의 덕목으로 강조한 것은 여러 국면에서 발견된다. 허균은 이정의 그림에 대해서도 그림이 실제와 같은 감각을 느끼게 한다는 점을 상찬했다.

> 이정의 산수화는 그 기법이 안견에게서 나왔으나 더 농염하고, 미녀도는 자기 조부에게서 전수받았으나 광채는 더 생동[飛動]하니 이것이 그의 장점이다. 불화에 있어서

141) Seokwon Choi, "Fashioning the Reclusive Persona: Zeng Jing's Informal Portraits of the Jiangnan Literati."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2016.

142) 위의 논문, pp.20~21. 특히 증경은 사실적 묘사를 잘하는 화가로 유명하였다(p.206).

143) 16세기 말~17세기 초의 강남 사대부들이 초상화 제작을 통해 자신을 은둔자로 표현하려 한 노력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최석원, 「행락(行樂)과 삼교합일(三敎合一)의 초상: 증경이 그린 오몽양, 왕시민, 옹덕홍」, 『미술사와 시각문화』 22,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8; 동시대 문인 초상화에 덧붙인 화상찬을 통해 초상화 주인공의 정체성을 주조한 동기창이나 진계유의 시도에 대해서는 최석원, 「교유와 합작: 동기창과 진계유 집단 그리고 증경과 항성모의 초상 제작」, 『미술사와 시각문화』 26,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0, 269~273쪽.

는 더욱 신묘하고 기이하니 그 색채를 배치하는 기법과 선염법이 모두 신묘한 경지에 들어갔으며, 눈동자[阿堵]를 그린 것은 번쩍번쩍 빛을 내며 사람을 쏘아보아 마치 말을 하려는 듯하다. 모르겠지만, 오도현(吳道玄)·이백시(李伯時)와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훗날 반드시 알아보는 자가 있겠기에 귀중히 간직한다.144)

가령 미인도에 대해서도 생동하는 느낌을 잘 살린 것을 장점이라 했고, 불화에 대해서는 특히 눈동자가 감상자를 바라보는 것 같다든지, 말을 할 것 같다고 하여 실감을 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 눈동자를 지칭하면서 '아도(阿堵)'145)라는 단어를 쓴 점이 주목되는데 『세설신어』에도 수록되어 있는 고개지(顧愷之)의 일화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고개지가 '전신사조(傳神寫照-정신을 전하여 진짜 모습을 그려내는 것)란 눈동자를 잘 그리는 데 달려 있다고 말한 이야기가 그것이다.146) 화상이 실제 인물이 현전해 있는 느낌을 자극하는 측면을 중시한 것은 화상이 갖는 기능적인 면에 대한 착목 때문인 것 같다. 가령 다음의 글에서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상(畫像)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상을 그려 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오직 훈신(勳臣)의 대열에 끼인 사람이라야 화상이 있는데, 관(官)에서 그려 준 것이지 자기 집안에서 그린 것이 아니므로, 엉성하여 기술이 없음은 알 만하다. 중국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대부라면 늘 화상이 있어서 천고에 전한다. 그래서 후인들이 존경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분을 뵙는 듯 여긴다. 어떤 사람의 자손이라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초상을 그려 걸어 놓고 아침저녁으로 섬기되 마치 몸소 말씀을 받드는 듯이 한다. 그럼으로써 우러러보고 사모하는 심정을 품게

144) 『성소부부고』 권13, 「書李懶翁畫帖後」, "楨之山水, 出安可度而穠, 士女傳其祖而彩飛動, 此其長也. 至於佛, 則尤神且奇, 其設色渲染俱入妙, 阿堵之點精, 奕奕射人, 如若欲語, 未知去吳、李幾步耶? 後當有知者, 姑寶藏之." (관물헌본에는 '阿堵'가 '阿渚'로 되어 있는데 오자) 李伯時는 이공린(李公麟1049~1106)을 가리킨다.

145) 阿堵는 육조 시대의 구어로, 축자적으로 옮기면 阿는 발어사에 해당하고, 堵는 이것을 뜻한다. 김장환 역 『세설신어』1, 신서원, 2008, 296쪽.

146) 『世說新語』「巧藝」(21.13) "顧長康畫人, 或數年不點目精. 人問其故, 顧曰, '四體妍蚩, 本無關於妙處; 傳神寫照, 正在阿堵中.'" 이러한 실감의 표현을 중시한 것은 『세설신어』의 지향과도 상통하는 면 있다. Li(2006)의 견해에 따르면 『세설신어』의 세계는 인물의 표면이 의미를 지니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외양이나 발언, 행동을 중시한 텍스트이다. 『세설신어』에 나타나는 철학적 논의들은 그 담론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인간의 형태나 언행을 묘사하는 것으로써 전달된다는 것이다. 가령 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보다 덕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이해되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Li, Wai-yee. "*Shishuo xinyu* and the Emergence of Aesthetic Self." in *Chinese Aesthetics: The Ordering of Literature, the Arts, and the Universe in Six Dynasties*. edited by Zongqi Ca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237~276.

하는 동시에 먼 후대의 자손들도 친히 얼굴은 뵙진 못했지만 그림을 통해 그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서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신 듯 여기니, 어찌 유쾌하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화상을 숭상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개탄할 만한 일이다.147)

죽은 사람이 지금 여기 실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줌으로써 보는 자의 감각을 고양한다는 점을 그림의 효능으로 본 것이다. 실감의 표현은 효용의 차원에서 허균이 그림을 보는 데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 있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허균은 중국인들이 빈번히 화상을 그려서 후손들의 존경심을 발양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허균이 말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림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상의 제작을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내각대학사를 지낸 구준(丘濬, 1421~1495)이다.148) 구준이 보기에 화상이나 조각 같은 시각적 재현물은 애초에 중국에는 없던 것이 불교의 유입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정신적 원형(原型)의 진면모를 반영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영혼의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물에 불과했다. 구준이 보기에 귀신과 영혼의 세계는 『중용』에 나오는 말처럼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었다. 그림이나 조각의 외양은 결국 장인의 기술과 상상력에 달린 것일 뿐, 비가시적 세계의 정수를 반영하는 것일 수 없었다.149) 그런 관점에서 구준은 조상의 초상을 그리는 관행을 통렬히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공자와 같은 옛 성현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150)

하지만 만력 연간의 소주(蘇州) 지역 사대부들은 초상화와 같은 도상 제작에

147) 『성소부부고』 권7, 「故刑曹參判成公畫像記」, "我國不喜畫像, 故傳神者甚稀, 而獨參勳盟者有畫像, 官繪而授之, 亦不自其家畫之, 其樸陋無文, 可知也已. 中原人則名人雅士, 輒有畫像, 傳于千古. 後人起敬而如見其人焉. 至於子孫, 亦繪其父若祖, 朝夕懸而事之, 若親承罄欬然. 庶以紓望慕之懷, 而後代雲仍, 雖不親覩其容, 卽此可想見其形貌, 猶如未死之日, 豈不快歟. 我之不尙畫像, 寔可嘅也夫."

148) Deborah Sommer, "Destroying Confucius: Iconoclasm in the Confucian Temple," in *On Sacred Grounds: Culture, Society, Politics, and the Formation of the Cult of Confucius*, edited by by Thomas A. Wils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2, pp.120-123.

149) 丘濬, 『大學衍義補』 권65, "臣按: 塑像之設, 自古無之, 至佛教入中國, 始有也. 三代以前, 祀神皆以主, 無有所謂像設也. 彼異教用之無足怪者, 不知祀吾聖人者何時而始為像云. (중략) 後世莫覺其非, 亦化其道而為之, 郡異縣殊, 不一其狀, 長短豐瘠, 老少美惡, 惟其工之巧拙是隨. 就使盡善, 亦豈其生盛德之容 甚非神而明之, 無聲無臭之道也. 國初洪武十四年, 首建太學, 聖祖毅然灼見千古之非. 自夫子以下, 像不土繪, 祀以神主, 數百年之習乃革. 嗚呼盛哉.

150) 북경 국자감에서 공자 소상을 폐하고 신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구준의 주장은 생전에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가정 연간에 받아들여졌다. Sommer, 앞의 책, pp.125-126.

열렬한 관심을 드러내었다. 소주 사대부들은 명말에 이르러 서화 수장과 제작 및 감상의 붐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151] 그러한 서화 제작과 수집, 감상 붐이 흥성하게 된 데에는 소주의 경제 성장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주지하듯, 소주 사대부들은 16세기에 급격히 제고된 경제력과 빠른 도시화를 바탕으로, 사대부 계층 특유의 취미생활과 생활 미학을 향유하는 '문인문화'를 창출하였다.[152]

문인문화라는 말은 이들이 종래의 사대부들처럼 관직에 종사하는 이상을 따르기보다는 보다 지역 사회에 머물면서 문인으로서의 활동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생활 문화의 속성은 '한아(閑雅)'라고도 칭해지는데, 이러한 한아 풍조가 점차 고급화되고 널리 확산됨에 따라, 사대부 외 다른 계층까지도 이를 모방하고 추종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153] 이러한 문인문화의 발전은 복식, 음식, 주택, 교통수단 등 여러 방면에서 일어났지만, 그중에서도 초상화 제작을 비롯한 서화 감상의 활동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의식주 전반을 망라한 영역에서 문인 문화가 발전하고 그런 문화가 사대부가 아닌 계층에서도 광범위하게 향유됨에 따라, 기성 엘리트들로서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엘리트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154] 그러기 위해서는 신흥 부유층과 자신들의 차이를 가늠할 지표가 필요했고 J.P. Park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듯 기성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신흥 부유층과 자신을 구분하는 데 활용한 것이 서화 감상에 관련된 능력이었다. Park에 따르면 소주의 기성 엘리트들은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타인의 취향과 어떤 식으로든 구별함으로써 다수로부터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대한 현안이었다.[155]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서화나 골동품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물 따위를 향유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이 시기 신흥 부유층들은 자신들에게 결여된 문화적 소양을 단시간 내에 획득하기 위해 서화나 골동품 등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학습이 가능한 매뉴얼북을 주로 활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156] 기성 엘리트들은 이에 대응하는 논리로서,

---

151) 배현진, 「明末 蘇州지역의 개인 書畵 收藏이 畵壇에 미친 영향」, 『동양예술』 16, 한국동양예술학회, 2011, 368~386쪽.

152) 윤정분, 「明末(16~17세기) 문인문화와 소비문화의 형성」, 『明淸史硏究』 23, 명청사학회, 2005, 259쪽; 배현진, 위의 논문, 360~366쪽.

153) 윤정분, 위의 논문, 260쪽.

154) J.P. Park, *Art by the Book: painting manuals and the leisure life in late Ming China*. Seattle [Wash.]: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2, pp.211-212.

155) Park, 앞의 책, p.215.

‘후천적으로 얻을 수 없는 타고난 것’ 가령 본성 그대로의 삶을 강조하고,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는 개인의 주관성이 극도로 강조된 작품들을 남기고자 노력했다.[157] 타고난 본성이나 개성을 강조한 이지(李贄, 1527~1602)의 저작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158] 신흥 부유층의 등장에 따라 기성 엘리트가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이 불안정해진 사실과, 그런 배경 속에서 여전히 기성 엘리트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회화 감상 능력을 중시했던 소주 사대부들이 생생한 묘사를 돕는 문화 전통상의 자원 중 하나로 주목한 것이 『세설신어』였다는 점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왕세정의 『세설신어보』 출판은 『세설신어』 열풍의 분수령이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159] 『세설신어』는 개인의 기벽을 공공연히 드러낸 인물들을 예찬하였기에, 음주나 사치품, 분방한 성생활을 공공연하게 선호하는 문화를 떠받치는 근간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60] 감각적 쾌락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명말의 문화를 떠받친 것이 『세설신어』로부터 비롯된 기풍이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안들을 시야에 넣고 볼 때 허균의 회화 애호, 특히 생생한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은 그저 일 개인의 취향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허균이 저작 활동을 했던 1600~1610년대의 조선은 임진 전쟁 직후의 사회로, 명말 강남과 같은 수준의 도시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시장 경제의 발달에 따른 신분 유동성도 없었지만,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에 의한 신분제의 동요는 발생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공명첩이 처음 발급된 것이 임진전쟁 와중이었고, 그 이후 신분제가 동요되었다는 것은 일찍부터 알려진 바와 같다.[161] 상업화

---

156) Tina Lu, “The literary culture of the late Ming (1573-1644),”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edited by Kang-i Sun Chang and Stephen Ow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95-96; Park. 앞의 책 p.28; 티모시 브룩, 이정·강인황 역, 『쾌락의 혼돈』, 이산, 2005, 293~295쪽.

157) Tina Lu, 위의 글, pp.96-97.

158) Park, 앞의 책, p.215.

159) Park, 앞의 책, pp.152-153. 또한 허균이 주지번에게 받았다는 『고척독』의 편찬자 장여림(張汝霖, 1588~1625) 역시 『세설신어』를 수진본으로 인쇄하여 『세설신어』가 당시 문인들에게 전파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나미, 「17세기 전후 韓中 문학교류 연구 -晩明 文學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7~128쪽.

160) Park, 앞의 책, p.153.

161) 임란 시기 신분제 동요에 대해서는 김용섭,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토지소유-상주목 중동지역 양안과 호적 분석」, 『朝鮮後期 農業史 硏究: 農村經濟,社會變動』, 一潮閣, 1970 (지식산업사, 1995년 재판 참조) 492~501쪽. 노비의 신분 상승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 권내현, 「양반을 향한 긴 여정 –조선 후기 어느 하천민 가계의 성장」, 『역사비평』 98, 역사비평사, 2012.

를 통해서 신분의 경계가 흐릿해진 명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상류층 역시 신분 질서가 동요되고 있다는 데 대한 불안이 있었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얼 허통의 문제가 관료 사회 내에서 논쟁점으로 부각한 것도 16~17세기였다는 점은[162] 신분제에 대한 조선 내 기성 엘리트의 불안을 반증해 준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허균은 개인적으로 관료 사회 내에서 소외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동시에 자기 재능에 대한 유난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남보다 우월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은 허균에게도 중요한 현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허균의 글에는 사람의 우월성을 가늠할 지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천착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에 대한 대답, 즉 문예물에 대한 감식안을 지닌 것이 그 사람을 타인보다 우월하게 한다는 대답만은 드러나고 있다. 그리하여 서화 수집과 감상 능력이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던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자각의 결과로 허균이 도달한 지점은 회화에 대한 감식안을 근거로 자신이 지닌 역량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사한전방서(詞翰傳芳序)」로, 이 글은 1607년 5월경에 허균이 입수한 『사한전방(詞翰傳芳)』이라는 시권(詩卷)에 부친 서문이다. 이 책은 세조 연간 신미(信眉)의 시권으로 당대의 유명인이 시와 글씨를 쓰고 안견이 그린 석가와 미타 그림이 수록된 책인데 허균의 당대에 문사들을 모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비해서 기량이 미달한다는 것이 주지이다.[163] 『사한전방』의 문예적 수준이 시원찮다는 견해를 제시한 글의 마지막 대목은 다음과 같다.

>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산문은 불승(佛乘)에 밝아서 되는대로 내용을 뽑아오긴 했으나 간혹 진부한 데로 흘렀고, 시는 웅혼하고 중후하여 기력은 있으나 수식과 여운이 부족하여 비속한 점이 잘못되었다. 글씨는 배치가 정밀하지만 둔하고 막히는 바람에 시원스럽지 못하여 왕희지나 조맹부의 자유로운 자취가 없고, 그림은 핍진하긴 하나 불가의 본색이 없고 채색도 풍부하지 못하다. 만일 당세의 선비 중에 최립이 서문을 쓰고 유근과 이달, 권필, 이안눌이 시를 쓰고, 한호와 김현성이 글씨를 쓰고 이정이 색채를 활용하여 형상을 그리게 한다면 어찌 반드시 저 책보다 못하겠는가? 훗날 안

162) 박경남, 「16·17세기 庶孼 許通 上疏文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54쪽.

163) 『성소부부고』 권4, 「詞翰傳芳序」, "丁未夏, 余在三陟, 憲司以佞佛參論, 革職歸田. 道出砥平, 宿于隣丈梁丹城思訥墅, 有稱李生者忘其名, 手一編來示, 題曰詞翰傳芳. 披閱之, 卽世廟朝嬖髡信眉詩卷也. 金文良爲序, 徐剛中、姜景愚、景醇、成重卿、李三灘, 爲詩俱自書, 贊不知何人作, 而書則鄭東萊也. 終以安可度畫釋迦、彌陀二軀, 極小而妙, 末有御璽一顆, 眞古物也. 余以赫蹏二百易之."

목을 갖춘 사람이 감상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편을 인정할 것인가.

무릇 문장과 서화는 공벽(拱璧)이나 장주(掌珠)와 같아서 정해진 제값이 있다. 세간 사람 중 페르시아 상인이 아닌 자가 어찌 그 가치를 알겠는가?. 오늘날 식견이 어두운 사람들은 모두 이르기를, 시문(詩文)이란 세대에 따라 수준이 높거나 낮다고 하면서 눈으로 본 것은 배척하고 귀로 들은 것만 귀히 여겨 '옛사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들 말한다. 아! 큰물이 밀어닥쳐 공중까지 넘실댈 때 산호가 잠긴 곳이 어느 곳인지도 모르면서 그릇되게 스스로 나불나불 산호 잠긴 곳이 어디라고 가리키는 경우로구나. 이는 들은 말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책은 옛 물건이라 소장하는 것이지, 그 글과 시와 그림을 보배로 여김이 아니다. 훗날 이 책을 열람하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알기 바란다.164)

말미에서 허균은 자신의 평가가 당장은 수용되지 않겠지만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진 사람이 본다면 자신의 평가를 인정할 것이라 하여 자기 견해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여기서 작자의 주지는 자기 감식안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에 있지, 평가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탐구이거나, 예술에의 정진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인용한 글의 전반부에서 시권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자신의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즉 이 내용은 허균이 공언한 문예에의 헌신이 정치 영역에서의 성공에 대한 포기나 달관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의 좌절을 보상받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용문 후반부는 「대힐자」에서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가치 기준이나 평가 방식을 부정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다. 기성의 가치나 평가 방식을 부정할 뿐 아니라 그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 내지는 멸시의 시선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대목들이 허균의 적들로 하여금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였을 수 있다.

이렇듯 자기 감식안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타자에 대한 폄하가 나타나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허균의 글에 나타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하나는 주관성의 강조이고 다른 하나는 본성을 따르는 삶에 대한

---

164) 『성소부부고』 권4, "然以余觀之, 文雖洞曉佛乘, 信手拈來, 而或流於腐飫, 詩雖渾重有氣力, 而藻響不足, 失之於卑俗, 書雖結搆精密, 而鈍滯不揚, 無王趙逸軌, 畫則逼眞, 而無利家本色, 彩繪不溢. 若使當世之士東皐爲序, 西坰、蓀谷、汝章、子敏爲詩, 而石峯、南窓書之, 李楨設色模像, 則又詎必盡出其下耶? 後之俱眼者賞之, 則未知孰爲其左袒也哉! 凡文章書畫, 如拱璧掌珠, 自有定價. 世非波斯胡, 庸詎知其高下乎? 今之昧者, 俱以詩文, 從世升降, 斥目覩而貴耳聞, 咸謂古人不可及. 嗚呼! 大浸漫空, 不識沈珊瑚者何處, 而枉自呶呶指求乎! 此與耳食者奚殊哉! 是卷以其古物而藏之, 非寶其文與詩與畫也. 後之覽者, 幸詳誌之." ("無利家本色"의 利를 佛의 오자로 보아 번역한 듯하나, 현전 이본 중 利를 佛로 쓴 본은 발견되지 않는다.)

옹호가 그것이다.

앞서 논급한 것처럼 명대에 신흥 부유층의 도전을 받은 기성 엘리트들은 개개인이 지닌 주관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노선을 취함으로써, 취향 안내서(manual) 따위를 통해 단시간에 문화적 소양을 갖춘 듯 보이는 신흥 부유층과 자신을 구별하려 했다는 설이 있어 왔다.[165] 소품이니 하는 주관성 또는 개성을 강조한 문학 장르의 등장도 그런 맥락 속에서 기성 엘리트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주관성 강조가 드러나는 국면 중 하나가 정원의 조성과 정원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군의 탄생이다.[166] 이런 정원 소재 글쓰기는 정원 자체가 갖는 객관적 속성보다, 정원을 향유하는 주체의 개성과 감상 능력을 중시함으로써, 저자의 인식 능력이 부각되게 했다.[167] 허균의 글에도 그림이나 자연 속 공간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유하는 감상자의 주관이 갖는 질적 고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 드러난다.

> 나는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서 옷을 훌훌 털고 떠나 귀거래를 읊으려 한 지 오래다. 만일 내가 관직을 떠날 수 있다면 화폭 속의 훌륭한 일을 나도 세속 밖에서 실천할 수 있으리니, 내 어찌 옛사람을 부러워하겠는가. 그 승지(勝地)와 절경은 단지 그것들을 만난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내가 노닐 감호(鑑湖)가 어찌 조대(釣臺)나 난정(蘭亭)보다 못하겠는가. 다만 내 인물이 조대나 난정에서 노닐던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할까 염려될 뿐이다. 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틀림없이 손뼉을 치고 배를 움켜쥘 것이다.[168]

감호는 허균의 외가인 강릉 경포대 일대를 가리킨 것이다. 허균이 보기에 감호는 후한(後漢)의 은사 엄광(嚴光)이 낚시하던 조대(釣臺)나 왕희지 등이 유락하던 난정 일대에 비해 그 자체로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상이 객관적 존재로서 갖는 미감뿐 아니라 향유자의 인물 됨됨이에 따라 대상의 가치가 선양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관념이 나타나고 있다.

---

165) Li, Wai-Yee. "The Collector, the Connoisseur, and Late-Ming Sensibility." *T'oung Pao, Second Series*, 81, no. 4/5 (1995), pp. 279-280, 283-286.

166) Li, Wai-yee. "Gardens and Illusions from Late Ming to Early Qing,"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ume 72, Number 2 (Dec.2012), pp. 295-296.

167) Li, 위의 글, p.296.

168)『성소부부고』권13,「題千古最盛後」, "余畸於世, 思欲拂衣賦歸去來者已久. 若得身以去, 則卷中勝事, 吾可踐於物外, 吾何羨於古人哉! 其勝地絶境, 在所遇之如何耳. 我之鑑湖, 豈遽下於釣臺蘭亭耶! 但恐其人不逮前數子也. 聞之者, 必鼓掌捧腹焉."

이는 명말 기성 엘리트들이 주관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아갔던 저술 경향과 일치한다. 허균은 그가 지닌 경제력이나 사회적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강남 사대부들이 했던 정원 조경이나 건축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서화첩의 감상이나 시문 선집의 향유를 통해서 스스로 남다르다고 믿는 자신의 감식안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자기 소유지 내에 정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향유 주체의 개성을 투사함으로써 자아를 형상화하는 글쓰기는 이미 중당 이후부터 성행하였다.[169] 하지만, 정원의 객관적 존재보다 정원을 향유하는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은 명 말에 이르러서야 성행한 것이다.[170] 가령 어떤 정원이 지닌 잠재력이 남김없이 실현됐는가의 문제는 감상자에게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등장했는데, 이렇듯 정원을 경험하는 차원에 대한 강조는 암묵적으로 정원 그리하여 정원 소유자의 소유권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경향을 갖는 것이었다.[171] 그런 까닭에, 명말의 정원 관련 글쓰기는 정원이 객관적 실체로서 갖는 실상이나 가치 또는 정원과 그 소유주의 관계보다는 정원을 향유하는 국면을 부각함으로써, 향유 대상인 정원이 환상 속의 것이어도 무방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명말의 정원 관련 담론이나 저작들은 꿈속의 정원이나 환상 속의 정원, 더 넓게 보아 환상 속의 공간이라는 글감으로 옮아갈 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172] 다음 장에서 살펴볼 내용인, 허균의 산문에서도 꿈속의 공간이나 환상 속의 공간을 묘사하려는 지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명말 사대부들의 저작이 갖고 있는 지향과 일정한 친연성을 띠는 것이다.

둘째, 허균이 「문설」에서 피력한 바 '옛 것을 모범으로 삼지 않고 홀로 서고자 한다'는 것과, '좌씨나 장자 등과 같이 남을 모방하지 않고 각자 일가를 이룬 점을 본받고자 한다'는 것은[173] 앞서 「한정록서」에서 본 것처럼 자기 본성을 따라 살고 싶다는 말과 동궤에 있는 것이거나, 자신의 독창성이나 개성을 중시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개성의 발양을 옹호한 표현으로 볼 일이 아니고, 이상에서 말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명대의 레토릭과 흡사한 발언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책이

---

169) Stephen Owen, *The End of the Chinese 'Middle Ages' Essays in Mid-Tang Literary Cul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p.86-87, 104-106.
170) Li, 위의 글, pp.299.
171) Li, 위의 글, p.297.
172) Li, 위의 글, pp.299-315.
173) 『성소부부고』 권12, 「文說」, "子詳見之數公乎? 左氏自爲左氏, 莊子自爲莊子, 遷、固自爲遷、固, 愈、宗元、脩、軾亦自爲愈、宗元、脩、軾, 不相蹈襲, 各成一家. 僕之所願, 願學此焉. 恥向人屋下架屋, 蹈竊鉤之誚也."

나 회화 작품, 알려진 전통이나 학파의 유산을 배움으로써 문예적 탁월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것을 끄집어냄으로써 탁월성에 이른다는 선언은 당시 명대 엘리트들 일부, 가령 이지와 같은 인물들이 택했던 노선이다.[174] 즉 도전받는 기성 엘리트의 입장에서 '탁월함이란 학습이나 답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을 통해 얻어진다'는 식의 어법을 구사함으로써 기득권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이지, 그 자체로 진정한 독창성에의 선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허균의 상으로 굳어진 언명,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175]는 말은 17세기 초 조선 관료들 사이에서는 드문 발언일 수 있으나, 좀 더 폭넓은 맥락 속에서 본다면, 자신의 사회적 위상에 불안감을 느끼는 엘리트라면 취할 수 있는 노선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허균의 다양한 노력, 가령 문인으로서의 자기규정이나, 자기가 선택한 전범 인물군을 회화적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 그런 전범 인물들과 자신을 나란히 놓고 자기 정체성을 조형하려 했던 노력, 서화에 대한 자기만의 감식력을 강조한 언설들은 자기 정체성 재현을 통하여 자기가 동종 집단의 타자에 비해 우월한 안목을 지녔다는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신 성분이 대체로 엇비슷한 관료 사회 내에서 높은 지위로 상승할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특출함을 믿는 자가 당시의 문화적 문맥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련된 미적 취향의 현시였다. 그런 취향은 단지 부나 지식을 통해서 세습되거나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발양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지속적인 피아의 구분이나,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드러내려 한 노력들은 대체로 낙척한 관료로서 상실한 사회적 위상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미식과 미색의 향유

허균의 산문에 드러난 감식안의 표출과 관련한 사안 식색(食色)의 문제는 허균 사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현대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에서 관심을 끌었다. 전근대 조선의 식자들은 허균이 '식색은 천성'이라는 명제를 빙자하여 사욕을 탐했다고 비난 일변도로 흐른 반면,[176] 허균에 관한 연구사 초기의 일부 연

174) Park, 앞의 책, p.215.
175)『성소부부고』 권2, 「聞罷官作」, "君須用君法, 吾自達吾生"
176)『澤堂集』 별집 권15, 「示兒代筆」, "其人事不足汚口, 顧嘗聞其言曰, '男女情欲天也, 倫紀分別, 聖人之教也. 天且高聖人一等, 我則從天而不敢從聖人, 其徒誦其言, 以爲至論. 此固異端邪說之

구자들은 허균이 제기했다고 믿어지는 동일한 명제를 근거로 중세적 예교의 구속을 벗어나 인간성의 해방을 추구한 사상가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177] 양쪽 모두의 판단은 허균 자신의 글이나 동시대에 쓰인 문헌 사료에 비추어볼 때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하에서는 향락의 대상으로 흔히 운위되는 식색의 대상물을 허균이 어떤 식으로 글 속에 재현하고 있는가를 짚어봄으로써 향유의 대상으로서 식색의 문제를 허균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허균의 문학 세계 속에서 식색에 관한 서술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우선 허균의 미식 향유와 관련해서는 조선 각지의 특산물과 별미에 대해 나열한 「도문대작」이라든가, 먹을 것을 묘사한 척독 몇 작품들이 이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종전의 연구들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인간이 기본적 욕망을 긍정한 허균의 사상적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보거나, 혹은 조선시대 식문화의 통시적 흐름 속에서, 조선 후기에 만개하는 식문화의 초기적 형태라고 보는 식으로 접근하였다.

하지만 '식문화'라는 테마의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작가의 지향이 뭐냐 하는 문제가 사상되는 난점이 있고, 허균의 산문에서 음식 소재를 적극 활용한 점에 주목하여 인간 본성을 긍정했다는 평가로 나아가는 것은 허균에 대한 기왕의 의심스러운 작가상을 가지고 그런 산문들에 회고적으로 덧씌운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본고의 시각은 허균의 글에 나타나는 별미나 식생활에 관한 언급들을 산문 창작 시기 전반에 걸친 작자의 의제와 일치하는 방향 내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선 허균의 음식 관련 언급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도문대작 서문[屠門大嚼引]」부터 살펴보겠다. 아래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단락에 번호를 부여했다.

㉠ 우리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선친이 살아 계실 때는 사방에서 별미 음식을 예물

極致. 非筠始言之, 老莊佛之書, 皆有其意. 陸象山王陽明, 雖藏機不露, 但熟觀其書, 則自有一脈透漏處, 流於山農, 許筠之所爲, 特未達一間, 可懼哉." 그 외에 논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언급을 다음 저작들에서 볼 수 있다. 『順菴集』 권17, 「天學問答」; 『승정원일기』 영조12년 丙辰(1736), 9월 8일 己亥, "賊筠, 其時入中原, 得此法門, 以爲慾者, 天之公而聖人者, 裁制者也. 天乃自然, 聖猶下天一等, 予當從天云, 此皆陸學之流弊也."; 『靑城雜記』 권4, "許筠之言曰, 飮食男女, 天也. (…) 筠之陷亂逆, 由此言也."; 『靑莊館全書』 권27 「士小節 · 性行」, "東國許筠, 以男女縱淫, 爲天之所命, 我當從天, 而其弊極矣."

177) 김동욱, 「許筠과 女性」, 『아세아여성연구』 6,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968; 이가원, 허경진 역, 『유교반도 허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25~26쪽; 허경진, 『허균 평전』, 돌베개, 2002, 260쪽 등.

로 보내는 이들이 많았기에 어린 시절 진귀한 음식을 두루 먹어보았다. 또 자라서는 부잣집에 장가가서 진귀한 음식을 두루 먹어보았다. 임진왜란 때에는 북방으로 피난 갔다가 강릉 외가로 돌아와 지방의 특산 진미를 두루 맛보았고, 벼슬한 뒤로는 남북으로 임지를 옮겨 다니며 이런저런 음식을 대접받았다. 이쯤 되니 우리나라에서 나는 음식이라면 고기며 나물이며 먹어보지 않은 게 없다.

[2]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본성이요, 특히 식욕은 생명과 관계된다. 옛 현인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천히 여겼던 건 먹는 것을 탐해 이익을 좇는 일을 경계한 것이지, 어찌 먹는 일을 폐하고 음식에 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덟 가지 진미를 어째서 『예기』에 기록했겠으며, 맹가가 생선과 곰 발바닥을 어째서 비교했겠는가. 나는 하증(何曾, 199~297)의 『식경(食經)』과 위거원(韋巨源, 631~710)의 『식단(食單)』을 본 적이 있는데, 두 분은 모두 천하의 맛을 다 보아 풍성하고 사치하기 그지없어서 책에 수록된 음식 종류가 일만 가지는 될 텐데, 그러나 총괄해보면 음식마다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 현란하게 꾸몄을 따름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되진 곳에 있지만 큰 바다가 둘러싸고 높은 산이 솟아 있어 물산 또한 풍부하니, 하증과 위거원 두 분의 방식을 따라서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 음식을 구별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역시 일만 가지는 될 것이다.

[3] 내가 죄를 짓고 바닷가로 유배와 있자니, 쌀겨조차 부족하고 밥상 위의 반찬이라고는 썩은 뱀장어나 비린 생선, 쇠비름, 미나리뿐이다. 그나마 하루에 간신히 두 끼를 먹다 보니 아침저녁으로 배가 고프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 산해진미를 물리도록 먹다가 물리면 내치던 시절을 생각하면 침이 가득 고인다. 다시 먹어보고 싶지만, 천상에 있는 서왕모의 복숭아처럼 아득히 멀리 있으니, 내가 동방삭이 아닌데 어찌 훔칠 수 있으랴.

마침내 여러 음식을 종류대로 나열해 기록하고 때때로 보면서 고기 한 점을 눈앞에 둔 셈 친다. 다 쓰고 나서 제목을 '푸줏간 앞에서 크게 입맛을 다시다'라고 붙였는데, 이는 세상의 현달한 자들이 음식 사치를 끝없이 벌이며 절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귀영화란 영원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해서 그리한 것이다. 신해년(1611) 4월 21일, 성성거사가 쓰다.[178]

---

178) 『성소부부고』 권26, 「屠門大嚼引」, "余家雖寒素, 而先大夫存時, 四方異味禮饋者多, 故幼日備食珍羞. 及長, 贅豪家, 又窮陸海之味. 亂日避兵于北方, 歸江陵外業, 殊方奇錯, 因得歷嘗, 而釋褐後南北官轍, 益以餬其口, 故我國所產, 無不嚌其炙而嚼其英焉. 食色性也, 而食尤軀命之關. 先賢以飮食爲賤者, 指其饕而徇利也, 何嘗廢食而不談乎? 不然則八珍之品, 何以記諸禮經; 而孟軻有魚熊之分耶? 余嘗見何氏食經及郇公食單, 二公皆窮天下之味, 極其豐侈, 故品類甚夥, 以萬爲計. 締看之則只是互作美名, 爲眩耀之具已. 我國雖僻, 環以巨浸, 阻以崇山. 故物產亦富饒, 若用何韋二氏例, 換號而區別之, 殆亦可萬數也. 余罪徙海濱, 糠粃不給, 飣案者唯腐鰻腥鱗馬齒莧野芹, 而日兼食, 終夕枵腹, 每念昔日所食山珍海錯, 飫而斥不御者, 口津津流饞涎. 雖欲更嘗, 邈若天上王母桃, 身非方朔, 安得偸摘也? 遂列類而錄之, 時看之, 以當一臠焉. 旣訖, 命之曰屠門大嚼, 以戒夫世之達者, 窮侈於口, 暴殄不節, 而榮貴之不可常也, 如是已. 辛亥四月二十一日, 惺惺居士題.

「도문대작」에 주목한 종전의 문학 연구들은 주로 ②의 내용에 주목했다. 작자가 미식 목록을 나열한 데 대한 정당화 논리를 제공한 대목에 주목한 것이다. 해당 논의들은 크게 두 갈래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식색은 본성'이라는 명제를 강조한 데 주목하여 허균이 미식의 가치를 긍정했다거나, 이 명제에 깃든 양명학과의 친연성을 지적함으로써 당시의 주류 사상에 대한 일정한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한 논의가 그것이다.[179]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주장으로, 18세기에 본격화되는 식문화 담론의 흐름을 절식(節食) 대 포식(飽食)으로 양분하고, 포식의 전통의 선두에 있는 것이 위 글에 나타난 미식의 옹호라고 본 경우가 있다.[180] 하지만 허균도 다른 글에서 절식이라고 부를 만한 것과 유사한 주장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실상과 다소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②에 거론되는 하증과 위거원이 남겼다고 하는 식보류(食譜類) 저작, 즉 전거 문헌에 주목하여 명대 식보와의 관련성을 주목한 논의가 있다.[181] 하지만 「도문대작」은 총 5개 범주에 걸쳐 총 117개 표제를 다룬 2500여자 남짓 되는 소략한 저작으로,[182] 수록 대상의 규모나 미각 표현의 다양성 면에서 명말에 쏟아져 나온 식보류 저작들에 비할 것이 되지 않는다. 가령 총6권 분량으로 된 『송씨양생부(宋氏養生部)』나, 『준생팔전』의 11~13권에 실린 「음찬복식전(飮饌服食牋)」 등에서 보이는 광범위한 수록 주제나 조리법의 상세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도문대작」은 명대의 식보류 저작과 동궤에서 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183] 이러한 차이는 명대의 식보류 저작에 비한 허균 저작의 열등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기보다,

---

179) 김호, 「조선시대 食治論- '閑情의 養生'에서 '濟衆의 備急'으로」, 『2013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013, 710쪽; 이숙인, 「18세기 조선의 음식 담론」, 『한국실학연구』 28, 한국실학학회, 2014, 249쪽.

180) 염정섭, 「18~19세기 조선의 '節飮食' 담론과 '飽食逸居'`의 실제」, 『농업사연구』 15, 한국농업사학회, 2016, 122쪽.

181) 안나미, 「허균의 「도문대작(屠門大嚼)」에 대한 고찰 -만명 유행 현상과 관련하여」, 『한문학논집』 50, 근역한문학회, 2018, 168~172쪽.

182) 음식 종류의 계수는 다음을 따랐다. 안득용, 「「도문대작(屠門大嚼)」의 성격과 성립 배경에 대한 시론(試論)」, 『이화어문논집』 49, 이화어문학회, 2019, 8~9쪽.

183) 우런수, 김의정 외 역, 『사치의 제국』, 글항아리, 2019, 412~460쪽. 『준생팔전』에 수록된 음식 관련 서술에 대한 소개로는 홍진임, 「『遵生八牋 · 飮饌服食牋』의 食治에 관한 硏究」, 대전대학교 박사논문, 2015, 7~120쪽. 허균의 「도문대작」과 이전 시기 중국의 음식서에 나타난 분류 방법에 주목한 안득용의 연구 역시 기존의 음식서와 서술 체계가 거의 공통점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안득용, 앞의 논문, 16~22쪽. 안나미는 명대 식보류 저작들이 대거 유행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이 허균의 「도문대작」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소재상의 친연성이 있다는 사실만을 지적하였을 뿐이다. 안나미, 앞의 논문, 173~174쪽.

애초에 허균의 저작이 식보류 저작이 보여주고자 했던 다채로운 음식의 세계를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허균이 조선 내 각지에서 나는 별미에 대해 쓴 것은 완결된 저작으로서 미식 안내서를 추구한 것이라기보다 그런 별미들을 나열함으로써 모종의 다른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별미의 나열을 통해 작자가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자 했던가이다. 그러자면 「도문대작」의 집필 의도를 밝힌 [1]과 [3]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의 수미를 이루고 있는 [1]과 [3]에서 공히 드러내고 있는 저작 의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노스탤지어의 표현이다. [1]과 [3]에서는 전국의 별미를 맛볼 수 있었던 과거와 유배지에 와 있는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 현재는 미식을 맛보기는커녕 공복감조차 해소하기 어려운 현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전국의 별미를 섭렵할 수 있었는가? 작자의 술회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와 장인, 외가를 통해서 미식을 접했고, 자신이 관직에 나간 뒤로는 공직의 임무에 따른 전국 각지를 주유하는 가운데 미식을 섭렵했다. 조선처럼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친족 집단을 통한 선물 경제(gift economy)나 국가가 마련한 인프라를 통해서 별미에 접근했던 것이다. 그런 친족 집단이나 국가의 네트워크는 결국 권세의 등락에 따라 활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자기가 속한 집안의 사회적 위상이나, 그 자신의 위상에 의존하는 것이다. 핵심은 한때 자신이 접속할 수 있었던 네트워크에의 접근 가능성이 현재는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문대작」의 본문에서 행한 음식 서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이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음식 서술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도문대작」 본문에서는 "○○에서 난다, ○○에서 나는 것이 좋다. 각지에서 나는 것이 다 좋은 경우에는 굳이 적지 않았다.(產於○○, 產○○者最好" "處處皆佳, 故不載)"와 같은 구문이 반복된다. 음식 자체에 못지않게 음식을 매개로 해서 파악되는 전국 각지의 특산물에 대한 작자의 지식이 초점이 되어 있다. 즉, 자신이 국내 각지의 특산물 정보에 밝다는 점이 서술의 주안점이다. 이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작자가 누렸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이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나 별미에 대한 지식을 섭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음식이라는 소재보다는, 전국 각지의 미식을 총괄해서 바라보는 안목을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 의도라고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안목을 드러내

는 식의 글쓰기 전통은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것이다. 가령 조비도 전통적인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지만, 특정한 요리나 미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찬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한 취향을 지닌 인물임을 부각하고자 했다는 견해가 있다.[184] 해당 연구에 따르면 그는 중국 북부의 쌀과 포도를 상찬함으로써 주변 경쟁국보다 자신의 제국이 중국의 중심부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다. 각 지역의 음식들을 해당 지역에 관한 지식(local knowledge)의 차원에서 구성하는 방식은 문학 작품의 창작뿐 아니라 지방지 편찬 등의 관행을 통해 명청시기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다.[185] 「도문대작」의 사례도 음식 자체에 주목한 명대 음식서와의 관련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국 각지에 대한 지식 섭렵의 차원에서 음식을 바라보고, 음식이라는 소재를 그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서술에 활용하는 전통에 접속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

둘째, ③에서는 미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권력의 부침은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위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현달해 있는 타인들도 언젠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것인데, ③에 드러난 뉘앙스는 무심한 관조적 시선에서 개인들의 운명의 성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작자의 시선은 현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고, 권력의 부침에 따른 저들의 몰락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언급이 '저들'의 몰락에 따른 자신의 권토중래를 기약하는 자의 심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자가 미식에의 접근 가능성을 출세나 권력의 문제와 연관해서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186] 미식을 권력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시선은 허균의 글에서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 가령 「도문대작」을 짓기 2년 전인 1609년에 윤오정(尹梧亭)[187]이라는 인물이 허균에게 떡을 보내준 일을 계기로 지은 시가 그것이다. 총 36구로 된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부분에서는 대규모 벼농사를 짓는 윤오정 가문의 부유함에 대해서

---

184) Xiaofei Tian, *The Halberd at Red Cliff: Jian'an and the Three Kingdom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8, p.115.

185) Mark Swislocki, *Culinary Nostalgia: Regional Food Culture and the Urban Experience in Shanghai*.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p.3-20.

186) 안득용도 허균이 식욕을 권력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앞의 논문, 30~31쪽). 하지만 식욕과 권력의 문제를 심노숭의 사례와의 유사성을 지적하거나 인류 일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다룬 점에서 허균이 식욕의 문제를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허균 산문에 나타나는 음식 관련 서술들이 한문학 전통 내에서 어떤 연원에 닿아있는가 하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187) 허균의 척독에서 "答尹梧亭"이라고 제목을 썼고, 해당 척독이 수록된 다른 수신인들도 대부분 자(字)가 제목에 적힌 것으로 보아 오정은 자일 듯한데, 신상이 확실치 않다. 뒤에 인용하는 「도문대작」 본문에 언급되는 윤대련(尹大連)과 동일인일 것으로 짐작되나 방목류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고, 쌀을 갈아 익혀서 떡 만드는 과정을 윤오정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떡을 찌는 방법이나 상에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자못 상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미식에 대한 식견을 드러냈었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君言此米最宜餠	그대는 “이 쌀은 떡에 가장 알맞으니
洗浸寒泉經一宿	찬물에 담가 하룻밤 불리고서
細舂霜杵納大甑	서리 같이 가늘게 빻아 큰 시루에 안쳐 놓고
文火濃蒸候至熟	약한 불에 슬슬 쪄서 제대로 익거든
瓊膚滃拆十字香	열십자로 칼집 내면 살갗처럼 향기로워
芳臭氤氳盪廚屋	맛난 냄새 뭉게뭉게 주방에 풍긴다네
平昌石蜜甘勝蔗	평창산 꿀은 설탕보다 달고
東坪芹芽雜肥菖	동평산 미나리에 실한 무 섞어서
飣以花粲薦佳客	꽃무늬 도자기에 곱게 차려 귀한 손님께 내되
象筯紛紜恣飽腹	상아 젓가락 부지런히 움직여 실컷 배불리 드시게 한다”
大饅牢九不足嘗	그러면 큰 만두나 뇌구(牢九)[188] 찐들 맛볼 것 없으니
今我饞涎垂口角	나는 문득 입가에 군침이 도는구나.[189]

이 시의 중간 부분에서는 뜻밖에 윤오정이 허균의 집으로 그 떡을 보내오자, 흉년으로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하면서 배불리 떡을 먹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이에 덧붙여 떡을 보내준 데 대한 깊은 고마움을 서술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고마움 표현에 이어지는 이 시의 가장 마지막 대목이다.

感君恩重欲報君	자네의 후한 덕에 감동하여 갚아주고 싶었으니,
吾有一語君試聞	나의 이말 자네는 시험 삼아 들어보게.
君持此物造相門	이 떡을 가지고 정승의 문에 나아가면,
相公嘗之亦感恩	정승이 맛을 보고 나처럼 고마움 느낄 거라네.
高官厚祿可力致	그러면 자네는 높은 벼슬 후한 녹을 힘껏 입을 수 있고
終使餘澤流兒孫	결국 남은 복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걸세.[190]

188) 뇌구(牢九)는 일명 뇌환(牢丸)으로 만두의 일종이다. 『성호사설』에서는 뇌구에 대하여 양신(楊愼)의 『유양잡조』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염소나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생강·계피·난초·파 등속의 양념과 섞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겉으로 싸고 둥글게 만든 다음, 솥에 쪄서 더운 탕국에 타서 먹는 것”으로 만두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성호사설』 권4, 「만물문·만두·기수·뇌구(饅頭起溲牢九)」)

189) 『성소부부고』 권2, 「秋官錄·梧亭寄大餠歌」.

190) 위의 글

이 떡을 정승에게 바쳤다면 그 자신이 높은 관직에 후한 녹을 누리고 자식들도 덕을 봤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허균의 글에 등장하는 별미는 객관적 사물에 그치지 않고, 출세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 같은 문화적 상징으로서 재현되고 있다. 허균이 별미를 권력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양상은 윤오정에게 받은 포도에 대해서 쓴 척독에서도 드러난다.

> 보내주신 포도를 받아서 먹고 나니, 소갈병 든 사마상여의 갈증이 금방 풀렸습니다. 한 말 정도를 가지고 세력가를 찾아가 양주 목사(涼州牧使)를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 안타깝네요.[191]

말미에 말한 것은 『후한서』에 나오는 맹타(孟他)의 고사로 포도 한 말을 환관 장양(張讓)에게 바치고 양주 자사를 얻었다는 내용을 가리킨 것이다.[192] 포도를 권력자에게 벼슬을 구하는 뇌물로 쓰지 않은 점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 여기서 말한 포도는 도문대작에서 언급하는 마유포도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 포도: 마유포도는 드문데, 신천[황해도] 윤대련의 집에 한 그루 있다. 맛이 매우 좋아 중국 것에 뒤지지 않는다.[193]

한반도에 포도가 들어온 것은 삼국 시대로 추정되고 있지만, 조선 중기 이래 검약령 반포라든지, 지속적 금주령으로 인해 포도의 대량 재배가 억제된 것은 물론 포도를 활용한 양조 활동도 위축되었다고 알려져 있다.[194] 실록이나 문집의 기록을 참조해 보아도 왕이 승정원에 하사하고 시를 지어 바치게 했다거나, 중국에 사신 가서 맛본 적이 있다는 식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발견될 뿐이다.[195] 그런 정황들을 볼 때 이 시기 포도는 상당히 귀한 과일로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데

---

191) 『성소부부고』 권21, 「答尹梧亭(己酉七月)」, "承惠馬乳, 飡之, 頓解相如渴耳. 恨不得一斗, 往乞涼州牧也."
192) 『後漢書』 권78, 「宦者列傳·張讓」
193) 『성소부부고』 권26, 「屠門大嚼」, "蒲桃: 馬乳者稀, 而信川尹大連家有一架, 味最好, 不減上國也."
194) 박세욱, 「우리나라 포도와 포도주 전래에 관한 小考」, 『江原人文論叢』 1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262~266쪽.
195) 『연산군일기』, 6년, 10월 14일 을미 2번째 기사, "下馬乳葡萄一枝于政院曰: "爾等嘗味, 各製詩以進." 承旨等謝恩曰: "臣等前此所未得嘗. 山林雖或有之, 霜雪中其味, 豈得類此乎?"; 『象村集』 권37, 「書東陽葡萄帖後」, "記余甲午秋, 奉使朝京師, 以事濡滯遼陽館閱月. 遼人相識者, 日餽余馬乳葡萄, 每飯罷喫之甚適, 形味殊絶, 覺牙頰生爽氣, 不比漢都人家所種也."

도움이 될 수 있는 진기한 별미로 생각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세 번째로, 허균 산문의 음식은 종종 해학의 표현과 결부된다. 함열 유배 시기에도 허균은 당대의 유력한 관료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 수령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있었다.[196] 지방 수령들로부터 선물 받은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한 척독 작품에는 과장[197]이나 농담이 곁들여지고 있다. 함열 수령 한회일(韓會一, 1580~1642)에게 보낸 편지가 한가지 사례다.

> 사람들이 여기서는 작은 방어와 준치가 많이 난다고 하여 이곳으로 유배 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봄에는 전혀 없으니 운수가 박합니다. 늙은 저는 입맛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 어지럽게 널린 거여목으로는 주린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 우습습니다.[198]

허균은 이미 1월에 한회일이 보내준 연어 알젓 한 그릇에 대해 감사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위의 편지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3월에 보낸 것으로 자신의 식생활이 변변치 못한 데 대해 은근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입맛을 돌보느라 이 지역을 유배지로 자원했다는 것은 허균의 이 시기 유배가 자원부처[199]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순군부군청기」에도 유배지를 함열 쪽으로 자신이 선택하여 왔다는 뉘앙스의 언급이 보이는데,[200] 죄인의 신분이면서도 유배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데에는 그런 사정이 있는 듯하다. 하여간 자신의 식도락을 공공연하게 글에 언급하는 태도는 이 시기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한호 생전인 1605년 무렵의 편지에도 보인다. 자신은 평생 맛있는 것만 찾았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맛 좋은 음식을 내세워 초청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201]

이상을 통해 허균의 산문에서 미식이라는 소재는 노스탤지어의 표현이자, 권력의 부침을 상기하게 하는 매개물이며, 해학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였던 점을 살펴보았다. 이중 어느 것도 미식이란 것을 그 자체로 추구할만한 대상으로 바라

196)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國史館論叢』 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208쪽.

197) 『성소부부고』 권21, 「與龍山倅 (辛亥三月)○李劼」, "筋入口則湯餠腸驚作雷鳴"

198) 『성소부부고』 권21, 「謝咸山倅 (三月)」, "人言此地多產細白魚鰣魚, 求配爲是也. 今春切無之, 亦數奇已. 老夫爲口來, 闌干苜蓿, 未免枵腹, 可呵."

199) 심재우, 앞의 논문, 203쪽.

200) 『성소부부고』, 「巡軍府君廳記」, "又曰, 公厄重, 若恩譴, 則南方最吉也."

201) 『성소부부고』 권20, 「邀景洪(乙巳四月)」, "待公爲斫鯉計, 石筍沙鱉, 亦可供案肴. 僕平生爲口, 故津津以酒食爲請, 毋笑其饞." '맛있는 것만 찾는다'는 표현은 소식(蘇軾)의 시 「初到黃州」에서 "自笑平生爲口忙, 老來事業轉荒唐."이라 한 데 전거가 있다.

보는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허균이 산문에서 음식을 다루는 기본 기조가 어디까지나 양생을 위한 섭생에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섭생 전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기록이다.

> 일찍이 남궁두를 호남에서 보았는데, 아흔의 나이에도 용모가 노쇠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결을 물어보니 바로 각 계절에 맞게 생활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뿐이었다. 연단하는 공부는 손대기가 쉽지 않지만, 먹고 마시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때에 보양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매우 가까우므로 효과를 가장 빨리 거둔 것이 아니랴? 그러나 이는 모를 일이다. (중략) 내가 보양하여 식생활을 단속하려는 것은 그 일이 일상생활에 가까움을 가장 기뻐해서이다.[202]

마지막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보이듯 절제하는 식생활이 긍정되고 있으며, 그런 소박한 식생활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다. 미식 향유를 옹호하는 것이 허균의 주된 기조가 결코 아니다. 앞서 「도문대작」에서 본 것은 '미식에 대한 지식'이지, '미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작자 자신을 위한 섭생법으로 어디까지나 절식을 선호하였다는 점은 여러 국면에서 드러난다. 가령 해운판관(海運判官)으로서 호남을 돌 때 남긴 기록에서도 술과 고기를 많이 쌓아놓은 상차림을 우아하지 못하다고 하여 폄하했고,[203] 자신이 파견 관리로서 대접받는 성대한 상차림과 음악 소리가 오히려 자신을 피로하게 할 뿐, 이야기 나눌만한 상대와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적도 있다.[204] 그 외에도 절식하는 식생활을 명시적으로 긍정한 경우가 다음과 같다.

> 노인이 말했다. "내가 어릴 때 병이 많아 일찍 쇠약해져서 어쩌다 조금만 배불리 먹고 나면 반드시 뱃속이 더부룩하였다. 그래서 매일 다섯 홉 정도의 묵은쌀만 먹고, 기름진 살코기나 날것, 찬 것은 먹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10여 년을 계속하니 병이 점점 나아갔다. (중략) 일없이 조용히 앉아서 주리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면서 살아온 지 지금 60여 년이 되었다. 집이 산골짝에 있어서 매일 삽주 뿌리와 황정을 캐 먹었다. 이러한 세월이 오래 되자 눈이 점점 밝아지고, 귀가 점점 잘 들리며, 빠졌던 이가 점점 나고, 다리 힘이 점점 강건하여졌다. (중략) 내게 어찌 별다른 방술이 있겠는

---

202) 『성소부부고』 권4, 「攝生月纂序」, "曾見南宮斗於湖南, 九十而貌不衰, 詢之, 乃順時節食而已. 豈煉丹功夫下手未易, 而飮食起居之際, 保頤攝養者, 切近於日用, 故收效最速耶? 是未可知也. (중략) 余欲保頤攝食者, 最喜其切於日用."

203) 『성소부부고』 권18, 「漕官紀行」, "酒渾陵肉, 坌擁不雅."

204) 위의 글, "主人素樂棲遁, 且達禪機, 可與語, 而廚供鼓樂, 喧鬧塡委, 耳目煩聒, 心忽忽不樂, 恨不屛騎從一夜淸談也."

가?”

나는 이렇게 본다. 내가 임노인의 말을 듣고 양생하는 방술을 터득했다. 신선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정(精)과 기(氣)와 신(神)을 보전하는 법이다. 노인장이 다시 장가들지 아니한 것은 정을 보전한 것이고, 음식물을 가리고 배부르게 먹지 아니한 것은 기를 보전한 것이며, 화를 내거나 가사를 걱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을 보전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으니 긴 수명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자신의 타고난 진기를 흔들지 않고 그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은 바로 마음을 조용히 안정시키는 첫째 관문이며, 삽주 뿌리와 황정 또한 약 중에서 상등품이다. 임노인은 능히 그 일을 실행하고 또 능히 그것을 복용하였으니 신선이 되어 높이 올라갈 날이 어찌 멀겠는가?[205]

여기서도 소박한 음식을 적게 먹는 식생활을 양생의 방술이라 하여 긍정하였다. 이처럼 허균 산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본 기조는 절식의 옹호에 있는 것으로 ‘먹을 때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는다[食無求飽]’는 명제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동시대의 다른 사대부들, 가령 고상안(高尙顔, 1553~1623)이 건강을 위해 절식을 옹호한 이래 18세기 절식 담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비추어 큰 차이가 없다.[206] 또한 허균과는 인척이 되는 이수광 역시 『지봉유설』 「음식부(食物部)」에서 각종 음식을 다룬 바 있다. 그는 총론격에 해당하는 「食餌」를 제외하고는 총 5개 부문(술, 곡식, 채소, 과일, 약)에 걸쳐 각종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놓았다. 거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대상 음식이 건강에 기여하느냐 여부이고, 부차적으로 해당 음식의 적절한 조리법과 섭취 방식, 해당 음식에 얽힌 전설 등을 다루었다. 일견 각각의 음식에 대해서 「도문대작」보다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봉유설』의 기록이 충실해 보이는 면도 있다. 하지만 그 기조는 궁극적으로 보양을 위한 음식 섭취라는 차원에 있다.

허균 산문의 전체 맥락 속에서 양생을 위한 절식이 근본 기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도문대작」과 같이 미식에 대한 서술이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균형

---

205) 『성소부부고』 권12, 「任老人養生說」, “叟曰, ‘吾少日多病早衰, 若少飽則必痞. 因日食五合陳, 不食肥膩生冷物, 積十餘年, 病稍減. (중략) 無事靜坐, 飢而食, 困而睡者, 于今六十餘年. 家在谷中, 日採朮黃精餌之, 久則眼漸明, 耳漸聰, 齒落者漸生, 脚力漸健. (중략) 吾豈有他術也?’ 余曰, 吾聞之叟之言, 而得養生之術焉. 爲仙者, 必保精與氣與神也. 叟之不娶, 保精也; 擇食不飽, 保氣也; 不嗔怒營爲, 保神也. 三者旣具, 宜其壽之多也. 況不動吾眞, 而只飢飡倦睡, 乃靜定第一關, 而朮黃精, 亦藥之上者. 叟能行之能服之, 其昇仙遐擧也, 何遠哉?”

206) 『泰村集』 권4, “蓋飮食不節, 疾病之所由生也. 是故, 漢武言少病, 必先節食, 三叟致辭, 以量腹節受爲首. 苟能食無求飽, 且忌生冷, 則病何生焉. 嘗試之一身, 偶得兼珍之饌, 喫盡一盂之飯, 則飽滿太甚. 17~18세기 절식 담론에 대해서는 염정섭, 앞의 논문, 105~115쪽.

있게 바라보아야, 허균의 절식 주장이 당대 사회에 퍼져 있는 절식론의 답습이 아니고, 절식의 긍정이 진정한 선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허균의 글에 나타나는 미식에 대한 기록은 그 자신을 위한 식생활 방침도 아니고 타인에게 그러한 식생활의 지향을 권하는 것도 아니다. 조선 각지에서 나는 별미의 생산 현황에 대한 지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미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상기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허균 저작 전체를 조망하는 견지에서 볼 때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미색에 관한 문제를 보겠다. 사전에 분명히 할 점은 허균의 산문에 등장하는 여성은 오늘날 '젠더' 개념을 통해서 운위되는 '여성'이라는 범주로 포괄하여 다루기 어렵다. 이 시기에 사대부 남성에게 색(色), 즉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녀[207]나 첩과 같은 하층 여성이었기에, 작자의 부인이나 외조모 등 혈연이나 혼맥을 통해 연결된 사대부 여성을 글에서 다루는 방식은 하층 여성을 다루는 방식과 동렬에서 논하기 어렵다. 사대부 여성은 소비나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가문 간 연대의 매개자이자, 대개 덕성의 소유자로 미화되어 나타난다.[208] 이 장은 소비 대상에 대한 감식안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이므로 사대부 남성의 '향유' 대상이 되는 하층 직업여성에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허균이 식색을 긍정하는 주장에 동조했다고 할 때, 일견 이 명제를 정욕을 긍정하고 예교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는 선언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209] 그보다는 이 시기에 '색'이라 불린 것, 즉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층 여성들에 향유를 긍정한 것으로 읽는 쪽이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즉 '식색이 본성이라는 말에서 진정 주목해야 할 점은 식과 색이 동일 층위에서 운위되는 점, 즉 색이 식과 다를 바 없는 향유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허

---

207) 흔히 사용되는 '기생'이라는 말은 제도사적으로 볼 때 허균의 글에 소재로 등장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개념적 오류가 있다. 허균의 글에 등장하는 하층 여성은 대개 기(妓)라고 지칭되는데 이는 관청에 소속되어 기역(妓役)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국역 체제와 무관하게 술과 가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유녀(遊女)와 같은 범주를 포괄하지 않는다. 허균의 글에서는 각종 접대를 제공한 하층 여성들의 신상을 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아 그들의 직역이나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층 여성으로 포괄하여 다룬다. 조선시대 기녀를 부르는 다양한 명칭에 대한 고찰과 유사 범주와의 구분 및 제도사적 정의를 제공한 사례로 다음을 참조. 정연식, 「조선시대 妓役의 실체」, 『國史館論叢』 105, 국사편찬위원회, 2005, 3~5쪽. 기녀의 구분 방식에 대한 연구사 정리로는 이성임,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妓女의 立役과 運用」,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85쪽.

208) 대표적인 사례가 임란 때 죽은 전처에 관해 쓴 다음의 글. 『성소부부고』 권15, 「祭亡妻文」, 「亡妻淑夫人金氏行狀」.

209) 유호진, 「許筠의 艶情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44, 한국한문학회, 2009, 250~251, 257, 266~267쪽.

균의 글에서 '색'이라는 추상어와, 색을 제공하는 구체적 사물로서의 하층 여성은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있지 않으므로, 미식에 이어서 '미색'에 해당하는 태도를 살펴보는 이 자리에서는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되는 하층 여성에 대한 묘사 양태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보겠다.

기녀나 첩에 대한 묘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재영에게 보낸 척독들과 몇 편의 일기류 저작이다. 이재영을 제외한 다른 수신인을 대상으로 한 글에는 천첩이나 창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층 여성을 화제로 꺼내는 것은 지체 높은 상대는 물론이고 자기와 동급의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도 문자상으로는 꺼내기 꺼려지는 주제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서얼 신분의 수신인에게 쓴 글에서나 색의 향유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는 점은, 이것이 과연 '예교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자유분방한 지향'의 산물인지 회의하게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허균 산문에서 다뤄지는 '색'의 실상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안적인 이해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210]

허균 산문에 서술되는 기녀 묘사의 첫 번째 특징은, 기녀들이 공유물과 사유물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이재영에게 보낸 편지에 등장하는 하층 여성에 대한 서술들은[211] 당나라 이래 확립되었다고 알려진 사대부 남성이 직업여성을 대하는 방식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 그중 하나는 저자가 지닌 문장력을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의 신체를 글에 전시하는 것이다.

> 어젯밤 소랑(蕭娘)을 불러왔기에 박엽(朴燁)의 강요로 만나보았네. 흘깃 보는 눈길에는 원망이 사무쳐 고개를 돌려 벽을 향하는데 촛불 그림자 속에 비치는 헝클어진 머리와 지워진 화장, 구겨진 옷, 부드러운 얼굴은 곱게 단장하고 고운 옷을 입은 때보다 훨씬 예뻤으니, 서시(西施)의 찡그린 얼굴을 추녀가 흉내 낸다는 일을 비로소 믿게 되었네. 잠자리에 들어서는 우는 듯 호소하는 듯했으나 10년 전의 옛일을 이야기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사뭇 다정스럽게 하면서 한마디의 말도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또 망연자실하였다네. 그대는 시험 삼아 정사(情詞)를 지어 이 일을 기록하여 주게.[212]

---

210) 본격 논의에 앞서 확실히 짚어둘 점은 이 시기에 유흥업에 종사한 여성의 위상이 관기이건 유녀이건 인격보다는 물건에 가깝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뒤에서 볼 바와 같이 기녀들은 남성 사대부들에 의해 공동 이용되는 존재이기에, 본고의 논의에서도 텍스트상에서 하층 여성을 물건에 가깝게 취급하는 현상을 지목하기 위해서는 이 여성들을 물건에 가깝게 지칭하는 경우가 불가피하였음을 밝혀둔다.

211) 이재영에게 보낸 총 13통의 편지 중에서 성적 접대를 제공한 여성을 화제로 삼은 글이 총 6통이다.

212) 『성소부부고』 권21, 「與李汝仁(丙午二月)」, "昨夜招蕭娘至, 則以叔夜之抑而見也. 凝睇怨絶,

위의 글에서는 침실 안에서 벌어진 일을 중계하듯 묘사하고 있다. 소랑이라 하는 여성의 표정과 태도, 옷차림, 말투 등을 소상히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동침한 이 여성을 소재로 하여 글을 지어 읽을거리를 삼으라고 권유하였다. 우선 작자 자신이 해당 여성에 관한 글을 쓰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도 이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도록 권한다는 점에서 소랑이라는 여성은 허균 자신의 것인 동시에 이재영의 것이 되고 있다. 하층 여성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대부의 침실은 물리적으로는 작자 자신만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에 위치하지만, 동시에 글을 매개로 하여 공개됨으로써, 사대부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과의 중간 지대로서의 성격을 갖는 독특한 공적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213] 그런 사정은 작자 자신이 놀림감이 될 뻔한 일을 가까스로 면한 사건을 적은 다음의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 8월 4일 계해: 저녁에 오성(箕城-전라도 영광)에 돌아왔더니 경퇴부(慶退夫 -경섬, 1562~1620), 덕원(德遠), 내기(萊妓) 등이 먼저 모여있기에 즐겁게 마시고 놀았다. 잠자리에서 내기가, "해양(海陽-전라도 광주)에서 옛 정인을 만났나요?"고 묻기에, "그렇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여기 오려고 하지 않던가요?"라고 하므로 "광주 목사가 보내주려 했는데 내가 사양했다."고 거짓으로 답했다.
>
> 8월 5일 갑자: 새벽녘에 내기가 먼저 일어났기에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과연 퇴부와 함께 나를 속일 계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들은 우선 마두를 속여 "광산월은 사기원에서 묵고 아침에 군(오성)에 들어올 것이다."고 했다. 마두는 광주에 말을 남겨둔 것을 보았으므로 그 말을 믿고 내게 와서 고하였다. 나는 속으로 조금 짚이는 바가 있어, '광주는 여기서 하루 걸리는 거리인데 광산월이 왜 중도에 묵겠는가.'하고 생각하였다.
>
> 세 사람은 늙고 추한 기녀를 단장시켜서 내가 관청에 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방에다 숨겨 놓았다. 조금 후에 강태초(姜太初-강항, 1567~1618)와 군(郡) 사람 이곤(李琨)과 강극문(姜克文)이 찾아왔다. 얼마 뒤에 반인(伴人)을 속여 내 귀에 대고 광산월이 벌써 와서 방에 들었다면서 거짓으로 절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퇴부의 얼굴에 웃음을 참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이미 사정을 짐작하였다. 퇴부는 "방에 들어가면 즐거운 일이 있을 테니 다녀오게." 했다. 이것은 내가 방에 들어가면 늙은

回頭向壁, 燭影中鬆鬢殘粧, 亂衣膩容, 殊勝於明粧麗服日也. 始信西子顰爲醜者所效矣. 迨寢如啼如訴, 及談十年事, 則昵昵繾綣, 殊不錯一句話, 又爽然自失. 君試爲情詞記之."

213) Paul Rouzer, *Articulated Ladies: Gender and the Male Community in Early Chinese Texts*. Cambridge, Mass.: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1. , pp.256-267.

기녀로 하여금 나를 붙들고 곤란하게 해서 웃음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내가 굳이 사양하고 일어나지 않자, 퇴부도 방에 들어가 위로하라는 말을 극진히 늘어놓았다. 얼마 안 가 점심때가 되자 상을 차려 식사까지 대접했다. 마두는 광주에 남겨두고 온 서자(書者)가 당도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속은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반인을 불러 광산월이 오는 길에 가서 광산월에게 길을 재촉하게 했다. 해가 어스름할 무렵 드디어 당도하였는데 짙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니 함께 있던 사람이 모두 멍하니 쳐다보았다. 퇴부는 자기 속임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매우 분해하고 내기도 불만족한 모양이라 우스웠다. 이어 술과 풍악으로 즐거움을 다하고 사고(四鼓)에야 잠자리에 들었다.[214]

위의 일화는 허균이 해운판관으로서 호남 지방을 돌던 시기에 쓰인 것으로, 전라도 광주에 머물던 허균이 광산월과 만났다는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다. 당시 광주 목사였던 이상길(李尙吉, 1556~1638)도 허균과 광산월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관청에서 벌이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허균을 부르기 위해 굳이 광산월을 잔치에 오게 한 일이 있었다.[215] 허균이 8월 1일에 광주를 떠나게 되자 이상길은 8월 5일에 맞춰 광산월을 오성(筽城)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성에서 허균을 맞이한 세 사람은 서로 짜고서 '추한' 기녀를 광산월인 것처럼 연출하여 허균의 방에 들도록 해서 허균을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 인용문의 요지이다. 경섬을 비롯한 세 사람이 다른 기녀를 내세워 허균을 놀리려는 수작을 꾸밀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허균이 광산월이라는 기녀와 구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광산월은 광주 목사가 그 행보를 명할 수 있는 관청 소속의 천인으로서 관가의 공물이지만, 동시에 '허균의 정인'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허균의 '사유물'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일정대로 오성에 도착한 광산월은 '짙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와' 좌중을 놀라게 했다고 서술된다. 연회에 모인 좌중에게 전시의 대상이 되고

---

214) 『성소부부고』 권18, 「漕官紀行」, 夕返筽城, 退夫, 德遠與萊妓先會, 樂飮甚驩. 寢中萊妓問曰, "海陽逢故人乎?" 曰, "然." 曰, "渠無來意否?" 謾應之曰, "主牧欲送之, 我辭不許矣." 甲子. 拂曉, 萊妓先起, 怪之, 果與退夫謀所以謾我者, 先瞞馬頭曰, "光人宿四岐, 卽朝當入郡矣." 馬頭見留馬於光, 故信而來告. 余稍悟於心曰, '光距此一日程, 渠肯留宿於中路乎?' 三人者裝一老醜妓, 瞰我出坐廳, 藏于房. 少焉, 姜太初及郡人李琨, 姜克文來見. 俄瞞伴人, 躡吾耳令告之, 已來入房, 佯與切切敍話. 余見退夫有匿笑容, 已忖之. 退夫曰, '可入房慰存而還出也.' 蓋欲我入而令老妓掙挽我困侵之然. 指爲笑囮, 余苦辭不起, 退夫亦入而爲慰話甚至. 俄午餉, 又以饋飯之, 馬頭見書者留光者不來, 始悟其見欺. 余招伴人耳語, 中路迓光人促鞭, 日晡時果至. 穠粧麗服而入, 四座傾佇. 退夫憤其不售計, 萊亦似歉然, 可笑. 因酒樂極驩, 四鼓始就寢.

215) 위의 글, 7월 28일 丁巳. 州有少日京洛舊情妓光山月, 又遣渠苦督之, 不得已赴之. (중략) 光人來慰, 敍平生驩然, 通宵不睡.

있는 것이다. 인용문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광산월더러 빨리 오도록 재촉해서 '자신의' 기녀를 좌중에 선보이는 것 역시 광산월을 자신이 점유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감각이 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듯 직업여성들이 관가의 공물(公物)[216]이거나 특정 사대부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된 존재라는 인식은 다음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 창기 계생(桂生)은 이귀(李貴, 1557~1633)의 정인(情人)이다. 거문고를 뜯으며 시를 읊는데 생김새는 시원치 않으나 재주와 정감이 있어 함께 이야기할 만하여 종일토록 술잔을 놓고 시를 읊으며 서로 화답하였다. 밤에는 계생의 조카를 침소에 들였으니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이다.[217]

허균 자신도 타인의 '정인'으로 알고 있는 기녀와는 성관계를 기피하였음이 드러난다. 즉 '특정 기녀(B)는 아무개(A)의 정인'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제3자인 C가 B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B에 대한 A의 반(半) 독점적 점유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 목사가 광산월을 허균이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든가, 연회에 부른다든가 하는 식의 접대도 가능한 것이다. 관리 신분의 남자에게 있어 기녀는 원칙상 공유물이지만, 때로 사유물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때로 사유물에 근접한 기녀 중 일부가 작자의 경험을 서술하는 맥락에서 산문 속에 등장할 수 있었다.

둘째로, 기녀에 대한 고래의 글이 대개 그러하듯 기녀는 품평의 대상이지만, 허균의 글에 나타나는 기녀에 대한 품평은 품평 대상보다 품평한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의 사례도 그중 하나이다.

> 성천 부사 이거용이 술자리를 성대하게 차려놓고 노래시키기를 청하기에 허락했다. 그러자 기녀 넷이 들어와 인사를 하는데, 그중 한 명은 외모가 매우 곱지 않았다. 내가 "저 아이는 분명 노래를 잘할 것이다." 하니, 이재영이 "어떻게 아는가?" 하기에, 내가 "재주가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낄 수 있겠는가?" 했더니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다. 그 기녀는 과연 노래를 잘하였다. 발성이 맑고도 웅장하여 평안

---

216) 정연식, 앞의 논문, 18쪽. 조선시대의 기녀는 관가의 공물 또는 관물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었기에 사대부들이 이 기녀들을 사유화하는 데에는 여러 난점이 따랐다. 그럼에도 관리들이 기녀를 사유화하는 관행은 만연했고 그 방법도 다양하였다. 선조 연간 관리들이 기녀를 첩으로 삼았던 실태에 대해서는 우인수, 「조선후기 北邊地域 기생의 생활 양태」, 『역사와 경계』 48, 부산경남사학회, 2003, 102~106쪽.

217) 위의 글, "倡桂生, 李玉汝情人也. 挾瑟吟詩, 貌雖不揚, 有才情可與語. 終日觴詠相倡和. 夕, 納其姪於寢, 爲遠嫌也."

도에서 제일이겠는데 곡조[腔]가 맞지 않는 것이 흠이었다.[218]

서술의 초점은 '노래를 잘하는 기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하기도 전에 그가 노래를 잘할 것을 간파한 작자 쪽의 통찰력에 있다. 위 기록보다 약 60년 후에 나온 이어(李漁, 1611~1685)의 『한정우기』(1671)에서는 가무를 제공하는 여성의 선발 방식이나 그런 여성에게 요구되는 재질, 교육의 방향과 방법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허균의 관심사는 하층 여성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해서 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감발되는 자신의 흥취나 순간적인 감식안의 남다름을 보여주는 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허균의 산문에서 일군의 기녀들이 향락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데 반해, 매창[219]이라는 기녀에게는 그녀를 상대로 편지를 쓴 기록이 남아 있어, 기녀를 그저 물건에 가까운 존재로만 본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일명 계생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녀에게 보낸 편지나 계생의 죽음을 애도한 시에 달린 주석을 살펴보면 작자가 과연 이 기녀를 특별히 다르게 보통의 기녀와는 달리 취급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계생(桂生)은 부안 창기이다. 시에 능하고 문장도 이해하며 또 노래와 거문고도 잘했다. 그러나 천성이 고고하고 개결하여 음탕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재주를 사랑하여 교분이 막역하였으며 비록 담소하고 가까이 지냈지만 난(亂)의 지경에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가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그 죽음을 듣고 한 차례 눈물을 뿌리고서 율시 2수를 지어 슬퍼한다.[220]

계생이 지녔다고 하는 재능과 성품에 대해 당대에 계생을 알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개괄한 뒤[221] 자신은 그녀와 성관계 한 적이 없다는 언급을

---

218) 『성소부부고』 권18, 「丙午紀行」, 成川府使李巨容盛設盤筵, 且請侑以謳, 余許之. 四妓入見, 中一妓貌甚不揚. 余曰, "必善也唱." 汝仁曰, "何以知?" 曰, "非技則安敢預斯?" 滿堂哄笑. 妓果能謳. 發聲淸壯, 爲浿西第一, 所欠不合腔也.

219) 매창의 신상과 그가 교유한 사대부 남성에 대한 정보로는 허경진, 「『매창집』에 관련된 인물과 창작 시기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40, 한국한문학회, 2007.

220) 『성소부부고』 권2, 「哀桂娘」 桂生扶安娼也. 工詩解文, 又善謳彈. 性孤介不喜淫. 余愛其才, 交莫逆, 雖淡笑狎處, 不及於亂, 故久而不衰. 今聞其死. 爲之一涕, 作二律哀之.

221) 권필, 『석주집』 권7, 「贈天香女伴」에는 계랑이 음률을 알고 거문고를 잘 탄다는 언급; 한준겸의 「贈歌妓癸生」이라는 시에도 "能詩鳴於世"라는 주석이 있어서 시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다. 그밖에 이수광의 『지봉유설』 권14 「文章部」7 '妓妾' 조에도 계랑이 차운시를 지어 자신에게 구애한 남성을 거절해 보냈다는 일화와 거문고를 잘 다뤘다는 기록 나온다.

덧붙여 놓았다. 그와 비슷한 내용은 계생에게 보냈다고 하는 편지에서도 반복됨. 계생에게 준 편지는 두 통이 『성소부부고』에 수록되었는데, 첫 번째 통은 명시적으로 상대를 탓하고 작자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는 내용이고,[222] 두 번째 편지는 일견 계생과의 친교를 피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녀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봉래산[변산]의 가을이 한창 무르익었으리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부낀다오. 자네는 필시 내가 시골로 귀향한다는 맹세를 어겼다고 웃고 있겠군. 그 시절에 만약 한 생각이 잘못됐더라면 나와 자네의 사귐이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그토록 다정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야 진관(秦觀)은 진정한 사내가 아니지만 선가의 수행[禪觀]을 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유익한 줄은 알았다네. 어느 때나 만나서 하고픈 말을 다 할지, 종이를 대하니 마음이 서글프오.[223]

첫 번째 편지에서 계랑에게 참선 중인지 물은 데 이어 여기서도 '선관(禪觀)' 같은 불교 문자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계랑이 불교를 가까이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계랑보다는 작자 자신에 대한 것이다. 사직하고 귀향하지 못하는 데 대한 자조, 계랑과 자신은 가까운 존재라는 주장, 작자와 수신인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암시 같은 것은 사실상 자기 위주의 서술이라 하겠다. 후반부도 마찬가지이다. 편지에 진관(秦觀, 1049~1100)을 언급한 것은 그가 기녀와의 이별을 마음 아파하는 사를 다수 지은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자신이 기녀와 이별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고, 선가의 수행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표현한 취지의 문장으로 생각된다.[224] 계랑과 작자의 친교에 관한 위 편지의 서술을 문자 그대로 신뢰한다 하더라도, 관기나 유녀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할 때 계랑과의 친교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간 선택은 허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당할 것이다. 요컨대 허균의 글에서 다소 이채로워 보이는 존재인 계생에

---

222) 『성소부부고』 권21, 「與桂娘(己酉正月)」 "娘望月揆瑟而謳山鷓鴣, 胡不於閑處密地, 乃於尹碑前, 被鑿齒所覷, 汚詩於三尺去思石? 此娘之過也. 詈歸於僕, 冤哉. 近亦參禪否? 相思耿切."; 허경진, 앞의 논문, 161쪽. 이 편지와 관련된 자세한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2, 휴머니스트 2006, 352~357쪽.

223) 『성소부부고』 권21, 「與桂娘(己酉九月)」, "蓬山秋色方濃, 歸興翩翩. 娘必笑惺惺翁負丘壑盟也. 當時若差一念, 則吾與娘交, 安得十年膠漆乎? 到今知秦淮海非夫, 而禪觀之持, 有益身心矣. 何時吐盡, 臨楮慨然."

224) 기존 번역(『국역 성소부부고』Ⅲ, 115쪽)처럼 앎의 주체를 계생으로 설정하게 되면 진관을 거론한 것이 사리에 닿지 않게 된다.

대한 언급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에 대한 언급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결국 여타 기생에 대해 품평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식의 서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셋째, 허균 산문에 등장하는 기녀나 애첩은 남성 간 경쟁의 감각을 환기하는 존재로 작동한다. 다음은 이재영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 자네의 아름다운 여인은 매우 민첩하고 총명하여 분명 아름다움이 잠시뿐임을 알 것인데, 어찌 그가 사타리(沙吒利) 같은 권세가를 위해 끝까지 절개를 지킬 것인가. 속담에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을 나무가 없다고 했으니 그대는 한번 도모해 보게나.
>
> 그가 비록 금빛 휘장에서 고아주(羔兒酒)를 맛보는 일에 익숙하다지만, 눈 녹은 물로 끓인 차도 특별히 운치 있는 일이네. 만일 그가 나를 찾아온다면 "하마터면 인생을 헛되이 보낼 뻔했다"고 말할 것이네. 자네가 그녀에게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일 걸세.[225]

이 편지에서 언급된 사타리는 당 전기(唐 傳奇) 「유씨전(柳氏傳)」에 등장하는 외국인 무장으로, 주인공 유씨가 애초의 연인이었던 한익(韓翊)과 헤어지게 된 사이에 유씨를 납치하여 데리고 살았다고 하는 번족 장수이다. 해당 전기에서 유씨는 결국 한익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상대인 이재영이 구애하고자 하는 여인 역시 사타리와 같은 다른 남성에게 끝까지 절개를 지킬 것은 아니니, 그 여성을 얻을 때까지 기어이 노력해보라고 권한 것이다. 이 편지에서는 허물없는 농담조에 작자의 자신감이 유쾌한 톤으로 피력되고 있으며, 직업여성을 바라보는 유희적인 톤의 서술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이어진다.

> (5월) 12일: (중략) 부윤이 남산에서 전별연을 베풀었는데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자 내가 돌아본 일이 있는 창기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끌어내어 앉게 했더니 30여 명이나 되었다. 그중에는 진짜가 아닌 사람이 여섯 명이 끼어 있으니 더욱 우스웠다. 조희일의 연아는 이별이 서러워 흐느끼며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나는, "내 정인은 이렇게 많아도 슬퍼 우는 사람이 없는데, 조희일은 단 하나이면서 이렇게 연연하니 이야말로 많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지 뭔가." 하니 모두 크게 웃었다. 저녁에 양책에서 묵었다. 연아가 나의 정인 봉랑을 끼고서 조희일을 뒤따라왔다. 나는 "30명 중 왜 너만 왔느냐. 그냥 남아 있다가 용리(龍吏)를 이별하는 게 더 나을걸." 하였더니, 조희일

225) 『성소부부고』 권21, 「與李汝仁 戊申(1608) 四月」, "君家文君甚警慧, 必知春色片時, 其肯爲沙吒利終守節乎? 諺曰, '十斫木無不顚', 君其圖之. 彼雖熟金帳羔兒之味, 雪水煎茶, 殊亦雅事. 使其過我, 必曰幾乎虛度此生也. 君語之曰, 飛者上有跨者, 則必動於言矣."

은, “형은 어찌 그리 박정한 말을 하시오.” 하였다.

(5월) 13일: 아침에 연아가 조희일을 붙들고 슬피 울며 데굴데굴 구르자 봉랑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울음을 참았다가 용리를 이별할 때 울어라.” 하였다. 이는 봉랑이 옥당(玉堂)의 아전 용우린(龍友麟)과 사귀었으나 나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226]

위 내용은 의주 부윤이 관기 중에 허균을 상대한 적 있는 자들을 30인을 나열했다는 일화이다. 선조 연간에 관기(官妓)를 두는 제도가 일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이 시기에 관청에서 성적 향응을 공공연히 베풀고 있었던 사례 중 하나로도 거론되는 이 일화[227]에서 주목할 점은 작자가 다른 남성, 즉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서리 출신의 용우린[228]에 비해서 봉랑이라는 기녀에게 자신이 선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간혹 이 시기의 다른 사료들에는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능동성을 표현한 기녀도 발견되지만,[229] 위의 사례처럼 수동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주체성, 즉 선호의 순위를 표현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작자는 자신에 대한 선호를 표하지 않는 봉랑이라는 기생에 대해 적음으로써, 남성간의 유희적 경쟁의 감각을 환기하고, 이를 통해 흥을 돋구는 국면을 기록해 놓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보면, 허균의 글에 나타나는 하층 여성의 향유는 당대 사대부 남성의 일반적인 관행과 문화적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16세기 후반 이래 명대 강남의 기녀 문화라는 것이 융성하여 가무와 같이 기녀에게 전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 외에 서화나 여행기 창작 등 여러 방면에서 일가를 이룬 기녀들이 출현하였던 사실이나,[230] 해당 시기 강남 사대부들이 기녀를 향유하는

---

226) 『성소부부고』 권18, 「丙午紀行」, 十二日. (중략) 府尹餞於南山, 酒半, 令括余所盼倡老少悉出坐, 殆三十餘人. 其中或有非眞者六人. 殊可笑也. 怡叔蓮娥泣不能仰, 余曰, “吾情人若是多, 而無悲涕者, 怡叔只一人, 而眷眷如是, 所謂雖多亦奚以爲者.” 滿坐大噱. 夕宿良策. 蓮娥追怡叔至, 挾我之鳳娘. 余曰, “三十人中, 渠何獨來乎? 不如留別龍吏也.” 怡叔曰, “兄何發薄言情耶?” (‘令括余所盼倡老少悉出坐’ 구의 ‘倡’자가 국중도본에는 娼로 되어 있으나 관물헌본을 따랐다.)
十三日. 朝, 蓮娥挽怡叔悲啼宛轉, 鳳亦抆涕. 余曰, “可留待龍吏而泣也.” 蓋行次玉堂吏龍友麟與之私, 而礙於余, 不得恣意故云然.

227) 정연식, 앞의 논문, 14, 22~23쪽. 선조대 서북변 지역 제외하고 관기 없애라는 명령. 그럼에도 허균의 이 기록을 통해 지방 관기의 여전한 존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됨.

228) 다음 기록을 통해 용우린이 서리 출신임을 알 수 있다. 『象村稿』 권10, 「玉堂吏龍友麟, 舊胥也. 以遠接掌冊之任來龍灣乞詩, 書贈.」

229) 우인수, 앞의 논문, 106~113쪽.

230) 권호종·이봉상, 「明代 妓女 馬守眞 硏究 -《靑樓韻語》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3,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Daria Berg, “Cultural Discourse on Xue Susu, a

관점과 방법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던 것[231]에 비추어 허균이 바라보는 기녀에 대한 시선은 그리 특별하다고 볼 대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어의 『한정우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가무를 제공하는 여성들의 자태나 몸단장 방식, 의상이나 머리 모양의 선택, 기예의 교습과 같은 식으로 하층 여성의 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분석적으로 고찰한 바도 없다. 다만 기녀와의 동침이나 하층 여성들의 생김새, 특징, 의사 표현 같은 일상의 사소한 일을 적극적으로 소재로 끌어들여 작자 자신의 자기표현의 계기로 삼은 것이 주목되는 국면이다.

Courtesan in Late Ming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6, no. 2 (2009): 171-200; Zurndorfer, Harriet T. "Prostitutes and Courtesans in the Confucian Moral Universe of Late Ming China (1550-1644),"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56, no.19 (2011): 197-216. Sufeng Xu, "The Courtesan as Famous Scholar: The Case of Wang Wei (ca. 1598-ca. 1647)," *T'oung Pao* 105, no. 5-6 (2020): 587-630.

231) Wai-yee Li, "2. The Late Ming Courtesan: Invention of a Cultural Ideal," in *Writing Women in Late Imperial China*. Edited by Ellen Widmer and Kang-i Sun Cha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Ⅳ. 선취의 지향과 문사(文士) 정체성

1. 기몽(記夢) 산문과 신선 담론

1) 기몽 산문과 픽션(fiction)

『성소부부고』에 수록된 산문 작품 중에 한정을 구가하고자 하는 지향을 드러낸 작품들과 더불어 또 다른 한 갈래의 계통을 이루는 작품들은 꿈을 소재로 했거나 신선이나 초현실적인 사건 등을 소재로 한 작품군이다. 그중 허균이 꿈에서 보았다고 한 장면들을 산문으로 구성해 놓은 작품들은 이른 시기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는데, 「주흘옹몽기(酒吃翁夢記)」, 「순군부군청기(巡軍府君廳記)」, 「몽기(夢記)」 세 작품이 흔히 한 묶음으로 다루어지곤 했다.[232] 이들 작품이 한자리에서 논의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셋 다 꿈을 소재로 했다는 소재적 유사성 때문이었다. 또한 이들 작품은 대체로 작자가 허구적인 창작물을 짓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꿈을 빙자하여 일종의 단편 서사물을 만들어낸 결과물로 이해되어왔다.[233] 그러나 실제 이들 작품을 읽어보면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고, 작자의 의도가 과연 허구 서사의 창작에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지 단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허균은 「몽해(夢解)」라는 글에서 꿈을 꾸게 되는 원인에 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두기도 했는데, 이 점이 그간 허균의 기몽 산문을 분석하는 데에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234]

이에 본고에서는 시기상 가까운 시기에 지어진 이 작품들이 서로 가까운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주흘옹몽기」와 「몽기」를 중점 검토해 보겠다. 이들 작품에서 꿈이라는 소재가 활용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작자가 이 꿈 이야기 서술을 통해서 도달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작자가 꿈에 대해 갖고 있던 기본

---

232) 이강옥, 「朝鮮中期의 道仙的 경향과 許筠의 文學 -夢記 및 세 편의 「傳」에 나타난 時間·空間設定을 中心으로」, 『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9; 이월령, 「許筠의 夢記類 硏究」, 『국어문학』 29, 국어문학회, 1994; 이문규, 『허균문학의 실상과 전망』, 새문사, 2005, 8~37쪽; 양승목, 「朝鮮後期 夢記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94~95, 189~191쪽.

233) 이문규, 앞의 책 29쪽; 양승목, 앞의 논문 95쪽.

234) 다음 논의들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된 바 있다. 이월령, 앞의 논문, 51~56쪽, 김청아, 「허균 문학에 나타난 꿈 형상화와 그 의미 -『惺所覆瓿藁』를 중심으로」, 『語文硏究』 78, 어문연구학회, 2013. 139~141쪽.

견해와 동시대 문인들의 기몽 시문(詩文)을 참조하여 허균의 기몽 산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다.

먼저 「주흘옹몽기」는 작자의 친구 유숙(柳潚, 1564~1636)이 꾸었다는 꿈 내용을 적은 것이다. 이 글의 창작시기는 정황상 1609년 명 사신 유용(劉用)의 접반을 위해 작자가 관서 지역에 방문했을 무렵으로 생각된다. 작품 서두에서 작자는 유숙과 처음 알게 된 것이 20년 전 과거 시험장에서였다고 적고 있으며, 최근 서북 변경에서 함께 직을 맡게 되어 오랜만에 재회했다고 하였다.[235] 1609년 2월부터 7월까지 명 사신 접반 관련 기록을 적은 일기인 허균의 「기유서행기(己酉西行紀)」 서두에도 저자가 다른 관리들과 함께 유숙을 만난 사실이 적혀 있다.[236] 또한 허균은 유숙이 토산(兎山)에 성묘 갔다 오던 때에 이 꿈을 꾸었다고 했는데, 유숙의 문집에도 1609년에 지은 작품들을 모아 놓은 『취흘집(醉吃集)』 권1에 토산 방문 사실을 알려주는 시가 실려 있어[237] 「주흘옹몽기」의 창작 연대가 1609년임을 짐작케 한다.

작자에 따르면 오래간만에 만난 옛 친구 유숙과 유불도 삼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는데, 유숙은 자기주장을 역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유숙이 꿈에 검은 옷 입은 사람에게 이끌려 정체 모를 관부(官府)에 끌려갔는데, 그곳의 재판장으로부터 '우리 법을 배척한 자'라는 혐의를 받았으나, 이미 그곳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허균이 나타나서 유숙을 '선교(禪敎)를 배척하지 않은 자'라면서 감싸준 결과 방면되었다는 것이다.[238] 유숙이 이 꿈 이야기를 허균에게 전해주면서 '자네의 이름이 상청(上淸)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는 내용을 적고, 허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 「주흘옹몽기」의 골자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유숙의 꿈을 해석하는 허균의 논평으로, 이 대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

주흘옹이 아침에 제일 먼저 나를 방문하여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고는 또, "그대

---

235) 酒吃翁[柳淵叔]者, 二十年前, 余始交於場屋, 甚相押 … 頃歲同僚於西塞. 「酒吃翁夢記」, 『惺所覆瓿藁』 권6. 유숙은 유몽인의 조카이기도 하다. 보다 상세한 인적 사항에 관해서는 구본현, 「『顧氏畫譜』의 전래와 조선의 題畫詩」, 『규장각』 2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58쪽.

236) 是月十五日, 辭朝, 同僚弘文館校理柳潚淵叔. 「己酉西行紀」, 『惺所覆瓿藁』 권19.

237) 『醉吃集』 권1, 「歷入兎山衙中省親【家君宰兎山】」, 「到兎山, 簡答遠相」.

238) 『성소부부고』 권6, 「酒吃翁夢記」, "夢有皁衣引翁行甚疾, 乞免不顧, 至大官府, 戟衛甚嚴 … 俄闢東廊第一門, 微聞璜佩音, 有華陽巾, 白氅, 紺裳, 紅紗中單, 珠履, 紫鞓者, 升自東階, 立左楹, 顧睨翁而微哂, 仰睇之則余也. 殿上問曰, "是人引卿, 證其不謗法, 信否?" 曰, "渠雖未達禪教, 亦不能深排也." 殿上笑曰, "然則亟釋之.""

가 비록 인간 세상에 살지만 이름은 상청(上淸)에 기록되어 있네."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선가(仙家)와 불가(佛家) 두 가르침은 우리 유가에서는 말하지 않는 대상이네. 내가 마땅히 스스로 성명(誠明)의 학문을 다해서 세상을 다스려 평안하게 하는 업을 시행할 뿐, 굳이 시끄럽게 억지로 변척하지 않겠네. 내 일찍이 부처에게 아첨한다는 비판을 들었으나 내 어찌 불가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겠나? 배척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네. 세간 사람들은 그저 이 점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것뿐이네. 이 꿈도 우연이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역시 세속 사람 중 도를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계가 될 만하네."라 하고는 붓을 들어 그 꿈을 기록했다. 주흘옹은 술을 좋아하여 취할 때마다 말을 더듬고 똑바로 말을 못 한다. 그러므로 '주흘'이라고 자호(自號)했다고 한다.239)

우선 지적할 점은, 유숙이 꿈에 본 세계에 불교와 도교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숙이 꿈에 본 허균이 유숙을 변호할 때 "선교의 가르침에 통달하지는 못했지만 깊이 배척한 것도 아닙니다(渠雖未達禪敎, 亦不能深排也)."라고 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유숙이 끌려간 곳은 불교가 지배적인 세계인 것 같지만,240) 정작 깨어난 유숙이 하는 말을 보면 허균의 이름이 '상청'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도가적 낙원의 명칭을 언급하고 있다.241) 또한 유연숙이 꿈에 본 허균이 착용한 의상도 화양건이나 백창의 등으로 선비의 평복 또는 도사(道士)가 입는다는 옷을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42) 즉 허균의 글에 묘사된 이계의 모습은 불교나 도교 어느 한 교가 주도하는 세계라기보다, 두 교파에서 그리는 이계의 모습이 착종된 채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43)

---

239) 上同, "吃翁回朝首訪余道其詳, 且曰, "君雖在人世, 而名則錄於上淸也." 余曰, "仙釋二家, 吾儒所不道者. 吾當自盡誠明之學, 以措治平之業而已, 不必呶呶強與辨斥之也. 余嘗以佞佛見抨, 余豈業佛者也? 不過不謗而已. 世人顧不之察耳. 斯夢也亦偶然, 何足據信? 然亦可爲俗子不知道而強自爲知者之戒也. 因筆而識之. 翁喜酒, 醉則輒吃不能語, 故以自號云."

240) 그 밖에도 유숙이 끌려간 관부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승려로 그려져 있다. 上同, "有淡黃方袍小和尙四人, 從西階下指曰, '夫夫, 嘗闢我法者.'"

241) 도가의 유서(類書)인『雲笈七籤』권3에 따르면 세 종류의 玉淸, 上淸, 太淸의 삼청경(三淸境) 중 하나라고 소개된다.

242) 上同, "有華陽巾 , 白氅 , 紺裳 , 紅紗中單 , 珠履 , 紫鞓者升自東階, 立左楹, 顧睨翁而微哂, 仰睇之則余也." 화양건과 학창의를 함께 입는 복식은 왕우칭(王禹偁, 954~1001)의 「황주죽루기(黃州竹樓記)」에서부터 나타나는데, 17세기 조선에서 이러한 복식은 선비의 평복 또는 도사(道士)의 의복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민주, 「玉所 權燮의 鶴氅衣에 대한 연구 -『玉所稿』 소재 학창의 관계자료를 중심으로」,『복식문화연구』13(2), 服飾文化學會, 2005, 84~87쪽; 김다은·조우현, 「17-18세기 학창의(鶴氅衣)에 대한 연구 – 장만(張晩, 1566~1629) 유복본 초상화를 중심으로」,『복식』69(7), 한국복식학회, 2019, 26~28쪽.

243) 이러한 사례는 「남궁선생전」에서도 확인된다. 남궁두는 처음 속세를 도망쳐 유명 사찰을 전전하다가 도인 권 진인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 권 진인을 소개해 준 사람이 도사가 아닌

다음으로 작자는 유숙의 꿈이 ‘도를 모르면서 안다고 우기는 자들에게 경계가 된다’는 점에서는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저자의 이러한 자기 선언을 놓고, 선행연구들은 이를 허균이 유가적 입장에서 불교를 포용적으로 바라본 것이라는 절충적 해석을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244]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조선시대의 관료 문인 중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던 수많은 여타의 문인들과 허균의 차이를 흐리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주흘옹몽기」의 독해에서 주안점은 허균의 사상검증이 아니라, 허균이 “도”라고 부른 것이 무엇인가에 있다. 작자가 보기에 유숙의 꿈은 ‘스스로 도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기왕에 제기된 견해처럼, 유교와 불·도교 간 종주권이 바뀐 세계를 상상해 보라고 권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역시 허균을 이단자로 규정하는 전제가 드리워진 것으로, 문면상의 근거가 충분치 못한 면이 있다. 위 단락에서 보면 작자가 배척하고 있는 것은 유교를 종주로 삼는 사회이거나, 유교를 종주로 삼는 세계의 기초가 아니다. 작자의 관심은 사회 질서의 바람직한 방향보다 자기 자신이 유숙을 포함한 타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맞추어져 있고, 작자가 제기하는 비판의 초점은 유교나 불교 같은 특정한 사상 전통이 아니라 도를 아는 척하는 자들에 맞춰져 있다. 허균이 표방한 입장은, 일각에서 유가 신봉과 이교 배척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견해가 어떻게 도를 알고 모르는 문제와 관련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허균이 꿈 이해라는 사안과 관련해 도를 안다고 보았던 가상의 대화자를 내세워 놓은 글을 검토해 보겠다.

허균의 「몽해」는 꿈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기 견해를 덧붙여 놓은 글이다. 여기에 나오는 가상의 대화 상대의 견해에 대해 저자가 완전히 동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를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라 하여 긍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허균에게 있어서 ‘도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다음은 「몽해(夢解)」에 제시된 논변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단락을 나누고 번호를 붙여 제시한다.

① 성성옹이 젊었을 때는 꿈을 적게 꾸었는데 꾸는 꿈마다 들어맞았다. 장년이 되

젊은 승려였다고 묘사된다. 즉 관상 보는 법을 배운 승려의 인도에 의해 도가적 진인에게로 인도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소부부고』 권8, 「南宮先生傳」, “向太白山至宜寧野庵憩焉, 續有一僧至, 丰秀年少. (…) 有一小童迎曰, ‘問何方來’ 斗揖曰, ‘摠持來參仙師.’”

244) 이월령, 앞의 논문, 61~62쪽; 이문규, 앞의 책, 33쪽.

어서는 점차 꿈이 많아졌고 꿈도 점차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

혹자가 말하길, 꿈은 상(想)에서 생긴다. 그대가 젊었을 때는 욕심을 다스려서 마음이 담담하고 요동됨이 없었기에 상(想)이 적고 꿈도 적었던 것이다. 꿈이 적었기 때문에 꿈을 꾸면 그때마다 징험이 있었다. 장년이 되어서는 영예와 오욕, 득실에 관한 정념이 그대의 마음을 잠기게 하였으므로 상(想)이 불길처럼 치솟아 올라 꿈 역시 번다했으니, 꿈이 많았기 때문에 점차 맞지 않게 된 것이다.

[2] 나는 말했다. 그럴까? 그렇지 않다. 꿈이 많고 적고는 상(想)에 달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징험이 되고 응함이 있느냐의 문제는 상(想)에 달린 것이 아니다. 장차 무엇을 얻을 적에 꿈을 꾼 경우로는 축암(築巖)과 득령(得齡)의 경우가 있었고,[245] 장차 일어날 일을 꿈으로 꾼 것은 수우(豎牛)와 조사(曺社)가[246] 있었다. 장차 아프려면 꿈에서 뭘 먹고, 장차 노래하려면 꿈에서는 곡을 하고, 나는 새가 머리카락을 물고 있으면 날아가는 일을 꿈꾸는 것도[247] 다 과연 상(想)에서 연유했겠는가? 이는 마음이 신령하면 일이 부합하고, 정신이 맑으면 부합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어두운 가

---

245) 축암은 『서경(書經)』 「열명(說命)」에 나오는 고사로 은나라 고종이 꿈에 자신을 보필할 부열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천하에 두루 찾았는데 부암(傅巖)의 들에 거주하던 부열의 외양이 은 고종의 꿈에서 본 것과 매우 닮았다는 고사다(乃審厥象, 俾以形, 旁求于天下, 說, 築傅巖之野, 惟肖.). 득령은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나오는 고사로, 문왕이 무왕에게 무슨 꿈을 꾸었느냐고 하자 무왕은 '상제가 저에게 구령(九齡)을 주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왕이 해석하기를 '나는 1백세의 수명을 갖고 있고 너는 90세이니 너에게 3세를 더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문왕은 97세에 죽고 무왕은 93세에 죽었다는 내용이다. (文王謂武王曰, "女何夢矣?" 武王對曰, "夢帝與我九齡." 文王曰, "女以爲何也?" 武王曰, "西方有九國焉, 君王其終撫諸." 文王曰, "非也, 古者謂年齡, 齒亦齡也, 我百, 爾九十. 吾與爾三焉." 文王九十七乃終, 武王九十三而終.)

246) 수우(豎牛)는 『좌전(左傳)』에서 나오는 인물로, 수는 벼슬 이름이고, 우는 이름이다. 춘추시대 숙손표(叔孫豹)가, 꿈에 하늘이 몸을 꼭 눌러 어찌할 수 없는 순간, 돌아보니 얼굴이 까맣고 등은 구부정하고, 눈은 우묵하며 입은 돼지처럼 생긴 사람이 있으므로, '소야, 나를 도와다오.' 하여, 마침내 몸을 누르고 있는 하늘을 이겼다. 그 후 숙손표에게 과거 자신이 사통했던 여인이 찾아와 꿩을 바치자, 숙손표가 그녀를 통해 자기 아들을 불러 만나보니 꿈에 본 그 사람과 똑같이 생겼으므로, 이름을 묻지도 않고 대뜸 '소야' 하고 부르자, 그가 '예' 하고 대답하므로 드디어 그를 수(豎 소신(小臣))로 삼았다는 데서 온 말이다. 『左傳』 昭公 4年.
조사(曺社)도 『좌전』에 나온다. 춘추 시대 조(曹)나라 사람의 꿈에, 여러 군자들이 사궁(社宮-조나라 종묘의 담장)에 모여 조나라를 패망시킬 계획을 꾀하자, 조숙(曹叔) 진탁(振鐸 조나라의 개국조)이 '공손강(公孫彊)이 오기를 기다려서 하자.'고 청하니, 모두 이를 수용했다. 조나라 사람은 이 꿈을 깨고 나서 공손강이란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그때는 없었으므로, 자기 자식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공손강이 집정한다는 말을 들으면 너는 반드시 조나라를 떠나거라' 했는데, 후에 조백양(曹伯陽)이 즉위하여 사냥을 아주 좋아하자, 과연 공손강이란 자가 또 사냥을 좋아하여, 흰 기러기를 잡아다가 조백 양에게 바치고 총애를 받아, 국정을 도맡았다. 꿈꾼 자의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조나라를 떠났다. 이듬해(애공8년) 봄에 조나라는 망하고 조백 양과 공손강도 포로가 되었다가 죽었다.

247) 원문의 銜髮은 『列子』 「주목왕」에 나오는 "籍帶而寢則夢蛇 , 飛鳥銜髮則夢飛"을 가리킨다.

운데 서로 딱 맞게 부합하여 우연히 징험이 된 것이다. 어찌 꿈마다 일마다 억지로 부합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상과 념이 맑으면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니 맑고 맑으면 절로 하늘에 부합되고 하늘에 부합되면 온 기가 청허(淸虛)해지고, 현기(玄機)가 유동하여 길흉과 화복이 오는 것에 대해, 거울에 형체가 나타나듯 밝히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몽점이 생겨난 이유다.

3 혹자가 꿈은 상에서 나온다고 한 것은 사실에 가깝다.[248] 성성옹이 오랫동안 관직의 길에 있을 적에 먹을 것이 궁해서 귀인을 찾아가 군수 자리를 요청했었다. 그 요청한 바를 엿보고 바라던 때에 꿈을 꾸면 매번 얻었는데 얼마 후에는 꿈을 꿔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했다. 이는 정념에 요동된 것이 깊었기 때문이다. 변고를 겪은 이래로는 이익과 명예에 대한 생각을 끊고 뜻을 오로지 수련에 집중해서 도가의 경전과 비결을 많이 읽고 거기 마음을 두어 연구하자, 꿈을 꿀 때마다 자양진인(張伯端, 987~1082)과 해경자(白玉蟾, 1194~1229) 등 여러 진인(眞人)들을 만나 그들의 묘체를 들었으며, 심지어 정신이 옥경으로 날아가 오색 구름 속에서 난새와 학에 멍에하고 (천상의) 피리 소리를 들은 것이 여러 번이었다. 이것은 상에 부림을 받은 정도가 지극한 것이다. 혹자의 말이 이런 것을 가리켰다면 더욱 믿을 만했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천하의 모든 꿈은 상에 불과하다. 꿈이 적으면 그때마다 늘 맞았다는 말의 경우는 마음과 정신이 맑고 혼이 바깥으로 치달리지 않아 맑고 밝았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런 (적었던) 꿈이 반드시 인사에 징험이 되었던 것이고, 참으로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이다. 혹자는 그와 더불어 도를 이야기할 만하다.[249]

---

248) 기존 번역들에서는 3로 표시해 놓은 이 단락을 혹자가 다시 발언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승운, 『국역 성소부부고 Ⅱ』 1983, 218쪽; 정길수, 『나는 나의 법을 따르겠다』, 돌베개, 2012, 200~202쪽) 그러나 문맥상 허균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249) 『성소부부고』 권14, 「夢解」, "1 惺惺翁少時少夢, 夢輒應. 迨至長, 漸多夢, 夢漸不應. 或言, 夢生於想, 子少日慾念懲, 心澹然不動, 故想少而夢亦稀, 稀故輒驗焉. 及旣長, 寵辱得失之念, 汩其心, 故想(相)火熾炎, 而夢亦煩, 煩故漸不應焉. 2 余曰, 其然乎? 不然. 夢之多少, 或係於想, 至於驗應則不在於想. 將得而夢者, 有若築巖與得齡, 未來而夢者, 有若豎牛與曺社, 而將疾夢食, 將歌夢哭, 烏銜髮則飛者, 亦皆果由於想耶? 是不過心靈則事契, 神朗則符現, 適相合於眇冥之中, 偶然爲徵者也. 詎可夢夢事事強求其合也. 雖然, 想與念澄, 則心與神自朗, 澄朗則自合於天, 合於天則一氣淸虛, 玄機流動, 其吉凶休咎之來, 若形之現於鏡, 無不照了. 故能推測而知之, 此夢占之所以作也. 3 或者以爲想也, 殆近之矣. 翁久在官途, 困於食, 伺貴人乞郡, 方其覘窠而覬之也, 夢輒得之, 已而或得或不得, 是其動於念深矣. 自經變故來, 斷除利名, 一志於脩煉, 多讀道家經訣, 以潛心硏究, 則夢輒見紫陽海瓊諸眞, 聆其妙諦, 甚至神飛玉京, 駕鸞鶴聽(■)簫於五雲中者數數然. 是其役於想者至矣. 或者之言, 到此尤信焉. 4 然則擧天下之夢, 不出於想而已矣. 至於夢少則輒應云者, 心澄神朗而魂不馳於外, 澄且明, 故必徵於人事, 固有是理, 或者可與語道矣." (관물헌본에는 1의 "少日慾念懲" 구의 懲이 微로 되어 있고, 다음 구인 "心澹然不動" 구의 心자가 없다. 관물헌본은 같은 단락의 "驗應則不在於想"구의 在자도 빠져 있다.)

글의 결미에 해당하는 ④에서 작자는 세상의 모든 꿈은 상에서 나온다는 말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런 결론은 『사문유취(事文類聚)』에 실린 '꿈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에 관해 논함(論夢生於想)' 조에서 여동래(呂東萊, 呂祖謙, 1137~1181)가 내린 결론과 비슷하다.[250]

> 여동래가 말했다. 형체와 정신이 접했을 때 꿈을 꾸는 것에 대해 세상에서는 이를 상(想)에서 나왔다 하고, 형체와 정신이 접하지 않았을 때 꿈을 꾸는 것을 세상에서는 원인[因] 탓으로 돌린다. 원인이라는 설은 양으로 인해 말을 생각하게 되고 말을 통해 수레를 생각하게 되고, 수레를 통해 수레 덮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니, 참으로 양치는 일이 있으면 고취하는 일이나 곡개(曲蓋-의장용 일산)를 꿈꾸게 된다. 이는 비록 오늘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과 생각은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실로 이 설을 믿는다면, 생각이 없으면 원인이 없고 원인이 없으면 꿈이 없으니 온 천하의 꿈은 상(想)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숙손목이 수우의 외모에 대해 꿈꾼 것이 '우'가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조나라 사람이 공손강의 이름을 공손강이 나타나기 전에 꿈에 들었으니 이는 과연 상에서 나온 것일까? 원인에서 나온 것일까? 비록 악광을 저승에서 불러와도, 분명 이 논의에 대해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251]

여조겸의 설인즉, 꿈이 생기는 이유가 원인이 있어서라느니 앞서서 그와 관련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느니 설이 분분하지만 결국 원인도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이고 보면 세상의 모든 꿈은 상에서 나오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조겸은 꿈이 상에서 나온다는 결론에 그치지 않고, 모든 꿈이 생각에서 나온 것이겠느냐를 물음으로써, 결론을 유보하였다. 이는 허균의 「몽해」와 정 반대되는 내용 배치이다. 허균은 ②에서 숙손목이나 조나라 사람의 꿈은 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이 맑은 사람의 경우 우연히 징험이 된 것이라 하여 그러한 몽조(夢兆)가 징험되는 일은 대부분의 꿈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

250) 이 점은 하지영의 논문에서 처음 지적되었다. 하지영, 「18-19세기 꿈의 형상화와 자기표현 방식 -記夢류 산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108쪽.

251) 東萊呂氏曰, 形神相接而夢者, 世歸之想; 形神不接而夢者, 世歸之因. 因之說曰因羊而念馬, 因馬而念車, 因車而念盖, 固有牧羊而夢鼓吹曲盖者矣. 是雖非今日之想, 實因於前日之想, 故因與想一說也. 信如是說, 無想則無因, 無因則無夢, 擧天下之夢, 不出於想而已矣. 然叔孫穆夢豎牛之貌於牛未至之前, 曹人夢公彊之名於强未生之前, 是果出於想乎? 果出於因乎? 雖復起樂廣於九原, 吾知其未必能判是議也.

했다. 그런 다음 ③에서는 꿈 해석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꿈 일반이 아닌 자기가 꾸었던 꿈으로 좁힌 후, ④에 와서는 천하의 모든 꿈은 생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몽해」에 제기된 주장은 모든 꿈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하면서도 미리 했던 생각에서 나올 리 없는 예지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를 첨예하게 다루지 않은 채, '우연히 징험이 되는 이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미래의 일을 꿈에서 미리 아는 이치가 있다고 긍정하는 선에서 문제를 봉합해 놓았다.

「몽해」의 ①에 나오는 대화는 『사문유취』에도 초록되어 있으나 그 원류는 『세설신어』 「문학」(4.14)에 나오는 위개(衛玠)와 악령(樂令)의 대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위개가 악령에게 꿈에 관해 묻자 악령은 '꿈이란 상(想)'이라 대답한다. 위개가 형체와 정신[形神]이 접하지 않은 동안에 꿈을 꾸는데 어떻게 꿈이 상(想)일 수 있는가 하고 묻자 악령은 '꿈이란 원인(因)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니, 꿈속에서 수레를 타고 쥐구멍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쇠 절구공이를 씹어 먹었다는 경우가 없는 것은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꿈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준다.[252]

『세설신어』나 『사문유취』 어느 쪽이든, 「몽해」에서 도출하는 결론인, 세상의 모든 꿈은 상(想)의 소산이라는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는 잉여를 갖고 있다. 『세설신어』에서는 위개와 악광의 대화 이후, 위개가 이 문제를 더 궁리하다가 병에 걸린 이야기가 같은 칙 내에 이어지고 있고, 『사문유취』도 미리 관련된 소재를 생각한 결과 그 소재가 꿈에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를 열거하여, 모든 꿈이 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반면 허균의 글에서는 관심사가 자신의 꿈으로 한정되어 있는 동시에, 미래의 일을 꿈에서 미리 보았던 것이 실제 사실로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꿈이 징험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며, 현재 자신이 꾸고 있는 진인과 옥경에 관한 꿈은 그 자신이 도가 경전을 탐독한 결과라는 진단을 내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상과 같은 꿈에 대한 논의들이 갖는 특색은 동시대에 제기된 꿈에 관한 견해와 비교해 볼 때 뚜렷해진다.[253] Zeitlin은 『요재지이』(1740)가 명말 사대부들의

---

252) 衛玠總角時問樂令夢, 樂云, "是想." 衛曰, "形神所不接而夢, 豈是想邪?" 樂云, "因也. 未嘗夢乘車入鼠穴, 擣齏噉鐵杵, 皆無想無因故也."
한편 『사문유취』에 나오는 대화는 위개와 악광 간의 말이 다소 착종되어 있다. 衛玠問樂令夢云, 是想. 樂曰, 形神不接豈是想耶? 衛曰, 因也. 樂曰, 未嘗夢乘車入鼠穴, 持虀啖鐵杵, 皆無想無因故也. 衛思不得成病, 樂為解析, 即瘥. 樂嘆曰, 此兒胸中, 必無膏肓之疾.

253) 명말 사대부들의 꿈 담론과 『몽림현해(夢林玄解)』와 같은 서적 출간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개괄로 다음을 참조. Vance, Brigid E. Textualizing Dreams in a Late Ming Dream Encyclopedia.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2012, pp.2-7.

꿈에 관련한 열렬한 관심과 꿈 관련 저작물이 대거 출판되었던 가정-만력 연간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이라 보면서 명말 사대부들의 꿈 담론은 두 가지 계열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254] 하나는 꿈을 미래에 일어날 일의 예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꿈을 꿈꾸는 자가 생각한 것의 발현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전자를 예지몽, 후자를 환상몽으로 부르겠다. 양자는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 모순되는 입장을 가진다는 것이 Zeitlin의 견해다. 꿈을 예지몽의 관점에서 보는 쪽에서는 꿈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꿈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는 해석이 중요한 반면, 환상몽의 입장에서는 꿈에서 무엇을 봤느냐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된다.

허균과 동시대 조선에서 예지몽적 입장, 즉 꿈이 징조로서 갖는 성격에 주목하는 태도를 뚜렷이 보여준 사례로는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글 「몽조(夢兆)」를 들 수 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꿈에서 경복궁 연추문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애초에 궁궐터가 너무 낮았으니 새로 지을 때는 산 가까이에 조금 더 높이 지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 후 다음 해에 결국 궁이 불탔고, 그때 유성룡은 지인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서 이미 궁궐을 다시 지을 일을 논의했으니 궁궐이 복구될 징조이고, 적병은 결국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그리고 결국 적병은 물러가고 왕가는 한양으로 복귀했다는 이야기를 적어놓았다.[255]

---

254) Judith Zeitlin, *Historian of the Strange: Pu Songling and the Chinese Classical Ta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136-138. Zeitlin은 명대 출판시장에서 당대(唐代)의 꿈 관련 내러티브들이 재출간된 현상에 지적하면서, 당시 드라마나 허구적 서사물(fiction)뿐 아니라 학자들의 시나 산문, 그림 등에서 꿈이라는 소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내력에 주목하였다. 그는 명대 학자들의 꿈 관련 기록의 폭증이 당대 출판시장의 유행과 상호 상승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대 사대부들의 꿈 관련 기록을 17세기 오트만 제국 및 동시기 미국 퀘이커 교도의 꿈 관련 기록과 비교 견지에서 접근한 Lynn A. Struve는 이들 세 문화권의 꿈이 대체로 ① 각성 상태의 생각의 반영 ② 악마적 힘에 의해 추동된 결과 ③ 영적인 자기 수양이나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삼분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분류한다. 하지만 명말 사대부의 꿈을 본격 분석함에 있어서는 예지적 꿈과 진단적 꿈으로 이분하고 있는 바, Zeitlin의 분류 방식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Lynn A. Struve, *The Dreaming Mind and the End of the Ming World*,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9, pp.4-9, 47-67.)
반면 『주례(周禮)』의 육몽(六夢)식 구분법에 착안해, 고대 중국에서 조선에 이르는 꿈의 갈래를 예지몽 대 꿈꾼 사람의 내면의 반영물로 보는 경우로 다음을 참조. 심경호, 『안평(安平)』, 알마출판사, 2018, 231~232쪽. 해당 글에서는 허균의 「주흘옹몽기」 역시 허균 자신의 내면의 반영으로 본다. 그러나 이 견해는 「주흘옹몽기」에 기록된 꿈이 허균 자신의 꿈이 아닌 것으로 설정된 점을 간과한 점에서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255) 유성룡, 『서애집』 권15, 「夢兆」, "夢中得未來事, 未知何理, 乃人心本虛靈, 事之兆朕先見者也. 余平生所夢多驗, 凡身所經歷處, 太半夢中所見. 萬曆辛卯(1591)冬, 偶得一夢, 景福宮延秋門

여기서 유성룡은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 그리고 결과라고 하는 삼중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꿈에서 본 내용의 간략한 제시, 꿈에서 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해석, 그런 해석이 결과적으로 맞았는가 하는 문제가 글의 주안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꿈에서 본 광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에는 관심이 적다.[256]

이수광 역시 자신의 문집에 '기몽(記夢)'이란 제목을 붙인 시를 다수 남겼으며, 『지봉유설』에 꿈에 관한 논의를 개진한 바 있다. 양신이 제기한바, 무정이 부열을 등용할 때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꿈에서 부열을 보았다는 식으로 꿈을 빙자해서 거짓말한 것이라는 설에 대해 자신의 사견으로 성인을 엿본 데 불과하다고 일축한 후, 성인(聖人)은 예지가 가능했고, 꿈을 통해 미래 일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는 이치가 더러 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그리고는 조선조 이래 꿈에서 본 징조가 현실에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사례들을 여럿 나열하고는 각 사례마다 '이상하다[異哉]', '괴이하다[怪矣]' 또는 '기이하다[亦奇]' 같은 평으로 마무리해 놓았다.[257] 이 역시 꿈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서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만 유성룡의 글에 비해서는 꿈에서 어떤 광경을 보았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에 대한 서술이 유성룡의 글에 비해서는 대폭 확대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반면 꿈과 관련해 징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이론적 논의를 펼친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나, 꿈에서 본 광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꿈을 징조로 보는 관점을 비교적 적게 취한 채로 꿈은 '상(想)의 발현'이라는 측면에 주목한 사례로는 안평대군 이용(李瑢, 1418~1453)의 「몽유도원기(夢遊桃源記)」 정도가 전해지고 있을 따름이다.[258]

灰燼, 余徘徊其下. 傍有一人語余曰, "此宮初卜地太下, 今若改作, 當稍高近山." 余驚覺, 滿身流汗, 不敢語人. 明年壬辰四月, 車駕離宮, 三闕皆灰燼, 賊兵遍滿八道, 衆疑恢復無望. 余始於親識中語此夢, 且曰, "夢中已議改作, 此乃恢復之兆. 賊無足畏也." 旣而賊兵果敗退, 車駕還都."

256) 이와 유사하게 꿈에서 본 내용을 징조로 파악하여 그 해석에 주안점을 두는 글로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의 「夢作」이 있다. 『梧里集』 권1 「夢作 [幷敍癸酉]」, "余自少以善夢稱, 老後神精散亂, 夢亦無驗. 但於十月一日夜夢, 吟古賦花落重門, 燕巢空堂之句, 暗黑中開眼, 分明見落花巢燕. 覺後花香猶在手矣. 又去夜睡未覺間, 輒又吟前句, 而仍自吟成絶句曰, (중략) 此詩之意, 未知何謂. 古亦有詩讖, 或正言之, 或反言之. 余思之, 計以年月, 則春風老者, 是三月, 蓋謂三月當死也. 過則明年有閏月, 春風老者, 亦三月也.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者, 是古人之詩也. 不以此爲心而强解死日, 亦曲矣. 因自笑之."

257) 이수광, 『지봉유설』 권15, 신형부(身形部) 「몽매(夢寐)」조(條).

258) 몽유도원기 원문 및 분석에 대해서는 안휘준,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1418~1453))의 인물됨과 문화적 기여」, 『美術史學硏究』 300, 한국미술사학회, 2018; 고연희, 「'安平大君'의 夢遊桃源, 그 착상과 결실 -「몽유도원기」와 '몽유도원도 제찬'을 통해 본 安平大君-」, 『세종조의 문화융성: 안평대군 탄생 600주년 기념 학술대회/안평대군과 몽유도원도』 자료집, 2018. 몽유도원기와 관련된 저술로, 꿈은 '상(想)의 발현'이라는 측면에 주목

허균은 꿈이 징조로 기능한다고 하는 당시 사회의 뿌리 깊은 믿음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주된 관심은 징조로서의 측면보다는 꿈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느냐 하는 데 있었다. 허균의 그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몽기」이다. 「몽기」에는 꿈을 꾼 날짜가 1609년 4월 1일 밤이라고 되어 있다. 「몽기」는 여타 기(記) 작품처럼 『성소부부고』의 6~7권에 수록되지 않고 권19의 「기유서행기(己酉西行紀)」에 이어지는 「잡기(雜記)」의 하위 항목으로 단독 수록되었다. 이는 명 사신 유용(劉用) 접반의 일로 관서 지방을 방문했던 당시에 「몽기」가 지어졌음을 드러내 주는 편차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몽기」의 골자인즉 꿈속에 작자가 선계를 방문해서 봉지(封地)와 선서(仙書)를 하사받고, 자신이 전생에 선계의 일원이었던 시절에 살던 거처를 방문하고 당시 부리던 마두(魔頭)들과 상봉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각론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이 작품을 허구 서사 창작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가운데,[259] 작품의 핵심을 작자가 경험한 현실의 불행감을 선계 묘사를 통해 보상받으려 했다는 식으로 파악하였다.[260] 이러한 견해들은 대개 「몽기」 말미에 작자가 현세에서 겪는 불행의 원인을 전생의 탓으로 규정한 대목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현세에의 불만을 선계라고 하는 낭만적인 상상 속 세계를 그리는 작업을 통해 해소한다는 것은 허균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계를 소재로 한 거의 모든 작품에 두루 해당되는 것이어서 설명력이 크지 않다. 허균이 그린 선계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골자를 추려 구조적인 특징을 살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에 구사된 어휘의 전고나 화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몽기」 내용을 보이고 그 구조와 내용을 검토해 보려 한다. 「몽기」는 대략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①은 입몽하여 천제의 궁전에 들어가 도가 경전 세 권을 전수받은 일, ②는 천제 앞에서 물러 나와 소련자의 인도를 받아 작자 자신이 전생에 살았다고 하는 서재를 구경한 일, ③은 전생에 자신이 부리던 마두 5인과 허균이 혹애했다고 하는 위성군의 시녀 총 6인을 대면한 일, ④는 각몽의 과정을 서술했다. 우선 그 처음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 박팽년의 「夢桃源圖序」(『朴先生遺稿』) 정도를 볼 수 있다.

259) 이월령, 앞의 논문, 65~68쪽; 이문규, 앞의 책, 36쪽; 양승목, 앞의 논문, 94~95쪽.

260) 강민경, 『조선중기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2007, 147쪽. 다만 양승목은 허균이 자신의 정체를 신선으로 정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품의 창작 의도를 자기 과시라고 본다. 양승목, 앞의 논문, 95쪽.

[1] ① 기유년(1609)에 천자께서 우리 전하를 책봉하셔서 왕위를 잇게 하고자 사례감 태감 유공이 조서를 받들고 동국에 왔다. 나는 외람되이 도감관이 되어서 강가에서 사신단을 맞이하느라 그곳에 10여 일을 머물렀다. 4월 1일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깊이 잠들기 전이었다. 풍채 좋고 키 큰 두 사람이 머리에는 금색과 자색으로 수놓은 각진 관을 썼고 몸에는 꽃무늬 비단실을 수놓은 옷을 입고 둥근 옥이 달린 사자 무늬 띠를 띠고서 청색 실을 드리우고 비단 신발을 신고 손에는 금색 깃발을 든 사람이 와서 안내하기를 "천제께서 당신에게 봉래산의 식양(息壤)을 하사하셨으니, 천문(天門)에 나아가 조서를 받들라." 했다.[261]

[1] ② 그들은 마침내 나를 장곡거(長轂車)에 태우고, 눈을 감으라 했다. 귓가에는 바람 소리가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들렸다. 조금 있다가 그들은 "눈을 뜨시오"라고 했다. 문득 눈앞에 커다란 은 궁궐이 보이는데 대낮처럼 밝고, 그 가운데 큰 궁전이 있는데 진주와 찬란한 보석으로 꾸민 모습이 영롱하여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거기엔 '영소보전'이라는 네 글자의 큰 글씨 현판이 붙어 있었다. 소아(素娥) 수천 명이 운거(雲裾)로 가리듯이 줄지어 모시고 있는데, 그들은 윤건(綸巾)과 학창의를 입고 있었다. 계단을 끼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수백 명이었고, 흰 난새와 자색 봉황들이 경수요화(瓊樹瑤花)가 있는 곳을 날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전상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소련(素練-흰 명주)으로 된 옷을 입었고 수염은 났으나 젊은 사람이었다. 그는 눈빛이 번개처럼 빛나는데, 평소 나를 알았던 것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부 선조께서는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일찍이 노닐던 상계를 알아보지 못하시오?" 이어서 옥 상자에 든 책 3권을 주었다. 책마다 금글자로 표지가 되어 있었으니, 첫 권은 『옥청금사비록』, 둘째 권은 『구천뇌부영부』, 셋째 권은 『오악진형도』였다. 모두 자색 꽃무늬 비단으로 싸여 있었다. 내가 네 번 절하고 돌아서 송아지 닮은 수염 많고 흰옷 입은 사람에게 그 책들을 주어서 그에게 두 손으로 받들게 했다.[262]

[2] ① 잠깐 있다가 섬돌 위에서 생황과 퉁소가 번갈아 울리고 맑디맑은 오운(五雲)

---

261) 『성소부부고』 권19, 「夢記」, "己酉歲, 天子冊我殿下, 纘承藩寶, 司禮監太監劉公寔奉詔東來. 不佞忝爲都監官, 迓于江上, 留十許日. 四月之吉夜, 就枕未熟, 有二人頎而長, 頂戴嵌金紫方冠, 身被繡花錦襖, 綰圓玉獅帶, 而垂靑綬, 履以絲絇, 手持金幡, 來導曰, "帝命錫汝蓬萊山之息壤, 其就天門膺詔.""

262) 上同, "遂置不佞於長轂車, 令閉目, 耳邊聞風響甚駛. 食頃, 曰, "可開目." 倏見大銀闕, 晃朗如晝, 中有大殿, 飾以珠貝明璣, 玲瓏不可定觀. 榜以靈霄寶殿四大字. 素娥數千人翳雲裾而列侍, 綸巾鶴氅, 夾陛立者亦數百, 而素鸞紫鳳, 翱翔於瓊樹瑤花之間.
俄有自殿上傳言者, 被素練, 胡而短, 眼爛爛如電, 若相識者笑謂曰, "紫府仙曺, 困於飢火, 不省上界曾游耶?" 仍授以琅函玉笈之書三卷, 卷卷標以金字, 一曰『玉淸金笥祕錄』, 二曰『九天雷府靈符』, 三曰『五嶽眞形圖』. 俱以紫花紋羅帕之. 不佞四拜受, 而遞與犢形多髭白衣者, 令以雙手捧持."

의 바깥에서 난새와 학이 날개 치며 춤을 추었다. 조금 있다가 소련을 입은 사람이 천제의 명으로 나를 이끌므로, 동쪽 문으로 따라 들어가, 옆으로 난 흰색의 규문[竇 - 홀 모양으로 된 문 옆의 출입구]으로 들어가서는 어두운 회랑 속을 걸어갔다. 한참 후에 한 별원(別院)에 다다랐는데, 그곳은 조용하고 툭 트인 곳이었다. 맑은 물이 주위를 흐르고 패다수(貝多樹: 三花)가 심겨 있었다. 소헌(小軒)에는 '봉래도산(蓬萊道山)'이란 문패가 달려 있었다. 소련 입은 그 사람이 작은 방문을 열고는 나에게 들여다보라고 하기에 들여다보니, 상아로 만든 침대에 산호 베개가 놓여 있고 용 수염으로 만든 자리가 깔려 있으며 물소 뿔로 자리를 눌러놓았으며, 금빛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향불이 명멸하고 있었다. 옥으로 만든 한 책상엔『황정경』한 권이 펼쳐져 있고 고요하여 사람 기척이 없었다.263)

2 ① 소련자는 문을 닫으면서, "선조(仙曹)께서 전에 살던 곳입니다. 40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이곳 하루는 인간 세상에서의 일 년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했다. 나는 놀라서[惝怳] 한참 넋을 잃고 있었다. 소련자가 말했다. "노형께서는 벽하원군을 모시던 분으로, 봉래치수도대감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원(北院)의 여러 마두(魔頭)들과 장난치시고 상원부인의 시녀였던 위성군(魏城君)을 몹시 사랑하셔서 직분을 게을리하셨습니다. 천제께서 노하셔서 노형을 남염한산주(南閻漢山州)에 귀양보내시고 여러 마귀들을 축출하시면서 그들의 복을 빼앗으셨으며, 위성군은 원교(原嶠)로 쫓아내시고 그를 모시던 자들 백 명을 창류(倡流)로 몰아내시고는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형께서 속세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풍류와 아치가 당대를 빛내고 있기는 하나 일부러 운명을 곤궁하게 하여 군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여러 마두들을 불러 일일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264)

「몽해」의 관점에서 「몽기」를 보면 작자가 평소 생각했던 바의 소산으로서 자기 꿈을 기록한 것이다. 「몽해」에서 몽조론의 입장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꿈을 징조로 이해하는 태도보다는 꿈을 생각의 소산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몽기」의 내용을 보면, 이 꿈이 갖는 징조로서의 측면을 완

263) 上同, "俄而笙簫交奏於陛上, 泠泠於五雲表, 鸞鶴皆鼓翼以舞. 少選, 被素練者, 以帝命引不佞, 從東偏門入, 徑穿粉竇, 闇行回廊中, 良久出到一別院, 位置閑靚爽豁, 環以玉流, 樹以三花, 小軒中榜曰蓬萊道山. 素練者開小室, 令不佞窺之, 見牙床上安珊瑚枕, 藉以龍鬚, 鎭以通犀, 垂銷金幕, 香灺半滅, 琳几一張, 展黃庭一卷, 悄無人聲."

264) 上同, "素練者手自闔之曰, "仙曹舊居, 別來四十日矣. 以日計之, 當人間一年. 猶不能醒耶?" 不佞惝怳自失者久之, 素練者曰, "老兄不是碧霞元君侍曺, 主蓬萊治水都大監事, 因與北院諸魔頭相狎戲, 而酷愛上元侍兒魏成君, 怠棄職事, 帝怒之, 謫老兄於南閻漢山州, 黜群魔而奪其福, 放成君於原嶠, 驅其侍者百人於倡流, 限滿令回. 故藉老兄降在塵寰, 雖風流雅致, 照映當世, 而故窮其命以窘之. 兄若不信, 吾當致群魔, 一一以証之.""

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서술 초점이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환상몽의 측면에 치중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몽기」에 서술한 내용들을 '꿈에서 보았다'는 것을 빙자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몽기」 내용을 두고 자신의 전적인 창조물임을 공언하는 태도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일각에서는 이 작품이 꿈을 빙자한 작자의 허구 창조가 발현된 사례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는 논의에서는 작자가 실제로 작품에 서술한 바와 같은 꿈을 꾸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따지는데, 그런 문제는 진위를 가릴 수도 없거니와, 작자가 참말을 했건 거짓말을 했건 작품 분석의 향방을 좌우할 사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작자가 '이 모든 것을 꿈에서 봤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조선 사대부들이 남긴 꿈 관련 기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관점은, 꿈을 내면의 표현이나 무의식의 발현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꿈이 작자의 내면이나 무의식을 표현한 것인지 검증할 수 없다는 점 외에도, 작자가 이런 작품을 놓고 '자기 의식의 소산'임을 굳이 부인한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거짓된 태도라는 소박한 설명을 취하게 된다는 난점이 있다. 달리 말해 작자가 '꿈'이라고 하는 현상에 가탁했을 때 갖게 되는 미묘한 입장, 즉 '비자발적'으로 꿈속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는 태도의 의미를 음미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의 관점에서 허균의 '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눈여겨 볼만 한 점은 작자가 속한 시기의 문화적 산물로서의 특성이다. 「몽기」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그 누구도 위와 같은 식의 꿈을 꿀 일도 없겠고, 혹은 위와 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을 만한 소재들이 등장한다. 꿈속에 도착한 '영소보전'이나 소련복 입은 남자의 존재, 선서(仙書)의 명칭이나 마두의 이름 등은 작자가 속해 있던 문화적 환경을 통해 평소에 흡수해 놓았던 것을, 작가 자신의 개성에 따라 취사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작자가 꾼 꿈에 저와 같은 소재들이 등장한 것이건, 애초에 꾸지 않은 꿈을 지어내서 기록하는 것이건, 작자 자신의 의식적인 층위를 통해 글로 정리된 결과물을 보고 있는 현재의 독자로서는, 꿈꾸는 과정에서든, 꿈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든 개입되었을 당대의 문화적 차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물 묘사를 보면, 「몽기」에 등장하는 소련복 입은 남자는 선계 또는 저승 세계를 안내해 주는 사람으로, 이와 유사한 몽기류 어느 작품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이기에 분석의 초점이 되기에 부족하다.[265] 허균의 「몽기」를 특별하

게 만드는 것은 마두들과의 만남 대목으로, 허균의 「몽기」에 대한 그간의 분석에서 여태껏 가장 간과되어 온 장면이다. 작자가 꿈속에 보았다고 하는 대안적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점이 작자가 겪은 현실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일종의 대리만족이나 자기 위안의 수단이라고만 이해하게 되면 사실 마두들을 소환하는 장면은 없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작자는 마두 소환 장면을 상당한 비중으로 삽입해 놓았다. 이러한 잉여적인 부분이야말로 설명을 요하는 문제적인 부분이다.

3 ① 그리고 즉시 옥여의를 가지고 오른쪽 작은 문을 치면서 말했다. "풍도산 자금원 인환 무상마두 신행태보는 나오너라!"

조금 후에 흑은모(黑隱帽)를 쓰고 붉은색 수를 놓은 바지 입은 사람이 나왔는데, 눈은 툭 튀어나오고 뾰쪽하며 키는 크되 수염이 없으며 걸음걸이가 아주 빠른 놈이 꿇어앉아 공손히 대답하였다.

② 또 여의를 가지고 왼쪽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광상동주 초신원 육압대도통 팔비나타는 나오너라."

조금 후에 구슬 아홉 개로 장식한 홍말액[九珠紅抹額]을 쓰고 흑색 금색으로 된 담비 저고리(貂襦)를 입은, 쥐처럼 생긴 눈으로 돼지처럼 쳐다보며 성근 수염을 늘어뜨리고 큰 코에 배가 불룩한 놈이 나와 꿇어앉아 공손히 대답하였다.

③ 또 남쪽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연화동교 태산 좌도관 육원 대마두 적발귀는 나오너라."

조금 후에 비어청화포(飛魚靑花袍)를 입고 손에는 철차도(鐵叉刀)를 쥐고 모자도 안 쓰고 신도 안 신은 네모진 얼굴에 뺨에는 빨간 수염이 난 놈이 나와 꿇어앉았다.

④ 또 북쪽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무당진군(의) 좌하 귀관 사명금랑 백일서는 나오너라." 조금 뒤에 각진 옥대(玉帶)를 띠고 자색 꽃무늬의 짧은 웃옷을 입고 쌍각건(雙角巾)을 쓴, 얼굴은 푸르고 키는 작으며 귀가 상투처럼 위로 뾰족하게 올린 조그만 사람이 나와 꿇어앉았다.

⑤ 또 여의를 가지고 소헌 북쪽에 있는 운모 병풍을 깨부수니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화양건을 쓰고 연창(練氅)을 입고는 띠도 띠지 않고 신도 안 신었으나 풍운이 맑게 빼어나고 얼굴은 검고 눈은 희며 윗입술을 드러낸 자로 꿇어앉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뺨이 노랗고 눈이 쑥 들어가고 이빨 두 개가 길게 튀어나와 모

265) 가령 이수광의 기몽시 서문에 나오는 승려들도 소련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말을 한다. 가령 다음을 참조. 『지봉집』 권7, 「記夢【幷序】」"癸丑九月十七日夜, 夢入一宮. 室制極壯麗, 庭除甚寬敞. 有緇髡百千輩, 列立如簇, 見余歡喜, 引余至堂中, 相與攢手作禮, 極其敬尊. 仍進一器茶湯曰, '此般若湯也.' 余飮之, 香味甚好, 覺神精爽快異常. 庭前置一爐, 香氣馥郁滿堂, 醒後了了可記. 噫! 余名教中人也, 所夢非其所想, 豈信道不專, 幻念猶在耶? 將宿緣未泯, 靈境斯現耶?"

습이 늙은이 같으며 치견루금패(緇肩鏤金牌)를 두르고 오랑캐 말로 떠들고 웃는 놈과, 얼굴이 빨갛고 수염이 적으며 살이 쪘으며 술 취한 듯한 모양을 하고 화란중단(花襴中單)을 입었으며 필탁(筆橐)을 차고 벼루를 받들고서 몸을 기울여 소매를 터는 놈 등 마두(魔頭) 둘이 따르고 있었다.

소련자는 깔깔 웃으면서, "조주(祖州) 권진군(權眞君)은 치수시조(治水侍曹)의 만유(嫚遊)를 바로잡지 못하여 함께 귀양을 가게 된 것인데 어찌하여 새태세(賽太歲)와 운리금강(雲裏金剛)을 데리고 왔는가?" 했다.

⑥ 이어, "성군의 시자(侍者)인 광한궁 봉록여사 모대충(廣寒宮捧籙女史母大蟲)은 어디 있는가?" 하고 말하니 북쪽 방의 두 짝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며 한 부인이 나와 서는데 자하피(紫霞帔)를 쓰고 위에 수놓은 녹색 저고리를 입고 밑에는 청색 노을 무늬 치마를 입었으며 구슬로 구장(九章) 무늬를 놓은 구슬 신[瓊舄]을 신고 몸은 날씬한 데 키는 크며 얼굴이 뾰족하고 황갈색 반점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나와 섰다.[266]

4 나는 한동안 놀랍고 의아스러웠다. 6명은 얼굴을 맞대고 쳐다만 볼 뿐, 그들도 감히 말을 못 했다. 한참 있다가 소련자는 붉은 깃발 하나를 쥐고 나를 불러서 남문(南門)을 지나왔던 길로 해서 궁전 아래에 이르러 말했다.

"노형께서는 인간의 맛을 남김없이 잘 깨달으셨겠지요? 상제의 명령으로 원래 백일의 액(厄)이 있으니, 타고난 정기(元陽)를 잘 보호하여 건강을 지키고[調劑水火] 남모르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뒷날 60일의 기한이 되기를 기다리면 운병(雲輧 가벼운 수레)이 저절로 맞으러 내려갈 것입니다. 세상을 피해 숨어서 수련할 곳으로 식양(息壤)이 저기에 있으니, 행실이 완성되고 공이 이루어지면 어찌 꼭 백일을 채운 뒤에만 오르겠습니까. 노력하고 힘쓰십시오."

이어서 그는 궁전의 동쪽 문을 밀치고 나가서 문 왼쪽에 걸려 있는 큰 종을 한 번 쳤다. 요란한 종소리에 깨었더니 한바탕 꿈이었다. 아! 그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급히 촛불을 켜고 그 일을 적어 훗날의 증험을 기다린다.[267]

---

266) 上同, "① 卽以玉如意, 擊右偏小門曰, "酆都山 紫金院 人寰 無上魔頭 神行太保 出來!" 俄有戴黑隱帽, 被綉紅襠子, 而目凸而尖, 身長無胡, 步躡輕捷者. 跽而唱喏. ② 又以如意, 叩左偏門曰, "廣桑東洲 招神院 六押大都統 八臂那吒 出來." 俄有九珠紅抹額, 被黑金貂襦, 而鼠目猪視, 垂疏胡, 豸鼻皤腹者, 跽而唱喏. ③ 又叩南偏門曰, "延和東嶠 泰山 左都管 六院 大魔頭 赤髮鬼 出來." 俄有穿飛魚靑花袍, 手執鐵叉刀, 露頂跣足, 而面方赤鬚于偎者, 出而跽. ④ 又叩北偏門曰, "武當眞君 座下鬼官 司命禁郎 白日鼠 出來." 俄有繫方玉帶, 披紫花短袍, 頂雙角巾, 而面靑身短, 耳鬚藐小者, 出而跽. ⑤ 又以如意, 擊碎軒北雲母屛風, 從屛後闖出一人, 華陽巾, 練氅, 不帶不履, 風韻瀏脩, 而面黑眼白, 露上脣者立不跪. 傍有頰黃眼窅, 鑿雙齒, 形如老官, 而被緇肩鏤金牌, 言笑侏離者, 面朱微髭, 豐肉帶醉容, 服花襴中單, 佩筆橐捧瓦硯, 而傾身拂袖者, 二魔頭隨之. 素練者噱曰, "祖洲權眞君, 不能規治水侍曺之嫚游, 乃幷有此謫耶. 何乃携賽太歲、雲裏金剛來爲?" ⑥ 因曰, "成君侍者, 廣寒宮 捧籙女史 母大蟲, 奚在?" 北閤雙扉, 呀然洞開, 有一婦戴紫霞帔, 上服繡綠襦, 下施翠霞文裙, 穿嵌珠九章瓊舄, 而體瘦且長, 面尖雀斑者, 笑而出立."

267) 上同, "不佞驚訝移時, 六人者面面相覷, 亦不敢發語. 已而, 素練者持一絳節招不佞, 由南門而從

③-1을 보면 동서남북에서 허균이 전생에 부렸다는 마두 4인이 나오고 북쪽에서는 권 진군이 데리고 온 2인의 마두, 그리고 전생에 허균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위성군이 시녀 모대충이 등장한다. '마두(魔頭)'란 문맥에 따라 악귀나 악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자신의 사념을 지칭하는 은유로 쓰이는 등 다양한 용례가 있지만, 「몽기」에 등장하는 이계 속 인물 형상으로서의 마두는 『서유기』에 빈번히 등장하는 요괴라는 의미의 마두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268]

마두 6인과 모대충의 이름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런 이름이 『수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별명이라는 점이다. 소련복 입은 남자가 제일 먼저 소환한 4인을 비롯해 권 진군이 데리고 온 '운리금강'이나 '새태세'는 모두 이들은 수호전에 등장한다. 「몽기」에 등장하는 마두 6인과 모대충은 『수호전』에서도 심부름꾼이나 허드렛일을 하는 인물로 묘사되며, 줄거리의 전개를 이끌어가는 장수가 아니다. 가령 신행태보는 『수호전』 후반부에서 양산박의 두령들의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하는 심부름꾼 비슷한 존재로 묘사되며, 적발귀나 백일서는 『수호전』 전반에 등장하여 의적 활동을 돕는 인물로 그려지고, 후반부에서도 이렇다 할 업적이 없이 주요 장수들을 보조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주변적 인물들이다. 마두에 대한 묘사를 보면 주로 외적인 생김새와 의상에 주목하는 묘사가 드러난 가운데, 신행태보는 빨리 걷는다거나, 적발귀는 붉은 수염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호전』 원작에 묘사된 각 캐릭터의 특징이 어느 정도 유지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호전』의 서사 전개에서 이들 인물에게 부여된 캐릭터가 상당히 탈각된 경우도 있는데 모대충이 대표적이다. 『수호전』에서는 주막을 운영하거나 전투 및 첩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여전사적 존재로 묘사되는 모대충(일명 고대수)는 위의 「몽기」에서는 그저 아름다운 외모와 신중한 분위기를 가진 여성으로 탈바꿈되어 있다.

그런데 마두 6인과 권 진군, 모대충이 등장한 장면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사뭇 유희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등장한 권 진군은 소련복 입은 남자가 보기에는 난데없이 자신의 수하 2인을 데리고 나타났으며, 그것은 또한

故道抵殿下, 謂曰, "老兄諳盡人間滋味耶? 帝命元有百日之厄, 善固元陽, 調劑水火, 勿陰行險, 勿循時嗜好, 以俟後來六十之期, 則雲輧自當下迎矣. 巖棲修煉之所, 息壤在彼, 行成功圓, 詎必滿百日而後上昇也, 努力勉旃." 因推出殿東門, 左懸大鍾, 撞一聲. 訇然而悟, 乃是一夢也. 噫! 其眞耶? 亦妄耶? 亟呼燭疏其事, 以待他日之驗云.

268) 예를 들어 『서유기』 제34회에 나오는 "只見那兩個魔頭坐在那裡飮酒 , 小妖朝上跪下."에서와 같이 우두머리 요괴를 형상화한 것과 같은 어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회차에서 魔頭는 졸개 요괴를 지칭하는 '小妖'와 상대되는 의미로 거듭 쓰이고 있다.

깔깔 웃을만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권 진군이 데리고 나타난 마두 2인도 오랑캐 말로 떠들면서 웃고 있는가 하면, 위성군의 시녀라는 모대충도 웃으며 나와 섰다고 표현되어 있다. 마두들의 이름이 환기하는 양산박 강도의 엽기적 행적과는 달리 「몽기」의 마두들은 이름만 같을 뿐 상급자의 소환에 고분고분 응하는 순종적인 존재들로 그려져 있다.

그럼에도 『수호전』의 등장인물에게 붙여진 별명과 동일한 별명을 작품 속에 차용한 점이나, 허균 자신을 그런 도적들의 별명과 같은 별명을 가진 마두들의 상전으로 묘사했다고 할 때, 독자가 받아들인 바는 어떠했던가? 가령 이식과 같은 독자는 전반적으로 허균을 혹독하게 매도하는 가운데 허균이 친구들 간에 수호전에 나오는 도적들의 별명을 서로 붙여주면서 놀았다고 비난하였다.[269] 이식의 발언은 허균 사후 가해진 비난의 일부이기에 이것이 허균 생전의 「몽기」 독자가 보였을 반응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용례에서 정조대에 이르면 『수호전』 속 문장이 역모를 암시하는 말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지만,[270] 그보다 이른 숙종 대의 기록에서는 무과(武科) 행사의 거행 방식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활용된 바가 있어,[271] 『수호전』 자체가 역모나 혁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단순 등치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272]

기록으로 남은 독자의 반응과 별개로 『수호전』 속 인물의 이름들을 꿈속 자신의 부하들에게 붙여준 작자의 의도는 표현상의 새로움을 추구한 흔적으로 생각된다. 17세기에는 아직 조선에서 『수호전』이 널리 읽히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때,[273] 『수호전』에 나오는 인물명을 차용하되 그 인물들에게 원전의 맥락과는 상이한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한 것은, 소수이나마 『수호전』을 읽은 독자들로 하여

---

269) 『택당집』 권15, 「散錄」, "世傳作水滸傳人, 三代聾啞, 受其報應, 爲盜賊尊其書也. 許筠, 朴燁等, 好其書, 以其賊將別名, 各占爲號以相謔. 筠又作洪吉同傳, 以擬水滸, 其徒徐羊甲, 沈友英等, 躬蹈其行, 一村蘸粉, 筠亦叛誅, 此甚於聾啞之報也."

270) 『정조실록』 9년 2월 29일 기유 5번째 기사"替天行道四字, 卽《水滸志》宋江之言也."

271) 『숙종실록』 33년 2월 13일 병신 1번째 기사, "知事李寅燁啓曰: "今番觀武才, 以騎槍交戰落點云 (중략) " 上曰: "今若去其鋒刃, 一人衣白, 一人衣黑, 交馬之後, 以白黑決勝負則好矣." 寅燁曰: "此事見於《水滸傳》, 當依此爲之矣.""

272) 그 외에도 홍만종, 이덕무, 이용휴, 유만주 등이 모두 『수호전』이 지닌 문학성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하고 있는 점을 보면, 조선 후기 문인들이 『수호전』이라는 작품 자체를 간단히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상에 거론한 문인들의 『수호전』 언급에 대해서는 민관동, 「『水滸傳』의 國內 受容에 관한 硏究」, 『중국소설논총』 8, 중국소설연구회, 1998, 189~190쪽. 유만주의 『수호전』 이해에 대해서는 김하라, 「兪晩柱의 『水滸傳』 讀法」, 『한국한문학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409~422쪽.

273) 유춘동, 「『수호전』 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 『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214~228쪽.

금 전거를 환기하게 하고 표현상의 신선함을 추구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274]

마두들의 등장이 묘사됨에 따라, 새로운 세계에 직면해 놀라고 있던 분위기는 명랑한 분위기로 일신되고 있다. 위에 등장하는 마두들은 「대힐자」에 등장하는 작자의 '못난' 친구들과 외모상 유사하게 서술되어 있다.[275] 작자는 이러한 별난 인물들을 기꺼이 자주 묘사함과 동시에 자신을 그들과 가까이에 있는 존재로 그림으로써, 자신 역시 어느 정도는 주변부적 존재라는 감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몽기」에 나타난 공간이다.[276] 「몽기」에서 작중 화자인 허균이 처음 인도된 곳은 '영소보전'으로, 천상의 궁전과 같은 성대한 공간에 대한 목격담은 다른 기몽류 작품에도 흔히 등장한다.[277] 허균의 「몽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식양'이라는 지명과 전생에 자신이 이용했던 방에 대한 묘사이다. 「몽기」에서 작자에게 '식양이 하사되었다'는 메시지는 작품의 수미를 연결해 주는 말로 쓰였다. 서두에서 식양은 천제가 하사한 땅의 지명인 것으로 제시된다.[278] 전통적인 문헌상의 전고로 보면 '식양'은 산해경에 나오는 천상의 땅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몽기」 1단락의 '식양'도 문맥상 천상의 땅을 가리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

274) 이 시기 허균이 접할 수 있었던 『수호전』 판본은 이비본(李批本, 1592년, 100회본), 천도외신본(天都外臣本, 1589년), 간본(簡本, 16세기 중반 이후) 중 하나일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천도외신본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각 이본의 명칭과 특징에 대해서는 이혜순, 「『水滸傳』 板本考」, 『중국문학』 14, 한국중국학회, 1973. 허균이 본 수호전 판본을 이상 3종으로 압축한 견해는 이혜순, 『수호전 연구』, 정음사, 1985, 265쪽. 허균이 본 판본을 천도외신본으로 추정한 견해는 김정욱, 「허균이 본 『수호전』 판본 고찰」,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20~30쪽. 다만 이들 논자는 모두 허균이 『수호전』을 보고 『홍길동전』 창작에 활용하였을 것이라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어, 허균의 홍길동전 작자설을 준신하고 있다. 허균의 『홍길동전』 작자 진위 논란과 별개로, 허균이 『수호전』을 접한 점은 「몽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75) 『성소부부고』 권12, 「對詰者」 "有黧其面, 有赤其須. 赤者詼舌, 黧者提壺. 有一短漢, 其鼻如狐. 有眼其眇, 有睫其朱. 日哄其堂, 歌呼嗚嗚."

276) 이 시기 문인들이 서술한 꿈속의 공간에 주목한 논의로, 안대회,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조선 후기 산문가의 記文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안세현,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權燮(1671-1759) 夢記와 柳慶種(1714-1784)의 意園誌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7, 한문고전연구학회, 2013.

277) 『지봉집』 권2, 「記夢」, "丙辰二月十一日, 余方患疾, 夢至一處, 樓閣高爽, 如在大山之頂, 下有雲霧, 莫辨其際."; 『白沙集』 별집 권4, 「記夢 二」, "辛丑正月十一日夢 (중략) 平生蓄眼, 未嘗見如許境界, 仍問亭主, 曰梧陰別墅."

278)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강릉의 옛 지명이라고 보기도 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문규, 앞의 책, 17쪽.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4단락에서 소련복 입은 사람이 말하는 "息壤在彼"라는 말이 『사기』의 고사를 환기한다는 점이다. 「저리자·감무열전(樗里子甘茂列傳)」에서 "식양이 저기에 있다"는 말은 이방인으로서 진(秦)나라에 들어와 외국 원정을 추진했던 감무가 진나라 왕더러 자신에 대한 신임을 유지하기로 했던 약속의 징표인 식양을 잊지 말라는 맥락에서 하는 발언으로 성어가 되어 쓰이는 표현이다. 4단락에서도 천상에서 할당받은 땅인 식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취지로 해당 어구가 사용되었다. 이는 옛 언약을 잊지 말라는 원전의 맥락을 활용한 펀(pun)이라고 여겨진다. 원전에서는 해당 구절이 진나라 왕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감무가 식양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절박한 당부로 제시되는 반면, 여기서는 '작자 당신의 진정한 안식처가 천상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위안의 메시지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 방에 대한 묘사는 자신만의 공간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몽기」의 묘사에 따르면 '영소보전'[279]에서 선서(仙書)를 하사받은 허균은 소련복 입은 남자의 인도에 따라 영소보전에서 출발하여 어두운 회랑을 따라 한참을 걸어간 후에 한적한 별원(別院)에 마련되어 있는, '봉래도산'이라는 문패가 달린 자신의 거처를 보게 된다. 이런 묘사는 앞서 논한 마두 소환 장면과 마찬가지로, 작자가 전생에 선계의 사람이었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굳이 필요치 않은 잉여이다. 그럼에도 작자는 굳이 자기 거처로 가는 장면과 거처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첨입시켜 놓은 것이다. 여기 묘사된 자기 방의 특징인즉, 공적인 공간으로 묘사된 천계의 궁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다는 점, 방의 가구와 분위기가 특정되고 있다는 점, 책상에 펼쳐진 책의 이름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일견 단순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우선 공적인 곳으로부터 별개의 장소로 구획된 자기만의 방이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별원'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이러한 공간 구획은 이곳이 타인의 영역으로부터 구분된 자기만의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간 묘사는 중당(中唐) 시기 이후 발생했다고 지적되는 '엘리트 문화에서 은둔의 의미 변화'와 조응한다.

중문학자 스티븐 오웬의 연구에 따르면, 중당 시기를 전후한 은둔 개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중당 시기 이전의 은둔지는 「북산이문」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자기만의 소유지로 구획된 곳이 아니라 야생의 자연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런 은둔

279) 영소보전은 『서유기』 제1회, 제4회 등에서 상제가 신하가 되는 신선[仙卿]들을 만나보는 공간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행위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조정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은둔자의 의도였다. 그러나 중당 이후에 문학작품에 서술되는 은둔 장소는 야생이 아닌 소규모 정원, 즉 구획이 쳐진 은둔자 자신만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와 같이 은둔자의 사적 영역으로서의 은둔지는, 그 사적 영역이 왕토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이 남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 보호된 자신만의 공간으로 성격이 변화했음을 뜻한다.[280]

이렇듯 사적 영역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사소하고 구체적인 기물들의 의미가 중요하게 자각되는 변화를 동반하였다. 또한 그러한 사적 공간에 거하는 은둔자는 그곳에 자신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사물들, 즉 가구나 기물, 서적을 배치함으로써 사적 공간을 자신의 정체성을 전시하는 무대로 삼았다.[281]

「몽기」에서도 봉래도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소헌(小軒)은 영소보전으로부터 떨어진 공간이면서 소련복 입은 남자에게는 알려져 있는, 어느 정도는 공개된 공간이다. 그렇게 부분적으로나마 공개되어 있기에 해당 공간의 소유주의 취향과 정체성이 그 공간에 전시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계 속 자기 방의 묘사는, 선계와 같은 초월적 세계를 희구하는 산문에서도 역시 한정의 정취가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상아 침대와 산호 베개, 용수염으로 된 자리와 물소 뿔 같은 오브제는 작자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이런 가구들은 작품 속 허균과 소련복 입은 남자 두 사람 모두에게 전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물들을 관조하는 미학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런 미적 체험에 요구되는 것이 외부 세계와 구분되는 구획된 공간이라는 점으로, 이는 9세기 초 이후 중국에서 발달한 전통, 즉 구획된 가정 공간 내에 미학적 경험을 전시하는 당나라 전통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

---

280) Stephen Owen, *The End of the Chinese 'Middle Ages' Essays in Mid-Tang Literary Cul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6-33. Owen이 말하는바, 개인의 소유(possession)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주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이론의 원류는 Stephen Greenblatt이 16-17세기 영국 르네상스 시기 문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Self-fashioning 논의에서 유래한 것이다. Greenblatt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예로 들면서 유토피아의 인민들은 사적 소유를 부정당하기 때문에, 이웃과 다를 바 없는 옷을 입고 이웃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결과, 개인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고 주장하였다. Stephen Greenblatt,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2005 reprinted). pp.36-40.

281) 이상에 정리한 내용은 다음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Stephen Owen. *The End of the Chinese 'Middle Ages' Essays in Mid-Tang Literary Cul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p.86-89.

은 연극적 자기 자각은 사적 영역의 확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당나라 문인들이 즐겨 읊었던 미니어처 정원 조성과 조응하는 면이 있다.[282] 미니어처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미니어처가 자연을 재현하는 재현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 속의 화자는 작자의 자아를 재현하는 재현물로서 분리되게 된다. 그리하여 작자 스스로도 작품 속에 재현된 화자, 즉 자기 자신이 환각(illusion)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는 미학적 거리가 확보되게 되는 것이다.

「몽기」에 묘사된 자기만의 공간은 『성소부부고』 내에 있는 선계를 소재로 한 작품군에서 돌출한 것이 아니다. 이덕무가 허균 척독의 백미로 들었던 편지, 즉 이나옹에게 자기 정원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가구와 기물의 배치를 설정하고 허균 자신이 그 가운데 어떤 의상을 착용한 채 어떤 포즈로 그려져야 하는가를 서술한 편지에서 이미 자신만의 공간 속을 상상하고 자신의 모습을 전시한 전력이 있다.[283] 그렇게 볼 때 「몽기」와 같이 선취가 드러나는 작품들은 허균의 문학 세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한정의 구가를 기대한 작품들에서 일관되게 추구해온 관심사가 연속적으로 발전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몽기」에 묘사한 자기 방은 고요하여 사람 기척이 없다고 서술되는데, 허균의 글에서 사람 기척이 없는 조용한 곳이란 대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남궁선생전」에도 남궁두가 속세를 떠나 제일 먼저 찾아간 사찰에서, 그곳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떠났다는 구절이 있다.[284]

자연스러움이 연출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몽기」의 설정 속에서 작자는 40일간 자기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그 집을 방금전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침구와 독서물이 배치되어 있는 데다 향불이 명멸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이런 모습은 40일간 주인이 집을 비운 방의 모습으로는 자연스럽지 않다.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평소 이런 식으로 가구를 배치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공적 전시의 모습에 가깝다. 요컨대 일종의 가장된 자연스러움으로 여겨진다. 즉 자연스러운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서 보여주는 광경처럼 보이는 소헌의 모습은 실제로는 연출된 자연스러움의 성격이 크다.

「몽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공간 묘사는 사적 영역을 점유한 자로서의 작품 속

---

282) 중당 시기 문인들이 자기만의 작은 정원을 조성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행위, 및 그러한 활동을 문필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조성해 간 데 대한 논의로, Owen, 위의 글, pp.89-102.

283) 『성소부부고』 권21, 「與李懶翁(丁未正月)」.

284) 『성소부부고』 권8, 「南宮先生傳」, "斗向頭流山, 居雙溪月餘, 厭名刹緇俗所湊集棄, 向太白山."

화자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몽기」 속의 인물과 공간을 살펴본 위에서 독자는 다시 궁극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선계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작자는 어떤 문제에 답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몽기」의 주된 관심은 작자 자신의 정체이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여기서 자신이 선계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견지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말미에 나오는 종소리는 꿈과 각몽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며, 그리하여 각몽 상태의 작자는 꿈에 본 내용을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훗날의 징험을 관망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불확실한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사실로 확신하지도 않는 중간에 걸쳐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허구성이라는 말로 무엇을 지칭해 왔는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허균이 초월 세계를 묘사한 작품군에 대해 종래에는 이를 '허구 창작'이라는 차원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허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논의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은가 한다. 「몽기」에 대해서도 각론의 차이는 있으나, 이것이 허균의 허구 창작이라고 본 견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 결론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허구'란 무엇이며, 중세에 허구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탐구가 소략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하에서는 「몽기」를 허균의 허구 창작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때 어떤 점을 개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려 한다.

그간 「몽기」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 작품에서 묘사된 내용이 작자가 꾸며낸 사실이 아닌 내용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주종을 이루어왔다. 「몽기」의 내용이 '가짜' 진술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허균이 실제로 꿈에서 본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허균이 실제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몽기」의 내용은 작자가 꾸며낸 내용으로 보는 시각을 취한 것이 대부분이다.[285] 필자도 그러한 시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문제는 논자들이 '허구성'을 운위할 때, 그 개념을 있음직하지 않은 것을 지칭하는 정도의 범박한 수준에서 쓰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운위하는 '허구'는 조선시대의 글쓰기로부터 이어져 오는 '가공허구지설(架空虛構之說)'이라고 할 때의 부정적 가치판단이 동반된 개념으로서의 허구가 아니라, 분석 용어로서 현대에 쓰이는 문학 용어 'fiction'의 번역어로서의 '허구'를 지칭한다.[286] 따라서

285) 이문규 앞의 책, 이월령, 앞이 논문, 양승목. 앞의 논문.

fabrication이나 fantasy, untruth, falsehood 등 한국어에서 공히 '허구'로 번역될 수 있는 인접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개념어로서의 영어 단어를 음차하여 이하에서는 '픽션'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그간 한문학 연구에서는 '허구성(fictionality)'이라는 개념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성격을 갖는 개념인 것처럼 취급하여, '픽셔널리티'라는 개념이 세계 문학적 차원에서 갖는 시공간적 특수성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287] 그 결과 후술할 바와 같이 18~19세기 서구 소설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픽션 개념을 별다른 비판 없이 추수한 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 진전되어 온 픽셔널리티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보면, 논자마다 허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으나, '허구성'이 초역사적이거나 보편적 개념이라는 생각은 거의 지지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픽셔널리티의 개념 규정에 대한 최근의 논쟁의 시발점은 18세기 영국소설 연구자인 캐서린 갤러거로, 그는 픽셔널리티가 시공간적으로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8세기 영국 소설의 등장과 더불어 출현한 국지적인 것이며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288] 이 과정에서 그는 픽셔널리티와 근대성 간의 유사성에 주목하면서, 소설적 픽션을 즐길 수 있는 특정한 읽기 방식에 익숙해진 독자 집단의 출현이 픽셔널리티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픽션 비슷한 장르들은,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소설과 달리, 대놓고 '정직한 못 믿을 이야기'임을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 픽션과 질적으로 판이하다고 보았다. 가령 우화 같은 장르를 읽을 때, 저자도 독자도 그 이야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의 영역을 위협하거나 인식적인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갤러거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전근대 픽션의 기저에 깔린 관념은 사실의 반대 개념은 기만이라는 것이다. 때문

---

286) 본고에서 염두에 둔 'fiction'개념은 서구에서 16-17세기에 나타나서 하나의 산문 장르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허구의 산문(prose fiction)'이라 하는 시공간적으로 특수한 픽션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Paul Salzman, "Theories of Prose fiction in England: 1558-1700," in *The Cambridge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vol.3*. Edited by Glyn P. Nort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295-304; Glyn P. Norton, "Theories of Prose fiction in sixteenth-century France," Ibid., pp.305-313.

287) 예외적으로, '사실과 허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본고의 관심과 유사한 사안을 탐색한 사례로 『학산한언』에 '기이(奇異)'의 차원과 현실의 차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룬 연구가 있다. 이강옥, 「초기 야담집 『학산한언』의 서사지향 연구 -현실지향과 비현실지향」,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288) Catherine Gallagher, "The rise of fictionality." *The novel 1*. Edited by Franco Moretti,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336-363.

에 우화와 같은 전근대적 픽션은 저자와 독자 간에 '이것은 가짜 이야기'라는 점이 합의되어 있어서 우화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니지만 독자를 기만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취지의 논의로 이해된다.

반면 갤러거의 관점에서 근대 소설은 전근대의 우화와는 달리 독자 집단의 태도가 일변한 사태를 전제로 성립한다. 근대 소설에는 일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나, 이런 인물들은 현실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지시 대상이 없는 인물들이다. 근대 소설의 독자들은 이러한 소설 속 세계를 저자가 꾸며낸 것이라고 인지한 점에서는 전근대 우화의 독자들과 같지만, 소설이 표방하는 '그럴듯함'의 차원을 적극적으로 향유한다는 점에서 우화의 독자들과는 다르다. 이러한 독자들의 태도는 신용 경제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통화(currency)나 유가 증권처럼, 액면가를 표시한 종이 자체가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럼에도 통화나 증권이 일정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합의한 사회에서 비로소 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등장한 근대 소설에서는 소설 속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믿는 태도가 향유의 핵심이 되기에, 전근대의 우화가 보여주는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가설해 본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다른 접근법을 요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허균의 「몽기」 역시 작자가 꿈속의 내용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소설에서 구현하고 있는 픽셔널리티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거리가 먼 작품이 된다.

픽셔널리티의 등장을 근대성 개념과 결부시켜 파악한 갤러거의 견해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이견이 제기되었으나, 그중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견해는 서구 중세 문학 연구자들의 반론이다. 중세사가 줄리 올레만스키는 갤러거의 주장이 막스 베버 이래 몇몇 논자들이 주창한 '탈 주술화' 테제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289] 올레만스키에 따르면 주술화의 시기였던 중세로부터 탈주술화의 시기인 근대로 나아간다는 식의 관점은 근대를 이해하는 여러 관점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근대를 탈주술화의 시기로 봄으로써 중세를 주술화의 시기로 규정하는 시각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그는 각 시대나 사회마다 권력 구조에 의하여 지식과 진리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하는 미셸 푸코의 '진리의 레짐(Regimes of truth)' 개념을 수용한 위에서, 중세와 근대는 각각 사실(fact)로 받

289) Julie Orlemanski, "Who Has Fiction? Modernity, Fictionality, and the Middle Ages." *New Literary History* 50(2) (2019): 145-170.

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너머를 말하는 픽션과 사실 진술 간의 경계는 시대마다 다르게 규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올레만스키의 반박은 갤러거가 픽셔널리티를 18세기 영국소설과 그 인접 장르들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사실상 픽셔널리티를 근대성의 하나로만 보게 하는 점, 중세에 등장한 픽션 작품들에 등장하는 픽셔널리티를 간과하게 되는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주로 중세의 픽션 작품들을 해명하는데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제 작품 해석에 구체적인 실마리를 주는 면이 적다.

작품 분석의 차원에서 중세적 허구성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제시한 논자는 미셸 칸스로, 그는 중세 독자가 접한 허구성을 '맨드빌의 여행기'라는 작품을 통해 구명하고자 했다.[290] 칸스는 올레만스키와 마찬가지로 푸코적 인식론을 받아들여 중세 독자들이 근대 독자와는 상이한 카테고리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즉 중세 독자는 사실과 거짓을 판별하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 독자들에게는 사실과 거짓 사이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연장선에서 칸스는 맨드빌의 여행기에 등장하는 이국의 마법사나, 진기한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사실이나 가짜의 영역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이야기의 저자들은 이러한 중간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들을 즐길 수 있는 독자들을 상대로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구 중세에도 '중세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예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갤러거가 말한 바와 같이 픽셔널리티가 서구 근대라는 특정한 시공간의 환경과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관념, 즉 픽셔널리티가 갖는 역사적 특수성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서구 중세에 나타난 독특한 픽셔널리티에까지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공헌하였다.

이상과 같은 서구의 픽셔널리티에 대한 논쟁들은 허균의 「몽기」에 드러나는 진술들이 갖는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를 준다. 허균이 살았던 시대를 중세라 할 것인지 근대라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것대로 별도의 논의를 요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허균의 시대를 현대와는 이질적인 과거라는 의미에서 편의상 '중세'라고 부른다면, 「몽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픽셔널리티 역시 중세적 픽셔널리티, 또는 조선 중기적 픽셔널리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편차 순서에

290) Michelle Karnes, "The possibilities of medieval fiction." *New Literary History* 51(1) (2020): 209-228.

서도 볼 수 있듯, 「몽기」는 일반적인 기(記)의 일부로서 편차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유서행기」의 마지막에 부록처럼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문집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즉 허균은 이 작품에 다른 정격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문집에 실릴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인 기문 속에 삽입되기는 어려운 애매한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가 되는 것은 명말 사대부들 사이에서 급증하였던 꿈 관련 기록으로, 중국 사대부들도 꿈을 경험의 일부로서 수용하면서도, 각성 시에 겪는 일상적인 경험과는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꿈이 갖는 경계에 걸쳐 있는 모호한 성격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291] 이로 볼 때 17세기에 한문을 사용하는 작자들 사이에서 꿈이라는 소재는 사실 대 거짓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설정되고 있다기보다는 반신반의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달리 말해, 허균의 인식(perception)에서 설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사실 대 거짓이 아니라, 사실, 반(半) 사실, 거짓, 이 삼종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라야 오늘날에 소설이라고 부르는 장르들은 갤러거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합의된 사실' 속의 세계를 향유하는 이른바 근대적 픽셔널리티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인지될 수 있다. 그러한 현대의 태도와 달리 「몽기」의 결미에서 적시되고 있는바, "요란한 종소리에 깨었더니 한바탕 꿈이었다. 아! 그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급히 촛불을 켜고 그 일을 적어 훗날의 증험을 기다린다."라고 한 것은 꿈과 각몽 상태의 분명한 구분을 보여주는 한편, 꿈에 본 것을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관점을 보여준다.[292] 그런 태도는 「주흘옹몽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에서 허균은 "이 꿈도 우연이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어지는 장에서 살펴볼 작품들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로, 사실과 거짓의 이분법적 카테고리가 허균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않으며, 사실과 거짓 사이 회색지대의 영역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293]

결국 「몽기」나 「주흘옹몽기」를 통해서 허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에

---

291) Lynn A. Struve, *Ibid.*, pp.16-26.

292) 꿈과 각몽 상태를 구분해 주는 종소리가 환기되는 점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흐릿하게 처리한 후대의 『요재지이』 서술과도 성격이 다름을 보여준다.

293) 한편 허균의 몽기를 우언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수호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작품 속 인물 이름을 붙이는 데 사용한 데서 '정직한 우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관점은 「몽기」에 보이는 바, 저자가 자신의 꿈의 사실성 문제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차원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사상한다는 점에서 지지하기 어렵다.

논자들이 지적해 온 것과 같이 '현실에서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리만족으로서 비현실 세계로의 도피'라든가, '자신을 신선이라 주장하는 자기 과시' 내지 과대망상이 아니다. 이는 문필 활동을 통해 사실과 거짓 양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불확실한 영역의 탐색이며,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주흘옹몽기」나 「몽기」에서 시도된 사실도 거짓도 아닌, 그러나 일상적인 경험은 아닌 성격을 지니는 꿈 체험의 기록은 중세적 허구성의 가능성을 탐색해 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런 몽중 체험 속에서도 서술의 초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정체에 대한 문제이며, 천상에 마련된 이계(異界)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마련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정의 이상을 추구했던 저작들에서 드러났던 작자의 지향이 허구성을 띤 작품들에서도 일관되게 지향되고 있는 면모라고 생각된다.

2) 신선 담론과 인물 이미지의 활용

허균 산문에 나타나는 픽셔널리티의 중심부에 있는 것은 신선 담론이다. 신선을 비롯한 귀신이나 영혼의 등장 같은 초자연적인 소재들이, 한정의 구가를 희구하는 산문과 더불어 허균 산문의 나머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허균의 신선관, 즉 그가 신선 담론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담론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살펴보고, 허균의 산문에서 신선이 어떻게 표상되는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한다. 또한 신선이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점에 착안하여, 신선과 유사한 귀신이나 혼령 등 일상적 경험 세계에서 만나기 어려운 존재를 소재로 삼은 글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여러 신선의 모습을 직접 열거한 작품 속에서 신선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겠다.

고래의 신선 담론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는 신선의 존재 여부와, 신선이 있다면 어떻게 보통 사람이 신선이 되는가, 즉 '신선 추구[求仙]'의 문제이다. 우선 신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허균의 입장이 나타난 글을 보겠다.

> 세간에서 선(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수련(修煉)과 화후(火候)의 법을 말하면서 선뜻 "나는 날아오를 수 있다." "나는 태(胎)를 이룰 수 있다." "나는 길이 살아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 아득한 수백 년 동안에 그런 자를 본 자는 거의 없었으니, 이는 보신을 위한 말[衛足]이다. 전에 남궁두를 호남에서 보았는데, 나이

> 아흔인데도 용모가 노쇠하지 않았으므로 그 까닭을 물어보니 바로 때를 순히 하고 음식을 조절하는 것뿐이었으니, 어찌 연단하는 공부는 손을 대기가 쉽지 않지만,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앉았고 하는 때에 보양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효과를 가장 빨리 거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중략) [송천옹이] 이 책을 지은 것은 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체를 돌보기 위해서이다. 이 몸을 능히 돌본다면 그것을 통해 정신을 보존하고, 혼백을 단련하고 승천하여 죽지 않을 수 있으리니, 처음에는 얕은 것 같아도 결국 다 지극한 도에 들어가게 되는 법이다. 그 공용이 어찌 크지 않은가?[294] (중략) 천옹은 "진실로 여기에 전심하면 승천하고 죽지 않는 효력을 즉시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머리 조아려 공경히 예하였다.

위에서 '보신을 위한 말'이라고 번역한 대목의 원문은 "衛足"으로, 『좌전』에서 '아욱[葵菜]이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 잎을 무성하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취지의 말에서 온 단어이다.[295] 전거상의 문맥을 감안하면, "衛足"이 들어간 문장은 '실제로 신선이 있기는 하지만 신선이 제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296] 이 글은 천옹(天翁)으로 지칭되는 송구(宋耉)[297]가 지었다는 저작 『섭생월찬』에 붙인 서문이기에, 부득이하게 신선술을 긍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이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잘 알

---

294) 『성소부부고』 권4, 「攝生月纂序」, "世之談仙者, 動必稱修煉火候之法, 輒曰吾可以飛昇, 吾可以成胎, 吾可以長生不死, 寥寥數百年, 覩者無幾, 言玆衛足也. 曾見南宮斗於湖南, 九十而貌不衰, 詢之, 乃順時節食而已. 豈煉丹功夫下手未易, 而飮食起居之際, 保頤攝養者, 切近於日用, 故收效最速耶? 是未可知也. (중략) 是編之作, 非爲道也, 而爲攝身也. 是身能攝, 則可與存神, 可與鍊魄, 可與飛昇不死, 初若淺近, 而終則偕入於至道, 其功用不亦鉅哉. (중략) 翁曰, 苟能專心於此, 則飛昇不死, 可立致也. 余稽首和南云."

295) 『左傳』 성공(成公) 17년 조에 제나라 대부 포견(鮑牽)이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받자, 이에 대해 공자가 "포장자(鮑莊子, 포견을 가리킴)의 지혜는 규채(葵菜)만도 못하다"고 했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규채는 잎만 먹고 뿌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 '아욱'을 뜻하는 것으로, 두예는 이를 '해바라기'로 풀이했으나 잘못이라는 견해가 있다. (신동준 역, 『춘추좌전』 2, 한길사, 126쪽)

296) 기존 번역에서는 '衛足'을 '거짓말'로 번역하였다. 그 경우 세간에서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신선의 존재에 대해서 허균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단어 자체의 어의와도 맞지 않고 「섭생월찬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신선술을 긍정한 논조와도 모순되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297) 천옹(天翁)의 이름이 송구라는 점은 『石洲集』 권1, 「四懷詩」 註에 의거한 것이다. (정민, 「16,7세기 遊仙詩의 자료개관과 출현동인」, 『한국 도교사상의 이해』, 아세아문화사, 1990, 124쪽) 송구는 실록 기사에 공조좌랑 등을 지낸 기록이 보이나, 방목류 문헌에서는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선조실록』 39년 12월 25일 기미 2번째 기사) 『白沙集』 권4, 「故通訓大夫行渭原郡守崔公墓表」에 따르면 4남 1녀를 두었고, 이 딸이 조위한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宋子大全』 권165, 「玄谷趙公神道碑銘」). 이덕형의 『竹窓閑話』에 따르면 송구의 조부가 안주 목사를 지낸 적이 있다고 하며, 그 밖의 가계 내력은 상세하지 않다.

려진 것처럼 그는 남궁두가 만났다는 진인의 실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하였다.

> 허균은 논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가는 숭상해도 도가는 숭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신라 에서 조선에 이르는 수천 년 동안 득도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을 한 명도 듣지 못했으니, 과연 그 말이 옳은 걸까? (중략) 우리나라는 궁벽한 바다 밖 외진 데 있어, 선문자나 안기생과 같은 신선이 드물었는데 그런 이인이 깊은 산중에 수백 수천 년 동안 살아 있다가 남궁 선생이 한 번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이다. 누가 '궁벽한 땅이라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도에 통달하면 신선이고 도에 몽매하면 보통 사람이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는 숭상해도 도가는 숭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근거 없이 듣는 대로 믿어버리는 태도[耳食]와 무엇이 다른가?[298]

위 글은 「남궁선생전」의 논찬부 일부인데, 한반도에서는 도가를 숭상하지 않았다는 명제를 비판하는 것이 이 대목의 수미를 이루고 있다. 이른바 남궁 선생이 만났다는 스승의 존재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면 부정할 수 없으므로, 동국에서 도가를 숭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는 논변을 전개하고 있다. 근거 없이 믿는 태도를 지칭한 대목의 원문은 "耳食無異"인데, 이것은 『사기(史記)』「육국연표(六國年表)」에서 진(秦) 왕조의 존속 기간이 짧다는 것만 보고 진나라에 대해 덮어놓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두고 한 말이다. 어떤 사회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명제를 맹신하는 태도를 회의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 명제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남궁선생전」의 논찬부에서 보이는 신선에 대한 태도는 당시 관료 문인들 일반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호의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면 긍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령 혜강(嵇康)이 상수(向秀)와 벌인 신선 존재 여부 토론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다음과 같은 선명한 태도는 좋은 대조가 된다.

> 무릇 신선은 비록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서적에 기록되어 있고, 과거 역사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대략 정리해보면, 신선이 존재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

298) 『성소부부고』 권8, 「南宮先生傳」, 許子曰: 傳言東人尙佛不尙道. 自羅逮鮮數千載, 未聞有一人得道仙去者, 其果徵哉? 然以余所覩南宮先生言之, 可異焉. 先生所師者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可信, 所悅亦未必盡然. 要之影響之間也. 但以先生年貌看之, 非眞能得道者耶! 那能八十而若是康健耶? 此又不可決以爲實無是事也. 噫! 其奇哉. 我國僻在海外, 乏遐擧之士如羨門安期, 而巖石間乃有此異人. 累千百年, 俾先生一得遇之, 孰謂偏壤而無其人耶? 達道則仙, 昧道則凡, 傳所言者與耳食奚殊? 使先生毋望其速成, 卒收爐鼎之效, 則彼羨門安期, 亦何難拍肩而等夷之, 唯其不忍, 以敗垂成之功, 嗚呼惜哉!

실입니다. 그러나 신선은 홀로 특이한 기(氣)를 품부받았고, 그것은 자연에서 품부받은 것 같으니 배움을 쌓아 이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당하게 양생하여 성명을 다함에 이르게 되면, 많게는 천 살을 살 수 있고 적어도 수백 살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299]

신선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는 혜강의 발언에 비하면, 자신이 직접 목격한 바 없는 신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정도의 허균의 발언은, 당대 사회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급진적이지만, 신선 담론의 역사에서 나온 발언에 비추어 보면 미온적이다. 혜강의 경우 신선의 존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긍정하면서도 신선이 되는 것은 타고난 자의 전유물이지, 수양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은 신선 담론에서의 두 번째 문제인 신선가학설(神仙可學說)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300] 앞서 「섭생월찬서」에서 본 것처럼 허균은 양생법이나 내단 수련 등을 통해 신선의 경지에 오를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신선이 되는 확실한 방법인가 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작성연대는 불분명하지만 허균 생애 후반기에 썼을 것으로 보이는 『한정록』 범례에서 신선술에 대해 말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선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심원해서 알기 어렵다. 산택에 은거하는 여윈 유자 중에 복식과 섭양을 통해 장수를 누린 경우가 있었기에, 섭생을 제15편으로 삼는다.[301]

신선술에 대해서 불가지의 영역으로 남겨둔 점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이 어떻게 신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허균이 진지한 학문적 관심을 지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사실 「남궁선생전」에 길게 나열된 호흡법이나 벽곡법은 전문(傳聞)이라는 구실 하에 늘어놓은 것이지, 거기 묘사된 방법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볼 때 허균은 '어떻게 신선이 되는가'의 문제, 가령

---

299) 『嵇康集』 「養生論」 "夫神仙雖不目見, 然記籍所載, 前史所傳. 較而論之, 其有必矣. 似特受異氣, 稟之自然, 非積學所能致也. 至於導養得理, 以盡性命, 上獲千餘歲, 下可數百年, 可有之耳." (번역은 한흥섭 역, 『혜강집』, 소명출판, 2006, 171~172쪽, 김영문 역, 『문선 역주』 8, 「養生論」, 478~479쪽을 참조하여 수정하였음)

300) 위진남북조 시기 신선 존재에 대한 토론 및 신선가학설(神仙可學說) 대 신선명정론(神仙命定論)의 대립이 지식인들의 주요 토론 주제의 하나로 되었던 점과 혜강의 신선 논의에 대해 상론한 사례로 이용주, 「神仙可學: 갈홍 신선론의 논리와 한계」, 『종교와 문화』 6,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0, 186~190쪽.

301) 『閒情錄』 「凡例」, "求仙則玄遠不可知也. 山澤之臞, 以服食攝養, 得延遐壽者有之, 爲攝生第十五."

양생술 중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양생술의 실천을 문장 창작에 활용하여 신비적 색채를 가미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타인이 행하는 양생술을 관찰함에 있어서도, 그가 행하는 양생술이 올바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양생술을 가져다가 그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활용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했다고 생각된다. 그 사례가 곽재우의 벽곡에 대해 논평한 다음 사례이다.

> 임서인(庶人-임해군)이 폐해질 적에 대신(大臣)은 전은(全恩)을 주장했으나 대성(臺省: 사간원·사헌부)에서는 전은은 불가하다고 고집했다. 공은 나라의 의론이 사리에 적중하지 못했음을 모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자기 지위를 벗어나 간쟁한 일이 두 번이었으니 어째서인가? 이는 토역을 극력 주장하여 임금의 마음을 풀고 많은 사람의 시기를 해소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교제함에 있어 통상적인 예제를 따르지 않고 대략 뜻대로 행하여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해하거나 조소하게 하여 부적당한 견해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다. 의아해하거나 조소하거나, 부적당한 견해라고 꾸짖은 것은 공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바이니, 온 세상이 도리어 곽공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곽재우 공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자기 몸을 보전하고 해로움을 멀리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들이 망령되이 곽공이 진짜 벽곡한다고 생각해서 떠들썩하게 비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302)

허균이 보기에 곽재우는 조정을 떠날 구실로써 벽곡을 했다. 위 인용구의 앞부분에도 '공이 높으면 상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곽재우가 알았기 때문에 일찍 조정을 떠나려 했고, 떠나는 명분을 대기 어려우므로 벽곡한다고 칭탁하여 진짜 자취를 은폐한 것'이라면서 이는 '장량의 선례를 따른 것인데, 어찌 노력한다고 될 리 없는 신선이 되고자 했겠으며 긴가민가한 일을 믿은 것이겠는가' 하고 반문했다.303) 그와 더불어 장량이 벽곡을 칭탁하여 조정을 떠남으로써 일신을 보전한 일을 '신통하다[神]'고 하여 호의적으로 평가했다.304)

임해군 처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곽재우는 두 차례 상소를 올려 임해군에 대한

---

302) 『성소부부고』 권12, 「辟穀辨」, "當臨庶人之癈也, 大臣主全恩, 而臺省執不可. 公非不知邦議之得中也, 乃出位以爭之者再焉, 何哉? 蓋力主討逆, 以釋上心, 解群猜也. 故其來其往, 不用常禮, 略以意行之, 使世人或訝或笑, 以爲不中也. 訝之笑之, 誚以不中, 公之所喜, 而一世反囿其中, 不自悟也. 原其心, 不出於全身遠害而已, 世之人妄以爲眞辟穀, 譁而議之, 余不得不辨焉."

303) 같은 글, "公蓋知功高則不賞, 故及其早而欲去之, 去之難其名, 故托以辟穀而掩其跡, 是乃子房之舊軌而公蹈之, 豈欲爲不可力致之神仙, 而反信其怳惚之事者乎? "

304) 같은 글, "昔子房佐漢功成, 乃退而辟穀也, 是豈眞欲仙者? 姑以此而自保其身也, 其亦神乎哉!"

엄벌을 주장했다.[305] 허균은 곽재우의 그런 의견 표명이 본심과 거리가 있는 공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사를 사양하기 위해서는 본심과 다른 '부적당한 견해를 제기'하는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저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적당한 견해'를 공공연히 제기하는 행동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곽재우의 벽곡에 대한 허균의 이해가 곽재우의 의도와 부합하는지는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곽재우의 행동에 대한 허균의 해석은 허균이 차용하는 도가적 어휘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물론 허균은 곽재우의 벽곡을 특정해서 말하고 있을 뿐, 누군가가 벽곡하는 것이 반드시 명철보신을 위해서라고 단순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공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조정을 떠나는 구실로서 벽곡한다는 핑계는 장량 이래 전례가 마련된 '거부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취한 점은 분명하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행위를 해석하는 관점은 허균만의 것이 아니다. 『선조실록』의 사관도 「벽곡변」과 유사한 논조로 곽재우의 벽곡을 장량의 색은행괴(索隱行怪)에 비기면서 옹호하고, 곽재우의 벽곡이 비난받는 것을 세도가 야박해진 탓이라 하였다.[306]

공개적으로 벽곡을 하는 행위가 사직을 위한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이 의견은,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의도적인 기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수반하고 있다. 모종의 선한 결과를 위해서는 본심과 다른 메시지를 내도 좋다는 생각과 유사한 발언은 다음의 글에도 보인다.

> 임인년(1602, 선조35) 가을, 도관은 내게 사람을 보내 글을 지어 돌에 새기기를 청하였다. 나는, "국가에서 이단을 배척하고 불교를 숭상하지 않는 것은 옳으나, 사람이 신령이나 부처에게 복을 기는 것도 한 가지 도이다. 정학(正學)을 숭상하여 위에서는 사습(士習)을 맑게 하고, 불가의 인과설과 화복설을 가지고 아래에서 사람들의 마

---

305) 곽재우의 상소 내용과 그 경과에 대해서는 최석기, 「망우당 곽재우의 절의정신」, 『남명학연구』 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6, 122~124쪽. 최석기는 곽재우의 임해군 토역론이 곽재우의 평소 관심사인 춘추대의를 밝히는 것에서 이어지는 일관적인 본심의 표현이라고 본다.

306) 『선조실록』 위의 기사, 史臣論曰: "(중략) 子房之辟穀, 謂之索隱而行怪可乎? 嗚呼! 人之有深憂者, 必至慷慨; 慷慨不已, 必至悲歌; 悲歌不已, 必至痛哭. 悲歌、痛哭之亦無柰何則於是, 或有欲醉而無醒者; 欲瞽而無見者; 欲狂而自愚者; 欲仙而絶世者. 雖非中正之道, 而君子亦或悲其志, 而恕其罪也. 再祐之志, 則不可知, 其亦深憂, 而慷慨者歟? 首義而不居其功; 名顯而自處以晦, 迂誕之斥, 罷職之請, 固其所願. 而至加以行己詭異, 起人疑惑, 則不亦謬乎? 若非聖量包容, 置之度外, 則其亦不止於不敍而已. 噫! 古之辟穀, 將以保身; 今之辟穀, 祗以禍身, 亦可見世道之益薄也."

음을 경계한다면 그 다스림이 고를 것이다."[307]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정학'을 활용하되, 기복신앙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하층민에 대해서는 불가의 교리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통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교와 같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허균의 세계에서는 도가적 벽곡이든 불가의 화복설이든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져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모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허균이 묘사하는 신선이나 선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사례로 살펴볼 작품은 「견가림신(譴加林神)」이다. 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 작품이 민간신앙에 대한 우호적 관심을 드러냈다고 보거나,[308] 유자가 무당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는 시각을 드러낸 증거라고 보았다.[309] 아래에서는 그러한 견해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주요 단락에 번호를 붙여 제시한다.

①

咸山之顚　함산 꼭대기에
有祠翼然　높이 솟은 사당 있으니
謂之城隍　성황사라 부르면서
民祀式虔　백성들이 엄숙하게 제사 모시네.
居忽一日　하루는 갑자기
埃天以土雨　먼지가 하늘을 덮더니 흙비가 쏟아지고
長煽林宇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일어나 수풀을 헤치고
吹神像顚　지붕을 뒤흔들며 신상의 이마에 바람이 몰아쳤네.
翌旦巫來　다음날 아침 무당이 와서
整其神筵　신의 자리 정돈하고
理髮飾衣　머리 빗고 옷도 단장했는데

307) 『성소부부고』 권16, 「重修兜率院彌陀殿碑」, "壬寅秋, 觀使人乞於余, 欲辭而劖諸石. 余曰: 國家闢異端, 不崇釋教是矣. 而人之祈福於神佛, 亦一道也. 使崇正學, 以淑士習於上, 而以佛之緣果禍福, 警人心於下, 則其爲治均矣."

308) 이지영, 「「성소부부고」에 나타난 허균의 민간전승에 대한 관심과 그 의의」, 『고전문학연구』 1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김풍기, 「허균의 「견가림신」(譴加林神)에 나타난 민속지(民俗誌)적 성격과 그 의미」, 『한문학논집』 50, 근역한문학회, 2018.

309) 한승훈, 『무당과 유생의 대결』, 사우, 2021, 230~233쪽.

風又吹旋　바람이 또 불어닥쳤네.
如是者三　이렇게 하기를 세 번이었네.
余甚怪焉　내 심히 괴이하게 여겨,
問巫何故　무당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巫拜以言　무당이 절하고 이렇게 대답했네.[310]

우선 주목되는 것은 성황사라는 명칭과 그 위치이다. 고려 말 이래 성황신에 대한 제사는 주로 산 위에 있는 사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조선의 성황 제사 방식을 변경하라는 홍무예제의 반포 이후, 기왕의 성황사(城隍祠)를 폐하고 성황단(城隍壇)으로 고치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산 정상에 있던 사당을 산 아래 단(壇)으로 옮겨 지방관 주도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음이 알려져 있다.[311]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전래의 성황사에서 이루어지는 성황 제의는 무격의 주재 하에 지배층·피지배층 구분 없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12] 이로 볼 때 작자가 목격한 성황사는 구래의 방식으로 관리되어 오던 모습의 건물이었을 듯하다. 그러한 성황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백성들이 제사를 경건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성황사에 불어닥친 거친 비바람이 묘사된다. 요란한 풍우가 들이친 모습을 장황하게 그림으로써, 백성들의 정성스러운 제사에도 불구하고 상서롭지 못한 결과가 왔음을 부각하였다. 작자는 이 점을 괴이하게 여겨 무당에게 해명을 요구한다.

위 단락에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남편 함신(咸神)을 질투한 임신(林神)의 소행이라는 무당의 이야기가 제시되고, 무당 자신의 영험함은 충분치 않아서 신들 간의 싸움을 말릴 수 없었다는 고백이 이어진다.[313] 이에 작자는 가림신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

310) 『성소부부고』 권12, 「譴加林神」, "民祀式虔" 구의 虔이 물헌본에 處. (오자) 가와이본 度 (오자); 翌旦의 旦이 가와이본은 朝; "理髮飾衣, 風又吹旋"이 가와이본에는 理髮飾風, 衣又吹旋; "如是者三"의 三이 가와이본에는 二; "何故"가 가와이본은 何故也.

311) 최종석, 「조선시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 -高麗 이래 질서와 '時王之制' 사이의 길항의 관점에서」, 『한국사연구』 143, 한국사연구회, 2008, 181~183쪽.

312) 최종석, 위의 논문, 183~184쪽.

313) 『성소부부고』 권12, 「譴加林神」, "咸神爲夫, 林神爲婦, 咸溺於媵, 謂婦孔醜. 婦怒其媵, 來輒踐蹂, 從之風雨, 以濺以懘, 裂夫之衫, 夷媵之首. 去而旋來, 儵夜而晝, 巫靈不靈, 力難解鬪. 只改冠裳, 藻其土偶." (咸溺於媵의 於: 국중본에 근거하여 넣었음. (관물헌본에는 없음. 홍문관본, 가와이본에는 있음.)

2

余曰嗟唏　내가 말하길, ‘허허,
神敢獅吼　신이 되어 감히 남편에게 성질을 내다니.
吾列神愆　내가 그 신의 잘못을 낱낱이 열거해서
詛之北斗　북두성에게 저주하겠노라.’ 하고
燒香焚辭　향을 사르고 기도문을 불사르면서
庭下以僂　 뜰 아래 몸을 굽히고 이렇게 말했다.
曰我后皇　“우리 후황(后皇)께서
分土畫州　땅을 나누고 주(州)를 나누어
各有主神　각각 주관하는 신을 두셔서
俾民蔭庥　백성들로 하여금 보호받게 하셨고,
暘若雨若　제때 해가 나고 제때 비가 와서
以利其耨　농사에 이롭게 하셨으니,
苟失其職　만약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天必降尤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려서
戮社伐廟　사당을 헐어
爲神之羞　그 신으로 하여금 수치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今玆二神　지금 이 두 신은
夫婦好仇　부부로서 좋은 짝이 되어,
限一衣帶　물길 하나로 한계를 지어
裂地以侯　땅을 나눠 각각 주관자가 되었고,
苾祀相望　향기로운 제사[苾祀]를 끊임없이 받아
享之千秋　천추에 누려왔으니,
宜降福祐　마땅히 복을 내려서
以豐其疇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風順雨調　바람과 비를 적당히 내려서
黍苗油油　기장 이삭이 잘 자라게 해야 하겠거늘
胡爭姬寵　어째서 첩을 총애함을 구실로 다투어서
怒閃其睟　눈을 부라리는가요.”[314]

규탄의 핵심인즉 후황(后皇)[315]에게서 백성들을 돌보라는 임무를 받았고, 백성에게서 후한 제사를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가림신은 자기 책임을 저버리고 백성들

314) 위의 글, 焚辭가 가와이본에는 辭辭; 雨若가 관물헌본에는 빠짐. 必이 가와이본에는 人; 仇가 가와이본에는 逑; 祐: 가와이본에는 佑; 油자가 관물헌본에는 빠져 있음.
315) 후황(后皇)은 『楚辭』 「橘頌」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천지의 대칭(代稱)이다. ‘후’는 땅, ‘황’은 하늘을 가리킨다.

의 의망(意望)을 도외시한 채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다. 작품 서두에서 본 것처럼, 가림신이 받아 챙긴 제사와 그에 부응하지 않는 신의 불성실이 여기에서도 대비되고 있다. 때로 신은 상제와 백성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존재라는 관념이 작중의 '자신'에게는 있음직한 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다음 구절에서는 16구에 걸쳐 임신의 횡포를 묘사하고,[316] 임신에 대한 잔혹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상제에게 요청한 내용에 20구를 할애하였다.[317] 이 대목에서 다뤄진 내용은 임신의 횡포를 소상히 묘사하되 그런 행동이 백성들의 농사에 해를 끼쳤다는 데 초점이 맞추었다. 이에 대해 상제가 뇌사(雷師)와 팔괘신(八威神-『황정경』에서 말하는 팔방의 신)을 명하여 임신을 징치하게 해서 백성들이 농업상의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다. 그러자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나타나 사태의 진상을 알려준다.

3

俄有介幘　이윽고 머리에 개책관(介幘冠)을 쓰고
絳袍朱履　강사포[絳袍]를 입고 붉은 신 신은 사람이
導以靈幡　영번(靈幡)[318]을 앞세우고 와서는
來提我耳　내 귀를 끌어당기며 이렇게 말했네.
曰巫之誣　"무당이 속인 것이지,
非神之戾　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니니라.
嘉林非女　가림의 신은 여자가 아니고
亦惟男子　그 역시 남자니라.
以神攻神　신이 신을 공격한다니
安有此理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風霧之災　바람과 흙먼지가 불어친 재앙은
唯民所致　백성이 끌어들인 것이니라.
民之暴殄　백성들이 물자를 낭비하여
崇覡淫祀　무당을 우러러 음사(淫祀)를 벌이면서

316) 『성소부부고』 권12, 「譴加林神」, 乘以豐隆, 持其電矛, 揚霧躡颸, 來艾神幬, 擘斮其腰, 仍毁神旒. 大噉跳擲, 威壓恣歐. 狺狺闞睢, 指好爲讎, 因洊以臻, 害牧害蒭. 害于我稼, 爲民之憂. 一之爲甚, 三五不休.

317) 위의 글, 惟皇孔昭, 鑑其作孽, 聲罪以討, 命我喉舌. 詔諸雷師, 飛捷月孛. 轟霆爍電, 駕翥驅颸. 八威猛馬, 流鈴金鉞, 下盪其巢, 鬼爽屠割. 其膂刳剝, 其頸顆劼, 錄魂矢延, 以警其獗. 俾民免災, 無蹙其頗, 稑黍穰穰, 各安于室.

318) 영번(靈幡)은 일명 영번(靈旛)으로 도교에서 신령을 부를 때 사용하는 깃발이다. 불교에서 보살상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는 깃발을 가리키기도 한다.

不敬以慢　오만하게도 불경을 저지르고
唯褻是事　설만하게 이 일을 벌였도다.
不忠不孝　그들은 불충·불효하며
不信不義　신의 없고 불의한데
姦射駔儈　간사한 거간꾼[駔儈]이
機巧仰利　꾀를 부려 이익을 도모하였도다.
來佩符者　이 고을을 맡은 관리 중에는
亦罕循吏　순리(循吏)도 드물어,
陰饕陽飾　속으로는 욕심부리면서 겉으로만 꾸미고
沽譽掠美　명예를 탐하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훔쳤도다.
誕謾臾脅　그들은 기만하고 협박하면서
惟矯無恥　속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教化不施　교화가 펼쳐지지 않아
上下相詭　상하가 서로 속였도다.
以此事神　이런 식으로 신을 섬기니
神宜怒爾　신이 노하는 것도 당연하니라.
降沴降災　요기와 재앙을 내린 것은
皆職由此　다 그 직분상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不思其咎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않고
反加嫚戲　도리어 업신여겨 희롱하면서
謂妬勃谿　질투하여 다툰다 하면서
傳言無忌　말을 전하는 데 꺼림이 없으니
神益齎怒　신은 더욱 노하여
災益疊至　재앙을 겹겹이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雷罰之行　우레로 벌을 내린 것은
唯巫是視　무당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大夫之明　당신같이 명석한 대부도
其亦惑是　무당의 그 말에 미혹되었으니,
矧世愚者　하물며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其眩固易　현혹되기가 참으로 쉬울 것이네."
余拜稽首　내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以謝不智　지혜롭지 못했음을 사과하고
擧頭以望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神已焱擧　신은 벌써 날아가 버려
仰睇長空　우러러 너른 하늘을 바라보니
不見其處　간 곳 없더라.[319]

작자는 우선 이 정체 모를 사람의 의상을 묘사한 뒤, 그가 자신의 귓가에 대고 일의 전말을 말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람의 정체는 마지막에 가서야 신이라고 규정된다.[320] 다음으로 그 신은 무당이 거짓말로 가림신을 여자라고 한 것이며, 풍우의 재앙도 무고한 백성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징벌이라고 알려준다. 서두에서 '백성들이 경건하게 제사 지낸다'고 했던 작자의 관찰은 신의 이 발언에 의하여 부정된다. 신이 보기에 백성들은 물자를 낭비해 가면서 무당을 받들어 쓸데없는 제사를 지낸 것이며, 불경한 태도로 성황신을 모시는 이 일을 모독하였다. 민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관점은 「호민론」에서 가장 선명하게 제시된 이래,[321] 「남궁선생전」 등에서도 반복된 바 있다.[322] 신의 질책 대상은 민과 무당에 그치지 않고, 이 고을에 부임한 역대 지방관들로 확대된다. 신의 말에 의하면 지방관들도 위선적인 행태를 일삼았기에 교화가 시행될 수 없었고 이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를 속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된다. 정작 민과 지방관, 무당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폭우에 대해 엉뚱한 구실을 붙여 신을 모독하였기에 신은 그에 합당한 징벌적 재앙을 내렸다는 것이다. 결미에서 작자는 자기의 우둔함을 사과하고 신의 설명을 수용하면서 작품을 마친다. 여기에 이르면 작품 제목에서 가림신(加林神)[323]에 대한 질책을 표방했던 방

---

319) 『성소부부고』 권12, 「譴加林神」, 가와이본에는 以神攻神의 두 번째 神자가 빠져있음; 民之暴殄의 殄자가 쓰일 자리에 관물헌본은 공란; 姦射駔儈의 駔자가 관물헌본에는 駈(오자); 教化不施의 施자가 가와이본에는 絶 (오자); 唯巫是視의 是자가 관물헌본에 視(오자); 矧世愚者의 者자가 관물헌본에는 빠짐.

320) "神已焱擧"

321) 『성소부부고』 권11, 「豪民論」 "今我國不然, 地陿阨而人少, 民且呰窳齷齪."; 민에 대한 허균의 감정을 공포나 멸시, 혐오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대중, 「애민사상의 정신분석 – 성호(星湖) 이익(李瀷)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20~222쪽.

322) 이 점은 「남궁선생전」에서 임진왜란의 발발을 백성들의 악업에 대한 징치라고 설명하는 신의 발언이 삽입된 점과 공명하는 바가 있다. "有三島帝君道, '閻浮提三韓之民, 機巧姦騙, 誑惑暴殄, 不惜福不畏天, 不孝不忠, 嫚神瀆鬼. 故借句林洞貍面大魔, 拳赤土之兵往勦之, 連兵七年, 國幸不亡, 三方之民, 十集其五六以警之.' 臣等聞之, 亦皆心怵." 허균이 이처럼 민의 속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신흠의 「민심편」에 드러난 태도와 대비를 이룬다. 「민심편」에서 신흠은 "조정에서는 벼슬하는 자가 늘 하는 말이 있다. 백성의 마음이 악하다고 하고, 아니면 반드시 백성의 마음이 박하다고 한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은 참으로 착하고 백성의 마음은 참으로 후한데 사람들이 살피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근자에 관직에 있는 사람 중 다수가 뇌물을 써서 관직을 얻은 탓에 백성을 악하다고 규정해야만 자신이 권세를 부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허균은 민에게 확실한 악한 성향이 있다고 보며,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표명하였다.

323) 『성소부부고』에서는 제목에는 '가림'을 "加林"으로 표기했지만, 본문에서는 "嘉林非女"라고 하여 표기가 일관되지 않다(국중본, 관물헌본, 홍문관본). 加와 嘉를 통용해 쓴 데서 비롯된 듯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7, 忠淸道, 「林川郡」, 建置沿革: 本百濟加林郡, 新羅改

향은 부정되고, 민·무당·지방관에 대한 질책으로 귀결됨으로써 제목과 내용 간의 불일치가 빚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견가림신」에서 호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신앙의 숭배 대상인 성황신으로, 성황신은 백성의 안녕을 해친다는 점에서 규탄된다. 함열의 거친 풍우 같은 기상현상을 관장한다고 믿어지는 성황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허균은 상제에게 기도를 올려 성황신을 질책하는 말을 길게 늘어놓았다. 가림신인 불의한 존재인가에 대한 답은 작품의 결말에 가서 부인되고 있지만, 작품 전체를 통해서 견지되고 있는 믿음은 성황신을 모시는 지방신앙의 전제, 즉 성황신이 있어서 자신이 맡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을 관장하여 백성의 복지를 좌우한다는 신앙이다. 결말에서 수정되고 있는 것은 성황 신앙 자체가 아니라, 성황신과 지역민들의 관계 방식이다. 작자가 보기에 자신의 처음 관찰과 달리 민은 경건하거나 선하지 못한데, 무당과 지방관은 그들대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있다. 반면 이 모든 것을 묘사함으로써 작자의 모습은 민과 성황신 및 중재자로서 무당이나 지방관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자로서 그려지고 있다. 이것이 「견가림신」의 결론이 귀결되는 지점이다.

'무당이 백성들을 속여서 성황신에 대한 성대한 제사 관행을 부추기고 있으며 지방관들도 이러한 관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요약하면 간단할 내용을 '작자 자신의 오해가 시정되는 스토리'로 구성하여 제시한 점은 작자의 저술 의도가 무당과 지방관 비판 이상의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데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작자의 오해가 신의 등장에 의해 시정되는 서술 순서를 취함으로써 독자는 작자의 오해가 얼마나 이해할 만한 것인가를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 그처럼 누구라도 빠지기 쉬운 오해를 넘어서 도달한 결론은 무당이나 지방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자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데로 수렴된다. 달리 말해 신과 민의 관계 속에서 작자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작자는 거친 비바람이 여러 차례 불었다고 하는 문제 상황을 성황신과 무당, 백성 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문제 인식 위에서 작자는 성황신과 백성 사이를 무당이 잘못 매개하고 있음을 깨닫고, 작자 자신이야말로 양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게 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서술 방식은 장유의 「견발문(譴魃文)」이 시종일관 직설적인 톤으로 가뭄의 신을 견책하는 것과 대비된다.

加爲嘉, 高麗成宗置林州刺史 , 顯宗改嘉林縣置令. (…) 郡名: 加林, 嘉林, 林州.)

아, 너 요망한 한발 귀신아, 유독 우리 백성에게 재앙을 끼치는가. 뒤늦게 와 못된 짓을 하다니, 누가 그렇게 시키더냐. 애처로운 백성들 목숨, 오로지 농사에 달려 있네. (중략) 아, 너 요망한 한발 귀신아, 어찌 천벌을 면할까 보냐. 위대하신 상제께서는, 제대로 듣고 살피시니, 우리의 하소연을 돌아보시어,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중략) 아, 너 요망한 한발 귀신아, 정지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324]

농사에 방해가 되는 자연 현상을 의인화하여 배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유의 이 글은 허균의 「견가림신」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견발문」에서는 가뭄 귀신을 여러 차례 호명하면서 가뭄이 백성들의 농사에 끼치는 악영향을 열거한 뒤, 물러갈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견가림신」과 달리 「견발문」에서는 발언 내용이 제목과 부합하여 가뭄이 물러가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며, 이 과정에서 민이 농사의 편의를 받을 만한 대상인가 하는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집 내에서 소한부(愬旱文)나 추림부(秋霖賦) 등 자연재해가 백성에게 가져오는 고통에 주목한 작품들과 나란히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견발문」에서 기원되는 내용은 문면에 표시된 그대로, 가뭄이 백성들의 농사에 끼치는 악영향을 한탄하고 가뭄의 종식을 바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요컨대 「견발문」의 경우 작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작품 내용을 유희적 차원에서 읽어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견가림신」에서는 자연 현상을 신의 소관인 것으로 가설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연 현상을 주재하는 신에 대한 작자 자신의 관점 문제로 작품의 결말이 인도된다. 작자가 보기에는 풍우로 인한 자연 현상 너머에 성황신과 인간의 관계를 잘못 매개하는 무당과 지방관이 있으며, 이들 매개자의 잘못을 꿰뚫어 본 자신이야말로 민을 인도하는 보다 나은 중재자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견가림신」을 민간신앙에 대한 작자의 우호적 관심의 결과에서 나온 작품으로 보는 해석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신앙의 실상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견가림신」에 부여된 오해의 해소라는 내적 구조 없이 민간신앙에 대한 묘사만을 충실히 하는 서술 방법을 택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허균이 성황당을 소재로 초자연적인 신령의 등장을 그려 놓은 이 작품은 민간신앙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표한 것이기보다는, 민간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

324) 『谿谷集』 권1, 「譴魃文」, "咨爾妖魃, 獨殃我氓兮. 後時逞惡, 誰使令兮. 哀哀民命, 仗芸耕兮. (중략) 咨爾妖魃, 詎逭天刑兮. 皇皇上帝, 聰且明兮, 恤我籲號, 垂視聽兮. (중략) 咨爾妖魃, 逝莫停兮."

달리 말해, 민간신앙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치는 부수적으로 얻어진 것이지, 저자가 민속 관찰 자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작품의 저작 의도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다. 민간신앙에 대한 우호적 태도라는 것도 저작 의도에 수반되는 것이지 우호적 태도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술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속 신앙보다 유학자의 관점이 우월함을 주장한 글로 이 작품을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허균은 여기서 유학자 일반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역 성황당의 제사를 둘러싼 부조리를 간파할 수 있는 자신의 개성이 작품의 주안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견가림신」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초점이 모이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견가림신」의 요지는 무당이나 지방관, 민에 대한 비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당·지방관·민의 잘못을 부각하여 이들을 타자화하고 그들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자기 모습을 그리는 데 있다. 그렇게 볼 때 작자의 관심사는 성리학의 전파와 샤머니즘의 배제가 아니라, 훨씬 개인적인 차원에 수렴된다. 허균은 「견가림신」을 통하여 무당이 섬기는 성황 제사를 전적으로 배척해야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성황에 대한 신앙과 제사 관습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성황 제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프닝을 묘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신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리는 과정에서 유학과 무속이 동원되고 있으며 신령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혹은 어떤 존재로 작자에게 현현했는가 하는 이미지들이 활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25]

그렇게 볼 때 「견가림신」을 통해 허균의 관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대민 통치의 수단으로서 기복 신앙을 인정한 점으로, 대민 통치에 대한 일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은 허균이 유배된 시기에도 통치술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신령과 소통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묘사한 점이다. 자신의 위상을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민과 지방관 모두를 견책하고 자신이 신과 민 사이의 더 나은 중재자라는 의견 피력하고 있다. 즉 「

325) 「견가림신」에 나타나는 신령의 이미지가 작자의 발언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할 때, 유사한 기법이 동원되고 있는 작품이 「상원군왕총기」이다. 「상원군왕총기」에는 「견가림신」과 같은 오해가 해소되는 작품 구조상의 곡절이 없고, 올바른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자들, 그에 따라 농사 및 생활 전반에 복을 준 신이 등장한다. 그런 점에서 「상원군왕총기」는 견가림신과 대조가 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상원군왕총기」는 시기적으로 견가림신에 몇 년 앞서 지어진 작품인데, 여기서 형성된 신 관념이 「견가림신」에 와서는 유사한 주지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지의 제시가 좀 더 복잡하고 기교가 가미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견가림신」은 작자가 지닌 서술 역량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다.

견가림신」은 지방관이나 무당을 타자화하고 이들이 가진 속성의 여집합으로서 자아상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허균이 묘사하는 신선이나 선계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지, 그 자체로 추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다.

「견가림신」이 지역사회 내에서 작자 자신의 위상을 사색하는 견지에서 지어진 작품이라고 할 때, 그 다른 한편에는 한 사람의 독서인으로서 신선의 여러 모습에 관해 탐색한 작품이 있어 주목된다. 선망의 대상으로 신선 이미지를 나열한 「열선찬」이 그것이다. 이 찬은 허균이 쓴 여타의 찬이 1인이나 3인, 많아도 8인의 인물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326] 30인에 달하는 다수의 인물을 다루었다. 허균의 「열선찬」에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그 참조 서적으로 이른바 '왕세정의 『열선전』'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사정을 서술한 「열선찬」 인(引) 대목은 다음과 같다.

> 엄주 왕원미가 엮은 『열선전』을 내가 헌보 허갈을 통해 진본을 보았다. 거기 그린 그림과 새긴 솜씨가 극히 정묘하였으니, 참으로 희대의 보배였다. 내가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공인으로 하여금 특히 이채로운 것을 가려 흰 비단에 옮겨 그리고 채색으로 장식하게 하고, 거기에 찬사(贊辭)를 이어 붙였다. 때로 감상하면서 신선을 그리는 염을 풀어 보려 한다.[327]

허균은 「열선찬」을 짓는 계기가 된 서적을 '왕세정이 지은 『열선전』'이라고 지목했다. 현전하는 고서 중 왕세정이 지었다는 『열선전』으로는 1600년에 휘주(徽州)의 책 장수[書賈] 왕운붕(汪雲鵬)이 간행한 『유상 열선전전(有象列仙全傳)』(이하 『열선전전』으로 약칭)이라는 책이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을 왕세정이 지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현대 연구자들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328] 허균은 이것을 왕세정의 저작인 줄로 믿었다.[329] 왕세정이 편찬하고 이반룡이 서문을 쓴 것

---

326) 「대령산신찬(大嶺山神贊)」은 김유신 1인을, 「삼선생찬(三先生贊)」은 도잠·이백·소식 3인을, 「이나옹이 그린 부처와 조사의 찬(李畫佛祖讚)」은 석가문불을 비롯한 8인을 대상으로 했다.

327) 『성소부부고』 권14, 「列仙贊【幷引】」,

328) 佐藤義寬, 「『列仙全傳』 研究」 1, 『文藝論叢』 59, 大谷大學文藝研究會, 2002; 魏世民, 「《列仙全传》作者考」, 『明清小说研究』 总第109期, 2013. 『열선전전』을 왕세정의 이름에 가탁한 것으로 보는 근거는 『明史』에 수록된 왕세정의 저작 목록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왕세정 사후 10년째인 1600년에 갑자기 이 책이 등장한 점, 서두에 실린 이반룡의 서문이 이반룡의 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 이반룡이 지었다는 서문 마지막에 글을 지은 날짜가 쓰여 있지 않을 뿐 아니라 "新都汪雲鵬書"로 마무리 된 점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웨이시민은 이 책을 서적상 왕운붕이 직접 만들었을 것으로 보면서 명대의 문인 장문개(張文介)가 지은 『광열선전(廣列仙傳)』을 베낀 것으로 추정하였다.

329) 위의 「열선찬 인」에서 지목한 서적은 현전하는 『유상 열선전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

으로 쓰여 있는『열선전전』은, 판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0여 명에 이르는 인물고사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에도 시대 일본에서 통속적 인쇄물로 널리 퍼졌지만, 명대에는 1607년에 기획된『만력속도장(萬曆續道藏)』에도 수록되지 못하였고 한국 내에도 현전하는 이본이 그다지 없는 문헌이다.[330]

왕세정이 이 책을 직접 지었는가는 불분명하지만 명대에 나온 점만은 분명한『열선전전』을 참고로 하여 허균이「열선찬」을 지었다는 사실은 허균의 창작 활동과 관련한 일정한 시사를 준다.『세설신어』에서 수록하지 못한 남북조 이후의 인물고사를 수록한 명대의『하씨어림』에 허균이 주목했던 것과 같이, 전통적 신선 전기라 할 유향의『열선전』이나 송대의『태평광기』같은 저작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송 말에서 원·명대에 이르는 시기의 인물까지를 포괄한『열선전전』에 주목한 결과 역사 속에서 신선이라고 불린 인물들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조망할 수 있었다.

가령 이춘영(李春榮, 1563~1606)이『태평광기』에 수록된 신선을 소재로 삼아 유선시를 창작한 결과,[331] 송대 후반부터 금대에 이르는 도사들을 소재로 활용할 수 없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허균은 동시대에 증보되어 나온 신선 전기를 참고함으로써「열선찬」에서 노자나 장자와 같이 신선으로 운위되는 널리 알려진 인물뿐 아니라, 무지사(武志士)나 살수견(薩守堅) 등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에 이르기까지 소재를 넓힐 수 있었다.

허균이 찬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30인에 대한 찬의 내용과『열선전전』에 수록된 각 인물에 관한 서술 및 삽화를 대조해 살펴보면, 노자, 장주, 동방삭, 이백, 여도장의 5인을 제외한 25인에 대한 허균의 서술은『열선전전』의 내용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332] 본격적 논의에 앞서 허균의「열선찬」과

다.『유상 열선전전』의 삽화는 명대 휘주의 유명한 화공 황일목(黃一木)이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魏世民, 위의 논문, 188쪽.

330)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국내에는『유상 열선전전』의 소장처가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 두 곳으로 확인된다. 이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가에리텐(返り点) 표기가 되어 있고 5책 말미에 "寺町通三条上町 藤田庄右衛門"이라고 하는 교토의 서점 주소가 인쇄되어 있어 국내본이 아니다. 조선 시대에 윤두서가『열선전전』을 접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조선 문인들의 독서 기록이 찾아지지 않는다. 윤두서가『열선전전』의 그림에 주목했다는 점을 지목한 논의로, 차미애,「海南 綠雨堂 소장 筆寫本『管窺輯要』의 考察」,『역사학연구』31, 호남사학회, 2007, 50쪽.
『유상 열선전전』에 대해 '통속적'이라는 저간의 평가와 일본 안팎의 다양한 이본에 대해서는 佐藤義寬, 앞의 논문 참조. 규장각 소장『열선전전』은 중국본이다.

331) 강민경,「조선 중기 지식인의 신선전 독서 경향과 詩化-이춘영의「讀神仙傳」53수를 중심으로」,『도교문화연구』17, 한국도교문화학회, 2002 참조.

332) 일본 내 여러 기관에서『유상 열선전전』을 소장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그 중 전문을

『열선전전』의 내용 비교를 요약한 것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열선찬」과 『유상 열선전전』의 비교

연번	신선 이름	『열선전전』 수록 권	『열선전전』과의 비교 및 특기 사항
1	노자 (老子)	1	삽화 및 서술 내용과 큰 관련 없음.
2	왕예 (王倪)	1	요 임금 대의 인물.
3	광성자 (廣成子)	1	황제(黃帝) 시대의 인물.
4	서왕모 (西王母)	1	다른 전거 문헌보다 『열선전전』 서술과의 관련도 높음.
5	상원부인 (上元夫人)	1	다른 전거 문헌보다 『열선전전』 서술과의 관련도 높음.
6	윤희 (尹喜)	1	버클리대 소장 『교산집』에는 노자에 이어 두 번째로 수록.
7	광유 (匡裕)	1	주나라 무왕 때의 사람으로, 도술을 지닌 형제 7인과 여산(廬山)에 은거했다가 득선하여 떠났다고 함.
8	장주 (莊周)	1	삽화 및 서술 내용과 큰 관련 없음.
9	갈유 (葛由)	1	주나라 성왕(成王) 때의 인물. 나무를 깎아 만든 양을 팔아서 살 다가 자신이 만든 양을 타고 입산했는데, 이 때 촉 땅의 귀인들도 함께 입산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함.
10	금고자 (琴高子)	1	전국시대 조나라의 인물.
11	이팔백 (李八百)	2	한 대에 생존했고 이때 이미 800세였다고 함. 촉인(蜀人)으로, 길을 갈 때 800리를 갔다고 함.
12	섭정 (涉正)	2	한 말에 진시황 시절 일을 상세히 말했다는 인물. 항상 눈을 감고 지냈는데, 한 제자가 굳이 눈을 떠 달라고 청하자 번개 같은 빛이 나서 다들 부복했다고 함.

공개하고 있어 활용이 용이한 와세다 대학 소장본을 저본으로 활용하였다. 와세다 대학 외에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및 도야마(富山) 대학 등에서 이 책 전체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13	안기생 (安期生)	2	진시황 때의 인물.
14	모군 (茅君)	2	이름은 모영(茅盈), 한나라 경제(景帝) 때의 인물.
15	동방삭 (東方朔)	2	삽화 및 서술 내용과 큰 관련 없음. 한무제 때의 인물.
16	황안 (黃安)	2	한무제 때의 인물. 나이는 1만 살이되 외모는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함. 상의를 입지 않고 3척 되는 거북이를 타고 다녔다고 함.
17	장진인 (張眞人)	3	『열선전전』에는 장도릉(張道陵, 34~156)이라는 이름으로 수록.
18	마고 (麻姑)	3	『열선전전』에는 「蔡京」조의 일부로 수록.
19	황초평 (黃初平)	4	진(晉)대의 인물. 15세에 양을 치다가 실종. 후에 그의 형 황초기가 황초평을 만나 양들의 소재를 묻자 흰 돌만 잔뜩 있는 곳을 가리킴. 황초평이 돌들을 꾸짖자 돌이 일어나 양 수만 마리로 변했다 함.
20	호공 (壺公)	4	버클리대 소장 『교산집』에는 실려 있지 않음. 한대의 인물. 항아리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는데 밤에는 자기가 파는 항아리 속에 들어가 지냈다고 함.
21	조선온 (曺仙媼)	4	황하를 건너려 할 때 뱃사공에게 거절당함. 이에 직접 황하를 건넌 후 우화등선했다 함.
22	도홍경 (陶弘景)	5	양 무제의 조정에 출사했으나 은퇴. 저술로 『진고(眞誥)』 20권이 있음.
23	이백 (李白)	6	삽화 및 서술 내용과 큰 관련 없음.
24	여순양 (呂純陽)	6	여암(呂巖, 798~1016). 자는 동빈(洞賓), 호는 순양(純陽).
25	유해섬 (劉海蟾)	7	『열선전전』에는 「劉玄英」이라는 제하에 수록 일명 유조(劉操), 득도 후 현영(玄英)으로 개칭. 해섬은 그의 호.
26	장자양 (張紫陽)	7	일명 장백단(張伯端, 987~1082). 저술로 『오진편(悟眞篇)』이 있음.
27	진남 (陳楠)	8	송 대의 도사.

28	무지사 (武志士)	8	송 대의 도사. 청색 차일로 5~7리 되는 다리를 만들어 그것으로 시전(市廛)에 왕래했다 함.
29	살수견 (薩守堅)	8	송 대의 도사.
30	여도장 (呂道章)	8	삽화 및 서술 내용과 큰 관련 없음.

이하에서는 그 중 인상적인 사례로, 서왕모, 조선온, 살수견 3인에 대한 묘사를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허균의 「열선찬」 중에 나오는 서왕모 대목과 『유상 열선전전(이하 『열선전전』으로 약칭)』의 「서왕모」 대목을 나란히 들면 다음과 같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허균의 글에 대해서는 원문을 번역문에 앞서 제시하고 이어서 『열선전전』에 나오는 관련 서술을 이어서 제시하기로 한다.

昭哉金母　빛나도다 서왕모여,
調氣承天　기(氣)를 조절하여 하늘을 받들었네.
女兮求道　여자의 몸으로 도를 구하여
資以昇仙　그 바탕으로 신선 되어 승천했네.
華林媚闌　그녀의 딸 화림(華林)과 미란(媚闌)은
玄臺翠水　현대(玄臺)의 취수(翠水) 가에 있도다.
穆滿奚爲　목만(穆滿-주목왕)은 무엇을 했나
劉徹徒爾　유철(劉徹-한무제)이 한 일은 헛된 짓이었네.
[西王母]　[서왕모]

서왕모는 귀대(龜臺)의 금모(金母)이다. 서화(西華)[333]의 지극히 묘한 기를 통해 화하여 이천(伊川)에 태어났다. 성은 후(緱)[혹은 하(何) 혹은 양(揚)이라고 한다], 이름은 회(回), 자(字)는 완령(婉妗)이고 또 다른 자는 태허(太虛)이다. 서방에 위차가 정해져 동왕공과 함께 두 기(氣)를 다스려서 천지의 도균(陶均)[334]과 만물을 완성하였다. 무릇 천하 여자 중에 등선(登仙)하여 득도한 자는 모두 서왕모에게 소속된다. 서왕모는 곤륜산 정원에 있는 낭풍(閬風)의 화원에 거하는데, 옥루(玉樓)에는 현대(玄臺)가 9층으로 되어 있고, 그 좌측에는 요지(瑤池)가 있으며 우측에는 취수(翠水)가 둘러싸고 있

333) 서화는 도교에서 말하는 선궁(仙宮)의 이름이다. 동화(東華)의 대칭(代稱)으로, 동화는 남선(男仙)의 거처로 동왕공(東王公)이 통솔하며, 서화는 여선(女仙)의 거처로서 서왕모가 통솔한다고 하는 곳이다.

334) 도균: 도공(陶工)이 도기(陶器)를 만드는 도구인 녹로(轆轤)를 말하며, 추(錘)는 녹로의 저울추를 말하는데, 전(轉)하여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의 기준을 뜻한다.

다. 딸이 다섯이니, 화림(華林), 미란(媚闌), 청아(靑娥), 요희(瑤姬), 옥치(玉巵)이다. 주목왕이 팔준마를 타고 서쪽으로 순수하여 이에 백규와 현벽을 잡고 서왕모를 알현했다. 주목왕이 다시 술잔을 드니, 서왕모의 요지 가에 있었다. 서왕모가 왕에게 시를 읊어 말하길, "백운이 하늘에 떠 있으니 산등성이는 절로 높도다. 길은 아득하니 산천이 그 사이에 있도다. 장차 그대가 죽지 않으면 다시 올 수 있겠는가"라 했다. 후한 원봉 원년에 무제의 궁전에 강림하여 반도(蟠桃) 일곱 개를 무제에게 주고 그중 두 개를 자기가 먹었다. (후략)[335]

두 자료의 비교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구(字句) 상의 유사성이다. 「열선찬」의 서왕모 찬 중, 2구의 "調氣承天"은 "與東王公共理二氣, 調成天地陶均萬品"에서, 5구의 "華林媚闌"은 "女五, 華林、媚闌、靑娥、瑤姬、玉巵"에서, 6구의 "玄臺翠水"는 "玉樓玄臺九層, 左帶瑤池, 右環翠水"에서, 7구와 8구의 주목왕과 한무제 고사 역시 모두 『열선전전』의 서왕모 조 일화에서 취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왕모가 한무제를 만나 상원부인을 불러 선가의 비결을 전수했다는 고사는 『태평광기』 권3의 한무제 조에 훨씬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열선전전』에 나오는 서왕모 조 내용 일부는 『태평광기』 권56에 실린 서왕모 조에 더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 보인 『열선전전』의 서왕모 조 내용은 『태평광기』 등에 나오는 서왕모 관련 일화 중 일부 화소를 선별하여 하나의 내용 단락으로 재구성해 놓은 것이다. 특히 서왕모의 다섯 딸의 이름을 적어 놓은 서술은 『태평광기』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한편 『열선전전』의 서왕모 조에서 서왕모가 천상에서 하는 일, 천상 거처의 모습, 주목왕과 한무제를 연이어 만난 일을 이어서 서술한 구성과 허균의 서왕모 찬에서 보여준 각 행 내용과의 유사성을 볼 때, 허균의 서왕모 찬은 『열선전전』을 참조하여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서왕모는 『태평광기』외에도 여러 도가류 저작에 등장하는 인물이므로, 『열선전전』 내용과의 유사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반드시 연관이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균의 「열선찬」이 명대의 저작인 『열선전전』과의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원대의 신선전인 『역대진선체도통감(歷世真仙體道通鑑)』 같은 책에도 나오지 않는 좀 더

335) 『열선전전』 1책 4b~5b. "西王母龜臺金母也. 西華至妙之氣, 化而生於伊川, 姓緱【一作何, 一作揚】, 諱回, 字婉姈, 一字太虛, 配位西方, 與東王公共理二氣, 調成天地陶均萬品. 凡上天下地女子之登仙得道者, 咸所隸焉. 居崑崙之圃, 閬風之苑, 玉樓玄臺九層, 左帶瑤池, 右環翠水. 女五, 華林、媚闌、靑娥、瑤姬、玉巵. 周穆王八駿西巡, 乃執白圭玄璧謁見西王母, 復觴母于瑤池之上. 母爲王謠曰, 白雲在天, 山陵自出. 道里悠遠, 山川間之. 將子無死, 尙能復來? 後漢元封元年, 降武帝殿, 母進蟠桃七枚於帝, 自食其二. (후략)."

후대의 인물을 볼 필요가 있다. 허균의 「열선찬」 중 21번째로 등장하는 여선(女仙) 조선온(曺仙媼)이 그런 조건에 부합한다.

携我玉卮　내 옥치(玉卮)[336] 데리고
引我靈厖　내 신령스런 강아지를 이끌고
招招舟子　뱃사공을 손짓하지만
日暮吳江　오강(吳江)엔 해가 저무네.
我自凌波　내 스스로 물을 건너니
孰停其枻　노를 멈춘 자 누구인가.
居彼石龕　저 석감(石龕)에 살면서
享彼椒荔　저 제사를 받았도다.
[曺仙媼]　[조선온]

조선온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항상 어린 여자아이와 한 마리 개를 이끌고 다녔다. 투관(鬪關)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말을 쉬게 하고 있었다. 하루는 황하에 이르러 건너려고 뱃사공에게 묻자, 뱃사공이 이를 거절했다. 조선온은 이에 여아와 강아지를 이끌고 파도를 넘고 바람을 제어하면서 잠깐 사이에 건너편에 이르렀다. 잠깐 후에 또 동안(東岸)에 있는 석감에 이르러 여자아이와 강아지와 함께 우화등선했다. 감실 가운데에 토인들이 사당을 세우고 거기 제사 지냈다.[337]

「열선찬」에서 조선온에 관해 서술한 대목은 조선온이 여자아이와 개를 데리고 다닌다는 점, 뱃사공에게 무언가를 요청한 점, 그러나 결국 자력으로 강을 건너야 했다는 점, 반대편 석감에 이르렀고 후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열선찬」에서는 조선온의 상황을 "我"라고 하는 1인칭의 목소리를 가탁해서 서술하고 있는 점이다. 「열선찬」에서는 조선온 외에도 섭정, 안기생, 장자양, 살수견, 여도장에 대해 서술할 때 1인칭 대명사를 활용하였다.[338]

찬이란 전통적으로 인물이나 서화 등의 '대상'을 칭송하거나, 역사 속 인물에

336) 선녀의 이름. 팽대익(彭大翼, 1552~1643)의 유서 『山堂肆考』에는 서왕모의 23번째 딸이라고 한다.
337) 『열선전전』 3책, 13a~13b. "曹仙媼, 不知何許人. 常携幼女, 引一犬, 息馬鬪關柳下. 一日至河, 問渡, 舟師拒之, 媼携女與犬, 凌波御風, 須臾登岸. 俄又登東岸石龕. 與女及犬化. 龕中土人, 立廟祀焉."
338) "盍閉吾目"(섭정), "訪我蓬山"(안기생), "我拈瓊花, 孰測其靈"(장자양), "誰遺雷火, 焚我叢祠"(살수견), "我訖我工, 衣以爲筏"

대하여 포폄을 가하는 문체, 즉 어떤 대상의 존재를 요청하는 장르로서, 찬 속에 일인칭 대명사가 등장할 때 그 대명사는 대개 찬의 작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339] 조선온 찬을 비롯해 「열선찬」에서 한 것처럼 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목소리를 가탁해서 '나의 ○○'라거나 '내가 ○○' 한다는 식의 구문을 구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다. 이런 식으로 찬 속의 일인칭 주어가 작자가 아닌 대상 인물의 목소리로 처리될 때, 해당 구절은 작중 신선이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그와 더불어 작자가 자신이 지은 찬을 낭송한다고 했을 때 글을 지은 주체와 글 속에서 예찬하고 있는 대상 간의 구분이 일시적으로 모호해지는 효과를 낳게 된다.

또한 여기서 조선온이라는 신선은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의지를 관철하고 사후에조차 존재감을 발휘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하여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不知何許人)"에도 불구하고, 그저 현세에서 직면했던 곤경을 넘어선 인물이라는 이유로 인해 열선의 반열에서 운위되고 있다. 『열선전전』의 서술에서는 조선온이 파도와 바람을 제어하여 강을 건넜다고 묘사되어 있지만, 「열선찬」에는 그런 내용은 생략되고, 뱃사공의 거절만이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온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가 상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40] 또한 조선온에 대한 상찬은 해당 인물이 가진 전통적 명성이나 가계(家系), 또는 그가 지닌 덕성 때문이 아니라, 조선온에 관한 일화가 주 초점이 되고 있는 점도 한 특징이다. 다음에 볼 살수견 찬은 해당 인물에 관한 배경 일화의 서사적 성격이 찬에 적극 반영된 사례이다.

誰遺雷火　누가 벼락 내려
焚我叢祠　나의 총사(叢祠)를 불살랐나?
帝授玉斧　옥황상제가 옥도끼 주어
三載相追　삼 년을 뒤따르게 했네.
償舟以錢　동전으로 뱃삯을 내어서

339) 조선시대 찬의 종류와 내용 개괄로 김종철, 「東文選』所載 '贊'의 內容分析」, 『韓國漢文學硏究』 20, 한국한문학회, 1997 참조.

340) 그밖에 특기할 점은 여기서 조선온이 여성이라는 점은 그다지 의미 있게 부각 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열선전전』 속 삽화에서는 인물의 생김새나 의상을 통해 조선온이 여성이라는 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묘사해 놓고 있지만, 적어도 글만 놓고 보았을 때 조선온을 남성으로 보더라도 그다지 다르게 읽어야 할 점은 없는 듯하다. 「열선찬」에 등장하는 30인 중 4인이 여성이지만, 해당 인물의 여성성을 의미 있게 부각한 경우는 서왕모 단 한 사례에 그친다. 나머지는 이들 인물이 여성이라는 사실과 그 사람의 정체성 간에 의미 있는 연관 관계가 그다지 없다.

不欺于暗　어둠에서도 속이지 않네.
奉行法旨　법지를 받들게 되었으니
奚有前憾　어찌 전날의 유감 있으리오.
[薩守堅]　[살수견]

살수견은 촉 서하 사람이다. (중략) 살수견은 이어서 상음현에서 성황묘에 묵었는데, 며칠 후에 태수의 꿈에 성황이 고하기를, "살 선생이 여기에 머물고 있으므로 내가 기거하기 불편하다. 나를 위해 그를 잘 보내주면 좋겠다." 했다. 태수가 사당에 이르러 살수견을 쫓아 떠나게 하니, 살수견이 이를 한스럽게 여겼다. 수십 리를 갔을 때 돼지를 들고 사당에 가서 감사 기도를 하려는 하는 사람을 만났다. 살수견이 약간의 향을 전달해 주면서 말하기를 "기도를 마치면 이 향을 태워 주시오." 했다. 그 사람이 약속대로 하자, 홀연히 번갯불이 쳐서 그 사당을 불살랐다.

그런 일이 있은 지 3년에 살수견이 물을 건너게 되었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삿대를 들고 스스로 배를 저어 건너고는 3문의 동전을 그 배 안에 뱃삯으로 놓아두었다. 그리고 물을 움켜 손을 씻는데, 한 신령이 철로 된 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손에는 옥 도끼를 들고 물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살수견이 꾸짖길, "너는 어떤 놈이냐, 속히 형체를 드러내어라." 하자, 그 신령이 답하길, "나는 왕선이니, 바로 상음현 성황이다. 지난번에 자네가 무단히 내 사당을 불태워서 내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상제께 호소했더니, 상제께서 옥 도끼를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자네[眞官]를 따라 다니다가 자네가 하늘의 계율을 범하기만 하면 즉시 처치하라 하셨다. 이에 그대를 따라다닌 지 이미 2년인데 전혀 계율을 범한 일이 없었다. 게다가 배 안에다 동전을 놓아 두어서 이 일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조차 속이지 않으니, 자네에게 보복할 날이 없을 것이다. 이제 바라건대 나는 부장이 되어 법지를 봉행하고 싶다." 했다. 살수견이 말하길 "다시 3년을 따라 다녀도 또한 그저 이와 같을 것이다." 했다. 이에 [살수견이] 옥황상제에게 아뢰어 그를 부장으로 발탁하게 하였다. 매번 행동거지에 보응이 있음이 마치 메아리가 있음과 같다. (후략)[341]

위의 일화를 참조할 때 알 수 있듯, 살수견 찬에 등장하는 일인칭은 살수견이 아니고 일화 속에 등장하는 상음현 성황이다. 살수견(1141~1178?)은 원명대의

341) 『열선전전』 5책, 1a~3b, "薩守堅蜀西河人. (중략) 繼至湘陰寓城隍廟, 數日太守夢城隍告之曰, 薩先生寓此, 令我起處不安, 幸爲我善見之. 太守至廟逐薩使去. 薩恨之, 行數十里, 遇人舁豕, 往廟酬愿. 薩以少許香附之曰, 酬愿畢, 願爲置爐中焚之. 其人如約. 忽迅雷火焚其廟. 越三年, 薩至渡無操舟者, 擧篙自刺, 置三文錢於舟中, 以償舟金. 因掬水浣手, 見一神鉄冠紅袍手執玉斧, 立於水中, 殺呵之曰, 汝何物, 速見形. 答曰, 我王善, 則湘陰城隍也. 向君無啓焚我廟, 我無依, 因訴之上帝, 帝賜玉斧, 令我相隨遇眞官有犯天律, 便宜行事. 今隨眞官已二年, 並無犯律事, 且置錢舟中, 以此微暗且不欺, 無可報君之時矣. 今願爲部將奉行法旨. 薩曰, 更隨三年, 亦只如是. 乃詞奏玉帝, 擢爲部將. 每有行持, 報應若響. (후략)."

잡극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곤 했던 인물로,[342] 「열선찬」에서는 살수견이 성황신을 능가한 자로 묘사된 일화가 선택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인칭 화자로 묘사되는 대상이 찬의 대상인 살수견이 아니고 살수견의 행적을 목도하고 그 정직성에 감복하는 주변 인물인 성황신이다. 이는 앞서 조선온 찬에서 찬의 주인공이 스스로 발언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의 주인공을 부각하는 주변 인물의 목소리로 발언하는 형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한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법은 우선 살수견이라는 주된 인물을 둘러싼 일화를 찬의 향유자가 인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화 속 등장인물의 발언이라고 하는 가상의 상황을 환기시킨다.

이상에서 선별하여 살펴본 「열선찬」은 그 서두에서 "신선을 그리는 염을 풀고자 한다"고 밝힌 데에서 볼 수 있듯 작자 자신의 향유를 위하여 지어진 작품이다. 자족적 목적에서 창작된 이 연작 찬은 선망의 대상으로서 여러 신선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는 허균이 한 사람의 독서인으로서 당대의 전적들에서 '반신반인'처럼 묘사되는 신선들을 어떤 식으로 재창조하는가가 다채롭게 드러나 있다. 허균이 묘사한 신선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겪는 알력이나 곤경을 넘어서 초월적 경지에 이르는 자기 고양을 이룬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찬의 대상 또는 그와 관련된 일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발언의 주체로 설정하는 독특한 화법을 구사함으로써, 작자와 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한편 대상 인물과 관련된 서사적 차원을 부각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342) 살수견에 관해서는 『열선전전』 외에 Fabrizio Pregadio, *The Encyclopedia of Taoism*, New York: Routledge, 2008, pp.825-826.

2. 유희적 작법과 문사 정체성의 정립

1) 신비체험의 서술과 유희적 작법의 모색

「벽곡변」에서 언급된 임해군 옥사가 일어난 1608년, 허균은 공주 목사로 있다가 8월에 파직되어 부안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작품에서부터 허균의 글에는 신이한 사적이나 도가적 비방(祕方)에 대한 소재가 다수 등장한다. 자신이 지어서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이백에 관한 시구(詩句)를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나타나 낭송했다거나, 신선 수련에 실패한 남궁두라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다 부안 은거기에 창작되었다. 1608년 이전에 쓴 작품에서는 신이한 사적이나 도가적 테마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1608년은 허균의 작풍이 일변한 시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는 1608년 초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수헐원신영선찬기(愁歇院神詠仙贊記)」에서 자신이 겪었다고 하는 신비체험을 기록하기에 이른다.[343]

요지인즉 허균이 민인길(閔仁佶, 1569~1642)[344]·심우영(沈友英, ?~1613)과 직산(稷山) 수헐원(愁歇院) 근처의 주점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 허균이 그 무렵 이백(李白, 701~762)에 관해 찬을 지어서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구절을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낭송했고 그 소리를 민인길과 심우영이 함께 들었다는 것이다. 이상스럽게 여겨 소리가 난 집을 찾아가 보니 사람이 살지 않은 지 30일 되는 빈 집이었다는 내용이다. 이 기문은 '이백의 영혼이 허균의 글에 감응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심우영의 의견에 대해 글 속의 허균은 짐짓 사양하다가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는 내용이다.

허균은 이러한 글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수헐원에서의 체험을 허성(許筬, 1548~1612)에게도 전달한 것 같다. 1608년 12월에 허균은 민인길에게 편지를 보내어 수헐원에서 있었던 일을 형과 조카들이 믿지 않으니 속히 와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 수헐원에서 신령이 이백의 찬을 읊었던 일에 대해서 사형(舍兄)도 믿지 않으니, 이 일을 결판내는 것은 자네의 입에 달려 있네. 나를 위해서 속히 와서 증언해 주게.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망언한다는 허물을 풀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골육간 서

343) 공주에 있다가 진향하러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는 선조의 서거(1608년)에 따른 지방관으로서의 진향 임무를 수행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344) 민인길의 생몰년은 여흥민씨대종회 편, 『驪興閔氏大同譜』, 2004, 권2, 721~722쪽.

로 불신하는 누명을 풀어주었으면 하네. 두 가지는 모두 자네가 한번 오는 데 달려 있네. 여러 조카에게 곤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네. 이에 종을 통해 초청하는 바이네.[345]

허균이 말하는 바와 같은 신기한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판단할 근거는 남아 있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당대인에게 조차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일을 묻어버리지 않고 공공연히 말하거나 글로 썼다는 데 있다. 허균이 묘사한 수헐원 사건의 스토리가 주장하는 바는 단순한 것으로, 허균이 쓴 이백 찬이 죽은 이백의 영혼을 불러낼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이다. 허균의 주장은 허성에게는 물론, 허균 사후의 적대적 독자에게는 수용되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민구는 『성소부부고』의 잡저와 기문에 대해 "허황된 말을 표절하고 부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였으니, 더욱 허망함을 볼 수 있다"고 했다.[346] 실제로 허균과 동시대에 활동한 이정귀, 유몽인, 신흠처럼 관직 생활을 했던 유명인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시에서 대상을 미화하기 위해 비유 대상으로 신선을 활용한 경우는 있어도 허균처럼 산문에서 신선의 실존을 상정하여 이야기를 전개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어우야담(於于野談)』 같은 야담집에는 신선의 실존이 긍정적으로 서술되기도 하지만, 이 시기 필기나 야담이 아닌 문집 소재 산문에서 신선의 실존을 긍정해 놓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17세기 초의 저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허균이 택한 이러한 소재나 주장은 흔치 않은 것이다.

하지만 앞서 「벽곡변」을 통해 보았듯, 허균의 세계에서는 때로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공공연히 개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모종의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언자 자신이 보기에도 명백히 부적당한 견해를 펼침으로써 오해받는 일을 감수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상기하면서 「수헐원신영선찬기」를 다시 살펴볼 때 좀 더 나은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이 작품은 그간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드물게 이 작품에 주목한 경우에도 작품의 주지를 '자기 문재에 대한 과신'이라고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347] 물론 자기 문재에 대한 자부심이 이 작품에 드러나는 것

345) 『성소부부고』 권21, 「與閔叔正」, "愁歇院神詠李白贊, 舍兄亦不之信, 決在君口, 爲我速來証之. 一則解吾妄言之咎, 一則破骨肉不相信之情. 二者係君一行矣. 被衆姪之窘, 計無所出, 委奚以邀." 이 편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건을 허균의 신선술 지향 및 개혁 의지과 관련 지어 논한 사례로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2, 휴머니스트, 2006, 357~360쪽.

346) 『東州集』 권1, 「答吳三宰論選《西坰集》簡約兼示《覆瓿稿》書」, "其他雜著、記、傳, 又皆用《丹經》、《列仙傳》、《水滸志》、《西遊記》等外書, 荒辭誕語, 剽竊傅會, 以說愚夫, 益見其虛妄也."

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아서는 허균이 주변의 불신을 무릅쓰고 굳이 신비체험을 서술해야 했던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허균이 기문(記文)의 소재로 신이한 사건을 대폭 수용했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발견되었지만, 허균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허균이 적어 놓은 신이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 미답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348]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이 작품의 서술상의 구조와 활용된 전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다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번호를 붙여 「수헐원신영선찬기」 전문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 ①-1. 내가 공산(公山)에 있을 때 화공을 청해 열선(列仙)의 상(像)을 그리게 하고, 찬(贊)을 지어 거기 이어 붙였다. 그중 이백을 찬한 낙구(落句)에, "만리창파에 온 하늘 밝은 달"이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의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했다. 때마침 향을 진상하러 상경하게 되어 화공을 재촉하여 표구를 해서 상자 속에 두고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
> ①-2. 서울에 당도한 지 열흘 남짓 만에 되돌아 직산 수헐원에 이르렀는데, 방백(方伯) 중군(中軍) 민인길과 은진(恩津) 교수(教授) 심우영을 마침 함께 만나게 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무더워서 주점 아래에 가 버선을 벗고 맨머리로 샘물을 길어 올려 손발을 씻었으며 따라온 종 셋이 좌우에서 일을 거들었다. 그 동쪽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초라했으며 담장이 낮았고, 고요하여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서 내가 이백을 찬한 낙구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그 운이 청일하고 그 정이 아름다워 넘치고 자상하며 시원하여 들을 만했다. 심생(沈生)이 먼저, "시 읊는 소리를 들었소?" 하니, 민군(閔君)이, "나도 들었소." 하였다. 나는 이상해서, 이것은 내 이백찬의 어구인데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친구들에게 자랑해 보인 적도 없는데 남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였다.

---

347) 안세현, 「조선중기 누정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35쪽.

348) 허균이 쓴 신이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상 유형학적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다. 가령 「남궁선생전」과 같이 전(傳) 장르에 신이담이 삽입된 경우에는 그것을 '소설'이라고 개념 규정을 부여하거나, 「몽기」와 같이 꿈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경우에는 '기몽 문학'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설정하여 신이담을 서술하는 것이 용인될 만한 보다 넓은 범주의 하위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수헐원신영선찬기」와 같은 일반적 기문에서 신이담을 마주하게 되면 '소설적 필치'라고 지적하는 데 그치게 되고 만다. 한편 앞서와 같은 유형론적 방법을 취해서 허균의 작품 일부를 오늘날의 연구자가 보는 특정 유형의 일부로 환원하게 되면 각 작품들이 장르를 넘어서 공유하는 유사성을 포착하게 되지 못하는 점, 허균 자신이 여러 장르에서 거듭 신이담을 채택했던 의도가 사상되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허균의 「남궁선생전」이 '소설'이라는 유형으로 묶일 만한 특징을 보여줄지라도 그것은 허균이 창출한 문학 세계의 모습을 묘사할지언정 허균이 굳이 신이담을 가져온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줄 수 없는 것이다.

[1]-3. 문하의 제자 정생(鄭生)을 불러 급히 쫓아가 보라 했더니 문의 자물쇠는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그 안을 엿보았더니 사람 하나 없었다고 했다. 우리 셋은 이상스럽게 여기면서 몸소 낮은 담을 자세히 살펴보고 엿보았더니, 과연 텅 빈 집이었다. 다만 먼지 쌓인 걸상과 깨진 항아리 몇 개에 바람벽이 있을 뿐이었다. 주인은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집이 빈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고 했다.

[2]-1. 아아, 그렇다면 그것은 신선이었던가, 귀신이었던가. 만약 귀신이라 한다면 대낮에 읊조리고 소리침이 당치 않고, 신선이라면 낮고 좁은 땅이라 우인(羽人)이 임할 곳이 아니니,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심생이, "공의 글이 이백과 더불어 그 정신을 전하여, 옛사람들이 말하지 못했던 바에까지 미쳤으니 적선(謫仙)의 영혼이 기뻐하여 찾아와 읊조리며 그 정겨운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소. 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이런 이치가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오." 하였다. 나는, "이태백은 하늘의 신선이라 바야흐로 청도(淸都) 상제의 거처에서 놀고 있을 터인데, 어찌 세상 사람의 칭찬이나 헐뜯음에 일희일비하여 저자 가운데로 자취를 굽혀, 속된 귀에 스스로 영험을 드러내었겠소. 이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거요." 했다.

[2]-2. 심생은 "하늘과 사람이 법은 하나이니, 저절로 느끼어 통하는 이치가 있기 마련이오. 공의 말 한마디가 위로 선진(仙眞)을 감격시켰기에 순식간에 그가 숙연히 바람을 타고 와서 오르내리며 공의 곁에서 완롱하는 줄 어찌 알겠소. 하물며 공이 지은 1백 편의 찬 중에서 신(神)이 홀로 이것만을 읊었으니, 나는 그가 태백이라 생각하여 의심치 않소." 하였다. 나는 웃으면서, "그렇겠소." 하였다. 인하여 서판에 적어 지자(知者)를 기다린다.[349]

우선 이 작품은 구성면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전반부([1])는 사건 묘사로, 허균이 민인길·심우영 및 종들 몇 명과 함께 있다가, 근처 빈집에서 어떤 목소리가 허균의 미공개 시구를 읊는 소리를 심우영이 먼저 들었고, 목소리

349) [1]-1. 余在公山, 倩工繪列仙像, 作贊以繼之. 其中李白贊落句曰, '萬里滄波, 一天明月', 初不覺其警異也. 會以進香上洛, 促工粧縯, 藏篋中不以示人. 抵輦下旬餘, 回至稷山愁歇院, 方伯中軍閔君仁佶、恩津敎授沈生友英, 適與之相値. 時方炎, 就旗亭下, 袒跣科頭, 汲泉澡手足, 從隸三人執事於左右. 其東偏一室, 矮而短垣, 闃無人. [1]-2. 俄聞室中有詠余李白贊落句, 其韻逸, 其情旨, 淫泆淹詳, 泠然可聽. 沈生先曰, "得聞詠詩音耶?" 閔君曰, "吾亦聞之." 余異之曰, "此乃吾贊太白語, 結撰未久, 未嘗以衒於朋侶, 人何從而知之?" [1]-3. 呼門子鄭生亟蹤之, 則扃鐍甚固, 覷其中空無人矣. 余三人怪之, 親頫短垣闚之, 則果空屋也. 只有塵榻, 數破甕靠壁. 問主人何在則曰, "室空已三旬矣." [2]-1. 噫! 其仙歟鬼耶? 若以爲鬼, 則不當於白晝吟嘯矣, 若以爲仙, 則湫雜隘陋之地, 固非羽人所臨也, 吾不得而知之. 沈生曰 "公之詞與太白傳其神, 乃古人所不道及者, 毋乃謫仙之靈, 喜而來詠, 示其卷卷之意否? 是未可知也, 而亦不可謂無是理也." 余曰, "太白, 上仙也. 方游戲於淸都帝居, 豈置欣戚於世人之贊毁, 屈跡塵闤中, 自現靈於俗耳耶? 是必不然." [2]-2. 沈生曰, "天人一揆, 自有感通之理, 公之一語, 上格仙眞, 霎然之頃, 安知其乘風肅然, 頡頏擺弄於公之側耶? 況公所著贊百篇, 而神獨詠此, 吾以爲太白無疑也." 余笑曰, "然." 因爲記之牘, 以俟知者云.

가 들려온 빈집에 인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후반부(②)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이백의 혼령이 허균의 글에 감격한 나머지 이곳에 임하였다는 심우영의 주장을 허균이 마지못해 승인해준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주역』과 『장자』의 전고를 활용하고 있다. 빈집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는 『주역(周易)』 풍괘(豐卦)의 상육(上六) 효사에서 "문을 엿보니 조용하여 아무도 없다(闚其戶, 闃其無人)"라 한 것과 유사하게 "고요하여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闃無人]"라고 썼다. 이어서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소리가 난 빈집을 살펴보고 온 정생은 그 집에 빗장과 자물쇠가 굳게 닫혀 있고[扃鐍甚固] 엿보아도 사람이 없었다[覷其中空無人]'고 주장한다. 빗장과 자물쇠가 굳게 닫혀있다는 것은 『장자(莊子)』 「거협(胠篋)」의 전고로, 좀도둑은 작은 상자[篋]의 자물쇠 따위가 너무 굳게 잠겨 있을까 걱정하지만, 큰 도둑은 상자를 통째로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자 자물쇠가 견고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구절에서 나온 표현이다.[350]

여기서 『장자』의 전고를 활용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참조할 만한 점은 허균이 「수헐원신영선찬기」를 쓴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자서에 대한 독(讀)을 쓰면서 『장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허균은 『장자』에 대해 논하면서, 일견 사리에 닿지 않아 보이는 내용을 글에다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다.

> 내가 어릴 때는 장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지 못했고 그저 장구를 인용해다가 글을 수식하는 도구로 삼았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어 다시 읽어 보았더니, 글이 탁월하고 비범하고도 모호해서 뜻을 헤아릴 수 없을 듯했다. (중략) 지금 다시 보니, 담박하고 적막한 것과 청정무위의 내용이 암암리에 불가의 설과 합치한다. 다만 허황하고 황당한 표현을 써서 독자에게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가볍게 읽어서는 그 단서를 알 수 없다. (중략) 그리고 '주공과 공자를 비방했다.'는 말도 잘못된 것이다. 노담은 자기 스승인데 진일이 조문한 일을 가설하여 노담을 비방하였으니, 이것은 이 늙은이가 농담이나 기이한 말을 하는 평소의 태도이지 참으로 비방한 것이 아니다. '천하편'에 유가를 맨 으뜸으로 언급한 것에서 그가 주공과 공자를 존숭

350) 『장자』 제10편, 「거협」, "작은 상자를 열고 주머니를 뒤지고 궤짝을 뜯는 도둑을 염려하여 지키고 방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끈이나 줄을 단단히 당겨 묶고 빗장과 자물쇄를 튼튼히 채운다. 이것이 세속에서 이른바 도둑을 방비하는 지혜이다. 그러나 큰 도둑이 오면 궤짝을 통째로 등에 지고 상자를 손에 들고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달아나므로 끈이나 줄, 빗장이나 자물쇠가 견고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將爲胠篋探囊發匱之盜, 而爲守備, 則必攝緘縢固扃鐍, 此世俗之所謂知也. 然而巨盜至, 則負匱揭篋擔囊而趨, 唯恐緘縢扃鐍之不固也.)."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1]

우선 허균은 자신이 『장자』를 여러 번 읽어 보았지만,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글이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다. 『장자』의 주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는 허황하고 황당한 표현을 썼고 진지한 말[莊語]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표현은 허균의 독자적인 의견이기보다는, 『장자』에 나오는 내용, 즉 '세상이 혼탁하므로 정론을 펼쳐서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없으니 우화나 치언(巵言) 따위를 활용해야 한다'[352]는 구절의 표현을 약간 달리해서 따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그는 『장자』에서 진일(秦失)이 노자를 비방한 대목을 들면서, 노자는 장자 자신의 선생인만큼, 장자는 농담 잘하고 기이한 말을 즐겨 하는 평소 버릇이 나온 것일 뿐 노자를 참으로 비방한 것이 아니라는 기발한 주장을 폈다. 이러한 독법을 허균의 글에 적용한다면, 허균 자신이 활용하는 어법 역시, 허황하고 진지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올 때 글의 의미를 문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독해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진일이 노자를 비방한 대목에 대해서와 같이 문면에 쓰인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읽어야 할 필요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장자』를 읽는 허균의 독법으로부터, '허황하고 황당한 표현', 가령 「수헐원신영선찬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초현실적인 사건을 축자적 의미에 따라 읽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figure of speech)으로 접근하는 시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사정을 염두에 둘 때, 허균의 신이담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허균이 실제로는 그런 신비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자랑을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거론한 허균의 『장자』 독법과는 별개로, 허균이 실제로 신비체험을 하여 그 경험한 바를 충실히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는 신이담을 수단화했다고 보는 관점이라면, 후자는 신이담이 가공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각한 바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런데 두 관점 모두 허균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비체험을 설명

---

351) 『성소부부고』 권13, 「莊子」, "余少時讀莊子書, 不知其蒙, 但尋文摘章, 爲挨藻法. 中歲更讀, 則俶倘怳忽, 若不可測度. (중략) 今則看之, 其恬淡寂寞, 淸靜無爲, 默與佛子相合. 特以其謬悠荒唐之辭, 不與爲莊語, 故淺讀之, 莫可見端涯也. (중략) 其曰詆周孔者亦非也. 老聃其師而假秦失之弔以詆之, 此老播弄淑詭之故態, 非眞詆也. 於天下篇, 首言儒家, 其尊周孔可知矣."

352) 『莊子』 「天下」, "以天下為沈濁 , 不可與莊語, 以巵言爲曼衍, 以重言爲眞, 以寓言爲廣."

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353] 전자의 경우 이 작품의 궁극적 메시지가 '문재 자랑'이라는 점을 알아낼 수는 있어도 왜 하필 신비체험 서술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그 결론에 도달해야 했는가가 설명되지 않는다. 자신의 문장은 이런 점이 우수하다고 직설적으로 적는 방식도 가능한데, 굳이 신이담을 적어야만 비로소 해소되는 어떤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시야에서 가려진다. 반면 후자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곤혹스러워하다가 간신히 그 일을 이해할만한 것으로 정리하는 후반부의 과정, 그 머뭇거리는 과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그런 일을 확실히 경험했다면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서술하면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작자 자신이 보기에도 별난 일로 느껴졌기에 특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허균이 실제로 신비체험을 했는지 여하를 따지는 것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남은 방식은 무엇인가? 우선 신비체험이란 그 말의 정의상, 경험 대상의 실존이 불확실하고 검증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임을 뜻한다. 애초에 「수헐원신영선찬기」에 묘사된 사건은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심을 부를 만한 일이다. 앞서 본 민인길에게 보낸 허균의 척독은 허균의 가까운 친족조차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 강한 회의를 제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허균이 묘사한 것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기로 한 '선택'을 표명하는 행위, 즉 발화 행위(speech-act)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달리 말해 「수헐원신영선찬기」는 거기 묘사된 신비체험을 긍정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이 작품을 발화 행위로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 보겠다. 주지하듯 발화 행위는 언어철학자 오스틴(J.L Austin)이 정립한 용어로, 누군가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단지 정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통해 동시에 다른 행위를 하게 되는 발화를 뜻한다. 계약이나 선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발화의 종류를 진위문(眞僞文) 즉 진술의 진위를 따질 수 있는 발화와, 수행문(遂行文) 즉 발화 자체가 어떤 행동의 일부이거나 행동 자체인 경우로 양분하였다. 그는 진위문처럼 보이는 많은 발화가 실제로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거나, 의도한다 해도 오직 부분적일 뿐임을 지적하면서, 애초에 전혀 다른 목적을 의도한 발화를 사실에 관한 진정한 진술인 것처럼

353) 이하에서 신비체험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의 구분과 그 방식 모두의 약점을 논의하는 방식은, 중세 기독교 문화에서 전승된 기적 이야기를 해명하는 방식에 대한 다음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Justice, Steven. "Did the Middle Ages Believe in Their Miracles?" *Representations* 103(1) (Summer 2008): 1-29.

여기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행적 문장 또는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라고 부를 만한 발화 방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54]

오스틴은 수행문의 예로 '프랑스는 육각형이다'라는 진술을 들면서, 이 진술은 고위 장성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지질학자에게는 좋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프랑스는 육각형이다' 같은 진술은 진위를 따질 문장이 아니라, 그 발언 목적에 비추어 개략적인가 치밀한가,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를 따질 문장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이와 같은 발화 행위라는 개념은 문장 단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들의 결합체인 한 편의 작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수헐원신영선찬기」로 돌아와 보면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발화 행위 개념을 상정할 때, 거기 묘사된 내용의 진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내용이 개략적인가 치밀한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문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백과 같은 존재가 자신의 찬사(讚辭)에 감응했다는 식의 서술은 대단히 개략적인 편이다. 하지만 신비체험을 서술하기 시작한 단계의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수헐원신영선찬기」에서 서술한 신비체험의 사건이 새로운 방식의 작법에 대한 초기 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개략적인 서술은 실험적인 작법 모색의 첫 단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허균은 이 작품을 지은 데 그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궁두라는 인물의 신선 수련담을 소재로 하여 훨씬 편폭이 길고 내용이 다채로운 서술을 시도하여 한층 치밀한 서술을 시도하였다.

둘째, 발화 행위 개념을 염두에 두고 「수헐원신영선찬기」를 읽어야 허균 자신의 미공개 시를 낭송한 정체불명의 목소리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서술되는 전반부와, 그 목소리를 이백의 신(神)으로 생각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머뭇거림의 과정을 서술한 후반부가 왜 필요했는지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허균 시대의 상식으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주장함으로써 허균은 대단히 별난 소재를 기꺼이 채택하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작자가 겪었다고 하는 신비체험은 그 자신으로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이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다. 신이담이 그 정의상 가질 수밖에 없는 긴가민가한 속성을 외면하고 작자의 자기 자랑을 위한 수단으로 간단히 환원하거나, 혹은 동시대인의 회의적 반응을 외면하고 작자의 발언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는 어느 쪽도 만족스러운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

354) J.L. 오스틴,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21~27쪽.

그렇다면 자신의 신비체험을 공공연히 긍정하는 발화 행위가 작자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발화 행위는 정보 전달이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미학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에 가깝다. 말하자면 희작(戱作)을 창조하려는 모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한문학 전통에서 희작 산문의 창작은 그 연원으로 보통 한유(韓愈, 768~824)의 「모영전(毛穎傳)」이나 「송궁문(送窮門)」 등을 지목한다.[355] 이들 작품이 희작으로 이해되는 핵심 이유는 가공의 세계를 실제 사실인 듯이 적었다는 것에 있다. 고려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는 문인들이 희작을 창작한 경우에도 그 양은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창작 방식에 있어서도 이규보의 「구시마문(驅詩魔文)」이나 이첨의 「척사기문(斥邪氣文)」의 사례에서 보듯, 가공의 세계를 묘사하면서 한유가 일찍이 시도했던 것과 유사한 어법을 취하고 있다.[356] 18세기에 들어서 이른바 북학파 문인들의 저작에 이르러서야 가공의 세계를 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담이나 재담을 문집에 대폭 수록하는 현상이 발견된다.[357] 문제는 이른 시기의 희작으로 운위되는 한유의 「모영전」이나 「송궁문」과 같은 작품은 초현실적인 사건을 주장하는 글이 아니고 사물이나 현상을 의인화하여 우화적인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작품인 반면, 허균의 「수헐원신영선찬기」에서는 초현실적인 사건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초현실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작중 태도와 관련하여 한유의 「악어문(鰐魚文)」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악어문」에서 한유는 악어가 조주(潮州)의 가축과 짐승을 잡아먹어 민(民)의 복리를 해친다고 규탄하면서 7일 안에 떠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경고한다. 이 일에 대해 당말(唐末)에 나온 『선실지(宣室志)』에서는 한유의 구악(驅鰐) 시도가 실제로 성공했다고 기록하면서 이후 한유가 「악어문」을 지어 조주에서 악어를 몰아냈다는 전승이 널리 퍼지는 데 일조하게 된다.[358]

현대 학자들에게 있어서 「악어문」을 읽는 관건은 실제로 글을 지어 악어를 물

355) 임형택, 「李朝末 知識人의 分化와 文學의 戱作化 傾向」, 『전환기의 동아시아문학』, 創作과 批評社, 1985, 15쪽; 심경호, 「한국 한문산문의 발달과 韓愈 문장의 수용」, 『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2004, 45쪽.

356) 임형택, 앞의 논문, 16~17쪽; 원주용, 「雙梅堂 李詹의 散文에 관한 考察」, 『漢文學報』 19, 우리한문학회, 2008, 70~73쪽.

357) 안대회, 「北學派 文人의 作品에 나타난 諧謔과 弄談의 분석」, 『한국한문학연구』 67, 한국한문학회, 2017,189쪽.

358) 고광민, 「韓愈 驅鰐사건과 〈鰐魚文〉의 수용 양상 연구」, 『中國語文學誌』 34, 중국어문학회, 2010, 9~11쪽.

리쳤는지 여부가 아니라, 「악어문」을 씀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이다. 예를 들어 스티븐 오웬은 한유 역시 「악어문」을 씀으로써 악어가 물러가기를 기대하지도 않았겠고 악어가 실제로 물러난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본다. 「악어문」을 쓴다는 것은 한유에게 있어서 악어를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 효용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황제의 권위를 빙자해 악어에게 물러가라고 말했을 때 생겨나는 희극적 분위기의 환기, 둘째,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을 제기하고자 하는 충동을 해소하는 것, 즉 어째서 악어를 제거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주체를 현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가 중당(中唐) 시기에 와서 비로소 광범위한 문인들 사이에서 집단적 차원에서 시도되었으며, 이 시기에 들어 작자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혁신적인 저술 기법이 등장한 것으로 본다.[359]

「수헐원신영선찬기」의 서술 방식 역시 신선이나 귀신처럼 비일상적 존재에 대한 실감을 재현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간에, 일상적 소재를 다룬 글에 비해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었을 것이다. 이민구(李敏求, 1589~1670)가 허균의 잡저와 기문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한다[說愚夫]'고 한 것은 비록 경멸조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허균의 글에서 누군가는 즐겁게 읽을만한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악어문」과 유사한 저술상의 욕구는 「수헐원신영선찬기」에서도 볼 수 있다. 「수헐원신영선찬기」가 하나의 답이라면 여기에 제기된 질문은 허균이 지은 글 중 수작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작자는 '죽은 이백이 되살아날 정도'라고 답한 것이다. 그러한 해석의 제시 이면에는 사태를 자기 관점에서 재서술하고자 하는 주체가 도사리고 있다. 허균의 이 글에서도 중당 이래 문인들에게서 시도되어 왔다고 하는 희작 창작을 통한 주관성의 발현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친지와 주변인의 비난이나 의심을 무릅쓰고 이

---

359) Stephen Owen, *The End of the Chinese 'Middle Ages' Essays in Mid-Tang Literary Cultur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p.57-82. 오웬이 보기에 「악어문」에 대해서 서구 학자들이 대체로 합의하는 바는, 해당 지역에서 악어를 숭배하는 신앙을 가진 세력과 대결하는 지방관 한유의 입장을 글로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Owen, 위의 책, p.60) 오웬의 설은 그런 다수설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악어문」의 발언 방식이 갖는 효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악어문」이 갖는 제의적 성격에 주목한 다음 논의에서도, 제의가 갖는 유희적 성격을 중시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강종임, 「韓愈 〈鰐魚文〉의 祭儀性과 文靈」, 『中國語文學』 61, 영남중국어문학회, 2012, 11~12쪽.

런 식의 글을 씀으로써 관철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해볼 필요가 있다. 「벽곡변」이나 「독장자(讀莊子)」에서 확인한 것처럼, 허균의 보기에는 저자를 둘러싼 환경이 부조리할 경우 이치에 어긋난 말을 활용해서라도 어떤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정당하다. 「수헐원신영선찬기」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글의 가치를 스스로 변호하면서 신비체험과 같은 삽화를 활용한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활용해서라도 자기 글의 가치를 스스로 변호해야 한다는 감각의 소산이다.

「벽곡변」에는 국가나 조정 같은 개인 너머의 권위 있는 조직이 개인을 적절히 보호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결여되어 있다. 비상시에 각자도생식의 자기 보호가 필요하다는 감각은 「관동불가피란설(關東不可避亂說)」 같은 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360] 마찬가지로 당대 문인 사회에서 자신이 그 자신이 만들어낸 글의 가치에 걸맞은 인정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허균의 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에 따라 자신의 글의 가치 역시 스스로 상찬해야 하며, 그 상찬의 수단으로 기꺼이 사리에 어긋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허균의 세계에서는 성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희작'이라는 말에 내포된 유희적 창작이라는 차원은 전근대인에게는 물론이고, 오늘날의 일부 연구자들에게도 다소 부정적 함의를 띄고 쓰이는 경우가 있어 차제에 언급해 두고자 한다. 유희적이라는 말은 때로 참된 것, 진지한 것, 고상한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여 헛된 것, 착실하지 못한 것, 저속한 것으로 폄하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물론 그런 시각이 어느 정도 유효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즐거움을 유발하고자 하는 유희적인 차원의 담화가 때로 픽셔널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날조나 허위의 담화로 폄하될 수 없다. 이점은 인간의 담화가 진위문 외에도 수행문의 차원을 가지고 있음에 유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또한 유희적 창작도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수헐원신영선찬기」에 가해진 문학적 수식(修飾)이나, 이후 자신의 경험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민인길에게 편지를 쓰는 일련의 행위들은 이 작품이 교양 있는 문인의 손에서 이루어진 고상한 창작물이라는 점, 자신의 창작물에서 주장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관철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수헐원신영선찬기」는 작품 안팎에서 고상하고도 진지한 유희의 차원을 모색하는

360) 『성소부부고』 권12, 「關東不可避亂說」. 피난지로 선호되는 영동 · 영서 지역이 비상시에는 상식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개진한 글이다.

첫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2) 유희적 작법의 심화와 문사 정체성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은 입전 인물 남궁두의 신선 수련담이 주된 내용이 되고 있어 허균의 선취(仙趣)가 전면에 드러난 작품이다. 분량 면에서도 허균의 여타 산문이 수백 자 정도에 그치는 데 반해 이 작품은 4,500여 자에 달하여 예외적으로 긴 편이다.[361] 앞서 논한 수행적 발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수헐원신영선찬기」는 신이한 존재에 대한 묘사가 개략적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남궁선생전」은 한층 더 치밀하고 본격적인 서술을 시도한 작품이어서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하지만 남궁두의 일생담 전체가 허균의 창작은 아니다. 16세기 후반, 신선술을 닦았다고 하는 남궁두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것 같다. 당시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도 남궁두의 일화가 실려 있고, 인물의 이름은 약간 다르나 남궁두의 일생담과 흡사한 일화가 양만고(楊萬古, 1574~1654)의 『감호집(鑑湖集)』에도 「기문(記聞)」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362] 허균보다 후대에 지어진 신선전 모음집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남궁두 일화를 수록한 문헌은 더 많다.[363] 이에 여기서는 허균과 동시대 인물이면서 남궁두라는 동일인을 가리킨 것이 확실한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오는 남궁두 일화와 비교하여 허균의 남궁두 묘사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겠다. 유몽인의 서술은 원문 총 207자 분량의 짧은 분량이므로 아래에 전문을 제시해 보겠다.

---

361) 17세기 초의 '한문 소설'들이 이전 시기보다 양적으로 대폭 늘어나는 중편화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한 논의로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16~17쪽. 여기 나온 통계에 따르면 「이생규장전」이 3,500자 「주생전」 5,800자, 「최척전」은 8,300자 분량으로 집계되어 있어서 「남궁선생전」의 분량 수준을 그와 비교하여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준다.

362) 이신성, 「『鑑湖集』 所載 '神仙傳' 小考」, 『한국 고소설의 자료와 해석』, 아세아문화사, 2001, 153~167쪽. 『감호집』 4권에 '記聞'이란 제목으로 실린 이야기는 남궁두가 아니라 南氏 성을 가진 인물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줄거리는 대략 비슷하여 남씨도 아내를 죽이고 입산하여 도술을 닦다가 자신의 과거를 알아본 도사 밑에서 수련을 하다가 하산하여 옛 고향을 되찾아간다는 내용이다.

363) 남궁두 일생담에 대한 허균 후대의 기록으로는 홍만종의 『해동이적』, 황윤석의 『해동이적보』의 「權眞人」조 등에 실린 기록이 있다. 남궁두 일생담이 실린 문헌 소개 및 홍만종과 황윤석의 남궁두 기록에 대한 상세한 대조로는 김영연, 「허균 五傳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9~21쪽.

남궁두는 호남 사람으로 젊은 시절 사부(辭賦)를 잘 지었다. 일찍이 성균관의 과장에서 1등을 하니, 선비들이 모두 그 글을 돌려 가며 읊었다. 불행히 집 안에서 젊은 첩과 서로 장난하다가 실수로 그녀를 죽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 친척들이 알까 두려워하여 몰래 논 가운데에 묻고서는 못된 젊은 놈이 데리고 달아났다고 말을 퍼뜨렸다. 1년 남짓 지나서 집의 여종이 매를 맞고는 분해서 죽은 첩의 친족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했다. 논 가운데를 파 보니 그 첩은 얼굴색이 살아 있는듯했다. 그제야 남궁두가 살려 달라고 애걸하였다.

이로부터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신선술과 불교에 몰두해 인간 세상의 영리를 끊었다. 본래 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정진하는 바가 정밀하고 심오했으며, 게다가 일생동안 공력을 쌓았다. 색욕(色欲)만은 완전히 끊어 내지 못해 연단의 묘법은 터득하지 못했지만, 오직 기(氣)만 마시고 곡기는 끊었다. 그리하여 나이 팔십에도 오히려 어린아이의 얼굴빛을 지녔으며, 나막신을 신고서 전주와 은진을 왕래했는데, 젊고 건장한 사람도 그의 걸음을 뒤쫓을 수 없었다. 그가 고요하게 방에 앉아 있으면 방 안에는 늘 자줏빛 기운이 돌았다. 식자들은 그를 일컬어 '지상의 신선'이라고 하였다. 하루는 우레가 치며 비바람이 불어 햇빛을 가리니, 남궁두가 말했다.

"하늘이 장차 나를 부르려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병도 없이 앉은 채로 죽었다.[364]

유몽인과 허균이 서술한 남궁두 일생담의 공통된 내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남궁두는 본래 과거 시험을 보려 하던 인물인데 어쩌다 사람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되어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도술을 닦았으며, 신선술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남궁두가 과거를 준비할 당시 글을 잘 지었다는 점, 신선술을 닦을 때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데에서 남궁두가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점은 두 작품 모두에 특기되어 있다.

세부 묘사 상의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365] 첫째, 살인의 경위에 관한 묘

---

364) 번역은 유몽인,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번역)』, 돌베개, 2006, 191~192쪽; 유몽인,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원문)』, 돌베개, 2006, 98~99쪽. "南宮斗, 湖南人也. 少時善辭賦, 嘗於館學場屋爲第一, 士子皆傳誦其辭. 不幸家中與小妾相戱, 失手致死, 驚懼其親成知, 密埋于稻田中, 宣言爲惡少所竊. 歲餘, 家婢怒其笞, 奔告其親黨, 掘諸稻田中, 面色如生, 遂哀丐其生. 自是, 不復應擧, 遂專攻仙佛, 謝人間榮利, 木來高才人也, 所就精深, 加以積功一生, 只緣色欲未全剗去, 不得成火候之妙, 而惟服氣絶食. 年八十猶有嬰兒色, 足躡木履, 來往于全州·恩律, 雖少壯莫能趁其步. 其靜居一室, 室中常生紫氣, 識者稱之曰, "地上仙." 一日, 雷霆風雨, 日光翳然, 斗曰, "天將召我." 無病而坐化矣."

365) 당(唐) 전기(傳奇) 작품들은 대체로 구전되는 공통된 줄거리를 사대부 기록자들이 각기 약간 다르게 받아 쓰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문헌화 된 전기 작품들의 문학성은 줄거리보다 세부 묘사에 드러난다고 보는 견해로 다음을 참조. Sarah M. Allen, "Tales Retold: Narrative Variation in a Tang Sto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사다. 유몽인이 그린 남궁두는 첩과 장난하다가 실수로 죽였다고 되어 있지만, 허균의 남궁두는 첩이 자신의 당질과 간통하는 현장을 보고 활을 겨누어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되어 있다.[366] 유몽인의 남궁두는 첩을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죽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목숨을 구걸했다고 한 것에서, 살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남궁두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허균의 남궁두가 한 것처럼 간통한 첩을 현장에서 즉시 죽이는 일은 16세기 조선의 법률이나 그 모체가 된『대명률(大明律)』규정에 비추어볼 때 논죄 대상이 아니다.[367] 따라서 작중의 남궁두가 살인했다는 이유로 형을 받은 일은 적어도 남궁두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이다. 이런 사정이 종래의「남궁선생전」연구에서는 대체로 주목되지 않았는데, 해당 작품이 나온 시대의 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작중 인물의 처지를 이해하는 시각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둘째, 남궁두의 스승이라는 권씨 성을 가진 진인(眞人)의 등장 여부이다. 유몽인의 글에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는 반면,「남궁선생전」에서는 권 진인의 성선담(成仙談) 및 그가 여러 신령들을 불러 조회하는 장면이 상당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셋째, 유몽인의 남궁두는 동시대의 식자들에게 '지상선'이라 불렸다고 되어 있지만, 허균의 남궁두는 권 진인에게서 '지상선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 자신이 지상선 되기를 포기하였다고 묘사된다.[368]

Studies 66, no. 1 (2006): 140. Allen은 당 전기에 대해 작중 인물이 말하는 방식이나 세부적인 장면 묘사, 어휘를 다루는 기록자의 능숙성, 줄거리에 대해 저자가 내놓는 해석 같은 요소를 기록자의 개성과 결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남궁두 관련 일화 역시 당 전기와 마찬가지로 사대부들 사이에 구전되던 일화를 문헌화하는 과정에서 기록자 간 차이가 나타난 점이 있다고 보아 작품 간 세부 묘사 상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366)『성소부부고』권8,「南宮先生傳」,"見妾艷粧麗服佇於階, 而堂姪者踰東短垣, 足未及地者半咫, 妾遽前摟抱. 斗忍怒而姑徐俟其終, 繫馬於外門柱, 潛身蔽於隙中以窺之. 二人者諧謔極褻, 將解衣竝枕. 斗方窮其實, 就暗裏摸壁, 則掛箙有二矢一弧, 遂關而注射, 先貫女, 胸腹立潰, 其男驚起, 跳北囪出, 又射之, 中脅斃." (「남궁선생전」에 관한 주요 이본의 교감과 주해는 김영연, 앞의 논문, 141~161쪽에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해당 결과를 활용하고 자세한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다.)

367)『大明律』,「刑律」, 人命, 殺死奸夫 "처와 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하였을 때, 이를 '현장에서 남편이 직접 잡아' '현장에서 즉시 죽인 경우'는 죄로 논하지 않는다(凡妻妾與人通奸, 而於奸所, 親獲姦夫姦婦 登時殺死者, 勿論.)."; 장병인,『(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354~355쪽. 실제로 조선 전기 간통 현장에서 奸女와 奸夫를 즉시 죽이고도 '현장살해'라 하여 처벌받지 않고 석방된 사례로는 다음을 참조. 장병인,『(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혼인·이혼·간통·성폭행으로 읽는 조선시대 여성사』, Humanist(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8, 276쪽.

368)『성소부부고』권8,「南宮先生傳」,"先生曰, "吾初擬飛昇, 而欲速不果成. 吾師旣許以地上仙, 勤脩則八百歲可期矣. (중략) 人之欲久視者, 原爲樂事, 而悄然無樂, 吾何用久爲? 以是不烟火, 抱

넷째, 유몽인은 여러 신선담의 하나로 남궁두의 일화를 제시하였기에, 앞서 제시한 내용이 남궁두 관련 서술의 전부이고 별도의 논평을 가하지 않았다. 반면 허균은 전(傳)의 형식을 취하여서 작품 말미에 자신의 논평을 제공하였다.

이상의 차이점을 유념하면서 아래에서는 허균의 「남궁선생전」 작법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려 한다. 하나는 남궁두라는 인물의 사람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남궁두의 일대기를 표방한 작품에 왜 굳이 권 진인 이야기를 길게 삽입하고 여러 신들의 조회 장면을 전체 작품의 1/4 가량을 들여 서술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우선 남궁두라는 인물의 묘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성격의 강조이다. 주지하듯이 작품은 작중에 "인(忍)"이라는 글자를 총 21회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남궁두의 성격을 묘사했다. 전반부에서는 남궁두의 성격이 잔인하다는 형용사적 의미로 쓰이는데, 중반부에 이르면 잠이나 식욕을 참는다는 동사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늘어나며, 후반부에서는 남궁두가 욕념을 억제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 예를 순서대로 연번을 매겨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조의 편의를 위해 원문을 함께 제시한다.

① 남궁두는 성격이 강하고 교만하고 사나웠으며, 강퍅하여 구애됨이 없었다.
伉倔自矜懻, 剛忍敢爲.

② [젊은 승려가] 남궁두를 흘낏 보고 말했다.
"사족(士族)이시군요. 왜 뒤늦게 머리를 깎으셨습니까?"
그러더니 또 이렇게 말했다.
"성격이 모진 분이군요."
解襆距堂廉睨曰, "君, 士族也. 何脫削乎?" 俄曰, "性忍者."

③ 첫날 밤에는 자리에 앉아 새벽 2시쯤이 되자 눈이 저절로 감겨 왔지만 참고 새벽까지 버텼다. 둘째 날은 몽롱하고 피곤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애써 참아냈다. 셋째 날과 넷째 날 밤에는 몸이 노곤하여 꼿꼿이 앉아 있지 못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기도 했지만 참고 고비를 넘겼다. 그러다가 일곱째 날 밤이 되자 홀가분하니 정신이 환해지며 머릿속이 또렷하고 상쾌해지는 것이었다. 선사가 기뻐하며 말했다.
"자네가 이처럼 큰 인내력을 가졌으니 무슨 일인들 못 이루겠나!"
初夜坐到四更眼自合, 忍而至曙. 第二夜昏倦不省事, 刻意堅忍. 三夜四夜倦困不能植坐,

子弄孫, 以度餘年, 乘化歸盡, 以順天所賦也.""

頭或撞於壁楣, 猶忍過. 第七夜, 脫然朗悟, 精神自覺醒爽. 長老喜曰, "君有許大忍力, 何事不可做乎?"

④ 오직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어그러뜨리고 말았다.[369]
唯其不忍, 以敗垂成之功, 嗚呼惜哉.

남궁두의 성품과 행동, 능력을 지목하는 말로 쓰인 "인(忍)"이라는 글자는 작품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 잔인하다는 뜻에서 참는다는 뜻으로 전환되고, 다시 남궁두가 실은 불인(不忍)했다는 서술로 넘어간다. 인(忍)자가 갖는 다의어로서의 성격을 활용하여 인함과 불인함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것이다. 이러한 조명의 결과로 남궁두의 성격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를 작품 전체에 걸쳐 되짚어보면, 남궁두라는 인물의 성격은 일견 잔인해 보였지만 자세히 알고 보니 충분히 잔인하지는 않더라는 것으로 그 얼개가 요약된다.

작중 남궁두의 성격이 인한가 불인한가의 문제는 그에 대한 가치 판단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다. 허균은 논평에서 남궁두가 불인했기에 신선이 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남궁두의 불인함이나, 그로 인해 신선이 되는 데 실패한 것은 비극적인 일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불인함이야말로 맹자 이래 상찬되어 온 덕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맹자는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물로 기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누구라도 깜짝 놀라 아이를 측은해하는 마음이 즉각 우러나오는데, 그런 마음은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본성이라고 주장한다.[370] 맹자가 보기에 사람들은 그런 본성을 식물 기르듯 정성껏 가꾸지 않기 때문에 민둥산이 된 우산(牛山) 마냥 타고난 선한 본성을 상실하게 되며,[371] 그 결과 기꺼이 잔인한 짓을 하게 된다.

만약 허균이 '불인'함을 상찬하는 맹자의 설에 동의하였다면, 남궁두가 자신의 불인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나, 그로 인해 신선이 되는 데 실패한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심정이 전부가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러한 추론과 관련하여 생각

369) 「남궁선생전」 번역은 다음을 따르되 약간 수정하였다. 박희병·정길수 역, 「남궁선생전」, 『낯선 세계로의 여행』, 돌베개, 2007, 95~126쪽.
370) 『맹자』,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 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鄕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371) 『맹자』, 「告子」 上, "牛山之木, 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彼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해 볼 작품이 당(唐) 전기(傳奇) 「두자춘(杜子春)」에 나오는 수련담의 묘사이다.[372] 주인공 두자춘 역시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 말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는 스승의 당부를 받는다. 두자춘은 이 당부를 내내 잘 지키다가,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를 거꾸로 들고 돌에 머리를 내리쳐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자 탄식을 금치 못한 나머지 스승의 당부를 어기게 된다.[373]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점은 「두자춘」의 해당 대목과 남궁두가 수련 마지막 단계에 참지 못하고 실패한 대목의 묘사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자춘 이야기를 두고, 그 작자가 당나라 시기에 많은 사람이 신선술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보는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제해 가면서 신선이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는 질문을 제기해 놓은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374]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굳게 참아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신선이 된들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겠냐고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명대 풍몽룡(馮夢龍)의 『성세항언』에 개작되어 수록된 두자춘 이야기에서는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탄식을 참지 못한 일이 전화위복으로 묘사된다. 두자춘은 탄식을 참지 못한 결과 당장은 신선이 되는 데 실패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처까지도 함께 득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375] 이러한 전개를 두고 명대에는 본성의 발현을 긍정하는 시각이 대두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376]

불인함이라는 성품에 대한 허균의 판단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남궁선생전」이 인함과 불인함의 양면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따져보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은

---

372) 「남궁선생전」과 「두자춘」에 나타난 수련 실패 장면 묘사의 유사성을 지적한 논의로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 『韓國古典人物傳硏究』, 한길사, 1992, 251~252쪽. 두자춘 이야기는 애초에 『속현괴록(續玄怪錄)』에 수록되어 있었고 후에 『태평광기』 권16에 재수록되었다. 두자춘과 흡사한 수련실패담을 담은 작품으로 「蕭洞玄」(『태평광기』 권44)이 있다.

373) 이방 지음, 김장환 역, 『태평광기』1, 학고방, 2000, 417~428쪽.

374) Sing-chen Lydia Chiang, "Daoist Transcendence and Tang Literati Identities in 'Records of Mysterious Anomalies' by Niu Sengru (780-848)."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CLEAR)* 29 (2007): 17-18.

375) 馮夢龍, 『醒世恒言』 권37 「杜子春三入長安」, 人民文学出版社, 2015, 822~844쪽; Feng, Menglong, "Du Zichun Goes to Chang'an Three Times," Translated by Shuhui and Yunqin Yang. *Stories to Awaken the World: A Ming Dynasty Collection (Volume 3)*,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9, pp.862-885.

376) Li, Wai-yee. "On Becoming a Fish: Paradoxes of Immortality and Enlightenment in Chinese Literature," in *Self and Self-Transformation in the History of Religions*, edited by David Shulman and Guy Stroumsa.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46-48.

확실하다. 남궁두의 인함이 신선술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성취를 가능하게 했지만, 참고 또 참기를 요구하는 신선술의 실행을 통해 남궁두는 자기 인함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 작중의 남궁두는 자기 인함의 한계를 시험함으로써 자신의 참모습, 즉 불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남궁선생전」을 그와 같은 남궁두의 자기 발견의 이야기로 보아야 유몽인과 달리 허균이 남궁두를 그리면서 지상선 되기를 포기하는 자로 그려 놓은 점도 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산한 남궁두는 지상선이 되기 위한 수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데, 이유인즉 오래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 나는 선생이 밥 먹고 숨 쉬는 것이 보통 사람과 같은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그러자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
> "나는 당초에 하늘로 오르려 했지만, 빨리 이루고자 하다가 결국 이루지 못했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더러 지상선은 될 거라며 부지런히 수행하면 8백 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셨지.
>
> 그런데 요사이 산속 생활이 너무 한적하기에 속세로 내려와 봤더니 친지라곤 한 사람도 없더군. 게다가 가는 곳마다 젊은것들이 내 늙고 추한 모습을 업신여기니, 인간 세상에는 조금도 흥미가 없어졌어. 사람이 장수하고 싶어 하는 건 원래 즐거움을 위해서인데, 나는 쓸쓸해서 즐거움이라곤 전혀 없으니 오래 살아 봐야 뭐 하겠나? 그래서 이젠 속인들이 먹는 음식을 금하지 않고, 아들도 안아 보고 손자 재롱도 보며 여생을 보내다가 죽어 하늘이 내린 이치를 순순히 따르려 하네.377)

친지도 없는 데다 젊은이들에게 경멸을 받아 소외감을 느끼게 된 남궁두는 지상선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자손을 보아 약간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여생을 보내는 길을 선택한다. 이것은 작품 초반부터 묘사된 남궁두의 욕망, 즉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원하였던 바에 부합하는 결말이다. 애초에 남궁두는 이미 갖고 있던 부유함 이상을 원했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했고,378) 입산한 이후에도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는 권 진인의 질문에 '한 가지 기예를 배워 행세하고 싶다'고 대답한다.379) 그러자 권 진인은 남궁두에게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한

---

377) 『성소부부고』 권8, 「남궁선생전」, "不佞見先生, 飮啖食息如平人, 怪之. 先生曰, "吾初擬飛昇, 而欲速不果成. 吾師旣許以地上仙, 勤脩則八百歲可期矣. 近日山中, 頗苦閑寂, 下就人寰, 則無一個親知, 到處年少輩, 輕其老醜, 了無人間興味. 人之欲久視者, 原爲樂事, 而悄然無樂, 吾何用久爲? 以是不烟火, 抱子弄孫, 以度餘年, 乘化歸盡, 以順天所賦也.""

378) 上同, "先生名斗, 世居臨陂. 家故饒財, 雄於鄕. 自其祖父二世, 皆不肯推擇爲吏斗, 獨以博士弟子業起家."

다.[380] 즉 작중에서 장수는 행세하려는 욕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장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행세할 가능성이 없어진 남궁두가 자신에게 허락된 장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은 작품 내적 맥락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그렇게 하여 「남궁선생전」은 결말에 이르면 남궁두의 진정한 성격을 발견하는 것에 덧붙여 남궁두의 욕구가 무엇이었던가도 재점검하게 된다.

남궁두가 지상선 되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관념, 즉 장수의 가치를 회의하는 시각은 허균에게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사마상여(司馬相如, BC.179~BC.117)의 「대인부(大人賦)」에는 승천한 한 무제가 서왕모의 늙어버린 모습을 보고는 장수하는 삶에 대해 회의하는 시각이 제시된다.

低回陰山翔以紆曲兮　음산을 배회하여 빙 둘러 날아올라
吾乃今日睹西王母　내 마침내 오늘 서왕모를 보니
皤然白首戴勝而穴處兮 머리는 하얀데 꾸미개를 하고서 동굴 속에 사는구나
亦幸有三足烏為之使　그나마 다행히 삼족오가 그녀를 위해 일한다
必長生若此而不死兮　장생하여 필히 이렇게 되고 그러고도 죽지 않는다면
雖濟萬世不足以喜　만 대에 걸쳐 살아도 즐거워하기에는 부족하다[381]

위에 발췌한 사마상여의 「대인부」는 신선 사상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절에 나온 작품인데 서왕모를 볼품없는 이미지로 그림으로써, 불사의 가치에 대해 회의하는 시각을 보여주었다.[382] 불사의 신선이 됨으로써 인간의 필멸성을 극복한다 한들, 그로 인해 인간 세계에서 소외되고 본성을 상실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인가 하는 질문은 신선 사상이 등장한 초창기부터 제기된 것이었다.[383]

남궁두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여, 하늘이 내린 본성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작중 인물의 이러한 결정은 한정을 구가하는 삶을 본성에 따르는 삶으로 본 작자 허균의 시각과도 조응한다. 요컨대 허균이 묘사한 남궁두는 작중 인물에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발견에 이르게 하고 그 결과 본성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긍정하는 귀결에 이르고 있다.

---

379) 上同, “有老僧形如槁木, 披破衲出曰, “和尙風神聳溢, 非恒人也. 曷爲至?” 斗跽曰, “愚魯無他技, 聞老師多藝, 欲行一方技以行世, 千里求師而來, 週一歲方得樞衣. 幸進而敎之.””
380) 上同, “長老熟視之, 笑曰, “君, 忍人也. 推朴不可訓他技, 唯可以不死敎之.””
381) 『史記』 권117, 「司馬相如列傳」
382) Li, 앞의 논문, pp.42-43.
383) Li, 앞의 논문, p.51.

그런데 일견 남궁두의 일생담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권 진인의 일생담이나 여러 신들의 조회 장면이 「남궁선생전」에 길게 묘사된 이유는 무엇인가?[384] 이하에서는 900여 자에 달하는 조회 장면 묘사가 무엇을 위해 있어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려 한다.

그 조회 장면은 내용상 조회의 준비, 신들의 등장, 조선의 앞날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의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그 첫 단락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남궁두가 신들을 보고 싶다고 청하자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
> "내년 정월 보름날에 볼 수 있을 거야."
>
> 정월 보름날이 되자 선사는 감실(龕室)에서 옷상자를 꺼내더니 여덟 노을빛의 방산건(方山巾)을 쓰고, 북두칠성과 해와 달을 수놓은 도포를 입고, 여러 개의 둥근 벽옥(碧玉)으로 장식하고 사자를 수놓은 띠를 두르고, 다섯 가지 꽃무늬를 수놓은 신을 신고, 손에는 옥으로 만든 8각의 여의(如意)를 들고 돌로 만든 대(臺)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남궁두는 서쪽을 향해 모시고 섰고, 동자는 그 맞은편에 섰다.
>
> 문득 대(臺) 위의 향나무 두 그루에 각각 알록달록한 꽃등이 걸리더니, 이윽고 골짜기 가득 수천수만 그루의 나무마다 모두 꽃등이 걸리면서 붉은 불꽃이 하늘에 뻗쳐 마치 대낮처럼 환해졌다. 기이하고 괴상한 모양의 짐승들이 보였는데, 곰이나 호랑이 같은 동물, 사자나 코끼리 같은 동물, 표범 모양인데 다리가 둘인 동물, 용 모양인데 날개가 달린 동물, 용 모양에 뿔이 없는 동물, 몸은 용인데 머리는 말 같은 동물, 뿔이 세 개 달리고 사람처럼 서서 달리는 동물, 사람 얼굴에 눈이 세 개 달린 동물 등 백여 종류나 되었다. 또 각각 코끼리, 노루, 사슴, 돼지 모양인데 금빛 눈에 이빨이 눈처럼 희거나 붉은 털에 발굽이 서리처럼 희거나 펄쩍펄쩍 뛰어오르면서 무언가를 낚아채는 듯한 시늉을 하는 등등의 것들이 1천여 종류나 되었다. 이런 짐승들이 모두 선사를 모시고 좌우로 늘어섰다. 또 깃발을 든 금동(金童)과 옥녀(玉女) 수백 명, 칼이며 창이며 도끼 등의 의장(儀仗)을 든 군사 1천여 명이 대(臺) 주위를 빙 둘러서자, 온갖 향기가 자욱하고 패옥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아름답게 울렸다.[385]

---

384) 가령 황윤석의 『해동이적보』에 실린 '권진인(權眞人)' 조 내용은 「남궁선생전」과 거의 같지만 조회 장면만은 나오지 않는다.

385) 『성소부부고』 권8, 「남궁선생전」, "又請觀諸神, 曰: "可待明年上元也." 至期, 長老出龕中衣箱, 戴八霞方山巾, 服七星日月綉袍, 係圓靑玉束獅帶, 穿五花文履, 手持八角玉如意, 趺坐砌臺上, 斗西向侍, 童子偶立, 忽於臺上雙檜, 各掛彩花燈, 俄而滿洞千萬樹, 俱各掛花燈, 紅焰漲空如白晝. 有奇形怪狀之獸, 或熊、虎, 或獅象, 或豹而雙脚, 或虯形而翼, 或龍而無角, 或龍身而馬頭, 或三角而人立決驟, 或人面三眸者, 以百數. 又有象、獐、鹿、彘形者, 金目雪牙, 赭毳霜蹄, 夭矯拏攫, 以千計, 俱羅侍於左右. 又有金童玉女, 捧幢節數百人, 介戟具三仗者千餘人, 環立臺上, 衆香馥郁, 璜珮丁東."

위 장면은 조회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선사가 예복을 갖추고 좌정하는 것이 하나, 각종 짐승과 금동·옥녀, 의장을 든 군사들이 등장하여 늘어섬으로써 다음 장면에서 이어질 조회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이 조회 장면의 묘사는 조선 초 이래 행해진 조회 의례를 상기시키는 면이 있다. 건국 이래 조선에서는 행례(行禮)의 정비에 힘쓴 결과 15세기 국제 사회에서 의례적 볼거리로서의 기능을 발휘한 바 있다는 지적이 있거니와, 군주와 신하의 만남에 세세한 예법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일종의 의식(儀式)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386] 조선 초 정비된 조회는 큰 틀에서 '준비-행례-종료'의 순서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87] 그중 준비 단계에서는 북이나 종을 쳐서 의례의 시간이 시작됨을 선언하고, 악대와 의장대, 시위병력을 배치하여 의례 공간을 설정하는 작업이 일어난다. 그런 다음 행례 과정에서 국왕이 먼저 입장하고 2품 이상의 고관이 입장하여 행례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388]

위 인용문에서도 선사가 예복을 갖춰 입고 좌정한 후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대 위의 향나무에 꽃등이 걸린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나무에 꽃등이 걸리고, 이어 수백 종, 1천 종의 희귀한 동물이 등장하며, 이어서 의장대와 시위대가 등장한다. 조선의 조회에서 사용한 의장기에는 화염(火焰)이나 영기(靈氣) 무늬에 더불어 신수(神獸) 또는 서수(瑞獸) 무늬가 사용되었다.[389] 위 인용문에서도 붉은 불꽃이 빛나는 이미지나 각종 동물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실제 조회에 사용된 병장기와 같은 군사적 상징물은, 국왕이 생사의 권한을 지녔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회의 의장을 구성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점했다고 하는데,[390] 위 장면에서도 비중 있게 묘사되고 있다. 그 외에 향이 자욱하고 패옥 소리가 울렸다고 한 대목은, 조회에서 국왕이 어좌에 오를 때 향을 피우고 음악을 연주했다는 점과 유사하다.[391] 이렇듯 의례의 공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여러 동물과 시위대들은 그것이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매개물이 되었던 것

386) 강제훈, 「조선 초기의 朝會 의식」, 『조선시대사학보』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41~43쪽.
387) 강제훈, 「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 『韓國史硏究』 137, 한국사연구회, 2007, 220쪽.
388) 강제훈, 『만남의 제도화, 조선시대 조정 의례』, 민속원, 2017, 60, 64, 69쪽.
389) 이영희, 「조선전기 의장기(儀仗旗) 디자인의 상징성(象徵性)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47,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회, 2014, 148~149쪽.
390)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儀仗制度의 정비와 상징」, 『사총』 7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 65~66, 69~70쪽.
391) 강제훈, 앞의 책, 126쪽.

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선사의 권위를 표현하는 시각적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다.[392]

또한 의장이 배치됨으로써 일상의 공간이 의례의 공간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생각해 볼 점이다. 조회에 앞서 의례의 장소가 마련되고 나자, 남궁두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던 선사의 초가집은 더 이상 일상적 시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조선시대 조회에 참여했던 국왕과 신료들이 평소 익숙했던 근정전 앞마당이 의식의 공간으로 전환되자, 그곳을 마치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반드시 집사자(執事者)의 인도를 받아서 예를 표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393] 의례의 시공간으로 전환된 이곳에 등장하는 신들은 고깔을 쓴 집사자의 구령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예법과 자신의 반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 2 ① 이윽고 푸른 적삼을 입고 상아 홀(笏)을 들고 수창옥(水蒼玉)을 차고 고깔을 쓴 사람 두 명이 섬돌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
> "동방의 극호림(極好林), 광하산(廣霞山), 홍영산(紅暎山) 3대 신군(神君)이 알현하나이다!"
>
> 세 신은 모두 자주색 금량관(金梁冠)과 자주색 도포 차림에 구름무늬가 있는 신을 신고 옥띠를 둘렀으며, 칼과 패옥을 차고 홀을 똑바로 들고 있었다. 이들은 풍채가 좋고 살결이 희었으며, 키가 크고 얼굴이 훤하니 수려했다. 선사가 일어나 양손을 맞잡고 예를 표하자 세 신이 일제히 두 번 읍한 다음 물러갔다.
>
> ② 고깔 쓴 사람들이 또 큰 소리로 외쳤다.
>
> "봉호(蓬壺), 방장(方丈), 원교(圓嶠), 조주(祖洲), 영해(瀛海) 등 5주(洲)의 진관(眞官)이 알현하나이다!"
>
> 다섯 신은 각각 다섯 방위를 대표하는 색의 도포를 입었고, 관(冠)이며 몸에 찬 것은 앞서 세 신과 같았는데, 모두 풍채가 좋고 용모가 수려했다. 선사가 일어서자 다섯 신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갔다.
>
> ③ 또 큰 소리로 외쳤다.
>
> "동해와 남해와 서해의 장리(長離), 광야(廣野), 옥초(沃焦), 현롱(玄隴), 지폐(地肺), 총진(摠眞), 여궤(女几) 동화(東華), 선원(仙源), 임소(琳宵) 등 10도(島)의 여관(女官)들이 알현하나이다!"

---

392) 도교 경전에 나오는 최고신에 해당하는 태상도군은 각각 30만명의 금동옥녀가 모시고 있고 원시 천존은 9천만 명의 금동옥녀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추어 여기 등장하는 선사의 지위를 가늠해 볼 여지도 있다. 쫑자오펑(钟肇鹏), 이봉호 외 역, 『도교사전』, 대순사상학술원, 2018, 619쪽.

393) 강제훈, 「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 『韓國史硏究』 137, 한국사연구회, 2007, 214~215쪽.

선녀 열 사람은 모두 꽃을 수놓은 버선 모양의 두건을 쓰고 붉은 진주로 만든 머리 장식을 꽂고 있었는데, 진주에서 나는 찬란한 빛이 얼굴에 비쳐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황금빛 봉황을 수놓은 하얀 저고리에다 무릎을 덮는 비취색의 긴 치마를 입었고 태을신(太乙神)을 새긴 패(牌)를 허리에 찼는데 번쩍번쩍 번갯불이 났으며, 발에는 녹색의 꽃무늬가 새겨진 방저리(方底履)를 신고 있었다. 선녀들은 모두 키가 컸으며 남자처럼 절을 했다. 선사는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절을 받았다. 이윽고 여관들이 물러갔다.

④ 또 큰 소리로 외쳤다.

"천인(天印), 자개(紫蓋), 금마(金馬), 단릉(丹陵), 천량(天梁), 남루(南壘), 목주(穆洲) 등 7도(道)의 사명신장(司命神將)이 알현하나이다!"

신장들은 깃을 꽂은 붉은 마래기를 쓰고 군복에 사마치를 입고 꽃을 수놓은 엄심갑을 입었으며, 팔꿈치 보호대를 하고, 활집과 화살집을 차고 손에는 붉은 창을 들고 있었다. 모두 사자나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붉은색 머리털이 치솟아 있고 금빛 눈동자에 용의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읍만 하고 절은 하지 않은 채 물러갔다.

⑤ 또 큰 소리로 외쳤다.

"단산(丹山), 현림(玄林), 창구(蒼丘), 소천(素泉), 자야(赭野) 등 5대 신장(神將)과 이들의 통솔을 받는 산림, 늪, 고개, 강, 성황(城隍)의 모든 남녀 귀신이 함께 알현하나이다!"

5대 신장은 7도 신장과 모습이 같았고 저마다 1백여 선관(仙官)의 대열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키가 작고 못생긴 자가 있는가 하면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자도 있고, 훤칠하고 우아한 자가 있는가 하면 팔이 여섯에 눈이 넷인 자도 있었다. 또 여자들 중에는 늙고 못생긴 자도 있고 예쁘고 젊은 자도 있었다. 이들은 각각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늘어서서 네 번 절한 뒤 물러나 다섯 개의 대열을 이루었다.

⑥ 그러자 선사는 동자에게 명하여, 붉은색의 작은 깃발을 들고 북쪽에서 동쪽을 향해 가서 남쪽을 돌아 서쪽으로 간 뒤 중앙 대열의 앞에 서게 했다. 동자가 아뢰었다.

"여러 신령이 다 모였지만, 위주(魏州)의 조부인(趙夫人)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소천신(素泉神)이 앞으로 나와 꿇어앉더니 말했다.

"조부인은 귀양 가서 인간으로 강등되었으며, 조부인을 대신할 사람이 오지 못했습니다."[394]

---

394) 『성소부부고』 권8, 「남궁선생전」, "① 續有靑衫象簡佩水蒼, 戴弁者二人, 鞠躬階下, 唱曰: "東方極豪林、廣霞、紅映山, 三大神君見!" 有三神, 俱頂紫金梁冠, 紫袍、玉帶、端笏、雲履, 佩劍、珩者, 頎而晳長, 眉目皆朗秀. 長老起立拱手, 三神皆再揖而退. ② 又唱曰: "蓬壺、方丈、圓嶠、祖洲、瀛海等五洲眞官見!" 有五神, 各披方色袍, 冠佩如前, 而俱頎秀. 長老起立, 五神皆再拜而退. ③ 又

신들이 등장하는 순서는 각자가 선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서열을 높은 순서대로 보여준다. 여기 등장하는 신들은 순서대로 신군(神君), 진관(眞官), 여관(女官), 사명신장(司命神將), 5대 신장(神將)과 그 휘하의 남녀 귀신이라고 호명된다. 이들에 대한 그 명칭에서도 군(君)에서 관(官), 장(將)으로 이어지는 위계가 드러나고, 선사가 이들에게 답례하는 방식에도 차등이 있다. 선사는 신군과 진관에게는 기립하고 공수(拱手)하거나 기립만을 하는 식으로 답례하지만, 여관에게는 앉아서 절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각 신들이 주관하는 곳도 신군은 산을, 진관은 큰 대륙[洲]을, 여관들은 섬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포박자』와 같은 도가서에서 신선이 되는 약을 만드는 장소로 명산을 최고로 치고, 차선으로 바다 안에 있는 큰 대륙을 거론한 데서 보이는 선호도의 순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395]

또한 나열된 신들의 명칭과 각 신들의 위계는 도가적 전통에서 발달하여 온 상상의 자장 아래 있다. 갈홍(葛洪, 283~343)의 『신선전』에 등장하는 백석생(白石生)이라는 인물은 "천상에는 모시고 받들어야 할 지존의 높은 신선이 너무 많아 인간 세상보다 더 수고롭다"[396]고 하여 선계 속 위계의 문제를 대략 언급하였다. 신들 간의 위계에 대한 한층 더 세밀한 상상은 도홍경(陶弘景, 456~536)의 손에서 본격화된다.[397] 특히 『진고(眞誥)』에서는 천상은 신선의 세계, 지상은 인간의

唱曰: "東、南、西海, 長離、廣野、沃焦、玄隴、地肺、摠眞、女几、東華、仙 源、琳霄等, 十島女官見!" 有仙女十人, 俱戴花絨金襪巾, 插赤珠步搖, 珠翠玲瓏映其面, 不可定視, 服素練 金鳳紋衫, 施翠羅襴膝長裙, 佩太乙靈符, 赩奕有電光, 穿綠花方底履, 頎長而男子拜. 長老不起, 坐受之, 女官退. ④ 又唱曰: "天印、紫蓋、金馬、丹陵、天梁、南壘、穆洲等, 七道司命神將見!" 有紅抹額, 插羽, 戎袴褶, 繡花掩心, 金搭肘, 佩矢房、弧箙, 手朱殳, 而俱獅形虎姿, 植赤髮, 金目虬髯者, 揖不拜退. ⑤ 又唱曰: "丹山、玄林、蒼兵、素泉、赭野等, 五神, 所繞山林、藪澤、嶺瀆、城 隍諸鬼伯鬼母, 俱見!" 五大神將, 如七道神形者, 各領一隊百餘靈官, 或短醜, 或長大, 或潔脩而雅, 或六 臂四目者, 女或老醜或妍少者, 被服俱隨方色, 列立四拜, 退爲五隊. ⑥ 長老命小童, 持小絳幡, 從北方指東, 環南抵西, 立于中隊之前, 告曰: "諸靈俱會, 而魏州趙夫人未至矣." 素泉神出跪曰: "他以謫, 今降爲人, 其代不來矣.""

395) 『抱朴子』 內篇 「金丹」 "是以古之道士, 合作神藥, 必入名山, 不止凡山之中, 正為此也. (중략) 若不得登此諸山者, 海中大島嶼, 亦可合藥."

396) 葛洪, 『神仙傳』 권1, 「白石生」, "天上多有至尊相奉事, 更苦人間耳." 「남궁선생전」에 등장하는 신선들의 모습은 크게 셋으로 삼분 되는데, 첫째 승천하여 천계(天界)로 올라간 신선, 둘째 조회 장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지상의 여러 구역을 나누어 관할하여 다스리는 신선과 그들을 관장하면서 지상의 비밀스러운 구역에 머무는 남궁두의 스승, 셋째, 남궁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지상선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등급의 신선설은 갈홍의 신선관으로부터 연원한 것으로 보인다. (갈홍, 『抱朴子』 內篇, "上士得道, 昇為天官; 中士得道, 棲集昆侖; 下士得道, 長生世間."; 이진용, 「葛洪 『抱朴子內篇』과 『神仙傳』의 神仙사상 연구」, 『철학논총』 45, 새한철학회, 2006, 275쪽)

397) 고토 토모코, 「도교의 세계와 신들」, 사가데 요시노부 편, 이봉호 외 역, 『도교백과』, 대순사상학술원, 2018, 32쪽; 도홍경이 『등진은결(登眞隱訣)』에서 천상계와 지상계를 구분하

세계, 지하는 귀신의 세계로 삼분하고 그중 신선[仙]의 세계는 다시 진인(眞人)의 세계와 일반적인 선인(仙人)의 세계로 양분된다고 서술했다. 여러 선인은 선계의 일반 관료층을 형성하고, 진인에 이르러야 공경대부의 위상을 점한다는 것이다.[398]

각 신들의 등장 순서와 더불어 특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신들의 외양이다. 다소 번잡해 보일 위험을 무릅쓰면서 신들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 것은 그저 우연이거나 문장력을 뽐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신들의 생김새가 묘사되는 것은 단지 생김새가 묘사되고 있다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의 모습이 선사나 남궁두의 시선에서 응시되고 있음을 드러내기에 중요하다. 신들이 각자의 위계에 따라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들이 선사의 휘하에서 일정한 위계를 이루면서 선계의 질서에 복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애초에 조회라는 의식은 고위 관원의 모습이 조회 주관자의 시선 앞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 이들의 위상이 현현(顯現)되도록 하는 것이었다.[399] 조회에서 신하들은 자신의 반열에 따라 의례의 현장에 입장하여 예를 표하고 국왕이 시선에 포착됨으로써 국왕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복속을 드러내는 한편, 자신이 그 집단 내에서 차지한 서열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었다. 즉 서열에 따른 권위는 조회를 보는 자의 시선 앞에 각 참여자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비로소 현현될 수 있는 것이었기에, 등장인물의 이름과 의복, 생김새, 등장 순서, 등장할 때의 서열화된 예의의 표현을 보여주는 긴 분량의 묘사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요컨대 일견 불필요하게 길어 보이는 조회 장면의 묘사는 선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배

고, 그곳을 관장하는 신선의 관료제적 위계를 묘사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스트릭맨(Michel Strickmann), 윤찬원 역, 「도홍경(陶弘景)의 연단술」, 『도교의 세계: 철학, 과학, 그리고 종교』, 사회평론, 2001, 260~261쪽. 스트릭맨은 『진고(眞誥)』가 『등진은결』보다 나중에 지어진 저작으로 본다. 같은 책, 210쪽.

398) 최수빈, 「도교에서 바라보는 저세상」, 『道教文化研究』 41,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307~308, 340쪽; 신선, 인간, 귀신의 삼분에 대해서는 『眞誥』 권16, "此幽顯中都是有三部, 皆相關類也. 上則仙, 中則人, 下則鬼. 人善者得為仙, 仙之謫者更為人, 人惡者更為鬼, 鬼福者復為人."; 선계의 반열 구성에 대해서는 『眞誥』 권5, "諸仙人俱是九宮之官遼耳. 至於真人, 乃九宮之公卿大夫. 仙官有上下, 各有次秩, 仙有左右府而有左右公、左右卿、左右大夫、左右御史也." 선계 중 지상의 특수 구역을 관장하는 여러 선관들의 지위 체계에 대한 묘사로는 『眞誥』 권12 「稽神樞」에 자세하다. 그 개략에 대해서는 최수빈, 같은 논문, 341~342쪽. 「남궁선생전」의 도술과 공간묘사, 특히 성악(聖嶽)의 공간으로서 무주 치상산을 묘사하고 있는 점고 『진고』의 공간 상상력 간 연관성에 주목한 논의로 다음을 참조. 김수연, 「『도장(道藏)』과 고소설에 나타나는 도가적(道家的) 상상력의 근원과 유형 연구 1 - 『진고(眞誥)』의 공간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90~393쪽.

399) 강제훈, 앞의 논문, 216쪽. 조의(朝儀)를 중시한 세종 조에 이르러 그 형식이 개정된 이후에는 고위 관원의 모습이 국왕의 시선 앞에 더욱 개별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한다.

와 예속의 관계, 권위에 따른 질서를 묘사하기 위해 요청되는 묘사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 나타난 선계의 서열 중 정점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권 진인이다. 조회 장면에 묘사된 권 진인이 가진 권위의 크기는 남궁두가 수련에 성공했더라면 넘겨받았을 권한의 크기이다. 남궁두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 거의 도달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지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조회 장면은 보여준다.

단, 선사가 주관하는 조회 장면을 묘사한 이 대목이 전적으로 조선시대의 조회 의례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학작품 속의 묘사가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한, 조선 조정의 조회는 원천 중의 하나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신선들의 외면에 대한 관심과 묘사는, 개인들의 특성을 외모와 복식을 통해서 포착하고자 하는 『세설신어』의 서술 정신과도 상통한다. 먼저 등장하는 상등은 신수가 좋고 수려하거나, 눈부셔서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운 반면, 나중에 등장하는 무관 계통의 신들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의 용모에 근접하여 있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못생긴 자도 있고 훤칠한 자도 있는 등 각양각색의 용모를 지닌 것으로 기술된다. 각 사람의 내면은 외면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 그것을 통해 각 사람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보는 『세설신어』의 정신은 한정을 구가하고자 하는 작품들에서나 잠깐 드러났다가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선계를 묘사하는 국면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조회 장면이 서열이나 권위의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은 조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3 선사가 광하산 등의 세 진인(眞人)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
> “경(卿)들은 세 곳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소. 모두 옥황상제의 자애로움을 잘 본받아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은 지 오래요. 하지만 요사이 액운이 다가와 만백성이 재앙에 빠지게 될 터인데, 구제할 대책을 생각해 보았소?”
>
> 세 사람이 모두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아뢰었다.
>
>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난번 봉래산의 치수대감(治水大監)이 자하원군(紫霞元君)이 계신 곳에서 홍영산에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
> “뭇 진인(眞人)들이 구광전(九光殿)에서 상제(上帝)를 모시고 있는데, 삼도제군(三島帝君)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
> ‘염부제(閻浮提)에 사는 삼한(三韓)의 백성들이 간교하여 속임수를 잘 쓰고, 미혹되

고 흉포하며, 복을 아끼지 않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효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며, 신들을 업신여기고 귀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림동(句林洞)에 있는, 살쾡이 얼굴을 한 큰 마귀에게 적토(赤土)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토벌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라는 다행히 망하지 않겠지만, 7년 연이은 전쟁으로 삼한의 백성 열 사람 중 대여섯의 목숨을 빼앗아 경각심을 일깨우려 합니다.'

저희는 이 말을 듣고 모두 가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하늘의 큰 운수에 관계되는 일이니 어찌해 볼 도리가 있겠습니까?"

선사 역시 내내 한숨을 내쉴 따름이었다. 이윽고 중앙의 대열에서 포성이 한 번 울리자 동서남북 네 대열에서 이에 응하여 북을 치고 징을 울렸다. 그러자 나무 위에 걸려 있던 등불이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더니 아득히 깊은 골짜기에 큰 구름이 평평하게 깔렸다.

선사가 방으로 들어와 관(冠)과 옷을 벗어 보자기에 싸고는 등불을 밝히고 방 가운데에 앉았다. 남궁두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400]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삼한 백성들에게 내려지기로 예정된 징벌의 문제이다. 예문에 묘사된 신선들의 세계는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삼한 백성의 죄업에 대한 징벌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401] 예문에 묘사된 신선들의 세계를 편의상 '저세상'이라고 부른다면, 저세상의 수뇌부는 이 세상 백성들의 운명을 관장할 의도와 능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권 진인과 나머지 3인의 진인들은 수뇌부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리 아는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저세상과 이 세상의 위계는 분명히 상하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우야담』에 나오는 남궁두 일화에 비추어 허균의 「남궁선생전」이 갖는 차별점은 등장 인물에게 선명한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미학적 깊이를 확보한 점. 조회 장면을 통하여 가공의 세계를 치밀하게 그림으로써 「수헐원」에서 모색한 유희적 작법이 한층 심화한 점,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전(傳) 장

400) 『성소부부고』 권8, 「남궁선생전」, "長老招廣霞三眞人至前, 謂曰: "卿輩分理三方, 體上帝好生之德, 黎庶受卿澤久 矣. 今者厄會將至, 萬姓當罹其殃, 思所以拯之之策耶?" 三人者, 俱唏咨曰: "誠如所諭, 昨者蓬萊治水大監, 自紫霞元君所來, 過紅 映山言: "衆眞在九光殿上, 侍上帝, 有三島帝君道: "閻浮提三韓之民, 機 巧姦騙, 誑惑暴殄, 不惜福, 不畏天, 不孝不忠, 嫚神瀆鬼, 故借句林洞貍面大魔, 捲赤 土之兵, 往勦之. 連兵七年, 國幸不亡, 三方之民, 十奪其五六, 以警之."" 臣等聞之, 亦皆心怵, 而大運所關, 何敢容力乎?" 長老亦嗟吁不已. 俄自中隊發炮一響, 四隊皆應, 擂鼓伐金以助之, 樹上燈一一落地, 窅然幽谷, 大雲平鋪. 長老入房, 袱其冠服, 明燈坐室中. 斗愕眙自失者久之."

401) 이러한 묘사에 대해 임진왜란을 백성의 탓으로 돌리는 지배층 문인의 왜곡된 시각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길수, 『17세기 한국 소설사』, 알렙, 2016, 58~59쪽.

르의 지평을 확장하고 융통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남궁선생전」에 묘사된 조회 장면은 실제 조선의 조회 장면과 유사한 절차를 묘사함으로써 거기 참여한 신들과 그 신들을 주관하는 권 진인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궁두가 성취하지 못한 것, 남궁두가 바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남궁선생전」의 서술은 그 작자인 허균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점검할 차례이다. 우선 「남궁선생전」은 조회 장면은 물론 남궁두의 수련 과정에서 도가적 언어를 다수 차용해 놓았다. 가령 남궁두가 수련에 실패하는 장면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 남궁두는 마침내 도가 이루어지려 하자 기쁜 마음에 문득 한시라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싹트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 바람에 황아(黃芽)가 차녀(姹女)를 제어하지 못해 이화(离火)가 위로 치솟아 이환(泥丸)을 태웠다. 남궁두는 고함을 지르며 뛰쳐나갔다.[402]

이 대목은 이본 간 차이도 많고 번역본 간 구두를 뗀 방식도 다양한데,[403] "황아가 차녀를 제어하지 못해"라는 부분에 쓰인 '황아'나 '차녀' 따위의 용어가 각기 납과 수은을 가리키며 '황아가 차녀를 제어하게 해야 한다'는 표현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휘는 보통의 저작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은어에 가까운 어휘이기에 필사 과정에서부터 오류가 났던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조회 장면에 쓰인 지명이나 인명은 대체로 재래의 도가서인 『운급칠첨(雲笈七籤)』이나 왕세정의 『엄주사부고』 등에 나오는 표현을 활용했지만, 금탑부(金搭肘) 같은 복식이나 창병(蒼兵) 같은 지명은 다른 문헌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허균 자신의 창안으로 보이는 단어들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404] 범상치 않은 세계를 묘사하려다보니, 보통의 창작 때에 활용하기 어려운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도교적 용어는 일종의 은어로서, 도가 서적에 밝은 독자들에게 특별한 정서적 공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었으리라 본다. 특수한 지식을 공유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은어 사용은 「남궁선생전」에 와서 심화된 유희적 작법의 일면을 보여준다.

---

402) 『성소부부고』 권8, 「남궁선생전」, "斗喜其將成, 欲速之心遽發, 黃芽不能制姹女, 离火上燒泥丸, 絶叫趨出."
403) 김영연, 앞의 논문, 153~154쪽 미주 147번 참조.
404) 조회 장면에 대한 자세한 훈고는 김영연, 앞의 논문, 158~159쪽.

다음으로 논찬부의 문제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허자는 말한다.
>
> "'우리나라 사람은 불교는 숭상하지만 도교는 숭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 온다. 신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도를 얻어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 과연 그 말이 옳은 걸까? 그러나 내가 만난 남궁 선생으로 말하자면 참으로 기이하다 할 만하다. 선생의 스승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의상대사에게 비결을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꼭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고 말한바 또한 모두 그럴 듯하지는 않으니, 요컨대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확실한 실체가 없는 일이다. 다만 선생의 나이와 용모를 보아서는 참으로 득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나이 여든에 이처럼 건강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일이 실제 없었다고 결코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 아아, 참으로 기이하다!
>
> 우리나라는 바다 밖 외진 곳에 있어 선문자와 안기생 같은 신선이 드물었는데, 바로 이런 이인(異人)이 깊은 산중에 수백 수천 년 동안 살아 남궁선생이 한 번 만나 볼 수 있었으니, 누가 '궁벽한 땅이라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도에 통달하면 신선이고 도에 어두우면 보통 사람이거늘, '우리나라 사람은 불교는 숭상하지만 도교는 숭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찌 공연한 말이 아니겠는가? 남궁 선생이 만일 빨리 이루려고 하지 않아 마침내 단(丹)을 이룰 수 있었다면 저 선문자나 안기생과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서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오직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이루어졌던 것을 어그러뜨리고 말았으니, 아아, 애석하다!"[405]

허균은 권 진인의 실존 문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남궁두의 수련 실패를 애석해하면서, '동국에서는 도교를 숭상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의견에 대해서도 회의적 태도를 제시해 놓았다. 물론 허균이 여기서 신선의 실존에 대해서 완전히 중립적 태도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편에서 묘사한 초현실적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긍정에 기울어져 있는 태도를 보이는 면이 있다. 하지만 작자가 신선의 실존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완전한 긍정으로 결론짓지 않은 미묘한 자세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406]

---

405) 『성소부부고』 권8, 「남궁선생전」, "許子曰: 傳言: '東人尙佛不尙道.' 自羅逮鮮數千載, 未聞有一人得道仙去者, 其果徵哉? 然以余所覩南宮先生言之, 可異焉. 先生所師者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可信, 所悅亦未必盡然. 要之, 影響之間也. 但以先生年貌看之, 非眞能得道者耶? 那能八十而若是康健耶? 此又不可決以爲實無是事也. 噫! 其奇哉! 我國僻在海外之遐, 氣之士如羨門、安期, 而巖石間乃有此異人, 累千百年, 俾先生一得遇之, 孰謂偏壤而無其人耶? 達道則仙, 昧道則凡, 傳所言者, 與耳食奚殊? 使先生毋望其速成, 卒收爐鼎之效, 則彼羨門安期, 亦何難拍肩而等夷之, 唯其不忍, 以敗垂成之功, 嗚呼惜哉."

406) 이 논찬부의 요지에 대해서 권 진인이 남궁두로 하여금 빨리 이루려고 하지 않아 수련

허균은 권 진인이 했다는 말에 대해서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확실한 실체가 없는 말”이라고 하거나 “의상대사에게 전수 받았다는 것도 꼭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고”라고 하여 반신반의하였다. 본편 내용에서 자신이 서술한 바가 긴가민가한 글감이라는 점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태도는 「수헐원신영선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위가 불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긍정에 가까운 입장을 저술하는 행위, 즉 공식적인 발화 행위의 하나로 고정해 놓고 있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를 수행적 발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남궁선생전」은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한 가능성’, ‘가질 수도 있었으나 상실된 권위’, ‘자아의 발견’ 같은 테마를 표현하는 언어의 미학적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글쓰기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남궁선생전」은 글쓰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미학적 즐거움의 한계를 시험한 저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것처럼 한문학 전통에서 희작은 대체로 있을법하지 않은 가공의 세계를 그리는 것을 통해 구현되곤 했다. 「남궁선생전」 역시 사실 여부가 모호한 내용을 글감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작의 요소를 갖고 있다. 허균은 신선 세계라는 관념적 대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대상이 갖는 기이함을 포착하고, 그 상상의 세계를 긍정한 가운데 남궁두의 애석한 태도에 공감한 것이다.

흔히 관념적 유희라 하면 실제의 사건이나 행위에서 유리된, 진지함을 결여한 것이라 폄하되곤 한다. 하지만 사실도 허위도 아닌, 양자의 경계에 있는 대상을 글감으로 채택한 위에서, 그 글감이 구현할 수 있는 미적 아름다움의 한계를 시험하는 작업으로서 「남궁선생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념상의 유희는 그 자체가 진지한 작업이 되고 있다. 「남궁선생전」에서 시도된 작법은 관념 속의 세계를 재료로 삼아 문예적 차원의 미학적 고양감을 일으킴으로써, 관념적 유희의 시도가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남궁선생전」을 읽었을 때, 1610년의 허균이 쓴 문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반추한 회고의 의미를 좀 더 밀착하여 이해할 수 있다.

효과를 거두게 했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정규식,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의 서사 구조와 작가 의식」, 『용봉인문논총』 58,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219쪽). 이 해석은 해당 구절 ‘使先生毋望其速成’의 ‘使’를 사역의 의미로 보고 생략된 주어를 권 진인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권 진인에 관한 언급은 논찬부의 첫째 단락에서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논찬부의 둘째 단락은 남궁두에 관한 언급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아, ‘使’를 가정의 의미로 보고 생략된 주어도 남궁두로 보았다. 번역에 대한 시각 차이와 별개로, 해당 논의는 「남궁선생전」의 서사 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저술 의식을 허균의 여타 사회 비판 논의와 일관된 견지에서 이해하려는 최근의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간의 제 성취를 감히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맑고 엄숙하며 깊이 있고 굳세어 독창성을 으뜸으로 삼는 점에서는 동료들에게 조금 못 미치겠지만, 폭넓은 지식을 온축했다가 손이 가는 대로 뽑아내며, 마땅히 갈 곳에서 가고 그칠 곳에서 그치며 큰 강물이 하늘에 닿을 듯 용솟음치며, 화려한 용궁에 간혹 굴이 더미로 쌓인 산도 있고 뱀장어가 깃든 집도 있듯, 못난 것이 끼어 있더라도 버리지 않는 점은 위의 몇 분에 견주어 볼 때 손톱만큼이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줄지는 모르겠군요.[407]

위 인용문은 누군가가 한반도의 역대 문인들에 관한 허균의 의견을 물어온 데 답한 편지 중에서 허균이 자신의 문장에 관해 언급한 대목을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허균은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자재로 표현을 구사하여 간혹 지나칠 정도의 화려한 표현도 불사하는 것이 창작상의 장점이라고 자부하였다. 허균의 문장 창작에 관한 이와 같은 서술은 앞서 본 「남궁선생전」의 조회 장면 묘사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사로서 허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중국 문화의 강력한 현전(現前)이다. 위에 인용한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편지에서 불후의 대업에 대해 물으시니 참으로 성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 천박한 식견으로 어찌 만의 하나라도 대강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질문이 선진(先秦)과 한나라와 당나라의 대가(大家)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유독 우리나라 작가에 대해서만 자세하다는 점이니, 이것은 낮은 수준의 논의가 아닐는지요?

조선의 관료 문인들이 중국의 역대 문학 전통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 것은 허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세설신어』나 『진고(眞誥)』같은 저작처럼, 중국 남부의 문인들에게 특히 애호된 저작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한문학 전통을 혁신하려 한 시도는 조선에서는 그 유례가 드문 것이다. 「남궁선생전」의 논평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허균은 동국에서는 도가를 숭상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믿음을 문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고래의 중국 전통을 수용하는 폭을 넓히는 사안에 관심을 드러내었다. 실제 문장 창작에

407) 『성소부부고』 권10, 「答李生書」, "所成就, 吾不敢知. 雖淸厲深倔, 獨造爲宗者, 少遜於儕流, 而包函蘊蓄, 信手拈來, 行所當行, 止所當止, 沛然如巨浸稽天, 貝宮蜃闕, 或間以蠔山鰻屋, 亦不廢其鉅者, 比諸數子, 頗有寸長. 亦未識者之見許否."

있어서도 조선 문인들의 시야에 그간 잘 들어오지 않던 당 전기의 문법이나 도가적 저작에까지 시선을 돌리고 있는 점이 허균 선취의 한 특질을 이루고 있다. 요컨대 허균은 그 자신의 문학론에서 선명하게 자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당 전기의 문법이나 도가서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작품 창작의 원천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그간 조선 문인들에게 수용되어 온 중국 문학의 참조 대상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그의 작가적 정체성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Ⅴ. 결론

허균은 17세기 초 문단에서 독특한 산문 작품을 남긴 중요한 인물이다. 이 시기 여느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한문 산문의 장르 관습에 충실한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대 문인 관료들이 산문의 주요 제재로 채택하지 않던 꿈에 본 광경이나 신선과 같은 비일상적인 소재를 한문 산문의 제재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에 초기의 허균 연구에서는 그런 초현실적 소재가 전면에 부각된 작품들에 주로 주목했다. 하지만 이후 연구들에서는 소품적 성향이 짙은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고, 명대 문풍의 수용 문제와 관련지어 허균이 남긴 일상적 소재의 산문이 지니는 문예미에 대해서도 일정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허균 산문의 양대 축을 이루는 비일상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군과 일상적 소재를 다룬 작품군을 하나의 원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허균의 산문 세계를 이루는 양대 계열의 작품을 한 작가의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일관된 작가 의식이 관철된 두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서사적 지향이 강하고 초현실적 소재가 전면에 드러난 작품들과 일상적 소재의 작품들이 한 작가의 문집 안에 어떻게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허균이 갖고 있던 주요한 사회적 정체성인 관료 또는 관료 예비군으로서 위상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허균 산문에 빈출하는바, 관직에서의 은퇴를 희구한다는 주장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꺼이 관직에 나아간 행동 사이의 모순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일차적으로 주목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허균의 생애사를 그가 활동한 시기의 정치사의 흐름과 관련지어 살펴봄으로써 작품 창작의 추이가 일변하게 되는 계기와 작풍의 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그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의 대상을 현전하는 허균 산문 대부분이 수록된 『성소부부고』로 한정하였다. 『성소부부고』는 널리 알려진 텍스트이지만, 그 작품의 편년이나 구성, 수록 내용이 일괄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았다. 이에 본고는 각 작품의 작성 시기를 가능한 한 규명하고, 그 위에서 작품 창작의 추이를 가늠하고자 했다. 그 결과 산문 작가로서 허균의 작가적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은 그의 생애 중 30대 후반에 해당하는 선조 말년에서 광해군 즉위 초년 사이에 지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전 산문을 기준으로 볼 때, 1605년 이전까지 지어진 산문들은 숫자도 현저히 적고 개성도 뚜렷하지 않으나, 1605년부터 『성소부부고』 성서 시점인 1611년 사이에 지어진 작품들은 수량 면에서도 확실한 증가세를 보인다. 1605년 이후에 지어진 작품들에서는 한정의 구가를 희구하거나 선취를 지향한 작품들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선취를 지향한 작품들이나 신이담이 전면에 드러난 작품들은 광해군 즉위 직후(1608)부터 본격적으로 창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허균 소작의 산문으로 지목되는 작품이 있더라도, 직접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전문(傳聞) 또는 의견 표현에 가까운 기록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였다.

다음으로 허균의 생애사를 조감하는 자리에서는, 허균 산문의 작풍이 대략 광해군의 즉위 시점과 맞물려 양분되는 이유가, 1590년대 후반에서 1600년대 초에 이르는 관직 경력 초기에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기대가 광해군 즉위 이후 급격히 좌절되어갔던 정황과 유관할 것으로 보았다. 선조 말년인 1597년경에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입한 허균은 그 출발 시점에는 문지(門地)가 동료들에 비해 우월한 편이었고 문과 성적도 나쁘지 않았기에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월한 관직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닐 만했다. 역대 상신(相臣) 목록인 『태각지』의 편찬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 허균이 남긴 기록들은 그가 고위직에 오르는 데 대한 강한 동경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허균은 남보다 나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삼사(三司)와 같은 청요직 코스를 거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직을 전전했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계의 요인과 연결된 토호와 불화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축소시켰다. 더구나 허균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세를 뒷받침해줄 별도의 지방 후원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광해군 즉위 이후에는 광해군 친위 세력들과 연대를 공고히 하지 못하였고, 선조 말년에 출세했던 형 허성 역시 광해군의 눈 밖에 나게 되면서 허균의 입지도 좁아져 갔다. 허균 자신도 외직을 전전하거나 일시적으로 관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등 중앙정계에서 허균의 입지는 선조 시기보다도 훨씬 좁아져 갔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지은 산문 작품들은 정계에서의 출세를 바랐던 사대부가 자신의 포부를 이룰 수 없었을 때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지, 그런 재능을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고는 파악하였다.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유의하고자 한 것은, 상당수의 기존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바, 1613년 계축옥사 이후에 형성된 정치인 허균의 상을 그 이전 시기인 작가

허균의 상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였다. 작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허균에 대한 상은 조선 후기뿐 아니라 현대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후대에 만들어진 허균 상은 허균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의 증언이나, 신빙성 있는 문헌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허균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 문헌이나 허균에 대하여 편파적인 발언을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의 증언, 또는 자의적인 상상에 근거하고 있는 면이 많다. 물론 허균의 상을 다각도에서 재구하는 작업은 허균이라는 독특한 작가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고무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허균이라는 인물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신빙성 있는 문헌 근거에 근거하여 최대한 엄격한 기준 위에서 허균의 행보를 따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치인 허균'이 아닌 '작가 허균'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인『성소부부고』에 주목하여 산문 창작기에 지어진 작품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 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산문 작가로서 허균의 이력은 사실상 선조 말년에서 광해군 초년에 이르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허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문헌이나, 주변인의 전언 또는 후대인의 의견들에는 허균이라는 작가의 성향이나 문학적 지향을 밝히는 데 있어서 증명력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산문 작가 허균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확실한 근거에 입각하여 가질 수 있는 의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렇게 볼 때 산문 작가 허균의 삶은 1605년에서 1611년에 이르는 수년간의 짧은 시기에 한정된다. 이 시기 허균의 의제는 정치 영역에서 좌절된 자신의 포부를 정치가 아닌 영역에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탁월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Ⅱ장에서 조망한바, 이 시기에 허균이 쓴 산문들은 자신이 관료로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소망이 좌절되어가고 있다는 데 대한 자각, 문장 창작이라는 대안적 경로를 통해 불후의 명성을 얻겠다는 열망을 보여준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허균 산문 중 그의 작가적 정체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주요 작품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일상적인 내용으로 된 산문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쓰인 것으로, 이후 쓰인 신이담 위주의 산문보다 분량도 많아서 허균 산문의 저변을 이루는 것이라 보아 먼저 Ⅲ장에서 다루었다. 일상적 내용의 산문 중에서 장르적으로 가장 주목되어 온 것은 척독이고 분량상으로도『성소부부고』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선 주목하였다. 본고의 시각으로

는 허균 척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술 지향은 조선 후기 문인들이 바라본 것과 같이 『세설신어』의 청언적 양식에 그 원류가 있다. 『세설신어』는 허균이 직접 남긴 산문뿐 아니라, 명대의 청언집 내용을 발췌한 『한정록』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허균의 산문 세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참조점이다. 『세설신어』는 단지 위진남북조 시대의 청언 모음집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명 중기 왕세정을 비롯한 강남 문인들에 의해 재조명되어 명대 소주(蘇州) 일대의 문단에서 각광받고 있었다. 명대 문단의 흐름 중에서도 강남 문단의 추이에 호응하고 있던 허균은 『세설신어』에 등장하는 남조의 귀족이나 『세설신어』에 열광했던 소주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관직에 전면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평온한 심리 상태, 고상한 생활 방식, 남다른 예술적 안목 등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정의하고자 하는 태도를 수용하였다. 그 결과가 개념적으로 집약된 것이 '한정(閒情)'으로, 17세기 초의 조선 문인들이 사환(仕宦)과 은거라는 외적 조건의 대비 속에서 '한가로움'이라는 개념을 사유했던 것과 달리, 허균은 한가로움이 무엇인가를 정의함에 있어서 본성에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내적 조건의 측면을 중시하였다. 한가로움의 달성 여부를 본성에 충실한가의 문제로 규정하는 이러한 관점이 확립되어 있었기에, 정치 참여가 본성에 충실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한 정치 세계로의 복귀는 한가로움을 확보하는 일과 상충하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어서 허균의 산문 작품들이 가진 짧은 분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허균의 척독은 그중에서도 유난히 짧은데, 이는 『세설신어』가 지닌 문예미의 여러 부면 중에서 사물의 감각적 인상과 순간적 감흥의 여러 국면을 짧은 분량 안에 가능한 한 생생하게 표현하는 미학과 공명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허균의 척독을 사례로 삼아 그중에서도 가까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설신어』의 고사 자체를 원용하는 국면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허균의 척독에는 『세설신어』의 함축성과 핍진한 묘사 방식을 수용하여 감성적 흥취를 드러낸 작품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촌철살인의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재치있게 표현하거나 말주변을 자랑함으로써 언어 사용의 즐거움을 향유하려는 국면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자의 특성은 『세설신어』에 수록된 청담이 상호 토론의 일환으로 행해졌던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처럼 허균이 『세설신어』의 미학을 수용했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허균이 그러한 청담 전통의 수사법을 동원하여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은 관료이자 문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었다고 보았다. 감성적 흥취를

전면에 부각한 척독들은 문인으로서의 재능을 보여주는 한편, 공적 세계나 현실 정치에 대한 언급을 담은 척독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서, 관료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문제나 공적 사안의 향배에 대한 관심사를 일정하게 드러내고 있다. 허균의 척독에 드러나는 공적 영역에 대한 부분적 관심은, 청담이 그 발생 초기에 당대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탄생하여 정치적 의견을 상호 토론하는 방향으로도 일부 발전했던 사실과 조응하는 면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허균은 『세설신어』를 관통하는 다음의 몇 가지 의제들을 수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바탕으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인품의 고하를 따지되 주로 그 외양을 통해서 인물을 바라보는 인평(人評)의 문제, 정계에서의 처신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처신 양방을 아우르는 생활 방식의 문제, 외래 사조에 대한 탐색이 그것이다. 특히 『세설신어』에 표방된 인물의 외양을 중시하는 관점은 허균의 산문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에 각별한 정성을 쏟는 측면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더욱이 허균의 산문에서 인물 전범을 설정하거나 그러한 인물의 외양 묘사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측면은, 16세기 이래 명대의 강남 문단에서 서화에 대한 감식안의 보유 여부가 엘리트의 지위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부상한 사실과 맞물려 있다. 명대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 내 계층 이동(social mobility)이 활발해짐에 따라 명대 사대부들, 즉 기성 엘리트들은 상인과 같은 신흥 엘리트의 도전에 맞서 자신의 예술적 감식안이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배워서 익히는 지식보다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주관성의 발현을 상찬하였다. 조선에서는 명대에 비견할 만한 상업의 발전은 없었지만, 임진전쟁(1592) 직후의 조선에서는 하층민의 신분 상승을 더러 목격할 수 있었다. 더욱이 관직 경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성을 사회 내에 현시해야 했던 허균의 입장에서, 관직이라는 상징을 대신해서 자기 자질의 탁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매개로서 서화 감상이라는 활동은 그 자신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서화 감상학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고상한 취향과 안목을 드러내 주는 통로로서 허균은 미식과 미색이라는 범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허균의 산문 세계에서 미식이라는 소재가 돌출하여 있는 점은 분명 동시대 조선 문인들에게서 대체로 절식(節食)이 옹호되는 것에 비하여 독특한 면이 있다. 하지만 허균 역시 절식을 옹호하는 주장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조선 각지의 특산 음식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미식에 대한 지식을 서술한 점, 그런 별미 자체보다는 별미에 접근할 수 있었던 과거 자신의 위상을 향

수에 젖어 회고하는 차원에서 미식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당대에 색을 제공하는 여성들이었던 기녀에 대한 언급 역시 허균의 산문이 다른 문인들의 경우에 비해 해당 소재를 전면에 부각하였다는 특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역시 기녀는 소재가 될 뿐, 궁극적으로는 기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인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로 초점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정이 속세의 사물을 통해서 자신의 고상함을 선전하고 내면적 평온함을 추구하는 미학이라면, 비일상적 소재를 가지고 표현해 놓은 작품들에 보이는 선취는 속세를 넘어선 상상력을 드러내는 미적 범주이다. Ⅳ장에서는 기몽 산문이나 신선담 등 비상한 소재를 다룬 작품들을 묶어 다루었다. 우선 허균의 기몽 산문과 꿈에 대해 언급한 산문들을 종합하여 허균이 기록한 꿈 이야기가 당대 조선의 기몽 산문들에 비추어 볼 때 예지몽과 환상몽의 양대 기록 전통 중 환상몽의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그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허균의 기몽 산문을 비롯해 신선과 같이 비일상적 소재를 다룬 작품들을 관류하는 픽셔널리티(fictionality)의 속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활용한 '허구성' 개념이 사실상 18세기 서구 소설의 발달 과정에서 추출된 허구성 개념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 개념으로 활용하여 허균의 산문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최근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바, 픽셔널리티가 갖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부각하는 논의를 일부 수용하여 허균의 기몽 산문에 나오는 픽셔널리티는 반(半) 사실성의 영역에 있는 17세기 조선의 특수한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허균이 고래의 신선 담론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 즉 신선의 존재 여부와 신선이 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허균은 신선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인 어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확실하게 신선의 실존을 긍정했던 논자들에 비하면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신선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데에는 관심이 적다는 점, 신선술의 묘사를 통하여 참신한 표현법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허균은 신선을 소재로 한 글에서도 허균은 한정 지향의 글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계의 인물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러한 선계의 인물이 지닌 실감을 부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신과 민(民)의 중재자로 그림으로써 그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 내 작자 자신의 위상을 작품 속에 묘사해 놓았다. 이 과정에서 허균이 유배 시기에도 여전히 통치술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신령의 등장과 같은 비일상적

화소를 활용함으로써 메시지를 발신함에 있어 유희적 필치를 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허균의 산문에 등장하는 신선담을 유희적 작법의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우선 허균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리에 닿지 않는 글감을 산문의 주제로 채택한 것은 허균이 이해한 바의 『장자』식 저술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진지한 말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 어려울 때 가당찮은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진의와는 정반대되는 표현을 취할 수 있다는 식의 저술 철학이 1608년 부안에 은거하던 시절부터 마련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늘날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초현실적 사건을 목도했다고 주장하는 작품들은 그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런 작품을 저술하는 행위가 갖는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의 차원을 생각할 때 작자의 저술 의도를 읽는 데 유용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허균의 신선담은 자신의 문재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거나, 평소에 널리 쓰이지 않는 도가적 은어를 활용하여 범상치 않은 상상 속 세계를 그림으로써 미학적 즐거움을 추구하고 권위나 서열, 자아의 형상을 여러 각도에서 사색해 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신선을 비롯한 상상 속의 존재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선계의 묘사는 다양한 지식을 온축하여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허균 자신의 작가적 개성을 구성하고 있다. 허균은 비범한 소재를 선택하고 그 소재의 묘사 방법을 여러 방식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간 조선 문인들에게 널리 주목받지 못하던 중국 남부 문학의 전통을 적극 수용하였다. 허균의 선취는 문학 창작 상의 참조점을 확대하게 하는 계기이자, 즐겁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지닌 문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내적 필요에 부응하는 미학적 범주였다.

정리하면, 한정과 선취라는 범주를 통하여 자기표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허균의 산문은, 동시대 조선의 산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던 어휘나 발상을 폭넓게 구사함으로써 조선의 한문 산문이 가질 수 있는 표현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동시대 조선 문인들에게서는 흔히 나타나지 않는 자아상의 창출을 시도한 의의가 있다. 허균의 산문은 관료로서 출세하려던 욕망이 좌절됨에 따라, 문학적 성취를 통해 불멸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인 것으로, 그러한 저자의 의도에 부합하였던 표현상의 범주가 한정과 선취였다.

허균의 산문에서 한정과 선취라는 미적 범주는 그 자체로 자족적인 문예미 추구의 일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표현, 즉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했을 때, 비로소 허균 산문에 드러난 정치적 열망과 은일 지향의 공존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열망의 양면이라는 점이 이해될 수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획득하고자 했던 영달에의 소망이 '은일 지향'을 가리키는 한정이나 선취라는 범주로 우회하여 드러났지만, 그 기저에는 자신의 탁월한 취향, 비범한 재능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은일 지향이나 선계에 대한 지향은 정치 참여를 통한 영달에의 열망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허균의 산문 세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으나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언급해 둔다. 첫째, 개별 작품에 대한 미시적 고찰이 부족했다. 본고는 산문 작가로서 허균의 작가적 정체성이 어떠한가 하는 윤곽을 제시하려는 목표에 치력한 결과 미시적으로 접근할 경우 음미할 가치가 있는 산문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다른 산문들도 한정과 선취의 지향이라는 틀 안에서 탐구해 볼 만한 작품들이 많다.

둘째, 허균의 작가적 정체성이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동료 집단과의 교제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초점을 허균에게 맞춤으로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허균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역동적인 면모를 다루지 못했다. 또한 구성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분석하거나, 동시대 관료 그룹, 또는 이 시기부터 형성되는 산림 계통의 사족 집단에서 양산하는 산문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하는 점까지 논의를 확장하지 못했다. 허균이 조선 중기 산문사의 지형도에서 갖는 의미가 선명하게 파악되려면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의 이런 미흡한 점들은 필자의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부록

표1:『성소부부고』수록 작품의 창작 시기

연번	제목	권수	창작 연도 관직(또는 거소)	특기사항
1	東征賦 幷序	3	1603년 司僕寺 正 (春秋館 겸직)에서 퇴직.	孫綽의 「天台山賦」 언급.
2	思舊賦 幷序	3	1607년 4월 이후.	向秀의 「思舊賦」 擬作. 1605년경 강원도 수해 언급. 金錫胄의 『海東辭賦』에 수록.
3	竹樓賦	3	1610년 12월 이후	金錫胄의 『海東辭賦』에 수록.
4	北歸賦	3	1610년 12월 이후	金錫胄의 『海東辭賦』에 수록.
5	夢遊鍊光亭賦	3		金錫胄의 『海東辭賦』에 수록.
6	東林城賦	3		평북 宣川 소재. 金錫胄의 『海東辭賦』에 수록.
7	次別知賦寄弔詭石洲二友	3		韓愈의 「別知賦」 擬作.
8	夢歸賦	3	1610년 12월 이후	王世貞의 「靜姬賦」 擬作. 金錫胄의 『海東辭賦』에 수록.
9	續靜姬賦 幷序	3	1610년 12월 이후	黃庭堅의 「毁璧辭」 擬作.
10	毁璧辭 幷序	3	1589년 이후	
11	和陶元亮歸去來辭 幷引	3	1610년 12월 이후	
12	送李懶翁還枳柤山序	4	1605~1607년 2월 이전	수신인: 李楨(1578~1607)
13	石洲小稿序	4		수신인: 權韠(1569~1612)
14	世說刪補注解序	4	1606년 이후	
15	詞翰傳芳序	4	1607년 5월 이후	世祖 조 승려 信眉의 詩卷.
16	古詩選序	4		6권 300편. 漢代~南北朝.
17	唐詩選序	4		60권 2600여수
18	宋五家詩鈔序	4		王安石, 蘇軾, 黃庭堅, 陳師道, 陳與義의 시선집.
19	明四家詩選序	4		李夢陽, 何景明, 李攀龍, 王世貞의 시선집에 부친 글.
20	淸溪集序	4	1607년 가을	梁大樸의 시문집 《靑溪遺稿》의 서문.
21	攝生月纂序	4		

22	西邊備虜考序	5	1606년 이후	“不佞出入西垣, 逾一紀于玆.” 1594년 5월, 종사관으로서 의주에 40여 일 체류.
23	歸田錄序	5		金公喜의『歸田錄』2권.
24	送釋海眼還山序	5	1608년 8~12월.	수신인: 승려 海眼. 허균과 생시가 같은 인물.
25	題黃芝川詩卷序	5	1607년 이후.	黃廷彧의 詩卷.
26	題適菴遺稿序	5		適庵 曺伸의 詩卷 2권.
27	送金子中赴京序	5	1609년	수신인: 冬至使 書狀官 金時讓(1581~1643)
28	送趙持世赴京序	5	1610년	수신인: 趙緯韓
29	閑情錄序	5	1610년	10편 체제『한정록』
30	題四體盛唐序	5		四體: 7언의 歌와 行, 五律, 七律.
31	題唐絶選刪序	5		10권. 명대 시선집에서 재선발.
32	湖墅藏書閣記	6	1604년 이후	柳寅吉(1554~?)
33	重修化鶴樓記	6	1604년 9월 이후. 遂安郡守	황해도 遼山(遂安)의 崔滉(1529~1603)이 27년 전에 지은 化鶴樓에 부친 기문.
34	愁歇院神詠仙贊記	6	1608년 2월 이후	
35	重修靜思菴記	6	1608년 8월 이후 扶安縣	沈光世(1577~1624, 자는 德顯)이 정사암을 수리함.
36	陶山朴氏山莊記	6	1609년	
37	原州鄕校重建記	6	1609년 10월 1일	李裕仁
38	遊原州法泉寺記	6	1609년 9월 28일	
39	祥原郡王冢記	6	1609년 가을 이후	
40	臨滄軒記	6		沈友敏(심우영의 동생, 1613년 칠서사건 연루). 평북 송령 소재.
41	酒吃翁夢記	6	1609년	柳潚(1564~1636)
42	巡軍府君廳記	6	1611년	
43	四友齋記	6	1611년 2월	
44	愛日堂記	7	1592년	외조부 별세 43년 후
45	盤谷書院記	7	1607년	장인(직장공) 사후.
46	龕淵寺古迹記	7		
47	故刑曹參判成公畫像記	7	1605년 이후	成熹(허엽의 외조부)의 증조부 成順祖의 화상

				“奉置于延安, 筠適以亞使到府, 往審焉.”
48	修證寺楊侍中夫婦畫像記	7	1599년	허균의 외조모(고려 楊起의 7대손)의 畫像 권1 「佐幕錄」에 「修證寺」시 2수가 있음.
49	探元窩記	7		맹인 점술인 李光義
50	慟哭軒記	7		조카의 서실.
51	醉鶴亭記	7		당질 李長卿
52	山月軒記	7	1611년	具仁基의 부안 봉산 산월헌
53	凌波書室記	7	1611년	李劼의 楊根郡(현 경기도 양평) 凌波書室.
54	沙溪精舍記	7	1611년	이정귀, 신흠의 글이 있음. 남원 방씨.
55	咸悅縣客舍大廳重建記	7	1611년	韓會一(1580~1642. 한준겸의 아들) 당시 함열 현감
56	嚴處士傳	8		
57	蓀谷山人傳	8		
58	張山人傳	8		
59	南宮先生傳	8	1608년 가을 이후	
60	蔣生傳	8		
61	上完城李相國書	9	1600~1601년 4월	허성의 처는 이헌국의 딸
62	上完城 第二書	9	하한: 1602년	
63	與金甥正卿書	9	1603년	수신인: 金大涉의 아들 金矱(1572~1633). 正卿은 자. 『芝峯集』에도 언급됨.
64	與石洲書	9	1603년	
65	上許吏曹【頊】書	9	1604년 11월~1608년 2월	수신인: 許頊(1548~1618).
66	奉答家兄書	9	1604년	
67	答許新昌書	9		*1601년에 신창현감을 지낸 적 있는 許鐸이 수신인인 듯함.
68	答錦溪正書	9		*李大麟(1561~?)
69	與李大中 第一書	9		수신인: 李惟弘(1567~1619)
70	與李大中 第二書	9		
71	與李大中 第三	9		

	書			
72	與成德甫書	10		수신인: 成俊耆(1574~1633)
73	答崔汾陰書	10		수신인: 崔天健(1568~1617)
74	與任子正書	10		수신인: 任兗(1567~1619)
75	答任子正書	10		
76	答長姪書	10		
77	與趙持世書	10		수신인: 조위한
78	奉上家兄書	10		수신인: 허성
79	與鄭大諫書	10	1609~1611년	
80	與柳侍御書	10		
81	答鄭生書	10	1609~1611년	
82	答李生書	10	*1611	
83	學論	11	1610년	
84	政論	11		
85	官論	11		
86	兵論	11		
87	遺才論	11		
88	厚祿論	11		
89	小人論	11		
90	豪民論	11		
91	鄭道傳、權近論	11		상소2에서 지목됨.
92	金宗直論	11		
93	南孝溫論	11		
94	李長坤論	11		
95	文說	12		
96	任老人養生說	12		
97	關東不可避亂說	12		
98	辟穀辨	12	1608년 이후.	
99	詩辨	12		
100	夢解	12		
101	解命文 幷引	12		
102	對詰者	12		
103	譴加林神	12	1611년.	
104	山狗偈	12		
105	題石刻諸經後	13	1606년 이후.	문징명의 서첩에 대한 글.
106	題詩冊後	13	1607년 이후.	
107	書李懶翁畫帖後	13	1606년 이후	
108	題豐干像帖後	13	1605년 이후	
109	題古文參同契後	13		
110	題千古最盛後	13	1606년 이후	
111	題李澄畫帖後	13	1607년 이후	
112	批點唐音跋	13		
113	四家宮詞跋	13		王建, 費氏, 宋 徽宗, 王珪의

				宮體絶句에 붙인 跋.
114	明尺牘跋	13		4권
115	歐蘇文略跋	13		8권. 구양수의 文 68편, 소식의 문 72편.
116	明詩刪補跋	13		총 624편.
117	四友叢說跋	13		何良俊의『四友叢說』8권에 붙인 跋.
118	使東方錄跋	13	1606년 이후	梁有年의 『使東方錄』에 붙인 跋.
119	題溫李艷體後	13	1605년 이후	溫庭筠, 李煜의 詞曲 39수를 한석봉의 글씨로 적은 책에 붙인 글.
120	應製詩跋	13		權近의 應製詩에 대한 跋.
121	西游錄跋	13		
122	讀 (16편)	13	1608년 부안 거주 시기 이후	
123	睡箴 幷引	14		
124	委順箴 幷引	14		
125	煉念箴	14		
126	覺軒銘 幷序	14	1608~1611 추정	*惺翁
127	陋室銘	14		
128	夢賚四物銘 幷引	14	1611년 2월 15일	
129	硯銘	14		
130	御札頌 幷序	14	1610년	허성이 받은 어찰에 부친 송
131	惺翁頌	14	1608~1611 추정	
132	大嶺山神贊 幷序	14	1603년 이후	
133	李校理畬贊 幷序	14		
134	三先生贊 幷引	14		陶潛, 李白, 蘇軾에 대한 贊.
135	灘隱畫竹贊, 題洛迦禪寺上人克融卷.	14		석주집 奉贈灘隱 참조.
136	李畫佛祖讚 幷引	14		
137	列仙贊 幷引	14		王世貞의『列仙傳』擬作
138	故全羅道兵馬節度使贈兵曹判書	15		*李福男 1597년 남원 전투 (유사한 글이 『沙村集』 권4에

	李公誄 幷引			「贈判書李公誄辭」란 제목으로 수록.
139	李實之誄 幷引	15	1606년 이후	李春英
140	李楨哀辭 幷引	15	1607년 이후	
141	祭宗兄許公【笠】文	15		許笠
142	祭林子昇文	15	1601년 이후	林晛(1569~1601)
143	祭完城府院君李公【憲國】文	15	1602년 이후	李憲國(1525~1602)
144	祭京畿監司沈公【友勝】文	15	1602년 이후	沈友勝(1552~1602)
145	祭權同知【協】文	15		權協 (강릉인 원로)
146	祭韓石峯文	15	1605년 이후	韓濩 (1543~1605)
147	哭任約初文	15	1606년 이후	任守正 (1570~1606)
148	祭亡妻文	15	1609년	
149	祭沈兄【長源】文	15		沈長源(1531~1607)
150	祭松雲老師正公文	15		惟政 (1544~1610)
151	亡妻淑夫人金氏行狀	15	1609년	
152	勅建顯靈關王廟碑	16	1602년	
153	重修東海龍王廟碑	16	1605년 이후	
154	重修兜率院彌陀殿碑	16	1602년 이후	
155	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崔公神道碑銘	16	1607년	崔演(1503~1549)
156	弘文館校理任公墓碣銘	16	1606년 9월	
157	贈工曹判書行大護軍李君墓碣銘	16	1608년 7월 이후	
158	承政院右承旨朴公墓表	17	1597년 3월 22일	朴始亨(강릉인, 1459년 문과 급제)
159	進士沈兄墓表	17	1607년 7월	沈長源
160	禮曹佐郎林君墓	17	1601년 6월 이후	林晛 (字 子昇)

	誌銘			
161	司憲府持平知製教兼世子侍講院司書尹君墓誌銘	17	1604년 이후	尹繼善(1577~1604)
162	成均生員申公墓誌銘	17		申櫓(1546~1593)
163	順天府使成君墓誌銘	17	1607년 이후	成啓善
164	木川縣監李公墓誌銘	17	1609년 3월	李挺
165	邊君墓誌銘	17		邊洽
166	李晦卿墓誌	17	1606년 이후	李光林
167	新平李生墓誌	17		李文著, 李文芝, 李文封의 묘지.
168	琴君彦恭墓誌銘	17	1610년	琴恪
169	漕官紀行	18	1601년 7월~12월	
170	西行紀	18	1602년 2월~4월	
171	丙午紀行	18	1606년 1월~6월	
172	己酉西行紀	19	1608년 2월~7월	
173	夢記	19	1609년 4월	
174	尺牘 上 (82편)	20		
175	尺牘 下 (94편)	21		
176	惺翁識小錄 上中下	22~24	1611년 4월	
177	惺叟詩話	25	1611년 4월	
178	屠門大嚼	26	1611년 4월	

표2:『성소부부고』미수록작 및 허균 소작으로 지목된 작품

연번	제목	창작 연대	수록처
1	鶴山樵談	1593년	
2	朝鮮詩選後序	1600년	『朝鮮詩選』(吳明濟 編)
3	海東野言別集		
4	蘭雪軒詩集跋		『蘭雪軒集』
5	荷谷集跋	1605년 3월	하곡집
6	習齋先生詩集後敍	1608년 8월	동양문고 습재집
7	眉巖先生詩集序	1612년	천리대 도서관 이마니시 류 문고

			『眉巖詩稿』
8	조위한에게 보낸 편지	1613년 2월	허균연보(2013:182)
9	水色集序		
10	台閣志序	1601년 1월	『台閣志』
11	柳亨進傳	1606년 이후	『海東異蹟補』
12	淸虛堂集序	1612년 1월	
13	四溟集序	1612년 1월	
14	사명대사 석장비명	1612년 12월	허균 연보 수록.
15	수신인 미상 편지	1613년 2월 19일	허균 연보 수록. (송익필 서손 첩)
16	이안눌에게 쓴 편지	1613년 4월 16일	허경진 소장
17	을병조천록 서	1616년 3월 3일	
18	省菴先生文集序	1614~1618 사이	김효원 문집 서문 (고려대 소장D1-A276)
19	宋王荊公二體詩抄序	1617년 11월	『宋王荊公二體詩抄』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20	蓀谷集序	1618년 3월	『蓀谷詩集』(일본 내각문고) 『성소부부고』 관물헌본에는 수록. (국중본, 홍문관본에는 없음)
21	상소1	1618년 1월 7일	조선왕조실록
22	상소2	1618년 5월 3일	조선왕조실록
23	東國名山洞天註解記序		장서각 소장『臥遊錄』(작자 미상), 개인소장
24	題名山洞天誌解後		장서각 소장『臥遊錄』(작자 미상), 개인소장
25	名山洞天誌後序		개인 소장
26	夢遊廣桑山詩序		『蘭雪軒集』
27	廣寒殿白玉樓上樑文		『蘭雪軒集』

표3: 허균의 초기 산문과 창작 시기

	연번	권	제목	창작 연대
賦部	1	3	東征賦	1603년
文部	2	10	上完城李相國書	1601~1602년
	3	10	上完城第二書	1601~1602년

	4	10	與金甥正卿書	1603년
	5	10	與石洲書	1603년
	6	10	上許吏曹【頊】書	1605년
	7	10	奉答家兄書	1605년
	8	10	答許新昌書	1605년
	9	15	祭林子昇文	1601년
	10	15	祭完城府院君李公【憲國】文	1602년
	11	15	祭京畿監司沈公【友勝】文	1602년
	12	15	祭韓石峯文	1605년
	13	16	勅建顯靈關王廟碑	1602년 10월 이후
	14	16	重修東海龍王廟碑	1604년 10월 이후
	15	17	承政院右承旨朴公墓表	1597년 3월 22일
	16	17	禮曹佐郎林君墓誌銘	1600년 6월 이후
	17	17	司憲府持平知製教 兼世子侍講院司書尹君墓誌銘	1604년
	18	17	成均生員申公墓誌銘	1593년 이후
	19	17	邊君墓誌銘	1594년 이후
	20	18	漕官紀行	1601년
	21	18	西行紀	1602년
	22	20	上西厓相 (3편)	1604~1606년 1월
	23	20	上漢陰相	1605년 3월
	24	20	上鼇城相	1605년 3월
	25	20	上一松相	1605년 2월
	26	20	上黃芝川	1604년 9월
	27	20	上李五峯 (2편)	1604~1606년 3월
	28	20	上柳西坰 (1편)	1605년 3월
	29	20	與韓柳川 (3편)	1601년
	30	20	與崔汾陰	1605년 11월
	31	20	與鄭寒岡 (4편)	1596~1603년
	32	20	與金南窓	1605년 12월
	33	20	與霽江公子	1601~1602년
	34	20	與韓石峯 (2편)	1604년
	35	20	邀景洪	1605년
	36	20	與李實之	1605년
	37	21	與許兄子賀 (2편)	1603년
	38	21	與任約初 (6편)	1599~1600년
	39	21	與林子昇 (8편)	1600~1601년
	40	21	與西山老師 (4편)	1602년
	41	21	與松雲大師	1604~1606년 1월

참 고 문 헌

***자료**

1. 허균 저술

허균,『蛟山集』, 버클리대학 소장본. (청구기호: 5563.7.0482)

허균,『惺所覆瓿藁』, 교토대학교 가와이문고본.

허균,『惺所覆瓿藁』,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奎6286)

허균,『惺所覆瓿藁』,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1. (규장각 청구기호: 奎6718)

허균,『惺所覆瓿藁』, 연세대학교 소장본. (청구기호: 고서(I) 811.98 허균 성-필 -1~8)

허균,『惺所覆瓿藁』, 한국문집총간. 74, 민족문화추진회, 199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허균, 김풍기 역,『독서광 허균』, 그물, 2013.

허균, 민족문화추진회 역,『국역 성소부부고』1~5, 민족문화추진회, 1989.

허균, 박희병 역주,「南宮先生傳」,『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돌베개, 2005.

허균, 박희병·정길수 역,「남궁선생전」,『낯선 세계로의 여행』, 돌베개, 2007.

허균, 신해진 역주,「南宮先生傳」,『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허균, 심경호 역,『허균전집2: 을병조천록』, 보고사, 2022.

허균, 정길수 편역,『나는 나의 법을 따르겠다』, 돌베개, 2012.

허균, 최강현 역,『국역 을병조천록』,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편집, 국립중앙도서관, 2005.

허균, 최재원 역,『허균전집1: 학산초담, 태각지, 해동야언별집, 상소문』, 보고사, 2022.

허균, 허경진 역,『허균전집3: 한정록』, 보고사, 2022.

2. 기타

顧起元 저, 김정숙 역주,「주지번 묘지명」,『문헌과해석』77, 문헌과해석사, 2016, 187~228쪽.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와유록』(한국학자료총서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도목 저, 김장환 역,『옥호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
呂祖謙 撰,『臥游錄』, 中華書局, 1985.
사명 유정 저, 이상현 역,『사명당대사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徐渭 저,『徐渭集』, 中華書局, 1983.
소식 저, 류종목 역,『정본완역 소동파시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蕭統 저, 김영문 외 역,『문선역주』1~10, 소명출판, 2010.
유몽인 저, 장유승 외 역,『국역 어우집』, 학자원 편, 학자원, 2016.
유몽인 저, 신익철 외 역,『어우야담』, 돌베개, 2006.
王世貞(汪雲鵬),『有象列仙全傳』, 9권 6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中5218-v.1-6)
王世貞(汪雲鵬),『有象列仙全傳』, 9권 5책,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166-O148y).
王世貞(汪雲鵬),『有象列仙全傳』, 9권 5책, 일본 와세다대학 소장. (청구기호: 文庫 31 E1995 1-5).
왕세정 저, 박종훈·이관성 역,『예원치언』上·下, 보고사, 2016.
이수광 저, 南晩星 譯,『芝峯類說』, 乙酉文化社, 1994. (원저: 1975년)
이방 저, 김장환 역,『태평광기』, 학고방, 2000.
이유홍 저, 조종업 역,『艮庭集』, 全州李氏廣平大君艮庭公派金岩宗中, 2008.
이항복 저, 임정기 역,『국역 백사집』, 민족문화추진회, 1998.
左丘明 저, 신동준 역,『춘추좌전』, 한길사, 2006.
周履靖 編,『夷門廣牘』, 上海: 商務印書館, 1940.
朱之蕃,『奉使朝鮮稿』, 四庫全書存目叢書(176), 齊魯書社, 1997.
馮夢龍,『醒世恒言』, 人民文学出版社, 2015.
何良俊,『四友齋叢說』, 重華書局, 1951.
何良俊,『何翰林集』, 台北: 國立中央圖書館, 1977.
嵇康, 한흥섭 역,『혜강집』, 소명출판, 2006.
華淑 輯,『閒情小品』, 28권 4책본. 하버드 옌칭 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T9100/7996)

『국조문과방목』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奎106-v.1-8)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전자판.
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전자판 사고전서.
전자판『여흥민씨대동보』, 2004.
전자판『中國基本古籍庫』.
『皇華集』, 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 (청구기호 K4-380).

Feng, Menglong. Translated by Shuhui and Yunqin Yang. *Stories to Awaken the World: A Ming Dynasty Collection (Volume 3)*,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9.

***단행본**

강명관,『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강명관,『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강민경,『조선중기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2007.
강제훈,『만남의 제도화, 조선시대 조정 의례』, 민속원, 2017.
계승범,『모후의 반역: 광해군대 대비폐위논쟁과 효치국가의 탄생』, 역사비평사, 2021.
김대중,『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돌베개, 2018
김동욱 외,『허균연구』, 새문사, 1981.
김성우,『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김풍기,『독서광 허균』, 그물, 2013.
나카스나 야스노리, 강길중 외 역,『우아함의 탄생』, 민음사, 2009.
劉義慶 撰, 劉孝標 注, 金長煥 譯註,『세상의 참신한 이야기: 세설신어1』, 신서원, 2008.
마크 루이스, 조성우 역,『하버드 중국사 남북조: 분열기의 중국』, 너머북스, 2016.
박영호,『허균문학과 도교사상』, 태학사, 1999.
박현규,『중국 명말청초인 朝鮮詩選集 연구』, 태학사, 1998.
박희병,『韓國傳奇小說의 美學』, 소명출판, 1997.
박희병,『능호관 이인상 연보』, 돌베개, 2022.
설석규,『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신태영,『明나라 사신은 朝鮮을 어떻게 보았는가:『皇華集』硏究』, 다운샘, 2005.
심경호,『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심경호, 『안평(安平)』, 알마출판사, 2018.
심경호,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J.L. 오스틴,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오갑균, 『조선시대 사법제도 연구』, 삼영사, 1995,
오비 고오이치, 윤수영 역, 『중국의 은둔사상』,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우런수, 김의정 외 역, 『사치의 제국』, 글항아리, 2019.
劉明鍾, 『韓國의 陽明學』, 同和出版社, 1983.
劉若愚, 李章佑 譯, 『中國詩學』, 同和出版公社, 1984.
위안싱페이, 김수연 역, 『도연명을 그리다』, 태학사, 2012.
이가원, 허경진 역, 『유교반도 허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이능화, 이종은 역주, 『朝鮮道教史』, 보성문화사, 2000.
이문규, 『허균문학의 실상과 전망』, 새문사, 2005.
이어, 김의정 역, 『쾌락의 정원: 동양의 에피쿠로스 이어의 『한정우기』』, 글항아리, 2018.
이이화, 『허균의 생각』, 교유서가, 2014.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2, 휴머니스트 2006.
이혜순, 『수호전 연구』, 정음사, 1985.
임형택, 『동아시아 서사와 한국소설사론』, 소명출판, 2022.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장병인,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혼인·이혼·간통·성폭행으로 읽는 조선시대 여성사』, Humanist(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8.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정길수, 『17세기 한국 소설사』, 알렙, 2016.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정호훈, 『朝鮮後期 政治思想 硏究: 17세기 北人系 南人을 중심으로』, 혜안, 2004.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Ⅲ, (4판), 지식산업사, 2005.
쫑자오펑(钟肇鹏), 이봉호 외 역, 『도교사전』, 대순사상학술원, 2018.
정홍준, 『조선 중기 정치권력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陳必祥,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1995.
차용주, 『허균연구』, 경인문화사, 1998.
崔三龍, 『韓國文學과 道教思想』, 새문사, 1990.

티모시 브룩, 이정·강인황 역,『쾌락의 혼돈』, 이산, 2005.
한승훈,『무당과 유생의 대결』, 사우, 2021.
한영우,『허균평전 : 천재 혁명사상가, 실학자』, 민속원, 2022.
허경진,『허균평전』, 돌베개, 2002.
허경진,『허균연보』, 보고사, 2013.
홍선표,『朝鮮時代繪畫史論』, 문예출판사, 1999

*일반 논문

강명관,「허균과 명대 문학: 허균문학 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민족문학사연구』13(1), 민족문학사학회, 1998.
강민경,「조선 중기 지식인의 신선전 독서 경향과 詩化-이춘영의「讀神仙傳」53수를 중심으로」,『도교문화연구』17, 한국도교문화학회, 2002.
강민경,「대자유를 향한 일탈, 허균 유선문학 소고」,『도교문화연구』21,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강종임,「韓愈〈鱷魚文〉의 祭儀性과 文靈」,『中國語文學』61, 영남중국어문학회, 2012.
강제훈,「조선 초기의 朝會 의식」,『조선시대사학보』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강제훈,「조선 世宗朝의 조회」,『한국사연구』128, 한국사연구회, 2005.
강제훈,「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韓國史硏究』137, 한국사연구회, 2007.
강제훈,「조선전기 국왕 儀仗制度의 정비와 상징」,『사총』7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
고광민,「韓愈 驅鱷사건과〈鱷魚文〉의 수용 양상 연구」,『中國語文學誌』34, 중국어문학회, 2010.
고연희,「'安平大君'의 夢遊桃源, 그 착상과 결실 -「몽유도원기」와 '몽유도원도 제찬'을 통해 본 安平大君-」,『세종조의 문화융성: 안평대군 탄생 600주년 기념 학술대회/안평대군과 몽유도원도』자료집, 2018.
고토 토모코,「도교의 세계와 신들」, 사가데 요시노부 편, 이봉호 외 역,『도교백과』, 대순사상학술원, 2018, 28~50쪽.
곽정례,「許氏五文章家의 文學的 背景과 活動에 대한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구덕회,「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韓國史論』

2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8.
구본현, 「『顧氏畫譜』의 전래와 조선의 題畫詩」, 『규장각』 2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권내현, 「양반을 향한 긴 여정 -조선 후기 어느 하천민 가계의 성장」, 『역사비평』 98, 역사비평사, 2012.
권석환, 「강남지역 문화후원(Patronage)의 개념과 특징」, 『중국어문학논집』 53,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권호종·이봉상, 「明代 妓女 馬守眞 研究 -《靑樓韻語》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3,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김다은·조우현, 「17-18세기 학창의(鶴氅衣)에 대한 연구 - 장만(張晩, 1566~1629) 유복본 초상화를 중심으로」, 『복식』 69(7), 한국복식학회, 2019.
김대중, 「조선 전기 · 중기 자립 경제학 초탐(初探)」, 『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학회, 2017.
김대중, 「애민사상의 정신분석 - 성호(星湖) 이익(李瀷)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김대중, 「조선후기 민인의 하부정치」, 『한국한문학연구』 81, 한국한문학회, 2021.
김동욱, 「許筠과 女性」, 『아세아여성연구』 6,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968.
김동준, 「韓國漢文學史에 표상된 中國 西湖의 전개와 그 지평」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김동협, 「정구(鄭逑) 문학론의 한 국면(局面) -「천손하고칠석회변(天孫河鼓七夕會辨)」과 「강선루기(降仙樓記)」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김명호, 「신선전에 대하여」, 『(韓國)판소리·古典文學硏究』, 새터 강한영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亞細亞文化社, 1983, 657~669쪽.
김민구, 「이백(李白) 전기도첩(傳記圖帖): 이태백의 삶을 그린 백묘화(白描畵)」,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 학고재, 2009, 12~39쪽.
김석하, 「許筠의 「閒情錄」 硏究」, 『韓國文學의 樂園思想 硏究』, 日新社, 1973, 152~170쪽.
김성욱, 「17세기 조선의 한거문화와 허균의 한정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성진, 「허균의 척독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김성진, 「朝鮮後期 小品文과 養生」,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김수연, 「『도장(道藏)』과 고소설에 나타나는 도가적(道家的) 상상력의 근원과 유형 연구 1 - 『진고(眞誥)』의 공간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김수진, 「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語文硏究』 15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김수진, 「조선후기 소품문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韓國漢文學硏究』 37, 한국한문학회, 2019.
김영연, 「허균 五傳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영연, 「동천복지(洞天福地)에 대한 상상과 그 표현」, 『진단학보』 135, 진단학회, 2020, 447~454쪽.
김영연, 「버클리대 소장 『한정록』의 특징과 가치」, 『동서인문학』 63,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김영진, 「조선후기 '臥遊錄'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 48, 고전문학회, 2015.
김용섭, 「閑情錄의 農業論」, 『東方學志』 52,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86.
김우정, 「선조·광해 연간 文風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39, 한국한문학회, 2007a.
김우정, 「허균 산문의 연구 - 산문 텍스트의 확장과 문예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b.
김우정, 「조선전기 한문산문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65, 한국한문학회, 2017.
김윤조, 「書牘類의 특징과 조선 후기의 양상」, 『동방한문학』 31, 동방한문학회, 2006.
김윤조, 「한문 산문 '論'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대동한문학』 39, 대동한문학회, 2013.
김은미, 「몽유도원도 제찬의 도원관 연구」,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어문학회, 1989.
김은슬, 「「閒情錄」의 인용문헌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은슬, 「「閒情錄」 現傳本에 나타난 문헌의 인용방식과 그 체계」, 『서지학보』 33, 한국서지학회, 2009.
김은정, 「庚午本 『皇華集』 편찬경위와 詩文酬唱의 의미」, 『韓國漢詩硏究』 7, 한국

한시학회, 1999.
김은정, 「「五子詩」 창작 배경 및 和答詩 연구」, 『震壇學報』 96, 진단학회, 2003.
김은정, 「申欽의 淸言 선록집 『野言』 연구」,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
김은정, 「『小窓淸記』 異本과 17세기 초반 朝鮮에서의 수용 양상」, 『韓國漢文學硏究』 47, 한국한문학회, 2011.
김은정 「17세기 초반 소통으로서의 尺牘 연구-申欽·申翊聖 부자를 중심으로」, 『어문학』 119, 한국어문학회, 2013.
김장환, 「세설신어 속서연구-세설신어보」, 『중국어문학논집』 16, 중국어문학연구회, 2001a.
김장환, 「明代筆記 「玉壺氷」의 國內傳來와 朝鮮刊本」, 『인문과학』 83,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b.
김정숙, 「명대중엽 세설체 형성」, 『중국어문학지』 53, 중국어문학회, 2015.
김정숙, 「『세설신어』 독자 형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명대 홍치년간(弘治年間) 강남 오중문인(吳中文人)의 인물지」, 『東方學志』 17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김정숙, 「조선 문인의 위진 명사 소환 - 임수정에게 보낸 허균의 척독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71, 중국어문학회, 2020.
김정신, 「16세기 朝鮮의 官 주도 鄕政과 豪强律」, 『조선시대사학보』 87, 조선시대사학회, 2018.
김종철, 「『東文選』所載 '贊'의 內容分析」, 『韓國漢文學硏究』 20, 한국한문학회, 1997.
김지선, 「『長物志』에 나타난 明末 사대부의 내면세계」, 『中國學論叢』 42,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김지수, 「朝鮮朝 全家徙邊律의 역사와 법적 성격」, 『법사학연구』 32, 한국법사학회, 2005,
김진세, 「洪吉童傳의 作者考」, 『논문집』 1집,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969.
김풍기, 「조선 중기 古文의 小品文的 성향과 許筠의 尺牘」, 『民族文化硏究』 35, 民族文化硏究, 2001.
김풍기, 「허균의 「견가림신」(譴加林神)에 나타난 민속지(民俗誌)적 성격과 그 의미」, 『한문학논집』 50, 근역한문학회, 2018.
김청아, 「허균 문학에 나타난 꿈 형상화와 그 의미 - 『惺所覆瓿藁』를 중심으로」, 『語文硏究』 78, 어문연구학회, 2013.
김하라, 「兪晩柱의 『水滸傳』 讀法」, 『한국한문학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김호, 「조선시대 食治論- '閑情의 養生'에서 '濟衆의 備急'으로」, 『2013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013, 689~735쪽.
김홍대, 「朱之蕃의 丙午使行(1606)과 그의 서화 연구」, 『온지논총』 11, 온지학회, 2004.
나영훈, 「조선 현종 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사』 94, 조선시대사학회, 2020.
노경희, 「17세기 전반 조선과 18세기 에도 문단의 明代 前後七子 詩論 수용」, 『고전문학연구』 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노경희, 「현종실록자본 『世說新語補』의 간행과 流傳의 문화사적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류기수, 「국내 稀貴 筆寫本 『草堂詩餘』에 관한 小考」, 『中國硏究』 85,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20.
민관동, 「『水滸傳』의 國內 受容에 관한 硏究」, 『중국소설논총』 8, 중국소설연구회, 1998.
박경남, 「金昌協의 비판을 통해 본 王世貞 散文의 진면목」,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박경남, 「茅坤과 王世貞의 교유와 그 공통적 지향점-申最의 『皇明二大家文抄』를 통해 본 茅坤과 王世貞-」, 『漢文學論集』 31, 근역한문학회, 2010.
박경남, 「16·17세기 庶孼 許通 上疏文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박병련, 「조선중기 엘리트 관료의 정치사상적 특성: 서경 유근(西坰 柳根)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0(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1.
박세욱, 「우리나라 포도와 포도주 전래에 관한 小考」, 『江原人文論叢』 1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박소영, 「오명제의 조선시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박영호, 「《閒情錄》 硏究」, 『韓國道敎와 道家思想』 5, 한국도교사상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91, 237~255쪽.
박현규, 「許筠 詞 분석」,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박현규, 「千秋 사행 시기 허균의 문헌 관련 활동」, 『동방학지』 13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박희병, 「한국 한문학에 있어 '傳'과 '소설'의 관계양상」,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회, 1989. (박희병,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171~188쪽 수록)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 『韓國古典人物傳硏究』, 한길사, 1992, 187~275쪽.
배미정, 「朝鮮 後期 尺牘文學의 流行과 그 背景 -申靖夏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배현진, 「明末 蘇州지역의 개인 書畵 收藏이 畵壇에 미친 영향」, 『동양예술』 16, 한국동양예술학회, 2011.
변희욱, 「大慧 看話禪의 破邪顯正」, 『韓國禪學』 15, 한국선학회, 2006.
서대석, 「허균 문학의 연구사적 비판」, 김동욱 편 『허균 연구』, 새문사, 1981.
서신혜, 「묘향산의 도교문화적 특징과 양상」, 『도교문화연구』 22, 한국도교문화학회.
소재영, 「허균의 생애와 문학」, 김동욱 편, 『허균 연구』, 새문사, 1981.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송경애, 「명대 후기 문인들의 養生文化 연구-高濂의 『遵生八牋』와 李漁의 『閑情偶寄』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7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2.
송신가, 「허균 『閒情錄』의 연구-명대 『小窓淸記』 청언소품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송웅섭, 「조선 전기 청요직(淸要職)의 위상과 인사이동 양상」,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017,
송재소, 「허균의 사상사적 위치」, 김동욱 편, 『허균 연구』, 새문사, 1981.
스트릭맨(Michel Strickmann), 윤찬원 역, 「도홍경(陶弘景)의 연단술」, 『도교의 세계: 철학, 과학, 그리고 종교』, 사회평론, 2001, 189~277.
신승운, 「「惺所覆瓿藁」의 書誌的 硏究」, 『圖書館學』 2, 강남대학교 도서관학과, 1984.
신승훈,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기 문학이론의 다변화 양상 : 유몽인·이수광·신흠·허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신영주, 「양란 이후 문예취미의 분화와 그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31, 동방한문학회, 2006.
신영주, 「17세기 문인들의 趣의 구현과 서화금석에 대한 관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신향림, 「許筠의 陽明左派 수용에 대한 再論 -『乙丙朝天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8, 한국한문학회, 2017.
심경호, 「한국 한문산문의 발달과 韓愈 문장의 수용」, 『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2004.
심경호, 「한국 한문산문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64, 한국한문학회,

2016.
심경호, 「허균의 기행시집 『을병조천록』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학회, 2019.
심경호, 「조선후기 한문산문에 나타난 허환과 실재의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24, 한국한문학회, 1999.
심규식, 「광해군 시대 관각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심재우, 「수령의 대민지배와 재지사족」,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2000, 아카넷, 119~139쪽.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國史館論叢』 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안나미, 「17세기초 公安派 문인과 朝鮮 문인의 교유 -丘坦과 許筠, 李廷龜의 관계 양상-」,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안나미, 「17세기 전후 韓中 문학교류 연구 -晩明 文學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안나미, 「허균의 「도문대작(屠門大嚼)」에 대한 고찰 -만명 유행 현상과 관련하여」, 『한문학논집』 50, 근역한문학회, 2018.
안대회, 「18 · 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조선 후기 산문가의 記文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안대회, 「조선 중후기 청언소품의 향유와 창작」, 『한국한문학연구』 59, 한국한문학회, 2015.
안대회, 「동아시아 청언소품의 전파와 향유」, 『민족문학사연구』 7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안대회, 「北學派 文人의 作品에 나타난 諧謔과 弄談의 분석」, 『한국한문학연구』 67, 한국한문학회, 2017.
안득용, 「16세기 후반~17세기 후반 산문의 구도와 전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안득용, 「議論 散文을 통해 본 16·17세기 문학과 사회- 議題와 글쓰기의 특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안득용, 「「도문대작(屠門大嚼)」의 성격과 성립 배경에 대한 시론(試論)」, 『이화어문논집』 49, 이화어문학회, 2019.
안세현, 「조선중기 누정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안세현,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權燮(1671-1759) 夢記와 柳慶種(1714-1784)의 意園誌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7, 한문고전연구학회, 2013.

안휘준,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1418~1453))의 인물됨과 문화적 기여」, 『美術史學硏究』 300, 한국미술사학회, 2018.
양승목, 「朝鮮後期 夢記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염정섭, 「18~19세기 조선의 '節飮食' 담론과 '飽食逸居'`의 실제」, 『농업사연구』 15, 한국농업사학회, 2016.
오승희, 「明代 狂態邪學派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우인수, 「조선후기 北邊地域 기생의 생활 양태」, 『역사와 경계』 48, 부산경남사학회, 2003.
원주용, 「雙梅堂 李詹의 散文에 관한 考察」, 『漢文學報』 19, 우리한문학회, 2008.
유미나, 「朝鮮 中期 吳派畫風의 전래 -《千古最盛》帖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005.3, 한굴미술사학회, 2005.
유춘동, 「『수호전』 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 『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유호진, 「許筠의 艶情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44, 한국한문학회, 2009.
윤정분, 「明末(16~17세기) 문인문화와 소비문화의 형성」, 『明淸史硏究』 23, 명청사학회, 2005.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중시 급제자 연구」, 『역사와 실학』 39, 역사실학회, 2009,
이강범, 「郭林宗과 淸談의 시작, 그리고 그의 思想」, 『중국어문학논집』 41, 중국어문학연구회, 41, 2006.
이강옥, 「朝鮮中期의 道仙的 경향과 許筠의 文學 -夢記 및 세 편의 「傳」에 나타난 時間·空間設定을 中心으로」, 『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9.
이강옥, 「초기 야담집 『학산한언』의 서사지향 연구 -현실지향과 비현실지향」,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이규운, 「許筠의 文章論과 그 구현 양상」,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이능우, 「許筠論」, 『論文集』 5, 숙명여자대학교, 1965.
이민주, 「玉所 權燮의 鶴氅衣에 대한 연구 -『玉所稿』 소재 학창의 관계자료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2), 服飾文化學會, 2005.
이성원, 「魏晉士大夫의 淸談 문화와 '有志'論 —嵇康의 『家誡』를 中心으로 —」, 『국제중국학연구』 67, 한국중국학회, 2013.
이성임,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妓女의 立役과 運用」,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이숙인, 「18세기 조선의 음식 담론」, 『한국실학연구』 28, 한국실학학회, 2014.
이신성, 「『鑑湖集』 所載 '神仙傳' 小考」, 『한국 고소설의 자료와 해석』, 아세아문화사, 2001, 151~190쪽.
이연진, 「조선시대 월과문신(月課文臣) 관련 규정 변화 연구」, 『교육연구논총』 41,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이영희, 「조선전기 의장기(儀仗旗) 디자인의 상징성(象徵性)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47,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회, 2014.
이용주, 「神仙可學: 갈홍 신선론의 논리와 한계」, 『종교와 문화』 6,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0.
이월령, 「許筠의 夢記類 硏究」, 『국어문학』 29, 국어문학회, 1994.
이윤석, 「홍길동전 작자 논의의 계보」,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이종묵, 「버클리대학본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39, 태학사, 2007.
이종묵, 「17-18세기 中國에 전해진 朝鮮의 漢詩」, 『한국문화』 4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이종묵, 「중국 皇室로 간 여인을 노래한 宮詞」, 『古典文學硏究』 40, 고전문학회, 2011.
이종묵, 「황화수창의 공간」, 『장서각』 47,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이종호, 「허균 문예사상의 좌파양명학 성향」(Ⅰ), 『韓國思想과 文化』 1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이종호, 「허균 문예사상의 좌파양명학 성향」(Ⅱ), 『韓國思想과 文化』 1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이주해, 「송대 사대부들의 새로운 감성 표출 양식 -筆記에 관한 試論」, 『외국학연구』 28,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4.
이주현, 「원굉도의 자아 찾기, '한적(閑適)'의 추구와 실천」, 『중국어문학지』 59, 중국어문학회, 2017.
이지영, 「「성소부부고」에 나타난 허균의 민간전승에 대한 관심과 그 의의」, 『고전문학연구』 1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이진용, 「葛洪 『抱朴子內篇』과 『神仙傳』의 神仙사상 연구」, 『철학논총』 45, 새한철학회, 2006.
이창숙, 「규장각 소장 『옥호빙』」, 『규장각 소장 중국 도서 선본 정리 및 해제 연구』, 261~265쪽, 2010.

이창헌, 「허균 연보의 재검토」, 『仁濟論叢』 14(2), 인제대학교, 1998.
이철희, 「『난설헌시집』 수록 산문 2편의 저자 및 저작 시기에 대한 검토」, 『동양한문학연구』 58, 동양한문학회, 2021.
이혜순, 「『水滸傳』 板本考」, 『중국문학』 14, 한국중국학회, 1973.
이희중, 「조선 중기 서인계 '문장가'의 활동과 고문론의 전개」, 『한국사론』 3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6.
임미정, 「許筠 編著의 現況과 課題」, 『語文硏究』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임미정, 「『성소부부고』 이본 연구」, 『語文論集』 82, 중앙어문학회, 2020.
임상훈, 「明初 朝鮮 貢女 親族의 政治的 成長과 對明外交活動」, 『明淸史硏究』 39, 명청사학회, 2013.
임형택, 「許筠의 文藝思想」, 『韓國文學史의 視覺』, 創作과批評社, 1984.
임형택, 「李朝末 知識人의 分化와 文學의 戱作化 傾向」, 『전환기의 동아시아문학』, 創作과 批評社, 1985, 11~54쪽.
장유승, 「전후칠자 수용과 진한고문파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문학논집』 36, 근역한문학회, 2013.
장유승, 「조선후기 문집 간행 및 유통 양상 재고」, 『국문학연구』 43, 국문학회, 2021.
장진성, 「조선 후기 미술과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조선 후기 고동서화(古董書畵) 수집 및 감상 현상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009.
장진엽, 「계곡 장유의 논설류 산문 연구」, 『한문학보』 45, 우리한문학회, 2021.
전상모, 「교산 허균 서화취향의 도교적 경향성」, 『미술문화연구』 6, 동서미술문화학회, 2015.
정규식,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의 서사 구조와 작가 의식」, 『용봉인문논총』 58,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정길수, 「허균(許筠) 문집(文集)번역과 한문 고전 번역의 몇 가지 문제」, 『고시가연구』 30, 2012.
정길수, 「허균의 사상전환-을병조천록에 담긴 허균 만년의 생각」, 『한국문화』 6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정길수, 「허균 문학론의 모순과 일관 – 왕세정 혹은 의고문파 문학론과의 연관-」, 『한국한문학연구』 51, 한국한문학회, 2013.
정민, 「16,7세기 遊仙詩의 자료개관과 출현동인」, 『한국 도교사상의 이해』, 아세아문화사, 1990, 99~131쪽.
정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 22, 한

국고전문학회, 2002.
정민, 「비기(祕記)의 문화사, 허균의 동국명산동천주해기」,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267~316쪽.
丁生花, 「朱之蕃의 문학 활동과 한중 문화 교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정석범, 「명말 曾鯨양식의 형성과 문인적 미의식」, 『미술사학연구』 269, 한국미술사학회, 2011.
鄭宣景, 「〈太平廣記〉 神仙故事의 時空間性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정세진, 「明代 食譜 『遵生八箋·飮饌服食箋·脯鮓類』에 대한 기초적 탐색」, 『인문학연구』 6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정솔미, 「한국 문헌소재 귀신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정솔미, 「신자료 백영본 『기사주(記事珠)』에 대하여 -소설어록해와 『동국명산동천주해기』 수록 양상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7, 국문학회, 2023.
정순모, 「唐代 士人의 隱居 觀念과 그 變遷」, 『中國學報』 45, 한국중국학회, 2002.
정순모, 「王維의 隱居生活과 輞川莊」, 『中國學報』 91, 한국중국학회, 2020.
정연식, 「조선시대 妓役의 실체」, 『國史館論叢』 105, 국사편찬위원회, 2005.
정진걸, 「隱居의 政治學 -《史記》에 보이는 隱居를 대상으로」, 『中國文學』 84, 한국중국어문학회, 2015.
정호훈, 「허균의 학풍과 정치이념」, 『한국사상사학』 21, 한국사상사학회, 2003.
정훈, 「李睟光의 遊仙詩와 꿈의 관련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51, 한국언어문학회, 2003.
조송식,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서유구(徐有榘) 예술론의 체계성과 특징」, 『美學』 82(3), 한국미학회, 2016.
진재교, 「조선조 후기 文藝 공간에서의 王世貞」, 『한국한문학연구』 54, 한국한문학회, 2014.
차미애, 「海南 綠雨堂 소장 筆寫本 『管窺輯要』의 考察」, 『역사학연구』 31, 호남사학회, 2007.
최석기, 「망우당 곽재우의 절의정신」, 『남명학연구』 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6.
최석원, 「행락(行樂)과 삼교합일(三教合一)의 초상: 증경이 그린 오몽양, 왕시민, 옹덕홍」, 『미술사와 시각문화』 22,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8.
최석원, 「교유와 합작: 동기창과 진계유 집단 그리고 증경과 항성모의 초상 제작

」,『미술사와 시각문화』 26,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0.
최수빈, 「도교에서 바라보는 저세상」, 『道教文化研究』 41,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최수빈, 「자기와 세계 초월자로서의 신선의 이상: 『포박자』의 신선사상에 나타난 초월과 금욕주의」, 한국도가도교학회 편, 『포박자연구』, 2016, 205~252쪽.
최승희, 「朝鮮時代 兩班의 代加制」,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최종석, 「조선시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 -高麗 이래 질서와 '時王之制' 사이의 길항의 관점에서」, 『한국사연구』 143, 한국사연구회, 2008.
최종석, 「조선전기 淫祀的 城隍祭의 양상과 그 성격」, 『역사학보』 204, 역사학회, 2009.
하지영, 「陸用鼎의 記夢 연작 연구」,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하지영, 「王世貞과 조선 중·후기 한문 산문」, 『한국한문학연구』 57, 한국한문학회, 2018.
하지영, 「18-19세기 꿈의 형상화와 자기표현 방식 -記夢류 산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한명기, 「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政局의 動向」, 『한국사론』 2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8.
한명기, 「光海君의 즉위 환경과 明의 존재」, 『明淸史研究』 56, 명청사학회, 2021,
한영규, 「'한적(閑寂)'의 선망과 『한정록(閒情錄)』」, 『문헌과해석』 19, 문헌과해석사, 2002.
한영규, 「『송천필담』의 明代 淸言 수용 양상」, 『한국학』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허경진, 「『조선시선(朝鮮詩選』이 편집되고 조선에 소개된 과정」, 『아세아문화연구』 6,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허경진, 「『매창집』에 관련된 인물과 창작 시기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40, 한국한문학회, 2007.
홍진임, 「『遵生八牋 · 飮饌服食牋』의 食治에 관한 硏究」, 대전대학교 박사논문, 2015.

***국외논저**

佐藤義寛,「『列仙全傳』研究」1,『文藝論叢』59, 大谷大學文藝研究會, 2002.
大木康,『明清江南社會文化史研究』,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2020.
內山知也,『明代文人論』, 木耳社, 2006.

郭预衡,『中国散文史』下, 上海古籍出版社, 2002.
陶子珍,『明代詞選研究』, 秀威資訊科技, 2003.
廖可斌,『明代文学复古运动研究』, 商务印书馆, 2008.
杨万里,「关于《草堂诗余》的编者」,『文献』, 1999(3).
熊礼汇,『明清散文流派论』, 武汉大学出版社, 2004.
魏世民,「《列仙全传》作者考」,『明清小说研究』总第109期, 2013.
張伯偉,『日本世說新語註釋集成』1, 鳳凰出版社, 2019.
蒋鹏举,『复古与求真: 李攀龙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8.
郑利华,『王世贞研究』, 学林出版社, 2002.
鄭幸雅, 「召喚經典: 何良俊《語林》對《世說新語》體裁的因創」, 『文學新鑰』 10期, 2009.
赵树功,『中国尺牍文学史』, 河北人民出版社, 1998.

Allen, Sarah M. "Tales Retold: Narrative Variation in a Tang Sto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6, no. 1 (2006): 105–43.
Berg, Daria. "Cultural Discourse on Xue Susu, a Courtesan in Late Ming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6, no. 2 (2009): 171-200.
Berg, Daria. "Writing goddess: Virgin, venerators, literary vogues," in *Women and the Literary World in Early Modern China, 1580-1700*, New York: Routledge, 2013, pp.28-52.
Chen, Jack W. "Knowing Men Being Known: Gossip and Social Networks in the *Shishuo Xinyu*" in *Idle Talk: Gossip and Anecdote in Tradition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pp.55~70.
Chiang, Sing-chen Lydia. "Daoist Transcendence and Tang Literati Identities in 'Records of Mysterious Anomalies' by Niu Sengru (780-848)."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CLEAR)* 29 (2007): 1–21.

Choi, Seokwon. “Fashioning the Reclusive Persona: Zeng Jing’s Informal Portraits of the Jiangnan Literati.”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2016, pp. 1-276.

Clifford, Timothy. “Visualizing Alternative Literary Canons in Ming Dynasty China (1368–1644): A Preliminary Case Study.”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and Culture* (2018) 5 (2): 375–410.

Clunas, Craig. *Superfluous Things :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Gallagher, Catherine. “The rise of fictionality.” *The novel 1*. Edited by Franco Moretti,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336-363.

Goodrich, L. Carrington and Fang Chao-ying, eds.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1368-1644*. 2 vol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Greenblatt, Stephen.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2005 reprinted)

Judge, Joan and Ying Hu, *Beyond Exemplar Tales: Women’s Biography in Chinese History.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Justice, Steven. “Did the Middle Ages Believe in Their Miracles?” *Representations* 103(1) (Summer 2008): 1-29.

Kádár, Dániel Z. “Relational Ritual Politeness and Self-display in Historical Chinese Letters,”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 72(2), 2019, 207-227.

Kafalas, Philip A. “Weighty Matters, Weightless Form - Politics and the Late Ming Xiaopin writer,” *Ming Studies* 39 (1998):50-85.

Karnes, Michelle. “The possibilities of medieval fiction.” *New Literary History* 51(1) (2020): 209-228.

Kim, Youngmin and Youngyeon Kim, “Confucianism in Korea: Chosŏn Dynasty,” *The Oxford Handbook of Confucia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pp.297-311.

Knechtges, David R. “Chapter 5. Letters in the Wen Xuan,” in *A*

History of Chinese Letters and Epistolary Culture, Brill, 2015.

Li, Wai-Yee. "The Idea of Authority in the *Shih Chi* (*Records of the Historia*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54, no. 2* (1994): 345-405.

Li, Wai-Yee. "The Collector, the Connoisseur, and Late-Ming Sensibility." *T'oung Pao, Second Series*, 81, no. 4/5 (1995): 269-302.

Li, Wai-Yee. "2. The Late Ming Courtesan: Invention of a Cultural Ideal," in *Writing Women in Late Imperial China*. Edited by Ellen Widmer and Kang-i Sun Cha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Li, Wai-yee. "On Becoming a Fish: Paradoxes of Immortality and Enlightenment in Chinese Literature," in *Self and Self-Transformation in the History of Religions*, edited by David Shulman and Guy Stroumsa.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29-59.

Li, Wai-yee. "*Shishuo xinyu* and the Emergence of Aesthetic Self." in *Chinese Aesthetics: The Ordering of Literature, the Arts, and the Universe in Six Dynasties*. edited by Zongqi Ca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237~276.

Li, Wai-yee. "Gardens and Illusions from Late Ming to Early Qing,"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ume 72, Number 2 (Dec.2012), pp. 295-336.

Lu, Tina. "The literary culture of the late Ming (1573-1644)."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edited by Kang-i Sun Chang and Stephen Ow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63-151.

Nelson, Susan E. "Tao Yuanming's Sashes: Or, the Gendering of Immortality." *Ars Orientalis* 29 (1999): 1-27.

Norton, Glyn P. "Theories of Prose fiction in sixteenth-century France," in *The Cambridge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vol.3*. Edited by Glyn P. Nort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305-313.

Orlemanski, Julie. “Who Has Fiction? Modernity, Fictionality, and the Middle Ages.” *New Literary History* 50(2) (2019): 145-170.

Owen, Stephen. *The End of the Chinese ‘Middle Ages’ Essays in Mid-Tang Literary Cul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ark, J. P. *Art by the book : painting manuals and the leisure life in late Ming China*. Seattle [Wash.]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2.

Pattinson, David., “The Market for Letter Collection in Seventeenth-Century China,”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28 (Dec.2006), pp.125-157.

Pregadio, Fabrizio, *The Encyclopedia of Taoism*, New York: Routledge, 2008.

Qian, Nanxiu. *Spirit and Self in Medieval China: The Shih-Shuo Hsin-Yu and Its Legac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Richter, Antje. “Beyond Calligraphy: Reading Wang Xizhi's Letters,” T'oung Pao 96(2011): 382-383.

Rouzer, Paul. *Articulated Ladies: Gender and the Male Community in Early Chinese Texts*. Cambridge, Mass.: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1.

Salzman, Paul. “Theories of Prose fiction in England: 1558-1700,” in *The Cambridge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vol.3*. Edited by Glyn P. Nort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295-304.

Shields, Anna M. “Chapter 18. The Inscription of Emotion in Mid-Tang Collegial Letters,” in A History of Chinese Letters and Epistolary Culture, Brill, 2015, pp.675-720.

Sommer, Deborah. “Destroying Confucius: Iconoclasm in the Confucian Temple.” In *On Sacred Grounds: Culture, Society, Politics, and the Formation of the Cult of Confucius*. Edited by Thomas A. Wils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2.

Struve, Lynn A. *The Dreaming Mind and the End of the Ming World*,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9.

Swartz, Wendy. *Reading Tao Yuanming : Shifting Paradigms of Historical Reception (427-1900)*.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Swislocki, Mark. *Culinary Nostalgia: Regional Food Culture and the Urban Experience in Shanghai*.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Tang, Yiming. "The Voices of Wei-Jin Scholars: A Study of Qingtan." Columbia University, Ph.D. diss. 1991.

Tian, Xiaofei. *The Halberd at Red Cliff: Jian'an and the Three Kingdom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8.

Vance, Brigid E. Textualizing Dreams in a Late Ming Dream Encyclopedia.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2012.

Varsano, Paula M. *Tracking the Banished Immortal: The Poetry of Li Bo and Its Critical Recep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3.

Vinograd, Richard. *Boundaries of the Self: Chinese Portraits, 1600-1900*. Cambridge [Engl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Waltner, Ann. "T'an-yang-tzu and Wang Shih-chen: Visionary and Bureaucrat in Late Ming China." *Late Imperial China* 8.1 (1987): 105–33.

Waltner, Ann. "Remembering the Lady Wei: Eulogy and Commemoration in Ming Dynasty China." *Ming Studies* 55 (2007): 75-103.

Waltner, Ann. "Life and Letters: Reflections on Tanyangzi." in *Beyond Exemplar Tales: Women's Biography in Chinese History*. Edited by Joan Judge and Hu Ying.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pp.212-229.

Xu, Sufeng. "The Courtesan as Famous Scholar: The Case of Wang Wei (ca. 1598-ca. 1647)," *T'oung Pao* 105, no. 5-6 (2020): 587-630.

Zeitlin, Judith. *Historian of the Strange : Pu Songling and the Chinese*

Classical Ta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Zurndorfer, Harriet T. "Prostitutes and Courtesans in the Confucian Moral Universe of Late Ming China (1550-1644),"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56, no. S19 (2011): 197-216.

Abstract

Peacefulness and Immortality in Hŏ Kyun's Prose

Kim, Youngye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key characteristics of Hŏ Kyun's (許筠, 1569~1618) prose and thereby discover his authorial identity.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Chosŏn witnessed mature private prose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public prose. Notably, Hŏ Kyun's abilities as a writer of private prose are acknowledged, making his prose works the primary focus of this study. Specifically, this paper aims to address how Hŏ Kyun's prose collections can encompass both themes of worldly subjects and highly otherworldly subjects, and how they coexist.

The paper comprises three main sections: an examination of the background of Hŏ Kyun's prose, an analysis of the aesthetics of peacefulness (閒情) and the expression of literati consciousness, and an exploration of his pursuit of the theme of immortality (仙趣) and awareness of his literary identity.

The study of the background of Hŏ Kyun's prose is approached from three directions. First, it investigates whether each work included in Hŏ Kyun's self-compiled manuscript, "*Sŏngso Bubugo*" (惺所覆瓿藁), can be

attributed to him. Furthermore, discussions regarding other works attributed to him are organized and examined, leading to the narrowing down of the research focus to the essays included in "*Sŏngso Bubugo*."

Next, it examines the period between 1600 and 1611 when most of the prose works in "*Sŏngso Bubugo*" were written. During this period, Hŏ Kyun's essay style appeared to have undergone a transformation, coinciding with the beginning of King Kwanghae's reign, which was related to his views on his bureaucratic career. It is suggested that Hŏ Kyun's aspirations were severely dashed after King Kwanghae's ascension, and, as a result, he sought to find solace and recognition through literary achievements.

Additionally, the paper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the encounter with Zhu Zhifan (朱之蕃) and the admiration for the works of Wang Shizhen (王世貞) in shaping Hŏ Kyun's literary style. Furthermore, his affection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Jiangnan region (江南) during the Ming Dynasty is considered crucial in defining his literary identity.

Based on these preliminary discussions, this paper proceeds to analyze Hŏ Kyun's essays, considering the trajectory of his life. Throughout his essays, Hŏ Kyun consistently pursues the aesthetics of peacefulness, which becomes apparen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However, after 1608, the theme of immortality gains prominence, and his interest in supernatural stories intensifies. Here, "peacefulness" is seen as an aesthetic pursuit of a secluded life by literati, while "immortality" refers to the author's inclination to represent a transcendental world related to the supernatural.

The aesthetics of peacefulness are most evident in Hŏ Kyun's letters (Chidu 尺牘). These letters reflect a carefree lifestyle pursued independently of officialdom, a tranquil state of mind, and an aspiration for an elegant way of life. Notably, Hŏ Kyun redefines "peacefulness" as a life devoted to one's true nature, emphasizing its internal aspects. Additionally, similar to the "pure conversation" (qingtan 清淡) observed in the debates and competitions of the literati in "*A New Account of the Tales of the World*" (*Shishuo Xinyu*, 世說新語), Hŏ Kyun's essays contain expressions of rustic simplicity within concise sentences.

Moreover, Hŏ Kyun adopts the perspective of observing individuals

through their external aspect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noisseurship in calligraphy and painting. Engagement in connoisseurship became one of the core elements of elite identity in the literati society of the Jiangnan region during the Ming Dynasty, aligning with Hŏ Kyun's desire to demonstrate his excellence. Furthermore, Hŏ Kyun focuses on elevating ordinary life into an artistic activity, such as elevating the realms of culinary delights and the allure of women through his essays.

The paper then proceeds to examine works dealing with supernatural subjects, categorizing them into two groups: dream-record essays (夢記) and essays on stories of immortals (神仙). Regarding Hŏ Kyun's dream-record essays, it is crucial to consider the historicity of their fictionality. The paper argues that fictional elements in Hŏ Kyun's essays fall within the realm of "semi-truth," representing a distinctive literary product of seventeenth century Chosŏn.

Finally, the paper discusses how essays based on mystical experiences possess a performative dimension that targets playful effects through performative utterances. Additionally, in his essays on immortal stories, Hŏ Kyun showcases his excellent writing skills and highlights his outstanding taste by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the hierarchies of this world and the otherworld.

In conclusion, the aesthetics of "peacefulness" form a prevalent theme throughout Hŏ Kyun's prose works, while his inclination towards the theme of "immortality" provides a variation in his literary writing. Hŏ Kyun's prose emerges from his desire to alleviate his frustration with the bureaucratic system through literary writing. He accomplished this by drawing inspiration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aesthetics of "A *New Account of the Tales of the World*," which encapsulates the literary traditions of southern China, as well as by incorporating diverse idioms and imaginative elements from works like Daoist references. By utilizing these resources, he expanded the reference points for his creative endeavors and revealed his belief in his refined taste. Consequently, he broadened the horizons of private prose works during this period, both in terms of themes and expressive forms.

keywords : Hŏ Kyun(許筠), *Sŏngo Bubugo*(惺所覆瓿藁), peacefulness, *A New Account of the Tales of the World* (*Shishuo Xinyu*, 世說新語), immortality, fictionality

Student Number : 2014-30003